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

| 83 ~ 84 |

2021

〈 일러두기 〉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 : 경도 124~126은 서부원점, 126~128은 중부원점, 128~130은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3~1/6, 철기·석기 1/1~1/3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cm 미만을 세사립, 0.1~0.2cm는 사립, 0.3~0.4cm는 세석립, 0.5cm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여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지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하부, 우측 상·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監修, 財團法人 日本色彩研究所 色票監修, 『新版 標準土色帖』, 2007”, “Albert H. Munsell, 『MUNSELL SOIL COLORCHARTS』,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문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58개 유적을 조사완료일별로 묶은 분책으로 총 29책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별로 수록 목록을 보고서 마지막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목 차

83. 제주 화순리 522번지 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83-1
8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한국문화유산연구원)	84-1

Ⅲ. 조사보고

83. 제주 화순리 522번지 유적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일러두기 〉

1. 이 보고서는 제주 화순리 522번지 종균배양실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2. 유구도면의 방향표시는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층도 및 유구 입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이다.
4.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1/40이며 개별 스케일을 포함하였다.
5. 유물도면의 축소비율은 1/2, 1/3로 축소 편집하였으며 개별 스케일을 포함하였다.
6. 유물의 일련번호는 본문, 도면, 도판이 일치한다.
7.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문화재청 고시 제2011-52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발굴조사 보고서)30조②항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목 차

I. 머리말	83-11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83-13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83-13
2. 고고학적 환경	83-16
3. 화순리 마을의 역사적 배경	83-22
III. 조사방법 및 층위	83-28
1. 조사방법	83-28
2. 층위	83-29
IV. 조사내용	83-30
1) 주거지	83-32
2) 수혈유구	83-39
3) 불다짐유구	83-75
4) 소토유구	83-77
5) 주혈	83-77
6) 유물포함층	83-78
V. 맺음말	83-82
도판	83-93
부록	83-137
- 자문위원 의견서	83-139
- AMS 측정결과	83-141
- 출토유물목록	83-155
- 초록	83-159

도면목차

도면 1.	유적 분포지형도(흙토람(http://soil.rda.go.kr) 참고)	83-14
도면 2.	유적 퇴적양식도(흙토람(http://soil.rda.go.kr) 참고)	83-14
도면 3.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고)	83-18
도면 4.	유적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고)	83-20
도면 5.	유적 내 유구배치도	83-30
도면 6.	유적 수치지적도	83-31
도면 7.	1호 주거지 평·단면도	83-32
도면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1~4)	83-33
도면 9.	2호 주거지 평·단면도	83-35
도면 10.	2호 주거지 출토유물(5~7)	83-36
도면 11.	3호 주거지 평·단면도	83-37
도면 12.	3호 주거지 출토유물(8~12)	83-38
도면 13.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39
도면 14.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13~26)	83-43
도면 15.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27~30)	83-44
도면 16.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5
도면 17.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1)	83-45
도면 18.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5
도면 19.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6
도면 20.	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2~34)	83-47
도면 21.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7
도면 22.	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8
도면 23.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8
도면 24.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8
도면 25.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49
도면 26.	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5)	83-49
도면 27.	1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50
도면 28.	1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50
도면 29.	1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50
도면 30.	1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6)	83-51
도면 31.	1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51
도면 32.	1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52

도면 33. 1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7)	83-52
도면 34. 15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2
도면 35. 15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8)	83-53
도면 36. 16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3
도면 37. 1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9~42)	83-54
도면 38. 17호 · 18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5
도면 39. 18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3)	83-55
도면 40. 19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6
도면 41. 20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6
도면 42. 21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6
도면 43. 22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7
도면 44. 23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7
도면 45. 24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7
도면 46. 25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8
도면 47. 26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58
도면 48. 2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4~49)	83-60
도면 49. 27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1
도면 50. 28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1
도면 51. 29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1
도면 52. 30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2
도면 53. 31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2
도면 54. 32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2
도면 55. 3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0 · 51)	83-63
도면 56. 33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4
도면 57. 34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4
도면 58. 35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4
도면 59. 36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5
도면 60. 37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5
도면 61. 3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2~61)	83-68
도면 62. 38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9
도면 63. 39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9
도면 64. 40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69
도면 65. 41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70
도면 66. 4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2~64)	83-71
도면 67. 42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83-71

도면 68. 4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5)	83-72
도면 69. 4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72
도면 70. 4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6~69)	83-73
도면 71. 4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74
도면 72. 4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3-74
도면 73. 1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83-75
도면 74. 2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83-75
도면 75. 3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83-75
도면 76. 3호 불다짐유구 출토유물(70)	83-76
도면 77. 4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83-76
도면 78. 5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83-76
도면 79. 1호 소토유구 평·단면도	83-77
도면 80. 주혈 출토유물(71)	83-77
도면 81. 유물포함층 출토유물(72~77)	83-79
도면 82. 유물포함층 출토유물(78~80)	83-81

도 판 목 차

도판 1. ① 조사대상지 원경(동→서), ② 조사대상지 전경	83-95
도판 2. 1호 주거지(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④ 북서측 내부주혈, ⑤ 남동측 내부주혈)	83-96
도판 3. 2호 주거지(① 조사 중, ② 조사 중 세부, ③ 토층, ④ 석벽세부, ⑤ 타원형 수혈 토층, ⑥ 출토유물, ⑦ 조사 후)	83-97
도판 4. 3호 주거지(① 조사 중, ② 조사 중 세부, ③ 출토유물, ④ 토층, ⑤ 조사 완료)	83-98
도판 5. 1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출토유물, ③ 토층, ④ 출토유물, ⑤ 2차 조사 중, ⑥ 조사 완료)	83-99
도판 6. 2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00
도판 7. 4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5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01
도판 8. 6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7호 수혈유구(④ 조사 전, 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2차 조사 중 세부, ⑧ 조사 완료)	83-102

도판 9.	8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9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출토유물, ⑧ 조사 완료)	83-103
도판 10.	10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11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04
도판 11.	12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13호 수혈유구 (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내부주혈 토층, ⑧ 2차 조사 중, ⑨ 조사 완료)	83-105
도판 12.	14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1차 조사중 세부, ④ 2차 조사 중, ⑤ 조사 완료)	83-106
도판 13.	15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2차 조사중, ④ 조사 완료), 16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07
도판 14.	17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18호 수혈유구 (④ 조사 전, 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83-108
도판 15.	19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1차 조사 중, ③ 2차 조사 중, ④ 토층, ⑤ 조사 완료)	83-109
도판 16.	20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21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조사 완료, ⑧ 세부)	83-110
도판 17.	22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23호 수혈유구(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2차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83-111
도판 18.	24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25호 수혈유구 (④ 조사 전, 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2차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83-112
도판 19.	26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1차 조사 중, ③ 2차 조사 중, ④ 1차 조사 중 세부, ⑤ 토층, ⑥ 조사 완료)	83-113
도판 20.	27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28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83-114
도판 21.	29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0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15
도판 22.	31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2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출토유물, ⑧ 조사 완료)	83-116
도판 23.	33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2차 조사 중, ④ 조사 완료), 34호 수혈유구 (⑤ 1차 조사 중, ⑥ 2차 조사 중, ⑦ 내부주혈 조사 중, ⑧ 조사완료)	83-117
도판 24.	35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36호 수혈유구 (④ 1차 조사 중, ⑤ 토층, ⑥ 2차 조사 중,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83-118
도판 25.	37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출토유물, ③ 토층, ④ 세부, ⑤ 세부, ⑥ 세부, ⑦ 2차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83-119
도판 26.	38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9호 수혈유구 (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20

도판 27.	40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41호 수혈유구 (④ 1차 조사 중, ⑤ 2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출토유물, ⑧ 조사 완료)	83-121
도판 28.	42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43호 수혈유구(④ 1차 조사 중, ⑤ 토층, ⑥ 2차 조사 중,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83-122
도판 29.	44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45호 수혈유구 (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83-123
도판 30.	1호 불다짐유구 (① 조사 전, ② 세부, ③ 조사 중, ④ 토층), 2호 불다짐유구 (⑤ 조사 중, ⑥ 세부, ⑦ 토층, ⑧ 토층)	83-124
도판 31.	3호 불다짐유구 (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세부), 4호 불다짐유구 (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세부)	83-125
도판 32.	5호 불다짐유구 (① 조사 전, ② 세부, ③ 토층, ④ 세부), 1호 소토유구 (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83-126
도판 33.	① 유물포함층 전경, ② 발굴조사 전경	83-127
도판 34.	발굴조사 자문위원 회의 전경(①, ②)	83-128
도판 35.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4), 2호 주거지출토유물 (5~7), 3호 주거지 출토유물 (8~12),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13~16)	83-129
도판 36.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17~30),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1), 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2~34)	83-130
도판 37.	9호수혈유구 출토유물 (35), 1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6), 1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7), 15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8), 1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9~42), 18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43), 2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44~49)	83-131
도판 38.	3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50 51), 3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52~61)	83-132
도판 39.	4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62~64), 4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65), 4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66~69), 3호 불다짐유구 출토유물(70), 주혈 출토유물 (71)	83-133
도판 40.	유물포함층 출토유물 (72~79)	83-134
도판 41.	유물포함층 출토유물 (80)	83-135

사 진 목 차

사진 1.	유적 위성사진(Naver 위성지도 참고)	83-15
사진 2.	유적 원경(동에서)	83-28
사진 3.	유적 북벽 토층상태	83-29

삽도목차

삽도 1.	유적 고지형도(일제강점기 大正7年-1918년- 제작 발간)	83-26
삽도 2.	화순리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일괄	83-87
삽도 3.	타원형구덩이 형식분류 모식도(김경주 2009 분류 안 참고)	83-90

표목차

표 1.	주거지 현황표[()은 잔존길이]	83-83
표 2.	수혈유구 현황표[()은 잔존길이]	83-83
표 3.	불다짐유구 현황표[()은 잔존길이]	83-85
표 4.	소토유구 현황표	83-85
표 5.	유물포함층 현황표	83-85
표 6.	유구별 출토유물 분류	83-86
표 7.	화순리 522번지 유적 AMS연대 측정표	83-91

도표목차

도표 1.	화순리 유적 출토 토기 구연부 분류	83-88
-------	---------------------	-------

I. 머리말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상 '화순리 유물산포지'에 위치하며 유적과 인접한 남쪽에 대규모 화순리 취락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화순리 일대는 화순리 유적(2005)이 발굴조사 된 후 현재까지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어 있는 제주도 서남부지역의 최대 취락유적이 위치한 곳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조사성과 및 지표상의 현황을 볼 때 금번 사업부지에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서귀포시 문화예술과-27855(2018.10.18.)호].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소규모국비지원 신청을 하였고 한국문화재단과 본 연구소가 계약을 맺은 후 문화재청의 허가(제2019-0014호)를 받아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어 변경허가 후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방형주거지 1동, 원형주거지 2동, 수혈유구 45기, 불다짐유구 5기, 소토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갈판 등의 석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면적은 1,423㎡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¹⁾에 따라 소규모 발굴지원 사업에 해당되며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8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로 현장조사일수는 25일이다.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 사 단 장 : 강창화(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박근태(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조 사 원 : 김봉찬(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전우주(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보 조 원 : 김주희 · 현예지 · 문선미(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자 문 위 원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현장조사는 박근태의 책임 하에 김봉찬, 전우주, 김주희, 현예지, 문선미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 김경주, 이종철 선생님이 유적의 진행과 처리방향 등에 대해 자문해 주셨다.

보고서의 발간작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편집 및 기획은 김봉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각 장별 세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2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구분

I. 머리말 : 김봉찬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 김봉찬
2. 고고학적 환경 : 김봉찬
3. 화순리 마을의 역사적 배경 : 고창석(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소장)

III. 조사방법 및 층위

1. 조사방법 : 김봉찬
2. 층위 : 김봉찬

IV. 조사내용

- 조사내용 : 김봉찬, 전우주
- 유물기술 : 김혜진(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성하나(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유물 정리 및 복원 : 이선민(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유물실측 및 유물도면 일러 : 김혜진
- 유구도면 일러 : 임보미(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성하나
- 유물 촬영 및 편집 : 김혜진
- 유구도판 편집 : 전우주
- 유물도판 편집 : 김혜진

V. 맺음말 : 김봉찬(유구 및 유적의 성격과 시기), 성하나(유물)

본 보고서의 교열은 김용덕(제주고고학연구소 부소장), 감수는 강창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위치와 환경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로 지리적 위치는 북위 33°14'30.63", 동경 126°20'27.65"에 해당한다. 동쪽으로는 800m 이격되어 월라봉(해발 204m)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2.6km 떨어져 산방산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창고천의 서쪽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해안가까지 대규모의 화순리 취락유적군과 화순리 고인돌이 확인되고 있다. 창고천은 제주도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상시하천으로 지류를 따라 바위그늘집자리와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인 서귀포시의 연평균 기온은 15.6℃로 북쪽에 위치한 제주시에 비해 0.5℃ 정도가 높으며 서울에 비해서는 4℃가 높은 편이다. 여름철 8월의 평균기온은 26.6℃로 가장 높고, 겨울철 1월의 평균기온은 6℃ 정도로 한국 어느 곳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우량은 1,688mm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편에 속하며 연중 비가 내리는 날은 130일 정도이다. 태풍의 진로에 해당하며 게다가 동북쪽에 자리한 한라산의 영향 때문에 바람이 강한 편이다. 평균 초속은 3.8m이나 최대풍속은 초당 평균 17.4m에 이르고 있으며 강풍이 많이 부는 계절은 8월달로 평균 초당 26m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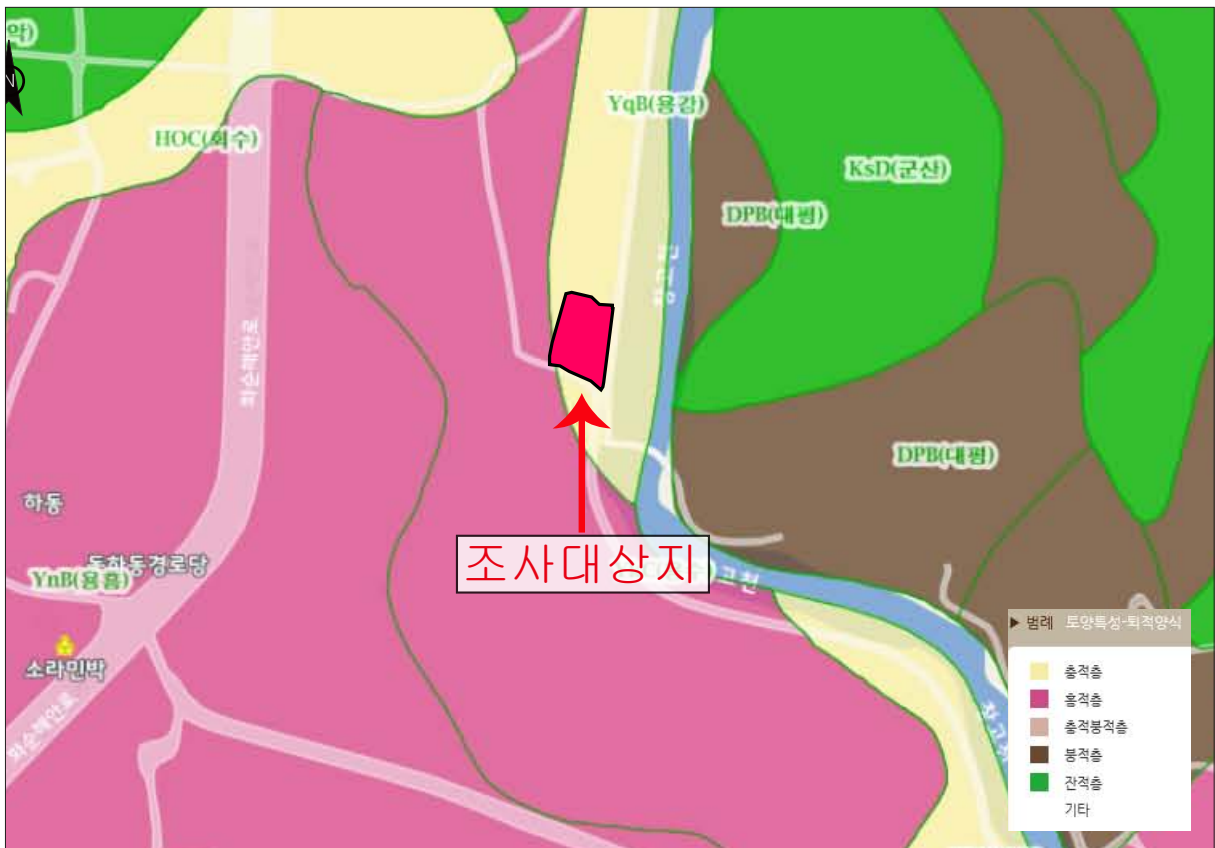
이 시기는 태풍의 발생시기와 관련되며 이밖에 봄철인 2~4월에도 바람이 많다. 그러나 화순리 해안은 송악산으로부터 화순리 해안까지 반타원형의 灣을 형성하고 있어 태풍 등으로 인해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센 날에는 주변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이 대피하는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화순리일대는 해상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화순리 해안가에는 하강물, 엉덕물, 큰물 등 수량이 풍부한 용천수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식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였으며 유적 일대는 황개천(창고천의 하류지역 명칭)의 물을 이용하여 논으로 경작되기도 하였다.

유적 토양상태는 용강토²⁾로 이루어져 있다. 용강토는 미국 Soil Taxonomy 분류에 의하면 fine, mixed, thermic family of Anthraquic Hapludalfs에 속하며 FAO/WRB 분류에 의하면 Hydragric Anthrosols(Eutric Oxyaquic Siltic)에 속한다. 표토는 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이며 심토1(BAt)은 갈색, 암회갈색, 암황갈색의 미사질식양토이다. 심토2(Bt1)는 갈색, 암황갈색의 미사질식양토이다. 심토3(Bt2)은 갈색, 암황갈색의 미사질식양토이다. 이 토양은 해안평탄지에서 발달하며, 화산쇄설물로부터 기인한다.

2) 흙토람(<http://soil.rda.go.kr>) 참고



도면 1. 유적 분포지형도(흙토람(<http://soil.rda.go.kr>) 참고)



도면 2. 유적 퇴적양식도(흙토람(<http://soil.rda.go.kr>) 참고)



사진 1. 유적 위성사진(Naver 위성지도 참고)

2. 고고학적 환경

유적이 위치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는 초기철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인 화순리유적을 비롯하여 최근 조사된 창고천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화순 도시계획도로부지내 유적, 화순리 690번지유적, 화순리 537-3번지유적, 화순리 537-5번지유적, 화순리 527·528번지유적, 화순리 538번지유적, 화순리 541번지유적, 화순리 717·718번지 유적, 화순리 715·716번지 유적과 화순리패총, 화순리 고인돌, 창고천 고인돌, 화순리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다.

화순리유적은 화순리 창고천의 하류인 황개천 서쪽 해발 8~10m의 저평한 구릉의 평탄면에 위치한 유적으로 제주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취락유적이다. 발굴조사결과 송국리형주거지 124기, 수혈유구 270기, 소성유구 18기, 굴립주건물지 3기, 집석유구 2기, 옹관묘 3기 등 총 422기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주거구역, 생산구역, 분묘구역, 제의구역, 폐기구역, 생활활동구역 등이 분할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행위공간을 사이에 두고 일정한 면적의 대형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중 토기류로는 외반구연호,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고배형토기, 이형토기 등이 있고 석기류로는 유구석부, 합인석부, 편평편인석부, 마제석검, 마제석창, 타제석기, 갈돌, 갈판, 어망추 등이 있다. 이 외에 옥류, 토제장식품, 골각기 등이 출토되었다³⁾.

화순 도시계획도로 유적은 해안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해발 8~10m의 저평한 해안 저지대에 위치하며 연결하여 화순리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수혈주거지 28기, 수혈유구 92기, 집석유구 3기, 구상유구 1기, 불다짐소성유구 4기와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석기류, 토제품, 철제품으로 구분된다. 토기류는 재지산 태토의 경질무문토기 개체부와 이형토기, 외지산 태토의 연질타날문토기, 회청색타날문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류는 공이, 흙돌, 갈돌, 갈판 등의 식량가공구가 대부분이며 이외 석창,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토제품으로는 방추차, 원판형토제품과 이형토제품, 그리고 제주에서 최초로 돼지모양의 토우가 확인되었다. 철제품은 철투겁창, 철도자, 철검, 철촉이 출토되었다⁴⁾.

화순 창고천 유적은 해안과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진 해발 8~10m의 저평한 해안 저지대로 창고천 서쪽편을 따라 위치한다. 조사결과 수혈주거지 5기, 수혈유구 44기, 매납유구 3기, 수혈식적석유구 6기, 제방시설 2개소, 구상유구 1기, 소토유구 1기, 유물포함층 3개소와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개체부를 비롯하여 구순각목문토기, 파수부토기, 회청색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대형갈판, 갈돌, 흙돌, 지석, 고석, 석창, 석인석기 등의 식량가공구류가 대부분이다. 토제품으로는 인근에 위치한 화순도시계획도로 유적에서 확인된 돼지모양 토우보다 다소 큰 토우가 확인되었으며 소형 토제경(토제 동경 미니어처), 이형토제품, 방추차도 출토되었다. 이외 장신구로 관옥과 용도미상의 철제품, 만입형 청동화살촉도 확인되었다⁵⁾.

3)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 화순리유적』.

4)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제주 화순리 도시계획도로 유적』.

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4, 『제주 화순리 창고천유적』.

서귀포시 화순리 69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은 해발 8~10m 내외의 저평한 해안저지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수혈유구 14기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가 대부분이며 방추차와 공이, 흙돌 등의 석기류도 확인되었다⁶⁾.

화순리 537-3번지 유적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송국리형주거지 9기와 수혈식 적석유구 4기, 수혈유구 92기, 소토유구 1기와 다량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와 석기 등이 있다.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와 삼태기형토기, 이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경질무문토기의 경우 대부분 외반구연토기이며 동체부 중앙에 동최대경이 위치하고 구연부가 ‘<’자 형으로 강하게 외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이형토기와 토제구슬, 토제곡옥, 파수부토기, 토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삼태기형토기(채반형토기)와 이형토기는 화순리유적과 예래동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제주도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유물로 판단된다. 석기는 대부분 갈돌과 갈판, 고석, 굴지구, 타제석기, 석착 등이 확인되었다⁷⁾.

화순리 537-5번지 유적은 537-3번지 유적과 바로 인접하여 있으며 유구와 유물의 특징은 537-5번지 유적과 동일하다. 발굴조사 결과 원형주거지 2기,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61기를 비롯하여 다량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파수부토기 등의 토기와 갈판과 갈돌, 고석, 흙돌, 굴지구, 타제석기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지표상에서 마제석축 1점이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원판형토제품과 토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⁸⁾.

화순리 527·528번지 유적은 화순 창고천 유적의 일부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주거지 3기, 수혈유구 45기, 유물포함층 2개소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혈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편과 토제품, 석기,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모두 경질무문토기로 유적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 수혈군에서 거의 대부분이 확인되었고, 토제품은 이형토기와 방추차가 수습되었다. 석기는 고석과 요석, 갈돌 등이 주로 출토되었는데 이 중 고석의 출토비율이 높은 편이다. 철기는 28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사용용도는 확인되지 않는다⁹⁾.

화순리 538번지 유적은 화순 537-3·5번지 유적과 남편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원형 주거지 10동, 수혈유구 101기, 매납유구 2기, 소토유구 1기를 비롯하여 다수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경질무문토기류이며 석기류로는 고석, 갈돌, 갈판, 흙돌 등의 식량가공구가 출토되어 기존 조사된 화순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⁰⁾.

6) 한국문화재단, 2015, 「제주 화순리 690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제주 1-』, 학술조사보고서 제302책.

7) 한국문화재단, 2015, 「서귀포시 화순리 537-3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제주 2-』, 학술조사보고서 제303책.

8) 前한국문화재단, 2015, 「제주 화순리 537-5번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제주 1-』, 학술조사보고서 제302책.

9) 한국문화재단, 2016, 「서귀포 화순리 527·528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제주 3-』, 학술조사보고서 제323책.

10) 한국문화재단, 2016, 「서귀포 화순리 538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제주 4-』, 학술조사보고서 제323책.



도면 3. 유적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고)

화순리 541번지 유적은 화순리 538번지 유적과 연접해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원형주거지 13동, 수혈유구 56기, 불다짐소성유구 1기, 매납유구 3기와 다수의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토기류, 석기류, 청동·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로는 경질무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석기류로는 갈돌, 고석, 흙돌 등의 식량가공구가 출토되었다. 청동기류로는 조문경편이 37호 수혈유구의 적석폐기된 사이에서 출토되었다¹¹⁾.

화순리 717·718번지 유적은 화순리 527·528번지 유적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원형주거지 19기와 수혈유구 54기, 집석유구 2기, 집수정 1기, 구성유구 1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외반구연의 경질무문토기와 삼태기형토기, 파수부토기, 소형토기 개체부를 비롯하여 방추차, 토제곡옥, 원판형토제품, 이형토제품이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갈돌, 갈판, 공이, 흙돌 등의 식료가공구가 주로 출토되었다¹²⁾.

화순리 715·716번지 유적은 화순리 717·718번지 유적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수혈주거지 15기와 수혈유구 141기, 매납유구 2기, 집석유구 3기, 소토유구 4기, 굴립주 건물지 3동, 불다짐 소성유구 1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토기와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의 경질무문토기와 파수부토기, 소형토기의 개체부를 비롯하여 방추차가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갈돌, 갈판, 공이, 흙돌 등의 식료가공구가 주로 출토되었다¹³⁾.

화순리 고인돌(제주도 기념물 제 2-43호)은 유적에서 북동쪽으로 4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남쪽의 해안으로부터 450m, 동쪽의 황개천으로부터 300m 떨어져 있는 해발 12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은 주변보다 다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들어서 있다. 고인돌 상석의 장축방향은 정동-서 방향으로 놓여 있으며 규모는 장축 315cm, 단축 220cm, 두께 62cm이다.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암질은 안산암제 조면암이다. 상석의 상면 동편에는 11개의 성혈이 활처럼 휘어진 형태로 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상석 상면과 하면 및 측면은 치석을 하였다. 지석은 북편과 서편에서 각각 1매씩 판석형지석 2매가 확인된다. 북편 지석은 상석하부 끝부분과 맞물려 있으며 규모는 길이 128cm, 높이 67cm 이상, 두께 16cm이다. 동편 지석은 상석 안쪽으로 40cm 정도 들어가서 고여 있으며 북편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다. 규모는 길이 53cm, 높이 37cm 이상, 너비 11cm이다. 지석의 암질은 다공질 현무암으로 상석의 암질과 다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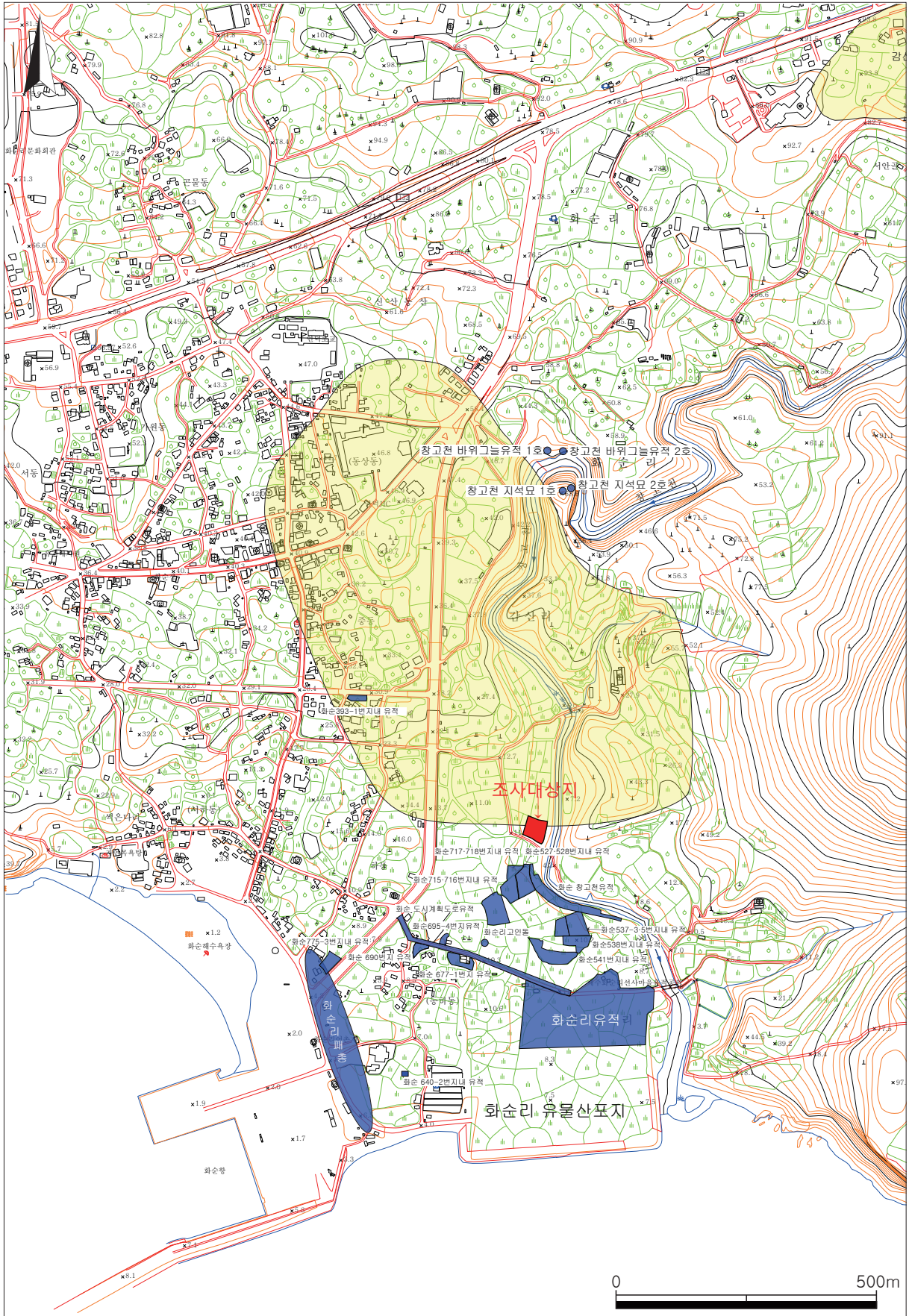
화순리 패총은 화순해수욕장 동편에 해안을 따라 길게 형성된 사구층에 형성되어 있다. 사구층의 길이는 대략 100m이며, 어촌계 건물과 도로가 나 있어 유적의 대부분은 파손되어 있다. 이 패총은 유물산포지 범위내에 있으나 유물포함층이 20cm 미만으로 매우 얇다. 이곳에서 출토되는

11) 한국문화재단, 2017, 「서귀포 화순리 541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X IV-제주 2-』, 학술조사보고서 제350책.

12) 한국문화재단, 2016, 「서귀포시 화순리 717·718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X V-제주3-』, 학술조사보고서 351책.

13) 한국문화재단, 2017, 「서귀포 화순리 715·716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X III-제주 1-』, 학술조사보고서 제349책.

14)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5, 『남제주군 문화유적(유·무형) 실태조사 보고서』.



도면 4. 유적 수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참고)

적갈색경질토기의 성격은 지표조사 당시 광지패총 2지구와 5지구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현재는 화순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순리유적과 연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화순리 유물산포지는 2개 지구로 구분되는 듯 하지만 대체로 해수욕장 사구 서쪽언저리에서 화순화력발전소와 안덕계곡으로 이어지는 창고천 서쪽 연변의 경작지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대형 유물산포지를 형성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내에는 화순리패총이 위치하고 있으며 화순리 해안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인근의 건물과 도로 등의 시설물로 인해 파괴되었지만 농경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50m 내외로 가까우며 유적 주변으로는 매우 양호한 미사질양토가 분포하고, 서남쪽 해안선을 따라 양질의 토양군이 좁게 형성되어 있다. 유물의 양은 많은 편이며 민가의 초가가옥 담장 및 진흙 벽에도 경질무문토기 파편이 상당량 섞여 있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석부, 공이, 갈돌, 숫돌 등이다.

창고천 바위그늘집자리(1)은 안덕면 화순리 화력발전소에서 북쪽으로 700m 정도 떨어진 창고천 절벽의 하단에 하천급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바위그늘집자리이다. 입구는 북서향이며 직경은 7.6m에 이르고 2개의 바위그늘이 연결된 아치형 그늘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은 직경이 5.7m, 높이 3.0~3.5m이고 왼쪽 굴은 연접되어 있는데 비교적 소형으로 직경이 2.9m, 높이가 2.2~2.7m이다. 중앙 굴은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길이가 3.0m, 왼쪽 굴은 1.7m 정도이다. 중앙 굴의 바닥은 심하게 경사져 있고 암반층 위에 10~15cm 정도의 흑갈색부식토가 덮혀 있다. 왼쪽 굴은 흑갈색부식토층의 깊이가 30cm 정도에 이르며 이 층의 상면에서 경질무문토기편, 공이 등이 확인된다.

창고천 바위그늘집자리(2)는 창고천 바위그늘집자리(1)과 마주 바라보고 있다. 풍화된 사암제 절벽 하단에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입구는 남동향이며 직경은 11m에 이르고 모두 3개의 바위그늘이 연결된 아치형태이다. 중앙 굴의 입구직경은 7.4m, 높이는 3.8~4.7m이고, 왼쪽 굴의 입구직경은 2.7m, 높이는 1.0~1.3m이다. 오른쪽에 자리한 굴은 입구직경 1.8m, 높이 0.9~1.2m 정도이다. 중앙 굴은 입구에서 안쪽까지의 길이가 2.6m, 왼쪽 굴은 4.7m, 오른쪽 굴은 3.8m 정도이다. 중앙 굴의 바닥은 암반층으로 그 위에 자갈과 섞인 모래층이 10~12cm 형성되어 있고 좌우 굴은 모두 모래와 자갈이 섞인 바닥이다. 유물은 모래층 위에서 주로 확인된다.

창고천 고인돌 1호는 월라봉 정상에 약간 못 미치는 둔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인돌은 장방형꼴의 상석을 사용하였고 장축방향은 N45°E이다. 또한 장단축의 길이는 427×225cm이고 두께는 73~75cm로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었다. 상석의 측면에는 인위적으로 치석을 한 흔적이 보인다. 상석은 서쪽으로 들려져 있는데 그 들린 높이는 54cm이다. 지석의 상태를 보면 동쪽은 돌출해 있는 자연적인 사암제 암반을, 서쪽은 사암을 판석형으로 제작하여 지석으로 사용하였다. 주변에는 광지리식토기편과 방추차, 석기류 등이 다수 흩어져 있으며 하천절벽의 경사면에서도 여러 편의 토기가 노출되어 있었다.

창고천 고인돌 2호는 창고천 고인돌 1호에서 동쪽으로 3m 정도 인접한 곳에 있는 풍화자연암반층위에 위치하고 있다. 상석은 방형에 가까운 타원형꼴을 하고 있다. 장축은 정남북방향을 취하고 있고 장단축의 길이는 360×296cm이다. 두께는 16~32cm로 비교적 불안정한 형태이다. 고인돌이 들려 있는 방향은 창고천 고인돌 1호와 같은 방향인 서쪽으로 트여 있으며, 들린

높이는 49cm 가량 된다. 상석의 상면과 측면은 치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석의 상태를 보면 동편과 중앙부에서 확인되는데, 창고천 고인돌 1호와는 달리 상석의 동편과 중앙부가 풍화암반의 돌출된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이 고인돌은 창고천 고인돌 1호 보다 약간 높은 둔턱에 위치하고 있다¹⁵⁾.

위와 같이 화순리 마을에는 화순리유적과 같은 초기철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유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인돌군과 바위그늘집자리, 패총유적 등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화순리마을은 탐라형성기의 제주도 서남부의 중요한 마을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화순리 마을의 역사적 배경¹⁶⁾

화순리(和順里)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속한다. 이웃 마을로는 동쪽으로 감산리와 대평리, 서쪽으로 사계리와 덕수리, 북쪽으로 상창리와 서광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와 접하였다. 이 마을은 서쪽의 산방산(山房山)과 동쪽의 월라봉(月羅峰) 사이 해발 10m~80m 사이에 형성되었다.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남저북고형(南低北高型)을 이루며, 높은 북쪽은 곳[藪; 숲]으로 잡목이 우거져 있다. 동서로는 폭이 좁고 남북이 긴 형태로 마을 안에는 크고 작은 동산이 있어 굴곡을 이룬다. 또한 곳곳에 용천수가 솟아 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취락이 형성되었다.

조선후기 이래 화순리는 서귀포시 강정동(江汀洞)과 대정읍 신도리(新桃里)와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인 논농사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당시 화순리 지역의 논농사 개척자는 김광종(金光宗)이었다. 그는 본관이 김해(金海)이며, 한경면 저지리 사람이다. 그는 화순리 황개천 바위에 도랑을 파서 넓은 땅에 물을 끌어다 논밭을 만들어 논농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김광종을 논농사를 개척한 사람으로 모셔 제사를 지내는 한편, 1938년 5월에는 화순리 답회(畓會;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가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과 합의하여 화순리 황개천 상류의 속칭 ‘도체비빌레’에 ‘김해김광종영세불망비(金海金光宗永世不忘碑)’를 세웠다. 비의 규격은 높이 78cm, 너비 44cm, 두께 16.5cm이다.

비의 앞면 중앙에는 ‘金海金光宗永世不忘碑’ 앞면 우측에는 ‘穿山引水 漢西開始 多費己財 以裕後世’, 앞면 좌측에는 ‘食我香稻 賴公德基 功擬召父 歲祈田祖’라 새겨져 있다. 즉, “산을 뚫고 물을 당겨 한라산 서쪽[漢西]에 논을 개척하였는데, 자신의 재산을 많이 소비하여 후세들을 넉넉하게 하였다. 우리들에게 향기로운 쌀을 먹게 한 것은 공의 덕행의 근본에 힘입었다. 그 공이 소부(召父)에 비길 만함으로 해마다 전조(田祖; 농사를 시작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이다. ‘소부’는 중국 한(漢) 나라(기원전 202년~기원후 8년) 때의 순리(循吏)인 소신신(召信臣)을 이른다. 따라서 ‘소부(召父)’의 ‘소(召)’는 소신신의 성이요, ‘부(父)’는 남양 사람들이 그를 부모에 비겨 붙인 것이다.

15)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 『南濟州郡 文化遺蹟 分布地圖』.

16) 이 글은 前 제주고고학연구소 소장인 고창석(前제주대 사학과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한서(漢書)』(권89) 순리(循吏) 소신신전(召信臣傳)에, ‘召信臣 字翁卿 九江壽春人也 云云 遷南陽太守 云云 好爲民興利 云云 開通溝瀆 起水門提閘 凡數十處 以廣灌溉 歲歲增加 多至三萬頃 民得其利 畜積有餘 云云 吏民親愛信臣 號之曰召父’란 기록이 보인다. 즉, “소신신의 자는 웅경, 구강 수춘 사람으로 벼슬은 남양태수에 이르렀다. 백성들을 위해 이로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 도랑(통수로)을 개통하여 수문(水門)을 만들고 제방을 쌓았는데, 무릇 수십 곳이었다. 관개(灌溉) 지역을 넓히며 해마다 증가하니, 자그마치 3만 경(頃; 이랑)에 이르렀다. 백성들이 그 이로움을 얻고 축척하여 여유가 있었다. 관리와 백성들은 소신신을 친밀히 사랑하여, ‘소부’라 호칭하였다.”는 내용이다.

뒤에 ‘通政大夫金公光宗永世不忘碑’가 또 기존의 비석 가까이 세워졌다. 이것은 1968년 4월 6대손 김창진(金昌珍)과 화순리 답회 회장이 공동으로 세웠다. 앞면에는 중앙에 비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좌우에 국한문 혼용으로 “公은 산을 뚫고 물을 끌어 畚을 개척하였음은 漢西에 처음이로다. 몸소 희생을 다하여 後世를 편케 하였음에 香氣로운 쌀밥을 먹게 되니, 公의 德을 잇을손가. 先生의 功을 稱頌하여 해마다 奉祭하여 冥福을 비는 도다.”라 새겨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서기1832년 3월 기공, 서기 1841년 9월 준공, 공사 연장 670m”라는 내용이 보인다. 순조 32년(1832) 3월부터 현종 7년(1841) 9월까지 10년여 년에 걸쳐 완공하여 1만여 평(일설에는 수로 연장 1,100여m에 5만 평)의 논을 개척하였다고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자신의 재산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암반공사와 보(洑)막이 공사 등 어려운 공사를 10년 만에 이룬 의지의 승리였다.

항개천과 관련하여서는, 조선 효종 4년(1653)에 이원진(李元鎭) 제주목사가 간행한 『탐라지(耽羅志)』 대정현(大靜縣) 산천 항목에 “대포(大浦)는 곧 감산천(紺山川) 하류이다(大浦 卽紺山川下流).”라고 하였다. 대포는 민간에서 일컫는 ‘한개’의 한자 차용표기로서 대(大)는 ‘크다’는 뜻의 ‘한’의 혼독자 표기, 포(浦)는 포구를 뜻하는 ‘개’의 혼독자 표기이다. 지금의 화순항 일대를 가리킨다. 또 정조 10년(1786)경에 씌어진 『제주읍지(濟州邑誌)』 부록의 「대정현지(大靜縣誌)」 산천 항목에 “감산천은 대정현 동쪽 15리에 있는데,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항포로 흘러 들어간다. 항포는 감산내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柑山川 東距十五里 自漢拏 流入杭浦…杭浦 卽柑山川入海).”라고 하였고, 철종 13년(1862)에 씌어진 『대동지지(大東地志)』 대정(大靜) 산수 항목에는 “감산천 하류는 대포가 된다(紺山川 下流爲大浦).”라고 하였다. 또 광무 6년(1902)을 전후하여 씌어진 남만리(南萬里)의 『탐라지(耽羅志)』 대정현 도서(島嶼) 항목에 “항포는 감산내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杭浦 柑山川入海處).”라고 하였고, 광복 후에 씌어진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 천곡(川谷) 항목에 “벗내는 안덕면 화순리 동쪽에 있다. 항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樊川 在安德面和順里東 至黃浦入海).”라고 하였다. 이렇듯 항포(杭浦)나 황포(黃浦) 등도 대포의 한자 차용표기로도 쓰였으며, 오늘날 마을 사람들은 거의 ‘항개창’이라 부르는 실정이다.

또 『탐라지(耽羅志)』 대정현 과원(果園) 항목에는, “대정현 동쪽 15리에 동천(洞泉)이라 불리는 과원이 있었다(洞泉 在洞十五里 柚六十一根 石金橘一根 新栽培各果十七根 梔六根).”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시대의 과원은 중앙정부에 귤(橘)·유자(柚子) 등의 과일을 진상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던 곳이다. 또한 동천은 현재의 화순리 상동(上洞)에 위치한 ‘골물’이라는 지명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즉, 동(洞)은 골짜기를 뜻하는 ‘골’의 혼독자(訓讀字) 표기이고 천(泉)은 샘물을

뜻하는 ‘물’의 혼독자 표기이다. 따라서 동천은 ‘골물’을 뜻한다. 18세기 말 영조 때에 씌어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에는 동천(洞泉)이 동수(洞水)로 바뀌었다.

『화순리지(和順里誌)』(2001)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와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한 곳은 골물[洞水; 속징 곤물]과 벗내[犯川, 樊川] 두 지역이었다. 골물에는 1609년(광해군 1)에 창녕 성씨(昌寧成氏) 성은진(成恩珍)이 처음 들어와 거주하였다. 그 뒤 1690년대에 밀양 박씨(密陽朴氏) 박언일(朴彦逸)이 신촌에서 골물로 들어와 일가(一家)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 벗내는 1696년(숙종 22)에 양수담(梁遂淡)이 처가(妻家)가 있던 감산리에서 지금의 화순리 ‘퍼물[泥水; 펄물]’ 인근으로 이주하여 논을 개척하며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그가 살았던 터를 ‘양가막 터’라 하고 있다. 이보다 조금 늦은 1715년(숙종 41)에는 본관이 충주(忠州)인 지응해(池應海)가 서동(西洞) ‘만지왓’(화순리 1854번지)에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그 뒤 강씨(姜氏), 고씨(高氏), 이씨(李氏), 김씨(金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이리하여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대정현 면촌(面村) 항목에 의하면, 당시 대정현이 좌(左)·중(中)·우(右) 3면(面)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후대의 사실로 보아 이 3면은 儒面인 듯함), 그 중 중면은 창고천(倉庫川), 통천(桶泉), 감산(紺山), 동수(洞水), 범천(犯川), 자단(自丹), 상·하금물로(上下今勿路) 등 8개 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면에는 풍헌(風憲) 1인과 약정(約正) 2인을 두었고, 리에는 경민장(警民長), 기찰관(譏察官), 포도장(捕盜將), 좌주(座主), 이정(里正) 등을 각각 1인씩 두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화순리는 동수(洞水; 골물)와 범천(犯川; 벗내) 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제주읍지』 부록의 「대정현지」 방리(坊里) 항목에서는 대정현의 좌면(左面)과 우면(右面)에 소속된 22개 리(里)의 형세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우면에 속한 리(里)로서 범천리(犯川里)와 동수리(洞水里)가 각각 편제되어 있다. 마을의 형세는 범천리가 민호(民戶) 45호(戶)에 인구는 남자 94명, 여자 129명 합계 223명이고, 동수리가 민호 44호에 인구는 남자 83명, 여자 122명 합계 205명이다. 이것으로 볼 때 ‘범천’과 ‘동수’로 각각 일컬어졌던 ‘벗내’와 ‘골물’ 일대의 마을이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범천리와 동수리 두 마을의 형세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두 개의 마을로 구분하여 편제되었던 범천리와 동수리는 1840년(헌종 6)에 이르러서 전도적(全島的)으로 마을 이름을 정비할 때, 마을 명칭만은 화순리(和順里) 하나로 호칭되었던 것 같다. 화순리라는 호칭은 원래 마을이 이루어져 있었던 ‘벗내’나 ‘골물’의 두 지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화순리지』(2001)에 의하면, “화순(和順)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지역의 유력자나 한학자, 또는 대정현의 관리에 의해서 ‘온화하고 순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지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和順’이라는 지명의 뜻풀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화순리지』(2001)에 의하면, “양성필(梁聖弼)은 <그의 저술인> 『화순리지(和順里誌)』(1993)에서 1843년 계묘에 반천리(攀川里)와 통수리(洞水里)를 병합하여 화순리로 명명하였다.”고 하였고, 안덕면의원을 지낸 바 있는 지동수(池東秀)도 생전에 1845년으로 증언하였는데, 그 근거로 화순리

호구단자를 들었으나 현재는 멸실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1840년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웃 마을인 ‘사계리’와 ‘덕수리’도 1840년에 마을 이름이 고쳐지면서 호적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순리’라는 이름도 1840년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1840년의 호적작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현종 12년(1846)에 씌어진 『피선소박리공궤혁과절목(彼船所泊里供饋革罷節目)』의 표지에 기록한 ‘和順浦’라는 포구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제주도는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개국(開國) 504년(고종 32년, 1895) 5월 28일자에 의하면, 동년 5월 26일자 칙령(勅令) 제98호로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공포하고 윤5월 1일(양력 6월 23일)부터 이를 시행케 하였다. 즉, 전국을 23개소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부(府)를 둔다고 하였는데, 이때 제주도에는 23부의 하나로 제주부(濟州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목(牧)·부(府)·군(郡)·현(縣)의 명칭과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서윤(庶尹)·판관(判官)·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의 관직 명칭을 모두 폐지하고, 고을[邑]의 명칭을 군(郡)이라고 하며, 고을 장관의 벼슬 이름을 군수(郡守)라 한다고 하여, 종래 부·목·군·현 등으로 번잡하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모두 군(郡)으로 단일화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목과 대정현·정의현이 모두 제주군·대정군·정의군의 3군으로 개편되어 제주부의 관할 구역이 되었으며, 목사와 두 현감도 모두 군수로 바뀌어 제주부의 관찰사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제주부의 관청은 제주에 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23부제는 약 1년이 지나 폐지되고 곧 13도제를 실시하게 된다. 그 이유는 민정의 불편함과 번거로운 폐단이 있고 재정상의 부담도 크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구한국관보』 건양 원년(고종 33년, 1896) 8월 4일자로 발표된 칙령 제36호 제1조에 의하면, 전국 23부를 13도로 개정하여 각 도에 관찰사를 둔다고 하였고, 제4조에는 제주에 목사(牧使)를 둔다고 하였다. 특히 제주 섬으로 육지와 교통이 곤란할 뿐 아니라 나라에서 특별히 덕화(德化)를 베푸는 특수성으로 인해 목(牧)을 설치하여 대정·정의 두 군을 관할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주도에는 다시 1목 2군 즉, 제주목과 대정군·정의군이 설치되어 전라도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광무 원년(1897) 9월에 제주목 외에 제주군이 설치되면서 행정구역은 약 1년 동안에 또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즉, 1목 3군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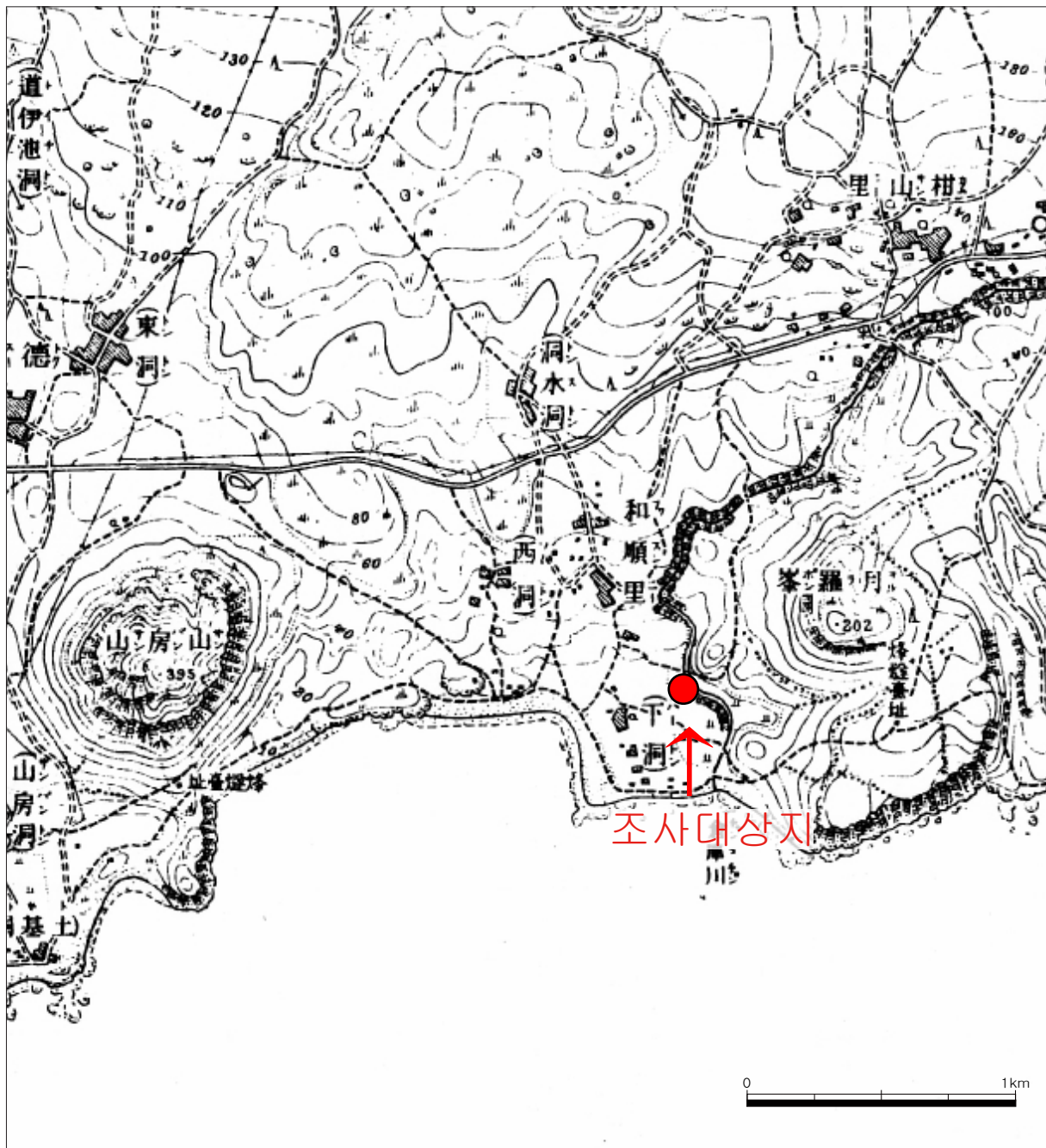
그런데 광무 8년(1904)에 씌어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는 대정군(大靜郡)의 좌면(左面)·중면(中面)·우면(右面) 가운데, 중면에 편제된 10개 리 중 화순리의 마을 형세가 연가(煙家) 100호에 인구는 남자 217명, 여자 279명 합계 496명이고 초가(草家) 162칸[間]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뒤 광무(光武) 10년(1906) 9월 24일에는 제주목사제(濟州牧使制)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전라도 관찰사에게 인도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주도는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제주군·대정군·정의군의 3군(郡) 체제로 바뀌면서 그대로 전라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4월 1일에는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대정군·정의군의 전 지역과 완도군(莞島郡)의 추자면을 제주군에 통합하여 총 13면 167개 리로 개편되었다. 제주군이 제주도 일원을 통할하는 체제이다. 당시 13면은 제주면·구좌면·신좌면·구우면·신우면·정의면·동중면·서중면·우면·대정면·중면·좌면·추자면 등이었다. 이에 따라

화순리는 대정군 중면 소속에서 제주군 중면 소속으로 바뀌었다.

1915년 5월 1일에는 도사제(島司制) 실시에 따라 군수(郡守)를 없애고 도사(島司)를 두었다. 조선총독부 전라남도령 제7호에 의해, 제주도(濟州島) 관내의 면(面)의 명칭을 개정하여 1935년 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에 따라 면(面)의 명칭이 소재지의 이명(里名) 등을 따서 오늘날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신좌면이 조천, 구우면이 한림, 신우면이 애월, 정의면이 성산, 동중면이 표선, 서중면이 남원, 우면이 서귀, 중면이 안덕, 좌면이 중문으로 각각 개칭된 것이다.

면소재지의 경우, 안덕면은 대정군(大靜郡)이 관할하던 1911년에는 면사무소(面事務所)를 서광리(西光里)에 두었다가, 제주군 소속이 된 1916년에는 감산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다. 그 뒤



삽도 1. 유적 고지형도(일제강점기 大正7年-1918년- 제작·발간)

전라남도 고시(告示) 제226호에 의하여, 안덕면사무소의 위치를 다시 화순리 311번지의 1로 변경하고, 1938년 11월 12일에 이전하였다.

1946년 8월 1일에는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제주도(濟州島)를 도(道)로 승격시켜 도제(道制)가 실시됨에 따라 제주도 지역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구획되었다. 이때 안덕면은 남제주군에 편제되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 지역은 단일 행정구조로 광역시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 자치제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의 행정단위가 소멸되고, 대신 2개의 행정시에 해당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만이 남아 각각 종래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지역을 흡수, 통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덕면도 서귀포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제되기에 이른다.

Ⅲ. 조사 방법 및 층위

1. 조사 방법

유적은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종균배양실 신축부지로 조사면적은 1,423㎡이다. 유적이 위치하는 지형은 창고천과 맞닿아 있는 하천변으로 해발고도는 9m 내외이며 바닷가와는 직선거리로 520m 이격되어 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조사대상지의 서쪽에서 창고천이 흐르는 동쪽으로 경사져 내려가는 서고동저의 지형이다.

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층까지의 전면제토를 원칙으로 하였다. 유구 내부조사는 ‘+’나 ‘-’ 둑(baulk) 넣거나 유구에 따라 1/2를 먼저 조사하여 유물과 토층의 단면을 확인하였다. 주혈인 경우에는 1/2을 먼저 조사하여 내부 상태와 토층을 파악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의 내부 조사 중에는 유구의 평면 형태와 유물에 대한 실측조사, 토층 실측조사를 병행하여 유구의 축조양상과 퇴적양상 및 중복유구에 대한 선·후 관계를 파악하였다. 조사 중에는 필요할 때마다 사진촬영과 실측을 진행하였으며 유구와 유물의 실측 후에는 레벨측량과 유물수습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물의 중복 중첩된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실측과 레벨측량, 사진촬영 등을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측과 레벨측량을 완료하였다.



사진 2. 유적 원경(동에서)

2.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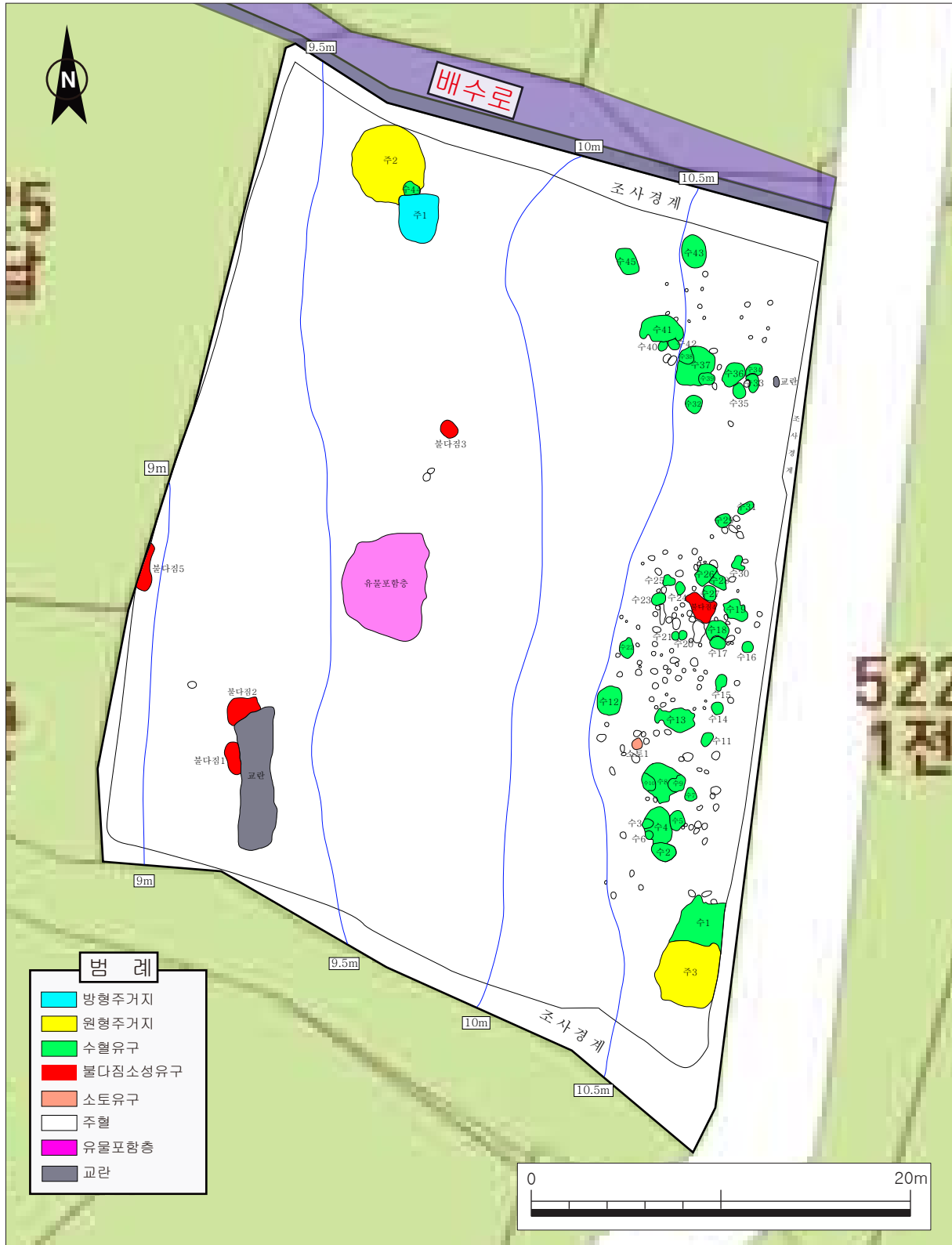
조사대상지는 창고천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5m의 고도차를 보이며 낮아지는 경사면이다. 기준토층은 유적 내에서 해발 10.5m 지점의 북벽에 Test Pit를 설치하여 확인하였다. 유적 내에서 확인되는 토층양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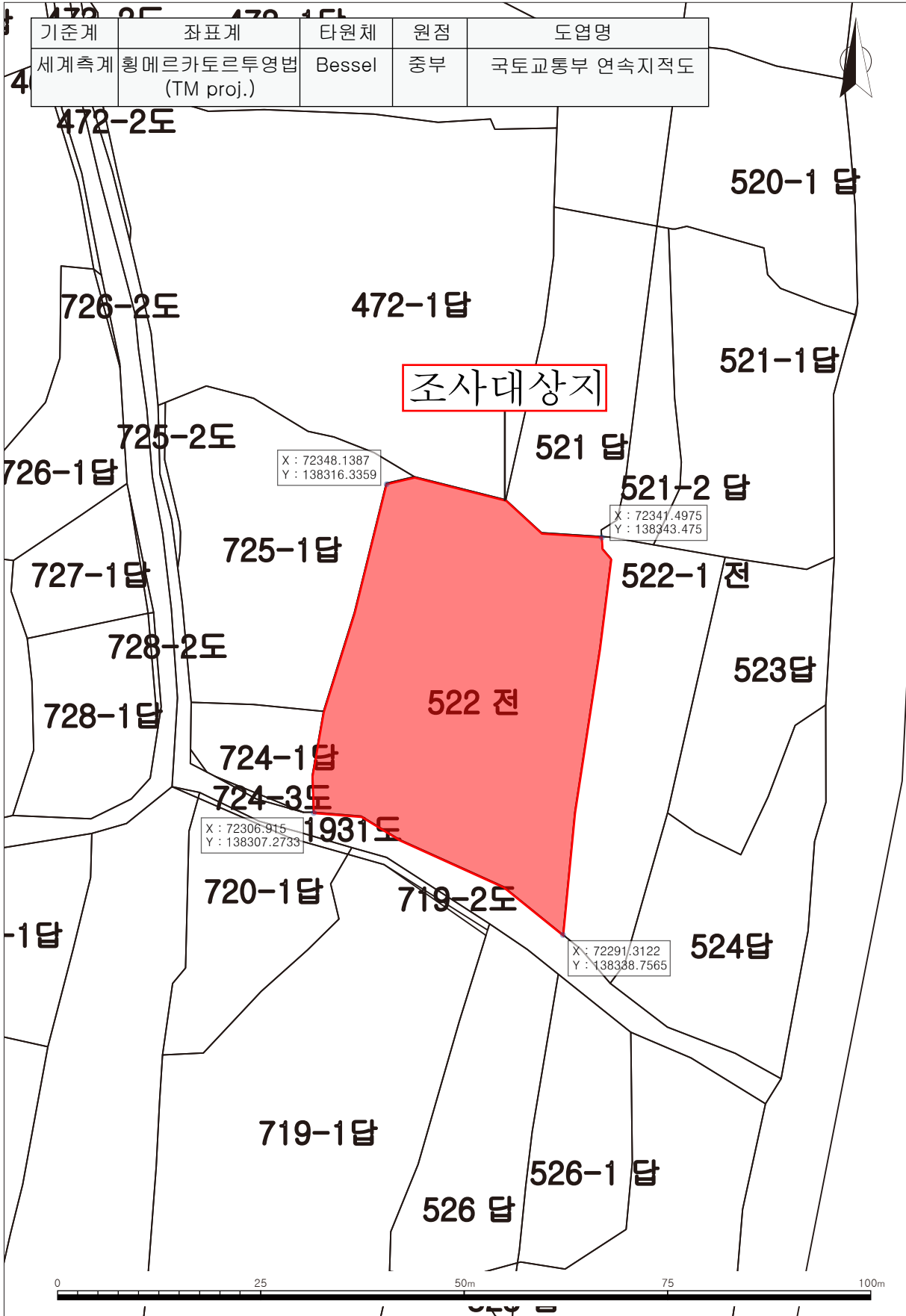
사진 3. 유적 북벽 토층상태

- ① I 층 : 現 지표층으로 경작층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내려가고 있으며 층의 두께는 10cm 내외이다.
- ② II 층 :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푸석푸석한 편으로 잔자갈이 전체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소량의 자기편 등이 확인된다. 층의 두께는 20~25cm 내외이다.
- ③ III 층 : 흑갈색사질점토층이다. 2층에 비해 명도가 밝은 편으로 소량의 소토알갱이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으며 풍화암반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층의 두께는 17cm 내외이다.
- ④ IV 층 :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으며 유구의 내부퇴적토로 판단된다.
- ⑤ V 층 : 풍화암반층으로 생토층이다.

IV. 조사 내용



도면 5. 유적 내 유구배치도



도면 6. 유적 수치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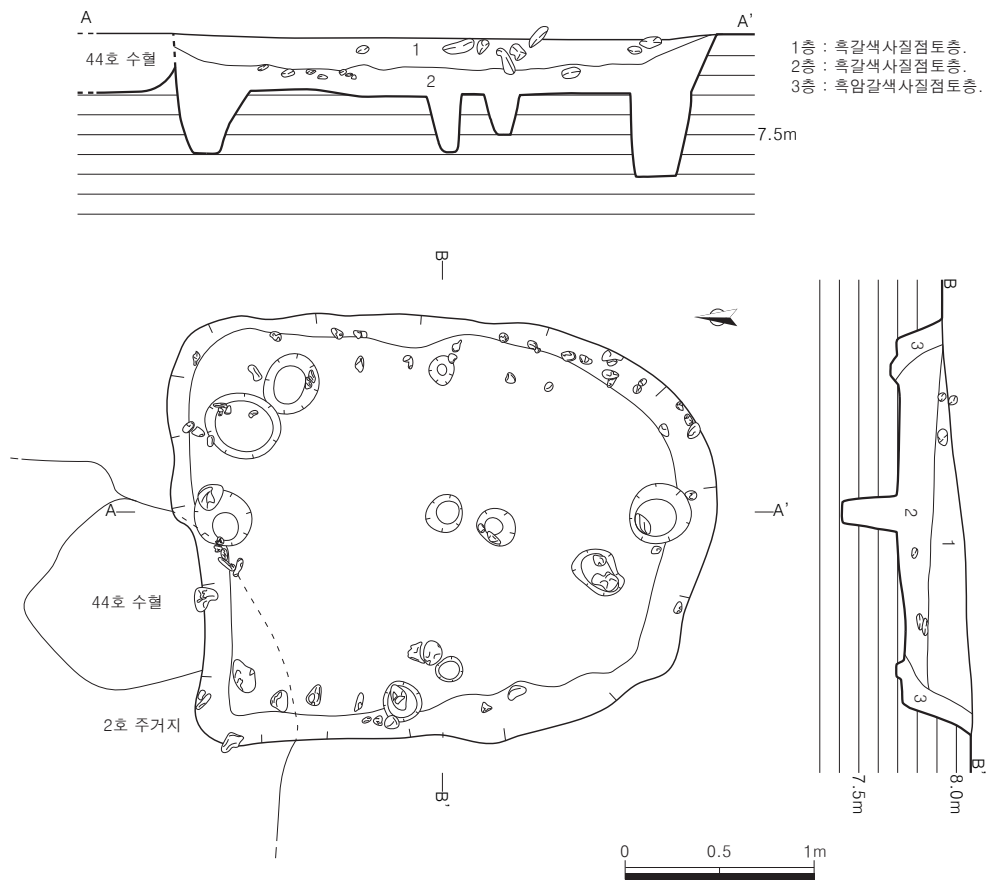
조사결과 유구는 방형주거지 1동, 원형주거지 2동, 수혈유구 45기, 불다짐유구 5기, 소토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공렬문토기,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와 갈판 등의 석기가 확인되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7, 도판 2)

유적 북서쪽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북서쪽 모서리에 2호 주거지와 44호 수혈유구가 후축되었는데 주거지 내부퇴적토 위에 2호 주거지가 얇게 굴착되어 축조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221cm, 깊이 29cm이며 장축방향은 N7°E이다. 유구의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는 장축과 단축의 중심 ‘+’선에 주혈 5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5기의 주혈이 확인된다. 주혈의 직경은 15~30cm 내외이며 깊이는 4~29cm로 깊은 편이다. 중심 ‘+’선의 주혈 간 거리 중 장축 간 주혈거리는 120cm 내외이며 단축 간 주혈거리는 80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잔자갈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도면 7. 1호 주거지 평·단면도

1층에 비해 명도가 밝은 편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으며 자갈이 포함되어 있다. 3층은 흑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벽체가 무너지면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공렬문토기편과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1. 구연부편(도면 8-1, 도판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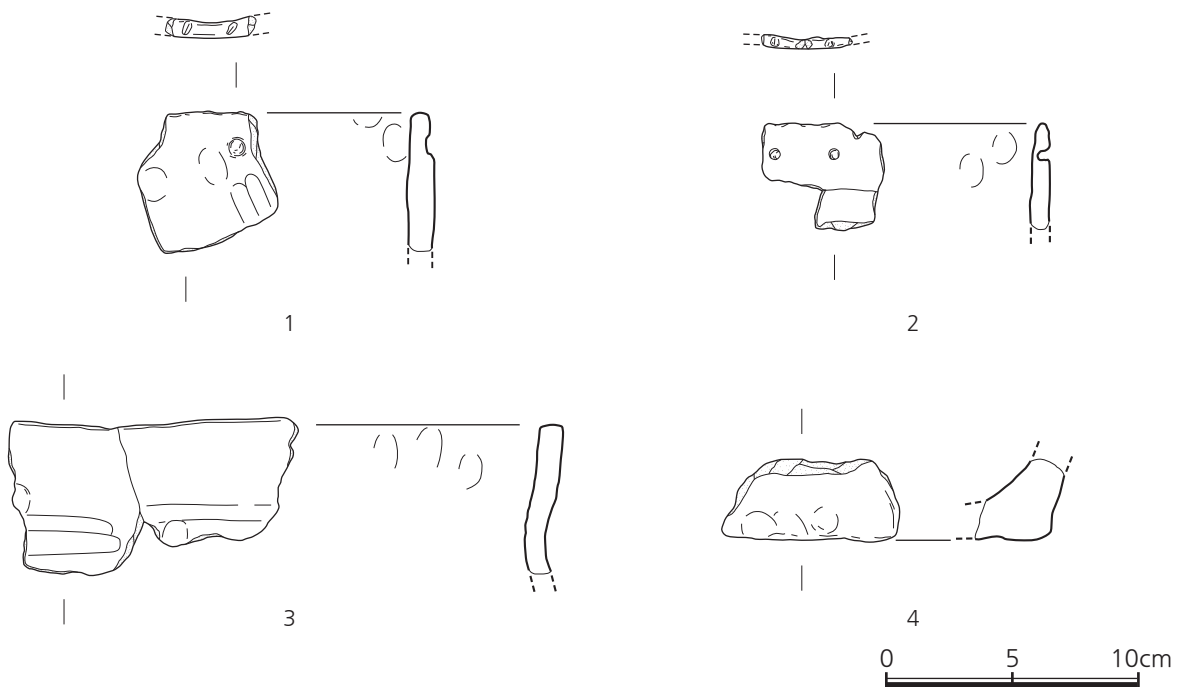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어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1.5cm이다. 공렬문은 구순부 하단 1.0cm에 직경 0.7cm로 밖에서 안으로 반투공되었고 공렬 깊이는 0.2cm 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과 지두압흔,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5cm, 너비 5.3cm, 두께 0.9~1.1cm

2. 구연부편(도면 8-2, 도판 35-2)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어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1.8cm 내외이다. 공렬문은 구순부 하단 1.0cm에서 직경 0.4cm로 밖에서 안으로 반투공되었고 공렬 깊이는 0.4cm 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2cm, 너비 4.9cm, 두께 0.5~0.7cm



도면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4)

3. 구연부편(도면 8-3, 도판 35-3)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과 지두압흔, 내면에선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9cm, 너비 11.1cm, 두께 0.8~0.9cm

4. 저부편(도면 8-4, 도판 35-4)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3.2cm, 두께 1.8cm

(2) 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9, 도판 3)

유적 북서쪽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남동쪽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와 44호 수혈이 선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462cm, 단축 419cm, 깊이 29cm이며 장축방향은 N36°W이다. 유구의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내부시설로는 바닥 중앙부에 타원형수혈이 확인된다. 타원형수혈은 타원형수혈 내 양단에 주혈이 위치하고 있는 형식으로 규모는 장축 130cm, 단축 59cm, 깊이 7cm이다. 양단 주혈 중 남쪽 주혈은 직경 44cm, 깊이 24cm이며 북쪽 주혈은 직경 30cm, 깊이 14cm이다. 양단 주혈간 거리는 92cm이다. 이외에 유구의 북벽에 벽체보강시설로 석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중소형의 자연석과 잡석 등이 혼재되어 있어 비교적 조잡한 편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으로 중앙부에 집석폐기된 양상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등이 확인된다.

나.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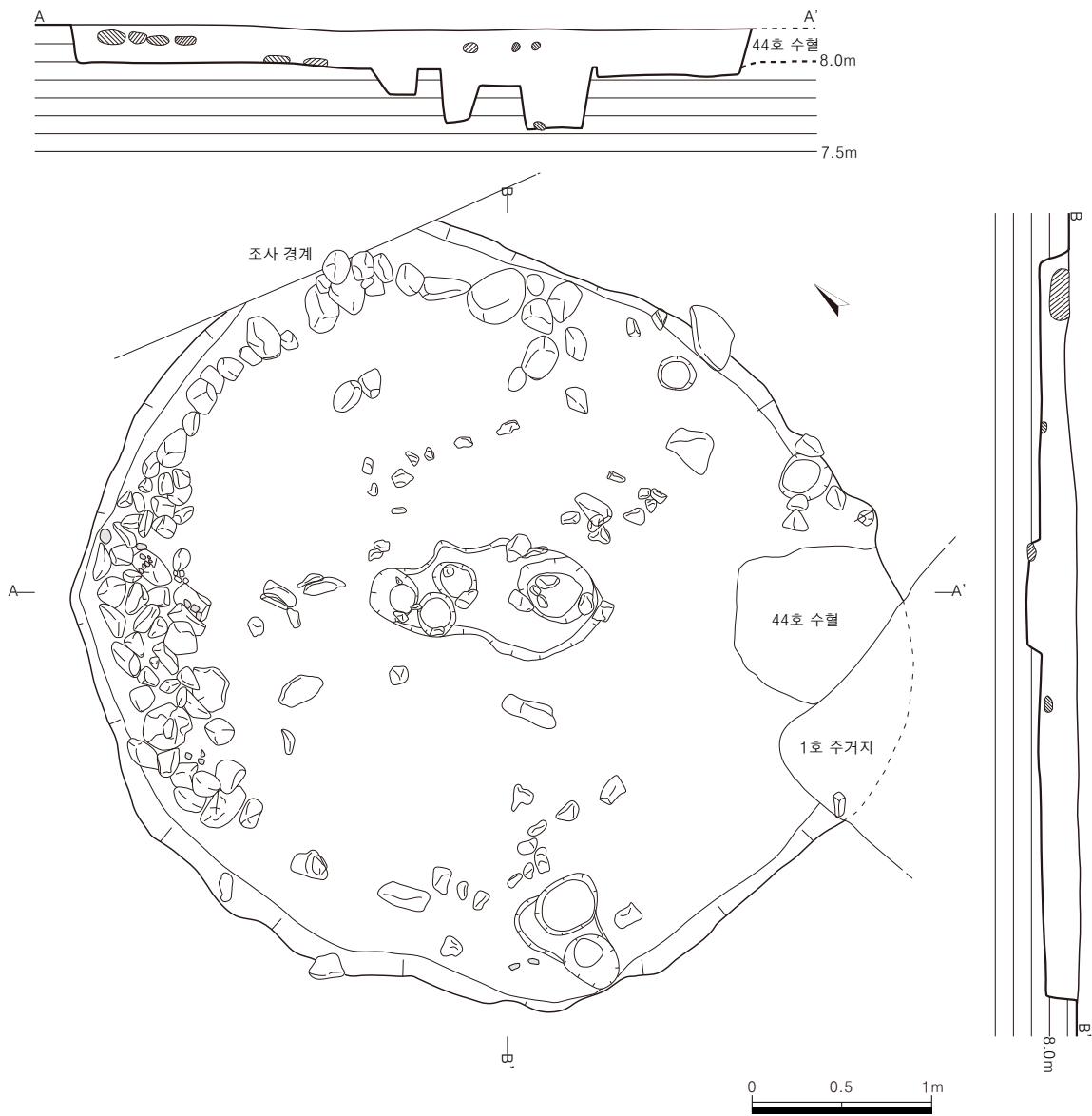
5. 구연부편(도면 10-5, 도판 35-5)

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1/4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직립구연으로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올라가다 구연부에서 직립하는 형태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와 황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고 10.9cm, 추정구경 15.6cm, 두께 0.7~0.8cm

6. 구연부편(도면 10-6, 도판 35-6)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흑갈색조와



도면 9. 2호 주거지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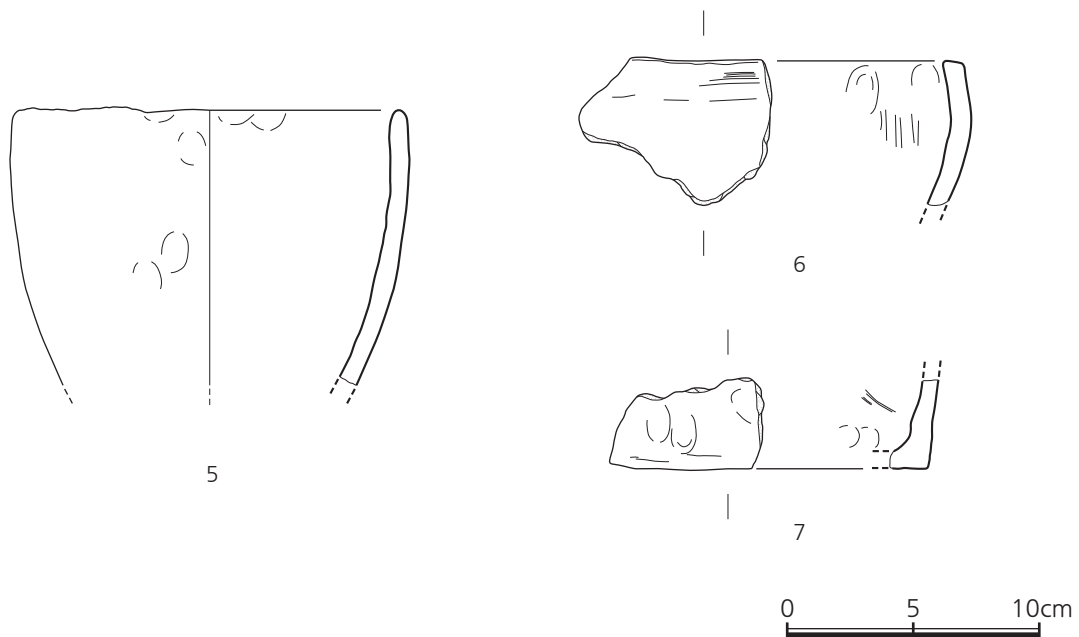
적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5.7cm, 너비 7.5cm, 두께 0.8cm

7. 저부편(도면 10-7, 도판 35-7)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암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3.5cm, 두께 0.6~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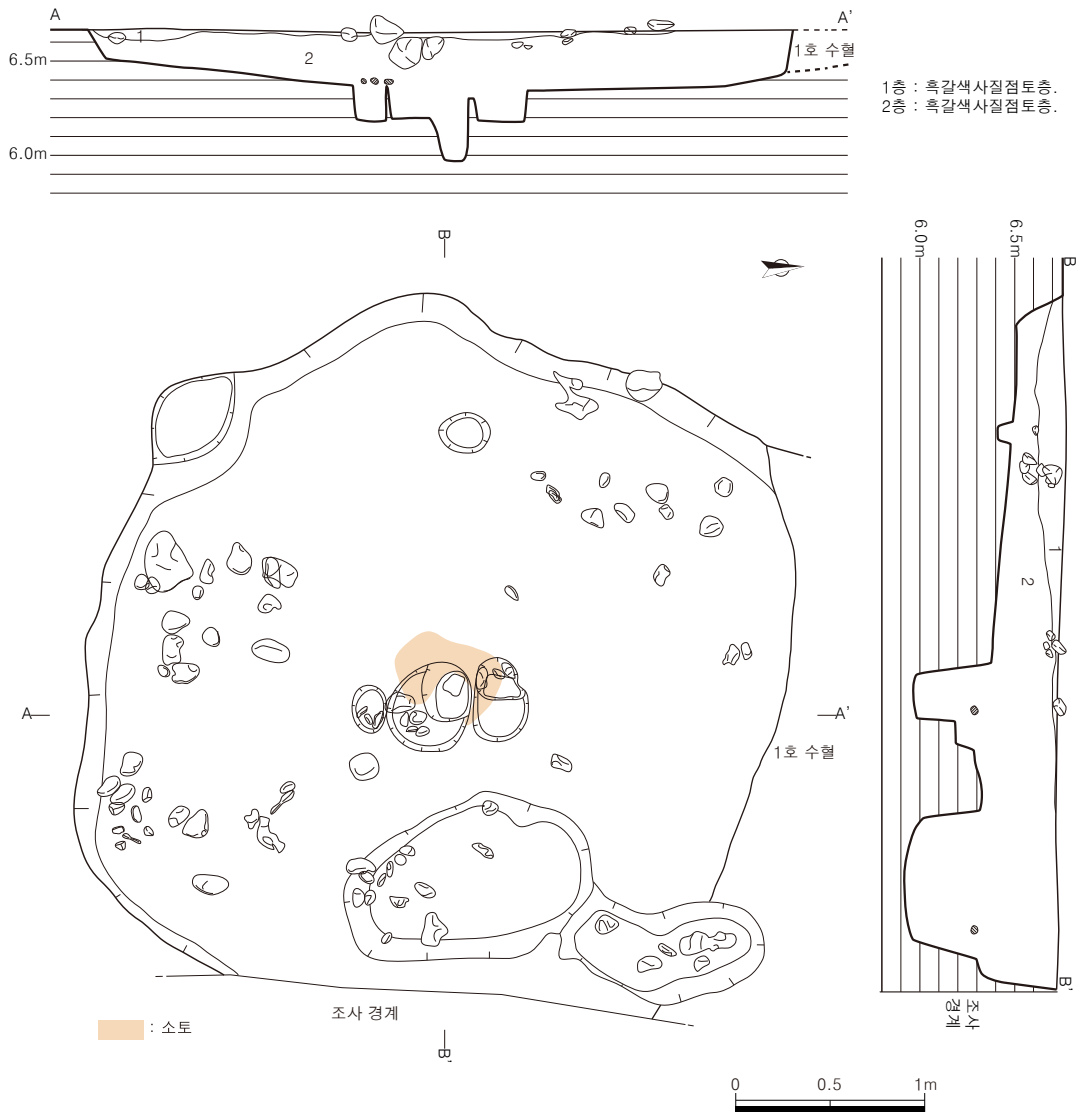
도면 10. 2호 주거지 출토유물 (5~7)

(3) 3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1, 도판 4)

유적 남동쪽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남쪽으로 1호 수혈유구가 선축되어 있다. 유구의 일부가 유적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타원형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잔존장축 374cm, 잔존단축 367cm, 깊이 47cm이며 장축방향은 N-S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고 자갈 등이 노두되어 고르지 못한 편이다. 유구 중앙부에 집석폐기된 양상이 확인된다. 집석폐기층을 걷어내자 바닥 중앙부에 불다짐이 확인된다. 유구 내부시설로는 바닥 중앙부에 타원형수혈이 확인된다. 양단 주혈 중 남쪽 주혈은 타원형수혈 외부, 북쪽 주혈은 타원형수혈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형식으로 타원형수혈의 규모는 장축 47cm, 단축 44cm, 깊이 10cm이다. 양단 주혈 중 남쪽 주혈은 직경 22cm, 깊이 18cm이며 북쪽 주혈은 직경 26~34cm, 깊이 22cm이다. 양단 주혈간 거리는 43cm이다. 이 외에 타원형수혈 동쪽으로 내부수혈이 1기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규모는 장축 137cm, 단축 98cm, 깊이 42cm이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어두운 편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으며 중앙부에 집석층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편와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11. 3호 주거지 평·단면도

나. 유물

8. 구연부편(도면 12-8, 도판 35-8)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2~0.9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8.7cm, 너비 8.7cm, 두께 0.9~1.1cm

9. 구연부편(도면 12-9, 도판 35-9)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6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9cm, 너비 5.7cm, 두께 0.7~0.9cm

10. 구연부편(도면 12-10, 도판 3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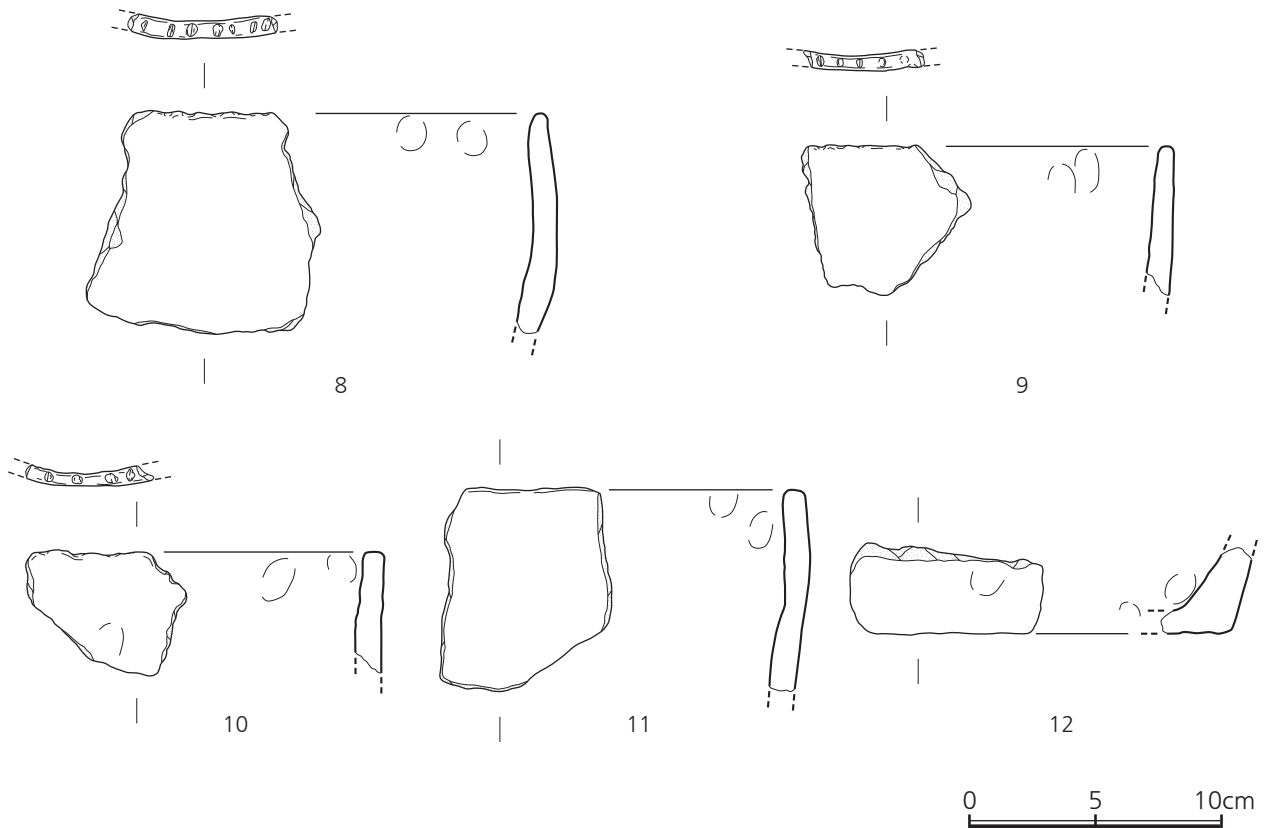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4~0.8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8cm, 너비 6.1cm, 두께 0.8~1.0cm

11. 구연부편(도면 12-11, 도판 35-11)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8.0cm, 너비 6.3cm, 두께 1.0cm



도면 12. 3호 주거지 출토유물 (8~12)

12. 저부편(도면 12-12, 도판 35-12)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황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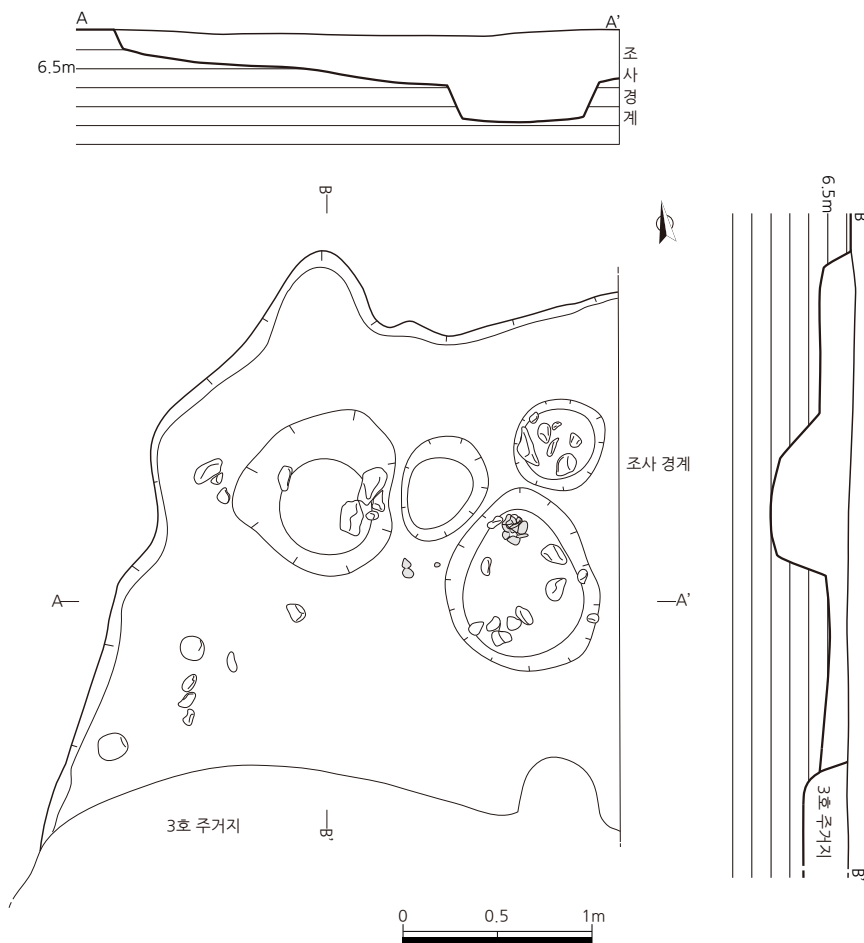
현고 3.5cm, 두께 1.3~1.5cm

2)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3, 도판 5)

유적 남동쪽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남쪽에 3호 주거지가 후축되어 있다. 유구의 일부가 유적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3호 주거지의 후축으로 인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장축 274cm, 잔존단축 266cm, 깊이 28cm이며 장축방향은 N90°E이다. 유구의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에는 일부 자갈층이 노두되어 굴곡져 있지만 대체로 편평한 편이다. 유구 바닥면에서 내부수혈 4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도면 13.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으로 규모는 직경 50~98cm, 깊이 16~31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형발형토기, 마연토기편, 구순각목공렬문토기편 구순각목문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13. 발형토기(도면 14-13, 도판 35-13)

소형 발형토기로 완형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고 저부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동최대경이 구연 상부에 있다. 심발형은 높이가 임지름보다 길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기고 6.7cm, 구경 8.5cm, 저경 6.0cm, 두께 0.4~0.7cm

14. 구연부편(도면 14-14, 도판 35-14)

마연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흑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3.3cm, 너비 4.8cm, 두께 0.4cm

15. 구연부편(도면 14-15, 도판 35-15)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얇게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1.2cm내외이다. 공렬문은 구순부 하단 2.5cm 지점에 직경 0.6cm로 밖에서 안으로 반투공되어 시문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0cm, 너비 6.0cm, 두께 1.1~1.3cm

16. 구연부편(도면 14-16, 도판 35-16)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6~0.8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8.2cm, 너비 6.2cm, 두께 0.85~1.0cm

17. 구연부편(도면 14-17, 도판 36-17)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하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얇게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5~0.6cm로 정연하지 않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7.2cm, 너비 6.3cm, 두께 0.6~0.9cm

18. 구연부편(도면 14-18, 도판 36-18)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2~0.3cm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2cm, 너비 5.2cm, 두께 0.6~0.8cm

19. 구연부편(도면 14-19, 도판 36-19)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3~0.7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조, 내면은 흑색조와 적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4cm, 너비 4.8cm, 두께 0.7~0.9cm

20. 구연부편(도면 14-20, 도판 36-20)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외반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2~0.6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황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0cm, 너비 5.3cm, 두께 0.9~1.0cm

21. 구연부편(도면 14-21, 도판 36-21)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얇게 눌러 시문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5~0.8cm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고 4.3cm, 너비 5.1cm, 두께 0.9cm

22. 구연부편(도면 14-22, 도판 36-22)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4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고 4.0cm, 너비 3.9cm, 두께 0.9cm

23. 구연부편(도면 14-23, 도판 36-23)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1~0.4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황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4cm, 너비 3.7cm, 두께 1.0cm

24. 구연부편(도면 14-24, 도판 36-24)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3~0.8cm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3.4cm, 너비 4.3cm, 두께 0.8~1.0cm

25. 구연부편(도면 14-25, 도판 36-25)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1~0.8cm내외로 정연하지 않다. 색조는 외면은 연갈색조와 적갈색조가 혼재되었고, 흑반이 확인된다.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3.9cm, 너비 3.9cm, 두께 0.6cm

26. 구연부편(도면 14-26, 도판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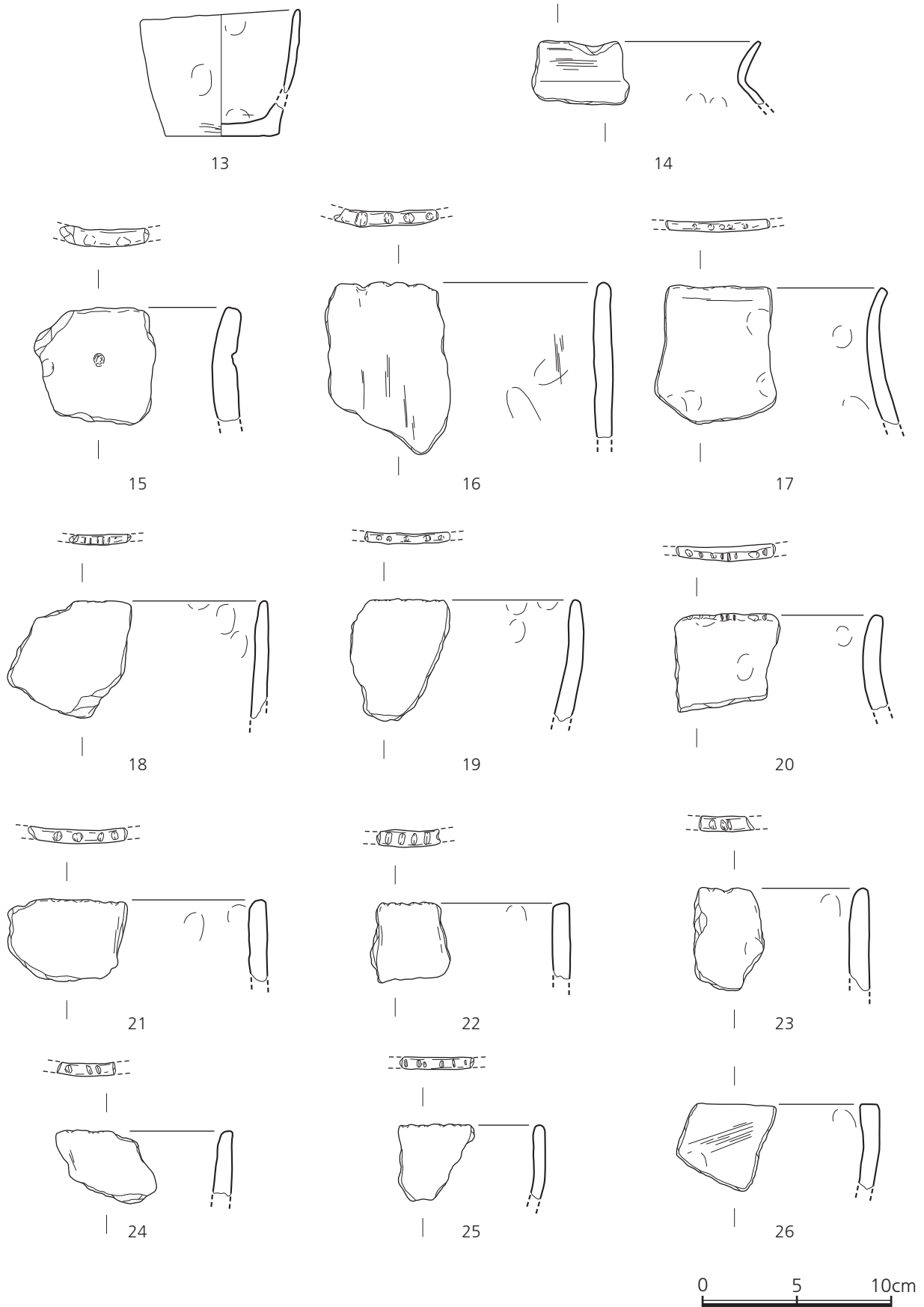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5cm, 너비 4.1cm, 두께 0.8~0.9cm

27. 저부편(도면 15-27, 도판 36-27)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2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다 바깥으로 벌어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과 목리조정흔이 확인된다.

현고 5.7cm, 저경 8.0cm, 두께 0.8~1.7cm



도면 14.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13~26)

28. 저부편(도면 15-28, 도판 36-28)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6.3cm, 두께 0.9~1.2cm

29. 저부편(도면 35-29, 도판 3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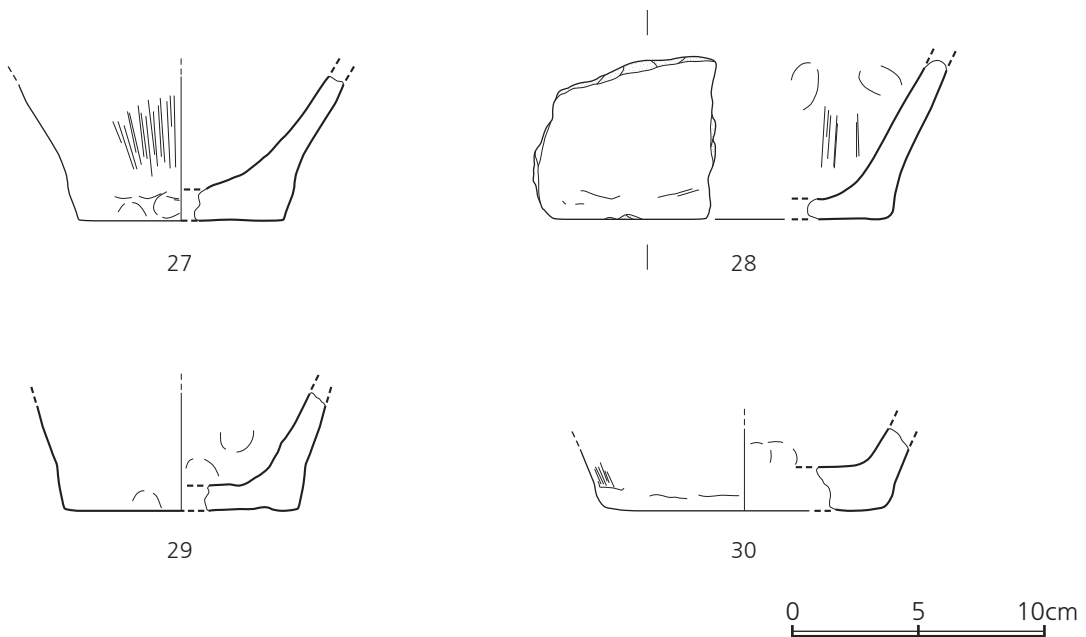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 내면은 흑갈색조와 회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65cm, 추정저경 9.0cm, 두께 1.0~1.4cm

30. 저부편(도면 15-30, 도판 36-30)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목리조정흔과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3.25cm, 추정저경 11.0cm, 두께 1.2~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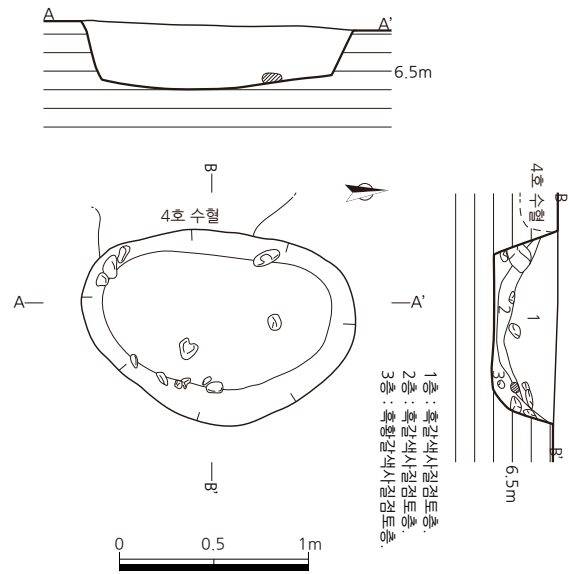


도면 15.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27~30)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6, 도판 6-①~④)

유적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 수혈유구의 남쪽에 후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45cm, 단축 102cm, 깊이 36cm이며 장축방향은 N74°W이다. 유구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밝은 편이며 자갈 등이 혼입되어 있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도면 16.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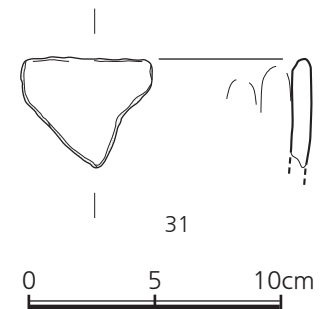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유물

31. 구연부편(도면 17-31, 도판 36-31)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띠며, 외면에 흑반이 관찰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현고 4.3cm, 너비 5.1cm, 두께 0.7~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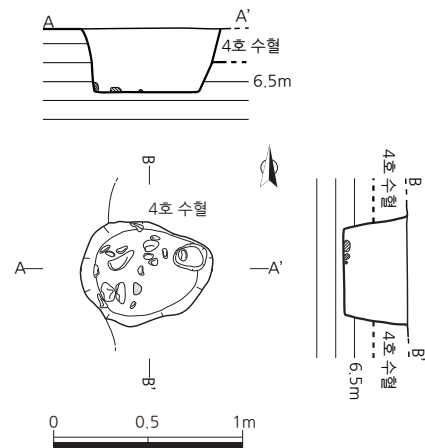
도면 17.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1)

(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8, 도판 6-⑤~⑧)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 수혈유구 내부에 중복되어 있는데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70cm, 단축 57cm, 깊이 34cm이며 장축방향은 N81°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28cm, 깊이 7cm이다. 내부 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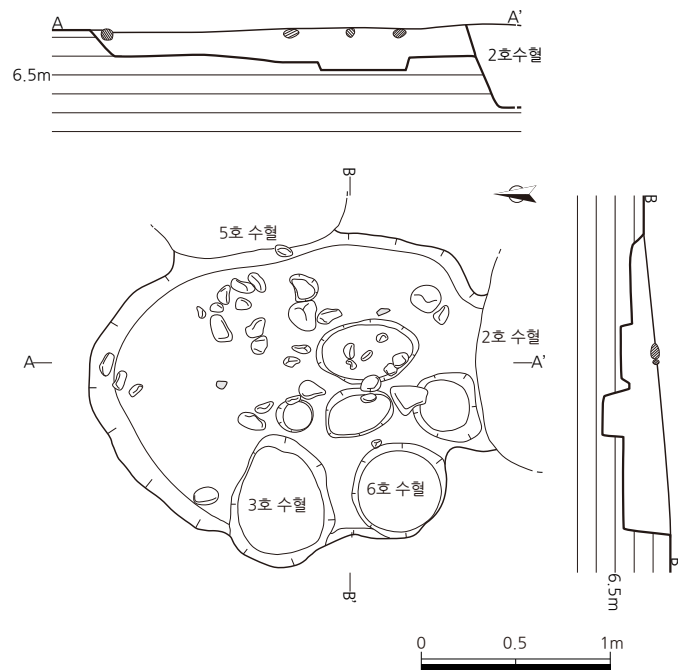
도면 18.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4) 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19, 도판 7-①~④)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3호·5호·6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가장 선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규모는 잔존 장축 203cm, 단축 161cm, 깊이 25cm이며 장축방향은 N90°W이다. 유구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 주혈이 다수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19.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32. 구연부편(도면 20-32, 도판 36-32)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8.5cm, 너비 7.4cm, 두께 0.8~1.0cm

33. 구연부편(도면 20-33, 도판 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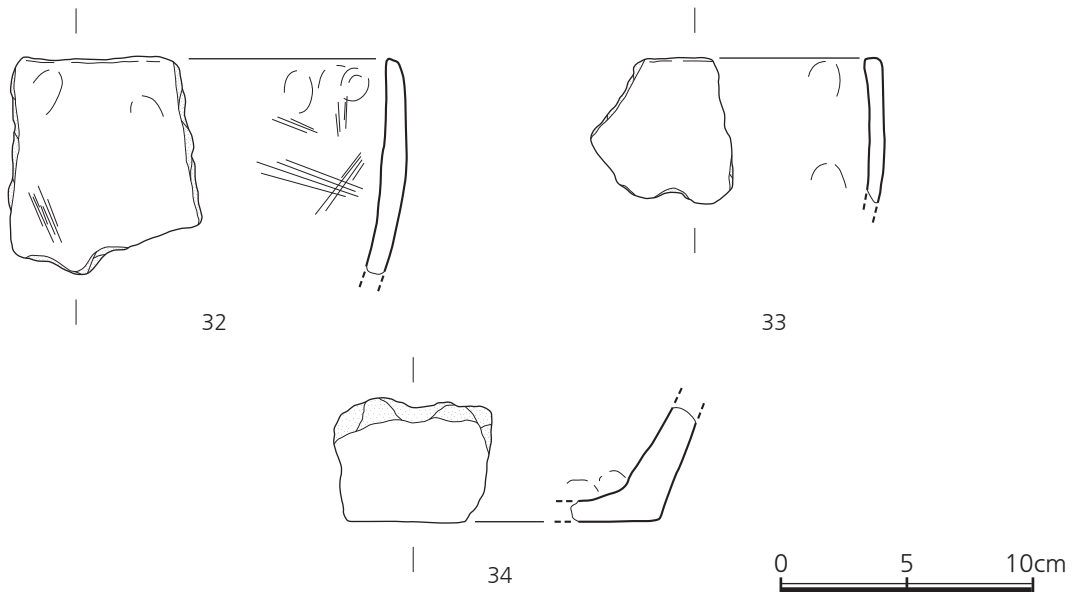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7cm, 너비 5.6cm, 두께 0.6cm

34. 저부편(도면 20-34, 도판 36-34)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5cm, 두께 0.8~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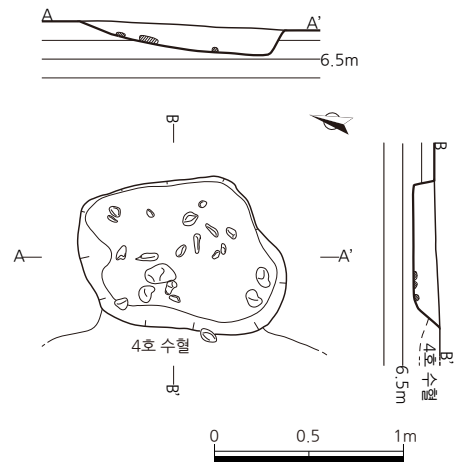
도면 20. 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2~34)

(5) 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2, 도판 7-⑤~⑧)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4호 수혈유구의 동쪽에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후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7cm, 단축 79cm, 깊이 27cm이며 장축방향은 N9°E이다. 유구의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21.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6) 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2, 도판 8-①~③)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4호 수혈유구의 남쪽에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후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51cm, 단축 50cm, 깊이 31cm이며 장축방향은 N36°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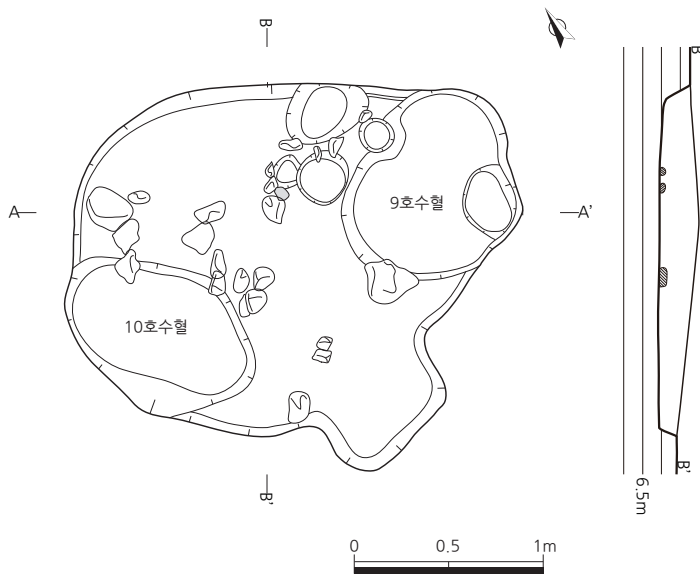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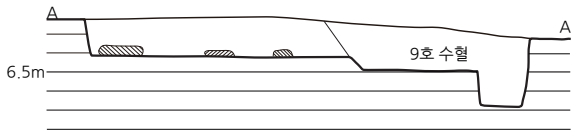
(7) 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3, 도판 8-④~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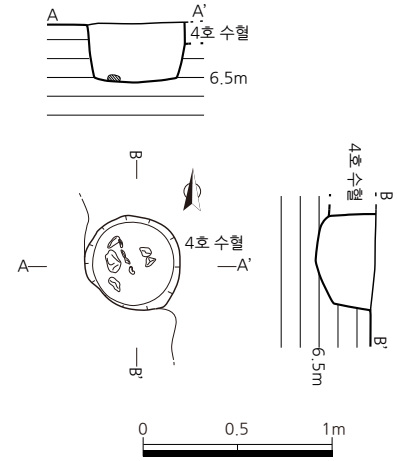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유구의 서쪽에 9호 수혈유구가 인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73cm, 단축 70cm, 깊이 8cm이며 장축방향은 N50°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는 동쪽으로 주혈이 중복되어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소토와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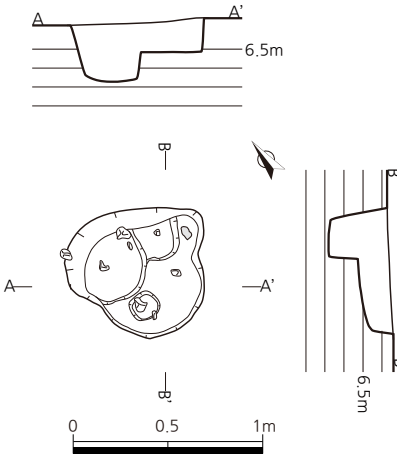
(8) 8호 수혈유구



도면 24.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22. 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23.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가. 유구(도면 24, 도판 9-①~④)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9호·10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장축 247cm, 단축 186cm, 깊이 20cm이며 장축방향은 N58°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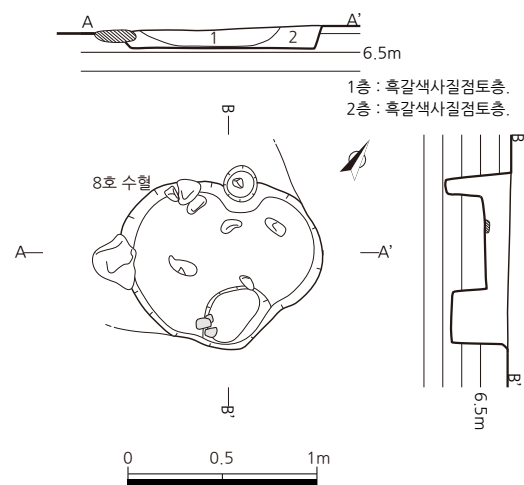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9) 9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5, 도판 9-⑤~⑧)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8호 수혈유구의 동쪽에 중복되어 있는데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규모는 장축 107cm, 단축 78cm, 깊이 13cm이며 장축방향은 N51°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목탄과 소토가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밝고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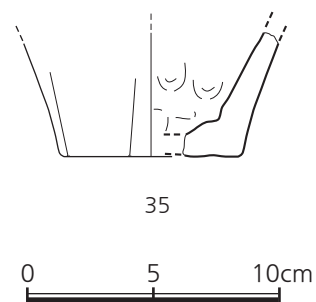
도면 25.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35. 저부편(도면 26-35, 도판 37-35)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 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목리조정흔,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9cm, 추정저경 7.2cm, 두께 0.9~1.3cm



도면 26. 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5)

(10) 1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7, 도판 10-①~④)

유적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7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1m 이격되어 있다. 8호 수혈유구 서쪽 내부에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9cm, 단축 72cm, 깊이 21cm이며 장축방향은

N65°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며 소량의 소토와 목탄, 풍화암반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11) 1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8, 도판 10-⑤~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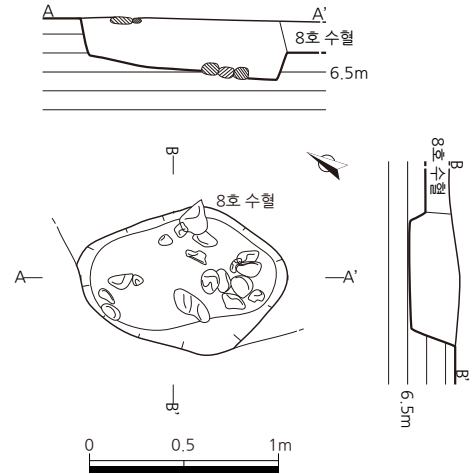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며 13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70c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85cm, 단축 61cm, 깊이 35cm이며 장축방향은 N44°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토가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밝은 편이며 자갈 등이 혼재되어 있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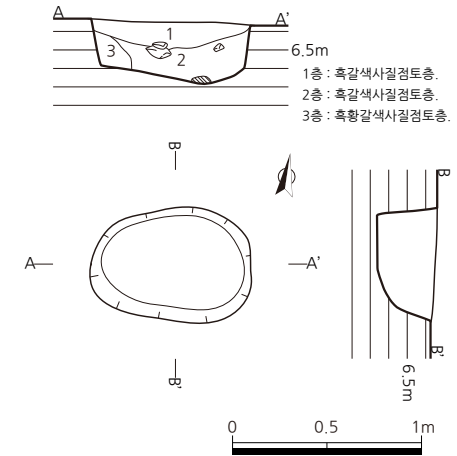
(12) 1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9, 도판 11-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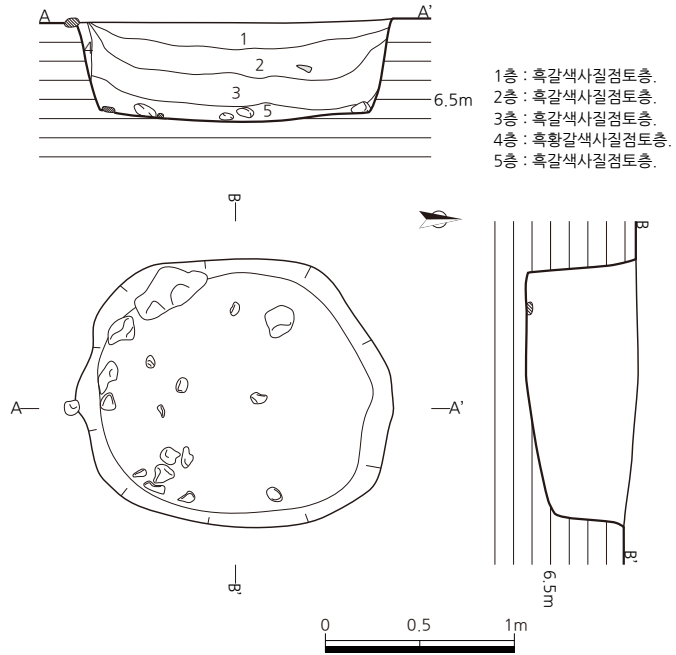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며 22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1.5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규모는 장축 167cm, 단축 143cm, 깊이 59cm이며 장축방향은 N21°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 퇴적토는 5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어둡고 점성은 높은 편으로 소토와 잔자갈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3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2층에



도면 27. 1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28. 1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29. 1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비해 명도가 밝은 편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4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벽체가 무너지면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5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높은 편으로 목탄과 자갈 등이 혼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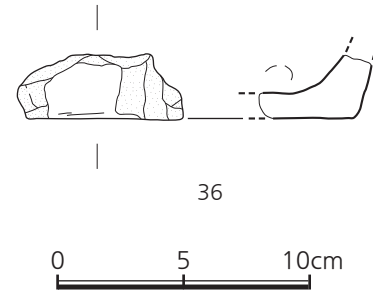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36. 저부편(도면 30-36, 도판 37-36)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황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현고 2.5cm, 두께 1.0~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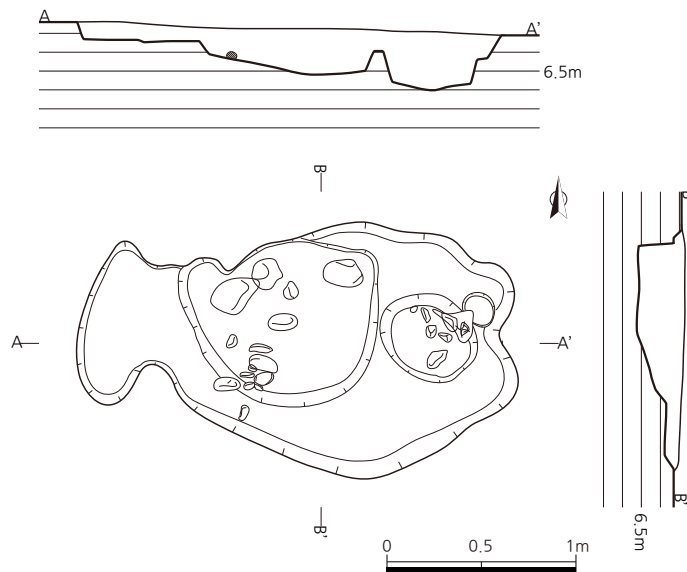
도면 30. 1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6)

(13) 1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1, 도판 11-⑤~⑨)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225cm, 단축 130cm, 깊이 14cm이며 장축방향은 N83°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 내부수혈 1기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유구 바닥 중앙부에 내부수혈과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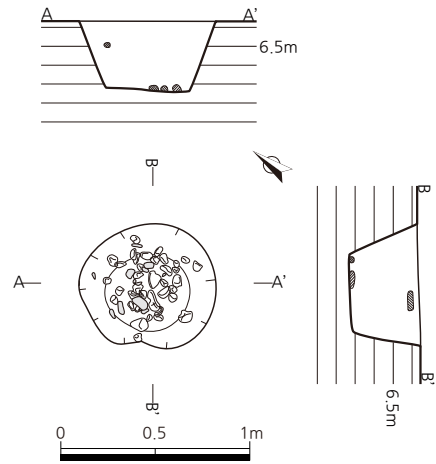
도면 31. 1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14) 1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2, 도판 12)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5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1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72cm, 단축 64cm, 깊이 40cm이며 장축방향은 N21°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에서 소형할석이 2~3단으로 빼곡하게 적석폐기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집석폐기층의 단일층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토기편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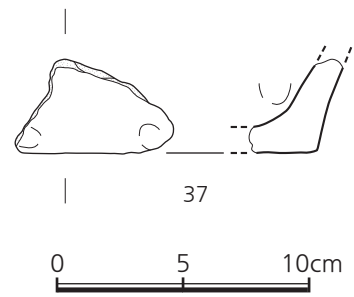
도면 32. 1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37. 저부편(도면 33-37, 도판 37-37)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 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3.7cm, 두께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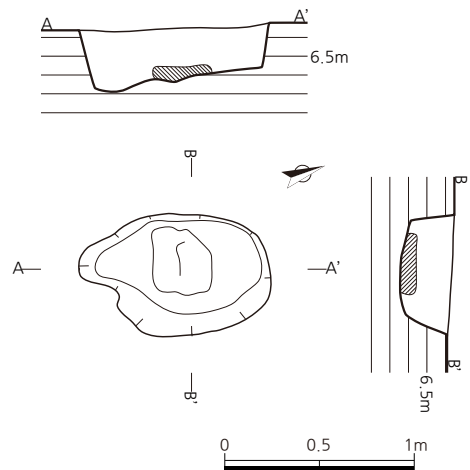
도면 33. 1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7)

(15) 1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4, 도판 13-①~④)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8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1.5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0cm, 단축 64cm, 깊이 32cm이며 장축방향은 N21°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 중앙에는 직경 40cm 내외의 판석형 자연석 1매가 바닥에서 5cm 정도 뜬 상태로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34. 1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38. 구연부편(도면 35-38, 도판 37-38)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4cm, 너비 5.8cm, 두께 0.9~1.0cm

(16) 1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6, 도판 13-⑤~⑧)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7호 수혈이 서쪽으로 1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61cm, 단축 60cm, 깊이 40cm이며 장축방향은 N38°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상부부터 잔자갈과 할석 등이 혼재되어 바닥면까지 집석폐기된 양상이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집석폐기 단일층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토기편 등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외반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39. 구연부편(도면 37-39, 도판 37-39)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를 띠고, 내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5cm, 너비 4.6cm, 두께 0.7~0.8cm

40. 구연부편(도면 37-40, 도판 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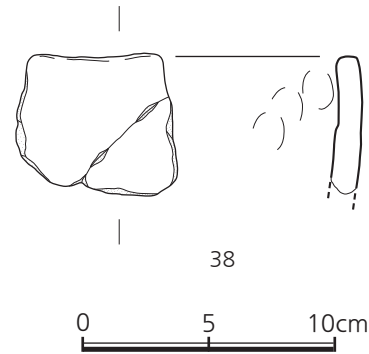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하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고 4.9cm, 너비 8.4cm, 두께 0.6~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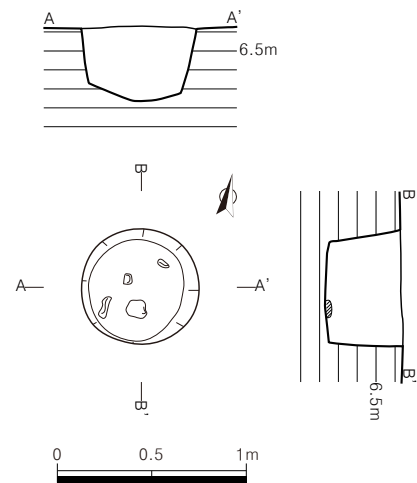
41. 저부편(도면 37-41, 도판 37-41)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황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7.6cm, 두께 1.1~1.3cm



도면 35. 15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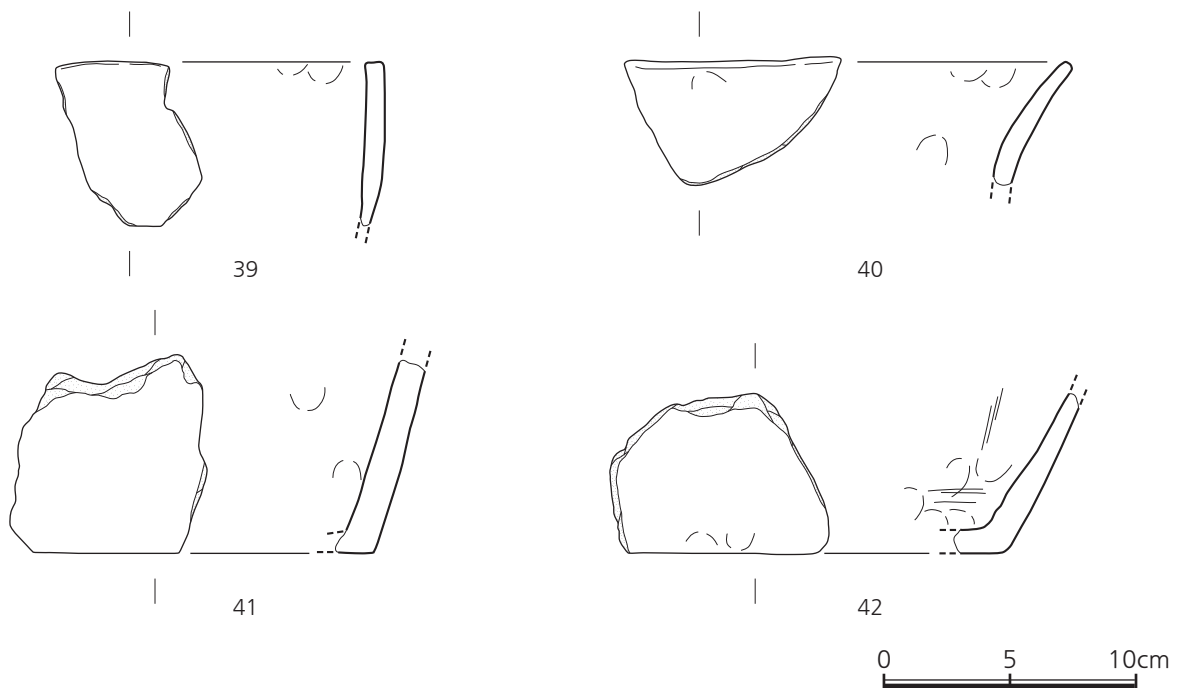


도면 36. 1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42. 저부편(도면 37-42, 도판 37-42)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조와 적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6.3cm, 두께 0.7~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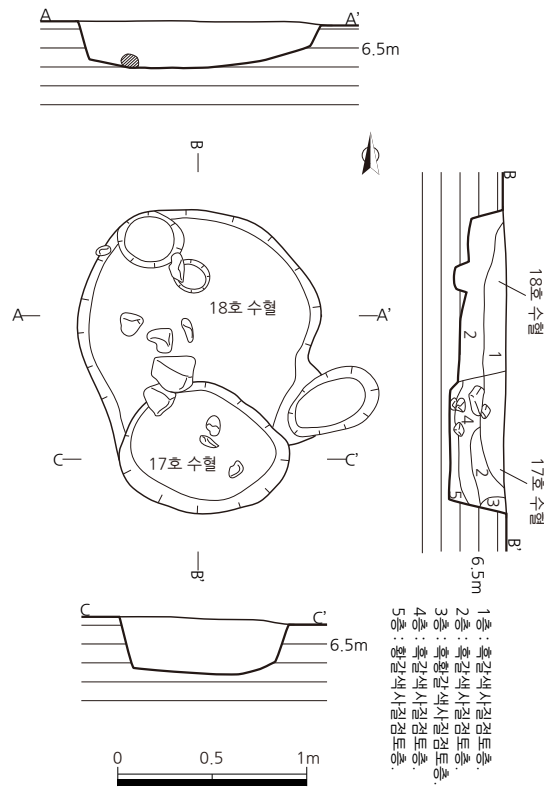
도면 37. 1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39~42)

(17) 1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8, 도판 14-①~③)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18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17호 수혈유구가 후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90cm, 단축 70cm, 깊이 30cm이며 장축방향은 N90°W이다. 유구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5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소토가 혼재되어 있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굵은 석립이 얇게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수에 의해 한꺼번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가 확인된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4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잔자갈과 다량의 소토가 혼입되어 있다. 5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잔자갈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도면 38. 17호 · 18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18) 18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8, 도판 14-④~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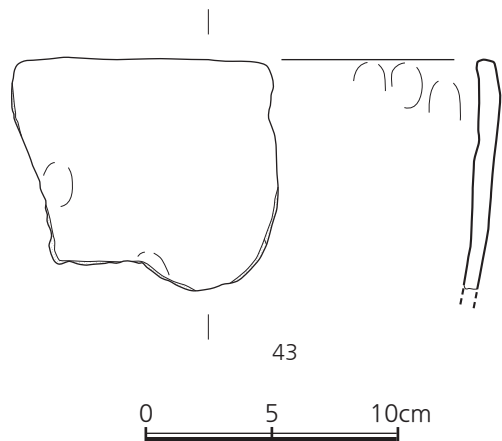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호 수혈유구, 4호 불다짐유구가 인접하여 있다. 유구의 남쪽에 17호 수혈유구가 후축되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잔존장축 90cm, 단축 128cm, 깊이 27cm이고 장축방향은 N59°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북에서 남으로 경사져 내려가게 처리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주혈이 확인되는데 주혈의 규모는 직경 8~13cm, 깊이 5~11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소토가 혼재되어 있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굵은 석립이 얇게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수에 의해 한번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가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43. 구연부편(도면 39-39, 도판 37-39)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도면 39. 18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3)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 내면은 황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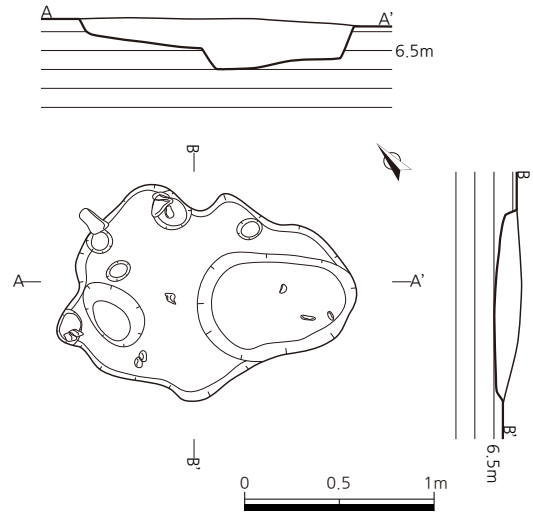
현고 9.1cm, 너비 10.0cm, 두께 0.7~0.8cm

(19) 19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0, 도판 15)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8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50c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장축 145cm, 단축 100cm, 깊이 15cm이며 장축방향은 N59°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내부수혈 1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는데 직경 13~78cm, 깊이 5~20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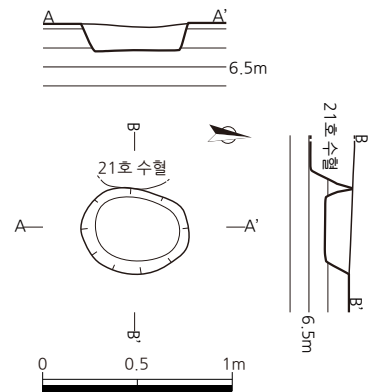
도면 40. 1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0) 2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1, 도판 16-①~④)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1호 수혈유구가 서쪽에 연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57cm, 단축 44cm, 깊이 16cm이며 장축방향은 N31°E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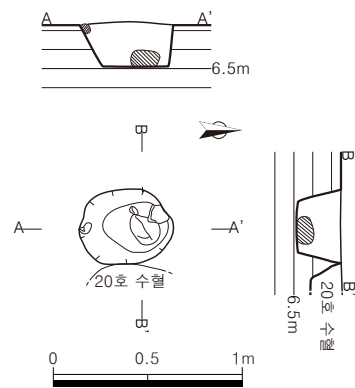


도면 41. 2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1) 2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2, 도판 16~⑤~⑧)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호 수혈유구와 연접하여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50cm, 단축 38cm, 깊이 24cm이며 장축방향은 N37°E이다. 유구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도면 42. 2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유구 바닥면에서 30cm 내외의 천석 1매가 놓여져 있고 천석 위에 소형 잡석 등이 2~3단으로 집석되어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으로 소형잡석과 토기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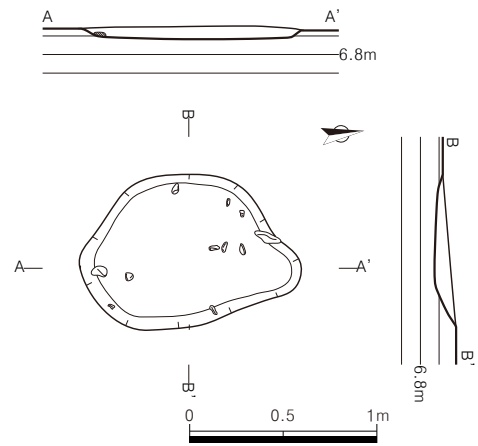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2) 22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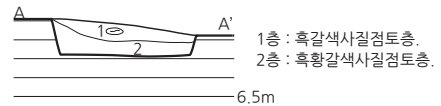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3, 도판 17-①~④)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2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1.5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19cm, 단축 82cm, 깊이 11cm이며 장축 방향은 N6°E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43. 2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44. 2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23) 2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4, 도판 17~⑤~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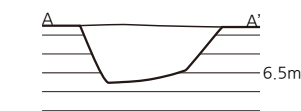
유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4호·25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74cm, 단축 62cm, 깊이 19cm이며 장축 방향은 N62°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4) 2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5, 도판 18-①~③)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호 불다짐유구와 25호 수혈유구가 동쪽과 서쪽에 인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75cm, 단축 63cm, 깊이 53cm이며 장축방향은 N67°E이다. 유구의 남벽은 2단 굴광되었고



도면 45. 2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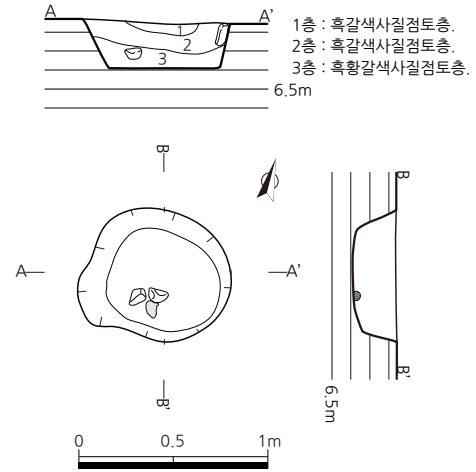
북벽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5) 2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6, 도판 18-④~⑧)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4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인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75cm, 단축 67cm, 깊이 28cm이며 장축방향은 N75°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잔자갈과 소토, 목탄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2층은 1층에 비해 명도가 밝고 소형잡석이 포함되어 있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벽면이 무너지면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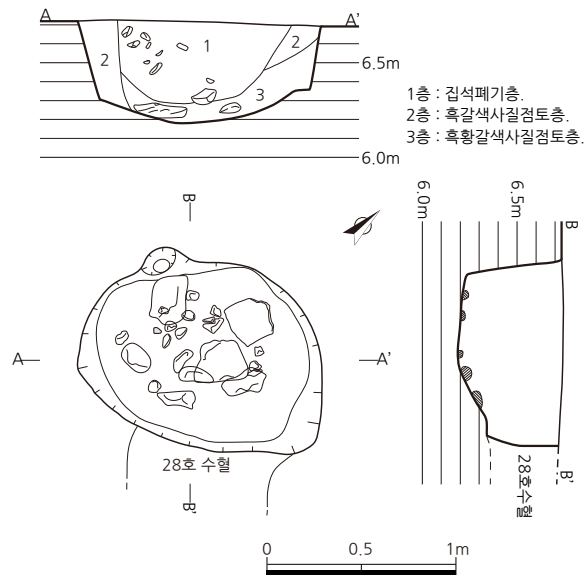
도면 46. 2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된다.

(26) 2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7, 도판 19)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7호·28호 수혈유구가 남쪽과 동쪽에 중복되어 확인되었는데 토층과 유구의 축조양상을 통해 볼 때 축조순서는 27호·28호 수혈유구가 선축되었고 26호 수혈유구가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28cm, 단축 99cm, 깊이 53cm이며 장축방향은 N67°E이다. 유구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상부에서부터 소형 잡석 등이 집석폐기된 양상이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집석폐기층으로 토기편과 흑갈색사질점토층이 혼재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높고 명도가 밝은 편이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벽체가 무너지면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47. 2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내만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과 갈돌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44. 구연부편(도면 48-44, 도판 37-44)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5~0.7cm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2.7cm, 너비 3.6cm, 두께 0.7~0.8cm

45. 구연부편(도면 48-45, 도판 37-45)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살짝 내만하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와 적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6cm, 두께 0.7cm

46. 저부편(도면48-46, 도판 37-46)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오목한 굽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3.15cm, 저경 8.0cm, 두께 1.2~1.7cm

47. 저부편(도면 48-47, 도판 37-47)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고 4.15cm, 저경 13.0cm, 두께 1.4~1.6cm

48. 저부편(도면 48-48, 도판 3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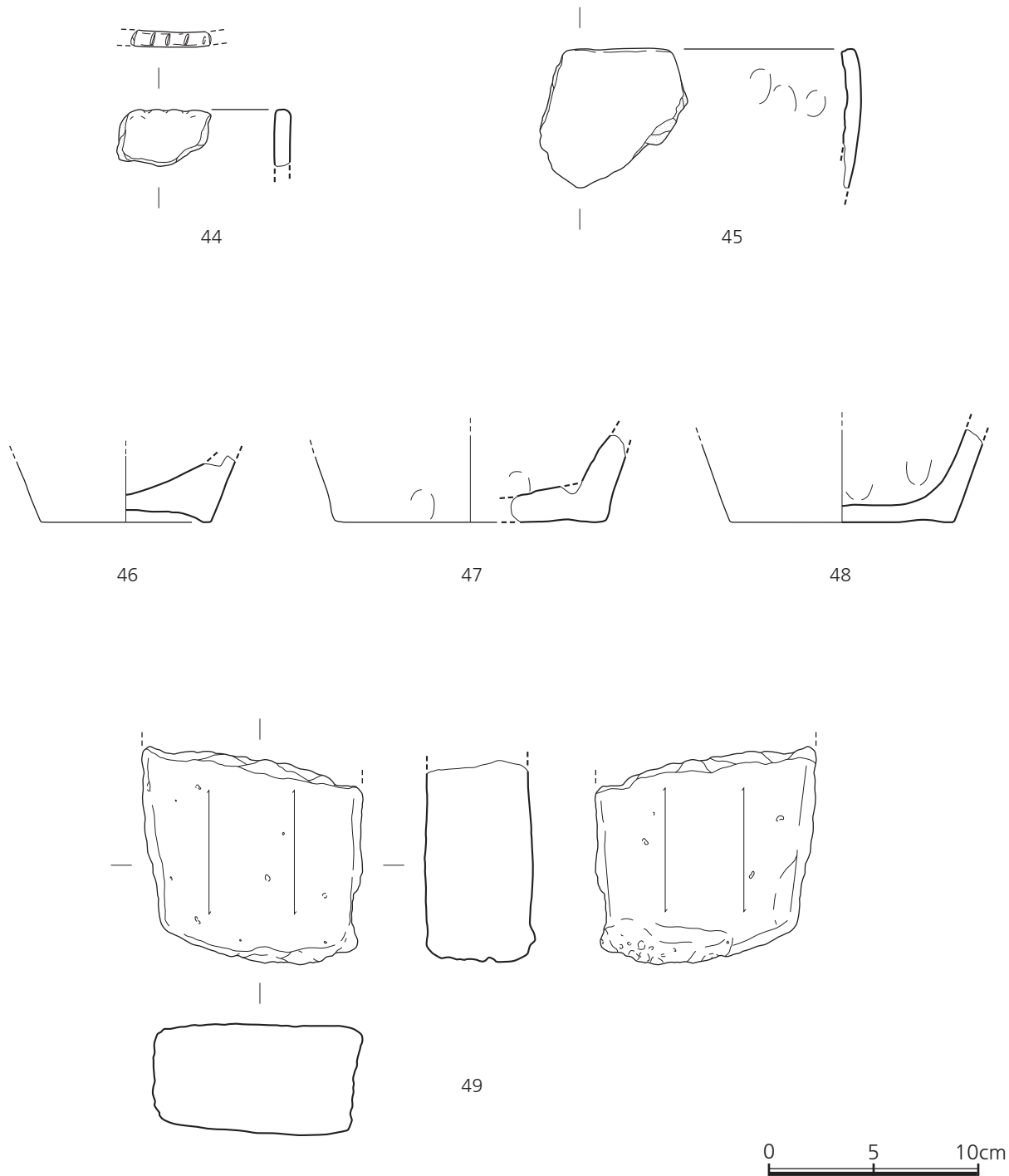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4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4cm, 추정저경 10.6cm, 두께 0.8~1.0cm

49. 갈돌편(도면 48-49, 도판 37-49)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편으로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前)·후면에 사용에 의한 마연흔이 확인된다.

길이 9.6cm, 너비 10.0cm, 두께 4.8~5.2cm



도면 48. 2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44~49)

(27) 2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9, 도판 20-①~④)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4호불다짐유구가 인접해있다. 26호 수혈유구가 북쪽에 후축되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84cm, 단축 72cm, 깊이 34cm이며 장축방향은 N28°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

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 천석과 잡석이 혼재되어 2~3단으로 집석폐기된 양상이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집석폐기층으로 소형 잡석과 천석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8) 28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0, 도판 20-⑤~⑧)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6호 수혈유구가 후축되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장축 74cm, 단축 73cm, 깊이 22cm이며 장축방향은 N10°E이다. 유구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내부에는 30~40cm 내외의 대형 자연석과 소형잡석이 혼재되어 2~3단으로 집석폐기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는 집석폐기층으로 단일층이며 흑갈색사질점토가 혼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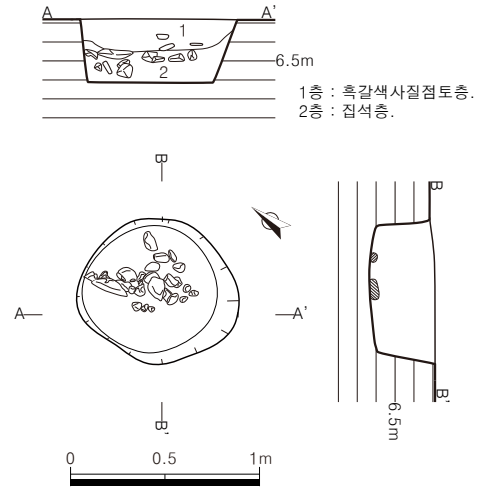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29) 29호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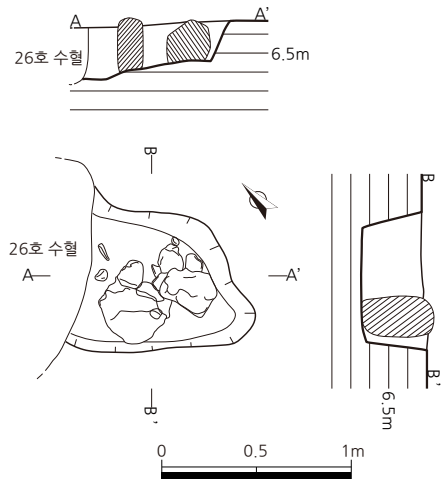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51, 도판 21-①~④)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1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50c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95cm, 단축 78cm, 깊이 22cm로 장축방향은 N80°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소토와 잔자갈이 포함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2층에 비해 점성이 높은 편으로 황갈색점토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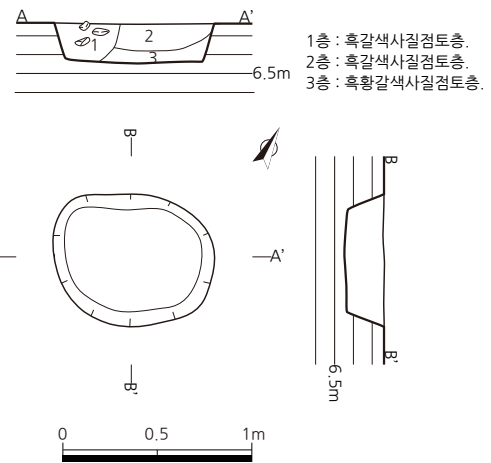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도면 49. 27호 수혈 평 · 단면도



도면 50. 28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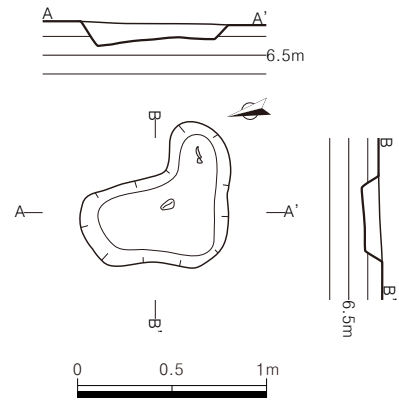
도면 51. 29호 수혈유구 평 · 단면도

(30) 3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2, 도판 21-⑤~⑧)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9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1.8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장축 78cm, 단축 46cm, 깊이 10cm이며 장축방향은 N20°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일부 굴곡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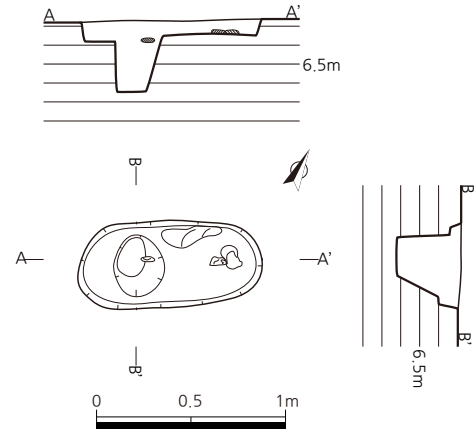
도면 52. 3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31) 3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2, 도판 22-①~④)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9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50c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96cm, 단축 45cm, 깊이 24cm이며 장축방향은 N60°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바닥 중앙부에서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21~31cm, 깊이 24cm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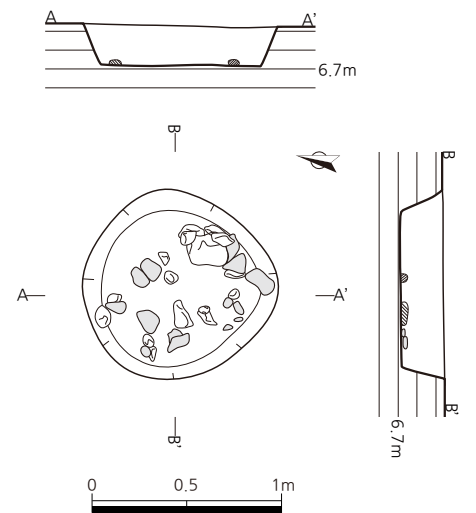
도면 53. 3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32) 3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4, 도판 22-⑤~⑧)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7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50c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3cm, 단축 100cm, 깊이 23cm이며 장축방향은 N9°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며 토기편과 소형 잡석 등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발형토기,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54. 3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50. 발형토기(도면 55-50, 도판 3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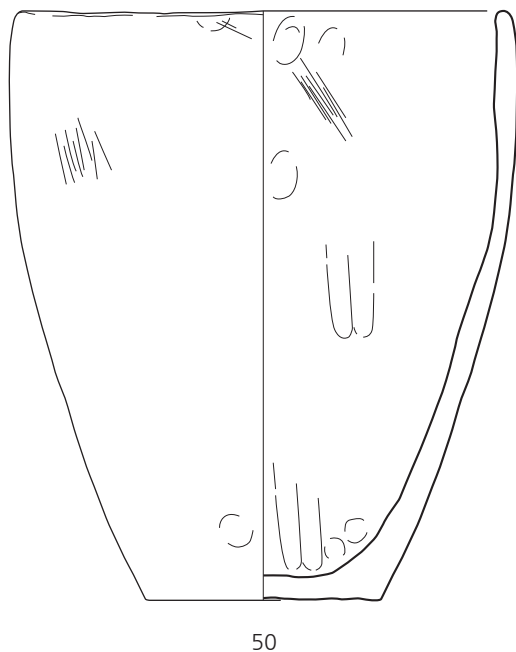
심발형토기 완형으로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저부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다 동체 상부에서 동최대경을 이룬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은 지두흔과 물손질흔, 내면은 지두흔과 지두압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고 23.4cm, 구경 19.8cm, 저경 9.2cm, 두께 0.7~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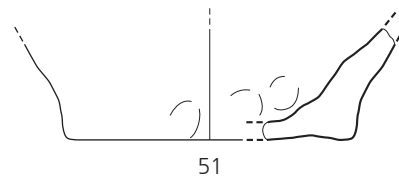
51. 저부편(도면 55-51, 도판 35-51)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벌어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 내면은 황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어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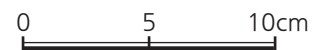
현고 4.4cm, 추정저경 11.0cm, 두께 1.0~1.8cm



50



51



도면 55. 3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0·51)

(33) 3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6, 도판 23-①~④)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34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33호 수혈유구가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10cm, 단축 97cm, 깊이 16cm이며 장축방향은 N7°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한 편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하게 경사지게 처리되었다. 바닥면에는 주혈이 남쪽으로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주혈의 규모는 직경 34~40cm, 깊이 22cm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34) 3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7, 도판 23-⑤~⑧)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3호 수혈유구가 남쪽에 후축되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2cm, 잔존단축 70cm, 깊이 10cm이며 장축방향은 N2°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바닥면에서 주혈 2기가 확인되었는데 주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30cm 내외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35) 3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8, 도판 24-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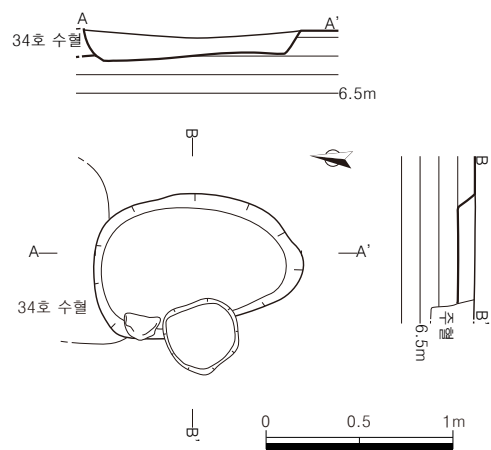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6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으며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잔존장축 92cm, 단축 72cm, 깊이 18cm이며 장축방향은 N25°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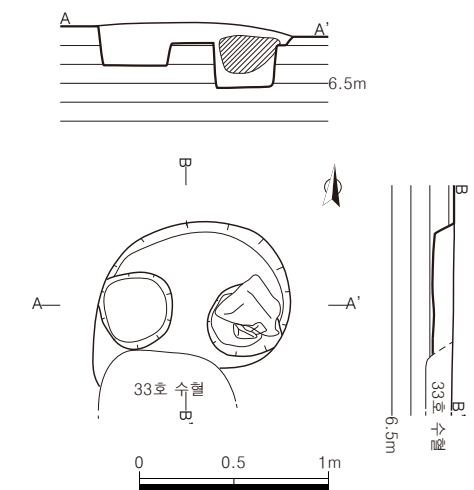
(36) 3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9, 도판 24-④~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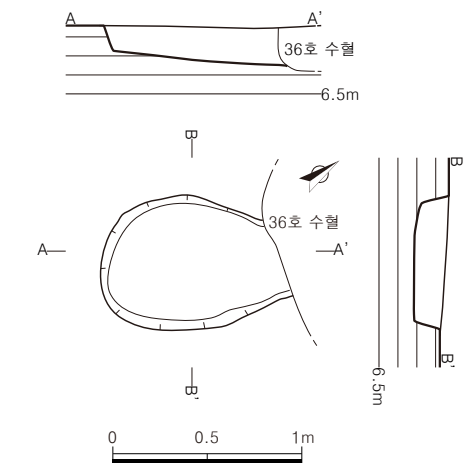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3호·34호 수혈유구가 인접해 있으며, 35호 수혈유구가 중복되어 있으며 후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도면 56. 3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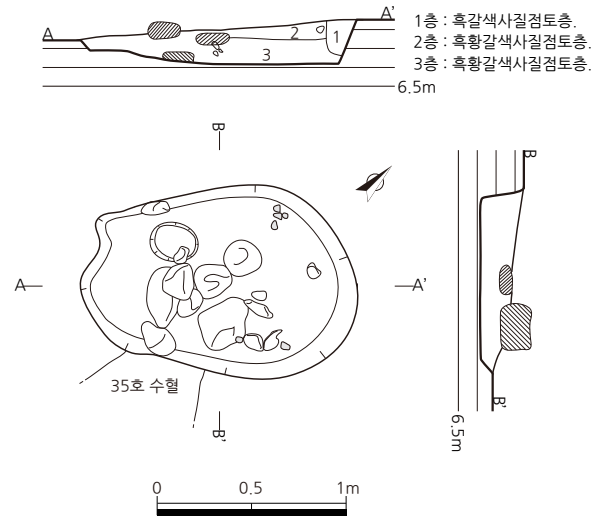


도면 57. 3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도면 58. 3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규모는 장축 146cm, 단축 98cm, 깊이 19cm이며 장축방향은 N40°W이다. 유구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일부 굴곡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편평한 편이다. 유구 중앙부에 20~30cm 내외의 대형 자연석 등이 1~2단 내외로 집석되어 확인되었다. 유구 바닥면에서는 주혈 1기가 확인되는데 규모는 직경 20cm, 깊이 15cm이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밝으며 황갈색풍화암반알갱이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잡석이 혼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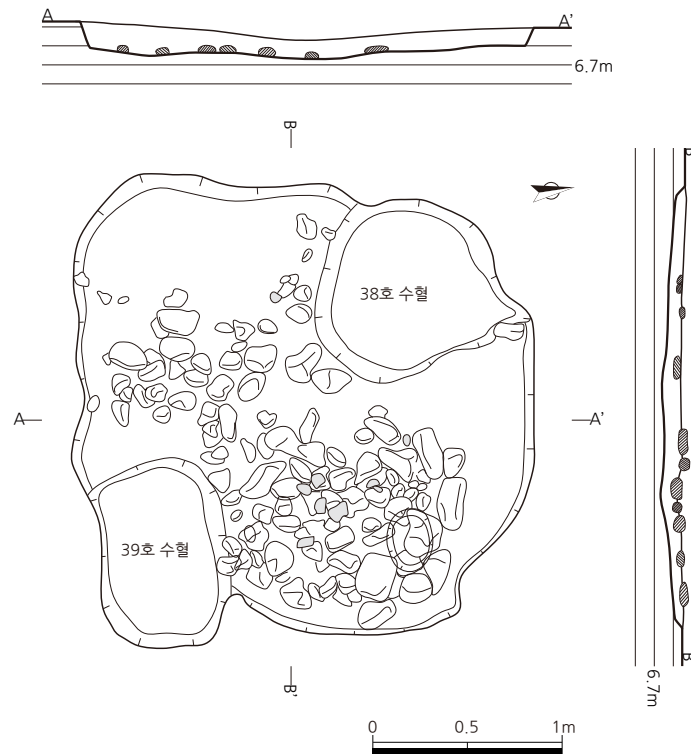
도면 59. 3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37) 3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0, 도판 25)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8호·39호 수혈유구가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규모는 장축 240cm, 단축 234cm, 깊이 14cm이며 장축방향은 N40°W이다.



도면 60. 3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유구 벽면은 완만한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북서쪽 모서리가 일부 굴곡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39호 수혈유구가 위치한 유구 남동쪽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구역에서 잡석과 자연석이 혼재된 집석층이 확인되는데 집석을 걷어내자 38호 수혈유구 내부의 잔자갈층이 노출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구의 축조순서는 38호 수혈유구가 가장 선축되었고 37호 수혈유구의 집석층이 퇴적된 후 39호 수혈유구가 37호 수혈유구 남동쪽 모서리에 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퇴적토는 집석층의 단일층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토기편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내만구연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52. 구연부편(도면 61-52, 도판 38-52)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내만하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황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8.8cm, 너비 12.1cm, 두께 0.9~1.1cm

53. 구연부편(도면 61-53, 도판 38-53)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4cm, 너비 8.4cm, 두께 0.9cm

54. 구연부편(도면 61-54, 도판 38-54)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0cm, 너비 7.1cm, 두께 0.9cm

55. 저부편(도면 61-55, 도판 38-55)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4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벌어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11.15cm, 추정저경 12.0cm, 두께 1.4~1.7cm

56. 저부편(도면 61-56, 도판 38-56)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외면 기벽의 슬립이 벗겨져 있고,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7cm, 저경 7.6cm, 두께 1.0~1.1cm

57. 저부편(도면 61-57, 도판 38-57)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2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되고,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3.8cm, 저경 11.8cm, 두께 0.9~1.4cm

58. 저부편(도면 61-58, 도판 38-58)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4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암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5.5cm, 추정저경 9.6cm, 두께 0.8~1.0cm

59. 저부편(도면 61-59, 도판 38-59)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3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현고 3.4cm, 추정저경 10.2cm, 두께 1.5~1.6cm

60. 저부편(도면 61-59, 도판 3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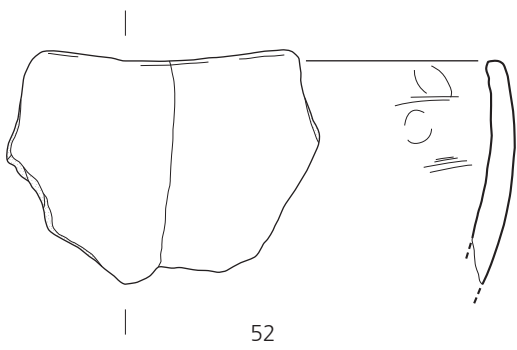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다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6cm, 두께 1.1~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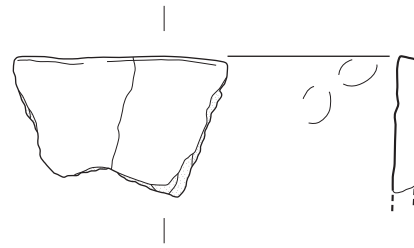
61. 저부편(도면 61-61, 도판 38-61)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1/4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저부형태는 얇은 굽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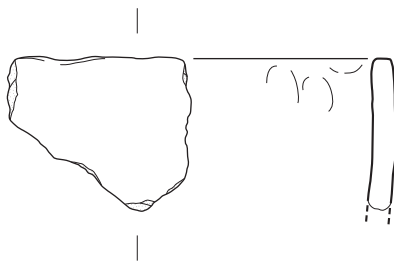
현고 6.25cm, 추정저경 12.8cm, 두께 1.4~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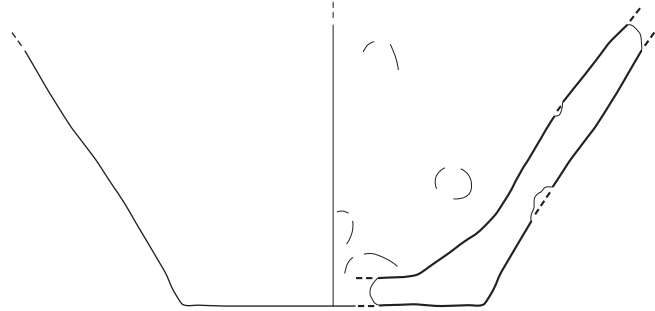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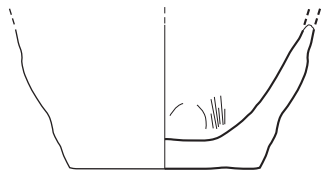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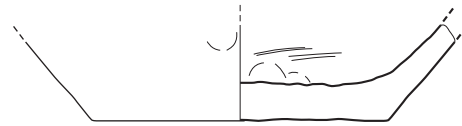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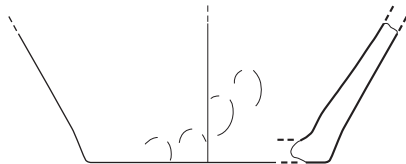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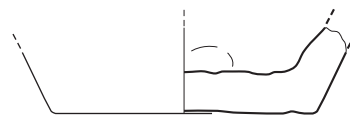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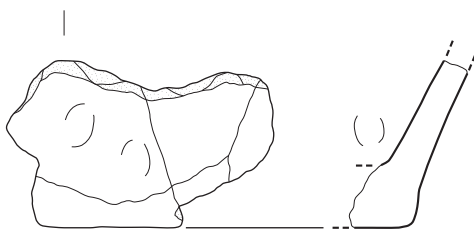
57



58



59



6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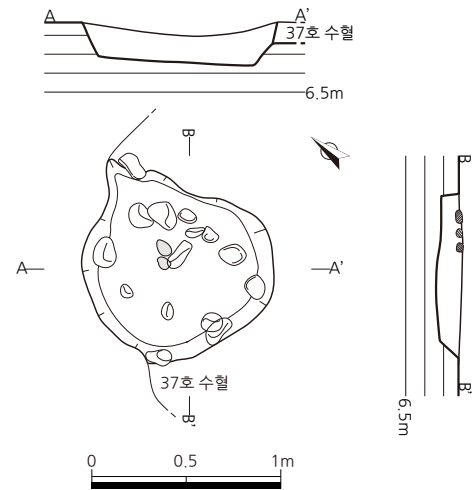
도면 61. 3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52~61)

(38) 38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2, 도판 26-⑤~⑧)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7호 수혈유구 서쪽에 중복되어 있다. 38호 수혈유구가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1cm, 단축 88cm, 깊이 22cm이며 장축방향은 N38°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잔자갈과 토기편 등이 혼재되어 집석된 양상이 확인된다. 내부퇴적토는 집석층의 단일층으로 잔자갈과 흑갈색사질점토, 토기편 등이 혼재되어 퇴적되었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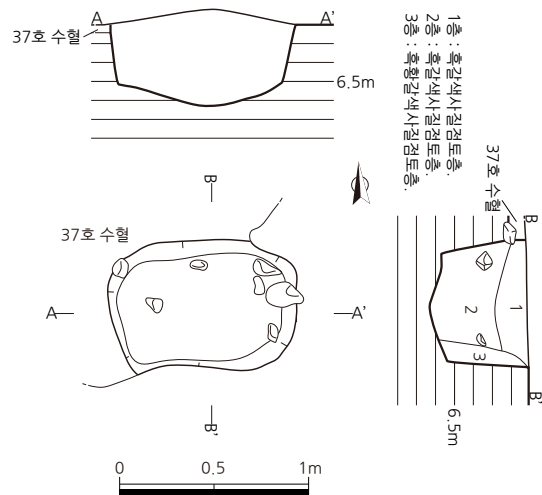
도면 62. 3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39) 39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3, 도판 26-⑤~⑧)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37호 수혈유구 남동쪽 모서리에 중복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규모는 장축 99cm, 단축 67cm, 깊이 52cm이며 장축방향은 E90°W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어둡고 점성이 높은 편으로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벽체가 무너지면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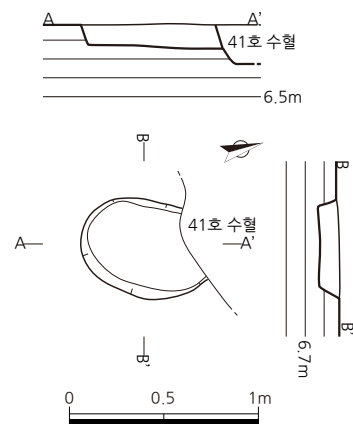


도면 63. 3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40) 40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4, 도판 27-①~③)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1호 수혈유구가 북쪽에 후축되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잔존장축 54cm, 단축 52cm, 깊이 11cm이며 장축방향은 N41°E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의



도면 64. 40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단일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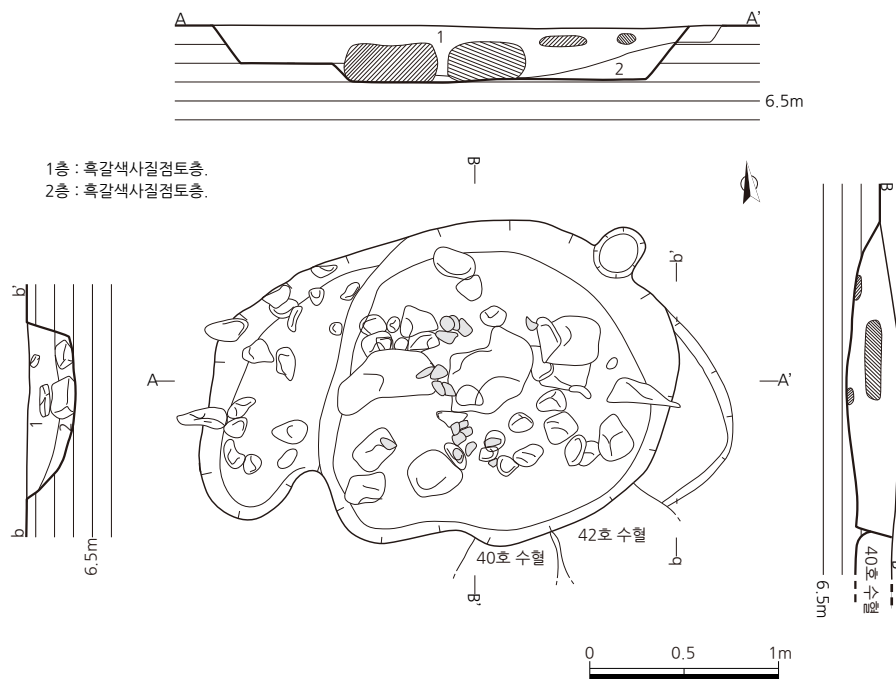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41) 4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5, 도판 27-④~⑧)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0호·42호 수혈유구의 북쪽에 후축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268cm, 단축 167cm, 깊이 28cm이며 장축방향은 N77°E이다. 유구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유구의 동-서편으로 다단굴광된 형태이다.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중앙부를 중심으로 20~50cm 내외의 대형 자연석이 1~2단으로 집석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소형 잡석과 토기편 등이 혼재되어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 잔자갈이 혼입되어 있다. 2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에 비해 명도가 밝고 점성이 높은 편으로 중앙부에 대형 자연석 등이 혼재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공렬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65. 4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62. 구연부편(도면 66-62, 도판 39-62)

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결실되었다. 기면에서 직경 0.5cm의 공렬문이 밖에서 안으로 반투공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4.5cm, 너비 4.4cm, 두께 0.7~0.85cm

63. 구연부편(도면 66-63, 도판 3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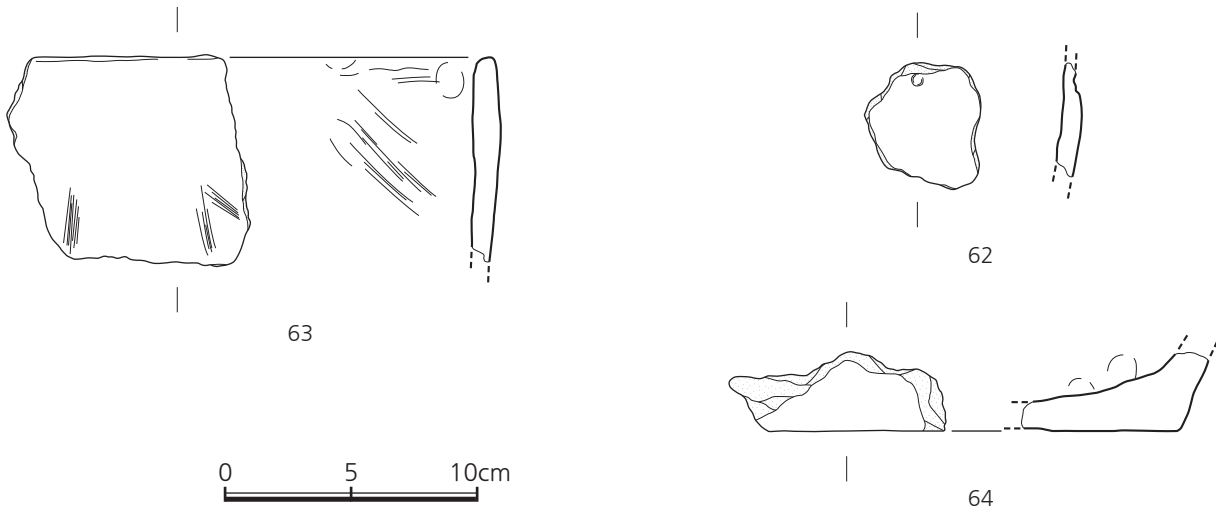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8.1cm, 너비 9.0cm, 두께 0.9~1.0cm

64. 저부편(도면 66-64, 도판 39-64)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3.1cm, 두께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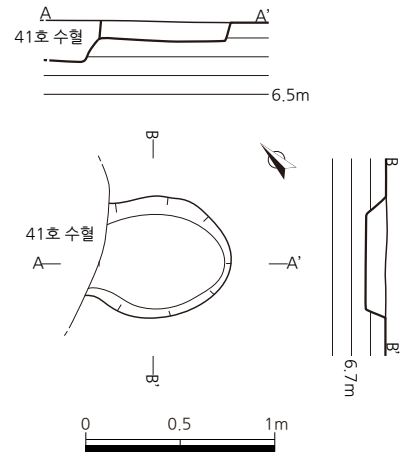


도면 66. 4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62~64)

(42) 4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7, 도판 28-①~③)

유적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0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41호 수혈유구가 후축되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잔존장축 68cm, 단축 50cm, 깊이 10cm이며 장축방향은 N52°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단일층으로 흑갈색사질점토층의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도면 67. 4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혼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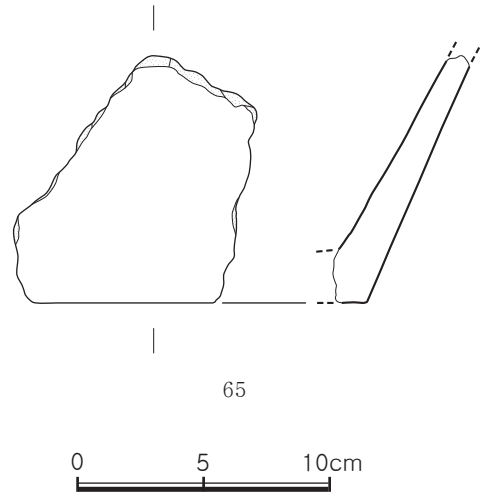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토기 저부편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65. 저부편(도면 68-65, 도판 39-65)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편평저부이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사선으로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9.8cm, 두께 1.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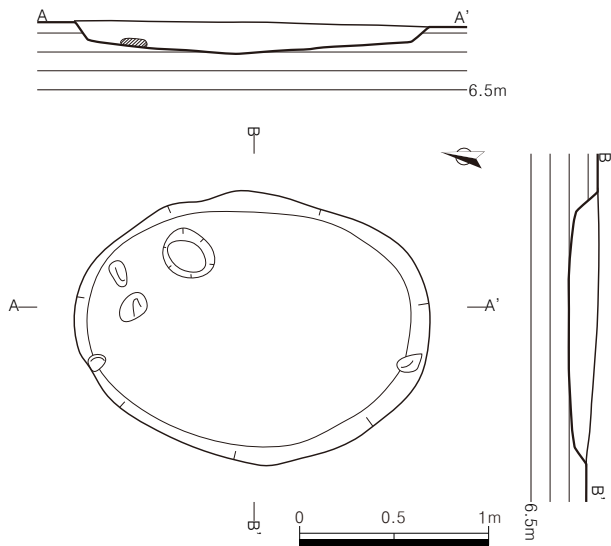


도면 68. 4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5)

(43) 4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69, 도판 28-④~⑧)

유적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41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3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88cm, 단축 144cm, 깊이 16cm이며 장축방향은 N11°W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소형 할석과 자연석 등이 1~2단으로 집석 폐기된 양상이 확인된다. 유구 바닥면에서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15cm, 깊이 13cm이다. 내부퇴적토는 집석폐기층의 단일층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토기편 등이 혼재되어 있다.



도면 69. 4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66. 구연부편(도면 70-66, 도판 39-66)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직선방향으로 희미하게 시문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7.1cm, 너비 6.1cm, 두께 0.7~1.1cm

67. 구연부편(도면 70-67, 도판 39-67)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 내만하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10.8cm, 너비 10.6cm, 두께 0.5~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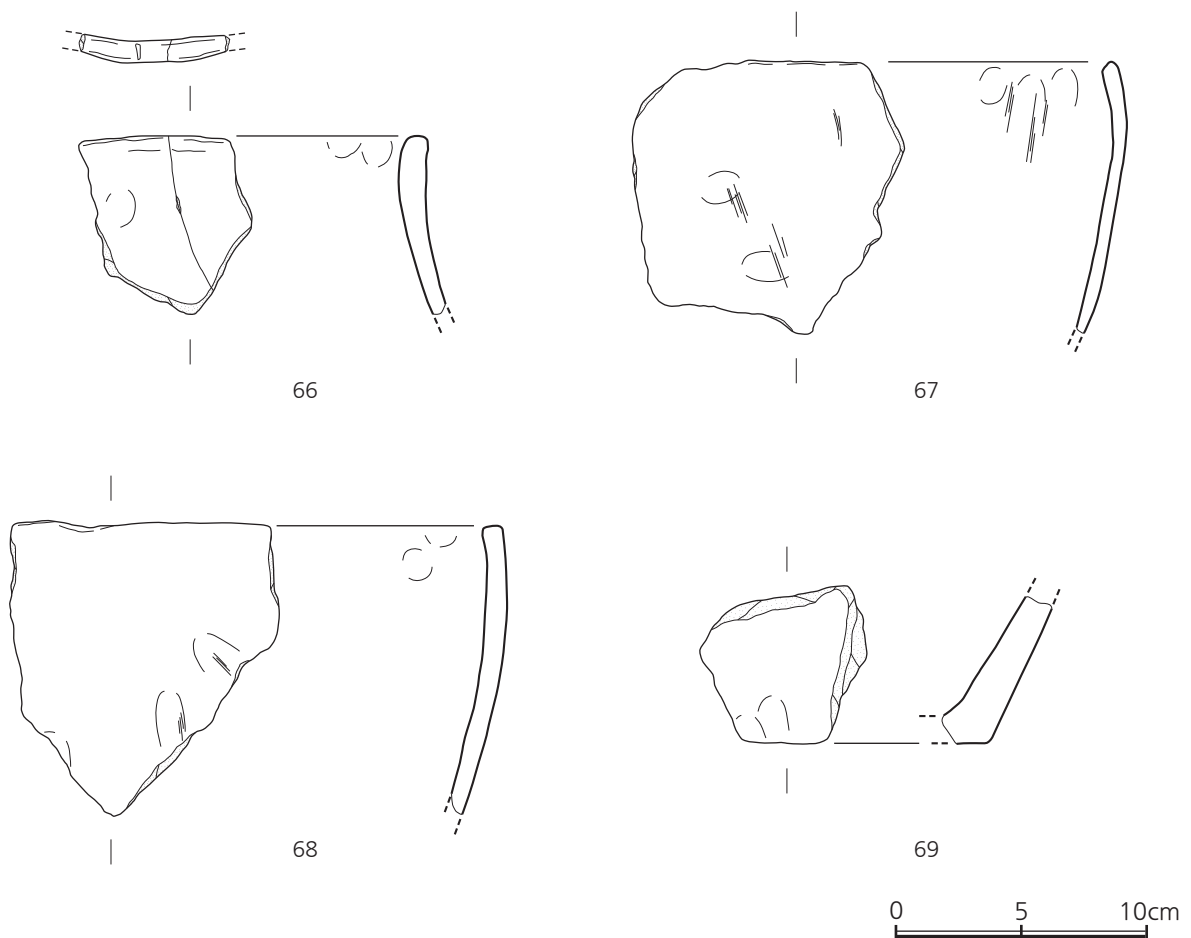
68. 구연부편(도면 70-68, 도판 39-68)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과 물손질흔,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11.5cm, 너비 10.6cm, 두께 0.8~0.9cm

69. 저부편(도면 70-69, 도판 39-69)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편평저부로 추정되며 바닥에서 동체부로



도면 70. 4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66~69)

완만하게 올라가는 기형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를 띠고, 내면은 황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서 지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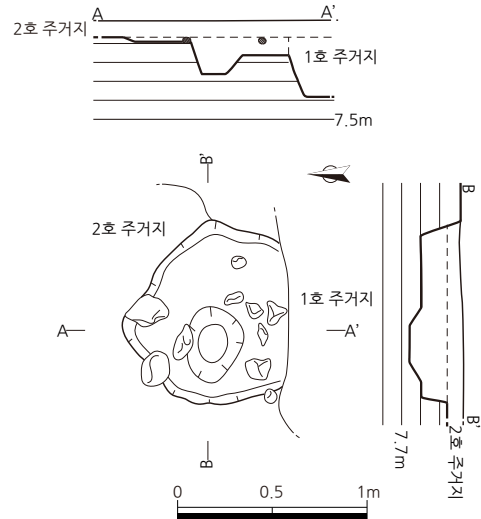
현고 5.8cm, 두께 1.3~1.6cm

(44) 4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1, 도판 29-①~④)

유적의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사이에 중복되어 있다. 유구의 축조순서는 토층과 축조상태를 통해 볼 때 1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어 있으며 2호 주거지가 가장 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96cm, 잔존단축 87cm, 깊이 11cm이며 장축방향은 N55°E이다. 유구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일부 자갈이 노두되어 굴곡져 있지만 대체로 오목한 편으로 바닥면에서 내부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31~39cm, 깊이는 24cm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며 소량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되어 있고 풍화암반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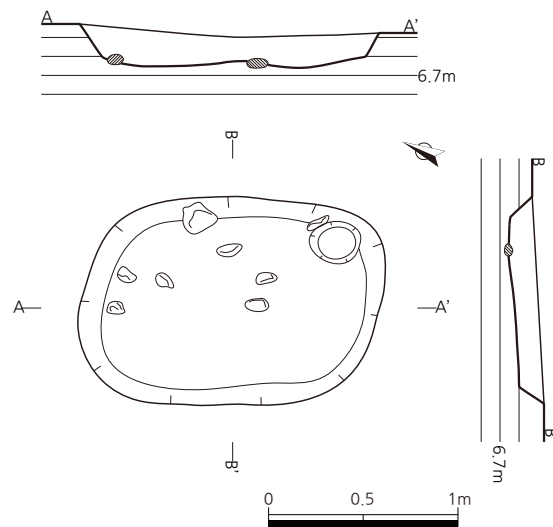
도면 71. 4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45) 4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72, 도판 29-⑤~⑧)

유적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43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1.5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58cm, 단축 110cm, 깊이 18cm이며 장축방향은 N16°E이다. 유구벽면은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대체로 편평하지만 일부 자갈이 노두되어 불규칙하다. 내부바닥면에서 주혈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23~26cm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72. 4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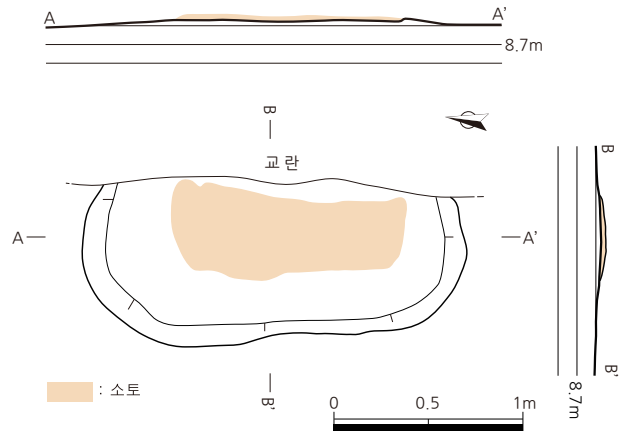
3) 불다짐유구

(1) 1호 불다짐유구

가. 유구(도면 73, 도판 30-①~④)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불다짐유구가 북쪽으로 1m 이격되어 있다. 유구의 동쪽에 후대 교란구덩이가 생기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장축 202cm, 잔존단축 82cm, 깊이 4cm이고 장축방향은 N11°W이다. 유구는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암반 위에 점토를 얇게 깔아 축조되었다. 내부퇴적토는 불다짐층으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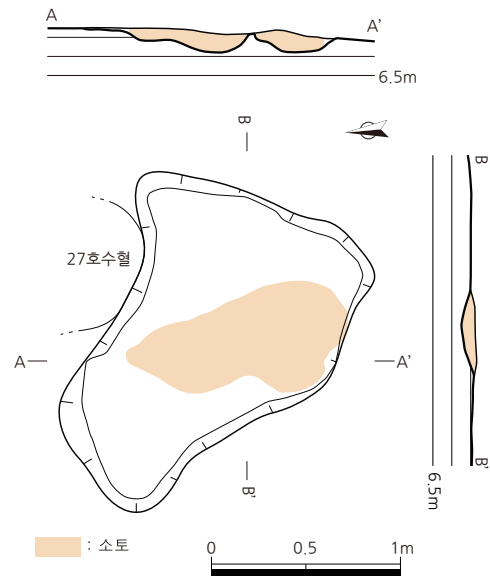
도면 73. 1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2) 2호 불다짐유구

가. 유구(도면 74, 도판 30-⑤~⑧)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 불다짐유구가 남쪽으로 1m 이격되어 있다. 유구의 남쪽에 후대 교란구덩이가 생기면서 유구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잔존장축 176cm, 잔존단축 143cm, 깊이 4cm이고 장축방향은 N48°E이다. 유구는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암반 위에 점토를 얇게 깔아 축조되었다. 내부퇴적토는 불다짐층으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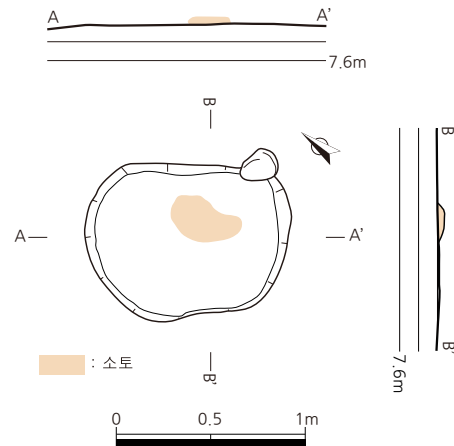
도면 74. 2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3) 3호 불다짐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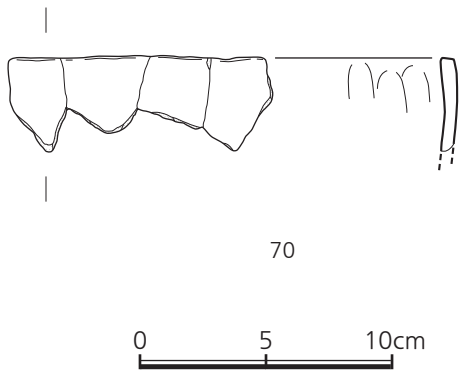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5, 도판 31-①~④)

유적의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유물포함층이 남쪽으로 6m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106cm, 단축 78cm, 깊이 4cm이며 장축방향은 N41°E이다. 유구는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자갈층 위에 점토를 얇게 깔아 축조되었다. 내부퇴적토는 불다짐층으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 등의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도면 75. 3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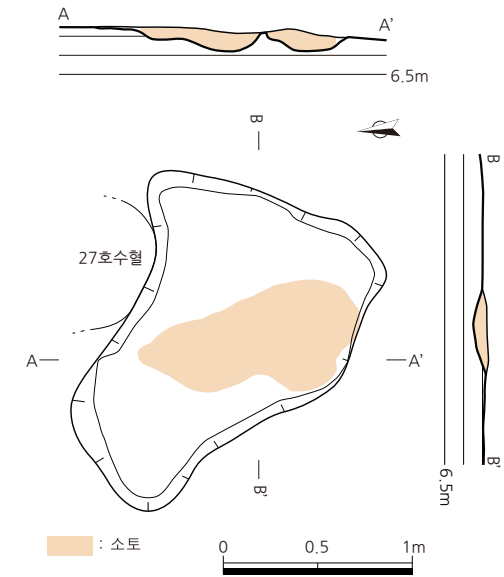
도면 76. 3호 불다짐유구 출토유물(70)

(4) 4호 불다짐유구

가. 유구(도면 77, 도판 31-⑤~⑧)

유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8호 수혈유구와 27호 수혈유구가 동쪽과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규모는 장축 133cm, 단축 122cm, 깊이 7cm이며 장축방향은 N65°W이다. 유구는 황갈색점토층을 얇게 굴착한 후 바닥에 점토를 발라 축조하였다. 내부퇴적토는 불다짐층으로 단일층이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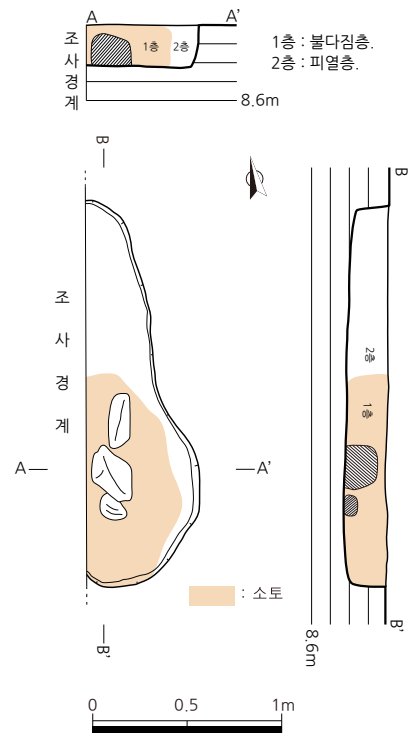
도면 77. 4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5) 5호 불다짐유구

가. 유구(도면 78, 도판 32-①~④)

유적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구의 대부분이 유적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유구의 형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장축 202cm, 잔존단축 60cm이며 장축방향은 N16°E이다. 유구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2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불다짐층이다. 2층은 피열층으로 불다짐층에 비해 경도가 낮고 바닥까지 피열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78. 5호 불다짐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70. 구연부편(도면 76-70, 도판 39-70)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3.7cm, 너비 10.4cm, 두께 0.5~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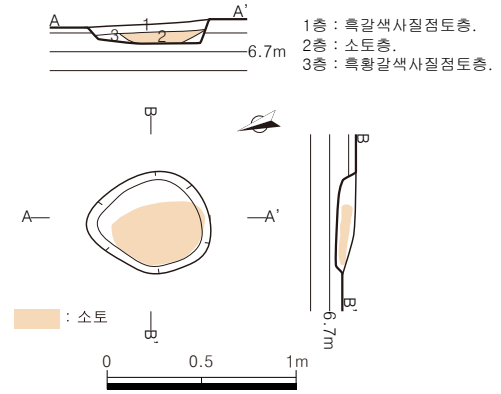
4) 소토유구

(1) 1호 소토유구

가. 유구(도면 79, 도판 32-⑤~⑧)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8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1.1m 이격되어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64cm, 단축 54cm, 깊이 10cm이며 장축 방향은 N21°E이다. 유구 벽면은 완만한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퇴적토는 3개 층으로 나뉜다. 1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목탄과 점토알갱이가 포함되어 있다. 2층은 소토층이다. 3층은 흑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황갈색점토성분이 높다.

출토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79. 1호 소토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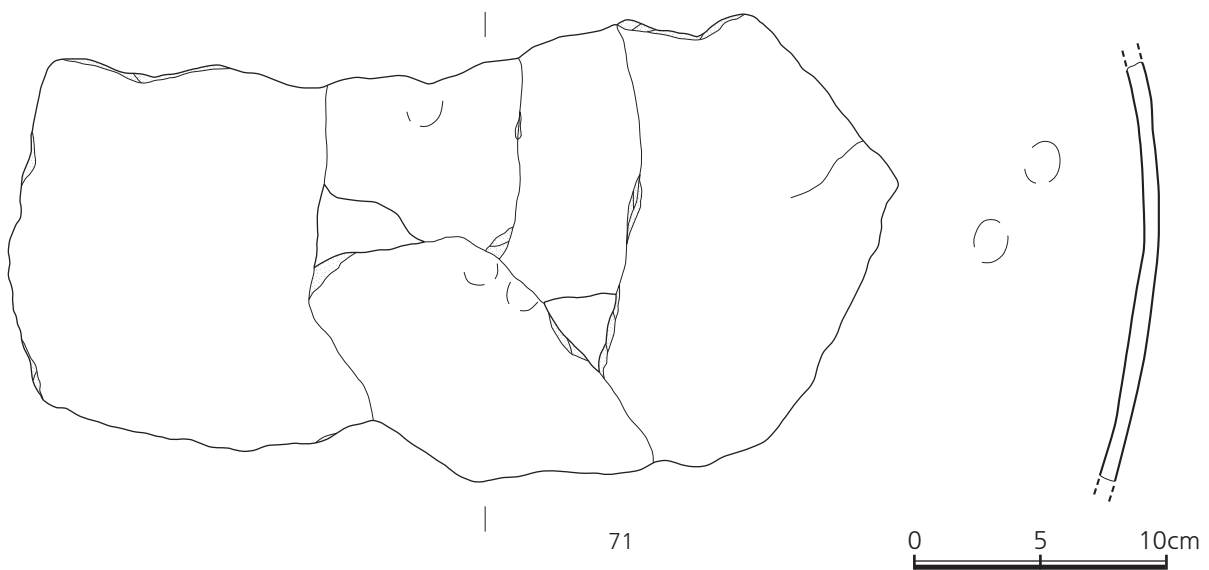
5) 주혈

가. 유물

71. 동체부편(도면 80-71, 도판 39-71)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잔존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제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16.6cm, 너비 34.1cm, 두께 0.6cm



도면 80. 주혈 출토유물(71)

6) 유물포함층

가. 유구(도판 33-①)

유물포함층은 유적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장축 546cm, 단축 464cm, 깊이 1km로 면적은 20m²이다. 유물포함층이 위치하고 있는 중앙부는 전체적으로 암반이 발달되어 있는 지형으로 유물포함층은 암반이 발달해 있는 굴곡면에서 토기편이 확인된다. 유물포함층 내에서 확인되는 토층은 흑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으로 내부에서 토기편과 소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편 등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72. 구연부편(도면 81-72, 도판 40-72)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으로 1/4가량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구연은 살짝 내만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얇게 눌러 희미하게 시문되었다.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7~2.1cm 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황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14.1cm, 추정구경 20.4cm, 두께 0.6~0.8cm

73. 구연부편(도면 81-73, 도판 40-73)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얇게 눌러 시문하여 희미하게 관찰된다.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2~2.1cm 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현고 6.5cm, 너비 15.0cm, 두께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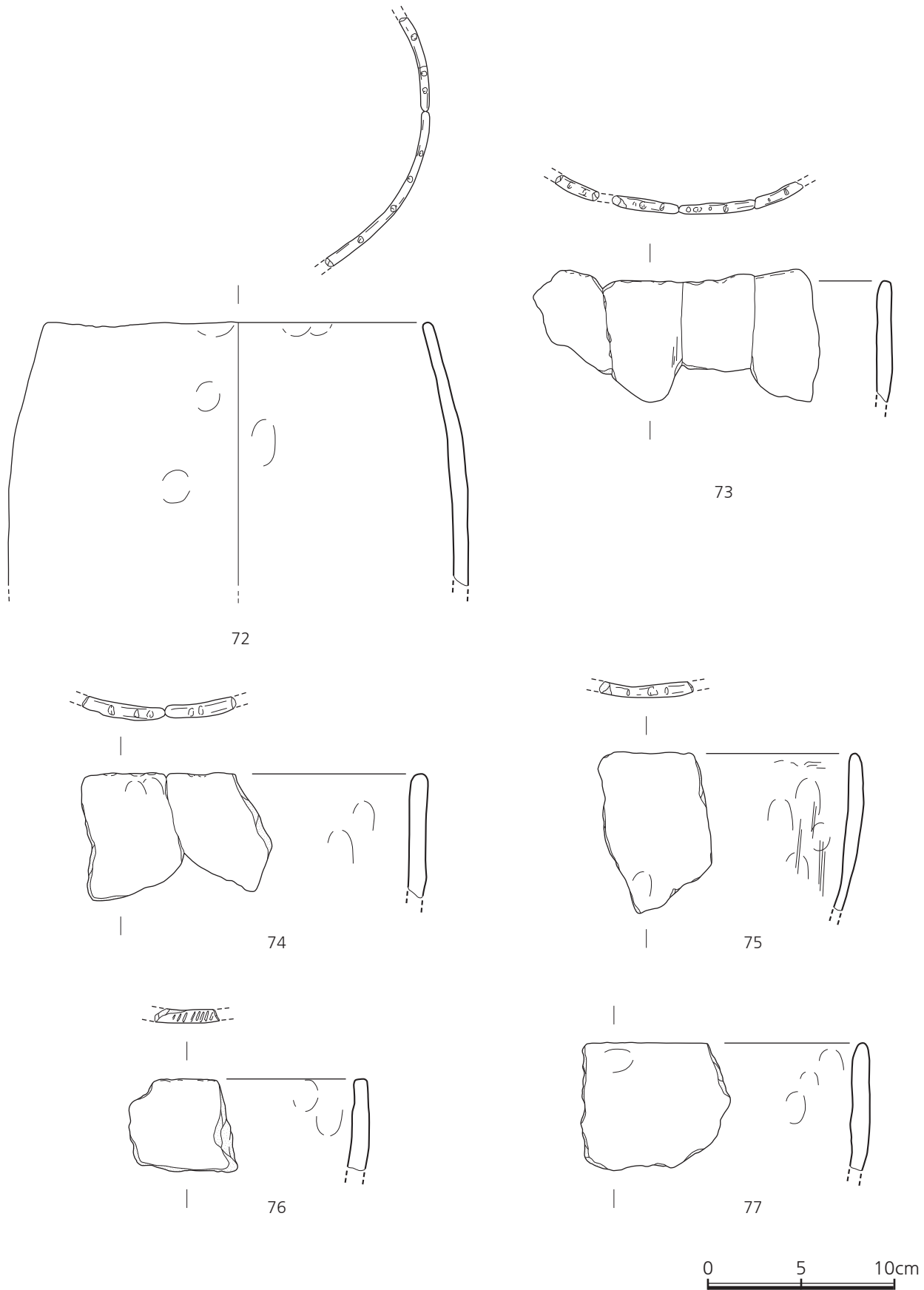
74. 구연부편(도면 81-74, 도판 40-74)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얇게 눌러 시문하여 희미하게 관찰된다.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4~1.1cm 내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6cm, 너비 9.2cm, 두께 0.9cm

75. 구연부편(도면 81-75, 도판 40-75)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얇게 눌러 시문하여 희미하게 관찰된다. 직선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4~1.0cm 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암갈색조, 내면은 적갈색조와 암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도면 81. 유물포함층 출토유물(72~77)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외면에는 지두흔, 내면에는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8.4cm, 너비 5.6cm, 두께 0.6~0.8cm

76. 구연부편(도면 81-76, 도판 40-76)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각목문은 사선 방향으로 시문되었으며 각목문간 거리는 0.2~0.3cm 내외이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고, 내면은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4.9cm, 너비 4.7cm, 두께 0.7~1.0cm

77. 구연부편(도면 81-77, 도판 40-77)

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으로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를 띠고, 내면은 적갈색조와 황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6.8cm, 너비 7.9cm, 두께 0.9~1.0cm

78. 동체부편(도면 82-78, 도판 40-78)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잔존하며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외면은 적갈색조와 흑갈색조, 내면은 황갈색조와 흑갈색조가 혼재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외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고 20.4cm, 너비 19.4cm, 두께 0.9cm

79. 동체부편(도면 82-79, 도판 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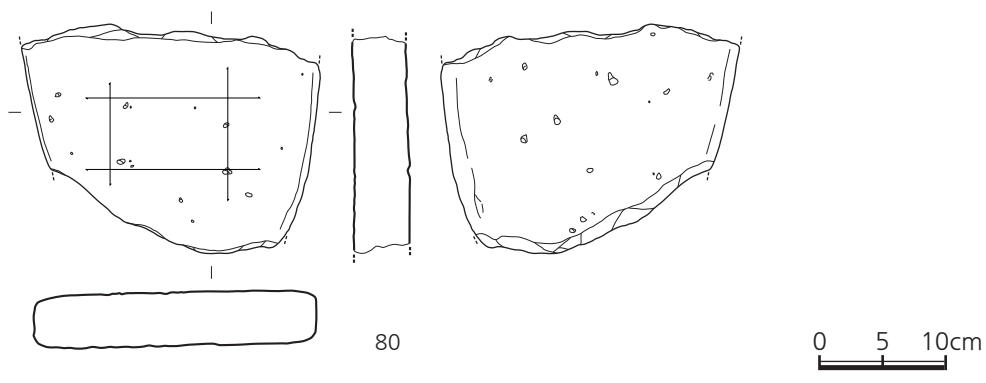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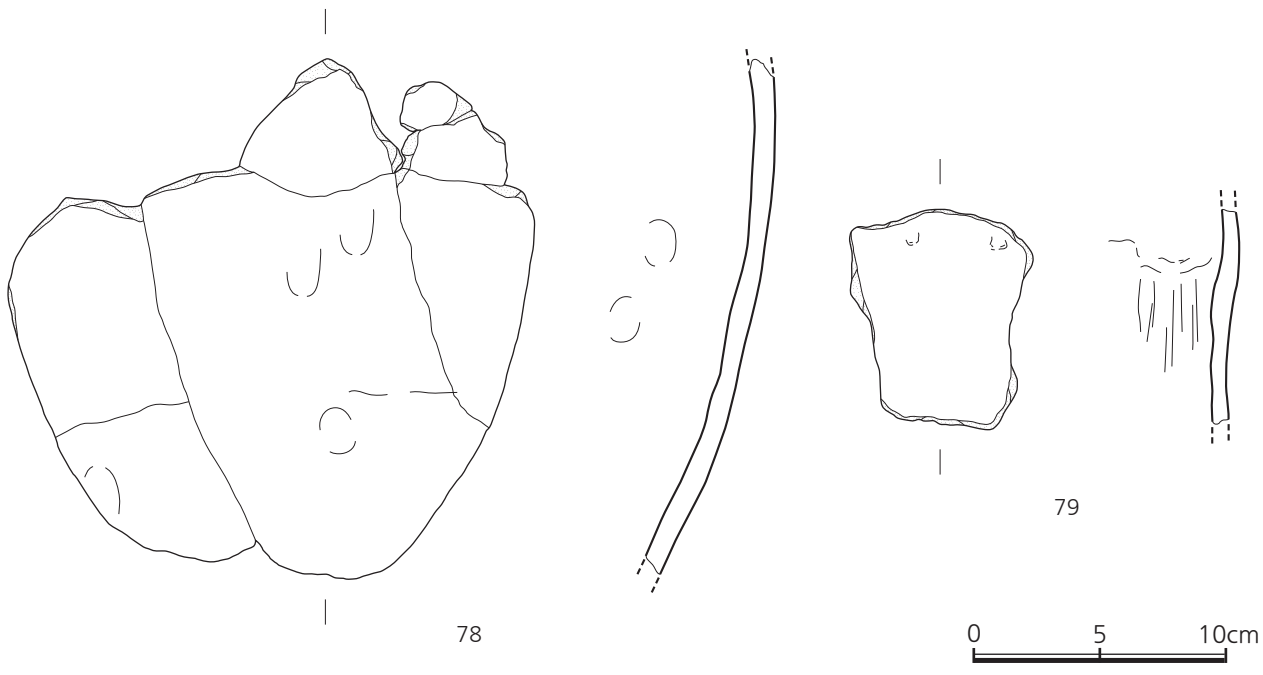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일부만 잔존하여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조를 띤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보강재로 현무암석립이 혼입되었다. 정면수법은 내면에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현고 8.5cm, 너비 6.7cm, 두께 0.6~0.7cm

80. 갈판편(도면 82-80, 도판 41-80)

다공질 현무암제 갈판편으로 상단과 하단이 유실되었다. 정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전(前)면에 사용에 의한 마연흔이 확인된다.

길이 17.1cm, 너비 22.4cm, 두께 4.2~4.4cm



도면 82. 유물포함층 출토유물(78~80)

V. 맺음말

이번 발굴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종균배양실 신축부지내 발굴조사로 조사면적은 1,423㎡이다. 유적은 창고천의 서쪽과 맞닿아 있는 하천변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5m 정도 고도차를 보이며 창고천으로 경사져 있는 지형이다.

유적에서는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방형주거지 1동, 원형주거지 2동, 수혈유구 45기, 불다짐유구 5기, 소토유구 1기와 다수의 주혈 등의 유구와 구순각목문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공렬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갈돌, 갈판 등의 석기류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1. 유구

1) 주거지

주거지는 총 3동이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주거지 1동과 원형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크게 유적 북서쪽 경계부근에서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가 중복되어 확인되었고 남동쪽 창고천변에 원형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방형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221cm으로 면적은 5.97㎡이며 장단축비율은 1.22:1이다. 방형주거지의 축조방법은 수직에 가깝게 벽체를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한 후 특별한 보강시설없이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중앙부의 중심주혈을 기준으로 장단축 방향으로 ‘+’자로 주혈이 설치되어 있는 ‘+’자식 주공배치를 하고 있다. 유물은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고 있다. 협소한 면적, 중심주공을 중심으로하는 주공배치, 구순각목공렬문토기 등의 출토유물은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방형주거지의 특징과 동일하다.

원형주거지의 규모는 장축 437~462cm 내외, 단축 367~419cm 내외이며 면적은 12.6~15.23㎡이다. 원형주거지 내부에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표식적인 타원형수혈이 확인되는데 ‘A’식과 ‘D’식으로 구분된다¹⁷⁾. 1호 원형주거지에는 벽체보강시설로 석벽이 축조되어 있다. 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내만구연토기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와 출토유물 상으로 볼 때 본 유적은 기존 화순리취락유적보다 선행하는 유적으로 제주도 북부 삼양동과 용담동일대에서 주로 확인되는 청동기 전기후반 역삼동계 주거지와 송국리문화가 제주도로 최초 유입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원형주거지가 제주도 서남부지역인 화순리 일대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타원형수혈의 형식 분류는 김경주의 안을 참고하였다.

김경주, 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표 1】 주거지 현황표[()은 잔존길이]

호수	평면형태	면적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장축	단축	깊이		
1	방형	N7°E	270	221	29	구순각목공렬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자식 주공 배치
2	원형	N36°W	462	419	29	직립구연토기편	타원형수혈
3	원형	N-S	(374)	(367)	47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타원형수혈

2)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총 45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 45기 중 36기(8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원형이 4기(8.9%)가 확인되었다. 부정형 2기(4.4%), 말각(장)방형이 2기(4.4%), 방형이 1기(2.3%)가 확인되었다. 규모는 소형(50~100cm) 24기(53.3%), 중소형(101~150cm) 12기(26.7%), 중형(151~200cm) 3기(6.7%), 중대형(201~250cm) 4기(8.9%), 대형(251cm 이상) 2기(4.4%)로 소형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혈깊이는 8~59cm 내외로 평균깊이는 25.2cm로 10cm 이하가 3기(6.7%), 11~20cm는 16기(35.5%), 21~30cm는 14기(31.1%), 31~40cm는 8기(17.8%), 51~60cm는 4기(8.9%) 내외로 30cm 초과는 12기(26.7%)이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동일한 구순각목문토기편과 직립구연토기편이 대부분이며 일부 외반구연토기편도 확인된다.

【표 2】 수혈유구 현황표[()은 잔존길이]

호수	평면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출토유물
			장축	단축	깊이	
1	타원형	N90°E	(274)	(266)	28	소형 발형토기, 구순각목공렬문토기편, 구순각목문토기편, 토기 저부편
2	타원형	N74°W	145	102	36	직립구연토기편
3	타원형	N81°E	70	57	34	
4	장타원형	N90°W	(203)	161	25	직립구연토기편
5	타원형	N9°E	107	79	27	
6	원형	N36°W	51	50	31	
7	타원형	N50°W	73	70	8	
8	타원형	N58°W	237	186	20	
9	타원형	N51°E	107	78	13	토기 저부편
10	타원형	N65°W	109	72	21	
11	타원형	N44°E	85	61	35	
12	말각방형	N21°E	167	143	59	토기 저부편

13	타원형	N83°W	225	130	14	
14	타원형	N21°W	72	64	40	토기 저부편
15	장타원형	N21°E	100	64	32	직립구연토기편
16	원형	N38°E	61	60	40	직립구연토기편, 외반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17	타원형	N90°W	90	70	30	
18	타원형	N59°W	(90)	128	27	직립구연토기편
19	부정형	N59°W	145	100	15	
20	타원형	N31°E	57	44	16	
21	타원형	N37°E	50	38	24	
22	타원형	N6°E	119	82	11	
23	타원형	N62°E	74	62	19	
24	타원형	N67°E	75	63	53	
25	타원형	N75°W	75	67	28	
26	타원형	N67°E	128	99	53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내만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갈돌
27	타원형	N28°W	84	72	34	
28	타원형	N10°E	(74)	73	22	
29	장타원형	N80°W	95	78	22	
30	부정형	N20°W	78	46	10	
31	장타원형	N60°E	96	45	24	
32	원형	N9°W	103	100	23	발형토기, 토기 저부편
33	타원형	N7°W	110	97	16	
34	타원형	N2°W	102	(70)	10	
35	타원형	N25°W	(92)	72	18	
36	타원형	N40°W	146	98	19	
37	방형	N40°W	240	234	14	내만구연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38	타원형	N38°W	101	88	22	
39	말각장방형	N90°W	99	67	52	
40	타원형	N41°E	(54)	52	11	
41	타원형	N77°E	268	167	28	공렬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42	타원형	N52°W	(68)	50	10	토기 저부편
43	타원형	N11°W	188	144	16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토기 저부편
44	타원형	N55°E	96	(87)	11	
45	타원형	N16°E	158	110	18	

3) 불다짐유구

불다짐유구는 5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5기 중 4기(8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불다짐유구는 얇게 굴착한 후 점토를 얇게 깔아 축조하였다. 내부에서 유물은 직립구연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표 3】 불다짐유구 현황표(○은 잔존길이)

호수	평면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출토유물
			장축	단축	깊이	
1	타원형	N11°W	202	(82)	4	
2	타원형	N48°E	(176)	(143)	4	
3	타원형	N41°E	106	78	4	직립구연토기편
4	부정형	N65°W	133	122	7	
5	타원형	N16°E	202	(60)		

4) 소토유구

소토유구는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65cm, 단축 53cm로 완만한 사선으로 굴착되어 바닥으로 이어지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4】 소토유구 현황표

호수	평면형태	면적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장축	단축	깊이		
1	타원형	N21°E	64	55	10		

5) 유물포함층

유물포함층은 1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앙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장축 546cm, 단축 464cm로 전체적으로 암반이 발달해 있는 지형에 암반 굴곡면에 퇴적된 양상으로 확인된다. 유물포함층 내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편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표 5】 유물포함층 현황표

호수	평면형태	면적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장축	단축	깊이		
1	타원형	20㎡	546	464	11	구순각목문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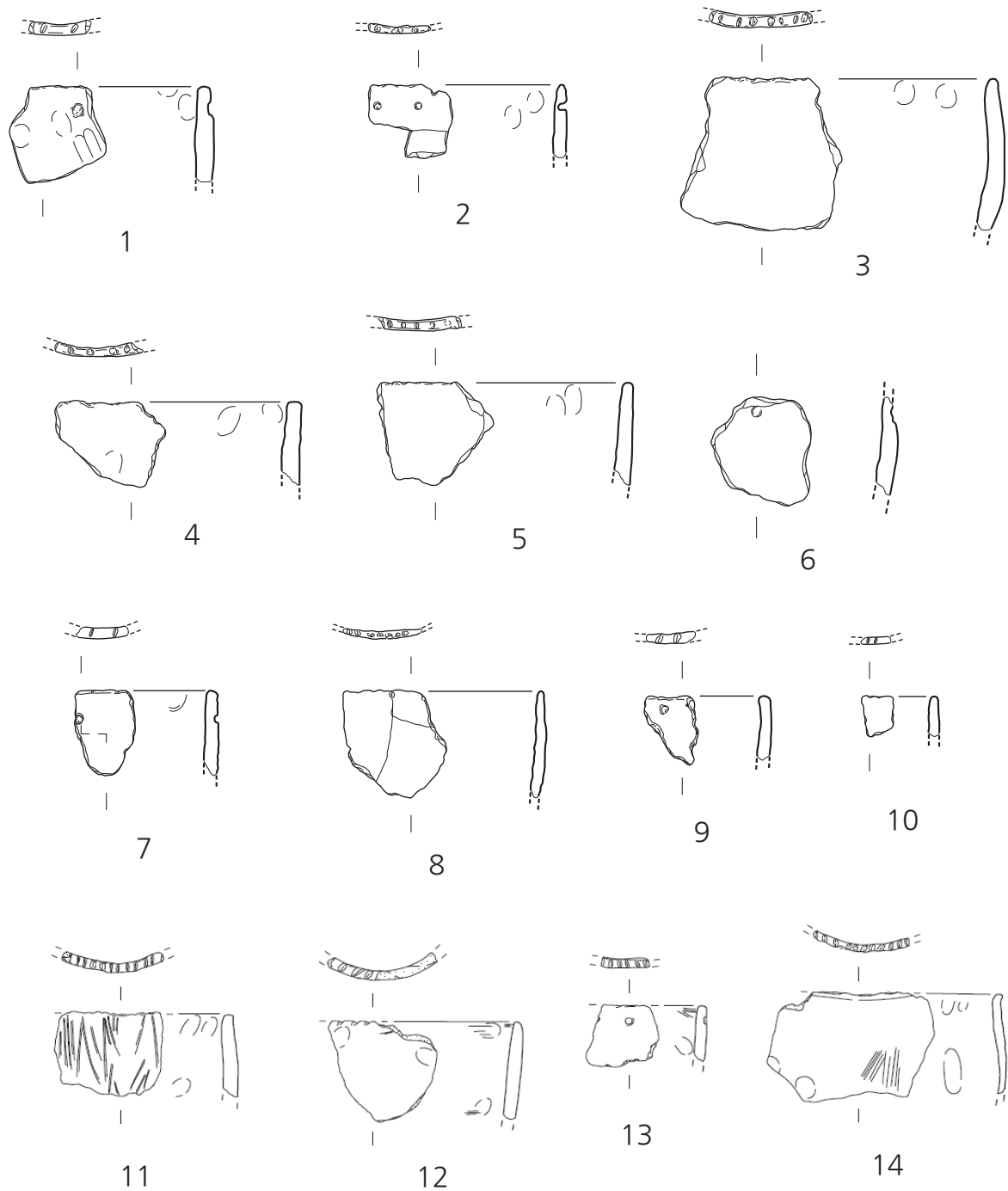
2. 유물

출토유물은 크게 토기류와 석기류로 구분된다. 토기류는 무문토기가 대부분이며 식량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갈돌이 확인되었다.

토기류는 총 78점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방추차를 비롯한 토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유구별 출토유물 분류

유구	토기				석기	합계
	완형	구연부	동체부	저부		
1호 주거지	·	3	·	1	·	4
2호 주거지	·	2	·	1	·	3
3호 주거지	·	4	·	1	·	5
1호 수혈유구	1	13	·	4	·	18
2호 수혈유구	·	1	·	·	·	1
4호 수혈유구	·	2	·	1	·	3
9호 수혈유구	·	·	·	1	·	1
12호 수혈유구	·	·	·	1	·	1
14호 수혈유구	·	·	·	1	·	1
15호 수혈유구	·	1	·	·	·	1
16호 수혈유구	·	2	·	2	·	4
18호 수혈유구	·	1	·	·	·	1
26호 수혈유구	·	2	·	3	1	6
32호 수혈유구	1	·	·	1	·	2
37호 수혈유구	·	3	·	7	·	10
41호 수혈유구	·	2	·	1	·	3
42호 수혈유구	·	·	·	1	·	1
43호 수혈유구	·	3	·	1	·	4
3호 불다짐유구	·	1	·	·	·	1
주혈	·	·	1	·	·	1
유물포함층	·	6	2	·	1	9
합계	2	46	3	27	2	80



삽도 2. 화순리 일대 취락유적 내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 일괄

토기류 78점 중 무문토기 완형 2점과 구연부편 46점, 동체부편 3점, 저부편 27점이 확인되었다. 완형토기는 2점의 발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소형 천발형토기와 심발형토기로 확인된다. 둘 다 직립구연의 무문토기로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편은 총 46점으로 구순각목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문 등 다양한 형태의 구연부편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구연부편 일부만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기형은 확인할 수 없다. 가장 많이 확인되는 토기는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으로

총 21점이 확인되었다.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연이 2점, 공렬문토기 구연이 1점¹⁸⁾이 확인되었다. 무문토기는 직립구연이 19점, 외반구연이 3점이 확인되었다. 이번 발굴조사 결과 기존에 확인되는 화순리 유적¹⁹⁾에서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양상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화순리 374-1번지 유적²⁰⁾과 화순리 375-1번지 유적²¹⁾에서도 이번 발굴조사와 비슷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²²⁾. 두 유적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지만 수혈유구에서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 확인되고 있다. 기존에 확인되는 제주의 청동기시대 토기의 흐름 상 화순리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토기의 특징을 설명 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동기 1단계에 혼암리식토기 문화가 유입되어 상모리식 토기로 발전하고, 2단계에는 구순각목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문 등 단독문양의 토기로 퇴화되며, 3단계에는 공렬문이나 구순각목문이 일부 잔존하지만 직립구연과 외반구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²³⁾. 화순리 522번지와 다른 두 유적의 유물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구순각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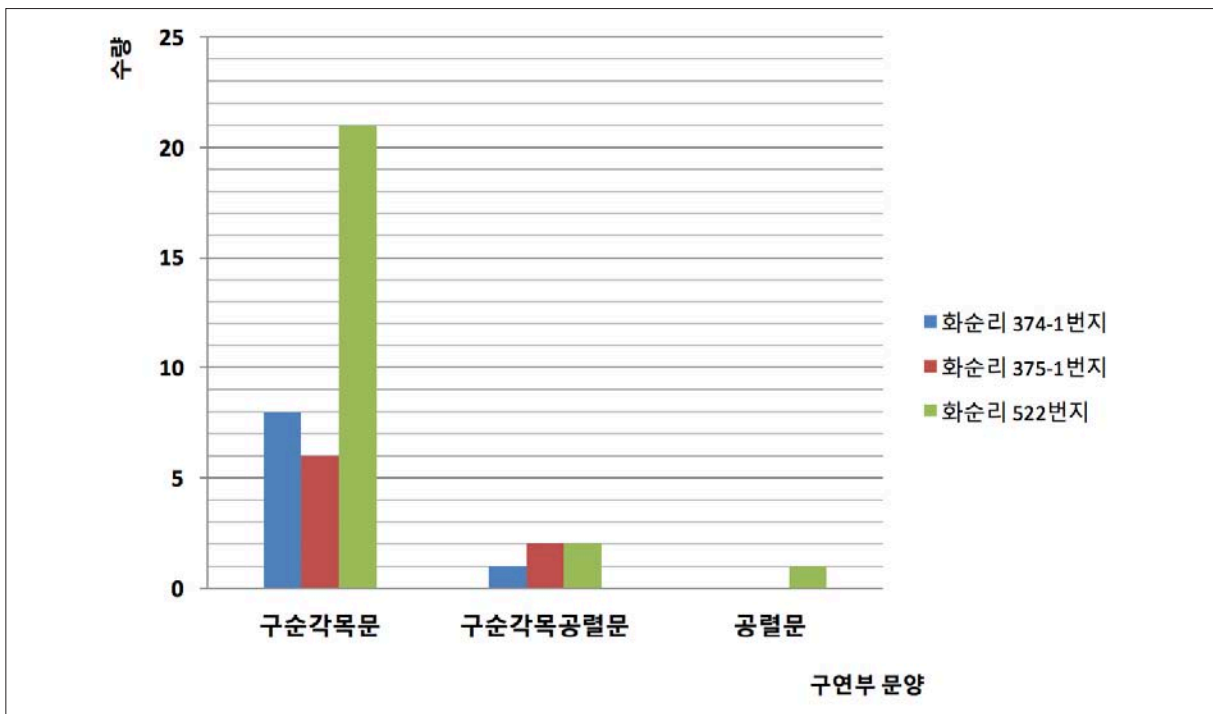


도표 1. 화순리 유적 출토 토기 구연부 분류

18) 구순부가 결실되어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잔존하는 상태로 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이라 지칭하였다.
 19) 2005년 발굴조사된 남제주화력발전 부지 내 화순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화순리의 일반적인 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 등 탐라성립기의 유물이 주로 출토된다.
 20) 한국문화재재단, 2018, 「화순리 374-1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발굴조사보고서 X I X - 제주2』.
 21) 한국문화재재단, 2019, 「제주 화순리 375-1번지 유적」, 『2019년도 소규모발굴조사보고서 X / 51』.
 22) 남제주화력발전 부지에서 확인된 화순리 유적에서는 공렬문토기 1점, 외반구연토기 3점이 확인되었다. 극소량으로 확인되어 제외하였다.
 23) 고재원, 2010, 「제주지역의 청동기시대- 2000년대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_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박경민, 2012, 『濟州道 無文土器文化의 流入과 展開』,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토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무문의 직립구연토기와 외반구연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된다. 그리고 화순리 522번지 유적에서만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방형 주거지와 원형 주거지가 함께 나타나며, 방형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공렬문토기와 외반구연토기, 원형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와 직립구연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인근의 하모리 유적²⁴⁾에서는 공렬계 토기가 무문토기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동기 2단계 시기의 토기 양상인 구순각목공렬문토기, 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가 확인되고, 3단계 시기의 토기 양상인 공렬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와 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토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유적의 성격과 시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화순리 522번지 유적은 창고천의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기존 화순리 취락유적의 남쪽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으로 면적은 1,423㎡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순리취락유적은 화순리유적(2005)을 필두로 화순리해수욕장 부근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송국리형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기원전 3세기 내외의 유적이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화순리취락유적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방형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원형주거지²⁵⁾에서도 타원형수혈은 있지만 출토유물이 시기적으로 선행되는 구순각목문토기편과 직립구연토기편 등이 출토되어 화순리취락유적보다는 선행하는 유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자면 본 유적은 2단계에 걸쳐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단계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내부에는 ‘+’字형의 중심주혈 형태, 구순각목공렬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등의 출토유물이 확인되는 역삼동계 후기대의 방형계주거지가 축조되는 단계이다. 제주도 내에서 방형계주거지는 제주도 북부지역인 삼양동과 용담동에서 주로 확인되며 고산리유적에서도 1동이 확인되었다. 이들 방형주거지는 육지부와는 달리 구심구조의 주거형태와 규모가 작은 형태를 띠고 있다²⁶⁾. 주거지 내에서는 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고 규모는 3.0~18.0㎡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제주도 방형주거지의 특징은 본 유적의 방형주거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규모는 장축 270cm, 단축 228cm로 면적은 6.16㎡이며 유물은 구순각목공렬문토기, 직립구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내부 중앙부의 중심주혈을 중심을 장축과 단축으로 ‘+’字형으로 주혈 배치 상태가 확인되어 기존 확인된 제주도내 방형주거지와 동일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의 시기는 주거지 내부에서 역삼동계 토기인 구순각목공렬문토기가 출토되었고 유구내부에서 목탄이 수습되지 않아 절대연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고산리유적(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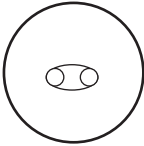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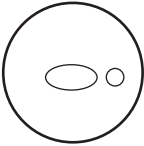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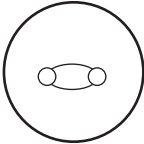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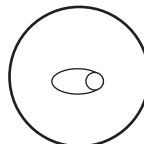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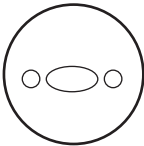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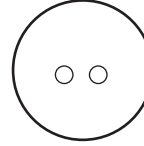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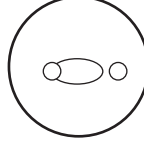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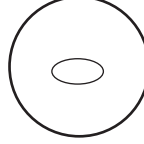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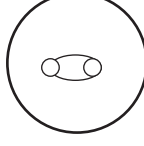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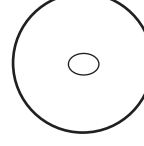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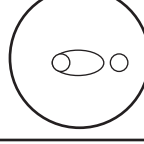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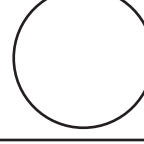
24)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제주 하모리 유적』.

25) 보통 송국리형주거지, 송국리식주거지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 장에서는 평면형태에 따라 방형주거지와 대비되는 용어로 원형주거지로 지칭하고자 한다.

26) 오원홍, 2017,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문화의 이원적 성립과 전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번지)에서 확인된 방형주거지의 경우 연대 눈금 맞춤 결과 810 B.C(방사성탄소 연대 2640 ± 50 BP)가 나왔으며 제주도에서 확인된 방형주거지의 경우 2860~2590BP 연대값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B.C 8세기 내외로 판단된다.

2 단계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내부에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표식적인 타원형수혈이 배치된 원형주거지 축조 단계이다. 타원형수혈의 형식은 ‘A’식과 ‘D’식으로 구분된다. 흥미로운 점은 고산리 유적(1874-16번지)에서도 본 유적과 동일한 유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며 타원형수혈의 형식 또한 본 유적과 동일하게 ‘A’식과 ‘D’식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산리유적의 보고자에 따르면 출토유물상으로 볼 때 ‘A’ → ‘D’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주거지 위치도 개별적, 산별적으로 조성되다 중앙부에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된다고 밝혔다²⁷⁾. 하지만 비록 유적 내에서 확인된 원형주거지가 2동에서는

형 태	구 분	형 태	구 분
A		E	
B			
C			
D			
			
			

삽도 3. 타원형구덩이 형식분류 모식도(김경주 2009, 분류안 참고)

형식별간 시기적 차이를 간취할 수는 없다. 2동의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내만구연토기편 등으로 동일하며 송국리계 외반구연토기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1호 원형주거지에서 수습된 2점의 목탄시료를 분석한 결과 2410 ± 30 BP연대값으로 2Sigma 보정결과(95.4%) BC 550~400의 동일한 연대값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값과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2단계의 시기는 B.C 6세기 중반에서 5세기 대에 주거지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순리 522번지 유적은 제주도 내 북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역삼동계 취락주거지인 방형계 주거지가 제주도 서남부지역까지 확인되며 이후 화순리 취락유적의 주 문화권을 형성하는 원형계 주거지인 송국리문화의 유입시기를 기늬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시기적으로는 크게 2단계의 점유를 보이는데 1단계는 B.C 9~8세기대로 역삼동계 주거지인 방형주거지가 조성되었고, B.C 6세기 중반에서 5세기대에는 2단계로 송국리문화가

27)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제주 고산리유적(1874-16번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보고서 제18집.

제주도 서남부지역에 유입되면서 원형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이후 원형계 주거지를 표식으로 하는 송국리문화가 화순리 일대를 비롯하여 예래동, 강정동을 아우르는 제주도 서남부지역의 대규모 취락유적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화순리 522번지 유적 AMS연대 측정표

no.	시료명	보정연대결과		탄소연대 (yrs BP)	$\delta^{13}\text{C}(\text{‰})$	pMC(%)
		18연대(68.2%)	28연대(95.4%)			
1	2호 주거지 (타원형수혈)	BC520~BC400(68.2%)	BC740~BC680(11.2%) BC670~BC640(2.9%) BC550~BC400(81.3%)	2410 ± 30	-27.95 ± 2.61	74.05 ± 0.27
2	2호 주거지 (내부주혈)	BC520~BC400(68.2%)	BC740~BC680(11.2%) BC670~BC640(2.9%) BC550~BC400(81.3%)	2410 ± 30	-26.88 ± 2.26	74.04 ± 0.27
3	14호 수혈유구	BC520~400(68.2%)	BC740~BC680(11.2%) BC670~BC640(2.9%) BC550~BC400(81.3%)	2410 ± 30	-27.71 ± 2.22	74.09 ± 0.27
4	25호 수혈유구	BC490~390(68.2%)	BC730~BC690(1.7%) BC550~BC390(93.6%)	2380 ± 30	-29.93 ± 1.58	74.37 ± 0.27
5	41호 수혈유구	BC770~BC740(11.1%) BC690~660(10.8%) BC650~550(46.4%)	BC790~BC530(95.4%)	2500 ± 30	-24.64 ± 1.81	73.24 ± 0.26
6	주혈1	BC740~690(17.3%) BC660~650(4.0%) BC550~BC420(47.0%)	BC760~BC680(23.5%) BC670~BC610(10.4%) BC600~BC400(61.5%)	2440 ± 30	-23.45 ± 0.98	73.84 ± 0.26

도 판



도판 1. ① 조사대상지 원경(동→서), ② 조사대상지 전경



도판 2. 1호 주거지(① 조사 중, ② 토층, ③조사 완료, ④ 북서측 내부주혈, ⑤ 남동측 내부주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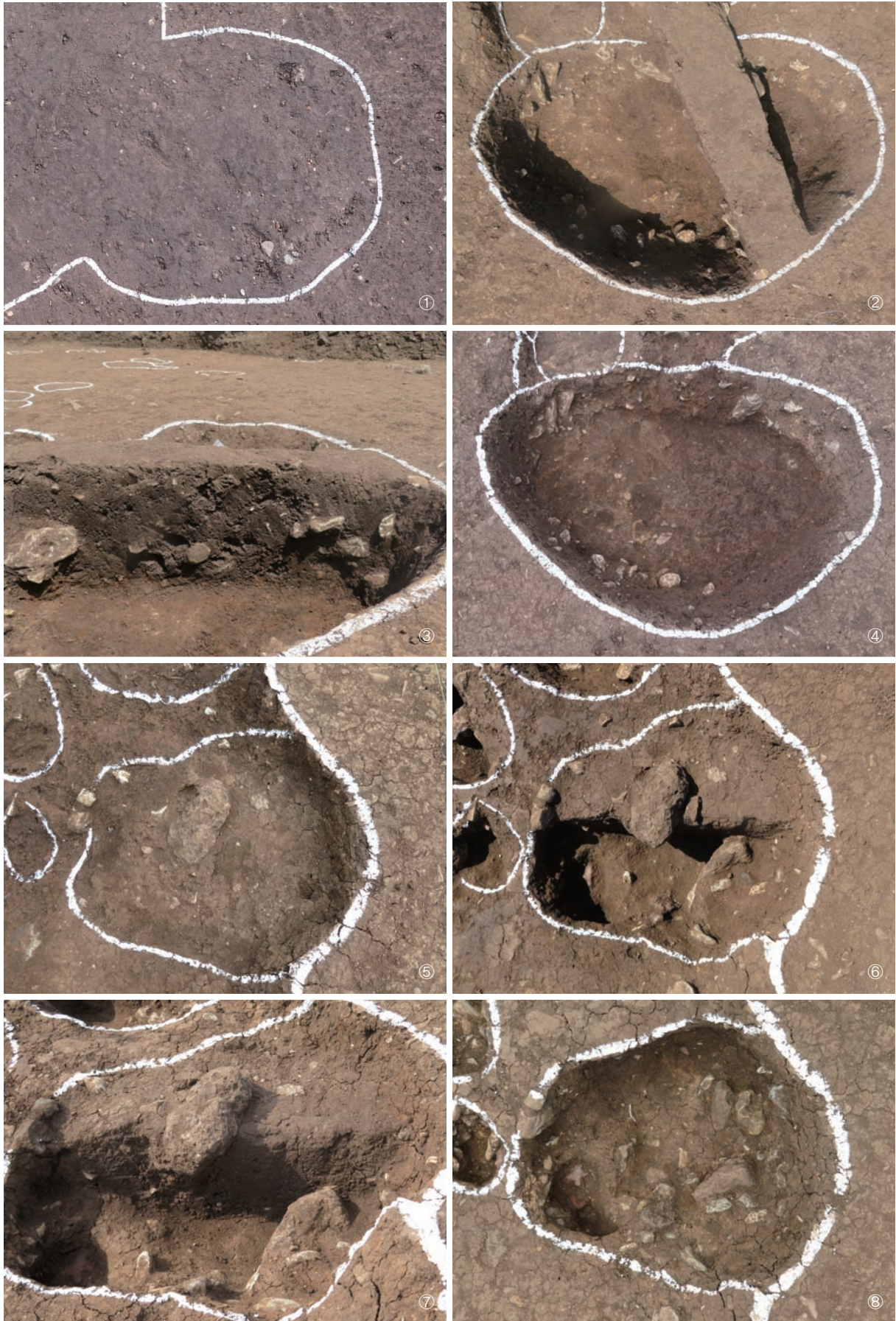
도판 3. 2호 주거지(① 조사 중, ② 조사 중 세부, ③ 토층, ④ 석벽세부, ⑤ 타원형 수혈 토층, ⑥ 출토유물, ⑦ 조사완료)



도판 4. 3호 주거지(① 조사 중, ② 조사 중 세부, ③ 출토유물, ④ 토층, ⑤ 조사 완료)



도판 5. 1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출토유물, ③ 토층, ④ 출토유물, ⑤ 2차 조사 중, ⑥ 조사 완료)



도판 6. 2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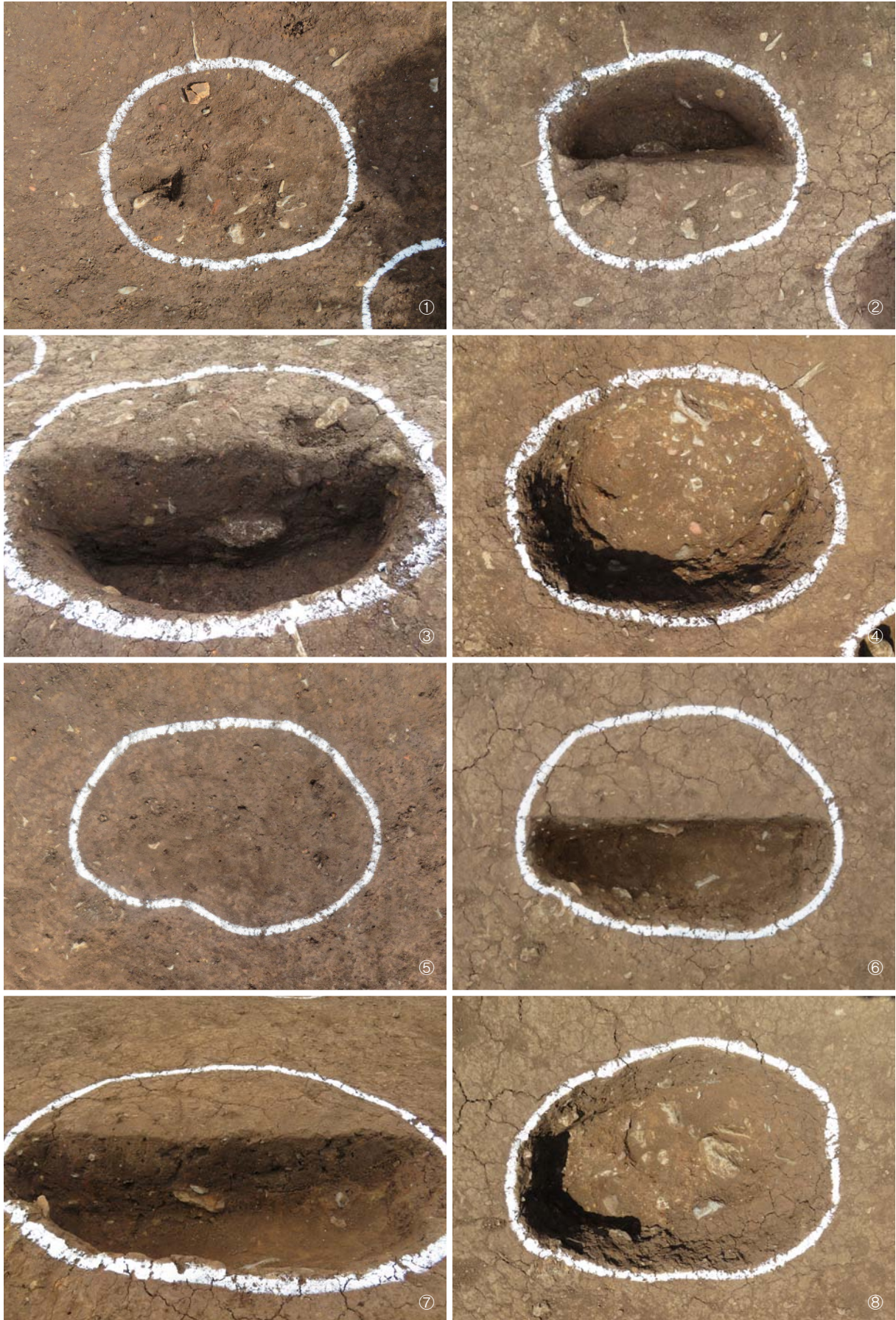
도판 7. 4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5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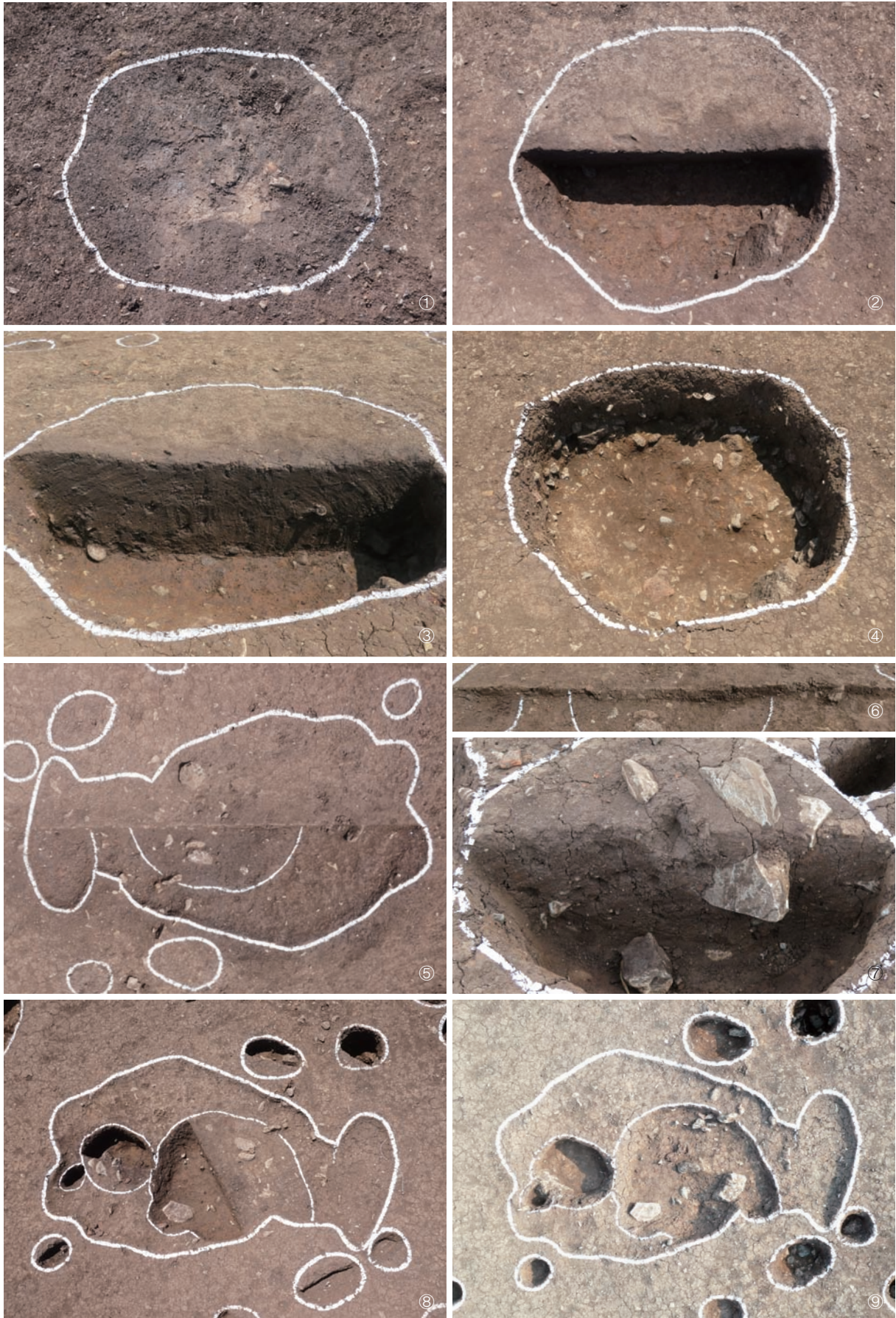
도판 8. 6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7호 수혈유구(④조사 전, 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2차 조사 중 세부, ⑧ 조사 완료)



도판 9. 8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9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출토유물,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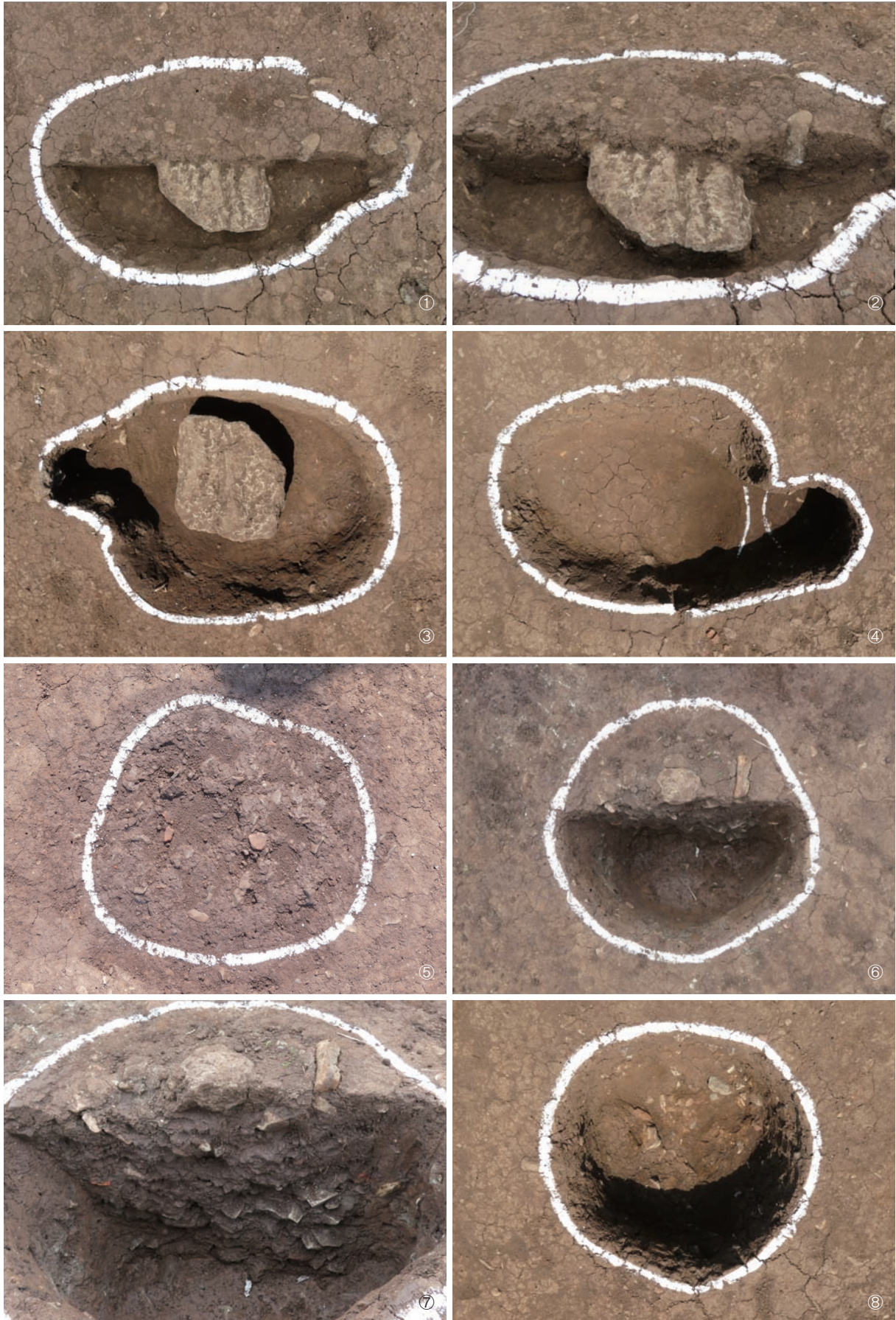
도판 10. 10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11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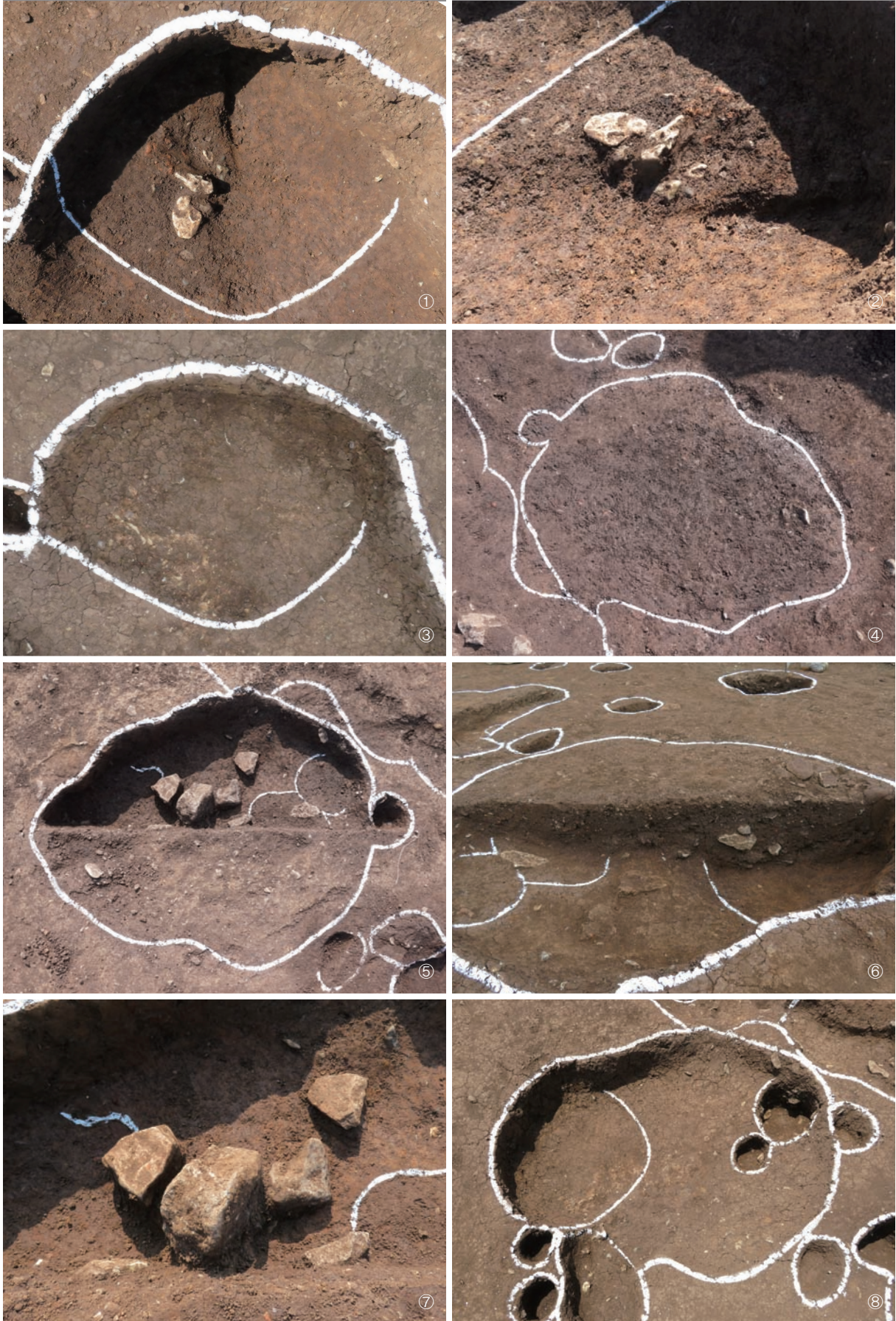
도판 11. 12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13호 수혈유구(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내부주혈 토층, ⑧ 2차 조사 중, ⑨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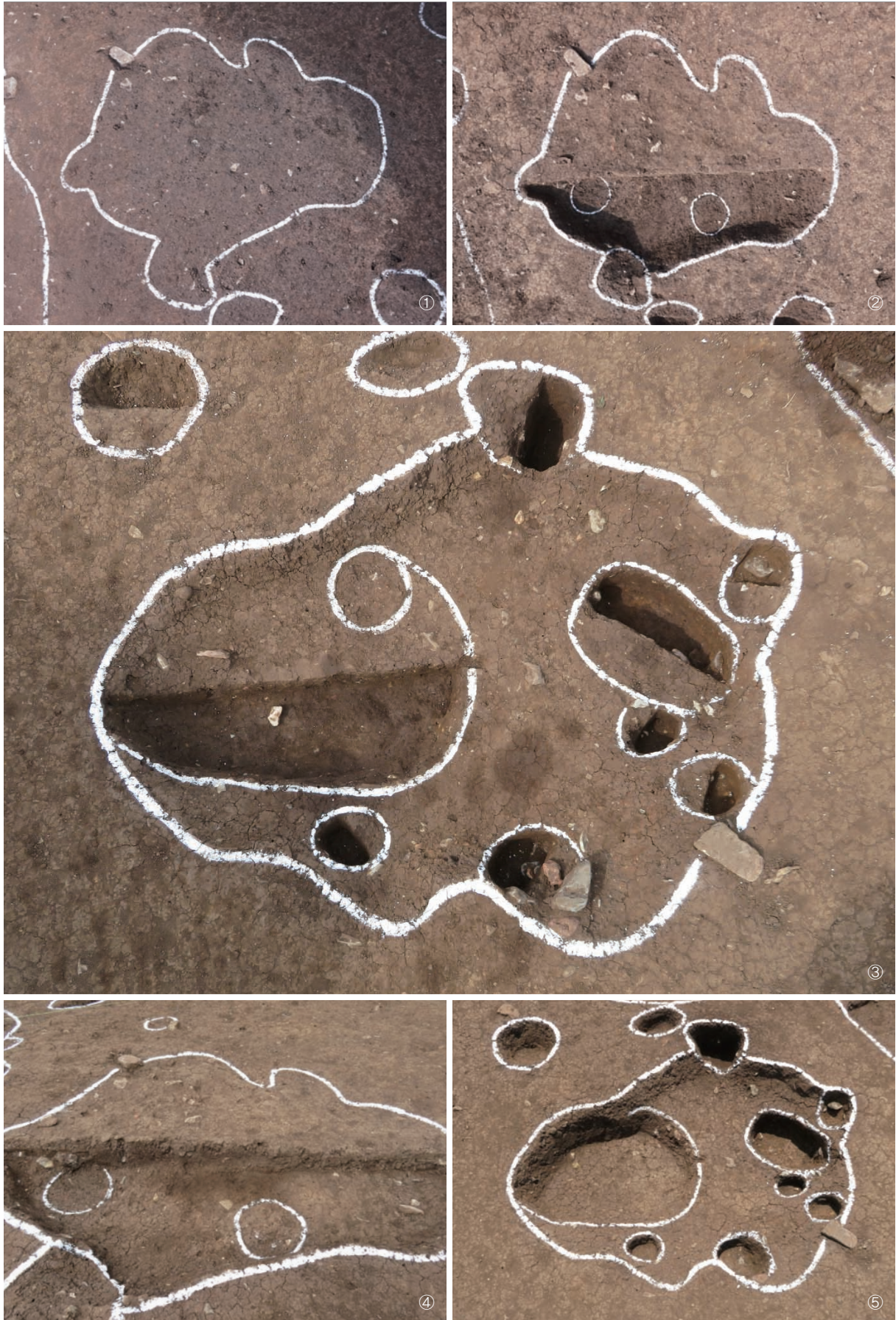
도판 12. 14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1차 조사중 세부, ④ 2차 조사 중, ⑤ 조사 완료)



도판 13. 15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2차 조사중, ④ 조사 완료), 16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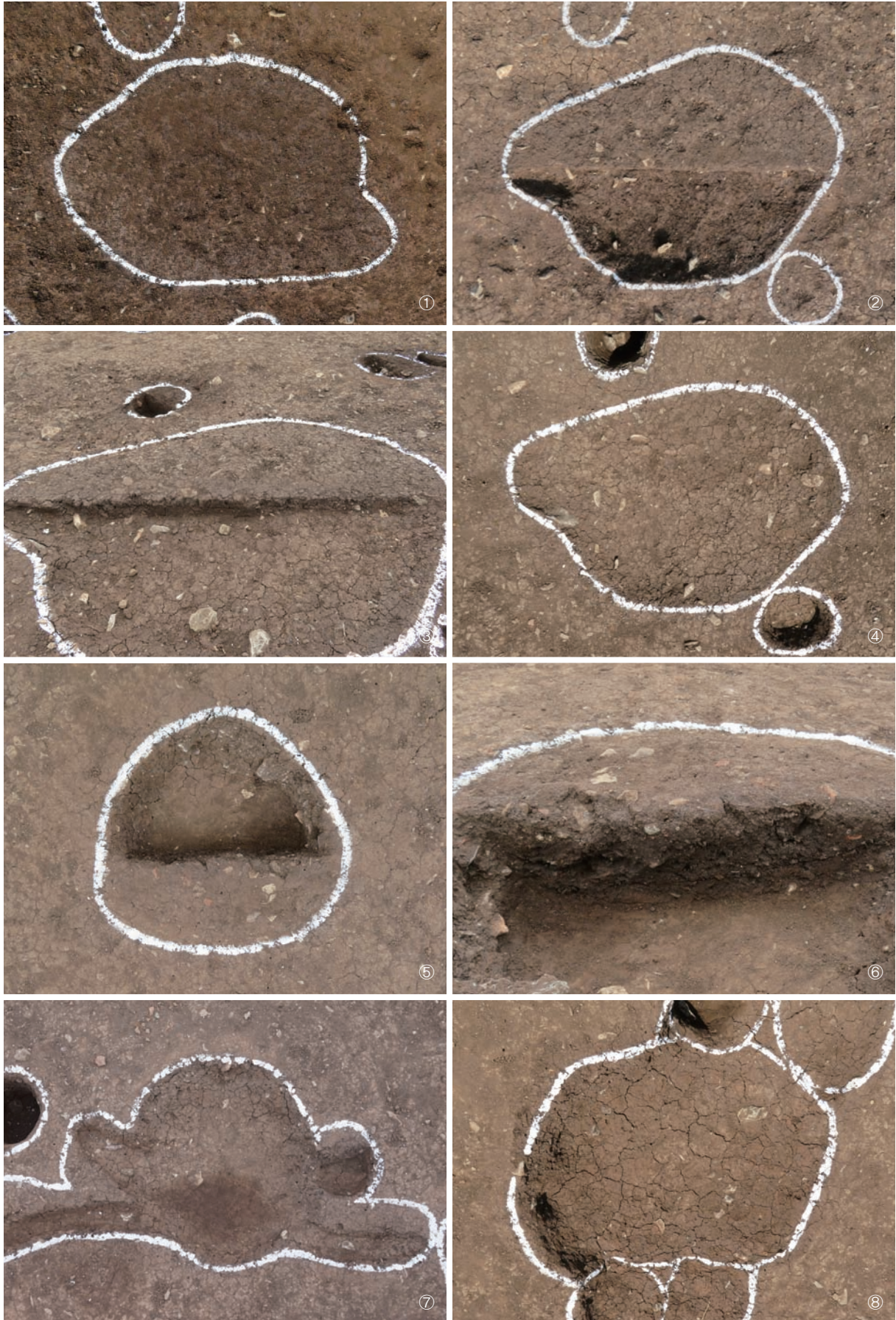
도판 14. 17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18호 수혈유구(④ 조사 전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도판 15. 19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1차 조사 중, ③ 2차 조사 중, ④ 토층, ⑤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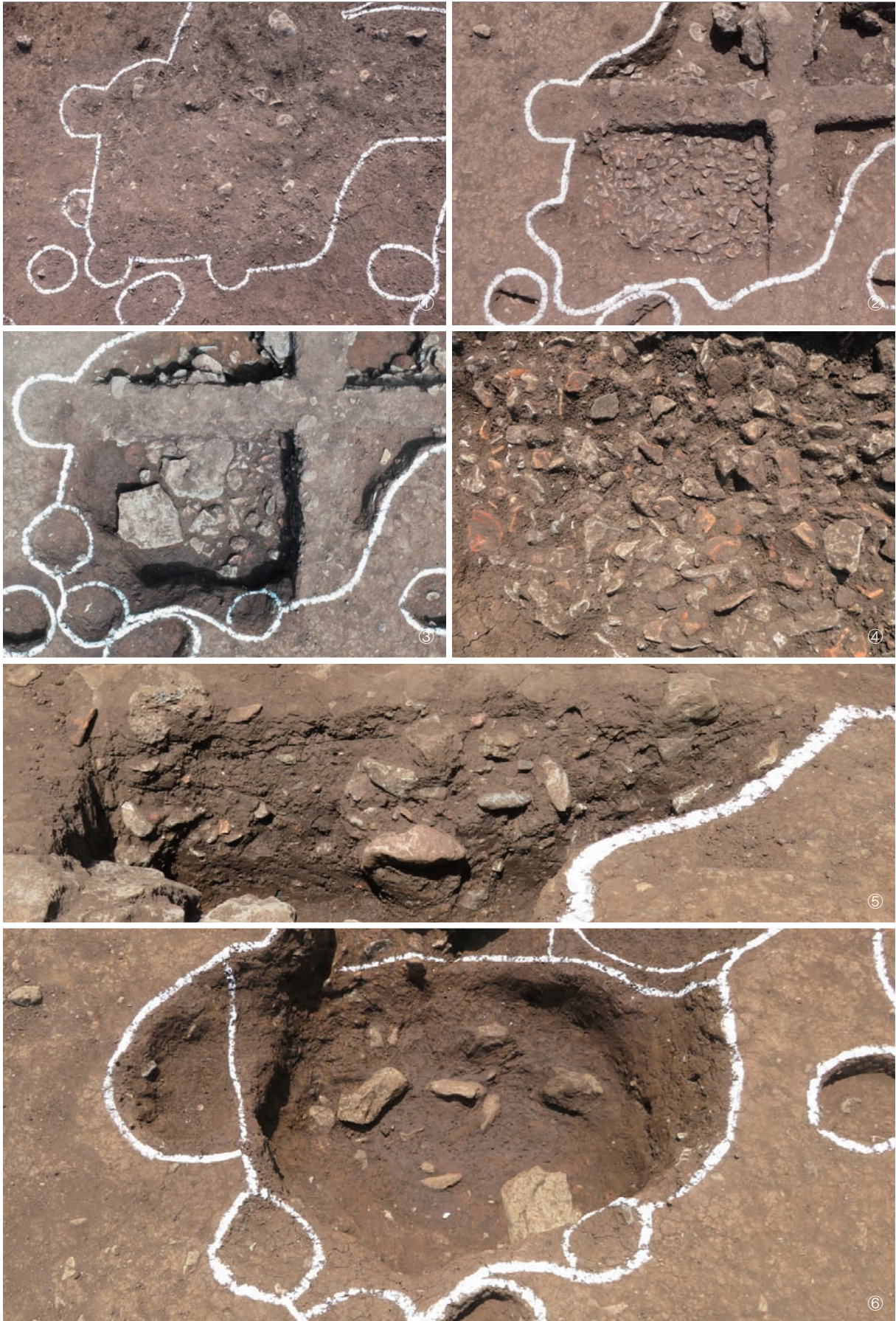
도판 16. 20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21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조사 완료, ⑧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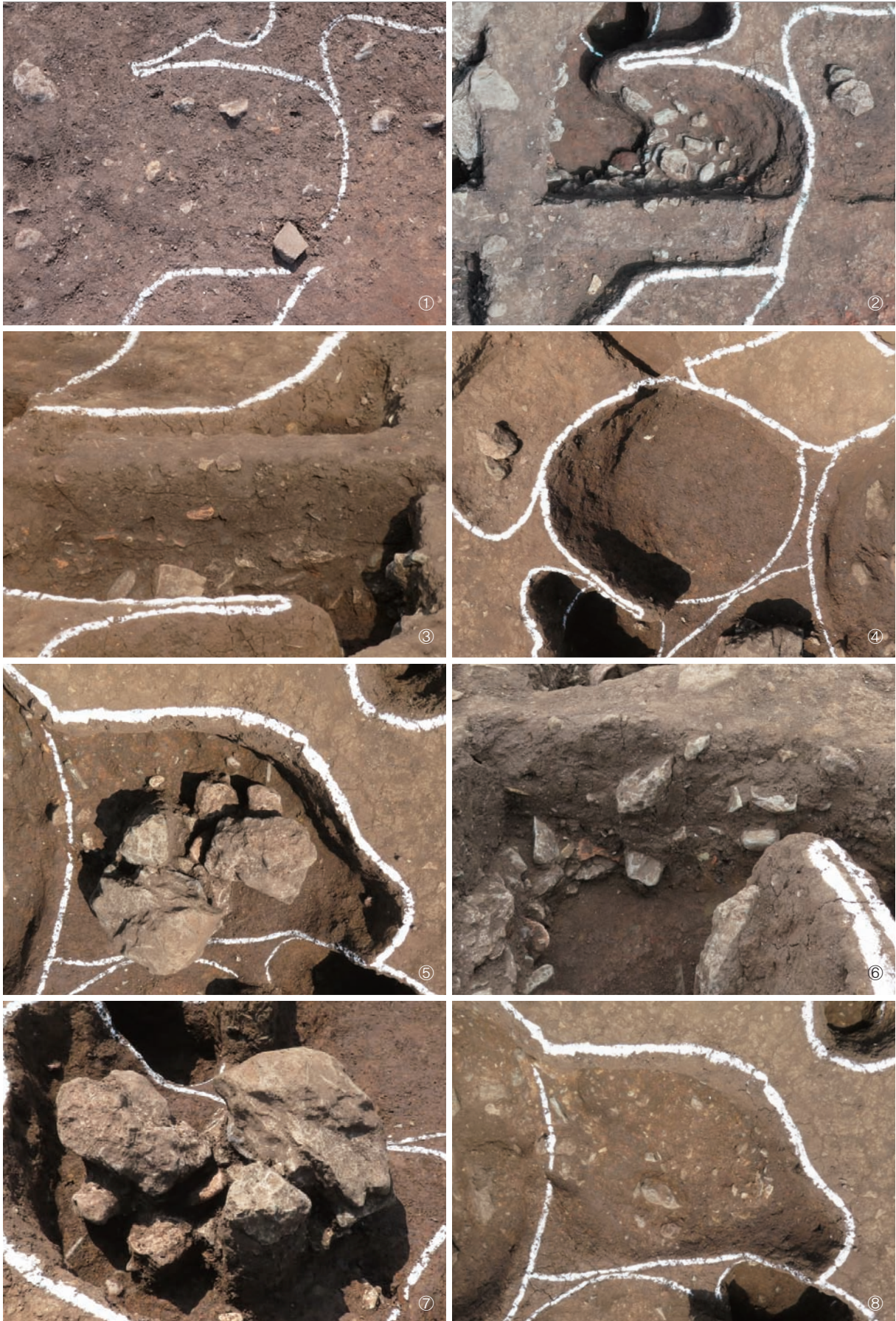
도판 17. 22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23호 수혈유구(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2차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도판 18. 24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25호 수혈유구(④ 조사 전, ⑤ 1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2차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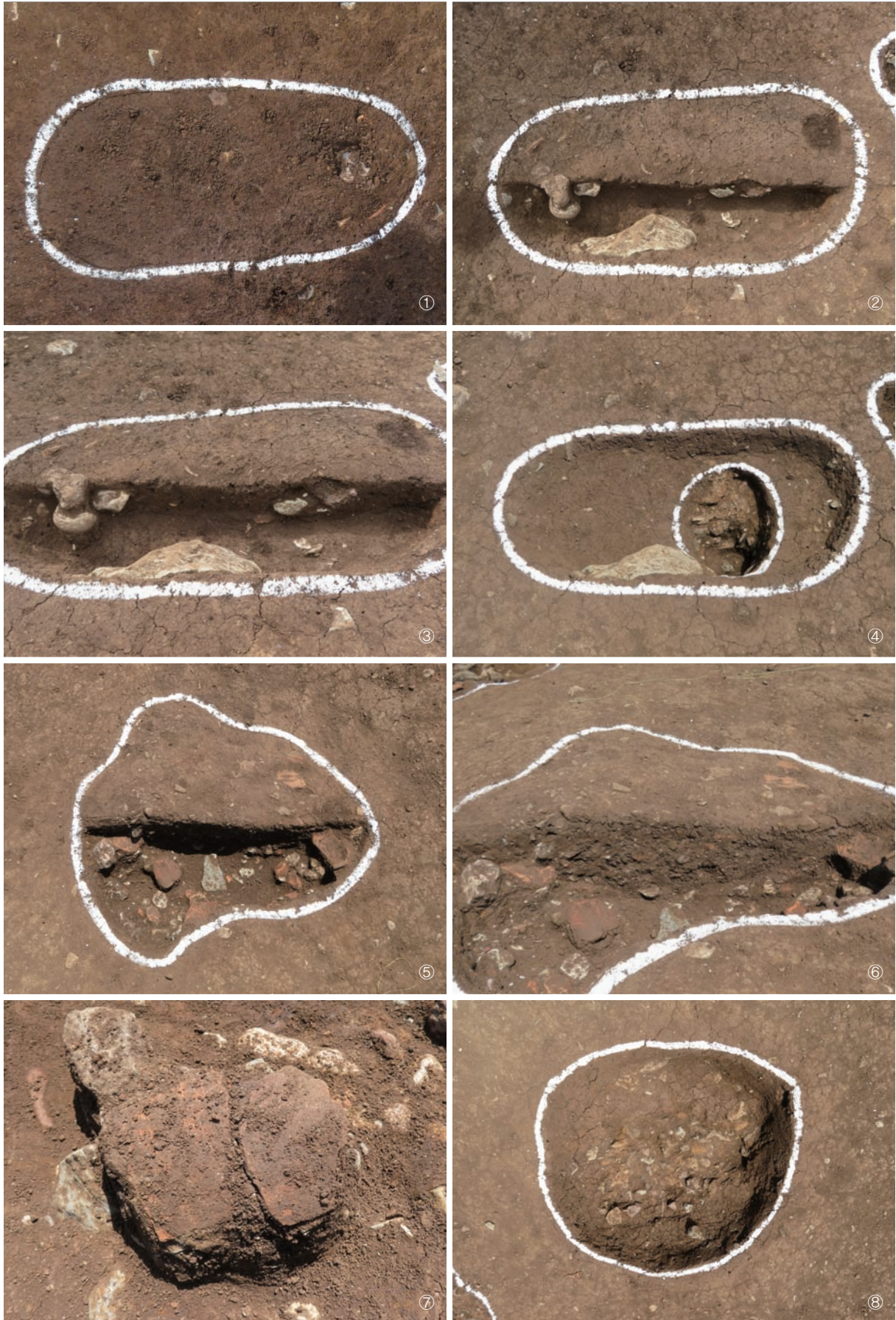
도판 19. 26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1차 조사 중, ③ 2차 조사 중, ④ 1차 조사 중 세부, ⑤ 토층, ⑥ 조사 완료)



도판 20. 27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28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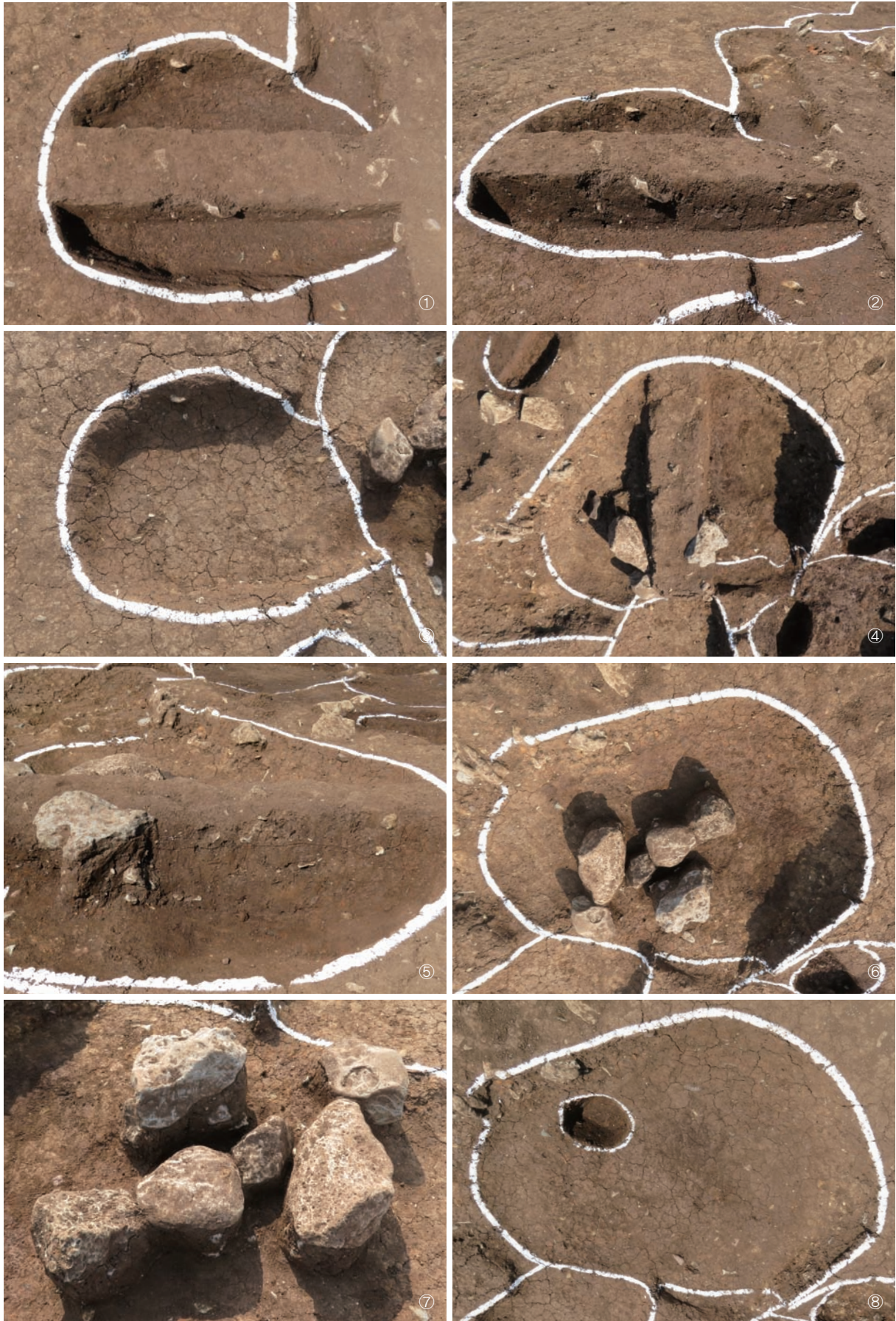
도판 21. 29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0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도판 22, 31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2호 수혈유구(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출토유물,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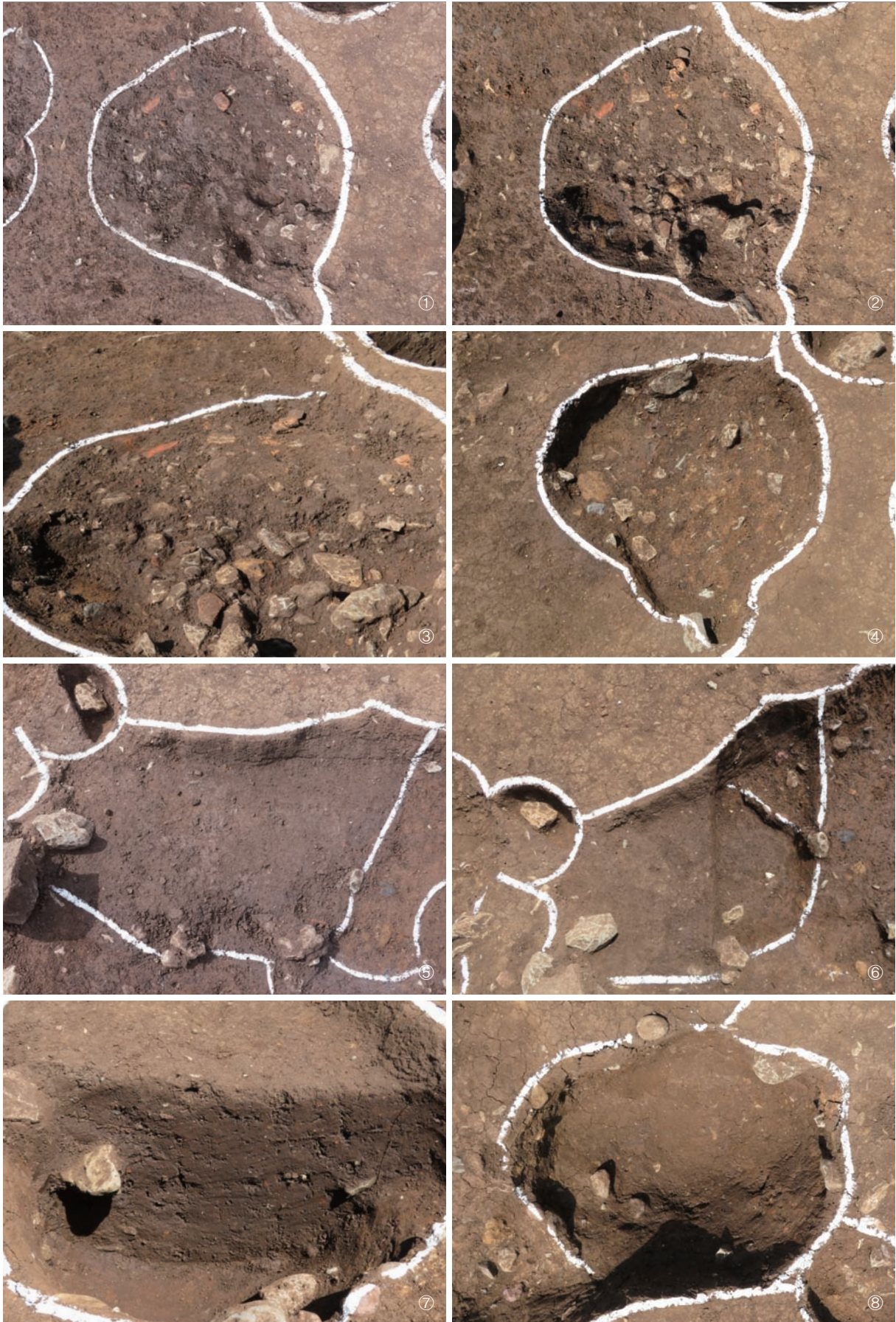
도판 23. 33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2차 조사 중, ④ 조사 완료), 34호 수혈유구(⑤ 1차 조사 중, ⑥ 2차 조사 중, ⑦ 내부주혈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도판 24. 35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36호 수혈유구(④ 1차 조사 중, ⑤ 토층, ⑥ 2차 조사 중, ⑦ 세부, ⑧ 조사 완료)세부, ⑨ 조사 완료)



도판 25. 37호 수혈유구(① 1차 조사 중, ② 출토유물, ③ 토층, ④ 세부, ⑤ 세부, ⑥ 세부, ⑦ 2차 조사 중,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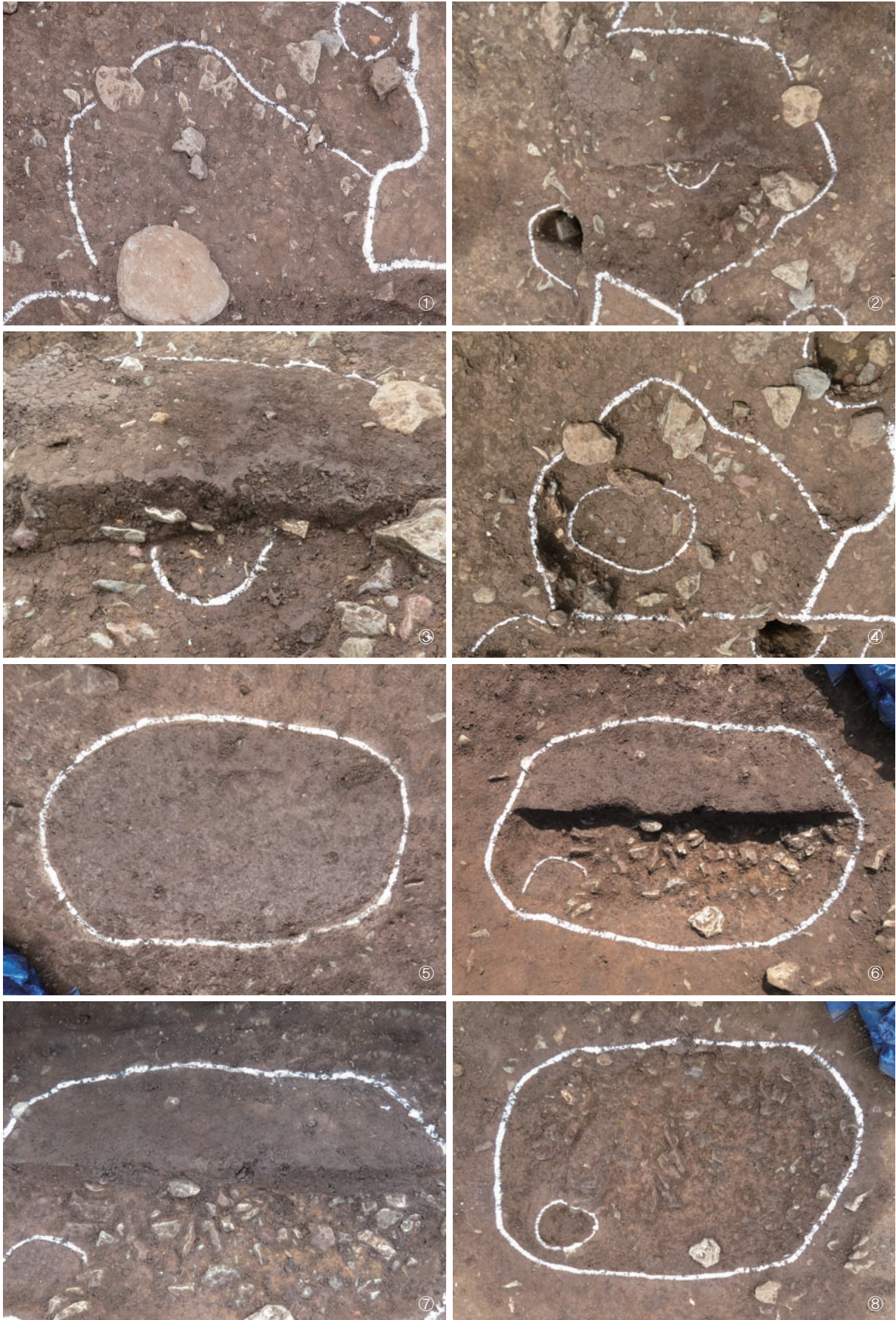
도판 26. 38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39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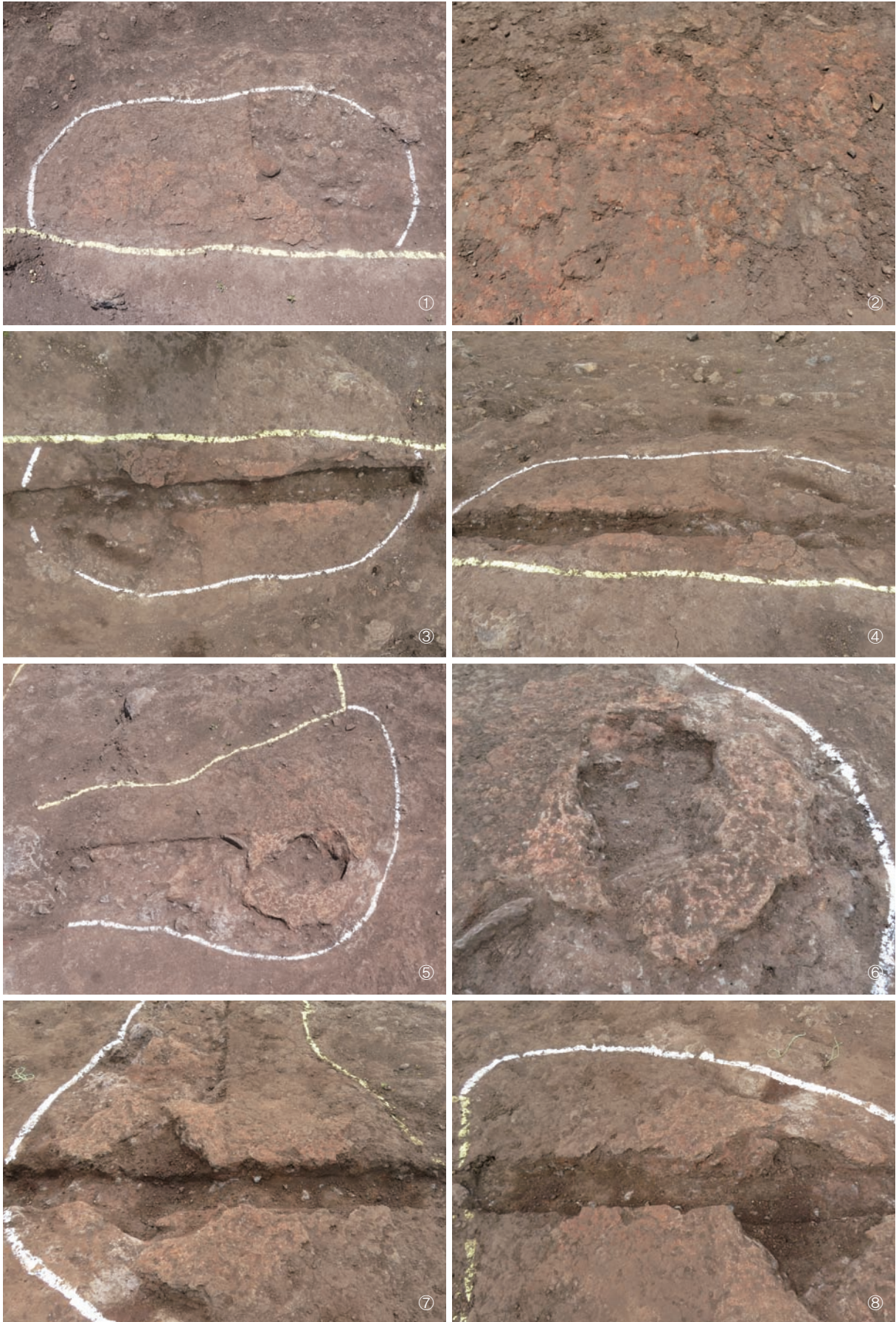
도판 27. 40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41호 수혈유구(④ 1차 조사 중, ⑤ 2차 조사 중, ⑥ 토층, ⑦ 출토 유물,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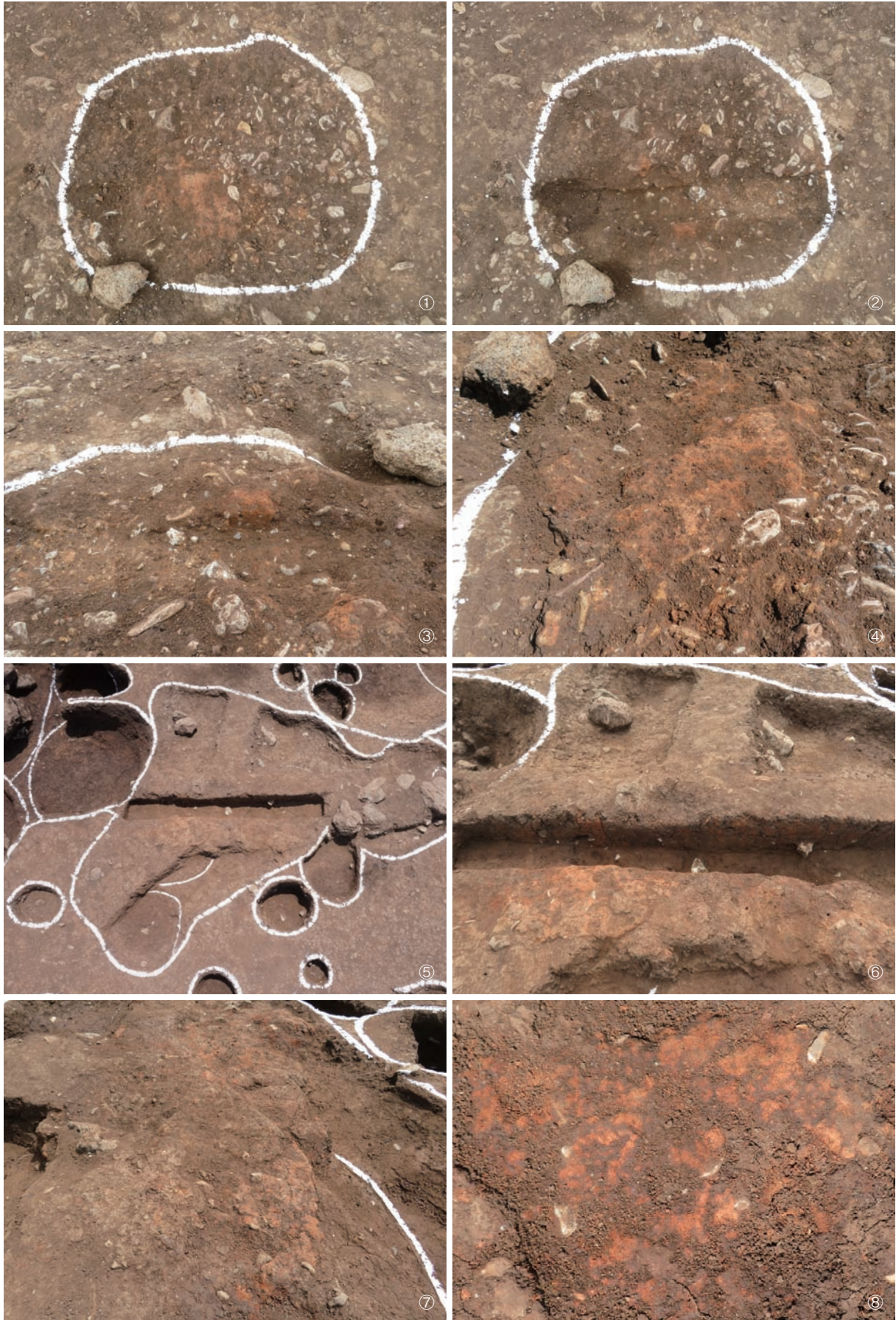
도판 28. 42호 수혈유구(① 조사 중, ② 토층, ③ 조사 완료), 43호 수혈유구(④ 1차 조사 중, ⑤ 토층, ⑥ 2차 조사 중,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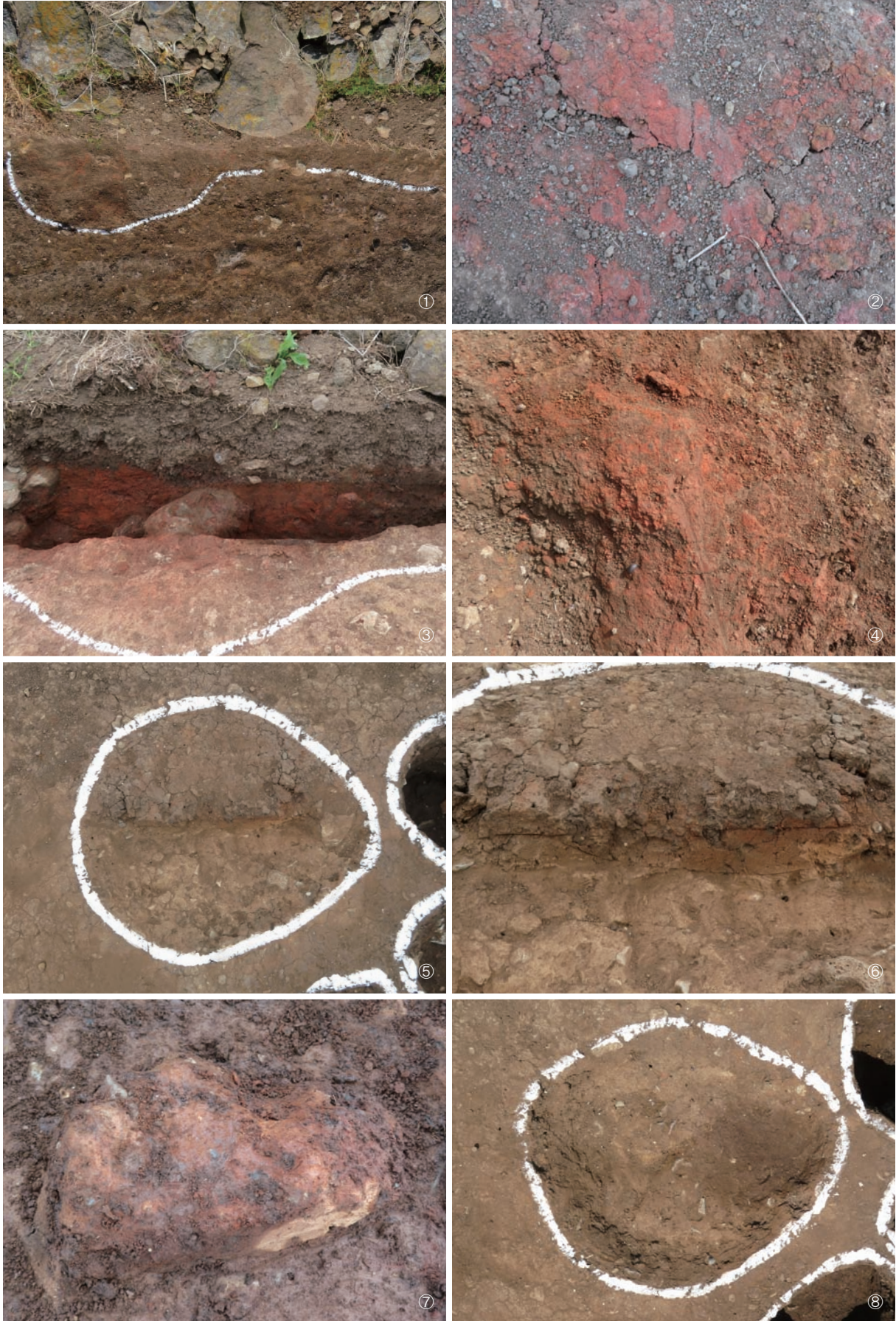
도판 29. 44호 수혈유구(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조사 완료), 45호 수혈유구(⑤ 조사 전, ⑥ 조사 중, ⑦ 토층, ⑧ 조사 완료)



도판 30. 1호 불다짐유구 (① 조사 전, ② 세부, ③ 조사 중, ④ 토층), 2호 불다짐유구 (⑤ 조사 중, ⑥ 세부, ⑦ 토층, ⑧ 토층)



도판 31. 3호 불다짐유구 (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토층, ④ 세부), 4호 불다짐유구 (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세부)



도판 32. 5호 불다짐유구 (① 조사 전, ② 세부, ③ 토층, ④ 세부), 1호 소토유구 (⑤ 조사 중, ⑥ 토층, ⑦ 세부, ⑧ 조사 완료)



도판 33. ① 유물포함층 전경, ② 발굴조사 전경



도판 34.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회의 전경 ①, ②



도판 35. 1호 주거지 출토유물(1~4), 2호 주거지출토유물(5~7), 3호 주거지 출토유물(8~12),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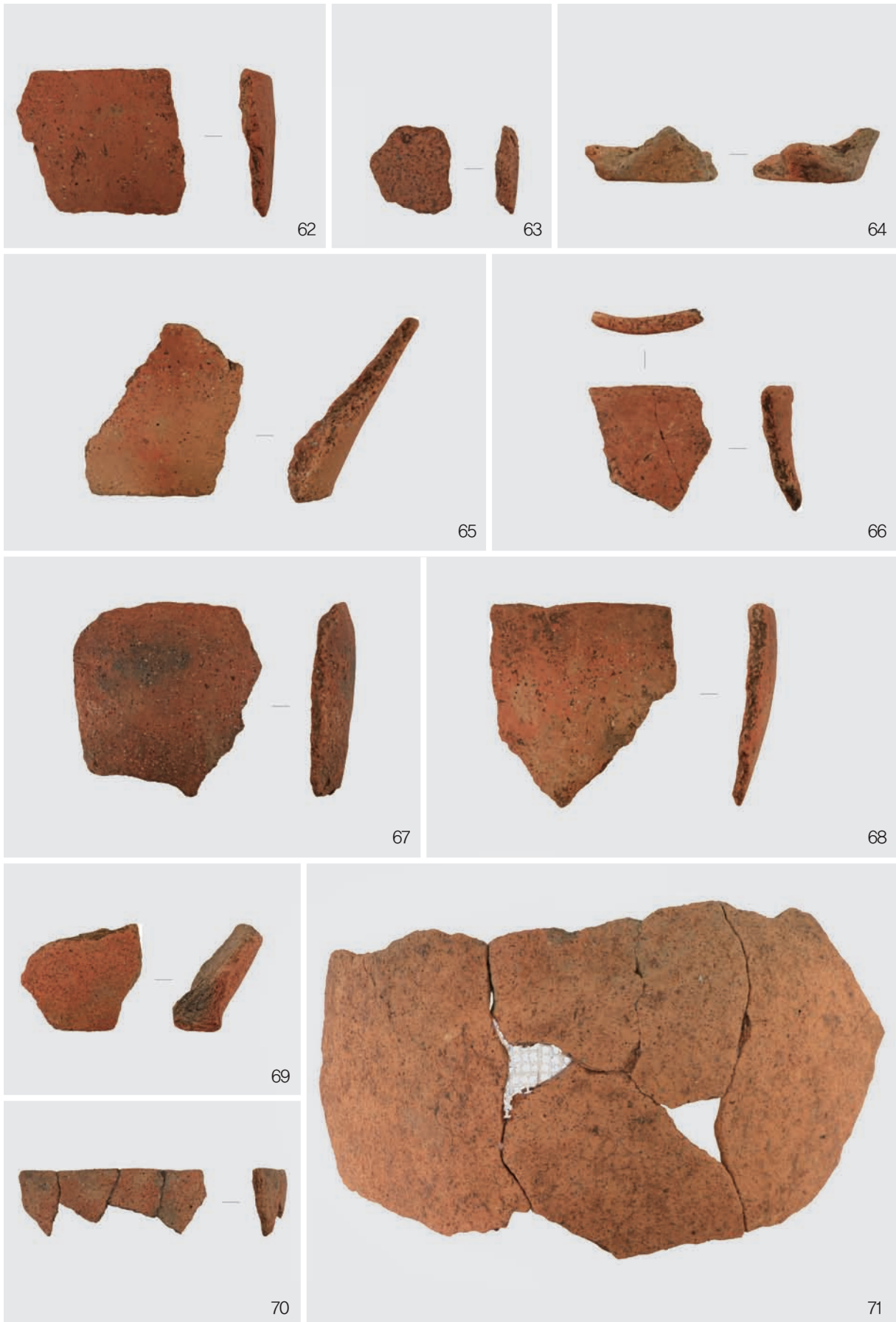
도판 36.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17~30),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1), 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2~34)



도판 37. 9호수혈유구 출토유물(35), 1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6), 14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7), 15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8), 1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39~42), 18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3), 2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4~49)



도판 38. 3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0·51), 3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52~61)



도판 39. 4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2~64), 4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5), 4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66~69), 3호 불다짐유구 출토유물(70), 주혈 출토유물(71)



도판 40. 유물포함층 출토유물(72~79)



도판 41. 유물포함층 출토유물(80)

부 록

자문위원 의견서

1.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종균배양실 신축부지내 유적

- 일 시 : 2019년 5월 29일(수) 15 : 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유적 발굴조사 현장
- 자문 위원 : 김경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이종철(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1) 유적 현황 및 성격

○ 발굴조사 결과, 방형주거지 1동, 원형주거지 2동, 수혈유구 45기, 불다짐유구 5기, 소토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 공렬, 구순각목공렬, 마연토기, 직립구연토기,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화순리유적 이대에 분포하는 청동기~철기시대의 취락과 연결되는 동시기의 유적에 해당한다.

2) 조사기관 의견 검토

- 조사기관의 방법과 결과 도출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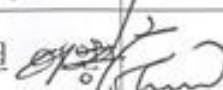
3) 추가 의견

-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종균배양실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유적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조사 면적	1,423㎡	조사기관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조사 기간	2019. 4. 8 ~ 2019. 5. 31	회의 일시	2019.5.29(수) 15시00분
유적 현황 및 성격	<p>발굴조사 결과 방형주거 등, 원형주거지층, 생활유물상기, 분타김유사 5기, 소도유물 1기 등이 확인되었다. 궁도유물은 주안각목, 공별, 주안각유물상, 아반기, 직립편토기, 갈을,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화순리유적 일대에 분포하는 청동기~철기시대의 귀락과 연결되는 등사기의 유적이 해일함</p>		
조사기관 의견 검토	<p>조사기관의 방법과 결과 도출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p>		
추가 의견	<p>기후보존을 철저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p>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제주문화유산 연구원	김 경 주 		
전북대학교 박물관	이 중 철 		

2019년 5월 29일



1. 시험 및 분석 기관

기 관 명	(주)카본에널리시스랩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삼성동11)
전화번호	042-636-3273
시험기관 개요	<p>(주)CAL은 AMS를 이용해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함에 있어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하는 시간(30분~45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긴 작업을 거치는 화학, 물리전처리(4일~5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임.</p> <p>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일원 중 균배양실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하여 의뢰한 6건의 목탄시료는 물리전처리, 화학전처리, 흑연화 과정을 거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AMS측정을 의뢰하였고, 이 결과를 가지고 연대보정 및 분석을 함.</p>

2. AMS시험 측정기관

기 관 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화번호	042-868-3392
시험기관 개요	<p>지질자원분석실은 현재 10여명 연구원이 수십 종의 첨단분석장비를 갖추고 매년 15,000여개 이상의 각종 지질 환경 및 소재 관련 시료들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광물감정 및 물성측정,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지원하고 있음.</p> <p>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을 이용하여 ^{12}C, ^{13}C, ^{14}C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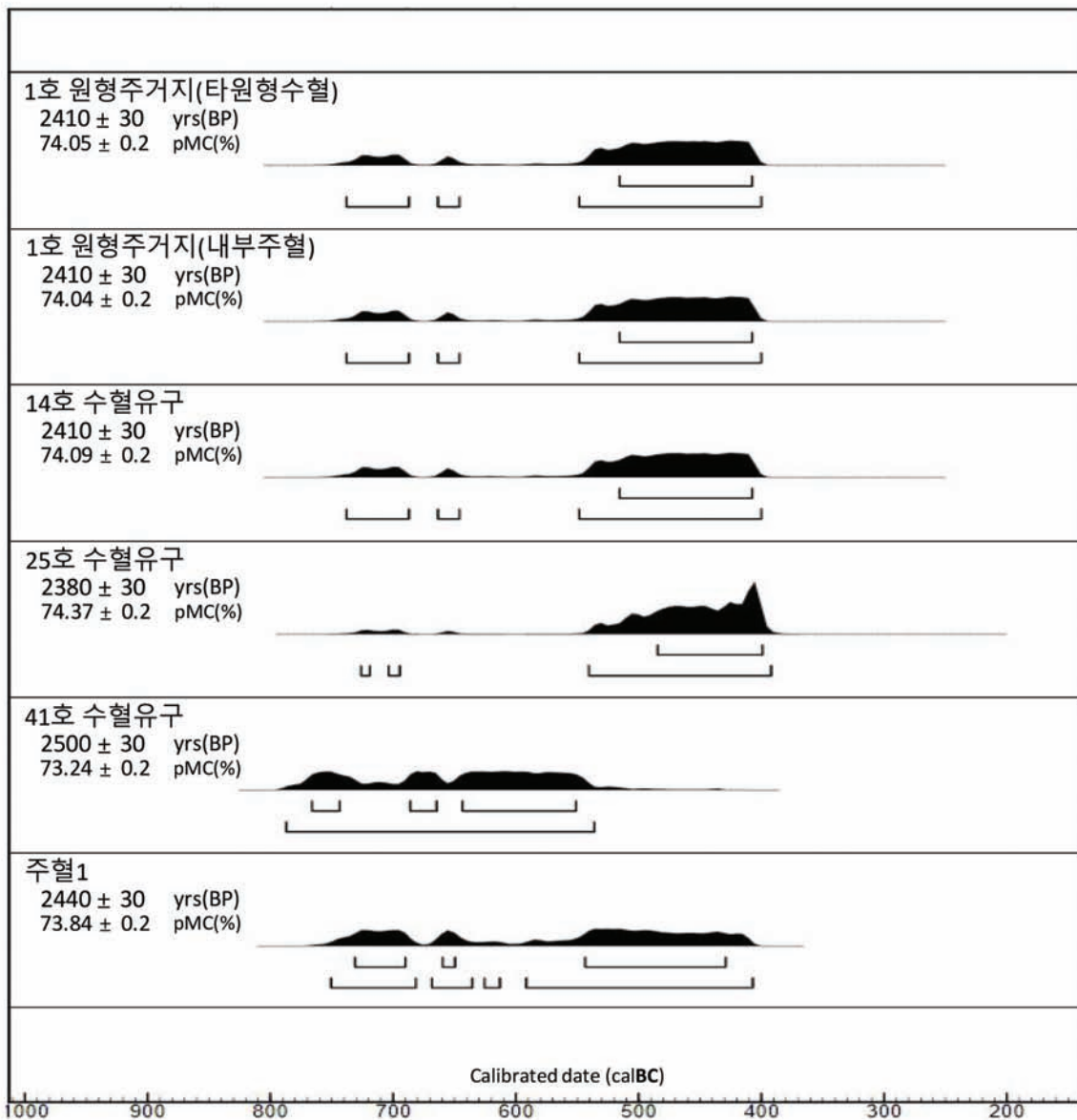
2019. 07. 04.

(주)카본에널리시스랩 대표이사 성 기 석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요약서

 의뢰인 제주고고학연구소
 Carbon Analysis Lab.

 보고일 2019-07-04
 시료접수 완료일 2019-05-30


Radio carbon dating service + FCF measurement service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4번길 25 2층 www.cal.re.kr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sungks3273@gmail.com

전처리과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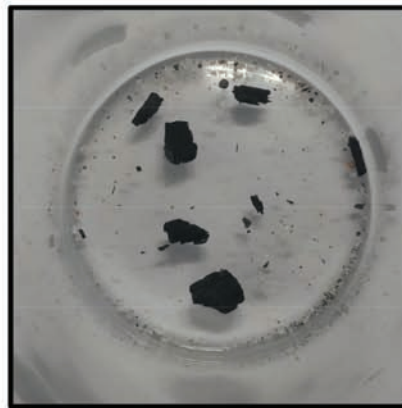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1호 원형주거지(타원형수혈)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열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56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47 torr
 환원실험 시간 : 177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6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8-1	-849.63	1.14	-22.81	-849.63	407.1	2160
IAEA C7-1	-503.9	2.07	-14.38	-503.9	442.9	2160
IAEA C8-2	-848.68	1.06	-15.52	-848.68	466.2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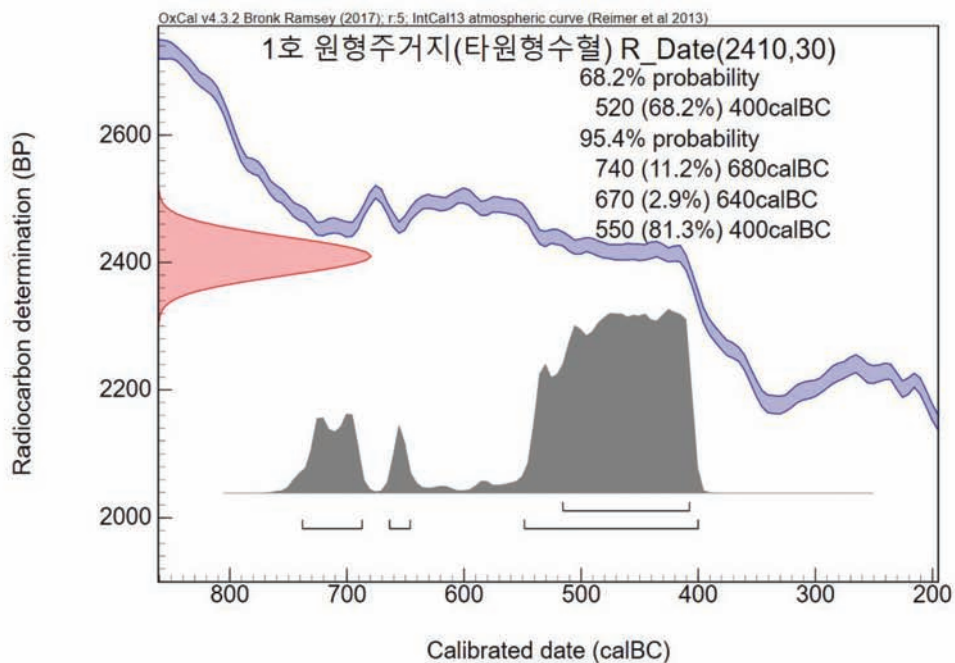
시 료 명 : 1호 원형주거지(타원형수혈)

의 료 일 : 2019-05-30

의 료 인 : 제주고고학연구소

보 고 일 : 2019-07-04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2410	30	2380 ~ 2440	74.05	0.27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7.95	2.61	-265.66	2.63	445.5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740 ~ BC 680(11.2%)

BC 670 ~ BC 640(2.9%)

BC 550 ~ BC 400(81.3%)

1 Sigma 보정 결과(68.2%)

BC 520 ~ BC 400(6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1호 원형주거지(내부주혈)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열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3.65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179 torr
 환원실험 시간 : 177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0.86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8-1	-849.63	1.14	-22.81	-849.63	407.1	2160
IAEA C7-1	-503.9	2.07	-14.38	-503.9	442.9	2160
IAEA C8-2	-848.68	1.06	-15.52	-848.68	466.2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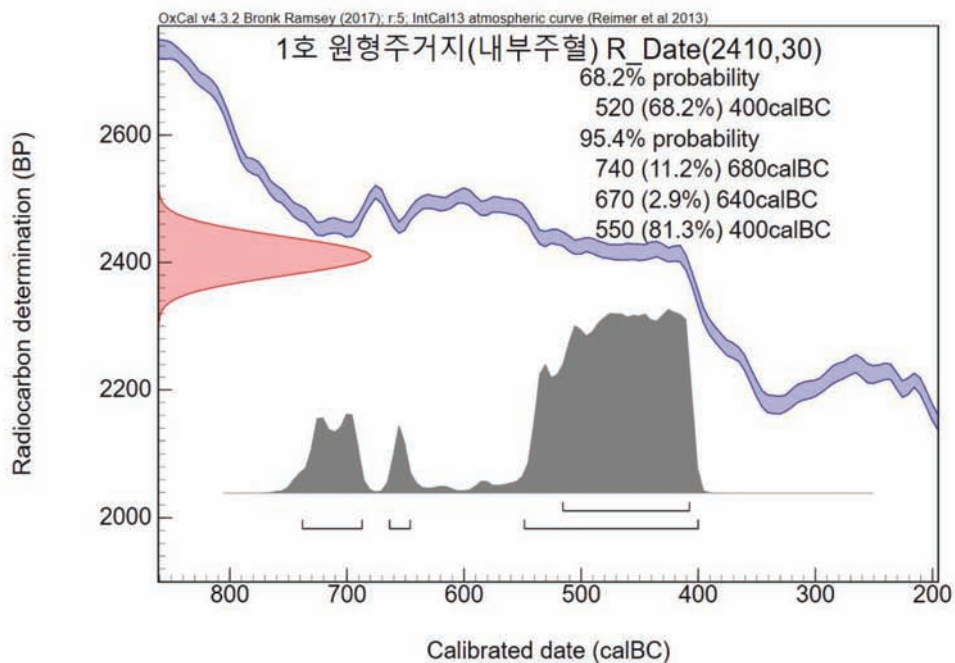
시 료 명 : 1호 원형주거지(내부주혈)

의 료 일 : 2019-05-30

의 료 인 : 제주고고학연구소

보 고 일 : 2019-07-04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2410	30	2380 ~ 2440	74.04	0.27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6.88	2.26	-265.74	2.68	426.4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740 ~ BC 680(11.2%)

BC 670 ~ BC 640(2.9%)

BC 550 ~ BC 400(81.3%)

1 Sigma 보정 결과(68.2%)

BC 520 ~ BC 400(6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www.cal.re.kr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14호 수혈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열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16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48 torr
 환원실험 시간 : 177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8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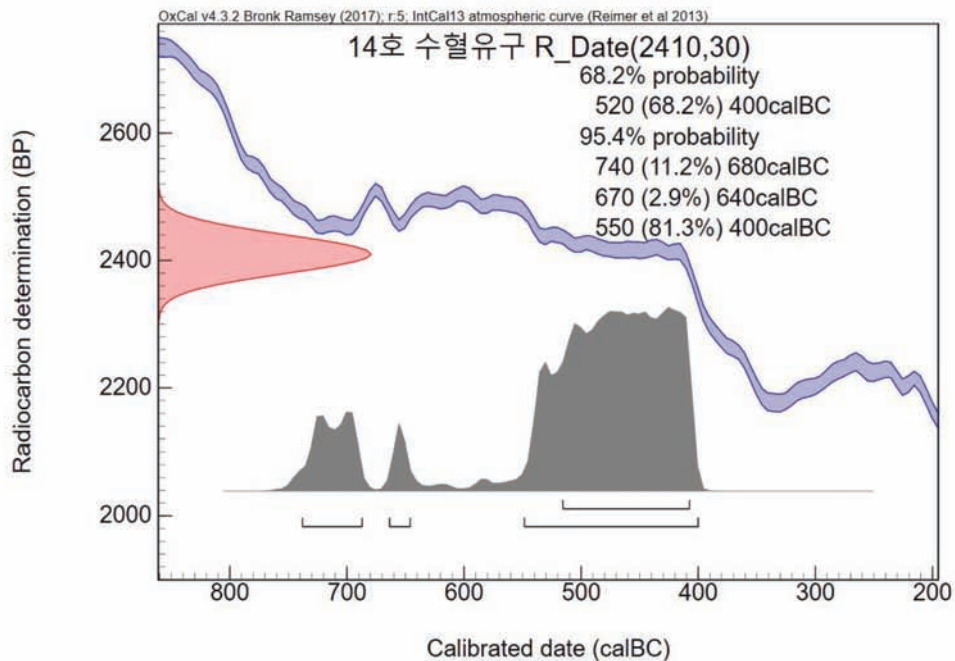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8-1	-849.63	1.14	-22.81	-849.63	407.1	2160
IAEA C7-1	-503.9	2.07	-14.38	-503.9	442.9	2160
IAEA C8-2	-848.68	1.06	-15.52	-848.68	466.2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료명 : 14호 수혈유구
 의뢰인 : 제주고고학연구소

의뢰일 : 2019-05-30
 보고일 : 2019-07-04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2410	30	2380 ~ 2440	74.09	0.27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7.71	2.22	-265.22	2.63	445.6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740 ~ BC 680(11.2%)
 BC 670 ~ BC 640(2.9%)
 BC 550 ~ BC 400(81.3%)

1 Sigma 보정 결과(68.2%)
 BC 520 ~ BC 400(68.2%)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www.cal.re.kr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25호 수혈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열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19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47 torr
 환원실험 시간 : 177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16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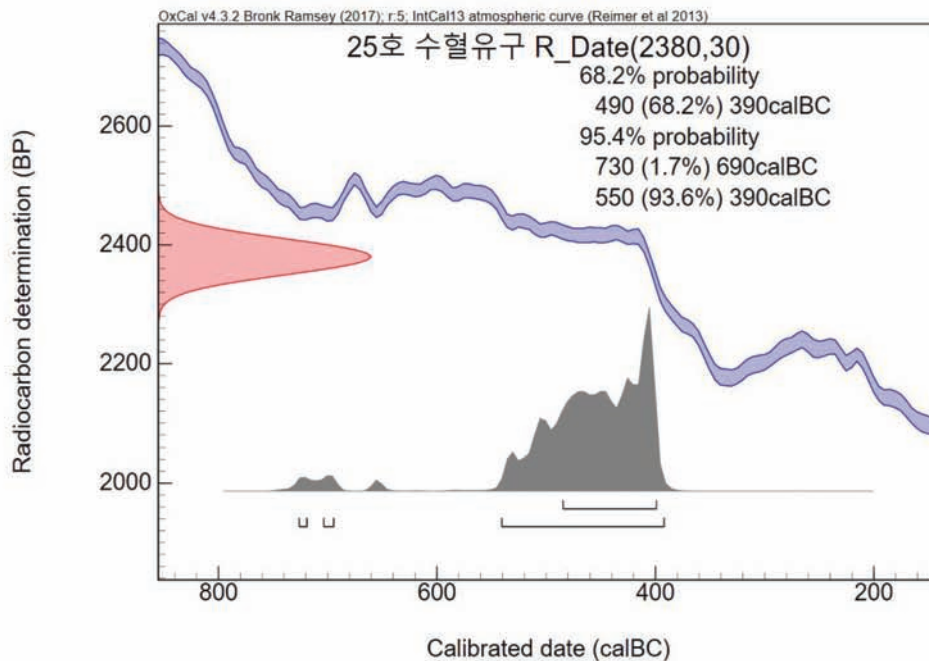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8-1	-849.63	1.14	-22.81	-849.63	407.1	2160
IAEA C7-1	-503.9	2.07	-14.38	-503.9	442.9	2160
IAEA C8-2	-848.68	1.06	-15.52	-848.68	466.2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료명 : 25호 수혈유구
 의뢰인 : 제주고고학연구소

의뢰일 : 2019-05-30
 보고일 : 2019-07-04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2380	30	2350 ~ 2410	74.37	0.27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9.93	1.58	-262.53	2.72	415.8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730 ~ BC 690(1.7%)
BC 550 ~ BC 390(93.6%)

1 Sigma 보정 결과(68.2%)
BC 490 ~ BC 390(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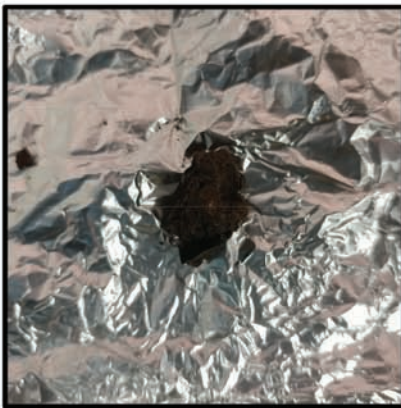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전처리과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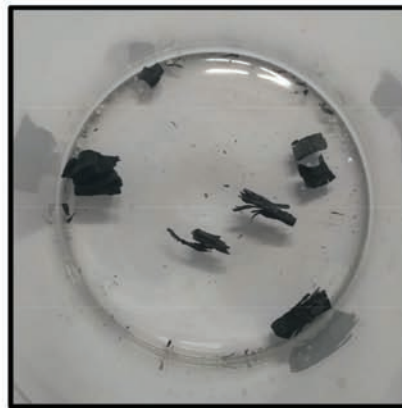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41호 수혈유구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염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71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54 torr
 환원실험 시간 : 177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20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8-1	-849.63	1.14	-22.81	-849.63	407.1	2160
IAEA C7-1	-503.9	2.07	-14.38	-503.9	442.9	2160
IAEA C8-2	-848.68	1.06	-15.52	-848.68	466.2	2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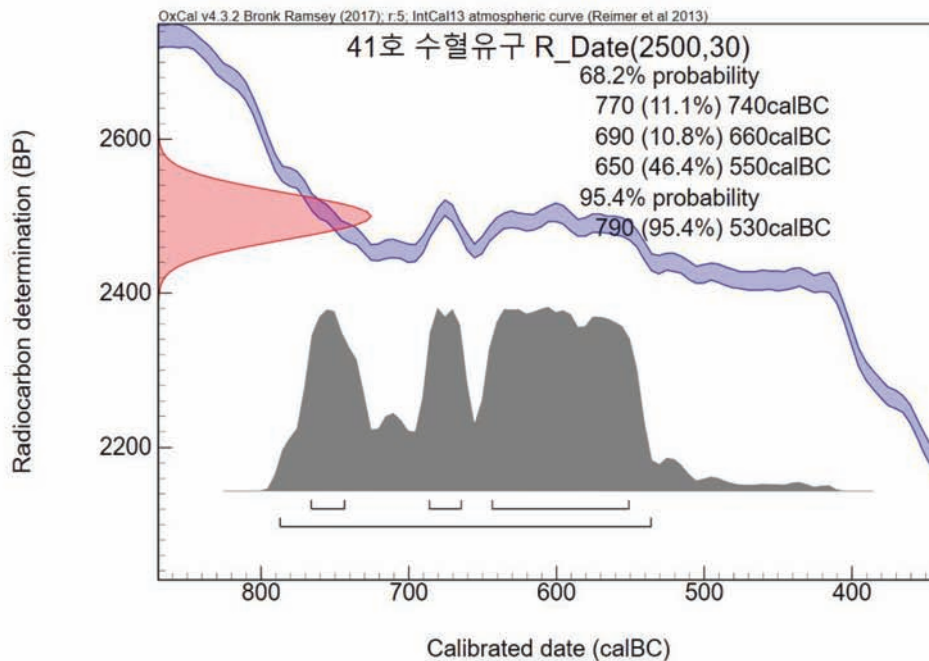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시 료 명 : 41호 수혈유구
 의 료 인 : 제주고고학연구소

의 료 일 : 2019-05-30
 보 고 일 : 2019-07-04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2500	30	2470 ~ 2530	73.24	0.26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4.64	1.81	-273.72	2.57	462.1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790 ~ BC 530(95.4%)

1 Sigma 보정 결과(68.2%)
 BC 770 ~ BC 740(11.1%)
 BC 690 ~ BC 660(10.8%)
 BC 650 ~ BC 550(46.4%)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www.cal.re.kr

전처리과정 보고서

1. 시료의 종류 및 상태

시료명 : 주혈1
 시료종류 : 유기물
 전처리방법 : AAA treatment
 - 산, 열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채집 시료 사진



화학전처리 후 사진



시험분석에 사용된 시료량 : 7.18 mg

2. 흑연 환원과정 Raw data

환원실험에 사용된 CO₂ 양 : 253 torr
 환원실험 시간 : 177 min
 환원된 그래파이트 양 : 1.21 mg

3. 같이 측정된 IAEA 표준시료 data

Sample name	pMC(%)	Error(pMC)	$\delta^{13}\text{C}(\text{‰})$	$\Delta^{14}(\text{‰})$	Charge(μC)	측정시간(초)
IAEA C8-1	-849.63	1.14	-22.81	-849.63	407.1	2160
IAEA C7-1	-503.9	2.07	-14.38	-503.9	442.9	2160
IAEA C8-2	-848.68	1.06	-15.52	-848.68	466.2	2160

측정결과 상세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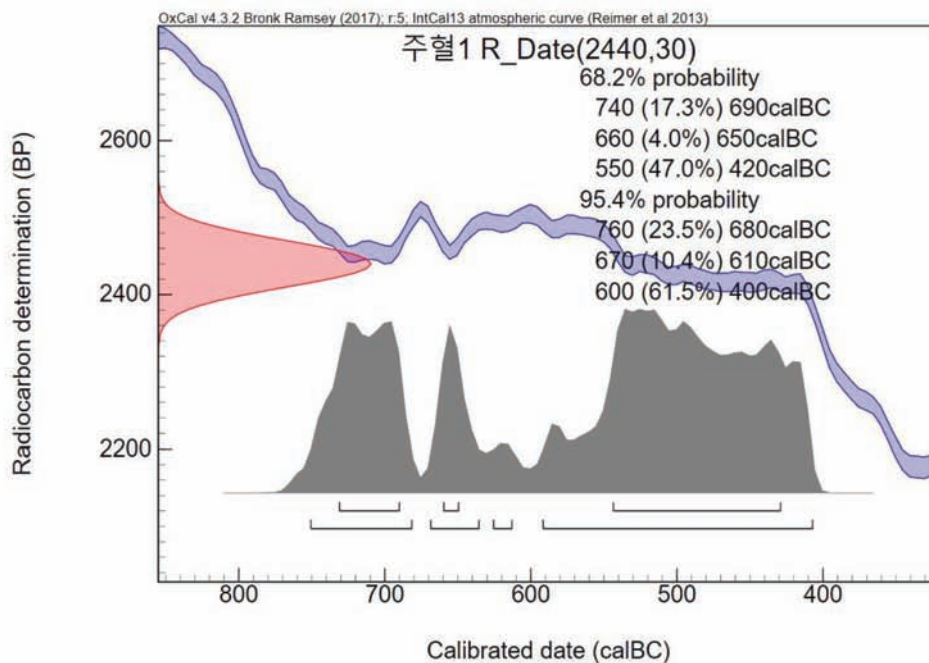
시료명 : 주혈1

의뢰일 : 2019-05-30

의뢰인 : 제주고고학연구소

보고일 : 2019-07-04

탄소 연대(yrs BP)	오차 범위(yrs BP)	연대 범위(BP)	pMC(%)	pMC오차(%)	
2440	30	2410 ~ 2470	73.84	0.26	
$\delta^{13}\text{C}$ (‰)	$\delta^{13}\text{C}$ 오차(‰)	$\Delta^{14}\text{C}$ (‰)	$\Delta^{14}\text{C}$ 오차(‰)	^{12}C 전하량(μC)	측정시간(초)
-23.45	0.98	-267.74	2.59	456.3	2160



2 Sigma 보정 결과(95.4%)

BC 760 ~ BC 680(23.5%)

BC 670 ~ BC 610(10.4%)

BC 600 ~ BC 400(61.5%)

1 Sigma 보정 결과(68.2%)

BC 740 ~ BC 690(17.3%)

BC 660 ~ BC 650(4.0%)

BC 550 ~ BC 420(47.0%)

- 본 보고서는 시료의 진위 감정이나 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Yrs BP는 Libby반감기(5568년)로 계산한 1950년 기준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의미합니다.
- 방사성탄소연대를 달력연대로 환산하는데는 Oxcal을 이용하였습니다. (<http://c14.arch.ox.ac.uk>) (Heaton,et. Al.,2009, Radiocarbon 51(4):1151-1164, Reimer,et.al,2009, Radiocarbon 51(4):1111-1150)
- $\delta^{13}\text{C}$ 및 $\Delta^{14}\text{C}$ 의 정의에 관해서는 Radiocarbon, 19(1977)355를 참조하십시오.
- $\Delta^{14}\text{C}$ 는 의뢰일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T 042 636 3273 F 042 637 3273

www.cal.re.kr

제주 화순리 522번지 유적 유물목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014-001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5	(5.3)	(0.9~1.1)	8-1	35-1	1호 주거지
2019-0014-002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2	(4.9)	(0.5~0.7)	8-2	35-2	1호 주거지
2019-0014-00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9	(11.1)	(0.8~0.9)	8-3	35-3	1호 주거지
2019-0014-004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2	.	(1.8)	8-4	35-4	1호 주거지
2019-0014-005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10.9	15.6	(0.7~0.8)	10-5	35-5	2호 주거지
2019-0014-006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7	(7.5)	(0.8)	10-6	35-6	2호 주거지
2019-0014-007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5	.	(0.6~1.0)	10-7	35-7	2호 주거지
2019-0014-008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7	(8.7)	(0.9~1.1)	12-8	35-8	3호 주거지
2019-0014-009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9	(5.7)	(0.7~0.9)	12-9	35-9	3호 주거지
2019-0014-010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8	(6.4)	(0.8~1.0)	12-10	35-10	3호 주거지
2019-0014-011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0	(6.3)	(1.0)	12-11	35-11	3호 주거지
2019-0014-012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5	.	(1.3~1.5)	12-12	35-12	3호 주거지
2019-0014-013	발형토기	1	토도	청동기	6.7	8.5	6.0 (0.4~0.7)	14-13	35-13	1호 수혈유구
2019-0014-014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3.3	(4.8)	(0.4)	14-14	35-14	1호 수혈유구
2019-0014-015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0	(6.0)	(1.1~1.3)	14-15	35-15	1호 수혈유구
2019-0014-016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2	(6.2)	(0.85~1.0)	14-16	35-16	1호 수혈유구
2019-0014-017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7.2	(6.3)	(0.6~0.9)	14-17	36-17	1호 수혈유구
2019-0014-018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2	(5.2)	(0.6~0.8)	14-18	36-18	1호 수혈유구
2019-0014-019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4	(4.8)	(0.7~0.9)	14-19	36-19	1호 수혈유구
2019-0014-020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0	(5.3)	(0.9~1.0)	14-20	36-20	1호 수혈유구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014-021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3	(5.1)	(0.9)	14-21	36-21	1호 수혈유구
2019-0014-022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0	(3.9)	(0.9)	14-22	36-22	1호 수혈유구
2019-0014-02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4	(3.7)	(1.0)	14-23	36-23	1호 수혈유구
2019-0014-024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3.4	(4.3)	(0.8~1.0)	14-24	36-24	1호 수혈유구
2019-0014-025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3.9	(3.9)	(0.6)	14-25	36-25	1호 수혈유구
2019-0014-026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5	(4.1)	(0.8~0.9)	14-26	36-26	1호 수혈유구
2019-0014-027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5.7	·	8.0 (0.8~1.7)	15-27	36-27	1호 수혈유구
2019-0014-028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6.3	·	(0.9~1.2)	15-28	36-28	1호 수혈유구
2019-0014-029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65	·	9.0 (1.0~1.4)	35-29	36-29	1호 수혈유구
2019-0014-030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25	·	11.0 (1.2~1.8)	15-30	36-30	1호 수혈유구
2019-0014-031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3	(5.1)	(0.7~0.8)	17-31	36-31	2호 수혈유구
2019-0014-032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5	(7.4)	(0.8~1.0)	20-32	36-32	4호 수혈유구
2019-0014-03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7	(5.6)	(0.6)	20-33	36-33	4호 수혈유구
2019-0014-034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5	·	(0.8~1.7)	20-34	36-34	4호 수혈유구
2019-0014-035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9	·	7.2 (0.9~1.3)	26-35	37-35	9호 수혈유구
2019-0014-036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2.5	·	(1.0~1.5)	30-36	37-36	12호 수혈유구
2019-0014-037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7	·	(1.3)	33-37	37-37	14호 수혈유구
2019-0014-038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4	(5.8)	(0.9~1.0)	35-38	37-38	15호 수혈유구
2019-0014-039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5	(4.6)	(0.7~0.8)	37-39	37-39	16호 수혈유구
2019-0014-040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9	(8.4)	(0.6~0.9)	37-40	37-40	16호 수혈유구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014-041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7.6	.	(1.1~1.3)	37-41	37-41	16호 수혈유구
2019-0014-042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6.3	.	(0.7~1.1)	37-42	37-42	16호 수혈유구
2019-0014-04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9.1	(10.0)	(0.7~0.8)	39-43	37-39	18호 수혈유구
2019-0014-044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2.7	(3.6)	(0.7~0.8)	48-44	37-44	26호 수혈유구
2019-0014-045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6	.	(0.7)	48-45	37-45	26호 수혈유구
2019-0014-046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15	.	8.0 (1.2~1.7)	48-46	37-46	26호 수혈유구
2019-0014-047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15	.	13.0 (1.4~1.6)	48-47	37-47	26호 수혈유구
2019-0014-048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4	.	10.6 (0.8~1.0)	48-48	37-48	26호 수혈유구
2019-0014-049	갈돌편	1	옥석	청동기	(9.6)	(10.0)	(4.8~5.2)	55-49	38-49	26호 수혈유구
2019-0014-050	발형토기	1	토도	청동기	23.4	19.8	9.2 (0.7~1.0)	55-50	38-50	32호 수혈유구
2019-0014-051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4.4	.	11.0 (1.0~1.8)	61-51	38-51	32호 수혈유구
2019-0014-052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8	(12.1)	(0.9~1.1)	61-52	38-52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5.4	(8.4)	(0.9)	61-53	38-53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4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0	(7.1)	(0.9)	61-54	38-54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5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11.15	12.0	(1.4~1.7)	61-55	38-55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6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5.7	.	7.6 (1.0~1.1)	61-56	38-56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7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8	.	11.8 (0.9~1.4)	61-57	38-57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8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5.5	.	9.6 (0.8~1.0)	61-58	38-58	37호 수혈유구
2019-0014-059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4	.	10.2 (1.5~1.6)	61-59	38-59	37호 수혈유구
2019-0014-060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6.6	.	(1.1~1.4)	61-60	38-60	37호 수혈유구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0014-061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6.25	.	12.8 (1.4~2.0)	66-61	39-61	37호 수혈유구
2019-0014-062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5	(4.4)	(0.7~0.85)	66-62	39-62	41호 수혈유구
2019-0014-06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1	(9.0)	(0.9~1.0)	66-63	39-63	41호 수혈유구
2019-0014-064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3.1	.	(1.5)	66-64	39-64	41호 수혈유구
2019-0014-065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9.8	.	(1.1~1.5)	68-65	39-65	42호 수혈유구
2019-0014-066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7.1	(6.1)	(0.7~1.1)	70-66	39-66	43호 수혈유구
2019-0014-067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10.8	(10.6)	(0.5~0.6)	70-67	39-67	43호 수혈유구
2019-0014-068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11.5	(10.6)	(0.8~0.9)	70-68	39-68	43호 수혈유구
2019-0014-069	저부편	1	토도	청동기	5.8	.	(1.3~1.6)	70-69	39-69	43호 수혈유구
2019-0014-070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3.7	(10.4)	(0.5~0.6)	76-70	39-70	3호 불다짐유구
2019-0014-071	동체부편	1	토도	청동기	16.6	(34.1)	(0.6)	80-71	39-71	주혈
2019-0014-072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14.1	20.4	(0.6~0.8)	81-72	40-72	유물포함층
2019-0014-073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5	(15.0)	(0.8)	81-73	40-73	유물포함층
2019-0014-074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6	(9.2)	(0.9)	81-74	40-74	유물포함층
2019-0014-075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8.4	(5.6)	(0.6~0.8)	81-75	40-75	유물포함층
2019-0014-076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4.9	(4.7)	(0.7~1.0)	81-76	40-76	유물포함층
2019-0014-077	구연부편	1	토도	청동기	6.8	(7.9)	(0.9~1.0)	81-77	40-77	유물포함층
2019-0014-078	동체부편	1	토도	청동기	20.4	(19.4)	(0.9)	82-78	40-78	유물포함층
2019-0014-079	동체부편	1	토도	청동기	8.5	(6.7)	(0.6~0.7)	82-79	40-79	유물포함층
2019-0014-080	갈판편	1	옥석	청동기	(17.1)	(22.4)	(4.2~4.4)	82-80	40-80	유물포함층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 화순리 522번지 유적			發行日	2021년 05월 28일
發行機關	名稱	(재)제주고고학연구소			
	住所	(63251) 제주시 동광로 23길1 (일도2동).3층			
	TEL	(064)711-9996	FAX	(064)712-9984	
執筆·編輯者	강창화, 김용덕, 김봉찬, 전우주, 성하나, 김혜진, 이선민, 임보미				
調査緣由	중균배양시설 신축				
發掘調査者	강창화, 박근태, 김봉찬, 전우주, 김주희, 현예지, 문선미				
所在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번지				
調査面積	1,423㎡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초기철기	3	구순각목공렬문토기편, 구순각목문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등		
수혈유구	청동기~초기철기	45	구순각목문토기편, 마연토기편, 직립구연토기편, 갈돌 등		
불다짐유구	청동기~초기철기	5	직립구연토기편 등		
소토유구	청동기~초기철기	1	.		
주혈	청동기~초기철기	다수	무문토기편 등		
유물포함층	청동기~초기철기	1	구순각목문토기, 직립구연 토기 등		

8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

〈 일러두기 〉

1.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고 지도의 방위는 圖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의 크기 및 성격에 따라서 1/20~1/100을 적용하고 해당도면의 좌측하단에 축척과 함께 표기하였다. 유물은 1/3을 기준으로 하였고 축척을 달리 할 경우 별도로 축소비율을 해당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였다.
3. 유구의 입·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4. 유물은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유물의 번호는 본문·도면·사진 번호가 일치한다.
5. 유구배치도 내 유구는 시기별, 종류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6. 본문에 사용된 토층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내부퇴적토층
 - 유구가 폐기되어 기능을 상실한 후 퇴적된 층으로 1차 퇴적토층과 2차 퇴적토층으로 구분된다.
 - ① 2차 퇴적토층 : 유구 폐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유입된 토층. 외부의 토양이 유입된 것으로 2차 퇴적토에서 출토된 유물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1차 퇴적토층 : 유구 폐기 후 주변의 토양이 유입된 토층이다.
 - 2) 함몰토층
 - 유구 모서리에서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굴착한 벽면을 보강한 흔적(벽체보강토), 벽체가 무너진 흔적(벽체함몰토), 유구 폐기 직후 외부에서 유입된 흔적(벽가유입토) 등으로 세분된다. 본문에서는 세분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함몰토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분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하였다.
 - 3) 상면점토층
 - 바닥 조성을 위해 정지층 위에 점토로 평평하게 다진 층이다.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도면에서는 적색선으로 표시하고 별도로 주기를 달았다.
 - 4) 정지층(整地層)
 - 유구 굴착 후 요철면의 정지를 위해 깎거나 매운 층이다.



원색사진1. 조사지역 원경



원색사진2. 조사지역 항공사진



원색사진3. 출토유물1(토기류)



원색사진4. 출토유물2(석기류)

목 차

I. 조사개요	84-1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84-21
1. 자연·지리적 환경	84-21
2. 고고·역사적 배경	84-23
1) 고고학적 배경	84-23
(1) 구석기시대	84-23
(2) 신석기시대	84-24
(3) 청동기시대	84-25
(4) 원삼국시대	84-26
(5) 삼국시대	84-27
(6) 고려~조선시대	84-28
2) 역사적 배경	84-31
III. 조사내용	84-36
1. 표본조사	84-36
2. 발굴조사	84-37
〈청동기 시대〉	
1) 주거지	84-40
(1) 1호 주거지	84-40
(2) 2호 주거지	84-84
(3) 3호 주거지	84-51
(4) 4호 주거지	84-53
(5) 5호 주거지	84-55
(6) 6호 주거지	84-58
(7) 7호 주거지	84-59
(8) 8호 주거지	84-61
(9) 9호 주거지	84-75
(10) 10호 주거지	84-76
(11) 11호 주거지	84-79
(12) 12호 주거지	84-81

(13) 13호 주거지	84-83
(14) 14호 주거지	84-93
(15) 15호 주거지	84-94
2) 구상유구	84-95
(1) 1호 구상유구	84-95
〈원삼국-삼국 시대〉	
1) 주거지	84-98
(1) 1호 주거지	84-98
(2) 2호 주거지	84-122
(3) 3호 주거지	84-129
(4) 4호 주거지	84-133
(5) 5호 주거지	84-137
(6) 6호 주거지	84-137
(7) 7호 주거지	84-143
(8) 8호 주거지	84-143
(9) 9호 주거지	84-145
(10) 10호 주거지	84-149
(11) 11호 주거지	84-153
(12) 12호 주거지	84-158
(13) 13호 주거지	84-163
(14) 14호 주거지	84-163
(15) 15호 주거지	84-164
(16) 16호 주거지	84-171
(17) 17호 주거지	84-173
(18) 18호 주거지	84-174
2) 구상유구	84-177
(1) 1호 구상유구	84-177
(2) 2호 구상유구	84-183
3) 수혈	84-184
(1) 1호 수혈	84-184
(2) 2호 수혈	84-186
(3) 3호 수혈	84-188
(4) 4호 수혈	84-192
(5) 5호 수혈	84-194

(6) 6호 수혈	84-195
(7) 7호 수혈	84-198
(8) 8호 수혈	84-200
(9) 9호 수혈	84-201
(10) 10호 수혈	84-203
(11) 11호 수혈	84-204
(12) 12호 수혈	84-205
(13) 13호 수혈	84-206
(14) 14호 수혈	84-207
(15) 15호 수혈	84-207
(16) 16호 수혈	84-209
(17) 17호 수혈	84-210
(18) 18호 수혈	84-212
(19) 19호 수혈	84-212
(20) 20호 수혈	84-214
(21) 21호 수혈	84-215
〈조선시대〉	
1) 건물지	84-216
(1) 1호 건물지	84-216
2) 수혈	84-219
(1) 1호 수혈	84-219
(2) 2호 수혈	84-219
(3) 3호 수혈	84-220
(4) 4호 수혈	84-221
(5) 5호 수혈	84-224
(6) 6호 수혈	84-224
(7) 7호 수혈	84-22W5
(8) 8호 수혈	84-227
〈시대미상〉	
1) 1호 구상유구	84-231
〈제토 중 수습유물〉	84-232
IV. 조사성과	84-235

부록

1.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84-313
2. 고지형 분석 결과 보고서	84-319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고지형분석-	84-319
3.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84-330
4. 출토유물목록	84-333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분포지형도(흙토람 참조, http://soil.rda.go.kr/soil/index.jsp)	84-22
도면 2. 조사대상지 퇴적지형도(흙토람 참조, http://soil.rda.go.kr/soil/index.jsp)	84-22
도면 3.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84-29
도면 4.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84-30
도면 5. 조사대상지 근대지형도(1:50,000)	84-33
도면 6.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84-35
도면 7. 표본조사 Tr. 배치도(1:500)	84-37
도면 8. 발굴조사 유구배치도(1:300)	84-38
도면 9.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1:300)	84-39
도면 10.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84-41
도면 1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46
도면 12.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47
도면 13.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48
도면 14.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84-49
도면 15.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84-50
도면 16. 청동기시대 3·4호 주거지	84-52
도면 17.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	84-54
도면 18.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84-56
도면 19.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출토유물	84-57
도면 20.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	84-58
도면 21.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	84-59
도면 22.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84-60

도면 23.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65
도면 24.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66
도면 25.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67
도면 26.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4	84-69
도면 27.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5	84-70
도면 28.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6	84-72
도면 29.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7	84-73
도면 30.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	84-76
도면 3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84-77
도면 32.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84-78
도면 33. 청동기시대 10·11호 주거지	84-80
도면 34.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84-81
도면 35.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84-82
도면 36.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84-85
도면 37.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88
도면 38.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89
도면 39.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91
도면 40. 청동기시대 13호 주거지	84-92
도면 41.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84-93
도면 42.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출토유물	84-94
도면 43.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	84-96
도면 44.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	84-97
도면 45. 원삼국~삼국시대 유구배치도(1:300)	84-99
도면 46.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84-101
도면 47.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기준토층	84-103
도면 48.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북쪽 경계면토층	84-105
도면 49.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116
도면 50.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117
도면 51.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118
도면 52.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4	84-119
도면 53.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5	84-120
도면 54.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6	84-121
도면 55.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	84-123
도면 56.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26
도면 57.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	84-127

도면 58.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30
도면 59.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84-131
도면 60.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36
도면 61.	원삼국~삼국시대 5호 주거지	84-137
도면 62.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84-138
도면 63.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140
도면 64.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141
도면 65.	원삼국~삼국시대 7호 주거지	84-142
도면 66.	원삼국~삼국시대 8호 주거지	84-144
도면 67.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	84-145
도면 68.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47
도면 69.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	84-148
도면 70.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151
도면 71.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152
도면 72.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84-155
도면 73.	원삼국~삼국시대 11호·12호 주거지 북쪽 경계면토층	84-157
도면 74.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58
도면 75.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84-159
도면 76.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62
도면 77.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주거지	84-163
도면 78.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주거지	84-164
도면 79.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84-165
도면 80.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168
도면 81.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169
도면 82.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171
도면 83.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	84-172
도면 84.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73
도면 85.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주거지	84-173
도면 86.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주거지	84-175
도면 87.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84-177
도면 88.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	84-179
도면 89.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	84-181
도면 90.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	84-182
도면 91.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 출토유물	84-183
도면 92.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	84-184

도면 93.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 출토유물	84-185
도면 94.	원삼국~삼국시대 2호 수혈	84-186
도면 95.	원삼국~삼국시대 2호 수혈 출토유물	84-188
도면 96.	원삼국~삼국시대 3호 수혈	84-189
도면 97.	원삼국~삼국시대 3호 수혈 출토유물	84-191
도면 98.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	84-192
도면 99.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	84-193
도면 100.	원삼국~삼국시대 5호 수혈	84-195
도면 101.	원삼국~삼국시대 6호 수혈	84-196
도면 102.	원삼국~삼국시대 6호 수혈 출토유물	84-197
도면 103.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	84-198
도면 104.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	84-199
도면 105.	원삼국~삼국시대 8호 수혈	84-200
도면 106.	원삼국~삼국시대 8호 수혈 출토유물	84-201
도면 107.	원삼국~삼국시대 9호 수혈	84-202
도면 108.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수혈	84-203
도면 109.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수혈	84-204
도면 110.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수혈	84-205
도면 111.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수혈	84-206
도면 112.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수혈	84-207
도면 113.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수혈	84-208
도면 114.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수혈 출토유물	84-209
도면 115.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수혈	84-210
도면 116.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	84-211
도면 117.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수혈	84-212
도면 118.	원삼국~삼국시대 19호 수혈	84-213
도면 119.	원삼국~삼국시대 20호 수혈	84-214
도면 120.	원삼국~삼국시대 21호 수혈	84-215
도면 121.	조선시대 유구배치도(1:300)	84-216
도면 122.	조선시대 1호 건물지	84-217
도면 123.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출토유물	84-218
도면 124.	조선시대 1호 수혈	84-219
도면 125.	조선시대 2·3·4호 수혈	84-220
도면 126.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1	84-222
도면 127.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2	84-223

도면 128. 조선시대 5호 수혈	84-224
도면 129. 조선시대 6호 수혈	84-225
도면 130. 조선시대 7호 수혈	84-226
도면 131. 조선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1	84-227
도면 132. 조선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2	84-228
도면 133. 조선시대 8호 수혈	84-229
도면 134. 조선시대 8호 수혈 출토유물	84-230
도면 135. 시대미상 유구배치도(1:300)	84-231
도면 136. 조선시대 1호 구상유구	84-233
도면 137. 제토 중 수습 출토유물	84-234

표 목 차

표 1. 발굴조사 대상지 주변 유적 현황(【도면 4】참조)	84-31
표 2.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소매점 신축부지 문화유적 표본조사 결과표	84-36
표 3.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도	84-38
표 4. 청동기시대 주거지 일람표	84-235
표 5.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일람표	84-236
표 6.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람표	84-238
표 7.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출토유물 일람표	84-238
표 8.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람표	84-240
표 9. 원삼국~삼국시대 구상유구 출토유물 일람표	84-240
표 10. 원삼국~삼국시대 수혈 출토유물 일람표	84-240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지역 원경(①,②)	84-243
도판 2. 조사지역 항공사진1(①표본조사, ②조사전)	84-244
도판 3. 조사지역 항공사진2(①조사중, ②조사후)	84-245

도판 4.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①조사중, ②동서토층, ③~④유물출토상태)	84-246
도판 5.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247
도판 6.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248
도판 7.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249
도판 8.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①조사후, 23출토유물), 3호 주거지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경계면토층, ⑤~⑥유물출토상태)	84-250
도판 9.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24~28), 4호 주거지(①조사후, ②~③주혈)	84-251
도판 10.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①조사중, ②남북토층, ③주혈, 29~33출토유물)	84-252
도판 11.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①조사후, ②~⑤주혈, 34출토유물), 7호 주거지(⑥조사중, ⑦남북토층)	84-253
도판 12.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①조사후, ②~③저장혈, 출토유물1(35~37))	84-254
도판 13.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255
도판 14.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256
도판 15.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4	84-257
도판 16.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5	84-258
도판 17.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①조사후, ②동서토층), 9호 주거지(③조사전)	84-259
도판 18.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①조사후, 62~66출토유물)	84-260
도판 19.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①조사후, 67~68출토유물), 11호 주거지(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남북토층)	84-261
도판 20.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①유물출토상태, 69~73출토유물)	84-262
도판 2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1)	84-263
도판 22.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①조사중2, ②조사후)	84-264
도판 23.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①남북토층, ②~④주혈, ⑤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1(75~79)	84-265
도판 24.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266
도판 25.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85~86출토유물), 13호 주거지(①조사후), 14호 주거지(②조사전, ③조사후, 87~88출토유물)	84-267
도판 26.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유물출토상태, 89~90출토유물)	84-268
도판 27.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1)	84-269
도판 28.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조사중2, ②조사후)	84-270
도판 29.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출입구토층, ②서쪽토층, ③남쪽토층, ④북쪽 경계면토층)	84-271
도판 30.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북서쪽 세부, ②~③상면점토 세부, ④정지층 토층, ⑤노지1, ⑥노지2)	84-272

도판 31.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노지1토층, ②~④저장혈1, ⑤저장혈2, ⑥~⑩주혈)	84-273
도판 32.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출입구 문지방석, ②~⑧유물출토상태)	84-274
도판 33.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84-275
도판 34.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84-276
도판 35.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84-277
도판 36.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4	84-278
도판 37.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①동서토층, ②~④아궁이세부, ⑤조사전, ⑥조사중1)	84-279
도판 38.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①조사중2, ②조사후, ③~⑦구들세부)	84-280
도판 39.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127~132), 3호 주거지 (①조사중1, ②조사중2)	84-281
도판 40.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①조사중3, ②남북토층, ③토층세부, ④1호 주거지 중복토층, ⑤유물출토상태)	84-282
도판 41.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①~②외줄구들, ③아궁이세부, ④아궁이토층, ⑤벽석세부, 133~136출토유물)	84-283
도판 42.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부뚜막)	84-284
도판 43.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①동서토층, ②아궁이 소결흔, ③~⑦주혈, 출토유물 137~143)	84-285
도판 44. 원삼국~삼국시대 5호 주거지(①노지), 6호 주거지(②유물출토상태, ③주혈, ④조사중, ⑤조사후)	84-286
도판 45.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①남북토층, 144~148출토유물)	84-287
도판 46. 원삼국~삼국시대 7호 주거지(①남북토층, ②조사후), 8호 주거지 (③~④주혈, ⑤조사후)	84-288
도판 47.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①조사후, ②남북토층, 149~151출토유물)	84-289
도판 48.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①남북토층, ②조사중, ③외줄구들, 152~158출토유물)	84-290
도판 49.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①동서토층,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노지, 159~163출토유물)	84-291
도판 50.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①조사중, ②동서토층, 164~172출토유물)	84-292
도판 51.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주거지(①~②노지), 14호 주거지(③조사후, ④토층), 15호 주거지(⑤조사중)	84-293
도판 52.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	84-294

도판 53.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①조사후, ②동서토층, 184~185출토유물) 17호 주거지(③조사후, ④소결흔, ⑤세부), 18호 주거지(⑥노지, ⑦조사중, 186~190출토유물)	84-295
도판 54.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①조사후, ②동서토층, ③~④토층세부)	84-296
도판 55.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191~194출토유물), 2호 구상유구 (①동서토층, ②조사중, 195출토유물),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 (③조사중, ④남북토층)	84-297
도판 56.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196~197출토유물), 2호 수혈(①조사중, ②경계면토층, 198~200출토유물), 3호 수혈(③조사중, ④남북토층, 201~205출토유물)	84-298
도판 57.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①조사중, ②동서토층, 206~207출토유물), 5호 수혈(③조사후), 6호 수혈(④조사후, ⑤동서토층, 208~210출토유물)	84-299
도판 58.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①조사후, 211~212출토유물), 8호 수혈(②조사후, ③남북토층, 213출토유물), 9호 수혈(④조사중, ⑤동서토층), 10호 수혈(⑥조사후, ⑦남북토층)	84-300
도판 59.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수혈(①조사후), 12호 수혈(②조사전, ③남북토층), 13호 수혈(④조사후, ⑤남북토층), 14호 수혈(⑥조사후), 15호 수혈 (⑦조사후, ⑧남북토층, 214출토유물)	84-301
도판 60.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수혈(①조사후, ②남북토층), 17호 수혈 (③조사후, ④동서토층), 18호 수혈(⑤조사후, ⑥동서토층), 19호 수혈 (⑦조사후, ⑧남북토층), 20호 수혈(⑨조사후), 21호 수혈(⑩조사후)	84-302
도판 61.	조선시대 1호 건물지(①조사전, ②~⑧적심세부)	84-303
도판 62.	조선시대 1호 건물지(215출토유물), 조선시대 1호 수혈(①조사후, ②남북토층), 2호 수혈(③조사전, ④조사후), 3호 수혈(⑤조사후, ⑥남북토층), 4호 수혈(⑦조사전, ⑧조사후, 216출토유물)	84-304
도판 63.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1	84-305
도판 64.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2(219), 5호 수혈(①조사후, ②남북토층), 6호 수혈(③조사전, ④조사후), 7호 수혈(⑤조사전, ⑥세부, ⑦조사후)	84-306
도판 65.	조선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220~223), 8호 수혈(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84-307
도판 66.	조선시대 8호 수혈 출토유물	84-308
도판 67.	시대미상 1호 구상유구(①조사후, ②동서토층), 제토 중 수습 유물(225~227)	84-309
도판 68.	학술자문회의(①~⑥), 유물선별회의(⑦), 고고지자기 시료채취(⑧)	84-310

I. 조사개요

우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5월 31일(실조사일수 70일)까지 양평 양수리 708-3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로 민원인(안기옥 님)이 추진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면적: 743㎡)에 해당한다.

해당지역은 양수리 유물산포지¹⁾에 포함¹⁾되어 있어서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양평군은 근린생활시설부지 공사 착공 전에 표본조사를 선행하라는 행정조치²⁾를 통보하였다.

민원인은 우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고 우리 연구원은 2014년 5월 18일부터 표본조사(면적: 900㎡)를 진행하였다. 표본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와 석축·무문토기 등이 확인되었고, 조사단은 유적이 확인된 범위(면적: 376㎡)에 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³⁾.

민원인은 발굴조사를 소규모 국비지원으로 실시하기 위해 2018년 11월 9일 한국문화재단에 국비지원을 신청하였다⁴⁾. 한국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의 발굴조사 일정과 표본-발굴조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대행조사 의뢰하였고⁵⁾,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 발굴허가(제2018-1635호;2018.12.27)를 얻어 2019년 1월 2일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3동과 조선시대 적심건물지 1동 등 모두 16기 이상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경계토층에서 유구선이 확인되었고 일부 유구는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조사지역 외곽으로 유구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사단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유적의 성격과 발굴범위의 확장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2019년 1월 10일에 학술자문위원회의⁶⁾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토층 단면에 주거지의 잔존 상태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지역 외곽으로 유구가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지역 전역(면적: 743㎡)에 걸쳐 전면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조사단은 발굴변경허가(발굴제도과- 2589;2019.3.7./확장면적: 367㎡)를 득하고 한국문화재단과 1차 변경계약⁷⁾을 체결한 후 사업범위 전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1동,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15동, 수혈유구 23기,

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 양평군청 新건축허가(기타) 접수번호(2018-4170000-0074934).

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소매점 신축부지 문화유적 표본조사 약보고서』.

4) 한국문화재단 2016-0711-01호(2018.11.09).

5) 한국문화재단 조사연구1팀-3309호(2018.12.18).

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9,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문화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발굴조사 현황자료-』.

7) 한국문화재단 조사기획팀(2019.3.13).

조선시대 적심건물지 1동 등 54기 이상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743㎡의 협소한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어 유구밀집도가 80%를 상회한다. 상기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유적의 성격파악과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학술자문위원회의를 지난 2019년 3월 21일에 개최하였다. 회의결과⁸⁾ ①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한 양수리 770-7번지 유적⁹⁾ 등과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단위취락 유적으로 판단되고 ②문화층은 청동기시대층-원삼국·삼국시대층-조선시대층의 3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유적의 중복과 중첩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후 발굴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조사단은 학술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번의 기간 연장¹⁰⁾을 받아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최종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4동·구상유구 1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18동·구상유구2기·수혈유구 21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수혈유구 8기,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 등 모두 6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가 사방으로 심하게 중복되어 있고 상하 중복과 교란으로 인한 훼손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는 잔존길이 15m, 잔존폭 7.8m, 깊이 2m의 대형 구상유구로,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한 춘천 중도 유적에서 확인된 환호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석촉·석부·석창·반달돌칼·방추차 등의 석기류와 공렬문토기·적색마연토기·경질무문토기용·장란형토기·합·뚜껍·백자·기와 등의 토도류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성격과 향후 처리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22일 학술자문위원회의를 개최¹¹⁾하였다. 최종 자문회의 결과, 조사지역에는 청동기시대 문화층, 원삼국~삼국시대 문화층, 조선시대 문화층의 3개 문화층이 존재하고 조사된 주거지의 상태와 구조가 주변 유적의 조사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학술자료를 남기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단에서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2019년 5월 31일에 모든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7월 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완료 조치¹²⁾를 통보 받았다.

8)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9, 「양평 양수리(70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자문위원 의견서」.

9) 한국문화재재단, 2016a, 「1. 양평 양수리 770-7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I -경기2-』.

10) 1차 연장 - 중 25일, 2차 연장 - 중 10일. 총 실조사일수 70일

11)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9,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제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12)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817(2019.7.2),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발굴 완료 조치(제2018-1635호)」.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문화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조사경위 및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14년 4월 : 조건부 허가(양평군 문화체육과)
 - 사업부지가 양수리 유물산포지5에 포함되기 때문에 착공전 표본조사 실시
- 2014년 5월 18일 :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표본조사 실시
- 2018년 5월 21일 : 건축허가 관련법 검토(양평군)
 - 표본조사 결과 청동기~삼국시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됨
 - 유구가 확인된 376㎡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실시
- 2018년 11월 9일 : 한국문화재단에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
 - 한국문화재단 2016-0711-01호
- 2018년 12월 18일 : 한국문화유산연구원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대행조사 의뢰
 - 한국문화재단 조사연구1팀-3309호
- 2018년 12월 27일 : 문화재청 발굴허가(제2018-1635호).
- 2019년 1월 2일 : 발굴조사 착수.
- 2019년 1월 10일 : 제1차 학술자문위원회의 개최.
 - 조사지역 외곽으로 유구가 확장.
 - 사업지역 전역(면적: 743㎡)에 걸쳐 전면발굴조사 필요.
- 2019년 1월 11일 : 동절기 중지.
- 2019년 2월 22일 : 발굴조사 재착수.
- 2019년 3월 7일 : 발굴변경허가(발굴제도과-2589;2019.3.7.(면적: 743㎡))
- 2019년 3월 13일 : 1차 변경계약(실조사일수 35일/증 20일).
- 2019년 3월 21일 : 제2차 학술자문위원회의 개최(발굴조사 기간연장 관련).
- 2019년 4월 12일 : 1차 기간연장(실조사일수 60일/증 25일)
- 2019년 5월 21일 : 2차 기간연장(실조사일수 70일/증 10일).
- 2019년 5월 22일 : 제3차 학술자문위원회의 개최.
- 2019년 5월 31일 : 현장조사 완료.
- 2019년 7월 2일 : 발굴 완료 조치(발굴제도과-7817).

이번 양평 양수리 708-3번지 문화유적 발굴조사의 조사단구성은 다음과 같다.

- 자 문 위 원 :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장)
 - : 하문식(연세대학교 교수)
 - : 박준범(서울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 :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 박경신(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연구사)
- 조 사 단 장 :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현남주(한국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 조 사 원 : 이동훈(한국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 : 도병현(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 김성수(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 박성권(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김나운(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이현오(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 김우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는 현남주의 총괄하에 이동훈이 현장조사와 실무를 책임지고 진행하였으며 유구 조사 및 사진 촬영을 비롯한 일련의 작업은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분담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탁본·실측·도면 일러스트 작업은 송윤정(前한국문화유산연구원 유물정리 팀장)의 책임 하에 김나운과 김지은(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이 담당하였고 유물사진은 이순희(시립 아카이브)가 담당하였다. 원고는 도병현의 책임 하에 I~II장 도병현, III장 도병현(조사내용 및 유구)·박성권(유구, 석기류)·송윤정(토도류), IV장 도병현이 작성하였으며 현남주가 수정·보완하였다.

유적의 고지형분석은 (주)라이프 프레임에서 진행하였고 유구의 고고지자기 분석은 성형미(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선생님께서 맡아주셨다. 유적의 입지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보고서 말미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번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 유적의 성격과 조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신 지현병·하문식·박준범·신희권·박경신 자문위원님과 유물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 박경신·이형원(한신대학교 박물관)·한지선(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평가위원님께 지면을 빌려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민원인 안기옥 님, 한국문화재단의 정훈진 팀장님·정홍선 부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¹³⁾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에 해당하고,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18'46"~127°51'02", 북위 37°21'33"~37°40'07"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양수섬이 남-북으로 길게 조성되었는데, 조사대상지는 양수섬 남쪽 끝부분의 평탄한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양평군은 경기도의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북쪽은 가평군 및 강원도 홍천군과 접해 있고, 서쪽은 한강을 사이에 둔 채 남양주시·광주시에 닿아 있고, 남쪽은 여주시와 인접되어 있고, 동쪽은 강원도 횡성군과 원주시가 연결되어 있다. 양평군의 전체면적은 887.69km²이다¹⁴⁾.

양평군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400m 이상의 산지를 중심으로 산간분지와 계곡지형산지·사면지형·구릉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평군의 서쪽에서 북동-남서로 뻗고 있는 용문산(1,157m)이 양평군 내에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고 그 산세가 사방으로 험한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산지들 사이에 형성된 평지는 대부분 침식분지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하천을 바탕으로 한 충적지와 범람원·하안단구 및 하중도 등의 하천지형이 주변 곳곳에서 발견된다.

양평군의 산세는 광주산맥의 큰 줄기인 용문산(1,157m)을 중심으로 북부에는 화야산(755m)·통방산(650m)·중미산(834m)·유명산(862m)·봉미산(856m)·갈기산(685m)·시루봉(504m) 등이 있고, 동부에는 금물산(780m)·성지봉(791m)·당산(541m) 등이 있다. 또한 남부에는 옥녀봉(419m)·고래산(543m)·우두산(480m)·파사산(231m)·양자산(710m) 등의 산들이 있다

양평군의 주요 하천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남한강은 남동쪽에서 서북방향으로 흘러가고 북한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두 강은 양평군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양수리(두물머리)에서 합수되어 팔당으로 흘러 서해로 들어간다. 남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하며, 총 길이는 375km이고 유역면적은 12,514km²이다. 남한강의 지천으로는 평창강·달천·섬강 등이 있다.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하며 총 길이는 317.5km이고 유역면적은 10,834km²이다. 북한강의 지천은 소양강·홍천강 등이 있다.

양평군을 통과하는 하천은 흑천(黑川)으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양평군 중심부를 따라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개군면 인덕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게 된다. 흑천의 총 길이는 37km로 유역면적은 282.55km²이며, 12개의 지류가 있다. 양평군에 분포하는 이러한 하천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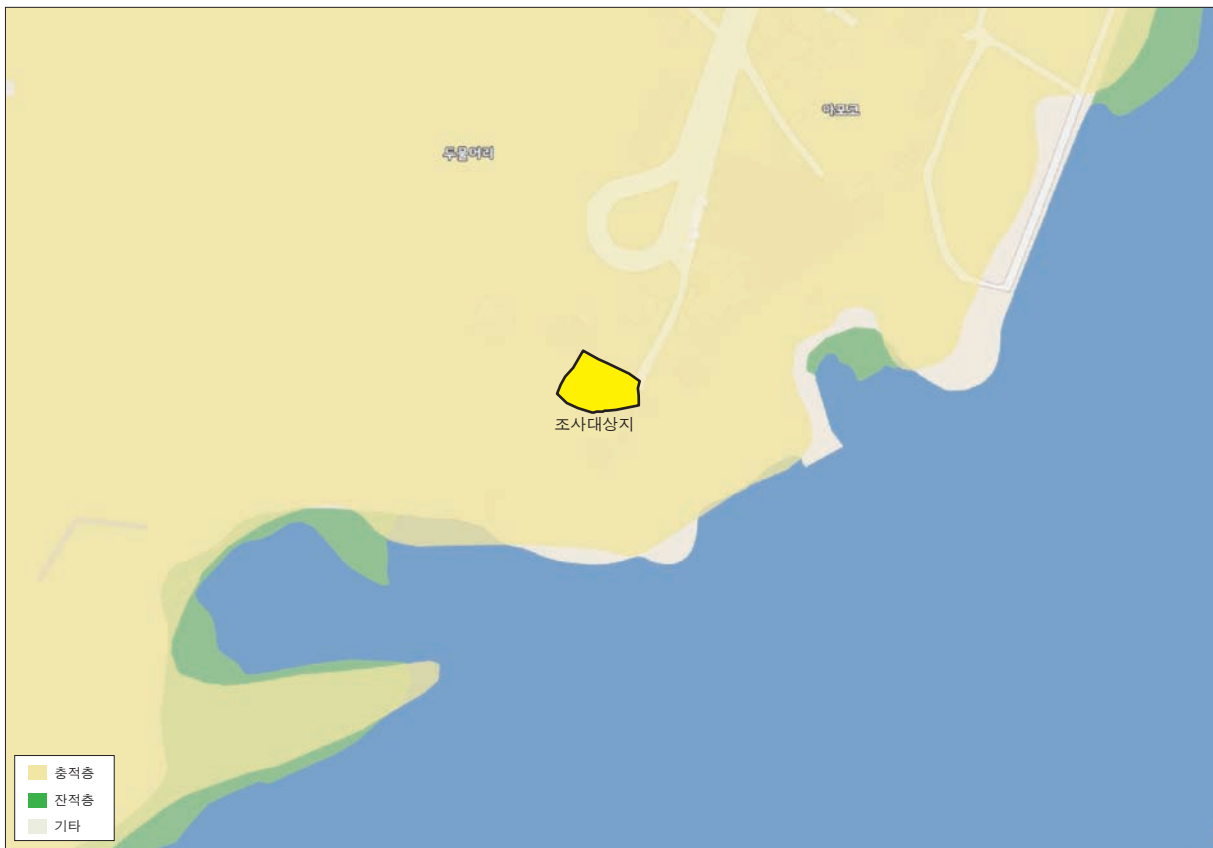
13) 楊平郡誌編纂委員會, 1991, 『楊平郡誌』.

祥明大學校 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楊平郡-』.

14) 양평군청 누리집(<http://www.yp21.go.kr>)-양평소개-



도면 1. 조사대상지 분포지형도(흙토람 참조, <http://soil.rda.go.kr/soil/index.jsp>)



도면 2. 조사대상지 퇴적양식도(흙토람 참조, <http://soil.rda.go.kr/soil/index.jsp>)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하천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강 하류부와 흑천 양안으로는 충적지가 발달했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은 산간지역에 발달한 곡저평야·하안단구·하중도(河中島) 등이 발달해 있다.

양평군의 지질은 한반도 중부지방과 비슷하여 경기육괴에 속하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복합체로 호상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양평읍 지역에는 시대가 명확하지 않은 화성복합체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넓은 분지가 발달해 있고, 하천 주변에는 신생대 제4기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층이 형성된 곳이 많다. 이러한 충적층에는 주변산지의 화강암·편암·편마암 등에서 유래된 자갈·모래·점토 등이 섞여 있다

토양은 크게 산악지(529,602,372㎡, 60.3%)·선상지/곡간지(140,624,781㎡, 16%)·저구릉지/구릉지(96,236,915㎡, 11%)로 분류되며, 이 외에 하천변·내륙평탄·홍적대지·산록경사지·용암류평탄·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평군의 기후는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징으로 대륙성기후를 띠고 있어서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높은 산지지형 및 산간분지 지형이 군 전체의 지형을 대표하고 있어서 겨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하다. 연평균기온은 10.2℃내외이며 1월 평균기온은 -4.5℃, 8월 평균기온은 24.8℃이고 연교차는 30.3℃이다.

양평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1,478.6mm로 여름철(6~8월)동안의 집중도가 64%로 하계에 강수가 집중된다. 특히 양평읍과 양수리 일대는 북한강 유역 댐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양평군은 북한강과 남한강의 중하류를 끼고 있어 강 주변으로 비옥한 충적토가 넓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용문산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 인간이 거주하기 적합한 곳으로 다수의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1970년대 팔당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유적들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이후에는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와 광역 문화유적 분포조사¹⁵⁾에 의해 그 면모가 밝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양평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및 경의중앙선 복선화 철도공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양평군의 고고학적 성과가 축적되었다.

(1) 구석기시대

15) 서울대학교博物館, 1998, 『北漢江流域의 先史文化 - 北漢江流域 地表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祥明대학교 博物館, 2006, 앞의 책.

양평일대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남한강 유역의 하안단구를 중심으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도곡리 유적¹⁶⁾, 병산리 유적¹⁷⁾, 전수리·양덕리 유적¹⁸⁾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도곡리 유적은 경의중앙선 복선전철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06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주먹도끼·찌개·찌르개·여러면석기를 비롯한 뎀석기가 출토되었다. 병산리 유적은 임진강·한탄강유역의 퇴적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연대측정과 몸돌·양면찌개·주먹도끼·긁개·밀개·톱니날·새기개·흙날·망치돌과 석핵 등의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중기~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회현리¹⁹⁾·병산리²⁰⁾·단석리²¹⁾·삼성리²²⁾·오빈리²³⁾·상자포리2유적²⁴⁾ 등에서 뎀석기가 수습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앞으로도 구석기시대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구석기시대의 하안단구 중심에서 강변의 충적대지나 얇은 구릉 정상부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이전 시대보다 한층 발달된 기술로 인간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양평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한강변의 충적지에서 확인된다. 먼저 지표조사를 통해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된 유적은 문호리 선사유적Ⅱ²⁵⁾·광탄리 유적²⁶⁾·양덕리 유적²⁷⁾ 등이 있는데, 이 유적들 가운데 양덕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다량의 빗살무늬토기가

16)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8, 『楊平 道谷里 舊石器 遺蹟』.

17)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2, 『楊平 屏山里 遺蹟』.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4, 『楊平 屏山里 遺蹟2』.

18) 연세대학교, 1974, 『양평군 양근리지역·양덕리지역 유적발굴보고』, 『八堂·昭陽댐 水沒地區 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 서울大學校博物館, 1997, 『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 -南漢江流域 地表調查報告書-』.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4, 『양평 양덕리 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3)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24) 國立中央博物館, 1974, 『楊平郡 上紫浦里 支石墓(石棺墓) 發掘報告』, 『八堂·昭陽댐 水沒地區 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檀國大學校, 1974, 『楊平郡 上紫浦里 支石墓群 發掘報告』, 『八堂·昭陽댐 水沒地區 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2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27) 서울大學校博物館, 1997, 앞의 책.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4, 앞의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출토되었다. 이밖에 아신리 유적²⁸⁾에서 장방형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와 빗살무늬토기편·격지·석재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신석기시대의 강안 중심의 입지에서 구릉 정상부로 입지 양상이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평군 일대는 강변을 따라 청동기시대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강과 하천 주변으로 생활유적·분묘유적·유물산포지 등이 확인되어 양평 일대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하천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유적으로는 삼성리 유적²⁹⁾·양수리 유적³⁰⁾·양덕리 유적³¹⁾ 등이 있는데 삼성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대심리 지석묘³²⁾·수릉리 지석묘·양덕리 지석묘·회현리 지석묘·대석리 지석묘·전수리 지석묘·오빈리 유적Ⅱ³³⁾·정배리 추정 고인돌군³⁴⁾·서후리 추정 고인돌군³⁵⁾·병산리 지석묘군³⁶⁾ 등이 있다. 유물산포지로는 쌍학리 유물산포지1·2³⁷⁾, 마룡리 유물산포지, 하자포리 유물산포지1·2, 교평리 유물산포지1³⁸⁾·2³⁹⁾, 양근리 유물산포지⁴⁰⁾, 정배리 유물산포지⁴¹⁾, 송현리 유물산포지1⁴²⁾, 지평리 유물산포지⁴³⁾ 등이 있다. 양평군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는 대부분 강변의 자연제방 상면에 위치하며 탁자식, 무덤방을 땅속에 마련한 기반식, 하부구조에 토광으로 매장시설을 갖춘 개석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확인된다. 이밖에 지표상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만 수습된 유적으로는 양근리 선사유적⁴⁴⁾·오빈리 선사유적·교평리 선사유적·운심리 선사유적·전수리

2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구간(3공구) 내 유적』.

29) (財)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楊平 三星里遺蹟』.

30) 한국문화재재단, 2016a, 앞의 책.

한국문화재재단, 2016b, 「2. 양평 양수리 1171번지 외 2필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I-경기2-』.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a, 『양평 양수리 유적 I』.

서해문화재연구원, 2017, 『양평 양수리 유적 II』.

3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4, 앞의 책.

32)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7, 『양평 대석리 지석묘군 시굴조사 보고서』.

33) 경기대학교박물관, 2004, 『평택 남부지역 문화유적』.

34)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35)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36) 國立中央博物館, 1980, 『中島』進展報告 I.

37)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38) 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앞의 책.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4, 앞의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3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40)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41)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42)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43)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44)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선사유적 · 양수리 선사유적 I ~ III · 문호리 선사유적 I · 광탄리 선사유적1 · 양덕리 선사유적 · 상자포리 선사유적 I ~ II 등이 있다⁴⁵⁾.

(4)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문호리 · 양수리 · 양근리 · 오빈리 · 병산리 · 교평리 · 양덕리 · 하자포리 · 상자포리 · 대심리 · 상석정마을 유적등이 있다. 이중 대심리 유적⁴⁶⁾에서는 장대형의 주조철부류와 도자류가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 슬래그가 다량 수습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양평일대가 철 생산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추가로 확인된 유적이 없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⁴⁷⁾. 특히 양덕리 유적⁴⁸⁾에서는 지식묘 조사 과정 중 빗살무늬토기편과 중도식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가 수습되었다. 시대별로 유물이 수습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양평일대의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문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양수섬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석정마을 유적⁴⁹⁾에서는 모두 23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계 · 타원형 ·凸자형 등으로 확인되었다. 노시설은 무시설식노(뒷막음돌)와 외줄구들이 사용되었다.

유물은 중도식무문토기 · 타날문토기와 더불어 한식동곳 · 철경동촉 · 철도자 · 철부 · 철촉 · 철검 · 주조철부 등이 출토되었다. 양수리 770-7번지 유적⁵⁰⁾에서는 총 12기의 주거지와 32기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凸자형으로 나타나고 장축방향은 남동 방향이다. 노시설은 무시설식노지만 조사되었다. 유물은 중도식무문토기(외반구연용 · 내반구연용 · 발 · 시루)와 타날문토기(단경호 · 장란형토기 · 심발형토기 · 시루 · 대웅)등의 토기류와 송풍관, 슬래그 등이 출토되었다.

양수리 1171번지 외 2필지 유적⁵¹⁾에서는 주거지 3동과 수혈유구 6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凸자형이며 주실의 형태는 육각형이다. 노시설은 ‘—’자형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중도식무문토기 · 타날문토기(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 직구호 · 착두형철촉 · 무경식철촉 · 과판 · 꺾쇠 등이 출토되었는데, 중도식무문토기는 타날문토기에 비해 출토 비중이 낮다.

한편 조사지역의 북쪽에도 소규모의 원삼국시대 유적이 조사되었다. 양평 양수리 770-7번지

4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46) 연세대학교, 1974, 앞의 책.

47)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48) 연세대학교, 1974, 앞의 책.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9, 「64. 양평 양덕리 50-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한국문화재단

49) 成均館大學校博物館, 2008,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 보고서(철기시대 전기편)』.

50) 한국문화재단, 2016a, 앞의 책.

51) 한국문화재단, 2016b, 앞의 책.

유적⁵²⁾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과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지 15동 등 모두 5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유구간의 중복이 매우 심해서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내부에서 2기의 노지와 함께 석검편·석창·석촉 등의 석기류와 공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지는 남동쪽에 출입구가 위치한凸자형 주거지로 주거부가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구분된다. 주거부가 오각형인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들이 출토되고 주거부가 육각형인 주거지에서는 한성백제기의 호류와 시루, 타날문토기가 출토되기 때문에 주거부의 차이는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평 양수리 756-5번지 유적⁵³⁾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지 2동·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석검·석창·무문토기·적색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원삼국~한성백제기 주거지와 구상유구에서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철검 등이 출토되었다. 양평 양수리(784-3번지)농업용창고부지 내 유적⁵⁴⁾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원삼국~백제 주거지 2동, 조선시대 수혈 6기가 조사되었다.

(5)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삼국이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였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관방유적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주거유적·분묘유적·불교유적 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양평지역에서는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백제의 생활유적이나 신라 고분 및 산성 등이 조사되었다.

신라유적은 관방유적과 생활유적 및 고분유적이 확인된다. 관방유적으로는 신원리 성지⁵⁵⁾와 파사성⁵⁶⁾이 대표적이고, 생활유적으로는 양수리·양근리·오빈리·병산리·상자포리·상석정마을 유적 등이 있다. 생활유적은 광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보고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유적의 성격과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⁵⁷⁾에서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0기와 수혈유구 5기가 확인되었고 유적 인근에 파사성이 위치해 있어 이와 관련성이 검토되고 있다. 고분유적으로는 최근 조사가 진행된 대평리 2호분⁵⁸⁾이 대표적이며, 이외 쌍학리 고분군·망미리 고분군 1·2, 옥현리 고분·마령리 고분 등이 있다⁵⁹⁾. 이외에도 조사지역을 포함한 양평 및 남한강 일대에 이 시기 고분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향후 남한강 유역의 (통일)신라 진출 및 점유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한국문화재단, 2016a, 앞의 책.

53)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b, 「양평 양수리 756-5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인천·경기1』, 한국문화재단

54) 수도문화연구원, 2020, 「양평 양수리(784-3번지) 농업용창고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5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5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57)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X』.

58) (財)中部考古學研究所, 2015, 『楊平 大坪里 2號墳』.

5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6)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불교유적·관방유적·생활유적·분묘유적이 조사되었다. 불교유적은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보물 제53호)·지평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0호)·용천리 삼층석탑(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1호)·상완자 철조여래좌상(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9호)·옥천리 삼층석탑(양평군 향토유적 제33호)등과 보리지사·운필암사지·청계리사지·향소리사지 등의 사지가 남아있다. 관방유적으로는 함왕성지(경기도 기념물 제123호)가 있는데 1999년 시굴조사⁶⁰⁾결과 고려시대 후기의 포곡식 석축산성으로 밝혀졌다. 생활유적으로는 오빈리 유적 1·3⁶¹⁾에서 고려시대 건물지 19기가 조사되었고 상석정마을 유적⁶²⁾에서는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13기가 조사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계정리 고분군⁶³⁾에서 고려시대 분묘가 확인되었고 병산리 유적⁶⁴⁾에서는 조선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다. 생산유적으로는 부안리 요지, 금왕리 요지, 계정리 요지1~4, 단석리 요지, 일신리 요지 1·2, 옥현리 야철지 1·2, 신점리 와요지 등을 꼽을 수 있다⁶⁵⁾. 이를 통해서 양평지역은 고려~조선시대에 도자기류와 기와, 철 등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신점리 유물산포지 1·2⁶⁶⁾, 단석리 유물산포지, 송현리 유물산포지 2·3, 광탄리 유물산포지 1⁶⁷⁾, 백안리 유물산포지, 병산리 유물산포지 2·3⁶⁸⁾, 병산리 유물산포지 4·6, 전수리 유물산포지, 양수리 유물산포지 2, 갈운리 유물산포지⁶⁹⁾ 등이 있다.

60) 수원대학교박물관, 1999, 『양평 함왕성지 -지표 및 시굴조사 보고서-』.

61) 경기대학교박물관, 2004, 앞의 책.

62) 成均館大學校博物館, 2006,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상석정마을 발굴조사 보고서(고려·조선시대)』.

63)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64)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양평 병산리 산 8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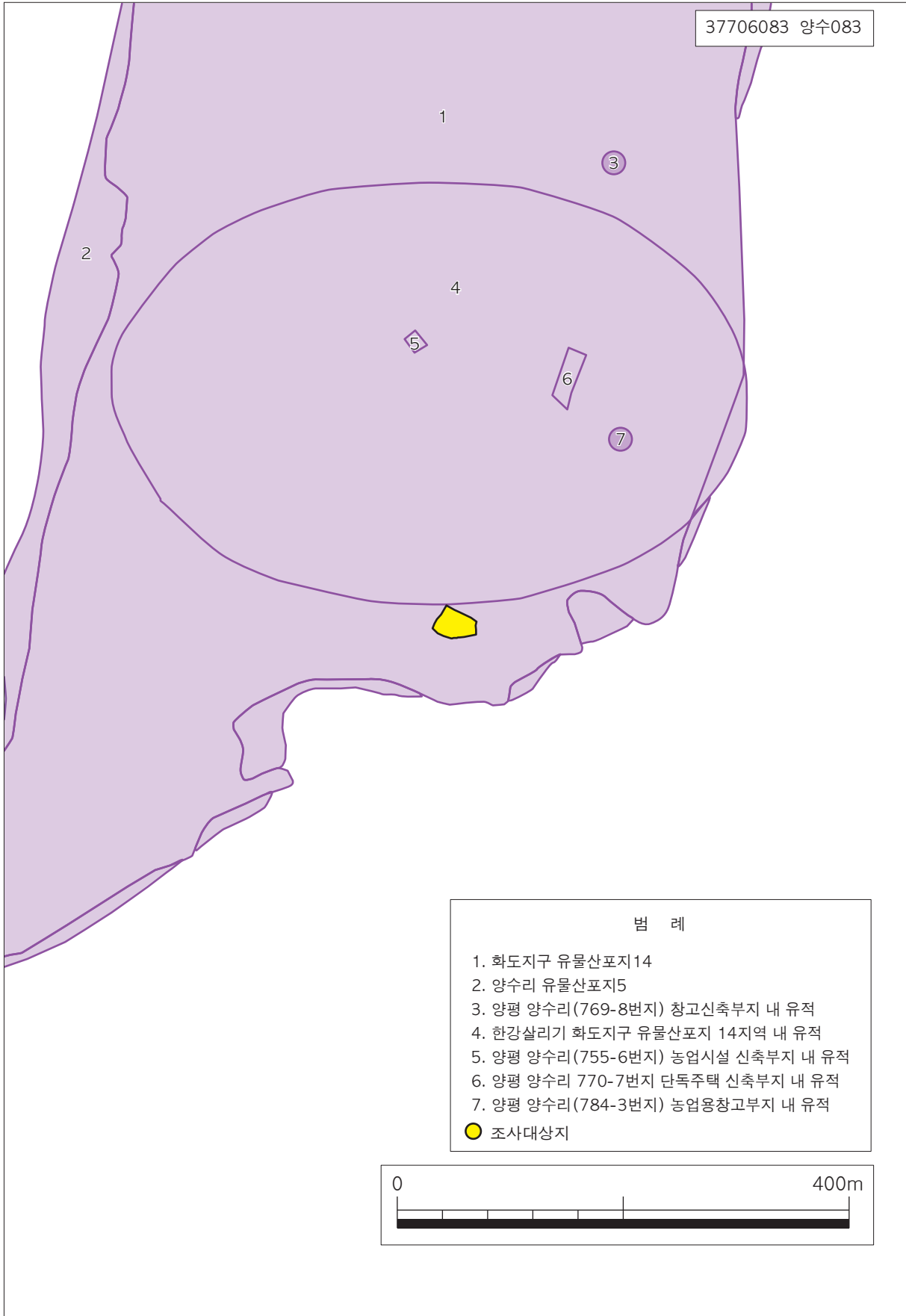
65)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6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6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6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고속도로 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제3공구) 대안설계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69) 祥明大學校博物館, 2006, 앞의 책.



도면 4.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표 1】 발굴조사 대상지 주변 유적 현황(【도면 4】참조)

번호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화도지구 유물산포지14	-	청동기~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겨레문화재연구원, 2009, 『4대강 살리기 한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강2권역 화도·양평지구-』.	
2	양수리 유물산포지5	-	청동기시대 고인돌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	양평 양수리(769-8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416m	삼국시대 생활유적	한국문화재단, 2019, 「12. 양평 양수리 769-8번지 유적」,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2』.	
4	한강살리기 화도지구 유물산포지 14지역 내 유적	인접	미상	겨레문화재연구원, 2011,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구간 내 양평 화도지구 유물 산포지14발굴(표본시굴) 조사 결과서』.	
5	양평 양수리 (756-5번지) 농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237m	청동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서해문화유산연구원, 2018, 「3. 양평 양수리 756-5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 - 인천경기1-』, 한국문화재단.	
6	양평 양수리 770-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북쪽 203m	청동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한국문화재단, 2016, 「1. 양평 양수리 770-7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2-경기2-』.	
7	양평 양수리(784-3번지) 농업창고용지 내 유적	북쪽 202m	청동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수도문물연구원, 2020, 양평 양수리(784-3번지) 농업용창고부지 내 유적(국비)』.	

2) 역사적 배경

양평지역은 고대사회 전개과정에서 마한 영역에 속하였다가 삼국의 정립과정에서 한성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마한 54국 중 양평지역에 있었던 소국을 일화국(日華國)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⁷⁰⁾ 근거는 미약하다. 또한 양평지역은 한강 주변을 제외하고는 넓은 평야를 찾아보기 어려워 농업생산성에 한계가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들 집단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평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의 양상을 보았을 때, 이 시기에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70) 천관우, 1993,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마한에서 백제가 성장하여 주위의 크고 작은 집단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양평지역도 자연스럽게 백제의 세력권 아래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

한강유역의 정세에 대한 기록은 『史記』朝鮮列傳 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기원전 2세기 말 위만조선이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그 유이민 집단이 진국(辰國) 지역으로 유입되고⁷¹⁾, 이 시기에 마한 세력도 경기도 지역으로 진출하므로 이 두 세력에 의해 한강유역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세기 중엽에 이르면 한강유역에는 마한연맹체에 속한 10여 개의 소국이 존재하다가 점차 백제가 세력을 확장하여 한강유역에 맹주권을 장악하였다. 백제는 3세기 후반 고이왕 때 예성강, 안성천, 서해, 춘천 지역 등을 장악하여 마한의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고대 왕국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근초고왕대에는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고구려에 큰 위협을 주었고, 멀리 왜와 산둥반도까지 진출하는 전성기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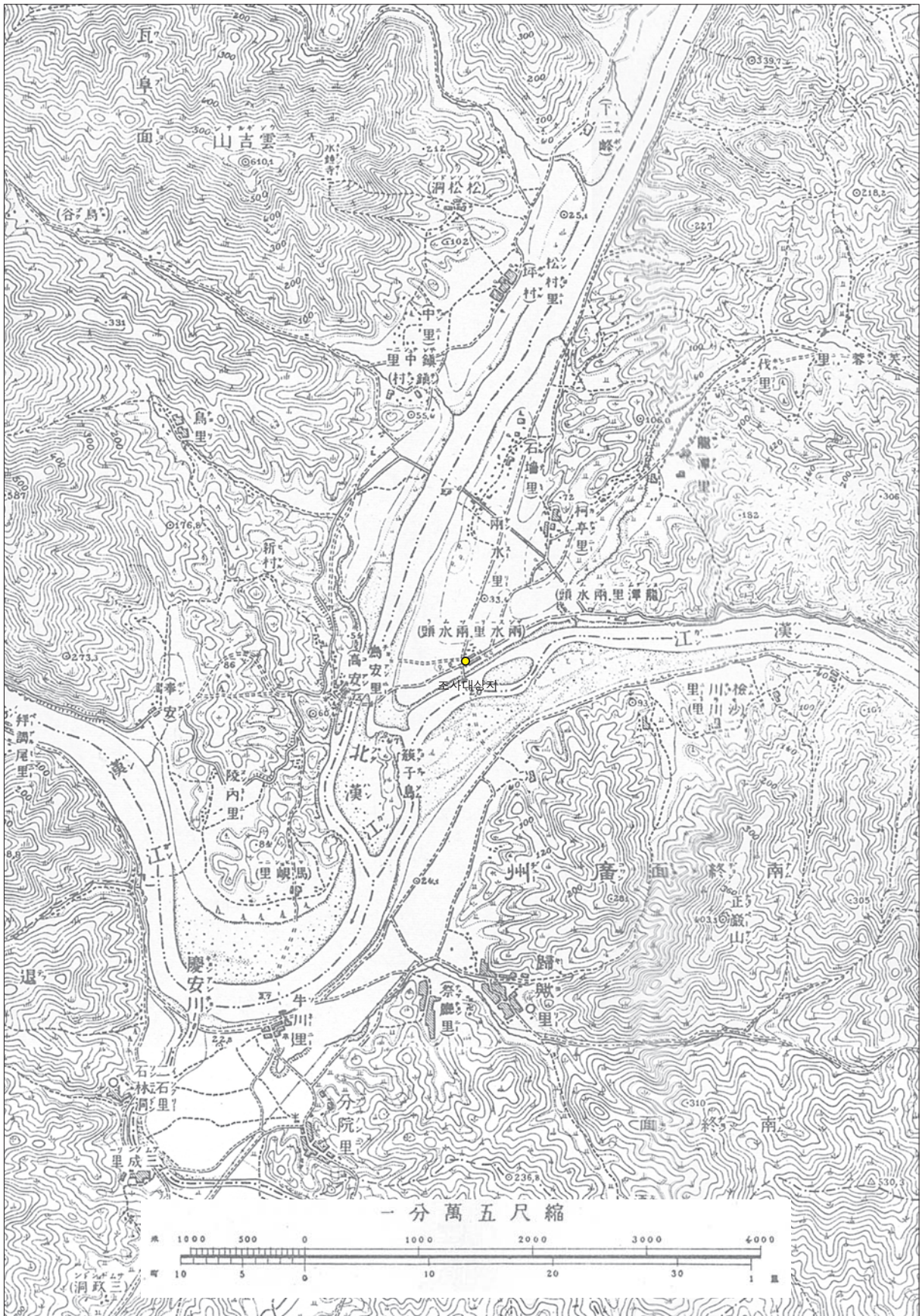
양평지역에 대한 최초의 문헌기록은 『三國史記』地理志 에서 확인된다. 양평은 양근과 지평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지역으로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양근은 고구려의 양근군(楊根郡) 또는 항양(恒陽)이었으며, 지평은 고구려 지현현(砥峴縣)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이 고구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데, 이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진흥왕 12년(551)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의 10개 군을 빼앗고, 진흥왕 14년(553)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지역을 탈취한 이후 한강유역은 신라의 세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신라는 새로 확장된 지역의 지배를 위하여 곳곳에 견고한 산성을 구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이때 양평지역도 신주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는 진흥왕 18년(557)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으며 진흥왕 29년(568)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설치하였고 진평왕 41년(619)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환치하였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 대에 양근군을 빈양현(濱陽縣)으로 개명하여 기천군(沂川郡)의 영현으로 하였고, 지현현(砥峴縣)은 지평현(砥平縣)으로 개칭하여 삭주(朔州)의 영현으로 하였다. 진성여왕 3년(889)에는 궁예가 양평지역을 공략하여 활동무대로 삼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호족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성종 2년(983)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양근현과 지평현은 광주목에 속하였다. 현종 9년(1018)에는 5도 양계를 중심으로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양근현과 지평현은 천녕군·이천군·죽주군·과주군·용구현 등과 함께 양광도 광주목에 속하게 되었다. 명종 5년(1175)에는 양근현에 최초로 감무가 파견되어 간접적으로나마 중앙정부의 통제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양근현은 공신과 왕사가 배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읍호승강이 잦았다. 고종 44년(1257) 양근현을 영화(永化)라고도 불렀고, 원종 10년(1269)에는 위사공신 김자정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익화현령(益和縣令)으로 승격시켰으며 공민왕 5년(1356)에는 왕사 보우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양근군으로 승격시켰다. 같은 해 양근에 속해있던 미원장의 소설암에 보우가 거주했다는 이유로

71) 『史記』卷一百一十五, 朝鮮列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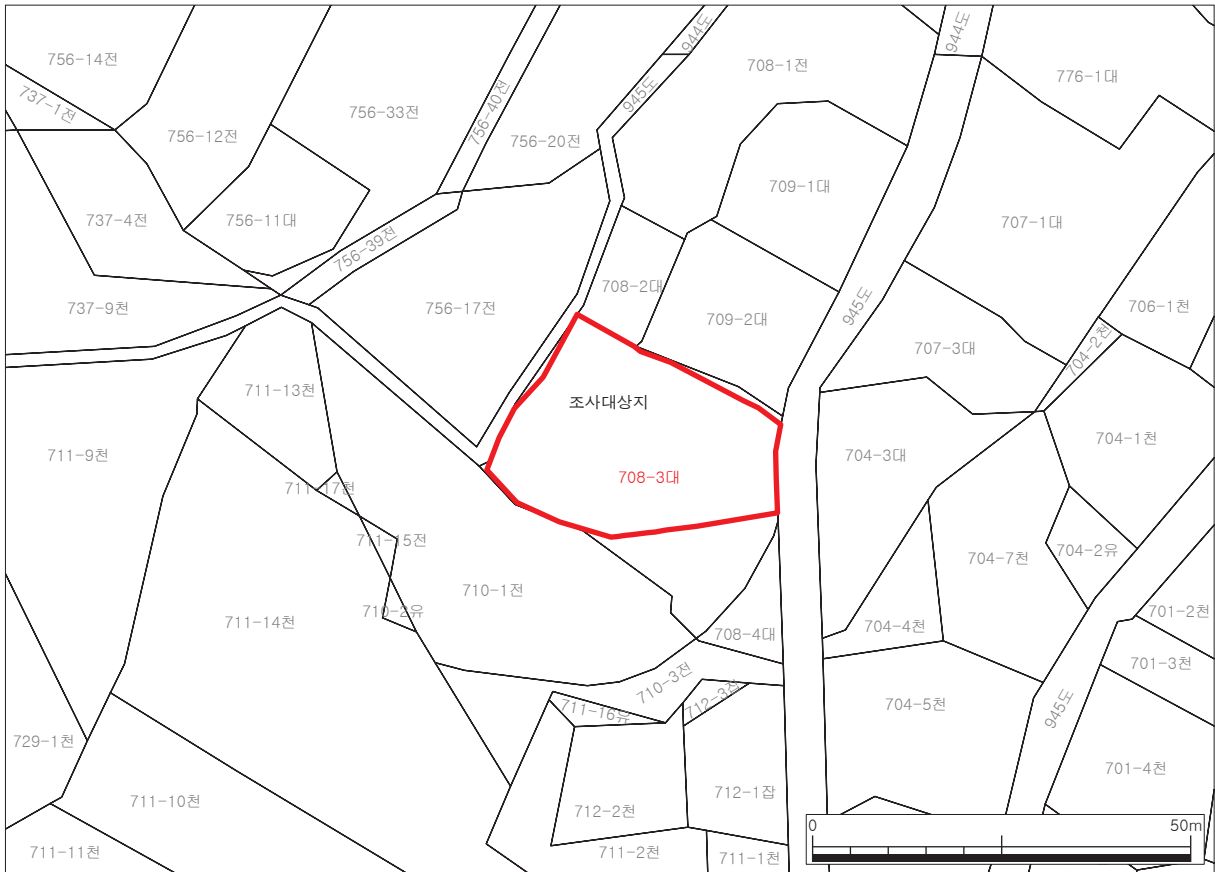


도면 5. 조사대상지 근대지형도(1:50,000)

미원장을 미원현으로 승격시켜 감무를 두었으나 땅이 비좁고 인가가 드물어 얼마 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켰다. 지평현의 경우도 고려 말기인 우왕 4년(1378)에 우왕의 유모 장씨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감무를 두었다가 우왕 14년(1388)에 혁파되었다. 공양왕 3년(1391)에는 지평현의 경내에 철장을 두고 감무를 설치하여 겸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양평지역은 군·현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태조 4년(1395) 양근군과 지평현은 경기도 광주목에 속하게 되는데 기존의 양광도가 경기도로 바뀌었을 뿐 양근과 지평은 그대로 광주목에 속하였다. 태종 13년(1413)에는 지평현에 현감을 파견하였다. 효종 9년(1658) '강상의 변'으로 양근군을 없애고 지평현에 합쳤다가 현종 9년(1668) 다시 양근군을 설치하였다. 숙종 11년(1685)에는 강상의 죄인을 낳았다는 이유로 지평현을 폐지하여 양근군에 귀속시키기도 하였고, 영조 4년(1728)에는 양근군을 현으로 강등하였다가 영조 17년(1741) 다시 군으로 승격하였다. 정조 즉위년(1776)에는 양근군을 양근현으로 강등하였다가 정조 9년(1785)에 다시 군으로 승격하였다. 고종 2년(1865)에 발간된 『大典會通』에 의하면 양근은 군으로, 지평은 현감이 관할하는 현으로 편제되었다. 고종 32년(1895)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때 양근군과 지평현은 춘추부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3도제로 행정구역이 재편됨에 따라 양근군과 지평현은 다시 경기도에 예속되었다.

1908년 9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여 양평군이 되었다. 1914년 3월에 남종면이 광주군에, 1942년 4월에 설악면이 가평군에 이속되었다. 1963년 1월 여주군 관할 개군면이 새롭게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73년 7월에는 서종면의 삼회리와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1979년 5월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2006년 12월 지제면이 지평면으로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도면 6.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표본조사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수지점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해당한다.(도면 1,2 참조) 조사대상지의 동쪽에는 ‘두물머리길’이라는 도로가 연결해 있고 남쪽으로 약 60m 이격된 곳에는 ‘두물머리 나루터’가 위치한다. 조사대상지 주변에는 소규모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민가 등이 위치하고 북동쪽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시설과 상가건물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는 양수리 유물산포지5에 포함⁷²⁾되고 주변에 양수리 1171번지 외 2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⁷³⁾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조사지역은 콘크리트 가옥이 있던 곳으로 표본조사는 주변지형과 가옥의 콘크리트 구물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표본 Tr.은 문화층이나 유구가 확인되는 선까지 하강하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반토까지 하강하여 유구의 존재여부와 전체 층위를 파악하였다.

표본Tr.은 모두 3개를 설치했다. Tr.3의 교란층 하부에서 미완성 석기가 포함된 암갈색 사질토층(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암갈색 사질토층 하부의 명황색 사질토층에서는 수혈유구와 석축,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층위양상과 출토유물을 고려하면 조사지역에는 청동기~원삼국시대의 유적이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소매점 신축부지 문화유적 표본조사 결과표

번호	층위양상	조사내용
표본Tr.1	표토-갈색 사질토층-황색 사질토층-암갈색 사질토층(교란층)-갈색 사질토층-명황색 사질토층(기반층)	-
표본Tr.2	표토-갈색 사질토층-암갈색 사질토층(교란층)-갈색 사질토층-명황색 사질토층(기반층)	-
표본Tr.3	표토-암갈색 사질토층(교란층)-암갈색 사질토층(문화층)-명황색 사질토층(기반층)	수혈유구 5기

7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앞의 책.

73) 한국문화재단, 2016b, 앞의 책.



도면 7. 표본조사 Tr. 배치도(1:500)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표본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범위와 조사대상지 외곽으로 유구가 연장됨에 따라 발굴조사가 확장된 범위에 대해서 진행되었다⁷⁴⁾.

조사지역은 현대 가옥의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 및 쓰레기 구덩이 등에 의해 상부의 교란이 매우 심한 곳으로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구는 잔존 깊이가 얇은 편이다. 유구의 중복이 심하고 확인된 유구의 대부분이 조사지역 경계와 맞물려 있어서 조사지역 주변으로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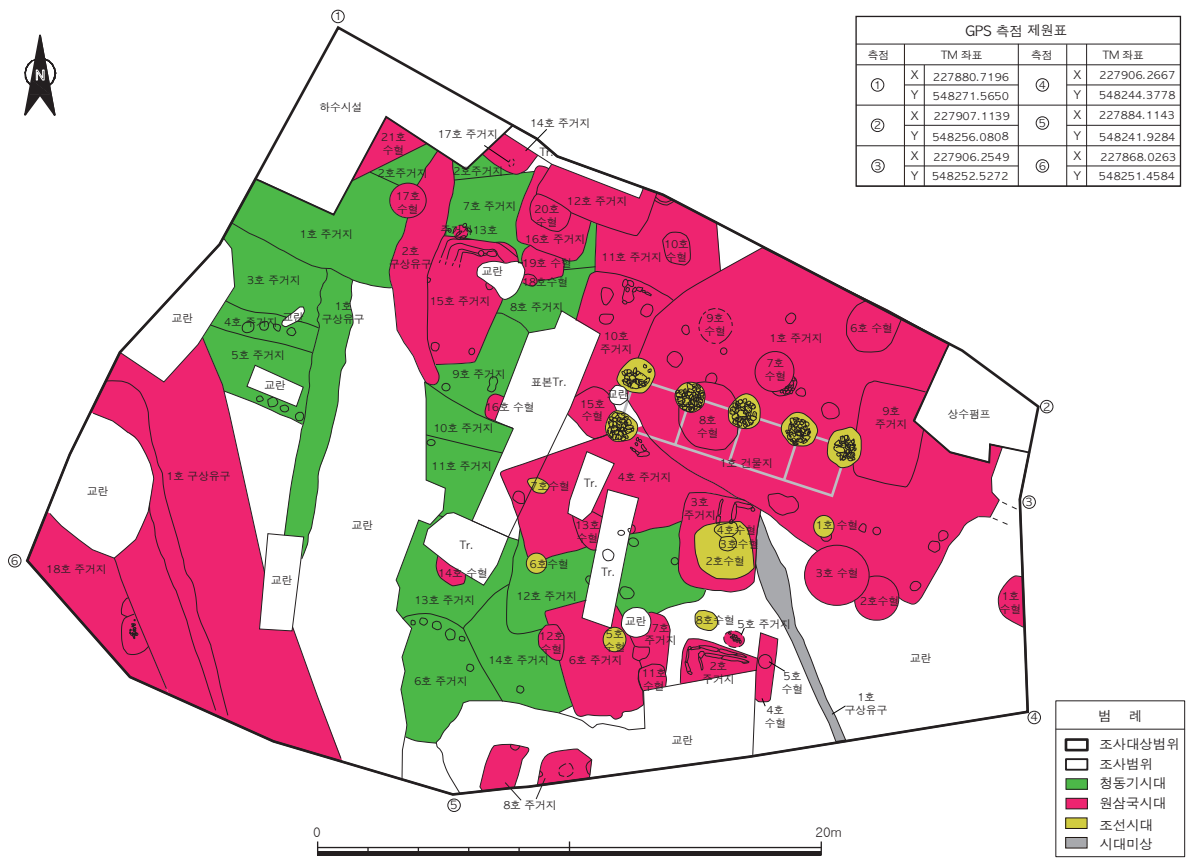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양상은 북쪽경계면에 확인할 수 있다. 크게 표토 및 교란층-문화층-기반층으로 구분되고, 문화층은 청동기시대·원삼국~삼국시대 문화층과 조선시대 문화층으로 세분된다. 조선시대 문화층은 상부 교란으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어 조사지역의 북쪽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자가 매우 굵고 거칠며 다량의 굵은 사립이 혼입되었다.

74) 발굴조사범위:743㎡

- 유구가 확인된 범위:376㎡, 확장된 범위:367㎡

【표 3】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도

토층사진		내용	
	1층	-	표토 및 교란 (두께 약40cm)
	2층	회갈색 사질토층	조선시대 문화층 (지표하 40cm)
	3층	암갈색 사질토층	청동기시대 문화층 원삼국~삼국 문화층 (지표하 80cm 이상)



도면 8. 발굴조사 유구배치도(1:300)

청동기·원삼국 문화층에서는 유수 및 침수로 인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퇴적물이 확인되고,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지 유구가 심하게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구와 원삼국~삼국시대의 유구가 동일층에서 확인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조사지역 주변에 위치한 유적⁷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인접하고 있는 남한강의 영향으로 인해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부분적으로 유실된 이후 원삼국~삼국시대의 유구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도면 9.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1:300)

75)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b, 앞의 책.
한국문화재재단, 2016a, 앞의 책.
한국문화재재단, 2016b, 앞의 책.
수도문물연구원, 2020, 앞의 책.

1)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과 서쪽 경계를 중심으로 중앙에 밀집해서 분포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동일층에 원삼국~삼국시대 유구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주거지는 심하게 파괴되었고 잔존깊이도 매우 얇은 편이다.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0, 도판4)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북서쪽 경계에 걸쳐 있고 해발은 27.7~27.8m이다. 주거지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7호·21호 수혈이 중복되어 있고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와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와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1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2호·3호 주거지 및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보다 후축되었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동쪽 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와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고 북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21호 수혈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장축방향은 N-65°-W이고 규모는 길이 574cm, 폭 346cm, 깊이 80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15개가 확인되었다. 명갈색·암갈색·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소량의 목탄편이 고르게 혼입되었고 하부로 갈수록 색조가 어두워진다. 침수 및 유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내부토의 퇴적양상과 주거지 내부상태를 볼 때 폐기된 이후 자연매몰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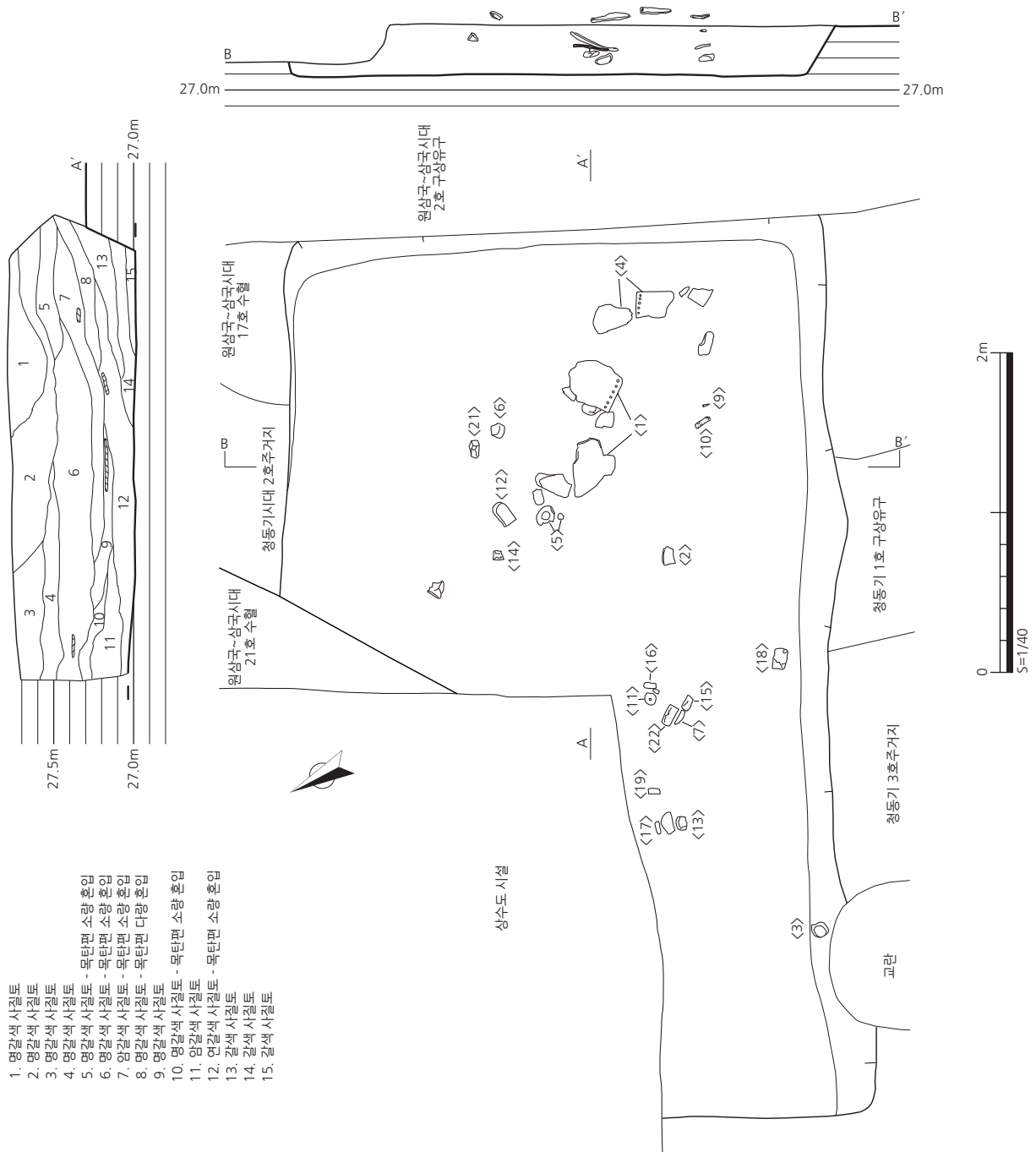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의 북서쪽이 조사지역 경계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거지 북서쪽 부분에 노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바닥부분이 단단한 편이고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굴착면을 그대로 바닥으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대체로 중앙부를 기점으로 동쪽에 주로 산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기류는 공열문토기를 비롯하여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석기류는 석부·석촉·방추차와 석기제작을 위한 석재류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공열문토기(도면 11-1, 도판 5-1)

심발형토기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구경에 비해서 기고가 높으며 동체부 측면은 극히 완만한 호형으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구연부를 향해 사방향으로 살짝 벌어진다. 동체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지며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1.5cm



도면 10.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아래 동체부 외면에는 직경 0.5cm 정도의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다. 투공방향은 외면에서 내면을 향한다. 구연 직하부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의 산화 박락 정도가 중하다. 색조는 외면 탁한 황등색(10YR 6/3), 내면 탁한 황등색(10YR 6/4), 속심 암회황색(2.5Y 5/2)이다.

잔존높이: 33.1cm, 구경: 32.2cm, 두께: 0.7~0.9cm

2. 공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1-2, 도판 5-2)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부에서부터 약 2cm 아래 동체부 외면에는 직경 0.55cm의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형성되었다. 투공방향은 외면에서 내면을 향한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구(목판) 조정 흔적과 약한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황회색(2.5Y 5/1), 내면 탁한 등색(7.5YR 6/4), 속심 회적색(2.5YR 6/2)이다.

잔존높이: 11.8cm, 잔존너비: 9.3cm, 두께: 0.6~1.1cm

3. 적색마연토기 저부편(도면 11-3, 도판 5-3)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벌어지고 저부는 높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내·외면 모두 적색의 안료가 도포되었으나 상당 부분 박락된 상태이다.

내면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생긴 초본류로 추정되는 찰흔과 목판으로 추정되는 직상의 도구 선단부 압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5/2), 탁한 등색(5YR 6/4), 내면 탁한 황등색(10YR 7/4), 탁한 등색(5YR 6/4) 속심 탁한 황등색(10YR 6/3)이다.

잔존높이: 8.1cm, 저경: 8.3cm, 두께: 0.7~2.7cm

4. 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1-4, 도판 5-4)

대형의 용기로서 동체 부분이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색조는 외면 탁한 황등색(10YR 7/3), 내면 탁한 황등색(10YR 7/3), 속심 암회황색(2.5Y 5/2)이다.

잔존길이: 26.1cm, 잔존너비: 33.7cm, 두께: 0.8~1.1cm

5.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2-5, 도판 5-5)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긴 직상의 도구(목판) 선단부 압흔이 형성되었다. 저부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횡방향으로 연속된다. 외저면에는 생성원인이 불분명한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내면 탁한 등색(7.5YR 6/4), 회황색(2.5Y 6/2), 속심 탁한 황등색(10YR 6/3)이다.

잔존높이: 7.75cm, 저경: 8.7cm, 두께: 0.8~2.2cm

6.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2-6, 도판 5-6)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아래에서부터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며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은 종방향으로 긴 직상의 도구(목판)에 눌러 다각의 면이 형성되었다. 내면에도 도구(목판)로 조정된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5/3), 내면 탁한 황등색(10YR 6/3), 속심 암회황색(2.5Y 5/2)이다.

잔존높이: 5.2cm, 복원저경: 8.0cm, 두께: 0.8~2.1cm

7. 주상편인석부(도면 12-7, 도판 6-7)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신부 일부에서는 쪼아떼기한 후에 마연한 흔적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사방향에서 정마하여 기형을 형성하였다. 후면은 약한 곡선상을 띠며 인부로 이어지고, 인부는 편평한 전면과 둔각상으로 각이 지게 형성되었다. 두부는 비교적 둥근 형태를 띠며, 신부의 횡단면은 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길이: 13.3cm, 너비: 3cm, 두께: 2.1cm, 무게: 152g.

8. 무경식 석촉(도면 12-8, 도판 5-8)

주거지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암질은 천매암 계통이며, 촉두와 기부 일대 및 신부 측면의 일부가 결손이 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여 기형을 형성하였고, 양쪽 측면을 사방향으로 정마하여 인부를 형성을 하였다. 잔존상태로 볼 때 무경식으로 판단되며, 신부의 횡단면은 편육각형이다.

길이: 3.2cm, 너비: 1.2cm, 두께: 0.3cm, 무게: 1.4g.

9. 유경식 석촉(도면 12-9, 도판 5-9)

암질은 세일 계통이며, 신부를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다소 거칠게 마연하여 기형을 형성하였다. 촉두 및 신부를 재차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하여 다소 날카롭게 다듬었다. 신부와 경부의 경계는 직각 혹은 직각에 가까운 둔각으로 단차를 두었다. 등날의 능선은 봉부에서부터 직선으로 신부의 하단부까지 이어지다 경부를 형성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여 편평하게 처리되어 \wedge 상으로 벌어진다. 횡단면은 신부는 타원형, 경부는 장방형이다.

길이: 7.0cm, 너비: 1.7cm, 두께: 0.4cm, 무게: 5.7g.

10. 석재(도면 12-10, 도판 6-10)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원석에서 작고 길게 떼어낸 형태로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깝다. 한쪽 면은 사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여 다소 매끈한 상태이며, 다른 면은 대부분 박리된 상태이다.

길이: 9.7cm, 너비: 2.2cm, 두께: 0.6cm, 무게: 21g.

11. 방추채(도면 12-11, 도판 6-11)

암질은 편마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편평한 양쪽 면에는 다소 무질서한 사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확인된다. 신부 중앙에는 직경 1cm의 투공을 하였고,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직경: 7.0cm, 두께: 0.9cm, 무게: 81g.

12. 미완성석부(도면 12-12, 도판 6-12)

암질은 유문암 계통이며, 두부쪽이 결손 되었으나, 고타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면에는 1/3이하, 후면에는 2/3이상 자연면이 잔존하며, 양측면 일부와 인부를 고타하여 기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인부는 고타하여 양인의 합인을 형성하였으나, 인부의 한쪽 면에는 부분적으로 마연흔이 잔존한다.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11.8cm, 너비: 7.7cm, 두께: 3.7cm, 무게: 557g.

13. 합인석부(도면 12-13, 도판 6-13)

암질은 유문암 계통이며, 사용도중 파손되어 전면과 후면의 편평한 면을 타격하여 두부쪽을 재가공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부의 한쪽 측면에는 전체적으로 타격한 흔적이 확인된다. 형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부의 중앙부가 결손 되었다. 인부는 주로 횡방향으로 정마하여 합인을 형성하였으나, 사용에 의한 마모로 무더진 상태이다.

길이: 6.5cm, 너비: 7.7cm, 두께: 2.7cm, 무게: 213g.

14. 석재(도면 12-14, 도판 6-14)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얇은 판석의 양쪽 측면을 타격하여 형태를 잡는 도중에 반파되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에는 1/3이상, 후면에는 2/3이상 자연면이 잔존한다.

길이: 7.4cm, 너비: 4.8cm, 두께: 1.2cm, 무게: 70g.

15. 미완성석부(도면 13-15, 도판 7-15)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얇은 판석의 측면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박리를 시도하였다. 전체적인 기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이다. 신부의 측면부에는 일부 고타흔이 확인된다.

길이: 12.7cm, 너비: 4.7cm, 두께: 1.6cm, 무게: 179g.

16. 합인석부(도면 12-16, 도판 7-16)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비교적 얇은 소형의 합인석부이다.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정마하여 기형을 형성하였다. 두부는 부분적으로 박리된 면이 남아있고, 인부는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정마하여 비교적 날카로운 양인의 합인을 형성하였다.

길이: 8.5cm, 너비: 4.0cm, 두께: 1.0cm, 무게: 57g.

17. 미완성석부(도면 13-17, 도판 7-17)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향에 가깝다. 전체적인 기형을 형성하기 위해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를 진행하였으나, 전면과 후면에는 일부 자연면이 남아있다. 마연작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인부는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소형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종단면은 썰기형에 가깝다.

길이: 9.1cm, 너비: 3.5cm, 두께: 1.7cm, 무게: 81g.

18. 석재(도면 13-18, 도판 7-18)

암질은 셰일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향이다. 측면을 돌아가며 8~10차례 타격을 진행한 박리흔이 확인되며, 다른 가공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종단면은 썰기형에 가까우며, 잔존상태로 볼 때 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판단된다.

길이: 10.7cm, 너비: 6.4cm, 두께: 2.1cm, 무게: 191g.

19. 미완성석부(도면 13-19, 도판 7-19)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향에 가깝다. 소형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전체적인 기형을 형성하기 위해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를 진행하였다. 전면과 후면에는 일부 자연면이 남아있다. 마연작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인부는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9.2cm, 너비: 3.5cm, 두께: 1.9cm, 무게: 88g.

20. 미완성석부(도면 13-20, 도판 7-20)

주거지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암질은 안산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향에 가깝다. 전체적인 기형을 만들기 위해 전면과 후면의 측면을 돌아가면서 박리를 진행하였다.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부는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소형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판단된다.

길이: 11.5cm, 너비: 4.8cm, 두께: 1.8cm, 무게: 1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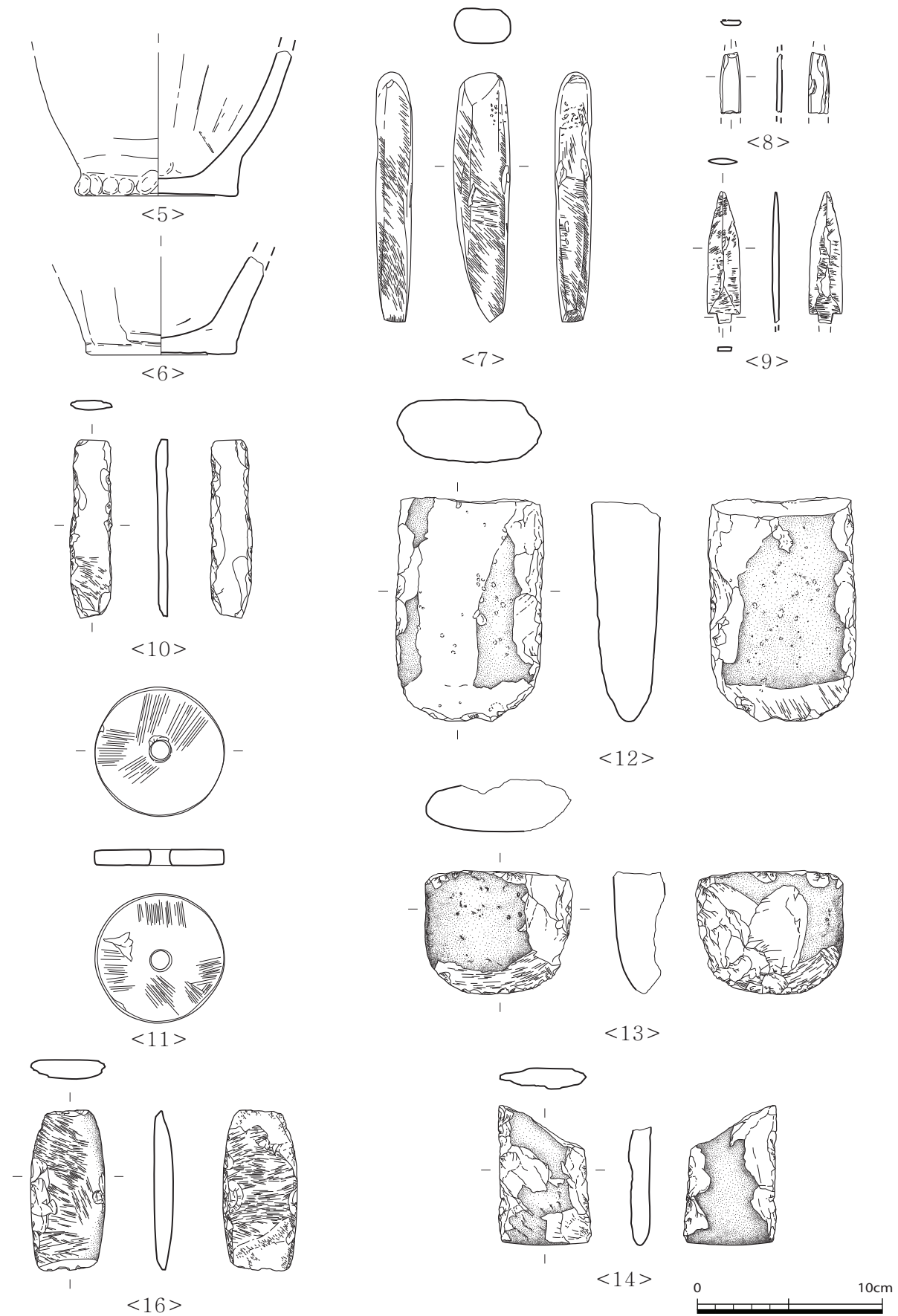
21. 석재(도면 13-21, 도판 7-21)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향에 가깝다. 측면을 돌아가며 수차례 타격을 통해 박리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로 볼 때, 소형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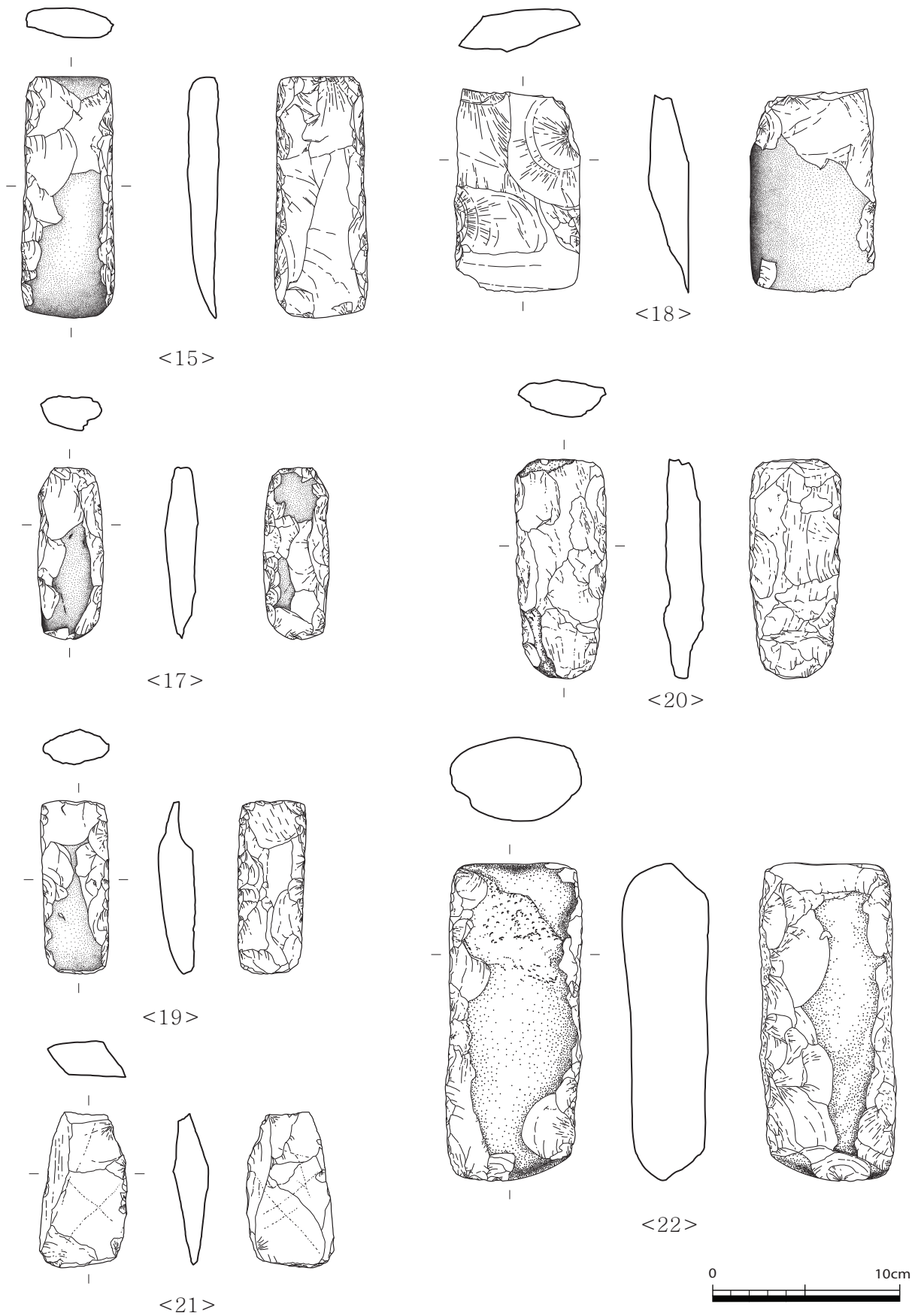
길이: 8.2cm, 너비: 4.6cm, 두께: 1.9cm, 무게: 91g.



도면 1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도면 12.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도면 13.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22. 석재(도면 13-22, 도판 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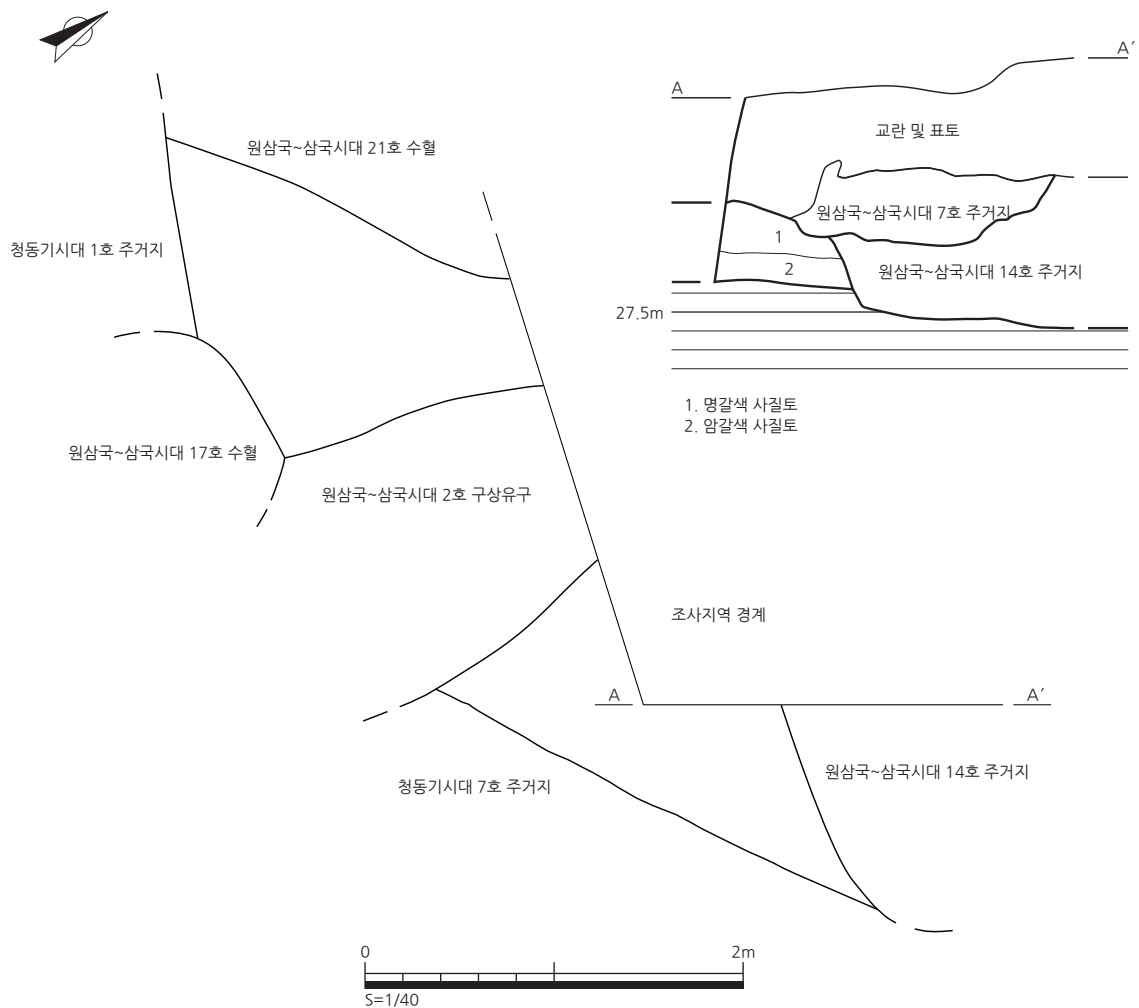
암질은 조면안산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측면을 돌아가며 크게 박리작업을 진행한 후, 신부의 양쪽 측면을 고타하여 다듬었다. 인부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미완성석부이며,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16.8cm, 너비: 6.9cm, 두께: 4.6cm, 무게: 968g.

(2) 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4, 도판 8-①)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 걸쳐 있고 해발은 28.0~28.1m이다.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21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이 중복되었고 중앙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와 중복되었다. 중복된 유구들 중에서



도면 14.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었다.

후축된 유구들에 의해 사방이 파괴되고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에 의해 중앙 부분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내부토층은 모두 2개가 확인되었다. 명갈색 사질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으로, 조사경계면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유구와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바닥면은 별다른 시설 없이 점질이 우세한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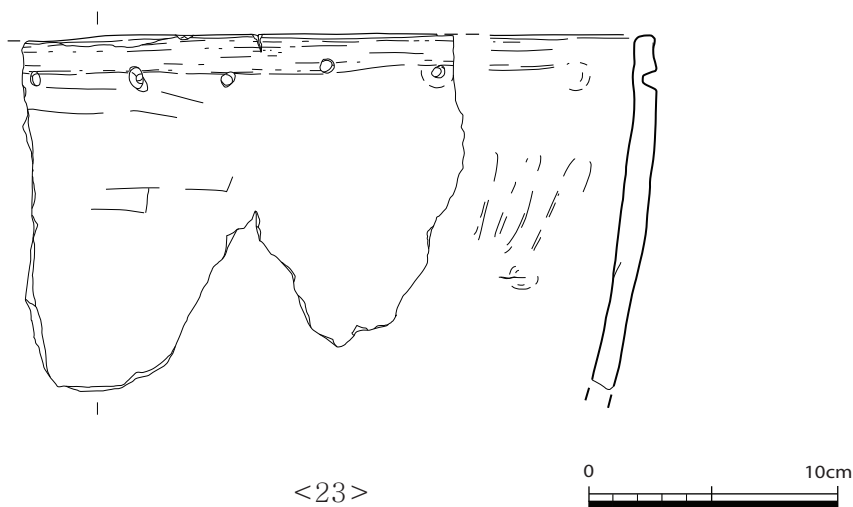
유물은 상부에서 공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3. 공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5-23, 도판 8-23)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극히 완만한 호형으로 잔존부 아래에서 부터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상향하다가 구연부 근경에서 살짝 내측으로 기울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2.0cm 아래 외면에는 외직경 0.8cm의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다. 구멍의 관통 방향은 외면에서 내면을 향한다. 결실면을 제외한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고 구연 직하부 외면에는 약 1.5cm 범위의 횡방향 물손질 흔적이 비교적 분명하게 형성되었고 동체부 내·외면에도 부분적인 정면 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7.5YR 6/4), 내면 탁한 등색(7.5YR 6/4), 속심 암회황색(2.5Y 5/2)이다.

잔존높이: 14.2cm, 잔존너비: 17.5cm, 두께: 0.8~1.1cm



도면 15. 청동기시대 2호거지 출토유물

(3) 3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6, 도판 8-②~8-⑥)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서쪽 경계에 걸쳐 있고 해발은 27.7~27.8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다.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및 1호 구상유구보다 선축되었다.

북쪽 부분과 동쪽 부분이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및 1호 구상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서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형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442cm, 잔존폭 420cm, 깊이 49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3개가 확인되었다. 회갈색 사질토와 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퇴적되었다. 내부퇴토의 퇴적양상과 주거지 내부상태를 통해 볼 때 폐기된 이후 자연매몰의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바닥부분이 단단한 편이고 내부퇴적토보다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굴착면을 그대로 바닥으로 사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서쪽에서 주혈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교란에 의해 절반정도가 파괴되었다. 규모는 직경 9cm, 깊이 11cm이다.

유물은 산재하는 양상을 보이며 무문토기 토기편과 합인석부, 미완성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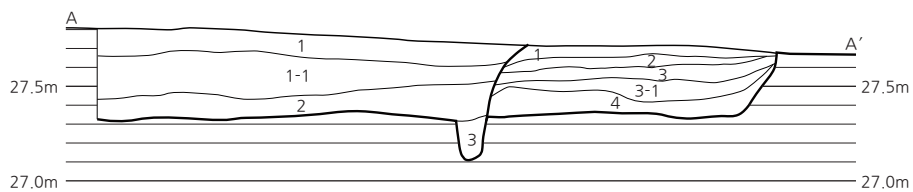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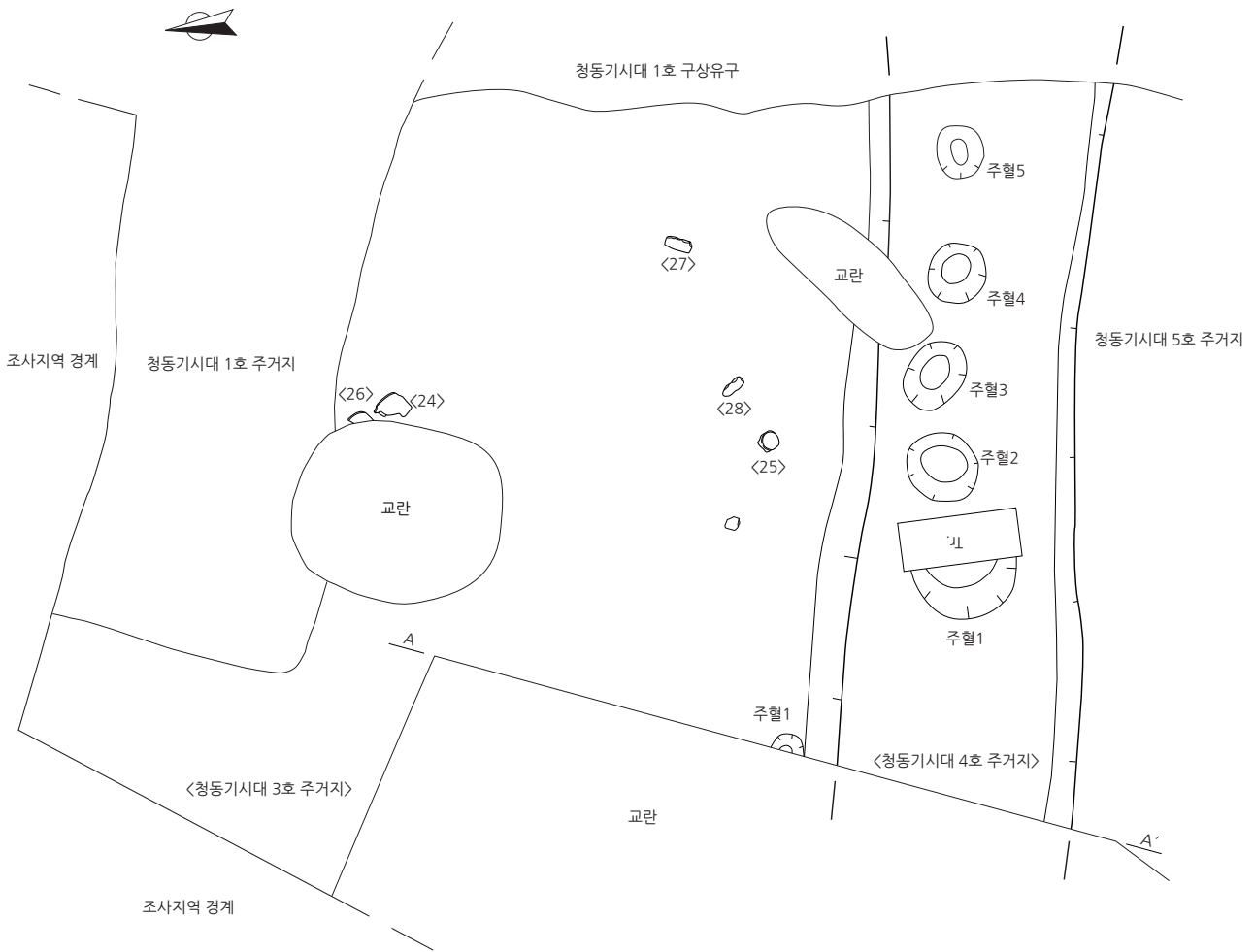
24. 무문토기 토기편(도면 17-24, 도판 9-24)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하위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기고에 비해서 구경이 작은 편으로서 전체적으로 세장한 느낌이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으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 근경에서 살짝 내측으로 기울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에는 초본류 혹은 가죽이나 형겅으로 추정되는 물손질 도구로서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5/2), 내면 탁한 황등색(10YR 7/4), 속심 탁한 황등색(10YR 6/3)이다.

잔존높이: 18.2cm, 복원구경: 17.5cm, 두께: 0.5~0.9cm

25.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7-25, 도판 9-25)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내·외의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외저면에는 초본류 등으로 추정되는 작은 압흔이 관찰된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에서 저부로 이어지는 외면에는 물손질 도구(목판)를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완만한 호상의 찰흔과 직상의 선단부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4), 내면 탁한 적갈색(5YR 5/4),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 | | |
|--|--|
| <p>〈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갈색 사질토 1-2. 회갈색 사질토 - 1층보다 어두움 2. 갈색 사질토 3. 황갈색 사질토 | <p>〈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백색 사질토 2. 회갈색 사질토 - 회백색 사질토 혼입 3. 갈색 사질토 3-1. 갈색 사질토 - 3층보다 어두움 4. 암갈색 사질토 |
|--|--|



도면 16. 청동기시대 3호 · 4호 주거지

잔존높이: 5.5cm, 저경: 9.4cm, 두께: 0.8~2.3cm

26.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7-26, 도판 9-26)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 일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저면에는 초본류 추정 압흔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에서부터 저부로 이어지는 경계 외면에는 도구(목판) 선단부 압흔으로 추정되는 직상의 사방향 압흔이 있다. 저부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연속된 지두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잔존높이: 10.2cm, 복원저경: 9.5cm, 두께: 0.6~2.1cm

27. 합인석부(도면 17-27, 도판 9-27)

암질은 천매암 계통이며, 편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타격하여 기형을 만든 후 두부 측면에는 횡방향으로 마연하여 편평하게 다듬었다. 신부 정면 일부에는 횡방향과 사방향, 그리고 신부 측면에는 종방향으로 마연하여 형태를 다듬었다. 인부는 주로 종방향으로 정마하여 날카로운 합인을 형성하였다.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13.9cm, 너비: 6.1cm, 두께: 2.4cm, 무게: 284g.

28. 미완성석부(도면 17-28, 도판 9-28)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편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인 기형을 만들기 위해 전면과 후면의 측면을 돌아가면서 박리를 진행한 후 신부의 양쪽 측면을 고타하여 다듬었다. 인부는 박리작업 및 고타하여 편인에 가깝게 형태를 만들었으나,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소형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판단된다.

길이: 13.0cm, 너비: 5.4cm, 두께: 2.7cm, 무게: 278g.

(4) 4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6, 도판 9-①~9-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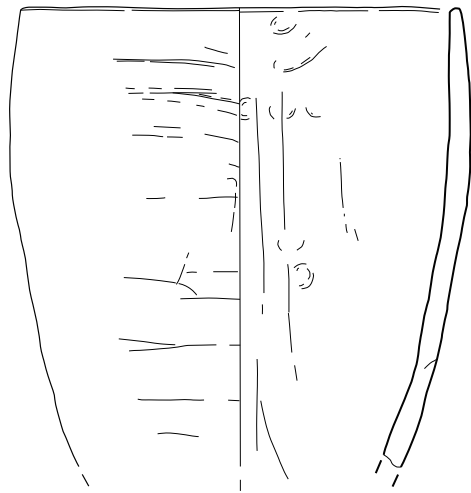
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9~28.0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고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및 1호 구상유구보다 선축되었다.

북쪽 부분과 동쪽 부분이 중복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서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남쪽 일부분만 잔존한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372cm, 잔존폭 112cm, 깊이 3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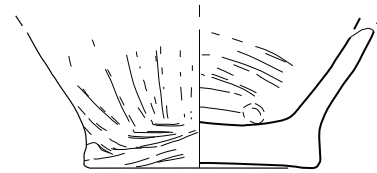
내부토층은 모두 4개가 확인되었다. 회갈색·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되적 되었다.

내부시설로 5기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25~58cm, 깊이 16~21cm이고 이격거리는 12~3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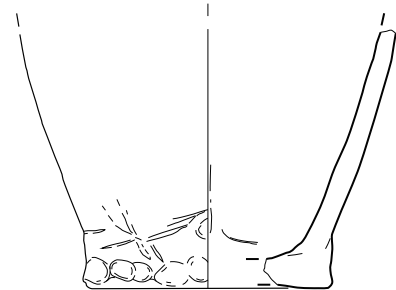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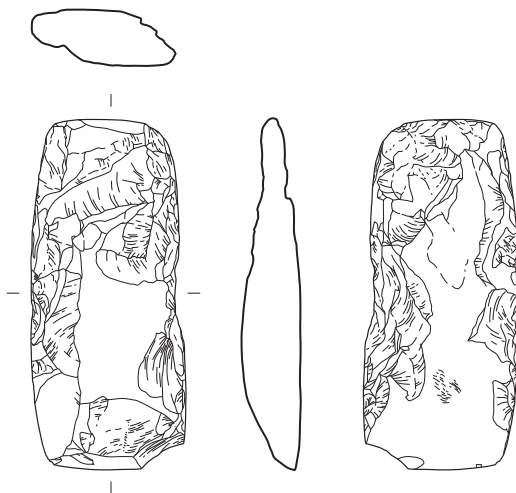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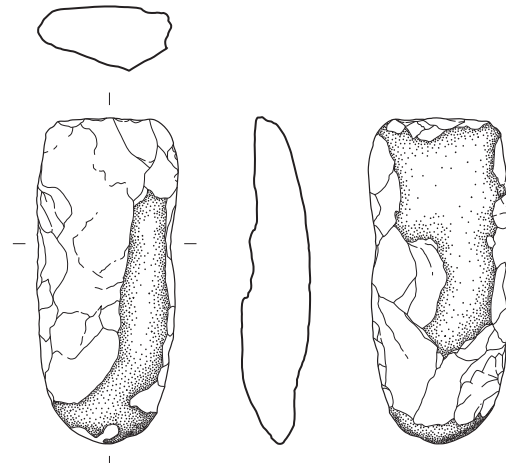
<25>



<26>



<27>



<28>



도면 17.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

(5) 5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18, 도판 10)

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다.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및 1호 구상유구보다 선축되었다.

중복유구에 의해 사방이 파괴되고 북서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424cm, 잔존폭 285cm, 깊이 19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3개가 확인되었다. 회갈색·명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되적 되었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남쪽에서 5기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30~52cm, 깊이 19~23cm이고 이격거리는 12~30cm이다.

유물은 주로 주거지 서쪽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이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공렬문토기 구연부편을 비롯한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석기류는 미완성석기와 파손된 반월형석도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9.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9-29, 도판 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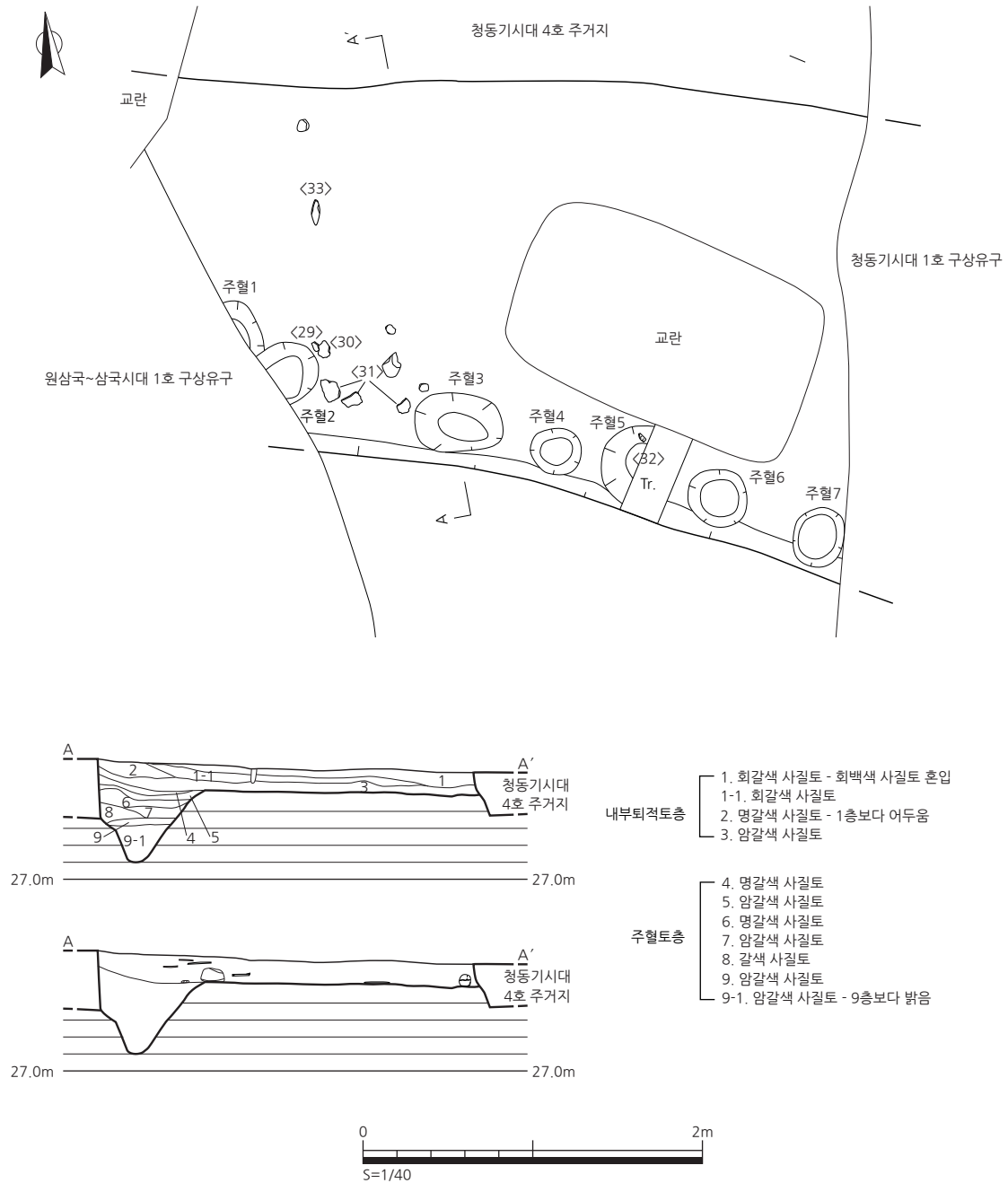
심발형 혹은 발형 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거의 직립하며 동체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로서 사방향의 각목문이 배치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조정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10.4cm, 잔존너비: 9.7cm, 두께: 0.3~0.9cm

30. 공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19-30, 도판 10-30)

심발형 혹은 발형 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上)되었다. 측면은 거의 직립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1cm 아래 동체부 내면에는 외직경 0.5cm 정도의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있다. 투공방향은 내면에서 외면을 향한다. 기면은 물손질 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도구(목판)의 조정흔적이 비교적 뚜렷하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3),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6.5cm, 잔존너비: 5.7cm, 두께: 0.8~1.3cm



도면 18.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31. 적색마연토기 구연부편(도면 19-31, 도판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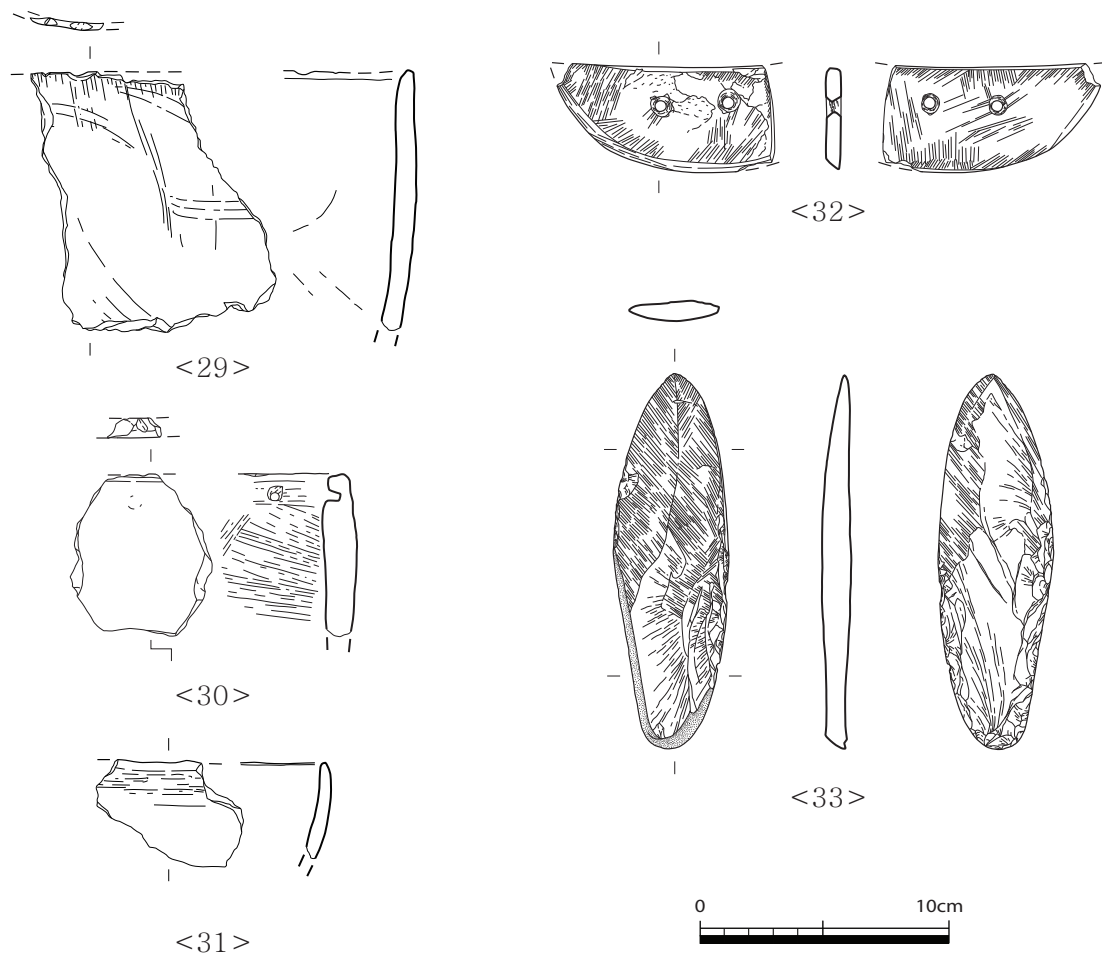
완으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측면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호상(弧狀)을 이루며 구연부가 내측으로 살짝 기울어진 형태이다. 구순은 둥근 편으로서 폭이 좁은 편이다. 외면은 고르게 마연된 후 적색의 안료가 도포되었고 내면은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2.5YR 6/4), 내면 탁한 등색(5YR 6/4),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4.2cm, 잔존너비: 5.5cm, 두께: 0.3~0.6cm

32. 반달돌칼(도면 19-32, 도판 10-32)

주혈5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암질은 유문암 계통이며, 전체의 1/3 정도 결손 되었다.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하여 정면하였으며, 신부 일부에 마연표면이 탈락한 흔적이 있다. 인부는 사방향으로 마연하여 곡인을 형성하였으며, 배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배부의 약 1cm 아래에 약 2cm의 간격으로 직경 0.8cm 정도의 투공을 두 군데 뚫었다. 투공은 양쪽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뚫어 중심부의 직경이 좁아진다.

길이: 4.2cm, 너비: 8.5cm, 두께: 0.7cm, 무게: 39g.



도면 19.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출토유물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쪽과 동쪽에 청동기시대 13호·1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청동기시대 13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주거지 동쪽 부분은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고 주거지의 서쪽과 남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형태가 매우 불량하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북-남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460cm, 잔존폭 364cm이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북쪽에서 5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직경 20~37cm, 잔존깊이는 13~22cm이고 주혈 간 거리는 14~21cm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이외에도 소형의 보조주혈 8개가 불규칙적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직경 8~15cm, 깊이는 10~1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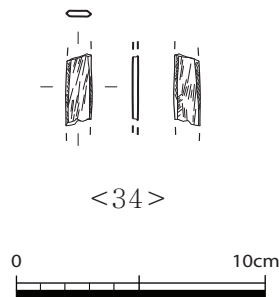
유물은 주거지 북쪽에서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4. 석촉(도면 21-34, 도판 11-34)

암질은 세일 계통이며, 촉두와 기부가 결손 되었다.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하여 기형을 형성하였고, 양쪽 측면을 사방향으로 정마하여 인부를 형성하였다. 잔존상태로 볼 때, 무경식으로 추정되며, 신부의 횡단면은 편육각형이다.

길이: 2.6cm, 너비: 1.0cm, 두께: 0.2cm, 무게: 4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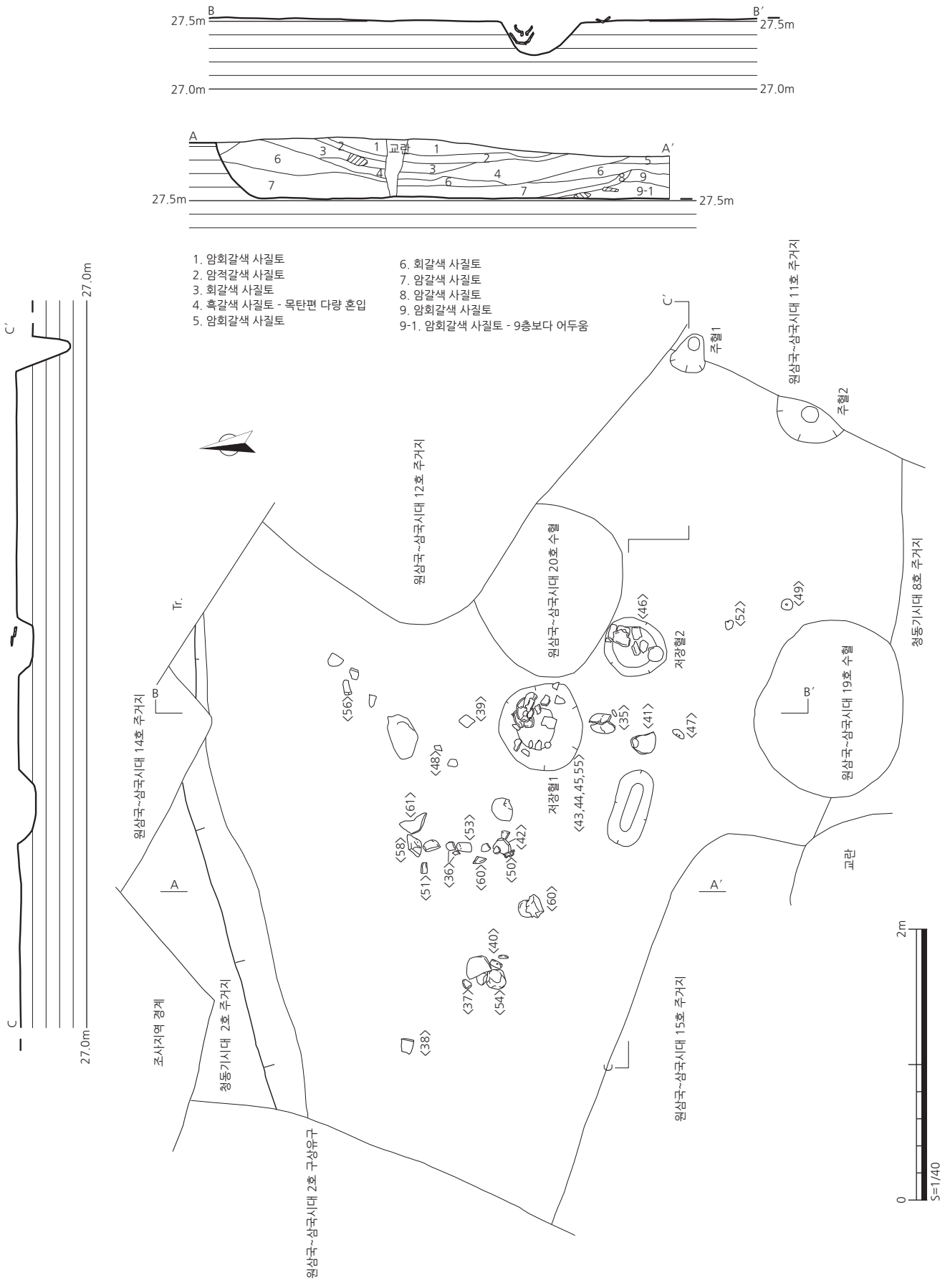


도면 21.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

(7) 7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22, 도판 11-⑥~12-③)

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9~28.0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와 19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다. 7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및 8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다.



도면 22.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쪽과 동쪽에 청동기시대 13호·1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청동기시대 13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주거지 동쪽 부분은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고 주거지의 서쪽과 남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형태가 매우 불량하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북-남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460cm, 잔존폭 364cm이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북쪽에서 5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직경 20~37cm, 잔존깊이는 13~22cm이고 주혈 간 거리는 14~21cm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이외에도 소형의 보조주혈 8개가 불규칙적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직경 8~15cm, 깊이는 10~14cm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쪽에서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4. 석촉(도면 21-34, 도판 11-34)

암질은 세일 계통이며, 촉두와 기부가 결손 되었다.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하여 기형을 형성하였고, 양쪽 측면을 사방향으로 정마하여 인부를 형성하였다. 잔존상태로 볼 때, 무경식으로 추정되며, 신부의 횡단면은 편육각형이다.

길이: 2.6cm, 너비: 1.0cm, 두께: 0.2cm, 무게: 4g.

(8) 8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22, 도판 11-⑥~12-③)

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9~28.0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와 19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다. 7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및 8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는데 후축된 중복유구에 의해 심하게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잔존하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동-서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645cm, 잔존폭 532cm, 깊이 45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9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회갈색·암적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저장혈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저장혈은 중앙 부분에서 2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직경 48~58cm, 깊이 11~15cm이다. 주혈은 동쪽 부분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에 의해 절반 정도가 파괴되었다. 최대직경 52cm, 깊이 40~68cm이고 이격거리는 60cm이다.

유물은 다량의 토기류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공열문토기·적색마연토기호·무문토기발 등을 비롯하여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저장혈에서 무문토기호와 대형 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반달돌칼·석검병부·방추차·석부·외면찍개·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5. 적색마연토기호(도면 23-35, 도판 12-35)

경부가 발달한 호형의 토기로서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은 편이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까지의 측면은 비대칭의 'S'자 형태에 가까운 데 동체부는 구형(球形)이고 경부는 완만한 호형(弧形)을 이루며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저부 형태는 원저로 추정된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며 연마 방향은 구연에서 동체 상부까지가 종방향, 동체 상부에서 동체부 중위까지가 사방향, 동체부 중위에서 하부까지가 횡방향으로 달리 형성되었다. 내면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에는 종사방향의 조임 흔적이 있다. 적색의 안료가 외면 전체와 구연에서 경부 일부까지의 내면에 도포되었으며 도포 양상은 경부 내면에서 분명하게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4), 내면 탁한 등색(5YR 6/4), 속심 탁한 적갈색(2.5YR 5/3)이다.

잔존높이: 19.3cm, 복원구경: 8.5cm, 두께: 0.3~0.6cm

36. 적색마연토기호(도면 23-36, 도판 12-36)

경부가 발달한 호형의 토기로서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 이하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기벽이 전체적으로 얇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까지의 측면은 비대칭의 'S'자 형태에 가까운데 동체부는 구형(球形)이고 경부는 완만한 호형(弧形)을 이루며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다소 뾰족한 형태이다. 경부는 비교적 짧으며 저부 형태는 원저로 추정된다. 외면은 마연 후 적색의 슬립이 도포되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동체부 중위에는 횡방향의 점토띠 접합흔이 잘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4),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9.3cm, 복원구경: 9.1cm, 두께: 0.3~0.5cm

37. 적색마연토기호(도면 23-37, 도판 12-37)

경부가 발달한 호형의 토기로서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 이하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기벽이 전체적으로 얇으며 기 외면의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까지의 측면은 비대칭의 'S'자 형태에 가까운데 동체부는 구형(球形)이고 경부는 완만한 호상(弧形)을 그리며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다소 뾰족한 형태이다. 경부는 비교적 짧으며 저부 형태는 원저로 추정된다. 외면은 마연 후 적색의 슬립이

도포되었으나 동체부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동체부 중위에는 횡방향의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36>과 유사하며 동일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4), 탁한 등색(7.5YR 6/4),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8.3cm, 복원구경: 9.1cm, 두께: 0.3~0.5cm

38. 공염문토기 구연부편(도면 23-38, 도판 14-38)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거의 곧게 뻗는 형태이며 동체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0.8cm 아래 동체부 외면에는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으며 그 간격은 약 1cm 정도이다. 구멍의 투공방향은 외면에서 내면을 향한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도구(목판)로 긁은 흔적이 일부 형성되었으며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지두 압흔이 분포한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5YR 5/1),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9.3cm, 잔존너비: 11.1cm, 두께: 0.5~0.8cm

39. 공염문토기 구연부편(도면 23-39, 도판 14-39)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약간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며 동체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1.5cm 아래 동체부 외면에는 외직경 0.5cm 정도의 구멍(孔)이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다. 구멍은 관통과 반관통 상태가 혼재하며 투공방향은 내면에서 외면을 향한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물손질 도구(목판) 조정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5YR 6/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8.1cm, 잔존너비: 10.5cm, 두께: 0.9~1.0cm

40. 공염문토기 구연부편(도면 23-40, 도판 14-40)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거의 곧게 뻗는 형태이며 동체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1.3cm 아래 동체부 외면에는 외직경 0.5cm 정도의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약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으며 그 간격은 3.0~3.5cm 정도이다. 투공방향은 외면에서 내면을 향한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물손질 흔적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구연 직하부를 중심으로 다수의 지두압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5.0cm, 잔존너비: 11.6cm, 두께: 0.6~0.8cm

41. 무문토기발(도면 23-41, 도판 14-41)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의 약 3/5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해당 부위는 도상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이며 외저면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凹面)이 형성되었다. 동체부는 저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의 물손질 방향은 중위의 횡방향 점토 접합흔을 경계로 해서 위로는 사방향, 아래로는 횡방향으로 다소 달리 나타난다. 물손질 도구는 거친 질감이 있는 가죽이나 형짚 혹은 초본류로 추정된다. 동체부 내면에는 도구(목판)로 조정된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높이: 13.5cm, 복원구경: 17.5cm, 저경: 8.3cm, 두께: 0.5~2.5cm

42.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23-42, 도판 14-42)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아주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저면에는 생성원인이 불분명한 압흔이 있다. 기면이 모두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구(목판)으로 굽은 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5.1cm, 저경: 10.1cm, 두께: 0.6~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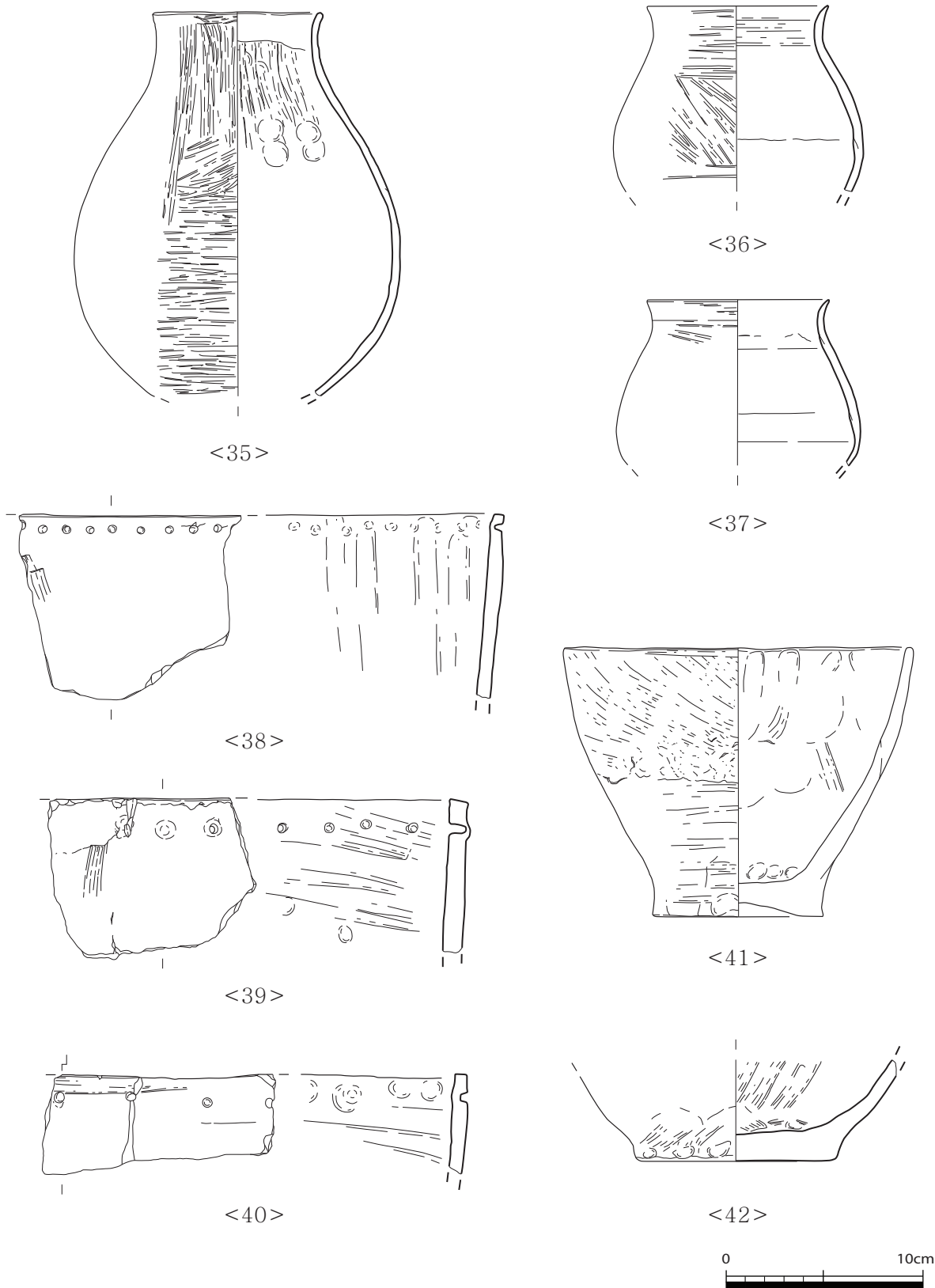
43. 무문토기호(도면 24-43, 도판 13-43)

경부가 발달된 대형의 호로서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측면은 동체부가 구형(球形)이며 경부는 다소 직립하는 형태로서 경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기면의 산화 정도가 중한 가운데 점토 접합흔이 부분적으로 잘 남아있다. 점토피 단위는 대략 5.0cm 정도로 넓은 편이며 동체 상부에는 횡방향 점토 접합흔 위로 도구(목판)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와 동체 상부 내면에는 원형의 박자 압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탁한 적갈색(2.5YR 5/3), 내면 탁한 적갈색(2.5YR 5/3), 속심 탁한 적갈색(2.5YR 5/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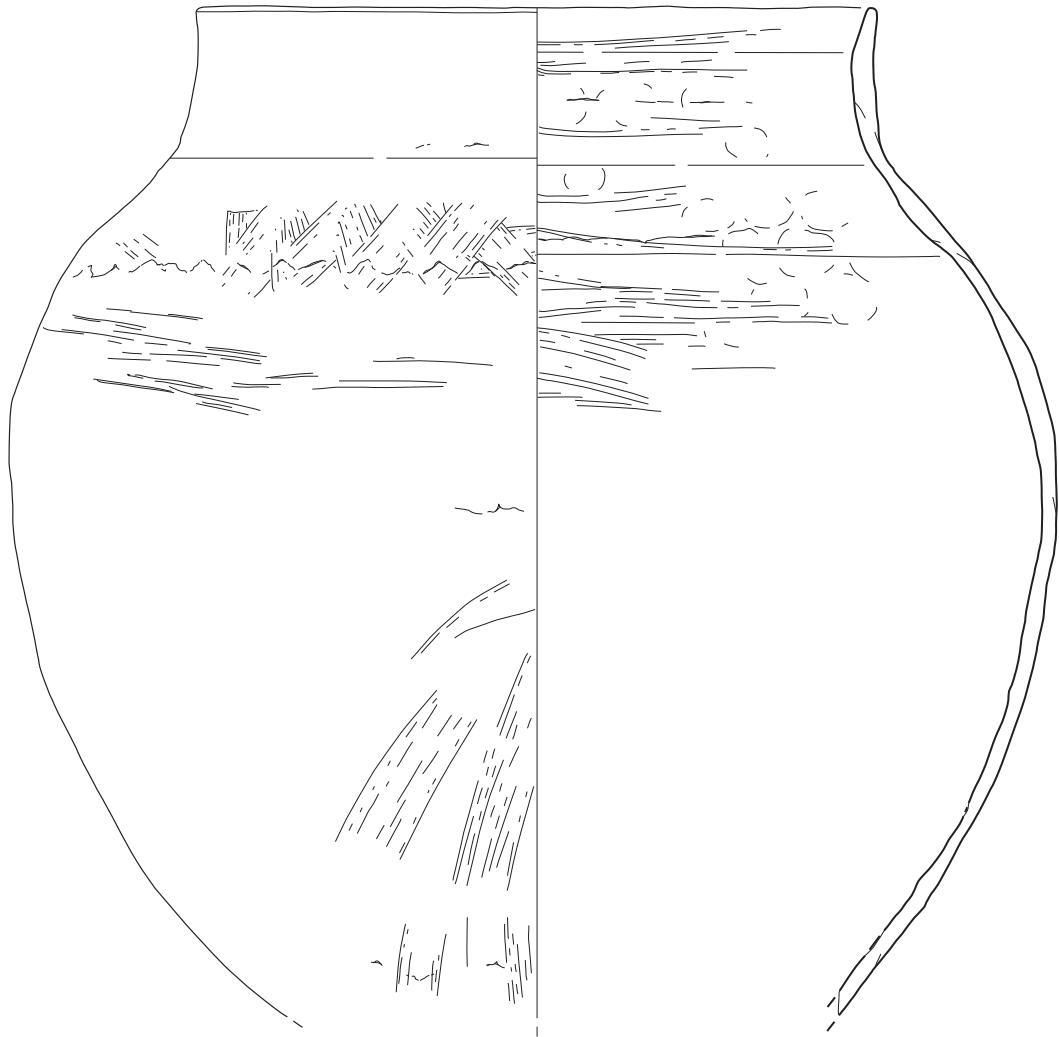
잔존높이: 39.9cm, 구경: 27.0cm, 동최대경: 41.6cm, 두께: 0.5~0.9cm

44. 무문토기호(도면 25-44, 도판 1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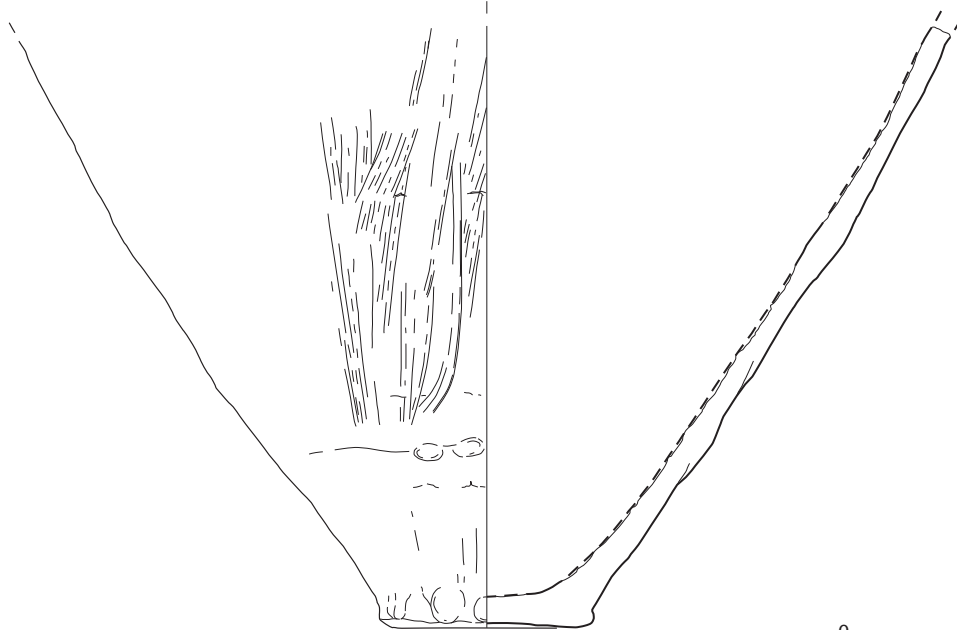
경부가 발달된 대형의 호로서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가 약 3/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내면을 중심으로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며 기벽은 전체적으로 얇고 단단하다. 측면은 동체부가 긴 구형(球形)으로서 중위가 최대경을 이루며 경부는 길고 완만한 호형(弧形)을 이룬다. 경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지며 구순은 둥글납작한



도면 23.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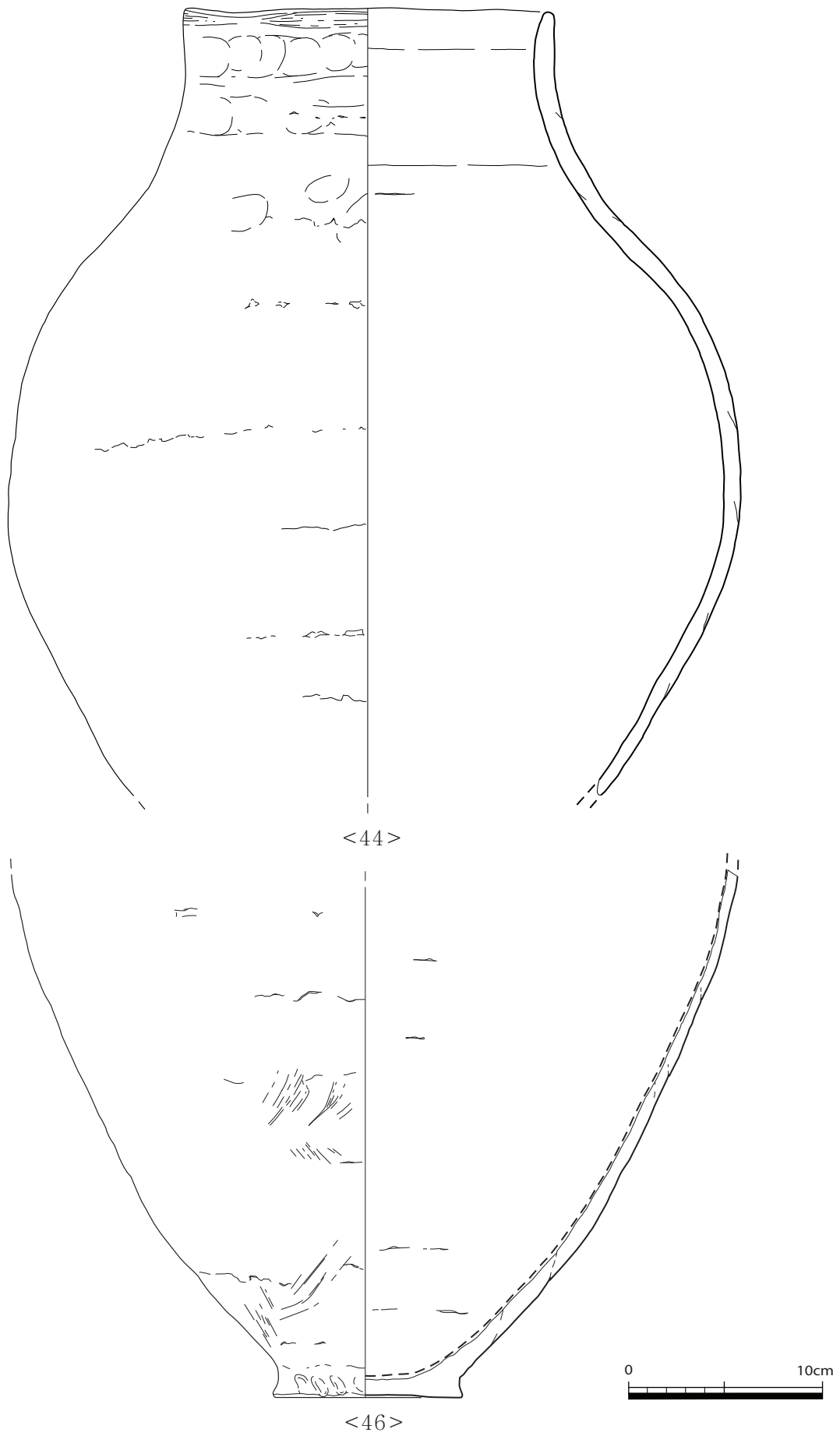
<43>



<45>



도면 24.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도면 25.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3

형태이다. 기면이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일정간격을 두고 형성되었다. 경부 외면에는 둥근 박자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40.1cm, 복원구경: 19.0cm, 두께: 0.6~1.1cm

45. 대형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24-45, 도판 14-45)

대형의 호 혹은 심발형태기로 추정된다. 동체부 중상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2c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내면의 박락 정도가 중하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이며 동체부는 저부와외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진다. 저경에 비해서 동최대경이 큰 편이다.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아주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도구(목판)로 조정한 종방향의 목리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점토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탁한 적갈색(2.5YR 5/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23.8cm, 저경: 7.6cm, 두께: 0.8~2.1cm

46. 대형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25-46, 도판 1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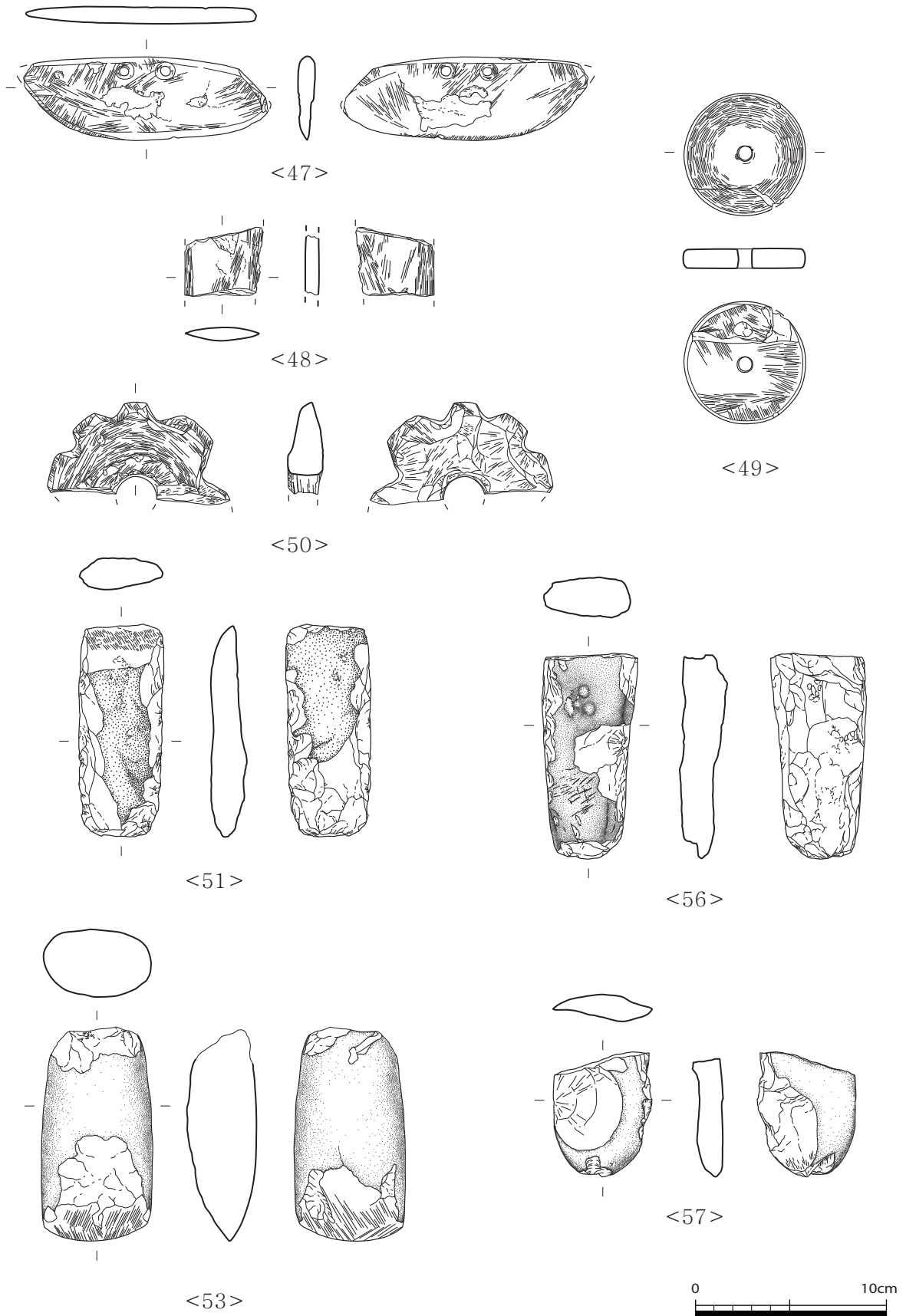
대형의 호 혹은 심발형태기로 추정된다. 동체부 중상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는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으나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아주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저부와외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저경에 비해서 동최대경이 큰 편이다. 동체부 외면은 물손질된 가운데 횡방향의 점토띠 접합흔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박락되었으며 외면은 부분적으로 원형(圓形)의 박락 흔적이 있다. 점토띠 단위는 대략 4~5cm 정도이다. 점토 접합흔 위로 도구(목판)로 조정한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저부 외면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26.8cm, 저경: 9.8cm, 두께: 0.5~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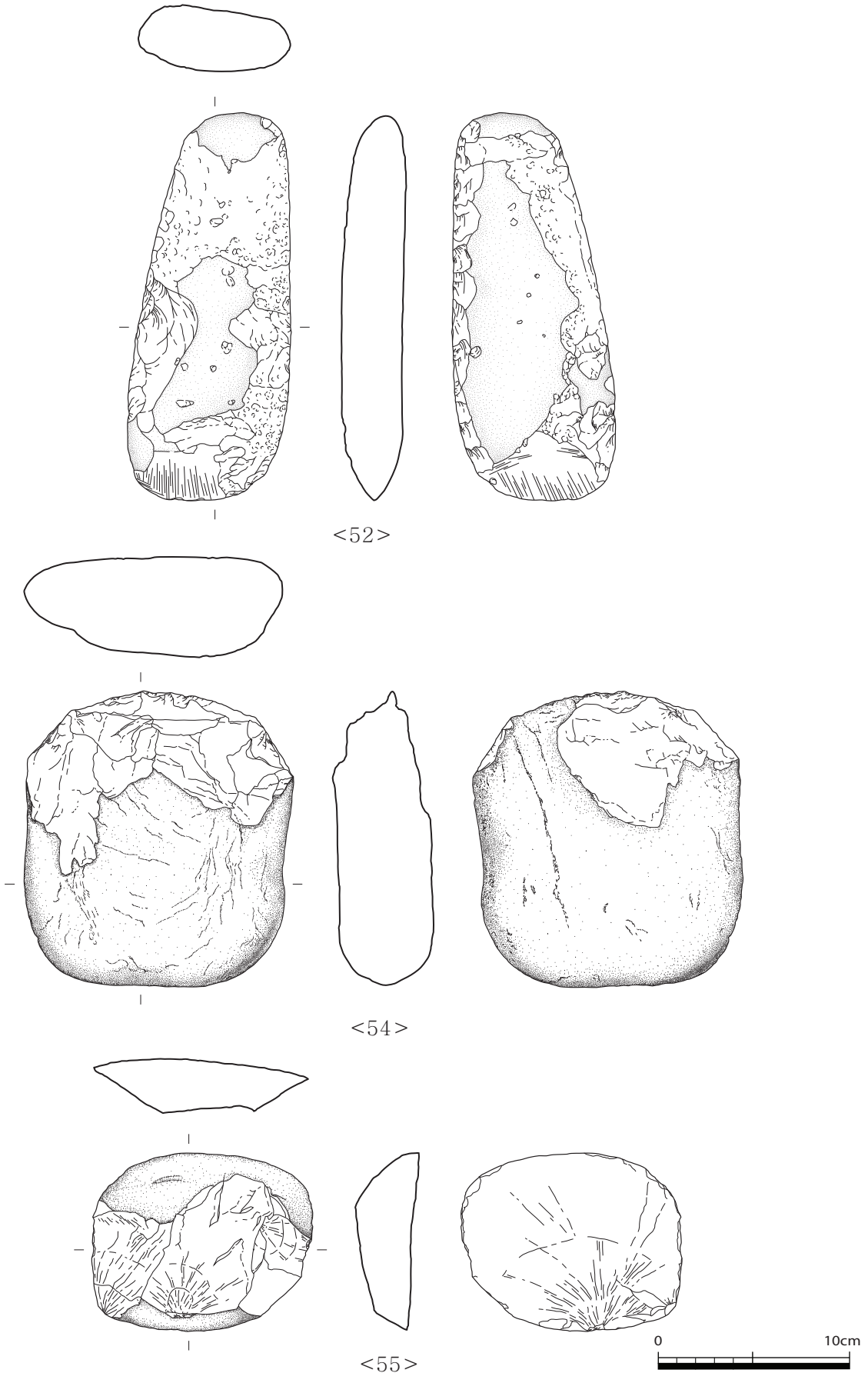
47. 반달돌칼(도면 26-47, 도판 14-47)

암질은 유문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능형 혹은 어형에 가깝다. 배부와 인부가 만나는 양측면 끝의 일부분이 일부 파손되었다.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하여 정면하였으며, 신부 일부에 마연표면이 탈락한 흔적이 있다. 인부는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하여 곡인을 형성하였으며, 배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나, 인부와 만나는 한쪽 측면은 둔각으로 마감하였다. 배부의 약 0.3cm 아래에 약 1cm의 간격으로 외공경은 0.9~1.1cm, 내공경은 약 0.5cm 정도의 투공을 두 군데 뚫었다. 투공은 양쪽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뚫어 중심부의 직경이 좁아진다.

길이: 4.3cm, 너비: 12.2cm, 두께: 0.9cm, 무게: 65g.



도면 26.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도면 27.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5

48. 석검 병부(도면 26-48, 도판 15-48)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신부는 결손 되었으며, 병부 일부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종향으로 정마하여 병부를 형성하였다.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3.5cm, 너비: 4.0cm, 두께: 0.8cm, 무게: 15g.

49. 방추채(도면 26-49, 도판 15-49)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편평한 양쪽 면에는 다소 무질서한 사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확인된다. 불의 영향을 받은 듯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측면은 일부 파손된 상태이다. 신부 중앙에는 직경 0.8cm 정도의 투공을 하였고, 파손된 부위에는 직경 0.7~1cm 정도의 투공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다.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6.4cm, 너비: 6.3cm, 두께: 1.0cm, 무게: 78g.

50. 성형석부(도면 26-50, 도판 15-50)

암질은 편마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성형이다. 반파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원방향인 회전 방향의 거친 마연흔이 확인된다. 인만입부는 \sim 에 가까운 형태이며, 4개의 온전한 인과 파손된 1개의 인이 확인된다. 확인된 인의 개수로 볼 때, 반파 이전에는 약 8~9개의 인이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부 중앙의 원공은 투공구를 이용한 회전력으로 한 방향에서 뚫은 것으로 보인다. 내측투공 직경은 2.2cm, 외측투공 직경은 2.3cm이다.

길이: 5.3cm, 너비: 9.4cm, 두께: 1.8cm, 무게: 89g.

51. 편인석부(도면 26-51, 도판 15-51)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다. 장축방향과 두부 측면은 고타하여 기형을 형성하였고, 신부 정면과 후면 일부에는 사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관찰된다. 인부는 사방향으로 정마하여 비교적 날카로운 편인을 형성하였다.

길이: 10.9cm, 너비: 4.3cm, 두께: 2.8cm, 무게: 14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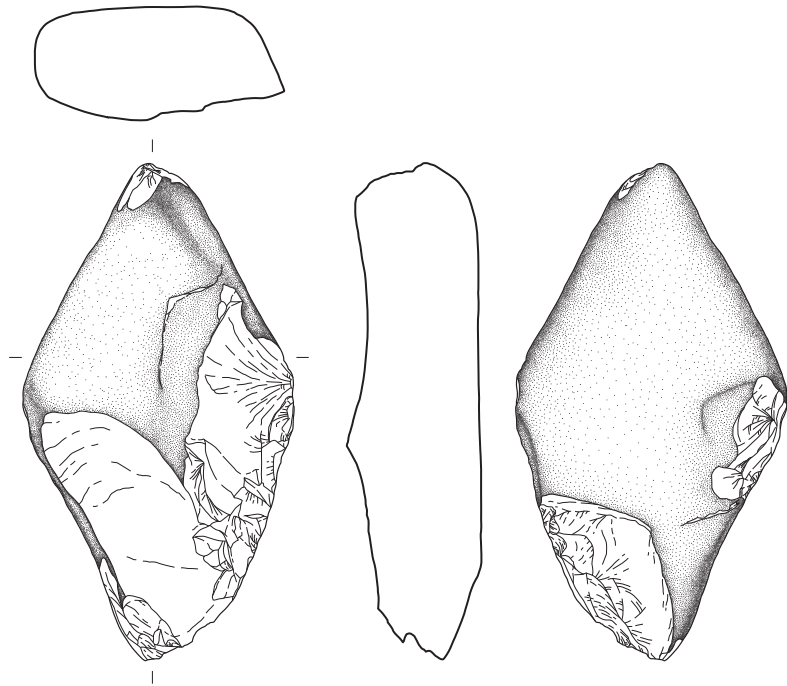
52. 합인석부(도면 27-52, 도판 15-52)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의 양쪽 측면을 고타하여 다듬었으며, 부분적으로 박리흔이 확인된다. 인부는 사방향으로 정마하여 합인을 형성하였다.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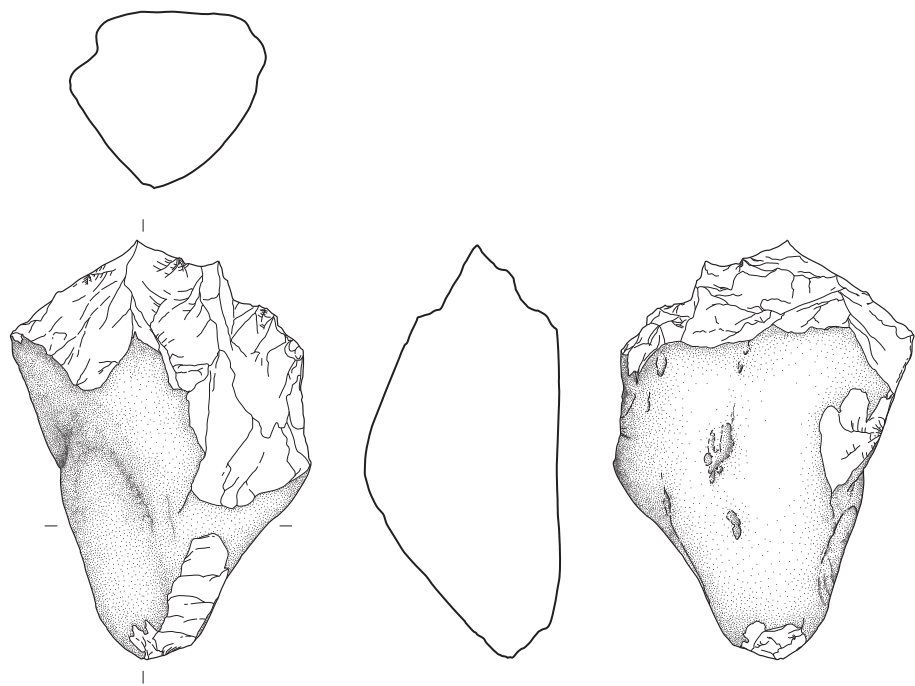
길이: 20.0cm, 너비: 8.2cm, 두께: 3.2cm, 무게: 925g.

53. 합인석부(도면 26-53, 도판 15-53)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에는 고타흔이 일부 확인되며, 신부는 일부 사방향으로 마연하여 정면하였다. 두부는 신부 길이와 두께 조정을 시도한 박리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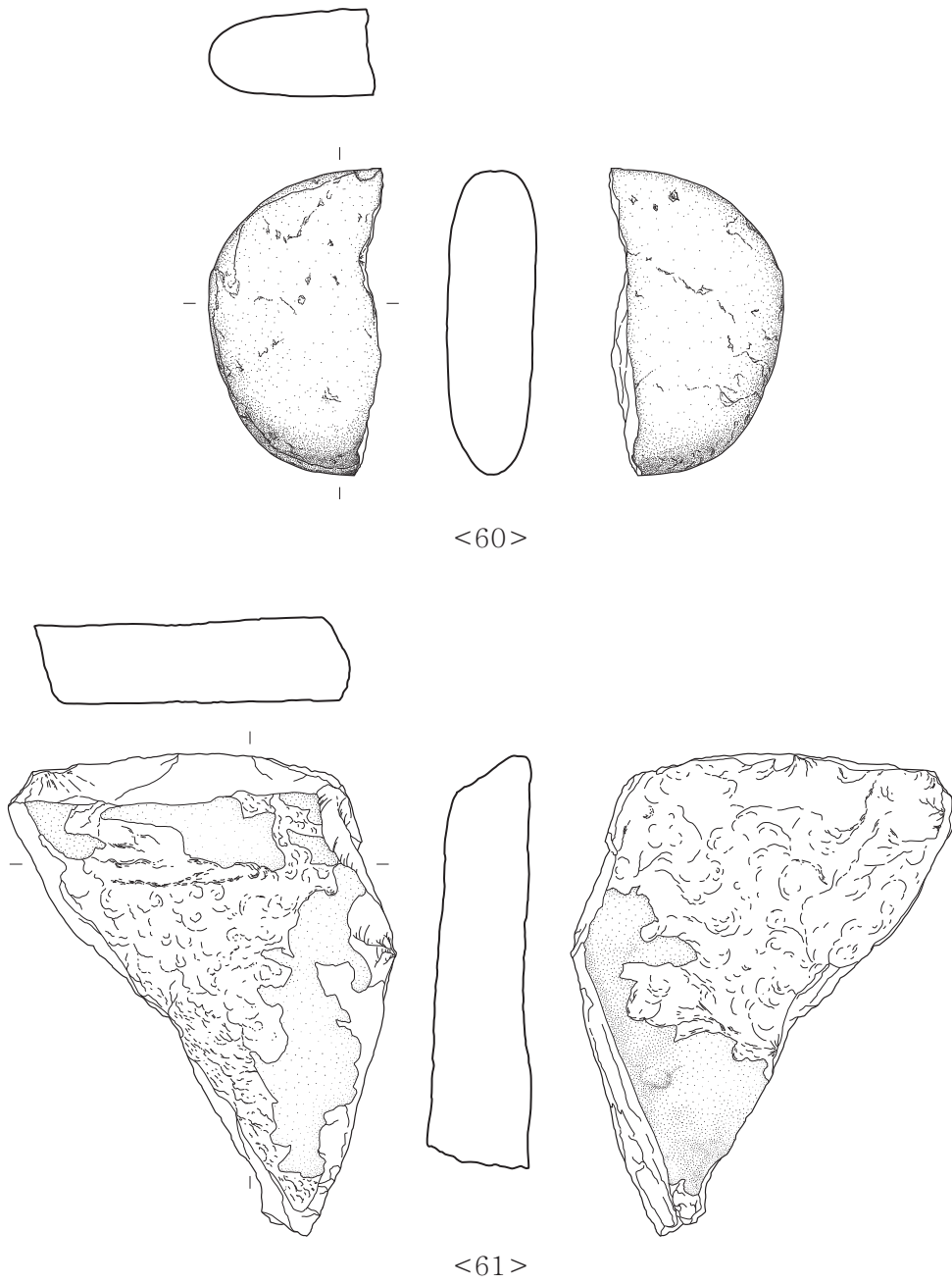
<58>



<59>



도면 28.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6



도면 29.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7

확인된다. 인부는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치밀하게 정마하여 날카로운 합인을 형성하였다.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길이: 11.0cm, 너비: 6.7cm, 두께: 3.6cm, 무게: 411g.

54. 외면찍개(도면 27-54, 도판 16-54)

암질은 석영질 사암 계통이며, 편평한 자갈들을 가공한 외면찍개이다. 편평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사용하여 한쪽 가장자리에 찍개 날을 조성하였다. 1차 박리 후 5~6차례의 2차 손질을 통하여 둥근 형태의 날을 조성하였다. 찍개 날의 각은 72.5~93.3°이다.

길이: 15.3cm, 너비: 13.8cm, 두께: 4.9cm, 무게: 1,646g.

55. 격지(도면 27-55, 도판 16-55)

암질은 유문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편평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수직에 가깝게 박리한 대형 격지이다. 등면에는 4~5개의 박리흔이 확인된다.

길이: 9.2cm, 너비: 11.3cm, 두께: 3.8cm, 무게: 426g.

56. 석재(도면 26-56, 도판 16-56)

암질은 편마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다. 측면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고타한 흔적이 박리흔과 확인된다. 소형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판단되며,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10.1cm, 너비: 4.8cm, 두께: 2.3cm, 무게: 188g.

57. 석재(도면 26-57, 도판 16-57)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암질은 세일 계통이며, 얇은 석재의 가장자리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한 흔적이 확인된다. 측면 일부에는 고타한 흔적이 관찰되며, 석기의 형태를 잡는 도중에 반파되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과 후면에는 1/3이상 자연면이 잔존한다.

길이: 6.5cm, 너비: 5.1cm, 두께: 1.5cm, 무게: 68g.

58. 석재(도면 28-58, 도판 16-58)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능형에 가깝다. 편평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3~4차례 이상 격지를 떼어냈으며, 박리각은 60.8~130°이다. 석기를 성형하는 도중에 중단되었거나, 석재를 얻기 위한 몸돌로 추정된다.

길이: 19.7cm, 너비: 10.7cm, 두께: 5.3cm, 무게: 1,468g.

59. 석재 (도면 29-59, 도판 16-59)

암질은 편마암 계통이며, 측면의 편평한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사용하여 격지를 떼어낸 후 박리면을 타격면으로 교차로 격지를 떼어내었다. 한쪽 측면에 4~6차례 1차 박리 후 교차로 5~6차례 2차 박리를

진행하여 찌개 날과 유사한 날을 조성하였다. 석재를 얻기 위한 몸돌 내지는 찌개로 사용되었거나 석기를 성형하는 도중에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길이: 16.6cm, 너비: 11.2cm, 두께: 7.6cm, 무게: 1,505g.

60. 대석(도면 29-60, 도판 16-60)

암질은 석영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반원형태이다. 편평한 면에 일부 으스러진 흔적이 확인되나, 그 외 별다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 도중에 반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2.5cm, 너비: 6.7cm, 두께: 3.5cm, 무게: 469g.

61. 대석(도면 29-61, 도판 16-61)

암질은 석영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편평한 면에 으스러진 흔적이 확인되며, 자연면 2/3 이상이 탈락한 것이 관찰된다.

길이: 19.3cm, 너비: 13.9cm, 두께: 3.9cm, 무게: 1,321g.

(9) 9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30, 도판 17-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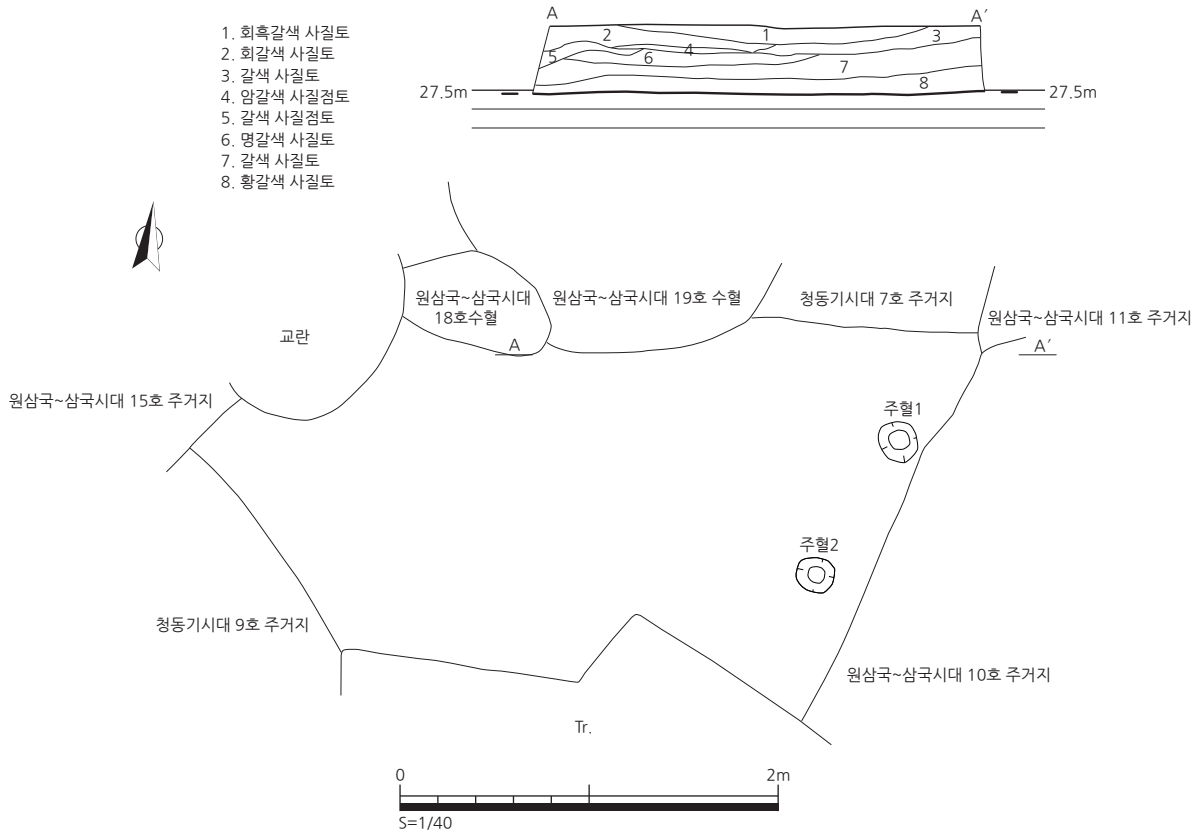
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8~27.9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8호·19호 수혈이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서쪽에는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8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및 9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후축된 중복유구와 교란, 표본Tr.에 의해 주거지가 심하게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419cm, 잔존폭 213cm, 깊이 37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8개가 확인되었는데 회갈색·암갈색·명갈색 등의 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동쪽에서 주혈 2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21~22cm, 깊이는 19~23cm이고 주혈 간 거리는 64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30.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

(10) 10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31, 도판 17-③~18-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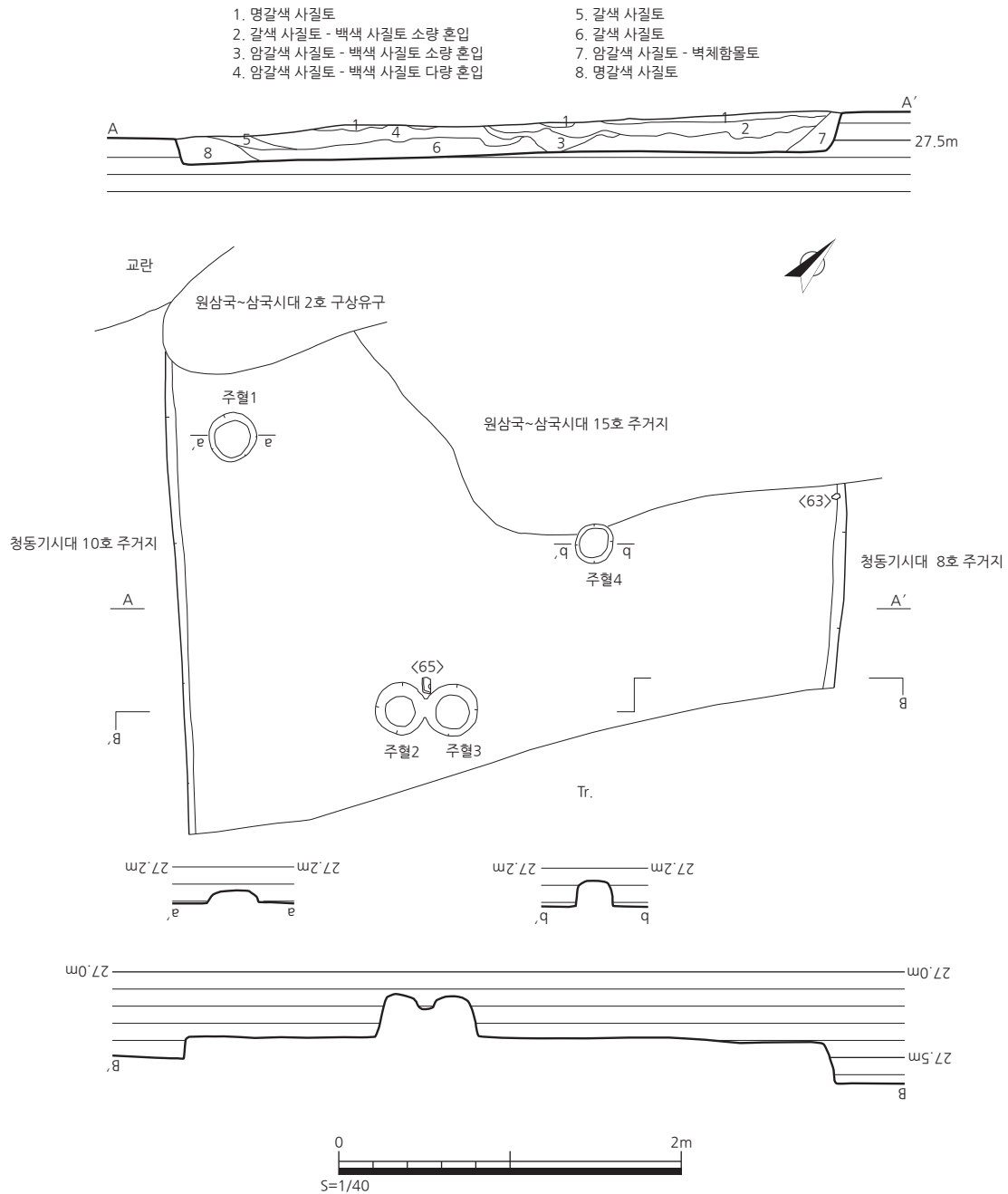
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다.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9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다.

서쪽부분은 표본Tr.과 원삼국~삼국 16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고 동쪽 부분은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 2호 구상유구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잔존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398cm, 잔존폭 292cm, 깊이 31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8개가 확인되었는데 유수에 의해 급격하게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소량의 백색 사질토가 혼입되었다. 7층은 벽체가 함몰된 토층으로 가장자리에 단면 삼각형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인다.

내부시설은 4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불규칙적으로 산재되었는데 직경은 22~30cm, 깊이는 7~25cm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과 석촉, 석검병부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3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나. 유물

62.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32-62, 도판 18-62)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심발형 혹은 발형 토기로 추정된다.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저면에는 부분적인 초본류 압흔이 관찰되며 가운데에는 원형에 가까운 압흔이 형성되었다. 접지면과 이어지는 저부 외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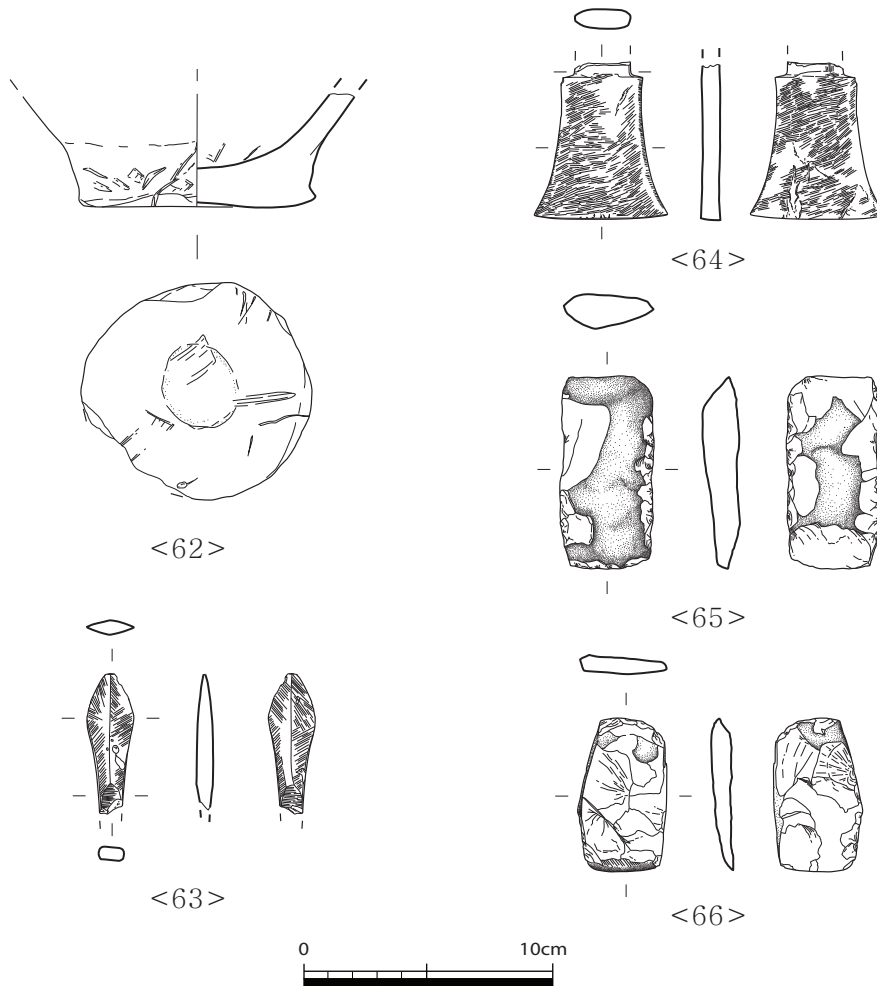
부분적으로 외저면에서 밀려 올라온 점토와 함께 초본류 압흔이 관찰된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 외면에는 점토를 덧바른 흔적이 있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4.5cm, 저경: 9.4cm, 두께: 0.9~2.5cm

63. 석촉(도면 32-63, 도판 18-63)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유엽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사방향 마연하여 기형을 만들었으며, 부분적으로 거친 마연흔이 확인된다. 능각은 다소 미약하게 형성되어 봉부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다 경부를 만들기 위해 약간 횡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여 편평하게 만들어 ^상으로 벌어진다. 경부는 일부 결손 되었으며, 횡단면은 신부는 능형, 경부는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5.0cm, 너비: 1.85cm, 두께: 0.65cm, 무게: 8g.



도면 32.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64. 석검 병부(도면 32-64, 도판 18-64)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신부는 결손 되었고, 병부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정마하여 병부를 형성하였다. 병부는 구상부는 결손 되어 병구부 일부와 구하부, 병두부만 잔존한다. 횡단면은 병구부는 장방형, 구하부는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6.15cm, 너비: 5.3cm, 두께: 0.75cm, 무게: 36g.

65. 미완성석부(도면 32-65, 도판 18-65)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향에 가깝다. 전체적인 기형을 형성하기 위해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를 진행하였으나, 전면과 후면에는 일부 자연면이 남아있다. 인부는 박리작업 및 고타하여 편인에 가깝게 형태를 만들었지만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형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종단면은 썩기형에 가깝다.

길이: 7.6cm, 너비: 3.7cm, 두께: 1.5cm, 무게: 57g.

66. 석재(도면 32-66, 도판 18-66)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암질은 유문암 계통이다. 원석에서 떼어낸 얇은 박편으로 가장자리 측면의 자연면을 따라 타격한 박리흔이 확인된다. 석축 등 소형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판단된다.

길이: 6.1cm, 너비: 3.5cm, 두께: 0.8cm, 무게: 25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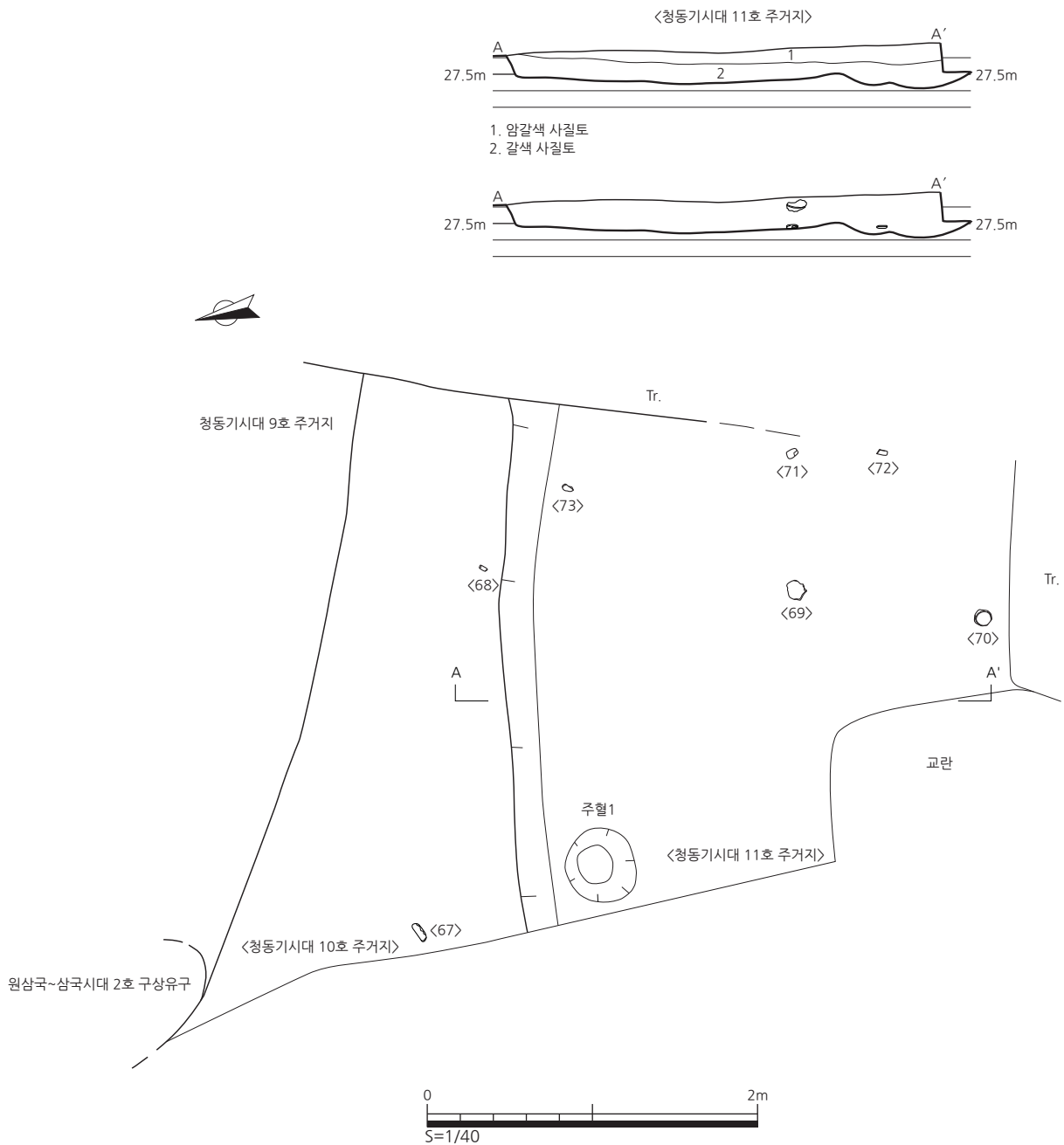
(11) 1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33, 도판 19-①)

1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c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수혈이 중복되었고 남쪽에는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10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및 11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교란으로 상부가 파괴되어 바닥면만 남아있다. 또한 주거지의 북쪽과 남쪽 부분은 중복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동쪽과 서쪽은 교란이나 Tr.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402cm, 잔존폭 217cm이다. 점질이 강한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합인석부와 석재가 출토되었다.



도면 33. 청동기시대 10호 · 11호 주거지

나. 유물

67. 합인석부(도면 34-67, 도판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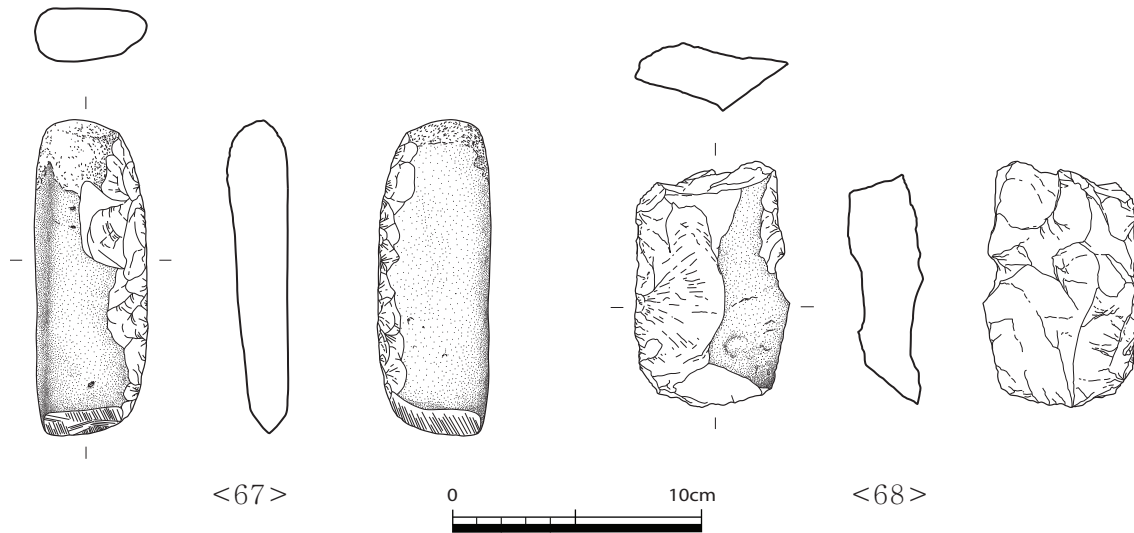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다. 신부는 원석의 자연면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측면 일부를 고타하여 두께조정 및 기형의 형성을 시도하였다. 두부는 고타하여 둥글게 다듬었으며, 인부는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정마하여 비교적 날카로운 양인의 합인을 형성하였다.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12.5cm, 너비: 4.4cm, 두께: 2.4cm, 무게: 212g.

68. 석재(도면 34-68, 도판 19-68)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측면을 돌아가며 6~9차례 타격을 진행한 박리흔과 고타하여 형태를 잡으려는 시도가 확인된다. 석부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로 보인다.

길이: 12.5cm, 너비: 6.2cm, 두께: 2.7cm, 무게: 218g.



도면 34.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

(12) 1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33, 도판 19-②~20-①)

1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 10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11호 주거지가 후축되었다.

동·서·남쪽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형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322cm, 잔존폭 321cm, 깊이 26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2개가 확인되었는데, 암갈색 사질토와 갈색 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서쪽에서 주혈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43~45cm, 깊이 12cm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과 미완성 석재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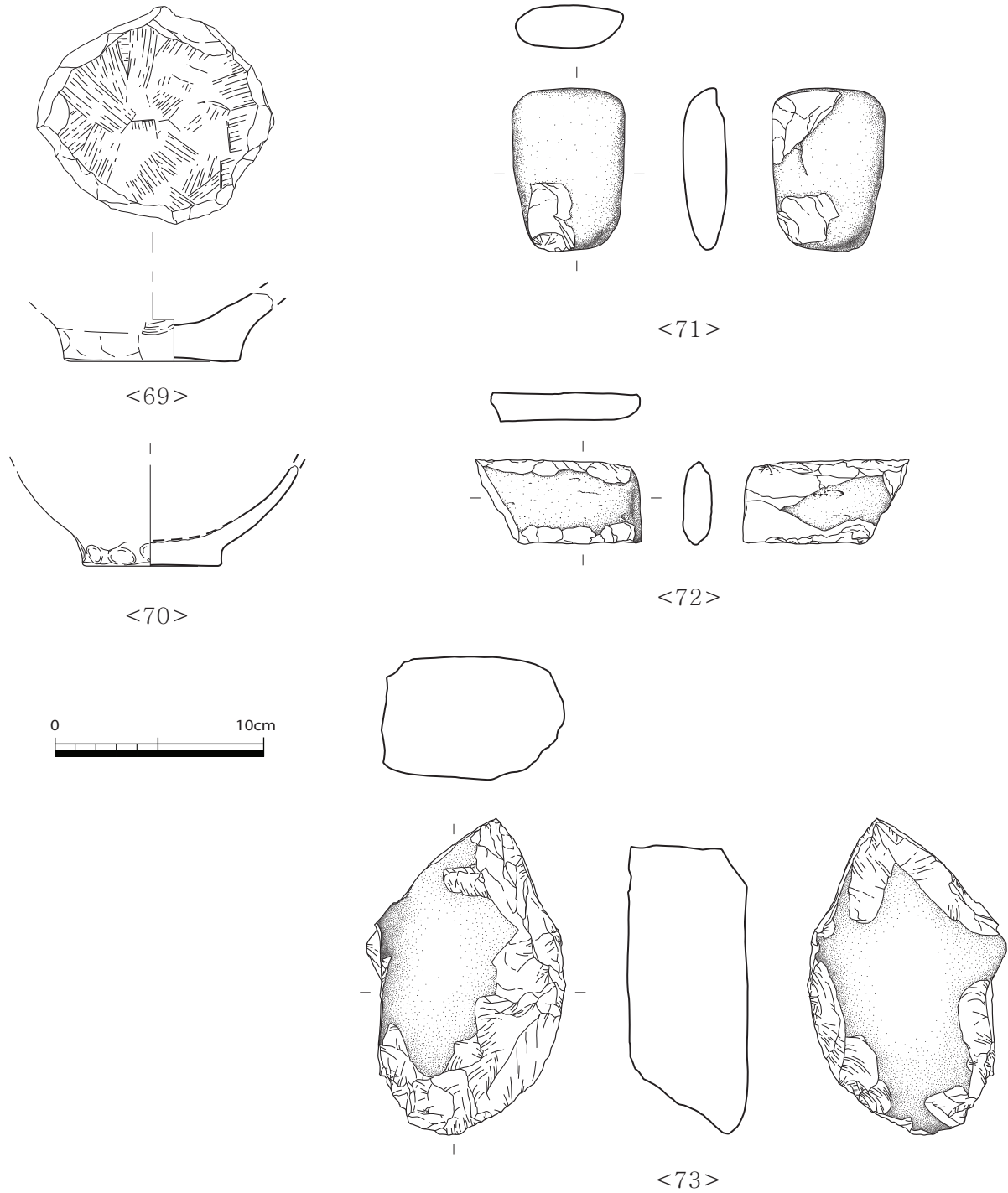
나. 유물

69.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35-69, 도판 20-69)

동체부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결실부는 의도적 타격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저면에는 생성원인이 불분명한 압흔이 있다. 저부 외면에는 박자로 추정되는 둥근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도구(목판)으로 긁어내린 목리 흔적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탁한 적갈색(2.5YR 5/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3.3cm, 지경: 8.3cm, 두께: 1.2~2.5cm



도면 35.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70.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35-70, 도판 20-70)

완 혹은 발형토기로 추정된다.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도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을 이루며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외면의 박락 정도는 중한 편이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2.5YR 6/4), 회갈색(7.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잔존높이: 4.8cm, 저경: 6.6cm, 두께: 0.45~1.6cm

71. 석재(도면 35-71, 도판 20-71)

암질은 편마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측면을 돌아가면서 4~6차례 박리를 진행한 흔적이 확인된다.

길이: 7.2cm, 너비: 3.3cm, 두께: 2.1cm, 무게: 156g.

72. 석재(도면 35-72, 도판 20-72)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얇은 판석의 가장자리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한 흔적이 확인된다. 측면 일부에는 고타한 흔적이 관찰되며, 석기의 형태를 잡는 도중에 반파되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과 후면에는 2/3이상 자연면이 잔존한다.

길이: 4.0cm, 너비: 7.8cm, 두께: 1.4cm, 무게: 68g.

73. 석재(도면 35-73, 도판 20-73)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능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가장자리 측면을 돌아가며 수십 차례 타격한 박리흔과 고타흔이 확인된다. 소형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를 얻기 위한 몸돌 내지는 석재를 타격하기 위한 고석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2/3이상 자연면이 잔존한다.

길이: 14.9cm, 너비: 9.2cm, 두께: 5.6cm, 무게: 1,136g.

(13) 13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36, 도판 21-①~23-⑤)

1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27.6m이다. 북쪽 부분에는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와 13호 수혈이 중복되었고, 동쪽 부분에는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남쪽 부분에는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6호·7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 부분에는 청동기시대 13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12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13호 주거지와 14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중복유구에 의해 북쪽·동쪽·남쪽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장축방향은 N-63°-E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806cm, 잔존폭 412cm, 깊이 24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7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으며 유수로 인해 급격히 퇴적되어 퇴적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동쪽 부분에서 주혈 5개가 불규칙적으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타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25~56cm, 깊이는 18~38cm이다.

유물은 대체로 중앙부를 기점으로 서쪽에 주로 산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물이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공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석기류는 석촉과 석기제작을 위한 석재류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74. 공열문토기 (도면 37-74, 도판 2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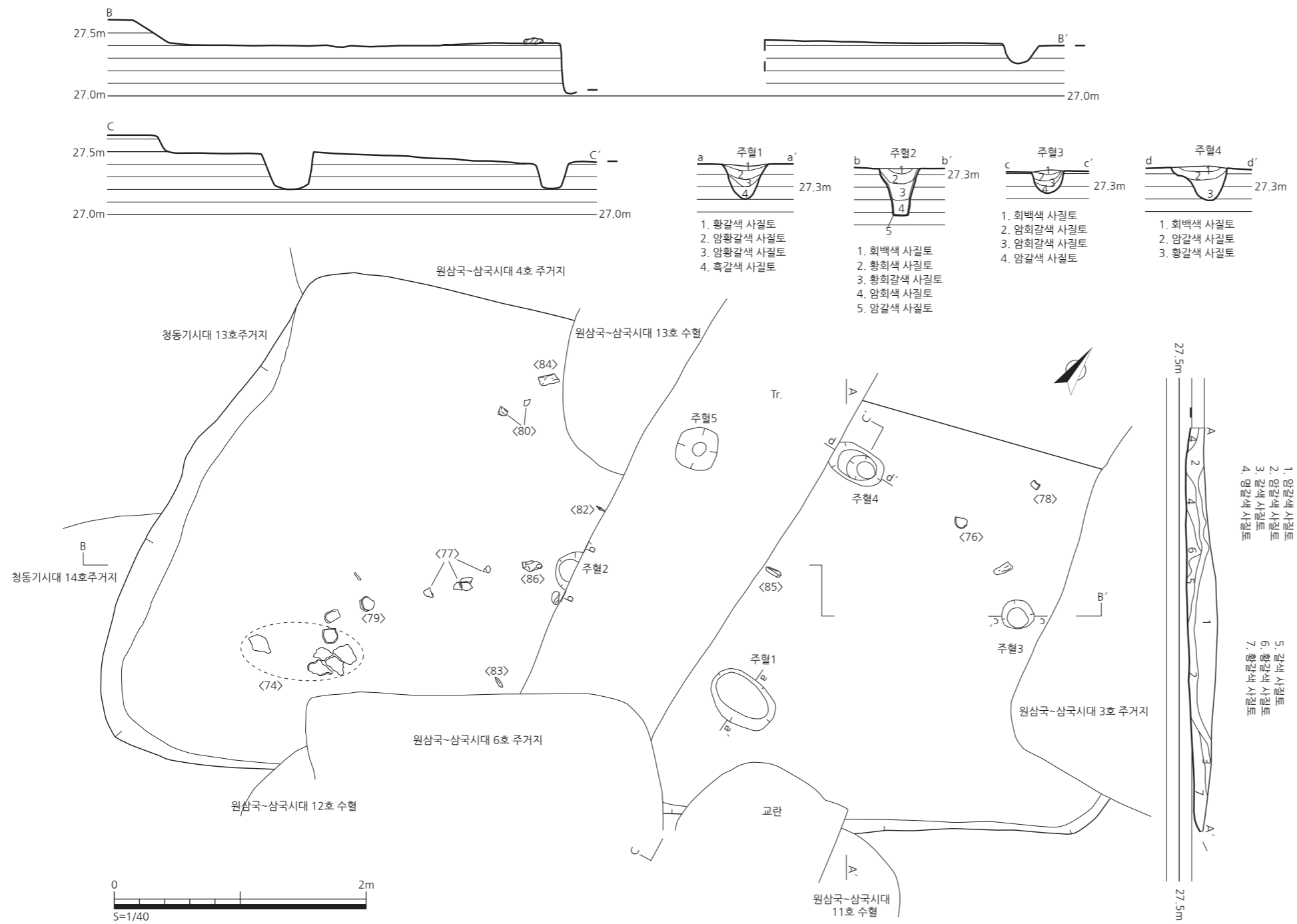
심발형토기로서 접합되지 않는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하위까지가 약 4/5 정도 잔존하는 편 1개체와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의 편 1개체가 잔존한다.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구경에 비해서 기고가 상당히 길며 측면 형태는 비대칭형의 완만한 호상으로서 저부에서부터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상향하다가 동체부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다음 내측으로 살짝 꺾여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에 가깝다. 구연에서부터 약 1.5cm 정도 아래 동체부 외면에는 외직경 약 0.7cm 정도의 반관통 상태의 구멍(孔)이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다. 구멍의 투공방향은 외면에서 내면을 향한다. 저부는 굽 형태이며 외저면은 편평하나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저부의 중앙에는 원형(圓形)의 결실면이 있는데 기면의 소성 후, 의도적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넓은 범위의 둥근 요면(凹面)이 형성되었다. 잔존부는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은 중상위를 경계로 해서 위는 매끈하게 물손질된 반면 아래는 물손질 도구에 의한 거친 조정흔적이 남아있어 비교적 분명히 구분된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기면의 산화 정도가 중한 편이며 구연에서부터 동체상부까지의 범위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훑어 내린 종방향의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동체 하부와 저부 경계 외면에는 박자 혹은 각 진 도구로 친 다각의 면이 형성되었다. 내저면에는 방사상으로 돌아가는 직상의 사방향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잔존높이: 35.8cm, 4.6cm, 복원구경: 29.2cm, 저경: 9.7cm, 두께: 0.5~2.3cm

75. 적색마연토기완 (도면 38-75, 도판 23-75)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측면은 비대칭의 호형으로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사방향으로 넓게 벌어지며 상향하다가 동체부 상위에서 꺾여 살짝 내측으로 기울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외면은 마연되었고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물손질 후 기면에는 적색의 안료가 도포되었으나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4), 내면 탁한 등색(2.5YR 6/4),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8.6cm, 복원구경: 15.8cm, 두께: 0.4~0.9cm



도면 36.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76. 적색마연토기 저부편 (도면 38-76, 도판 23-76)

완으로 추정된다. 동체부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기벽이 전체적으로 얇은 편이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저부와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외면은 마연 후 적색 안료가 도포되었다. 내면은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일부에는 직상의 물손질 도구 압흔이 관찰된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말각방형 혹은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3), 내면 적회색(10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4.0cm, 저경: 6.8cm, 두께: 0.4~1.3cm

77. 무문토기 동체부편 (도면 38-77, 도판 23-77)

발형토기로 추정되며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하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완만한 호상의 형태로 벌어진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두터운 편이며 외면의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의 아래에는 초본류 추정 압흔이 관찰되고 내면에는 거의 전면에 걸쳐 물손질 도구(목판)으로 긁어 정면한 목리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적색(2.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2.5YR 5/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9.0cm, 잔존너비: 13.3cm, 두께: 0.6~0.9cm

78.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38-78, 도판 2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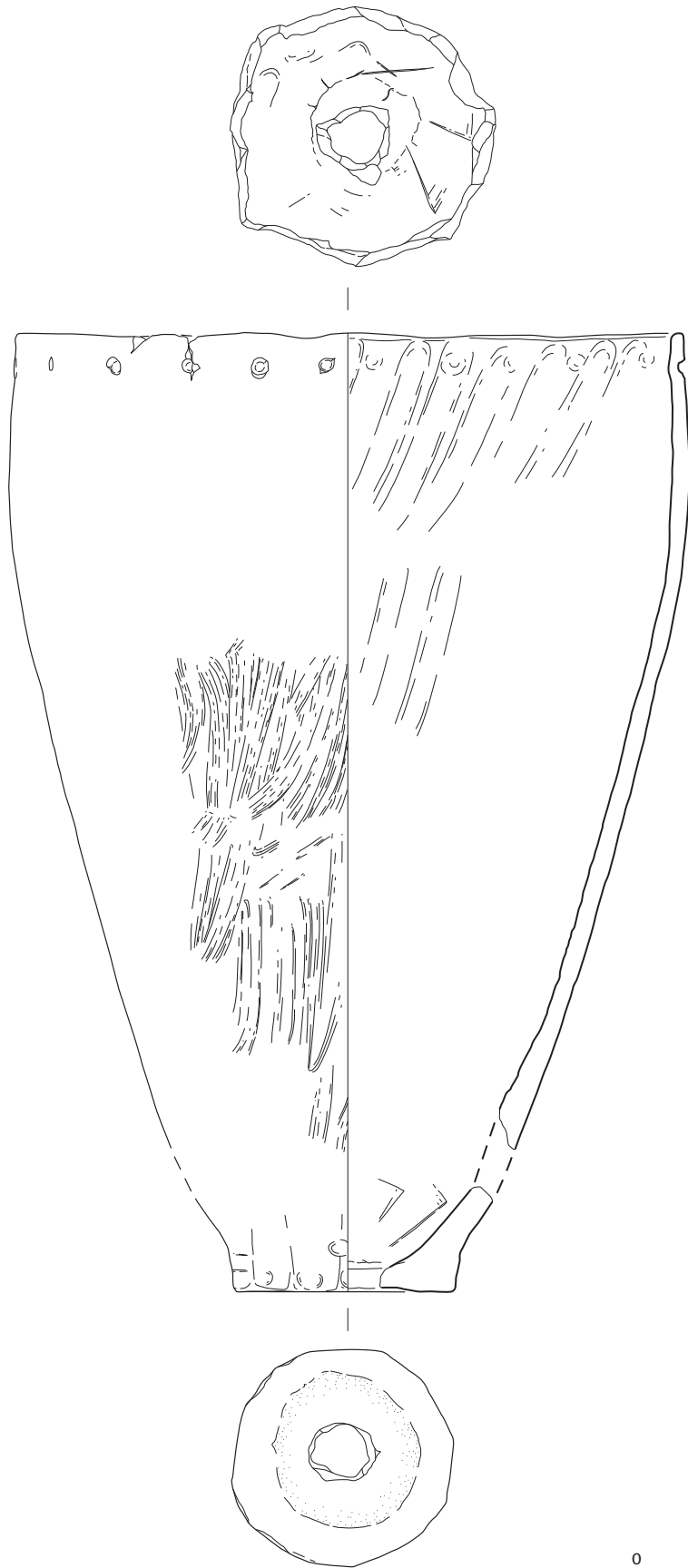
심발형 혹은 발형 토기로 추정된다.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내면의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외면의 비교적 넓은 범위가 점토로 도포되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정면 되지는 않았으며 일부에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물손질 도구 흔적이 있다. 내면은 기면의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5.8cm, 복원저경: 7.6cm, 두께: 0.9~2.3cm

79.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38-79, 도판 2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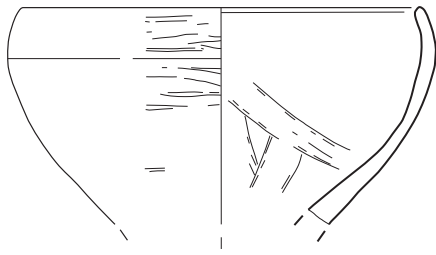
동체부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에서 이어지는 굽의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약하게 지두압흔이 형성되었으나 비교적 매끈한 편이다.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내면에는 직상(直狀)의 도구 선단부 압흔이 다수 관찰된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직경 6.0cm 정도의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4.0cm, 저경: 9.8cm, 두께: 0.3~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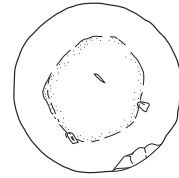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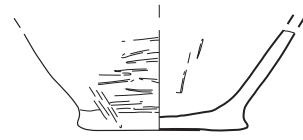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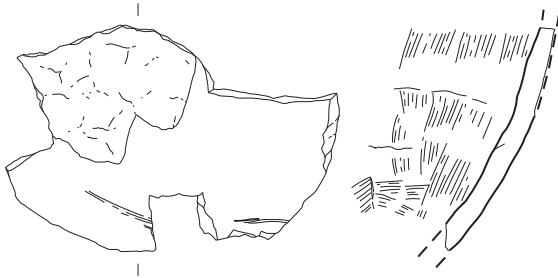
도면 37.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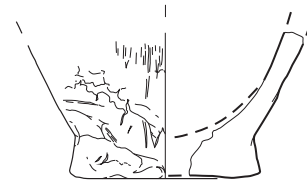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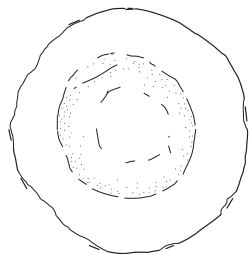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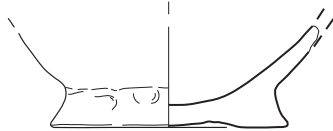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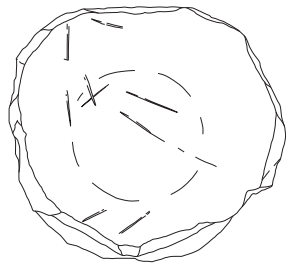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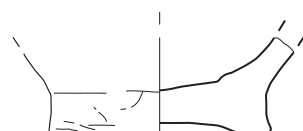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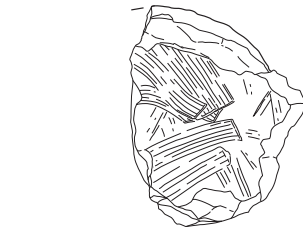
<77>



<78>



<79>



<80>



도면 38.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2

80.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38-80, 도판 24-80)

동체부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며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내저면에는 도구(목판)를 긁어 조정한 목리 흔적이 뚜렷하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3.9cm, 저경: 8.8cm, 두께: 0.1~2.9cm

81. 유경식석촉(도면 39-81, 도판 24-81)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암질은 천매암 계통이며, 석촉의 한쪽 면은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사방향으로 정마하여 기형을 만들었으며, 능은 형성되지 않았다. 신부와 경부의 단차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어진다. 인은 다소 무디게 제작되었으며, 신부와 경부의 횡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5.3cm, 너비: 1.1cm, 두께: 0.4cm, 무게: 2.4g.

82. 유경식석촉(도면 39-82, 도판 24-82)

암질은 안산암 계통이며,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다소 거칠게 정마하여 기형을 형성하였다. 신부와 경부의 경계는 직선에 가까운 단차를 두어 형성하였으며, 전면 능각은 촉두에서 두갈래로 직선으로 경부 경계까지 이어진다. 후면의 능각은 촉두에서 신부 하단부 일부까지 이어진다. 횡단면은 신부는 편육각형, 경부는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5.2cm, 너비: 1.5cm, 두께: 0.5cm, 무게: 4.0g.

83. 유경식석촉(도면 39-83, 도판 2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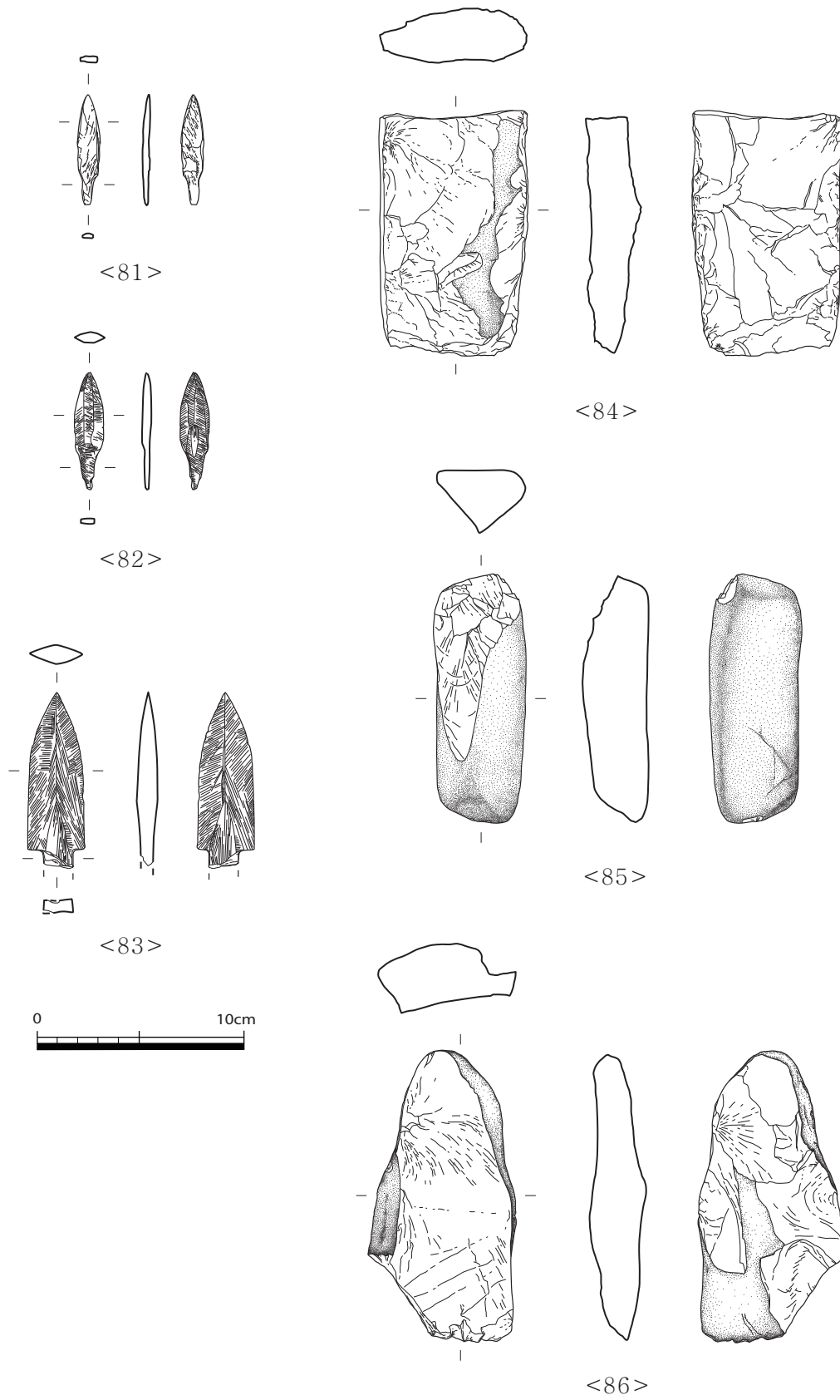
암질은 세일 계통이며, 신부를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다소 거칠게 마연하여 기형을 형성하였다. 촉두 및 신부를 재차 횡방향으로 정마하여 다소 날카롭게 다듬었다. 신부와 경부의 경계는 직각 혹은 직각에 가까운 둔각으로 단차를 두었다. 등날의 능선은 봉부에서부터 직선으로 신부의 하단부까지 이어지다 경부를 형성하기 위해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여 \wedge 상으로 굴곡지게 처리하였다. 횡단면은 신부는 능형, 경부는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8.3cm, 너비: 2.5cm, 두께: 1.0cm, 무게: 25g.

84. 석재(도면 39-84, 도판 24-84)

암질은 안산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측면을 돌아가며 크게 박리작업을 진행한 후, 신부의 한쪽 측면을 고타하여 다듬었다. 인부를 만들기 위한 박리흔이 일부 확인된다. 전면에는 일부 자연면이 남아있으며,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전체적인 상태로 볼 때 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추정된다.

길이: 11.7cm, 너비: 7.1cm, 두께: 2.5cm, 무게: 370g.



도면 39.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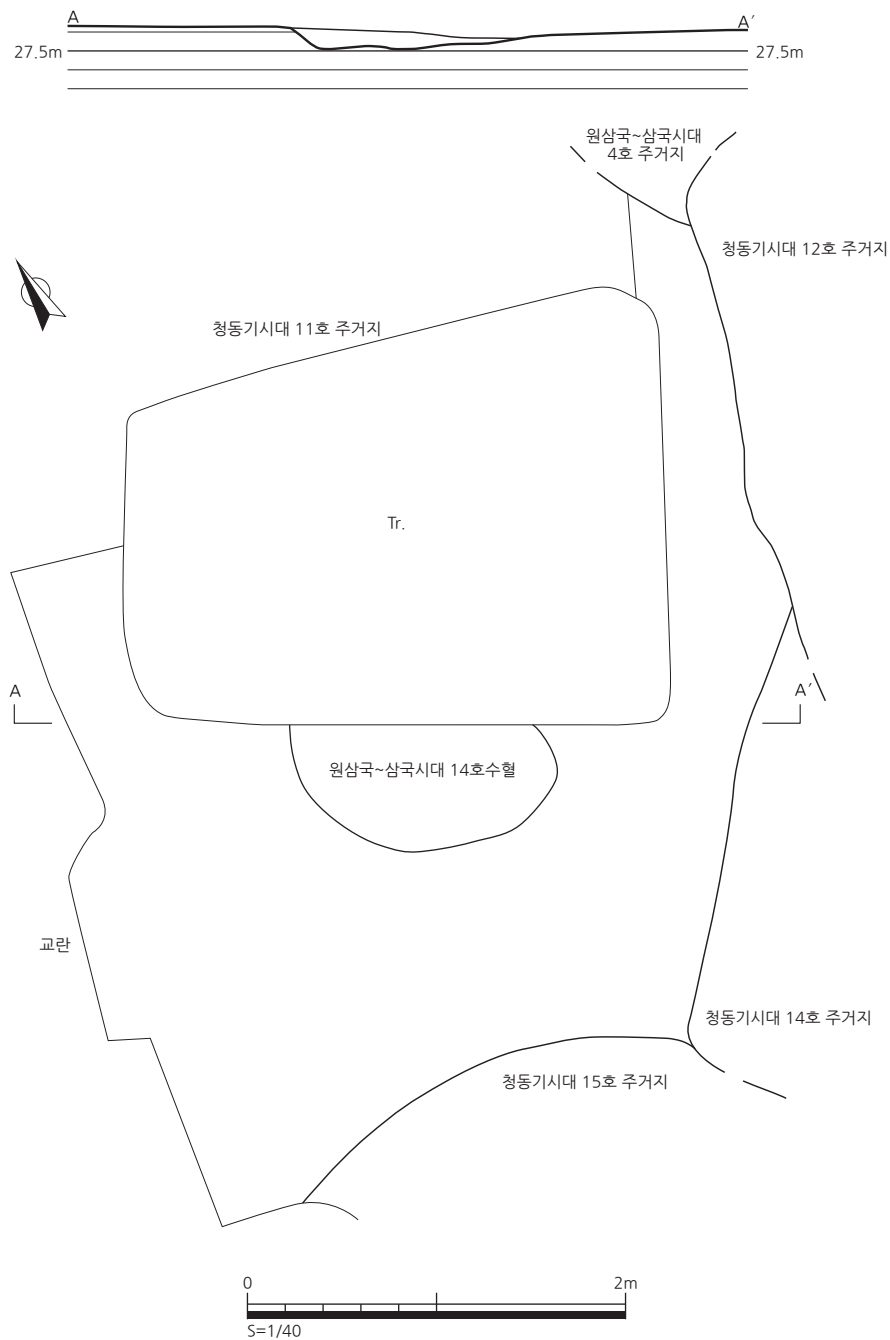
85. 석재(도면 39-85, 도판 25-85)

암질은 안산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한쪽 측면으로 집중적인 박리흔이 확인되며, 반대 측면에 고타흔이 일부 확인된다. 석기를 제작할 때 사용한 고석으로 추정된다.

길이: 11.9cm, 너비: 4.3cm, 두께: 3.1cm, 무게: 254g.

86. 석재(도면 39-86, 도판 25-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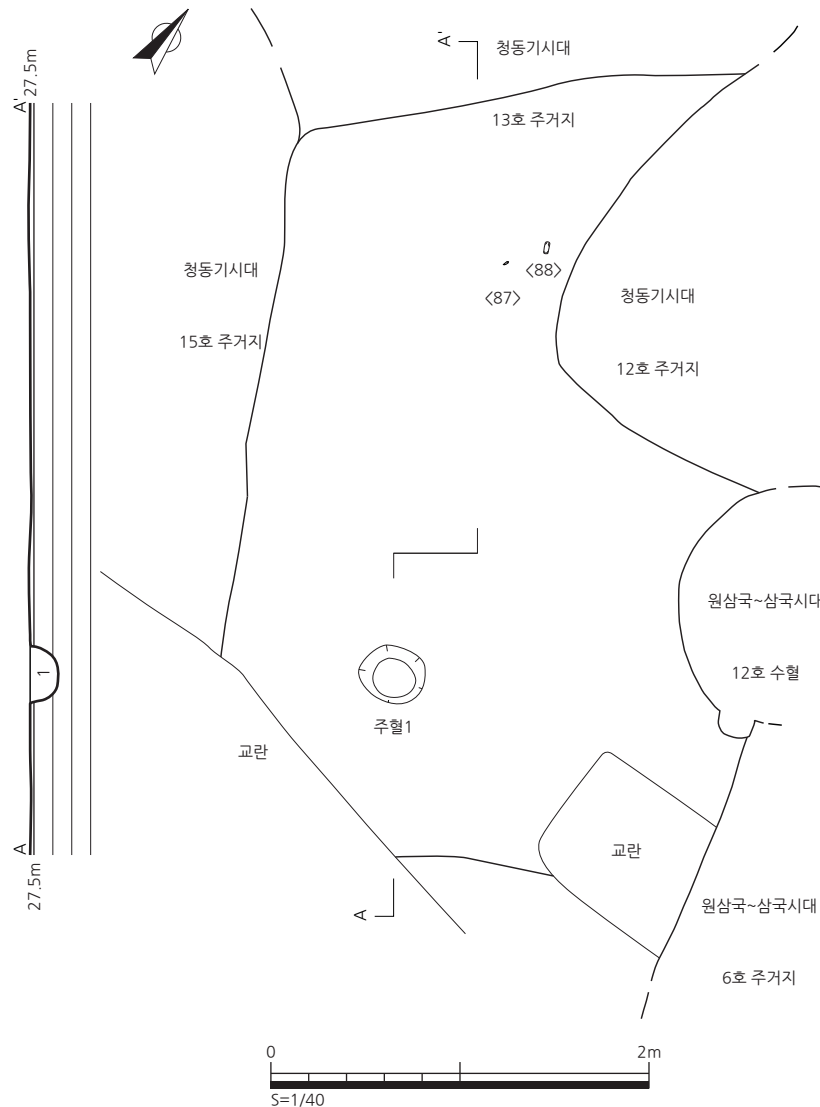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원석에서 떼어낸 대형 격지이다. 측면 가장자리의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도면 40. 청동기시대 13호 주거지

4차례 이상 박리한 흔적이 확인된다.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준비한 석재로 추정된다.

길이: 1.4cm, 너비: 6.8cm, 두께: 2.6cm, 무게: 369g.



도면 41.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14) 14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40, 도판 25-①)

1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동쪽과 남쪽에 청동기시대 6호·12호·14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청동기 13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었다. 교란에 의해 주거지 상부가 모두 파괴되어 바닥만 남아있으며 중복된 유구와 교란으로 인해 사방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주거지 규모는 잔존길이 384cm, 잔존폭 360cm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5) 15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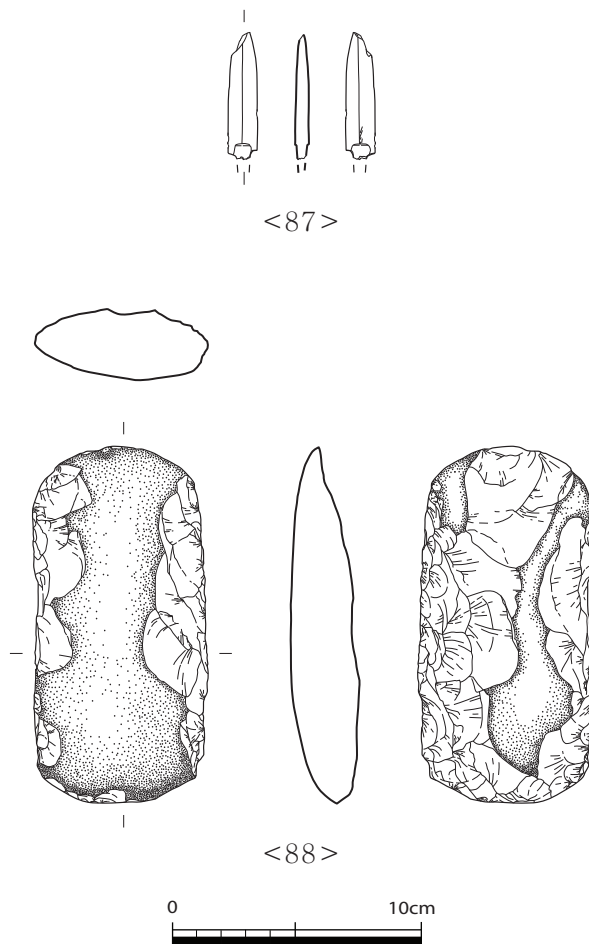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1, 도판 25-②,③)

1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27.6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12호·13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동쪽에는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와 12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14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6호·13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교란으로 인해 상부가 파괴되어 바닥면만 남아있다. 동쪽 부분은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및 12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고 남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잔존길이 423cm, 잔존폭 285cm이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남쪽 부분에서 주혈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35cm, 깊이 14cm이다.

유물은 석촉과 미완성석부가 출토되었다.



도면 42.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출토유물

나. 유물

87. 유경식석축(도면 42-87, 도판 25-87)

암질은 천매암 계통이며, 축두 일부와 경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하여 기형을 형성하였다. 신부와 경부의 경계는 둔각으로 구분하였다. 능각은 봉부에서 직선적으로 신부의 하단부까지 이어지다 경부를 형성하기 위해 횡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여 Π 상으로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신부의 횡단면은 능형에 가깝다.

길이: 5.0cm, 너비: 1.2cm, 두께: 0.5cm, 무게: 5.0g.

88. 미완성석부(도면 42-88, 도판 25-88)

암질은 조면안산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전체적인 기형을 형성하기 위해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를 진행하였으나, 전면과 후면에는 일부 자연면이 남아있다. 양측면 가장자리와 인부측면에는 기형의 형태를 잡기 위한 고타흔이 확인된다. 마연작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인부는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로 횡단면은 타원형, 종단면은 썸기형에 가까운 물방울 형태를 띤다.

길이: 14.2cm, 너비: 6.8cm, 두께: 2.8cm, 무게: 402g.

2)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43, 도판 26)

1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4~27.5m이다. 북쪽에는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서쪽에는 청동기시대 3호·4호·5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는 청동기시대 3호·4호·5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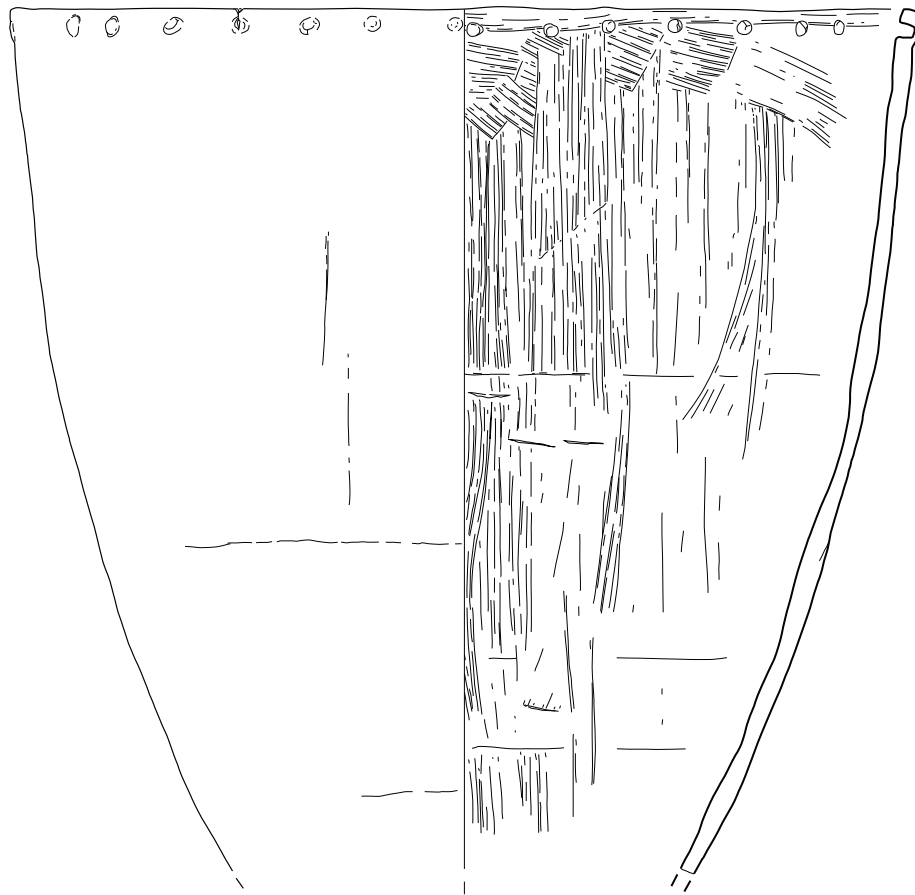
북쪽 부분은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고 남쪽 부분은 교란과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에 의해 파괴되어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의 전체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1,120cm, 잔존폭 133cm, 깊이 32cm이다. 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편평하며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2개가 확인되었다. 명갈색 사질토와 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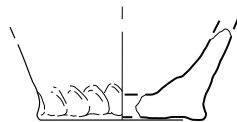
유물은 상부에서 공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43.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



<89>



<90>



도면 44.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

나. 유물

89. 공열문토기(도면 44-89, 도판 26-89)

심발형토기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가 약 3/5 정도 잔존하고 접합되지 않는 편 2개체가 잔존하는데 도상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구경에 비해서 기고가 높은 편으로서 동체부는 상당히 길며 측면은 극히 완만한 호형으로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약간 사방향으로 벌어진다. 동체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지며 구순은 납작하고 각이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약 1cm 아래의 동체부 외면에는 외직경 0.6cm 정도의 구멍(孔)이 횡방향으로 연속 배치되었다. 구멍은 관통, 반관통 상태가 혼재하며 투공방향은 내면에서 외면을 향한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은 매끈하게 정면된 반면 내면에는 도구(목판)로 긁어 내린 거친 흔적이 뚜렷하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잔존높이: 34.2cm, 복원구경: 36.0cm, 두께: 0.5~0.9cm

90.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44-90, 도판 26-90)

동체부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횡방향으로 연속된다. 기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외저면의 외연을 따라 지두로 연속해서 누른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갈회색(10YR 5/1), 내면 갈회색(7.5YR 5/1),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3.6cm, 복원저경: 6.7cm, 두께: 0.7~2.0cm

<원삼국~삼국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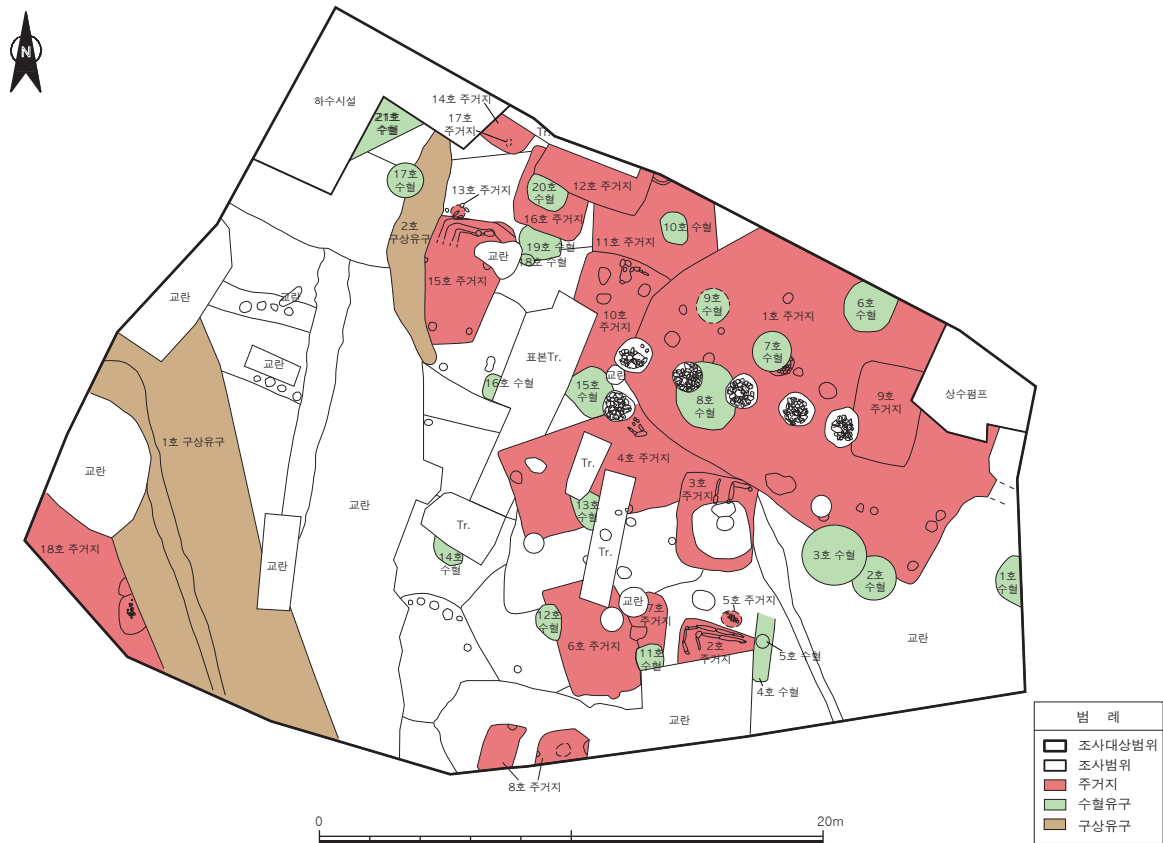
1) 주거지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유적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사방, 상하로 심하게 중복되어 있고 교란으로 상부가 파괴되어 잔존 깊이가 얇은 편이다. 평면형태는凸자형·장방형·방형 등이 확인되고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은 ‘ㄱ’자형 외줄구들과 부뚜막, 노지, 저장혈, 주혈 등이 확인된다.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46~48, 도판 27~32)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 걸쳐 있고 해발은 27.6~27.8m이다. 남쪽과 서쪽에 원삼국~삼국시대 3호·4호·10호·11호 주거지가 중복되어



도면 45. 원삼국~삼국시대 유구배치도(1:300)

있는데 1호 주거지가 가장 후축되었다. 남동쪽 부분은 현대 가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부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또한 후대에 조성된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와 2호·3호·6호·7호·8호 수혈, 조선시대 1호 건물지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1호 주거지의 주거부는 후벽이 둔각으로 꺾인 오각형이다. 출입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거지 동쪽 부분에 문지방 시설로 쓰인 석재가 남아있고 조사지역 동쪽 경계면에서 출입구 토층이 확인된다. 따라서 1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凸자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44°-W이고 규격은 잔존길이 1,512cm, 잔존폭 940cm, 깊이 120cm이다. 경계면 토층에서 확인되는 출입구의 잔존폭은 136cm이다.

암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해서 정지층을 조성하고,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조성하였다. 주거부 가장자리는 깊게 굴착해서 정지층을 두껍게 조성한데 비해, 중앙 부분은 얇게 굴착해서 정지층을 얇게 조성하였다.

내부토층은 크게 내부퇴적토층·출입구점토층·상면점토층·정지토층으로 구분되고 내부퇴적토층은 2차 퇴적토층·1차 퇴적토층·함몰토층으로 세분된다. 2차 퇴적토층은 갈색·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유구 중앙을 향해서 완만하게 경사되적 되었다. 입자가 굵고 거칠며 경도가 단단하고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괴상의 사질점토 및 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1차 퇴적토층은 암갈색·명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완만하게

경사퇴적 되었다. 입자가 굵고 거칠며 경도가 무른 편이고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얇은 사질토가 여러 겹으로 퇴적되었고 유수 및 침수에 의해 퇴적된 괴상의 사질토·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약 0.5~1cm 로 점토다짐으로 해서 단단하게 조성하였다. 주거부 가장자리는 점토다짐을 조성하지 않았고 출입구로 연결되는 주거부 동쪽 부분은 최대 4cm로 점토다짐을 한 후 다시 황갈색 점토로 점토다짐을 해서 보강하였다. 정지토층은 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는데 입자가 거칠고 매우 무르며, 두께는 최대 28cm이다. 상면점토층에서 고운 목탄흔이 확인되었다. 주거부 전면에서 확인되는데 화재흔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습기방지 등의 목적으로 상면 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부 북쪽에서는 황갈색 점토로 점토다짐을 보강한 흔적이 확인되고 부분적으로 유기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저장혈,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부 중앙에서 2개가 확인되었다. 노지1은 중도식 노지로 후벽에서 480c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길이 108cm, 폭 94cm이다. 상면에 황색 점토를 원형으로 돌린 다음 길이 10~30cm의 소형 석재를 부석하고 석재 사이에 사질토를 채워 조성하였다. 노지 주변과 바닥면은 붉은색으로 소결되었다. 노지2는 노지1에서 북쪽으로 130c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면식 노지로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직경은 66cm이다. 바닥면은 검붉게 소결되었는데 부정기적으로 사용한 임시 노지로 추정된다. 한편 주거지 북서쪽 부분에서 황색 점토와 소토가 부정형으로 확인되었다(도판30-①). 이곳은 현대 가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차 퇴적토까지 굴착된 곳으로, 부뚜막이나 ‘ㄱ’자형의 외출구들이 있었지만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장혈은 2개가 확인되었다. 저장혈1은 노지1의 남쪽에 인접해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길이 116cm, 폭 94cm, 깊이 40cm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완만한 ‘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바닥면에서 피열흔이 확인된다. 저장혈2는 남장벽의 중앙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길이 126cm, 폭 70cm, 깊이 1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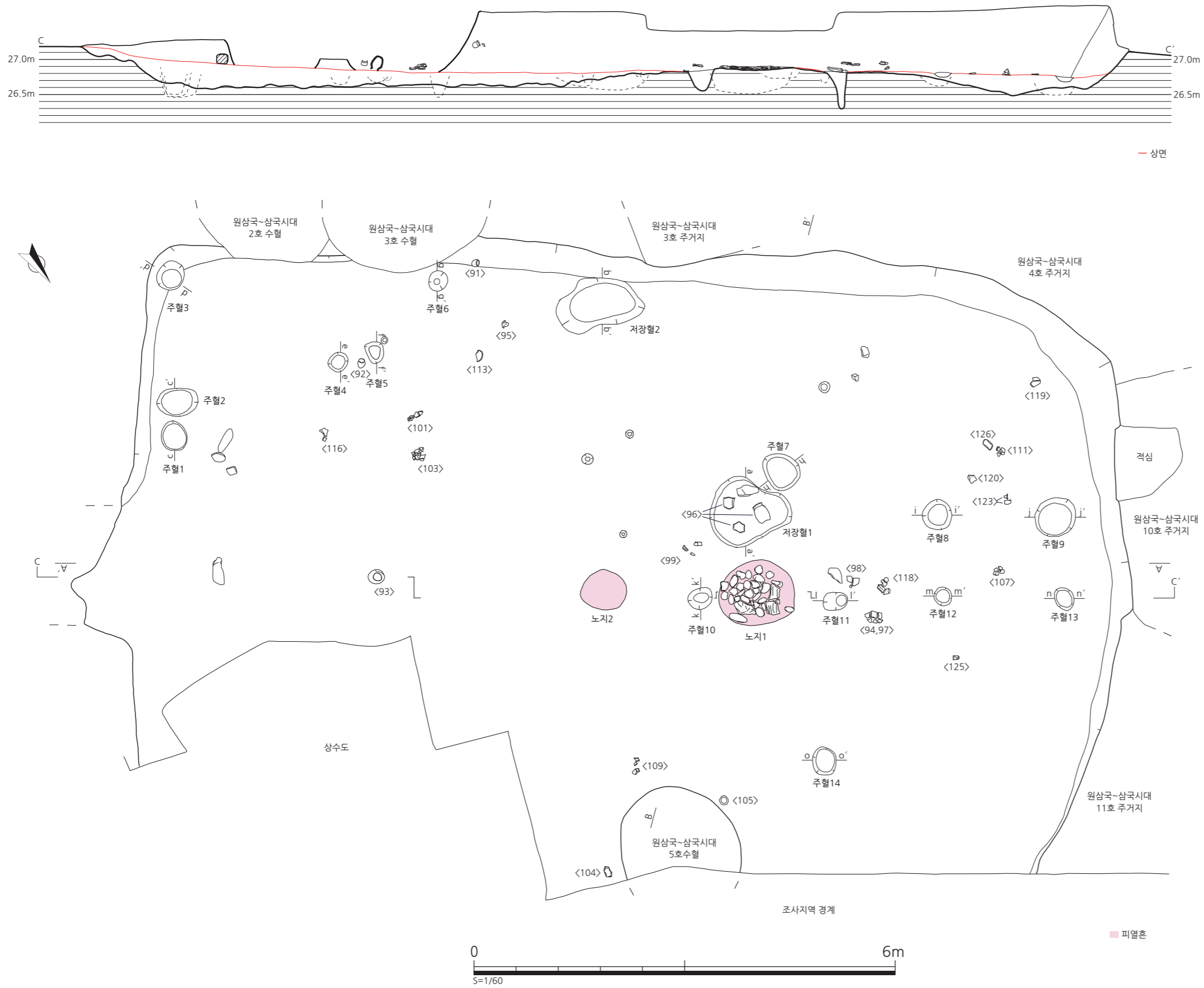
주혈은 13개가 확인되었다. 벽주(주혈1~3, 6)는 남쪽 모서리에서 4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26~58cm, 깊이 30~40cm이다. 주혈6에서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중앙주혈(주혈7~10)은 주거부 중앙~서쪽에서 확인되었다. 주거부 주축선상에 2줄로 조성되었는데 120~150c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26~58cm, 깊이 10~33cm이다. 주혈11에서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내부주혈(주혈4·5·14)은 3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20~40cm, 깊이 9~14cm이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용·발과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류는 미완성 석부와 석기 제작을 위한 석재류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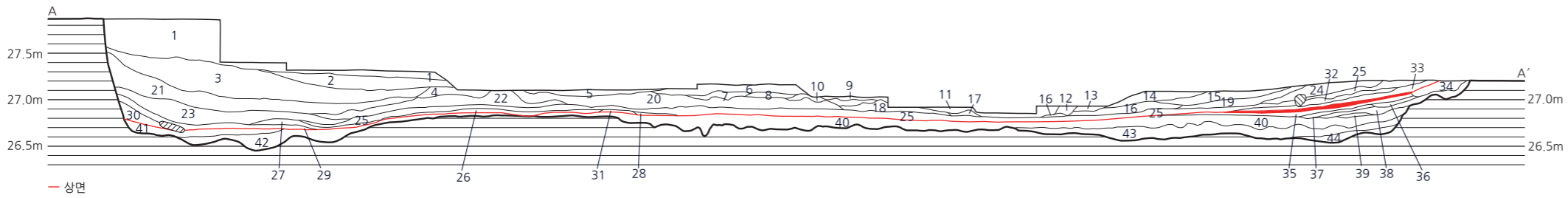
나. 유물

91. 경질무문토기발(도면 49-91, 도판 33-91)

소형에 해당하며 구연부 극히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준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 저면이 모두 편평한 편이다. 동체부 측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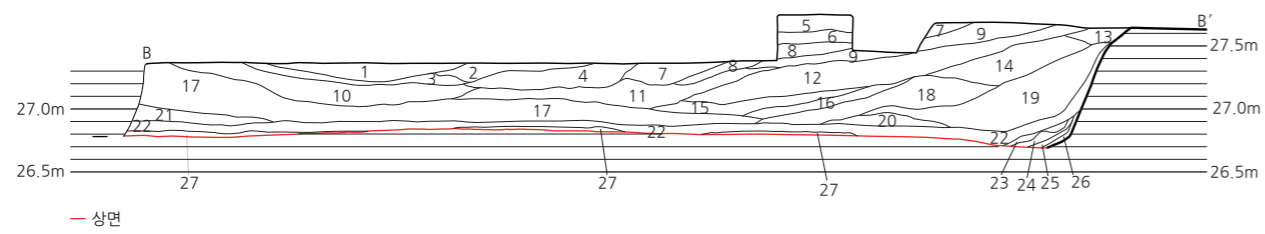


도면 46.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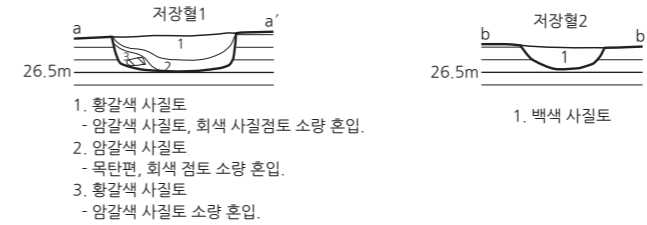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색 사질토 2. 갈색 사질토 3.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황색 사질토, 암갈색 사질점토 혼입. 4. 명갈색 사질토 - 매우 거칠고 단단함. 암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5. 암갈색 사질토 6. 갈색 사질토 7. 암갈색 사질점토 8. 암갈색 사질점토 - 황갈색, 갈색, 암갈색 사질점토 다량 혼입. 9. 명갈색 사질토 - 명갈색, 흑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10. 명갈색 사질토 - 명갈색, 흑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11.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다량 혼입. 12. 암적갈색 사질토 - 소토 다량 혼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명갈색 사질토 - 거칠고 약간 무름.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 혼입. 14. 명갈색 사질토 - 거칠고 약간 무름.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 혼입. 15. 명갈색 사질토 - 거칠고 약간 무름.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 혼입. 16. 명갈색 사질토 - 거칠고 약간 무름.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 혼입. 17. 암갈색 사질토 - 소토 다량 혼입. 18. 명갈색 사질토 - 약간 무름. 19. 명갈색 사질토 - 거칠고 약간 무름. 암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점토 소량 혼입. 20. 황갈색 사질점토 - 약간 무름. 21. 갈색 사질토 - 어둡고 입자 매우 고운. 목탄편 다량 혼입. 22. 황갈색 사질토 - 매우 거칠고 단단함. 23. 갈색 사질토 - 어두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 명갈색 사질토 25. 암갈색 사질점토 26. 흑갈색 사질토 - 재층. 입자 매우 고운. 27. 황색 사질토 - 거칠고 매우 무름. 목탄편 다량 혼입. 백색, 암갈색 사질점토 다량 혼입. 28. 암갈색 사질점토 29. 암갈색 사질점토 - 황색 사질토 다량 혼입 30. 암갈색 사질토 - 어둡고 입자 고운. 31. 적갈색 사질토 - 소토층. 32. 황갈색 사질점토 - 출입구 점토층. 33. 암갈색 사질토 - 출입구 점토층. 황갈색 점토 소량 혼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 황갈색 사질토 35. 암갈색 사질토 - 황색 사질토 다량 혼입. 소토 다량 혼입. 36. 갈색 사질점토 - 황색 사질토 다량 혼입. 소토 다량 혼입. 37. 암갈색 사질토 38. 암갈색 사질토 - 황색 사질토 다량 포함. 소토 다량 혼입. 39. 황색 사질토 + 암갈색 사질토 40.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회색, 황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41. 황갈색 사질토 - 거칠고 매우 무름. 42. 황갈색 사질토 43. 황갈색 사질토 44. 황갈색 사질토 |
|--|---|--|---|

2차 퇴적토층 : 1~2
 1차 퇴적토층 : 3~30
 함몰토층 : 31
 출입구점토층 : 33
 정치토층 : 3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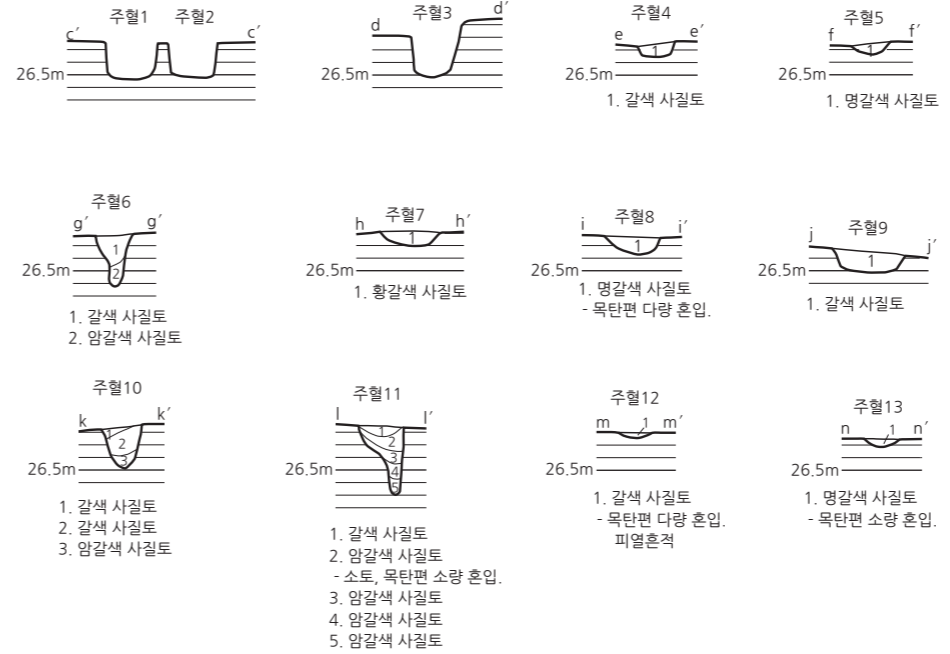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암갈색 사질점토 - 어둡다. 목탄편 다량 혼입. 2. 암갈색 사질점토 - 어둡다. 1층보다 밝다. 목탄편 다량 혼입. 3.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혼입. 황색사질토 소량 혼입. 4. 갈색 사질토 5. 갈색 사질토 6. 갈색 사질토 7. 황갈색 사질토 - 황색점토 및 사질토 다량 혼입. 8. 갈색 사질토 - 9. 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10. 황갈색 사질점토 - 약간 무름. 11. 암갈색 사질토 12. 갈색 사질토 - 암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13. 갈색 사질토 14. 갈색 사질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갈색 사질토 - 황갈색, 암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16. 갈색 사질토 - 15층보다 어둡다. 황갈색, 암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17. 황갈색 사질점토 - 약간 무름. 18. 암갈색 사질토 19. 갈색 사질토 - 어둡다. 20. 백색 사질토 21. 황갈색 사질점토 - 약간 무름. 22. 암갈색 사질점토 23. 암갈색 사질토 24. 암갈색 사질토 25. 암갈색 사질토 26. 암갈색 사질점토 27. 암갈색 사질점토 - 재층. 목탄편 다량 포함 |
|---|--|

2차 퇴적토층 : 1~9
 1차 퇴적토층 : 10~22
 함몰토층 : 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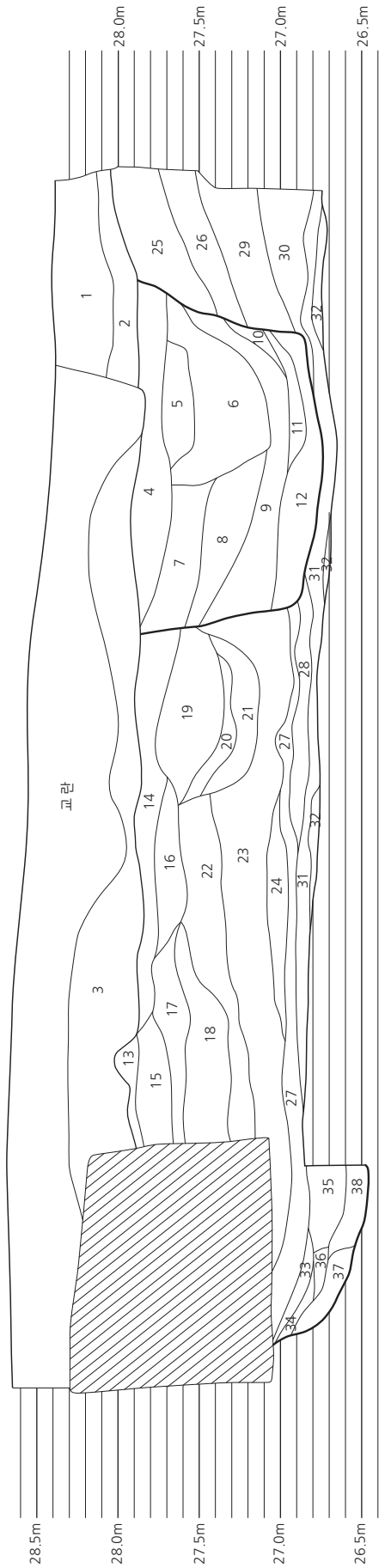
- 저장혈1
- 1. 황갈색 사질토 - 암갈색 사질토, 회색 사질점토 소량 혼입.
 - 2.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회색 점토 소량 혼입.
 - 3. 황갈색 사질토 - 암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 저장혈2
- 1. 백색 사질토



- 주혈1
- 1. 갈색 사질토
- 주혈2
- 1. 명갈색 사질토
- 주혈3
- 1. 갈색 사질토
- 주혈4
- 1. 갈색 사질토
- 주혈5
- 1. 명갈색 사질토
- 주혈6
- 1. 갈색 사질토
 - 2. 암갈색 사질토
- 주혈7
- 1. 황갈색 사질토
- 주혈8
- 1.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 주혈9
- 1. 갈색 사질토
- 주혈10
- 1. 갈색 사질토
 - 2. 갈색 사질토
 - 3. 암갈색 사질토
- 주혈11
- 1. 갈색 사질토
 - 2. 암갈색 사질토 - 소토, 목탄편 소량 혼입.
 - 3. 암갈색 사질토
 - 4. 암갈색 사질토
 - 5. 암갈색 사질토
- 주혈12
- 1. 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피열흔적
- 주혈13
- 1.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도면 47. 원삼국~삼국시대 1호 기준토층



도면 48.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부쪽 경계토층

<조선시대 문화층>

- 1. 황갈색 사질토
- 2. 암갈색 사질토
- 3. 암황갈색 사질토
- 소토 소량 혼입.

<원삼국~삼국시대 5호 수혈>

- 4. 암황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5. 황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6. 황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7. 암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8.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9. 황적갈색 사질토 - 목탄편 및 소토 소량 혼입.
- 10. 암황색 사질토
- 11. 암황색 사질토
- 12. 암황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 13. 회백색 사질토
- 14. 황색 사질토
- 15. 황색 사질토
- 16. 황갈색 사질토
- 17. 황색 사질토
- 18. 암황갈색 사질토
- 19. 암황갈색 사질토
- 20. 황색 사질토
- 21. 갈색 사질토
- 22. 암적갈색 사질토
- 23. 암회갈색 사질토
- 24. 황적갈색 사질토
- 25. 암황갈색 사질토
- 26. 황회갈색 사질토
- 27. 암갈색 사질토
- 28. 황적갈색 사질토
- 29. 암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및 소토 소량 혼입.
- 30. 암황색 사질토
- 31. 암적갈색 사질토
- 32. 황색 사질토
- 33. 암회갈색 사질토
- 34. 암회갈색 사질토
- 35. 암황갈색 사질토
- 36. 암갈색 사질토
- 37. 암황갈색 사질토
- 38. 흑갈색 사질토

호형(弧形)이고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짧게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외면 일부에는 성형 후 다시 점토를 덧바른 흔적이 있으며 그 위로는 거친 정면 및 점토와 석립이 밀려난 흔적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된 편이며 동체부에서 저부로 이어지는 넓은 면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종방향으로 내려 그은 지두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횡방향으로 연속된다. 외저면에는 생성원인 불명의 흔적과 함께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회갈색(5YR 6/2), 내면 탁한 등색(5YR 6/4)이다.

높이: 8.0cm, 구경: 10.5cm, 저경: 6.5cm, 두께: 0.5~1.1cm

92. 경질무문토기호(도면 49-92, 도판 33-92)

경부가 비교적 발달한 소형의 기종으로서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준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둥근 형태이고 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한다.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약간 사방향으로 곧게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동체부 외면의 박락 정도가 중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내려 그은 찰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으며 경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된 가운데 일부에는 직상(直狀)의 목판 선단부 압흔이 형성되었다. 저부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횡방향으로 연속되며 내저에는 점토가 도포된 흔적이 있다. 외저면에는 생성원인과 형태가 불분명한 작은 압흔이 있으며 외저의 가운데 비교적 넓은 범위에는 미미하지만 압에 의한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갈회색(7.5YR 5/1),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높이: 9.3cm, 구경: 7.8cm, 저경: 6.8cm, 두께: 0.4~1.4cm

93. 경질무문토기옹(도면 49-93, 도판 33-93)

구연부를 포함한 부분적인 결실이 있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외면의 박락 정도가 다소 중한 편이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弧形)이고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가 비교적 발달된 형태로서 다소 긴 편이며 측면은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약간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연결된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에는 끈 혹은 포로 추정되는 횡방향의 압흔 다수가 부분적으로 겹쳐있다. 동체부 외면에는 물손질도구(목판)를 종사방향으로 굽어내린 거친 흔적이 뚜렷하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에는 횡방향 물손질 흔적이 뚜렷하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면 위·아래의 범위 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흔적과 함께 압에 의한 직경 약 7.0cm 정도 범위의 둥근 요면이 약하게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탁한 등색(7.5YR 7/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높이: 23.4cm, 구경: 16.2cm, 저경: 10.8cm, 두께: 0.45~2.4cm

94. 경질무문토기옹(도면 49-94, 도판 33-94)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부를 포함한 각 부위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접합되지 않는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 1개체를 포함한 2점이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弧形)으로서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짧은 편으로 사방향으로 외반하며 구순은 다소 뾰족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외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거친 정면 흔적이 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 동체 상부와 중상위 경계 외면에는 끈 혹은 목판의 선단부로 추정되는 횡방향의 압흔이 형성되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저부 외면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일부 잔존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높이: 19.7cm, 복원구경: 18.6cm, 저경: 8.3cm, 두께: 0.4~2.1cm

95. 경질무문토기옹(도면 49-95, 도판 34-95)

동체부가 좁고 길다. 경부가 발달했으며 견부가 돌출된 형태로서 전반적으로 다소 특이한 편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구경에 비해서 동최대경이 좁아 전체적으로는 세장한 느낌이다. 동체부 측면은 아주 완만한 호상(弧狀)의 형태로 벌어지며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한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는 둥글게 꺾이며 돌출된 견부를 이룬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길게 외반하고 경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구순은 뾰족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그 이하에는 종방향으로 내려 그은 흔적이 형성되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끈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댄 횡방향의 압흔 다수가 있으며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 하부 외면에는 점토를 덧바른 흔적이 있다. 저부 외면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적갈색(2.5YR 5/4),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높이: 25.0cm, 구경: 13.3cm, 저경: 8.6cm, 두께: 0.3~2.5cm

96. 경질무문토기옹(도면 49-96, 도판 34-96)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 이하까지가 약 3/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세장한 편이며 측면이 완만한 호형(弧形)으로서 중상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에는 모두 횡방향 물손질 흔적이 뚜렷하며 동체부 상위에서부터 중위 이하까지의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으나 그 아래로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거친 정면 흔적이 남아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 그리고 동체부 상위 외면에는 끈으로 추정되는 횡방향 압흔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지두 흔적이 형성되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갈회색(5YR 4/1), 회갈색(5YR 5/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27.9cm, 복원구경: 21.0cm, 두께: 0.45~1.1cm

9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도면 50-97, 도판 34-97)

외반구연용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잔존 동체부 측면은 호형으로 중상위에서 꺾여 내측으로 기울어지며 경부는 사방향으로 외반하고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에 가깝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경부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찍힌 직상(直狀)의 도구 선단부 압흔이 연속된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짧게 내려 그은 다수의 정면 흔적이 있으며 그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동체부 내·외면 모두 다소 거칠게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에는 도구(목판)로 긁어내린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갈회색(10YR 5/1),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9.7cm, 복원구경: 16.0cm, 두께: 0.6~1.2cm

98.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0-98, 도판 34-98)

외반구연용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 1/4 정도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 외면의 상당 부분은 박락되었는데 기면은 점성이 있는 상태에서 포와 같은 면이 있는 물체를 댄 후 굳기 직전에 걷어내었을 때의 양상과도 유사하다. 잔존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이고 경부는 사방향으로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경부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과 함께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경부에서 이어지는 동체 상부 내면에는 박자로 추정되는 원형의 압흔이 관찰되며 동체부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8.5cm, 복원구경: 19.2cm, 두께: 0.4~0.85cm

99.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0-99, 도판 34-99)

외반구연용 혹은 심발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호형이고 경부는 동체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직상(直狀)의 도구 압흔이 약하게 형성되었다. 경부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있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과정에서 지두를 종방향으로 훑어 내렸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회황갈색(10YR 6/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5.5cm, 복원구경: 11.2cm, 두께: 0.5~0.85cm

100.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0-100, 도판 34-100)

외반구연용에 해당하며 경부가 다소 짧은 편이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완만한 호형이고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경부 내·외면은 모두 횡방향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동체부 내·외면도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물손질 도구(목판)의 조정 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잔존높이: 7.2cm, 잔존너비: 10.6cm, 두께: 0.6~0.95cm

10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0-101, 도판 34-101)

외반구연용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경부 외면의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물손질 도구 압흔으로 추정되는 완만한 호상(弧狀)의 선문 다수가 분포한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5YR 5/2), 적회색(2.5YR 4/1),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5.6cm, 잔존너비: 9.6cm, 두께: 0.6~0.8cm

102.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0-102, 도판 34-102)

외반구연용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호형이고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다소 뾰족한 형태이다. 외면의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목판을 사방향으로 긁어내린 흔적이 선명하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11.2cm, 잔존너비: 9.1cm, 두께: 0.4~1.1cm

103. 경질무문토기편(도면 50-103, 도판 34-103)

심발 또는 호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접합되지 않는 경부에서부터 동체부 중위까지의 편 1개체와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의 편 1개체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외면의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의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이고 경부는 약간 사방향으로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경부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동체 하부와 저부 외면에는 박자 혹은 목판으로 추정되는 직상(直狀)의 도구로 타날한 흔적이 있다. 경부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으며

경부 직하의 동체부 내면에는 점토 접합부가 박락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도 점토를 덧바른 흔적이 있으며 그 위는 중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방형에 가까운 극히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탁한 등색(5YR 6/3), 회갈색(5YR 5/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10.1cm, 8.9cm, 저경: 9.8cm, 두께: 0.55~2.4cm

104.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50-104, 도판 35-104)

외반구연용으로 추정된다. 경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동체 상부에서부터 중위 이하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호형이고 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한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지두를 중방향으로 훑어 내린 흔적이 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점토 조임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갈회색(7.5YR 5/1), 내면 회갈색(5YR 6/2),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12.0cm, 복원동최대경: 14.2cm, 두께: 0.6~1.1cm

105.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05, 도판 35-105)

동체 하부 일부를 포함한 저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내저면은 점토로 넓게 도포되었으며 해당부위는 부분적으로 박락되었다. 저부와 동체부의 경계 외면에는 지두와 함께 도구로 누른 흔적이 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구(목판)로 훑어 내린 거친 정면 흔적이 관찰된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극히 완만한 양상의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5/1),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4.0cm, 저경: 9.4cm, 두께: 1.1~2.1cm

10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06, 도판 35-106)

동체 극히 일부를 포함한 저부가 잔존하며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평저에 가까우며 내·외 저면은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저부는 저판 위로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였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와 저부 경계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다수 형성되었고 저면 일부에는 손톱(爪) 흔적이 있다. 외저면에는 초분류로 추정되는 흔적과 목판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극히 완만한 양상의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3.1cm, 저경: 11.2cm, 두께: 0.9~1.65cm

10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07, 도판 35-107)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의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 측면은 완곡면을 그리며 사방향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 외면에는 지두와 함께 목판의 선단부로 추정되는 ‘∠’ 형태의 압흔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다. 외저면에는 압에 의한 넓고 완만한 양상의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4.8cm, 저경: 8.5cm, 두께: 0.9~1.7cm

108.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08, 도판 35-108)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며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기면이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에는 도구(목판) 선단부로 추정되는 직상(直狀)의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갈회색(7.5YR 5/1),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5.5cm, 저경: 8.5cm, 두께: 1.1~2.8cm

109.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09, 도판 35-109)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 극히 일부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며 저부는 낮은 굽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목판으로 굽어내린 사방향의 흔적과 목판 타날 및 직상(直狀)의 도구 선단부 압흔이 비교적 선명하게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6.2cm, 복원저경: 8.2cm, 두께: 0.7~1.7cm

110.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10, 도판 35-110)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의 저면은 모두 편평하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물손질 도구에 의한 찰흔이 형성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직상(直狀)의 사방향 압흔이 관찰된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원형 혹은 말각방형의 비교적 깊은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4.4cm, 저경: 8.2cm, 두께: 0.6~1.7cm

11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11, 도판 35-111)

동체부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거의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저부와외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외저면의 가장자리에는 동체부 물손질 과정에서 아래로 밀린 점토가 도포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내저에는 다수의 지두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5.4cm, 저경: 7.6~7.9cm, 두께: 0.8~1.8cm

11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1-112, 도판 35-112)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 일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원형의 비교적 깊은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3),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6.5cm, 저경: 7.2cm, 두께: 0.7~2.0cm

113. 호(도면 52-113, 도판 35-113)

소형의 직구호 또는 직구단경호와 유사한 형태이나 경부 길이가 동체부에 비해 다소 긴 편이다. 구연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전체에서 약 1/2 정도 이하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둥근 형태이나 상단부가 눌러 약간 편형(扁形)을 이루며 저부 형태는 원저이나 접지면이 눌러 다소 편평하다. 경부는 약간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연부는 외면이 살짝 둥글게 돌출되었고 구순은 뾰족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의 외면에는 격자문 박자가 타날되었으며 상당 부분이 물손질로 지워졌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는데 동체부 중위를 경계로 해서 위는 횡방향으로 고르게 정면된 반면 아래는 다소 거칠게 조정되었다. 내면에는 약 2.0cm 단위의 점토띠 접합흔과 원형의 박자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갈회색(10YR 5/1),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높이: 11.1cm, 복원구경: 8.9cm, 두께: 0.35~0.8cm

114. 호(도면 52-114, 도판 36-114)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상위까지의 편이 약 1/2 이상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호형이고 경부는 동체부와외의 경계에서

다소 길게 내측으로 꺾여 이어지며 구연부는 짧게 외반한다. 구순은 요철구순으로서 구연부 상면 중앙에 1조의 요선이 돌아가고 외연은 다소 뾰족한 형태로 돌출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모두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평행선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동체부 내면에는 사방향의 타원형 박자 압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7.0cm, 복원구경: 11.6cm, 두께: 0.4~0.7cm

115. 호(도면 52-115, 도판 36-115)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내측으로 기울어져 극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지고 경부는 약간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진다. 구연부는 직각에 가깝게 외반하며 구순은 외연의 중위에 요선 1조가 있는 이른바 '요철구순'의 형태이다. 구연부와 경부 내면의 반전 각도 역시 거의 직각에 가깝고 구연부 상면은 납작하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모두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비교적 조밀하게 추가된 평행선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회전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점토피 접합흔과 함께 지두 압흔이 약하게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5.8cm, 복원구경: 15.2cm, 두께: 0.5~0.7cm

116. 호(도면 52-116, 도판 36-116)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편이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下)과 연질(下上)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극소량 혼입(下)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내측으로 기울어져 다소 곧게 이어지며 경부는 완만한 호형으로 벌어지다가 구연부 근경에서 크게 외반한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로서 구연부 상면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는 아주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비교적 조밀하게 추가된 평행선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동체부 내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부분적으로 점토피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7.5YR 5/1),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8.2cm, 복원구경: 18.4cm, 두께: 0.6~1.1cm

117. 호(도면 52-117, 도판 36-117)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 극히 일부까지가 잔존한다. 중경질(中)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경부 측면은 호형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는 경부와의 경계에서 살짝 외반한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에는 점토피 접합흔이

다수 관찰되고 동체부에는 박자 압흔이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7.4cm, 잔존너비: 11.5cm, 두께: 0.55~0.85cm

118. 호(도면 52-118, 도판 36-118)

경부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내측으로 기울어지며 상향하고,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약간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경부 외면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갈회색(7.5Y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6.1cm, 두께: 0.6~0.8cm

119. 호(도면 52-119, 도판 36-119)

호에 해당하며 동체 상부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호형을 이루며 내측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와 동체부 경계면에는 점토 접합흔과 지두 압흔이 있으며 동체부에는 약하게 형성된 등근 박자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10.2cm, 잔존너비: 13.5cm, 두께: 0.45~0.75cm

120. 호(도면 53-120, 도판 36-120)

저부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되었다. 저부 형태는 완만한 곡면의 원저이나 접지면은 눌러 다소 편평하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으로 추정되는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원형의 박자 압흔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갈회색(10YR 5/1), 내면 회황갈색(10YR 6/2), 갈회색(10Y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3.4cm, 두께: 1.05~1.5cm

121. 타날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3-121, 도판 36-121)

장란형토기나 시루로 추정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는 다소 세장한 형태로 추정되며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크게 벌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며 구연부 상면에는 넓고 완만한 양상의 요면이 형성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고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내면 탁한 등색(5YR 6/3), 회황갈색(10YR 6/2), 속심 탁한 등색(5YR 6/3)이다.
잔존높이: 6.5cm, 복원구경: 27.7cm, 두께: 0.5~0.65cm

122. 타날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3-122, 도판 36-122)

장란형토기 혹은 시루로 추정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구경과 동최대경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부 측면은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아주 살짝 내측으로 기울어지며 거의 곧은 형태로 상향하고 경부는 호형으로 구연부를 향해 벌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나 가운데에 회전에 의한 요선이 형성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된 가운데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에는 횡방향 회전물손질, 그 아래로는 종방향의 물손질 흔이 형성되었다. 경부 외면에는 원형의 박자 압흔이 약하게 관찰되고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점토 접합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6.3cm, 복원구경: 23.1cm, 두께: 0.6~0.8cm

123. 타날문토기 파수부편(도면 54-123, 도판 3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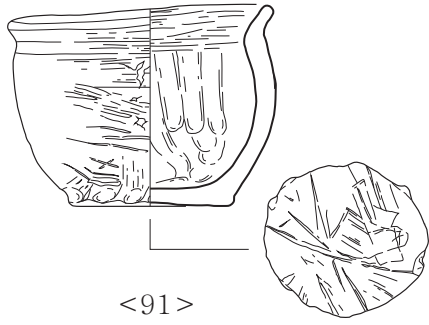
동이 혹은 시루로 추정되며 파수부 1개체가 부착된 동체부 편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上)되었다. 파수의 평면형태는 우각형이나 말단부가 깎여 편면을 이루며 전체적인 길이가 다소 짧은 편이다. 단부 외면에는 생성원인이 불분명한 장방향의 압흔이 있다. 파수는 기 성형 후 동체부 외면에 대고 접합하였으며 접합부 외면에는 점토 보강 후 점토를 훑어 올린 지두압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 박자 타날 압흔 위로 아주 약하게 횡침선문이 추가된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황갈색(10YR 6/2), 갈회색(7.5Y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10.7cm, 잔존너비: 15.9cm, 동체부 두께: 0.85cm, 파수부 길이: 3.9cm, 파수부 중위 두께: 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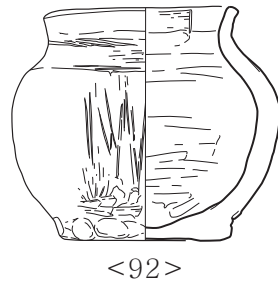
124. 타날문토기 저부편(도면 54-124, 도판 36-124)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저로서 내·외의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 측면은 저부와외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며 상향하는 형태이다. 동체부는 저판 위로 점토피를 쌓아 올려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부 외면은 격자문 박자로 타날되었으며 내면은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탁한 황등색(10YR 7/2),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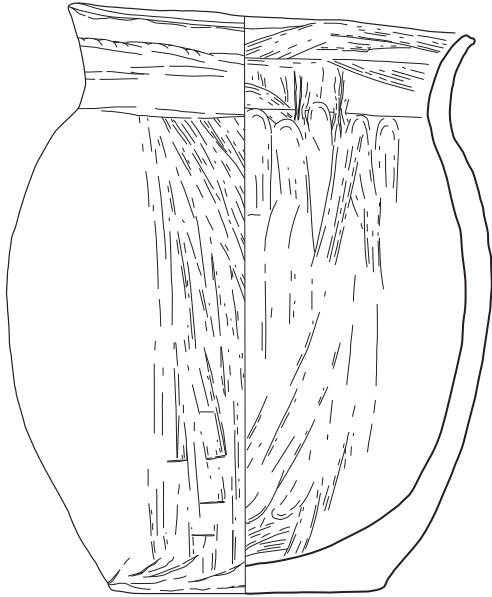
잔존높이: 5.1cm, 잔존너비: 5.7cm, 두께: 0.8~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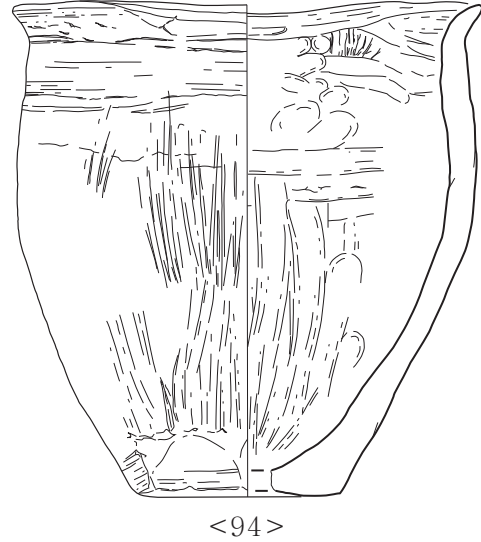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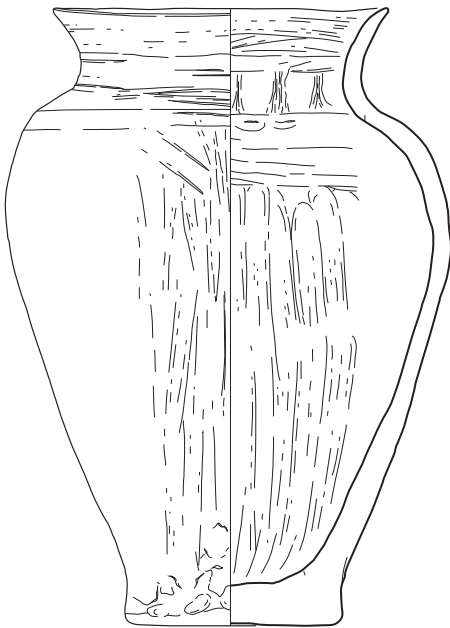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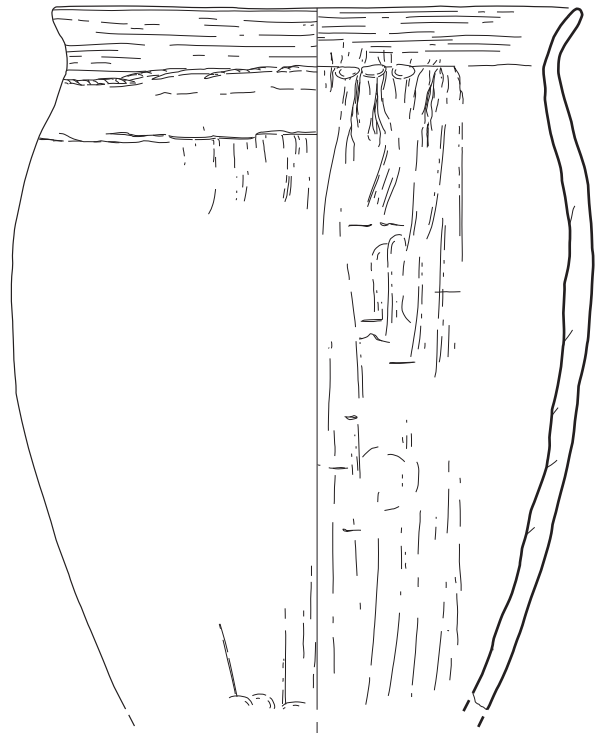
<9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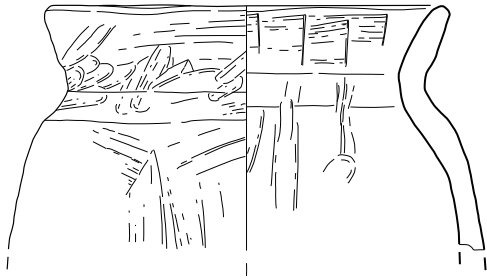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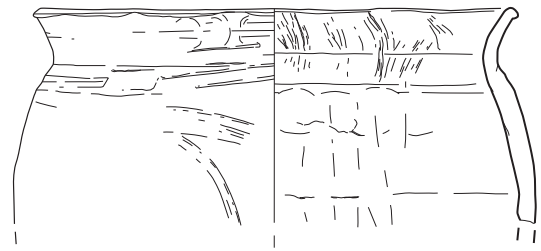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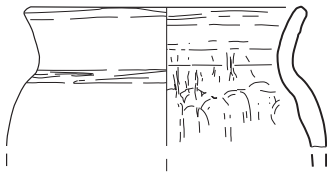
도면 49.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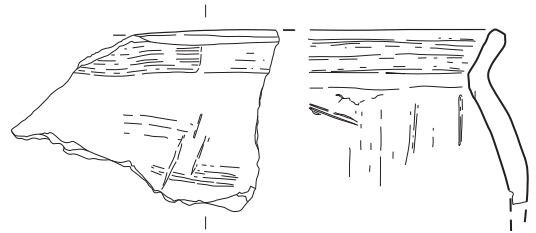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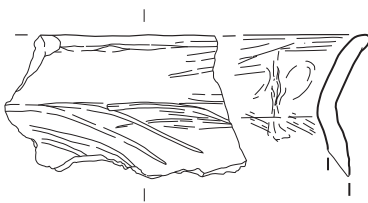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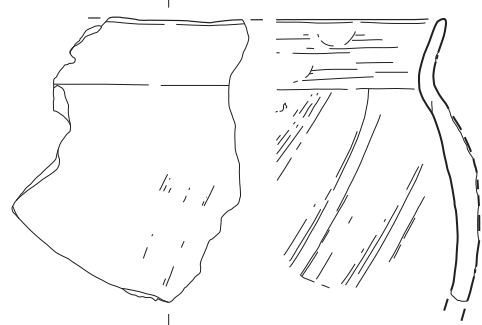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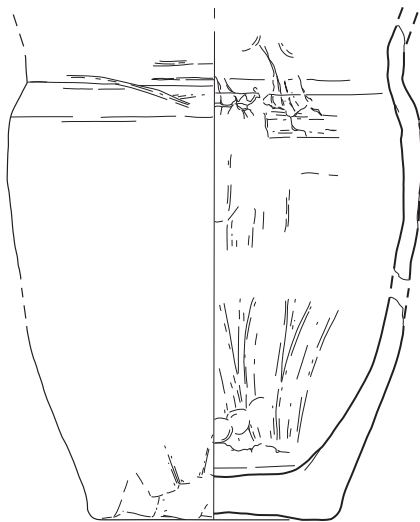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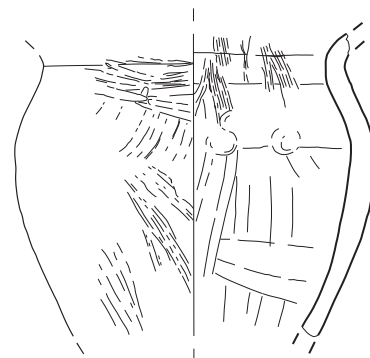
<101>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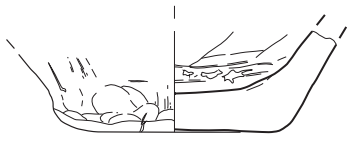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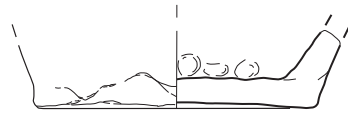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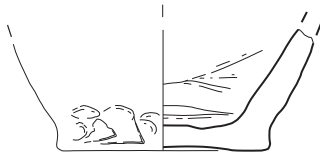
도면 50.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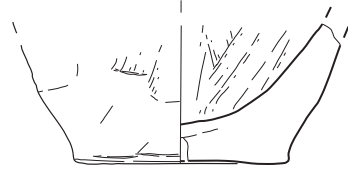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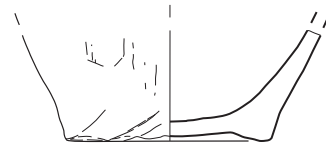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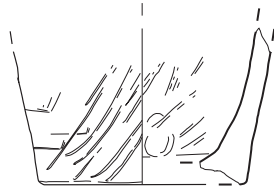
<106>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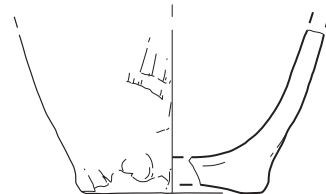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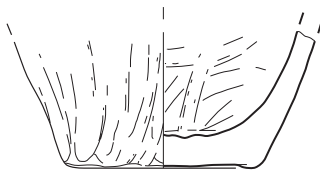
<108>



<109>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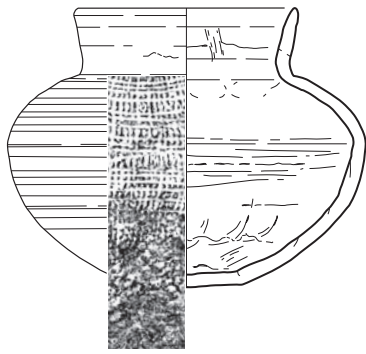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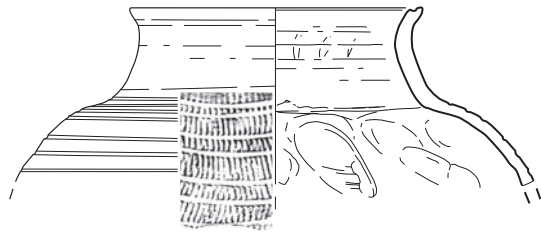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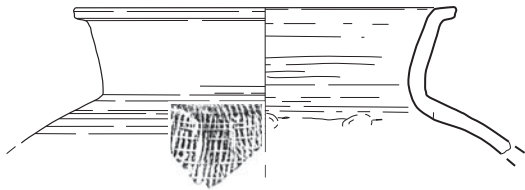
도면 51.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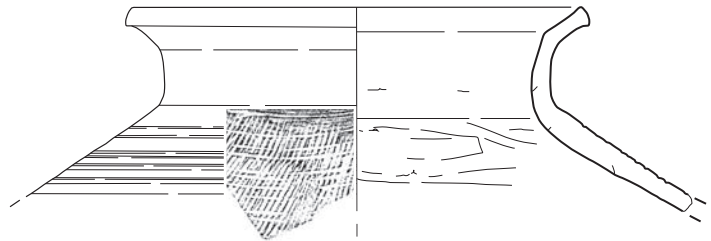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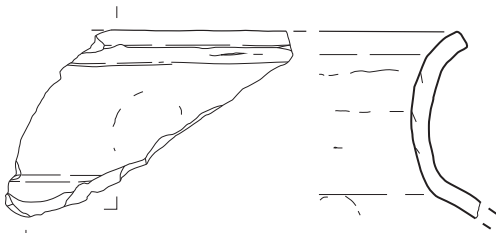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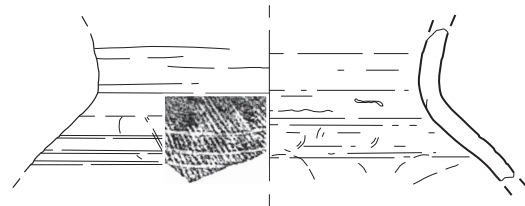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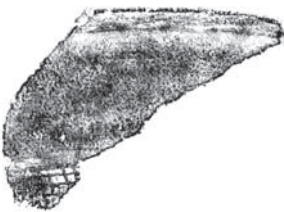
<11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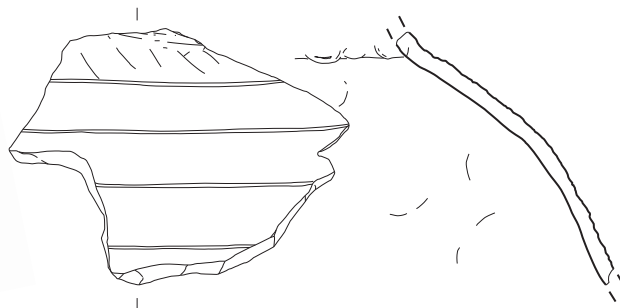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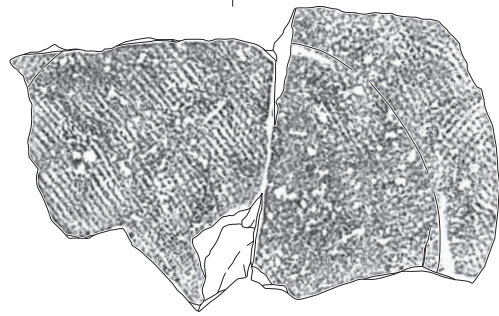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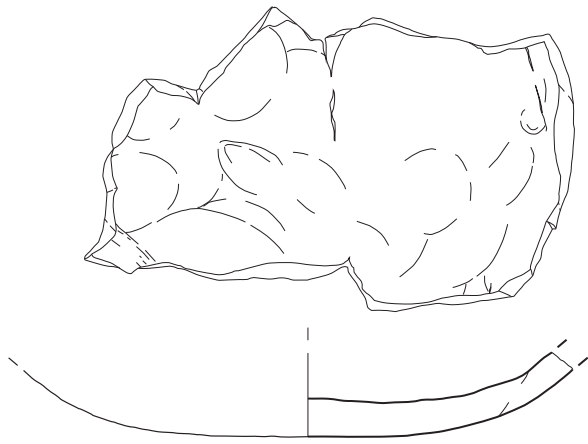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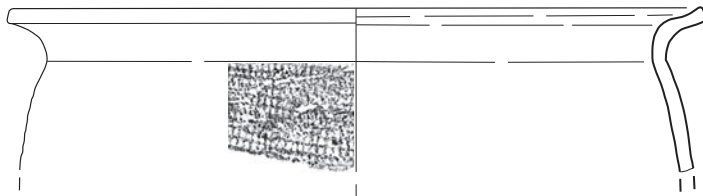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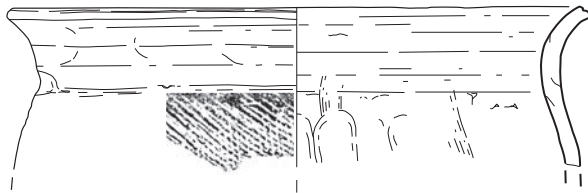
도면 52.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4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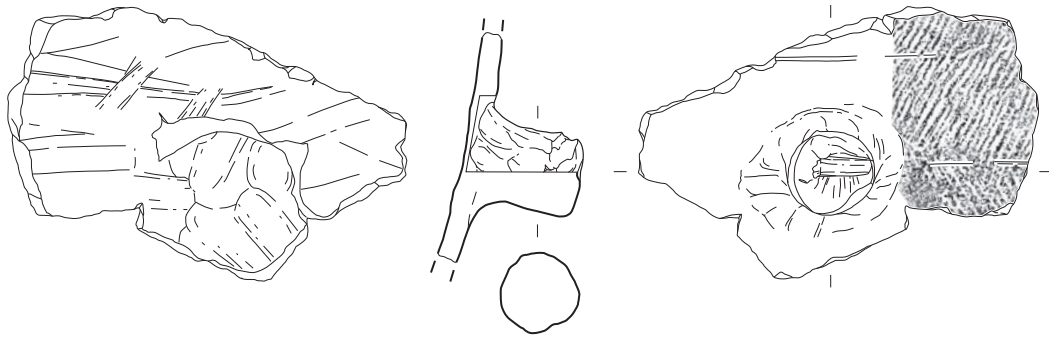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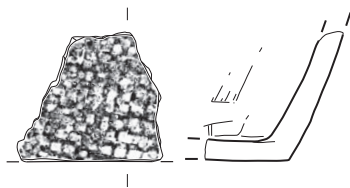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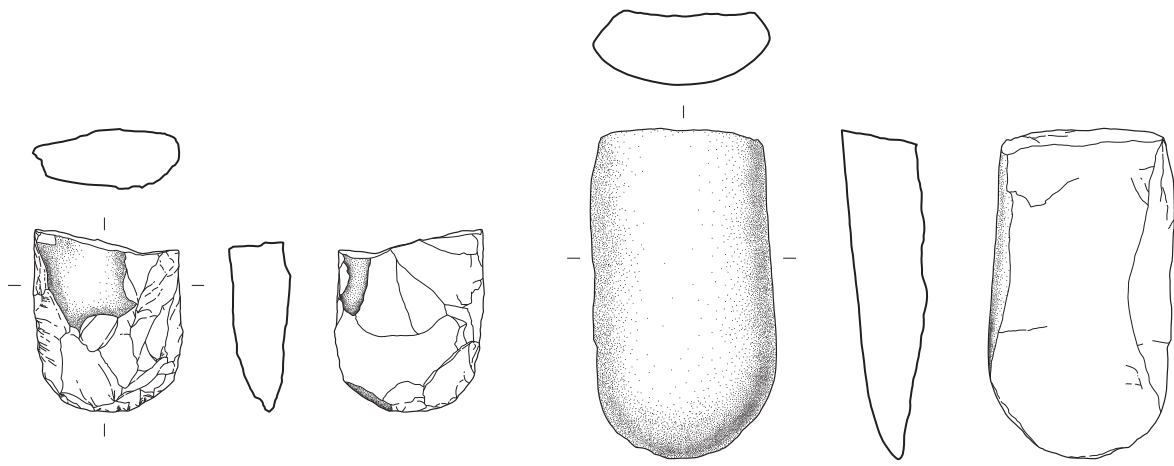
도면 53.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5



<123>



<126>



<125>

<126>



도면 54.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6

125. 미완성석부(도면 54-125, 도판 36-125)

암질은 조면안산암 계통이다. 전체적인 기형을 형성하기 위해 측면을 돌아가며 박리를 진행하였으며, 전면과 후면에는 일부 자연면이 남아있다. 측면 가장자리에는 기형의 형태를 잡기 위한 고타흔이 확인된다. 마연작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인부는 고타하여 양인의 합인을 형성하였으나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석부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반파되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종단면은 썩기형에 가깝다.

길이: 7.3cm, 너비: 5.4cm, 두께: 2.3cm, 무게: 137g.

126. 석재(도면 54-126, 도판 36-126)

암질은 반려암 계통이며, 원석에서 두세 차례 타격으로 떼어낸 석재이다. 타격흔이 일부 확인될 뿐, 별다른 가공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길이: 13.0cm, 너비: 7.3cm, 두께: 2.9cm, 무게: 510g.

(2) 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55, 도판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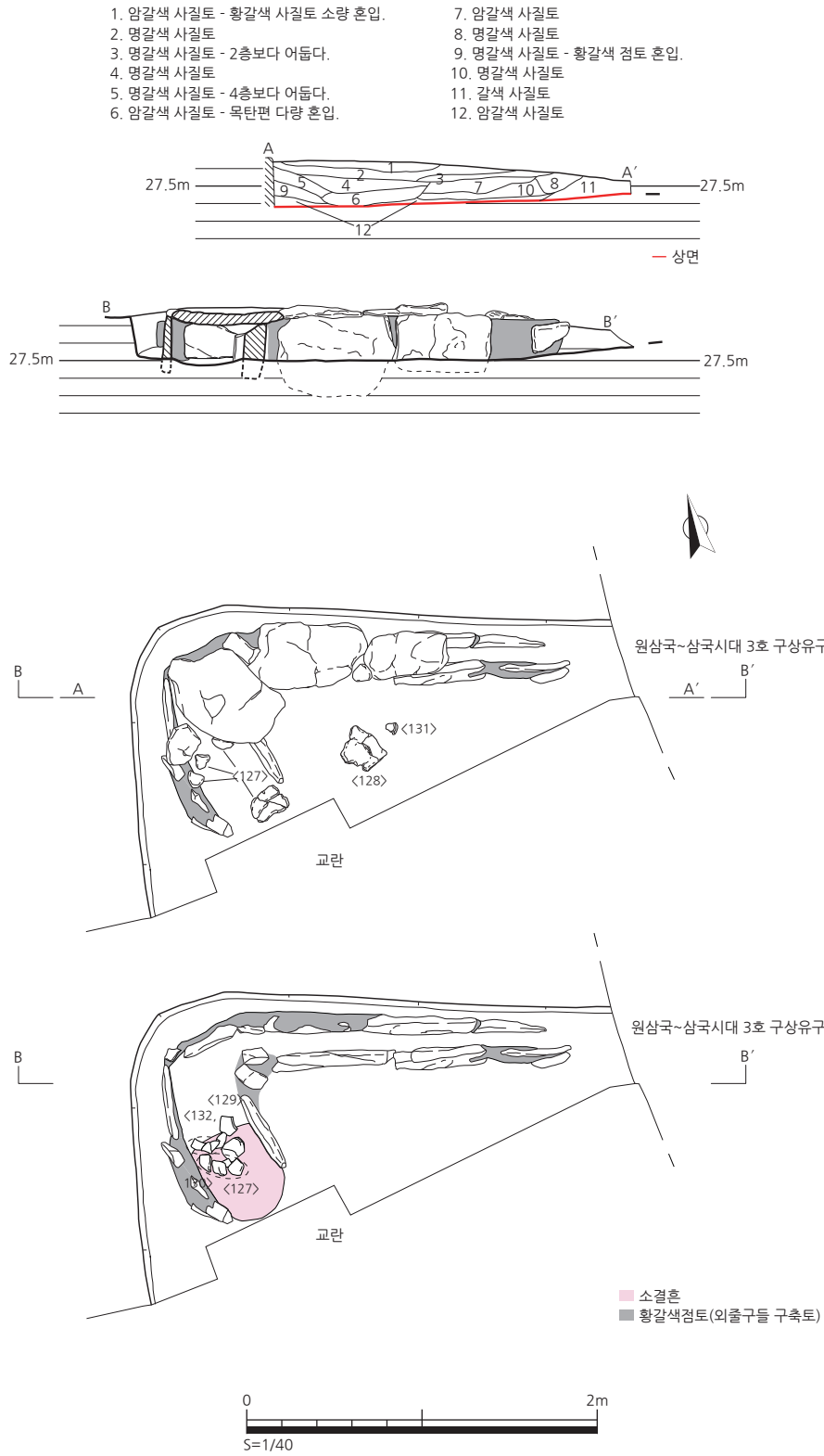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27.7m이다. 서쪽에 원삼국-삼국시대 6호·7호 주거지와 11호 수혈이 인접하고 있다. 동쪽에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2호 주거지가 선축되었다.

동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3호 구상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남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북서쪽 일부분만 남아있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지만 잔존형태가 원삼국 3호·10호·15호 주거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88cm, 잔존폭 168cm, 깊이 26cm이다.

2호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후 황갈색 사질토로 정지층을 조성한 다음,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조성하였다. 유구조사는 상면까지만 진행하였다.

내부토층은 모두 11개가 확인되었는데 암갈색·명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유기물에 의한 부식이 심해서 전체적으로 어둡고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약 0.5~1cm로 점토다짐을 해서 조성하였다.

내부시설은 ‘ㄱ’자형의 외출구들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유구에 의해 배연부가 파괴되어 아궁이부와 연도부만 남아있다. 아궁이부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상면을 굴착하여 붓돌을 세우고 중앙에는 지각을 설치하였다. 지각주변으로 직경 54cm 범위의 소결면이 확인되며 소결면의 두께는 약 0.5cm로 매우 단단하다. 연도부는 북벽을 따라서 아궁이부에서 동쪽으로 꺾어진다. 상면을 굴착한 후 벽석을 수직으로 세우고 덮개돌을 덮은 다음 황색 점토를 덧발라 조성하였다. 동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고 연도부 내부에서는 목탄편이 혼입된 갈색·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었다. 벽석은 최대길이가



도면 55.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

70cm이고 덮개돌은 최대길이가 68cm이다.

유물은 상면에서 경질무문토기옹이 출토되었고 아궁이부에서 경질무문토기 구연부와 저부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127. 경질무문토기옹(도면 56-127, 도판 39-127)

대형의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상위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완만한 호형(弧形)으로서 내측으로 약간 기울어졌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비교적 끈게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끈으로 추정되는 횡방향의 압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목판으로 긁어내린 종·사방향의 거친 흔적이 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 약 1/2 정도 아래까지의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에는 종방향 중심의 비교적 고운 물손질 흔적이 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점토 접합흔이 극히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19.9cm, 복원구경: 35.3cm, 두께: 0.7~1.2cm

128. 경질무문토기옹(도면 56-128, 도판 39-128)

대형의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c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완만한 호형으로서 동체 상부가 최대경을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경부는 측면이 호형을 이루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며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경부 외면에는 기면이 박락된 느낌의 요철면이 형성되었는데 압형에 의한 성형 혹은 넓은 포나 끈과 같은 도구를 대었다 떼어 낸 것과 유사한 느낌이다. 그 아래로는 노끈으로 추정되는 사방향으로 비교적 깊게 패인 압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동체부 외면은 물손질되었으며 횡·사방향의 거친 찰흔이 전면에 걸쳐 형성된 가운데 목판의 선단부 압흔으로 추정되는 직상(直狀)의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경부 일부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동체부 내면에는 지두로 훑은 종방향과 사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비교적 분명하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5/1), 내면 갈회색(7.5YR 5/1), 회색(N 4/0), 속심 갈회색(10YR 4/1)이다.

잔존높이: 21.6cm, 복원구경: 28.3cm, 두께: 0.8~1.1cm

129.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6-129, 도판 39-129)

외반구연용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는 완만한 호형이며 경부는 사방형으로 비교적 곧고 짧게 외반한다. 경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지며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순의 상면은 경부 내면에서 끌어올린 점토를 덧바른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된 가운데 외면에는 경부를 중심으로 생성원인을 알 수 없는 횡방향 잔주름이 형성되었다. 경부 내면은 고르게 횡방향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경계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동체부 내면에는 횡사방향의 거친 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갈회색(5YR 5/1),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9.2cm, 복원구경: 15.0cm, 두께: 0.65~1.15cm

130.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6-130, 도판 39-130)

외반구연용으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잔존부 측면이 완만한 호형(弧形)으로 내측으로 기울어졌으며 구연부는 사방형으로 곧고 짧게 벌어진다. 경부에서부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지며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사방형으로 점토가 쓸린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3), 내면 탁한 등색(5YR 6/4),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6.1cm, 잔존너비: 6.2cm, 두께: 0.55~0.9cm

13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56-131, 도판 39-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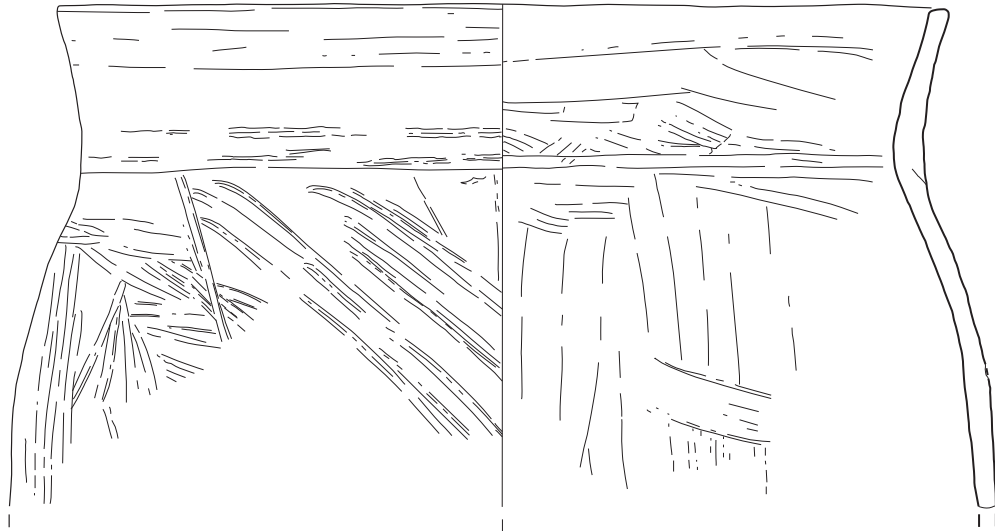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저부 외면에는 다수의 지두 압흔이 형성되었다. 저부 외면에는 초본류 추정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3.5cm, 복원저경: 8.2cm, 두께: 0.8~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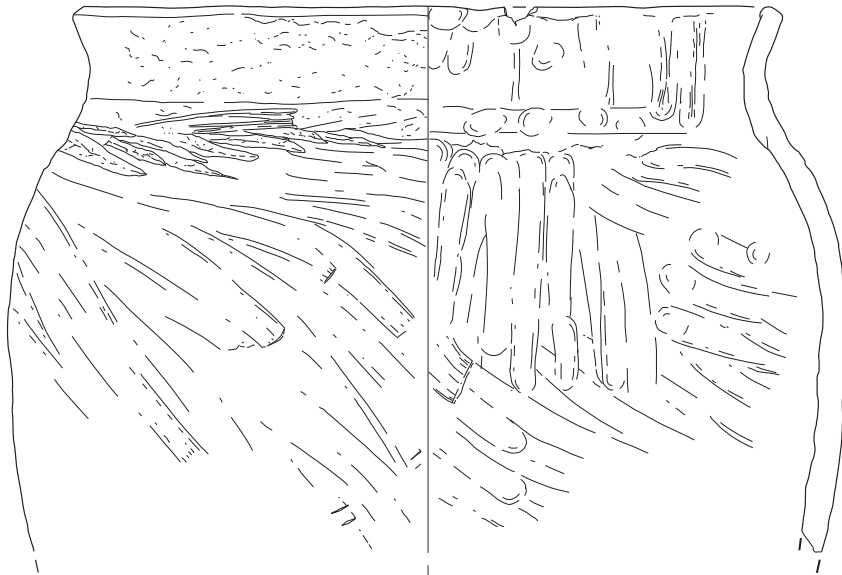
132. 호(도면 56-132, 도판 39-132)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 일부까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소량 혼입(下)되었다. 경부는 길게 직립하는 형태로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으며 구연 직하부 내면에는 물손질 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폭이 좁은 요면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내면 황회색(2.5Y 6/1), 회갈색(7.5YR 6/2), 속심 황회색(2.5Y 6/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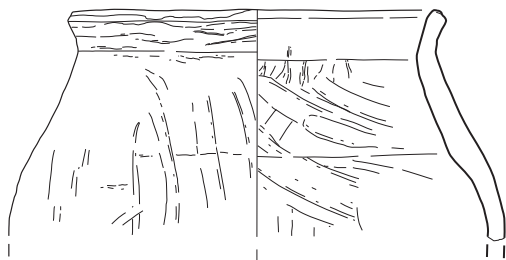
잔존높이: 7.5cm, 잔존너비: 15.7cm, 두께: 0.6~0.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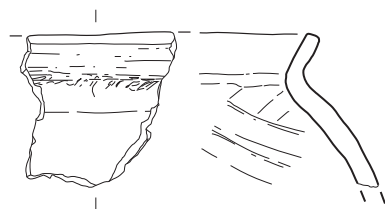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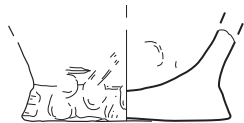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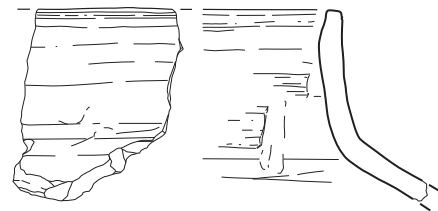
<12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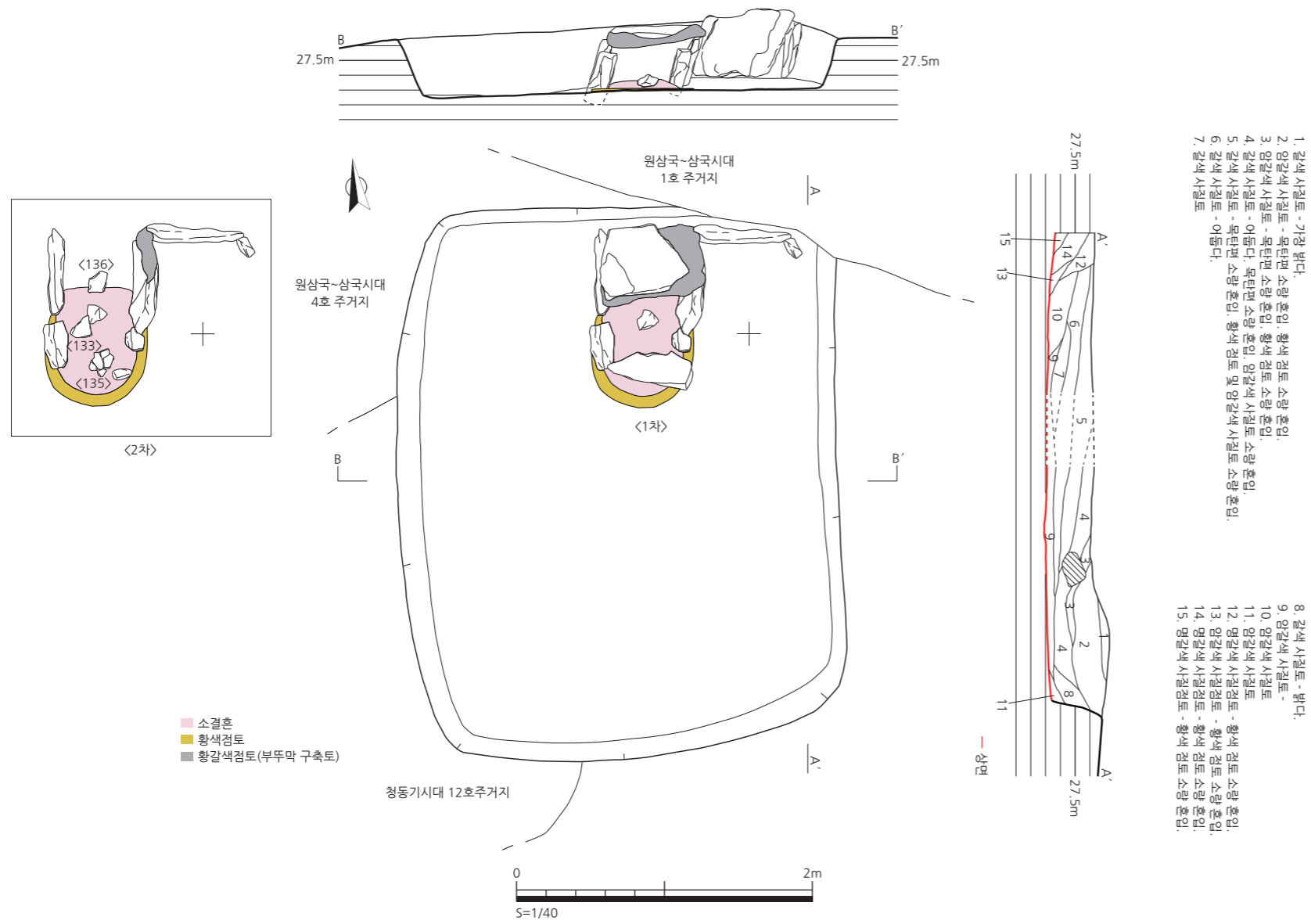
<131>



<132>



도면 56.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57.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

(3) 3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57, 도판 40~41)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27.8m이다. 동쪽으로 3.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수혈과 3호 수혈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3.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4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4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1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3호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토를 경사지게 굴착한 후 정지층을 조성한 다음,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조성하였다. 유구조사는 상면까지 진행하였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조선시대 2호·3호·4호 수혈에 의해 주거지 상부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8°-E이고 규모는 길이 374cm, 폭 298cm, 깊이 42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16개가 확인되며 크게 내부퇴적토층·함몰토층·부뚜막 구축토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1~9층)은 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고 9층에서는 얇은 사질토가 여러 겹으로 퇴적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수 및 침수에 의해 퇴적된 괴상의 사질점토·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고 3~6층에서는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함몰토층(10~11층)은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는데 입자가 굵은 편이다. 부뚜막 구축토층(12~15층)은 명갈색·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다량의 황색점토가 혼입되었는데 부뚜막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면점토층은 정지층면에 1~3cm로 점토다짐을 했으며, 유구 중앙 부분은 두껍게 다짐하였다.

내부시설은 후벽 중앙에서 일자형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부는 상면을 굴착한 후 붓돌을 세우고 중앙에는 지각을 설치하였다. 지각주변으로 직경 72cm 범위의 소결면이 확인되는데 소결면의 두께는 0.5~1.0cm로 매우 단단하다. 연도부는 상면에 벽석을 세우고 덮개돌을 덮은 다음 황색점토를 덧발라 보강하였다. 벽석은 최대길이가 64cm이고 덮개돌은 최대길이가 70cm이다. 한편 북서쪽 모서리에서 판석 2매가 부뚜막과 직교되게 'ㄱ'자 형태로 확인되었다. 상면에 판석을 놓고 점토를 덧발라 틈새를 보강하였다. 부뚜막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아궁이부에서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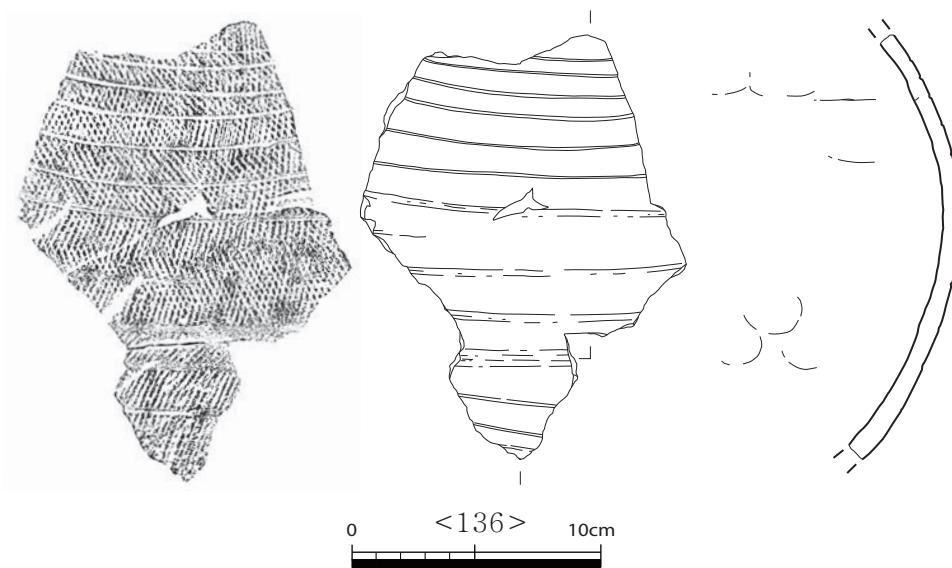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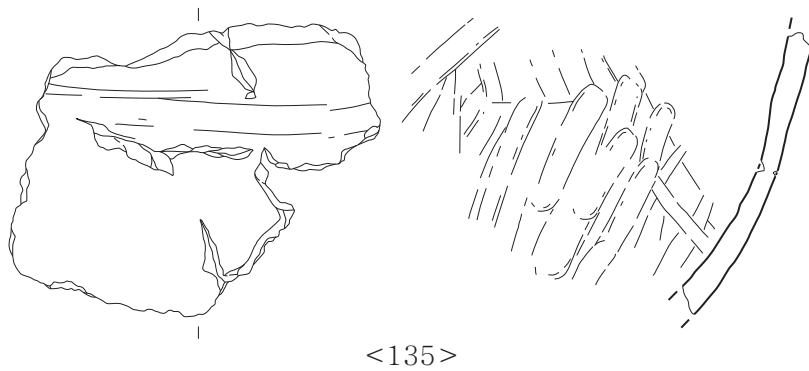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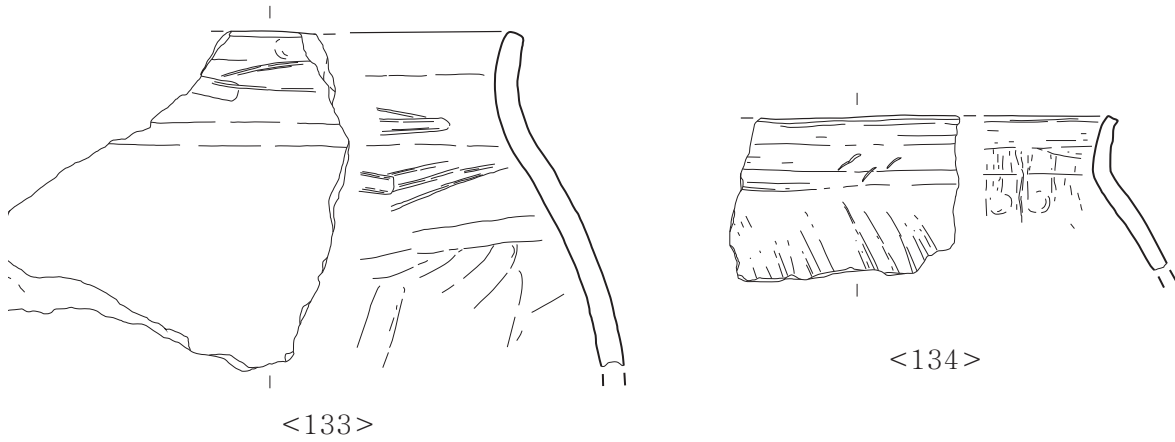
133.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8-133, 도판 41-133)

대형의 외반구연용으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상위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완만한 호형으로 내측으로 기울어졌으며 경부는 약간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외면의 산화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기면은 모두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지두로 길게 훑은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3),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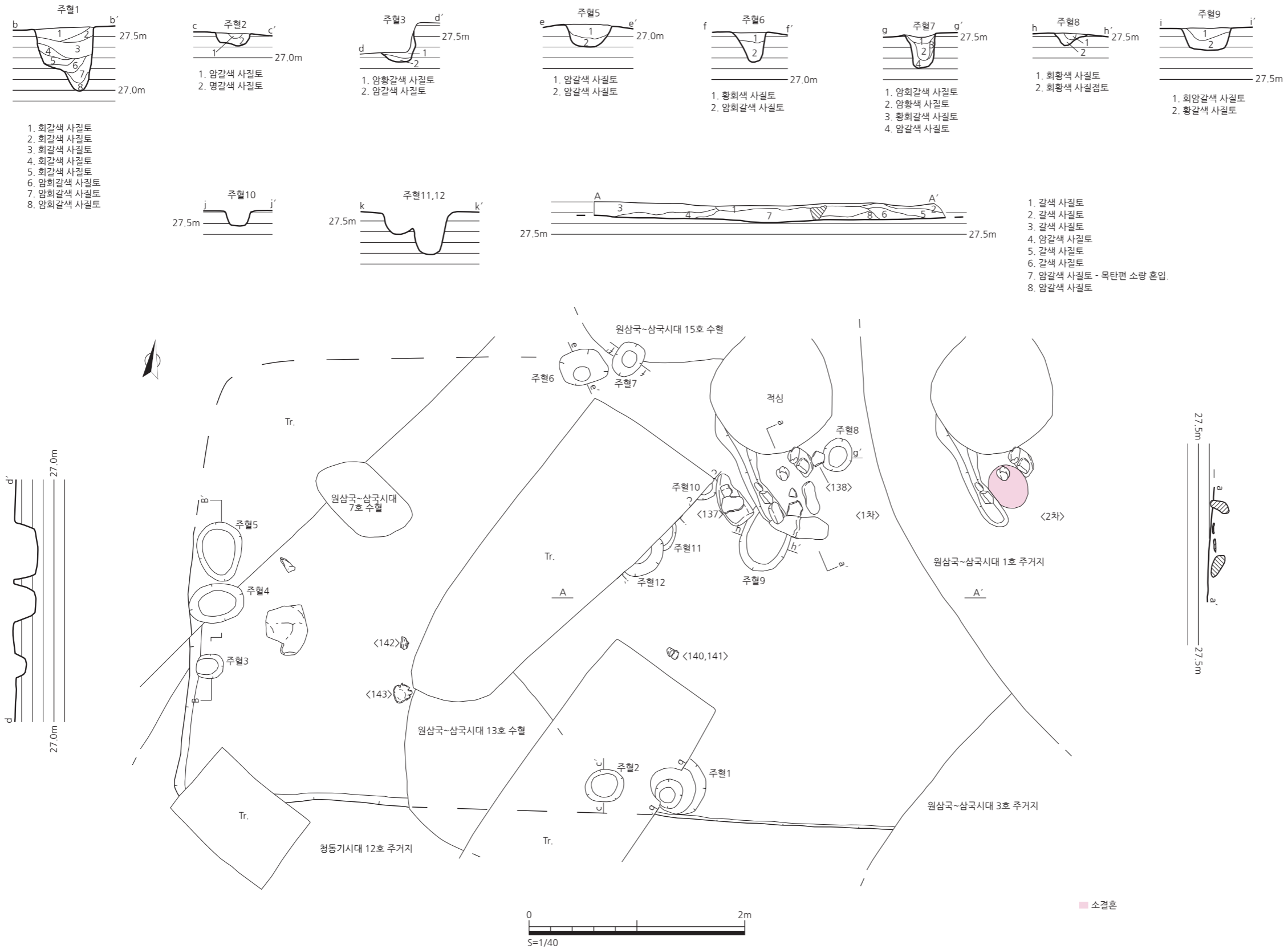
잔존높이: 13.6cm, 잔존너비: 14.5cm, 두께: 0.7~0.9cm

134.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58-134, 도판 41-134)

외반구연용으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상위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비교적 짧고 곧게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도면 58.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59.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횡방향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고 동체부 외면에는 사방향의 물손질 도구(목판)에 의한 찰흔이 형성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 중위까지의 내면은 횡방향으로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의 위·아래로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6.5cm, 잔존너비: 8.95cm, 두께: 0.4~0.75cm

135.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58-135, 도판 41-135)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호형으로 잔존부 아래가 완곡하게 꺾여 상향하는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생긴 지두로 훑은 비교적 뚜렷한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암적회색(10R 4/1), 내면 갈회색(5YR 5/1),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11.6cm, 잔존너비: 14.7cm, 두께: 0.7~1.1cm

136. 호(도면 58-136, 도판 41-136)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구형(球形)으로서 측면이 호상을 그리며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잔존부 아래에는 승문 타날 위로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일부 겹쳐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약한 박자 압흔과 함께 점토띠 접합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황갈색(10YR 5/2),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잔존높이: 16.9cm, 잔존너비: 13.0cm, 두께: 0.6~0.9cm

(4) 4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59, 도판 42~43)

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27.7m이다. 북쪽에 원삼국 10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남쪽으로 3.8m 떨어진 곳에 원삼국 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 1호·3호 주거지 및 13호·15호 수혈과 중복되었는데 4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었다.

동쪽 부분은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와 3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고 북동쪽 부분은 원삼국~삼국 15호 수혈과 조선시대 적실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한 유구의 중복을 조사하기 위한 Tr.에 의해 유구의 북서쪽과 중앙 부분, 남장벽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82°-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752cm, 잔존폭 442cm, 깊이 17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8개로 구분되고 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입자가 굵고 거칠며 경도는 단단한 편이다.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부뚜막과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부뚜막은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 15호 수혈과 조선시대 적실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어 아궁이 부분만 남아있으며 붓돌과 이맛돌은 함몰된 채로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규모는 잔존길이 140cm, 잔존폭 68cm이다. 상면에 붓돌과 벽석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 이맛돌을 올리고 황색점토를 두텁게 덧발라서 조성했다. 아궁이 중앙에 지각이 남아있고 지각주변으로 35cm범위의 소결흔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12개가 확인되었다. 벽주(주혈1~7)은 남장벽·서단벽·동장벽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다. 주혈 간 거리가 20cm 이내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지붕 보수 등의 목적으로 시차를 두고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이 타원형으로 최대직경 50cm, 최대깊이 60cm이며 주혈1과 주혈7에서는 목주흔이 확인된다. 내부주혈(주혈8~12)은 북동쪽에서 5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상면과 부뚜막에서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13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60-137, 도판 43-137)

대형의 외반구연용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c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내측으로 기울어졌으며 경부는 완만한 호형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기면의 산화 박락 정도가 중하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11.1cm, 잔존너비: 14.3cm, 두께: 0.7~1.1cm

138.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60-138, 도판 43-138)

대형의 용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0.8c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상을 그린다. 기면은 모두 물손질되었는데 외면의 박락 정도는 중한 편이고 내면에는 물손질 과정에서 지두로 훑은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갈회색(5YR 5/1),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14.1cm, 잔존너비: 21.2cm, 두께: 0.9~1.1cm

139.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0-139, 도판 43-139)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이고 동체부는 저부와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진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내저로 이어지는 경계면에는 다수의 지두 압흔이 있다. 저부 외면에는 넓은 외연의 안쪽으로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으며 그 위로 초분류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5/1),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탁한 적갈색(5YR 5/3)이다.

잔존높이: 6.5cm, 복원저경: 13.3cm, 두께: 1.1~1.85cm

140.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0-140, 도판 43-140)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저부와의 경계에서 약간 사방향으로 벌어진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4.8cm, 복원구경: 8.0cm, 두께: 0.85~2.0cm

14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0-141, 도판 43-141)

동체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저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높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저부 외면에는 지두압흔과 함께 종방향으로 훑은 흔적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외저면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갈회색(10YR 5/1),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4.3cm, 저경: 7.5cm, 두께: 0.8~3.3cm

142. 호(도면 60-142, 도판 43-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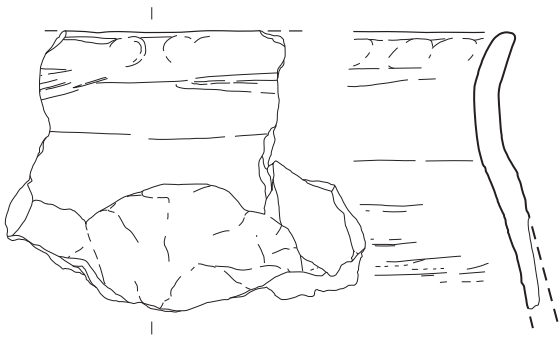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약 1/3 정도가 잔존,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횡방향으로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고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면은 횡방향으로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된 가운데 지두 압흔 다수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탁한 등색(5YR 6/4), 내면 회황갈색(10YR 6/2), 황회색(2.5Y 5/1),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6.1cm, 복원구경: 11.4cm, 두께: 0.45~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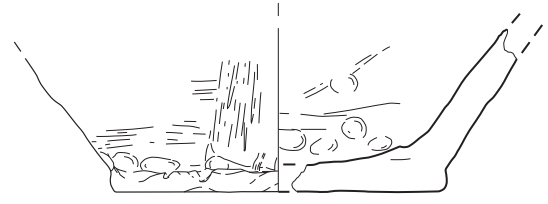
143. 호(도면 60-143, 도판 43-143)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 형태는 원저이고 동체부는 구형이다. 외면에는 굽은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내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둥근 박자 압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회갈색(7.5YR 6/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갈회색(7.5YR 5/1),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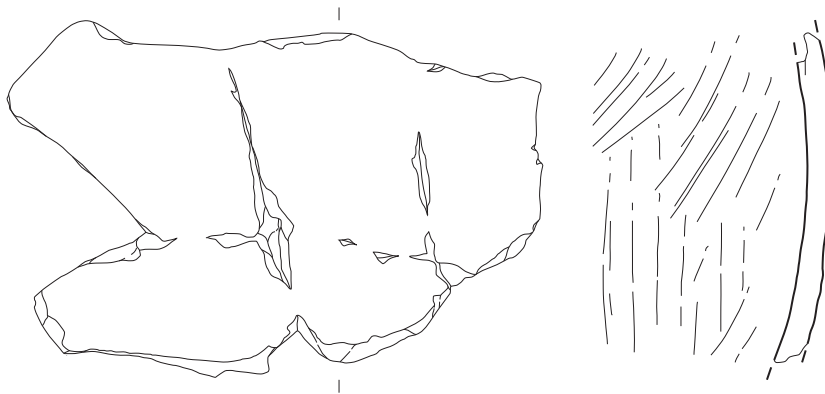
잔존높이: 4.3cm, 두께: 0.35~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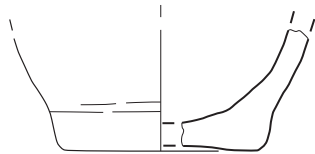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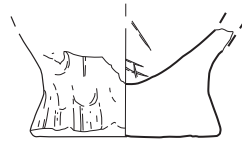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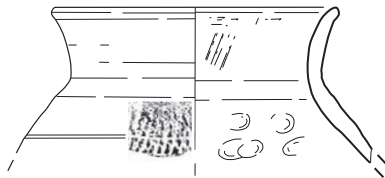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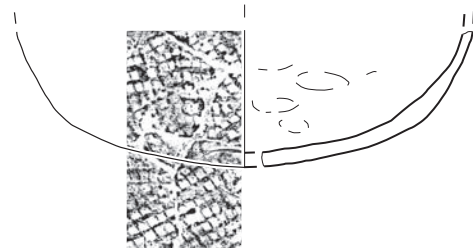
<140>



<141>



<142>



<143>



도면 60.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출토유물

(5) 5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61, 도판 44-①)

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는데 중복유구와 교란으로 주거지 대부분이 파괴되어 노지만 남아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직경 60cm이다. 노지 중앙에 길이 약 10cm의 소형석재를 부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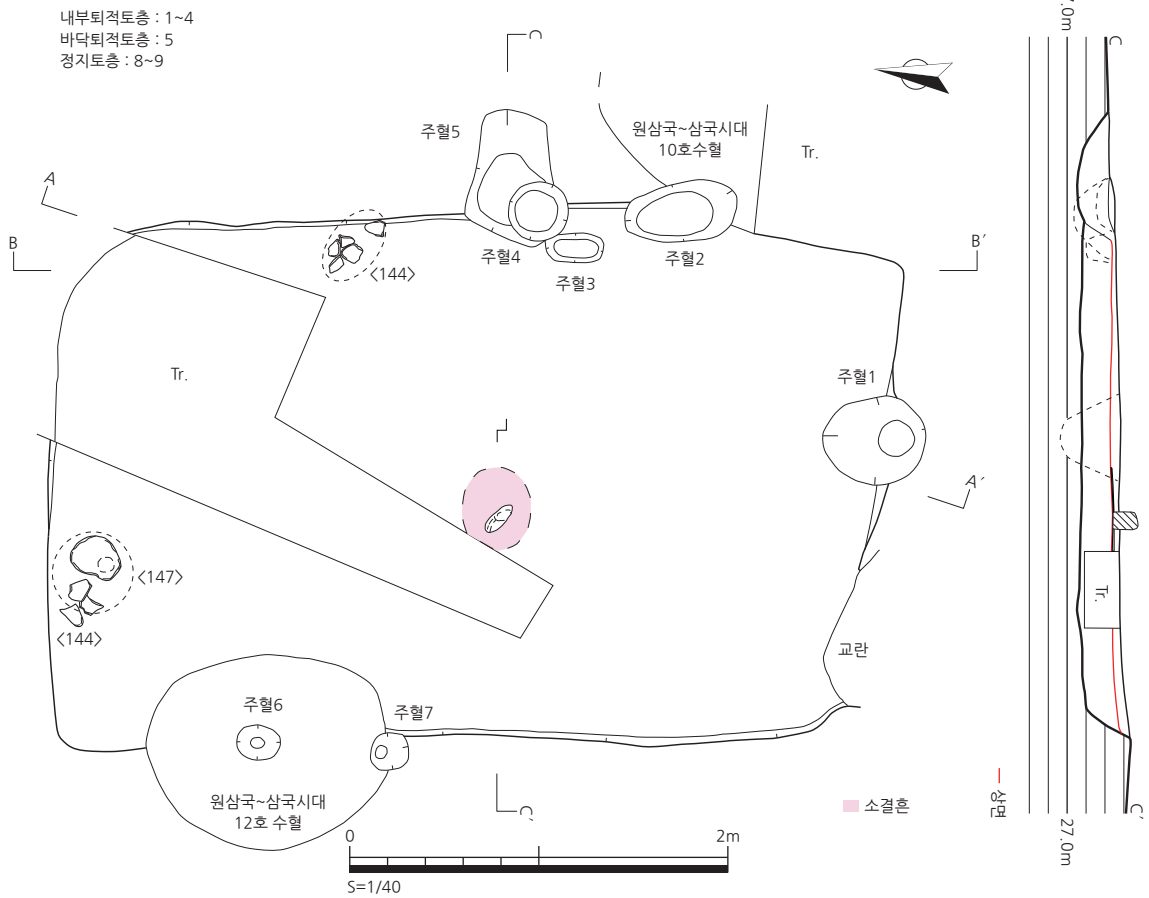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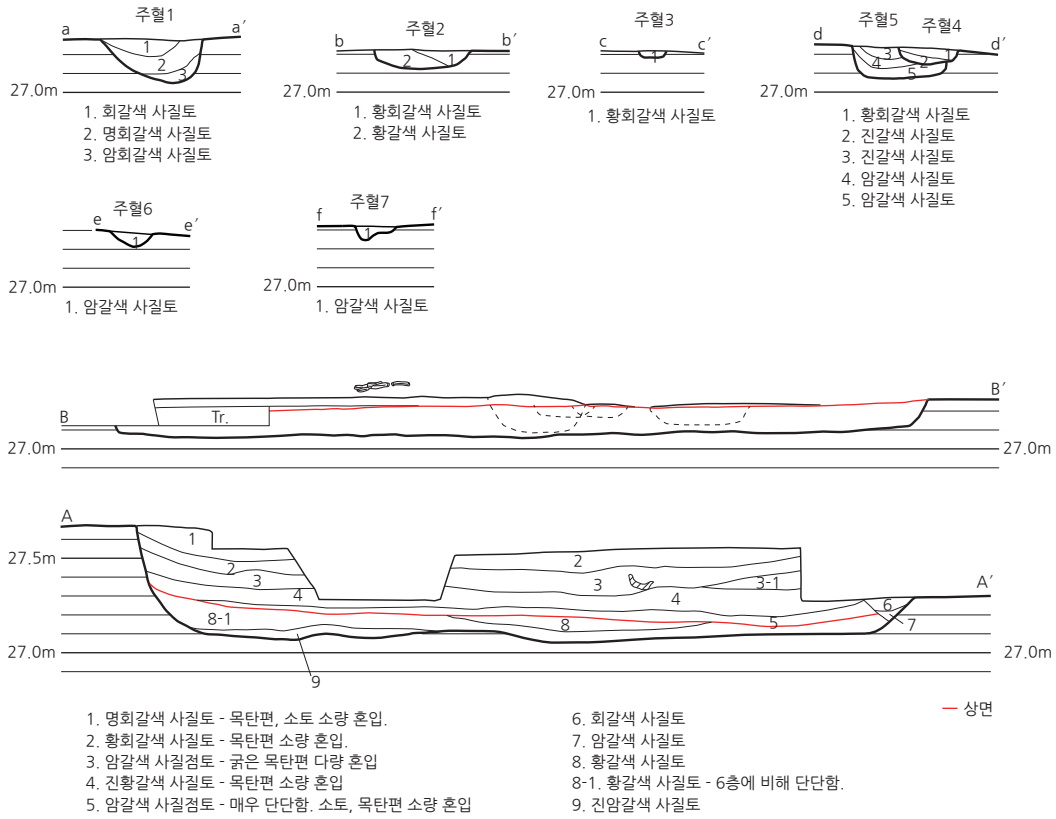
도면 61. 원삼국~삼국시대 5호 주거지

(6) 6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62, 도판 44-②~45-①)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동쪽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남쪽으로 2.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7호 주거지와 11호·12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7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11호·12호 수혈보다 선축되었다.

남동쪽 모서리와 북서쪽 모서리는 중복유구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한 유구 중복을 확인하기 위한 Tr.로 인해 남쪽 일부분과 남쪽 모서리가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7°-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464cm, 잔존폭 276cm, 깊이 48cm이다.



도면 62.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6호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토를 굴착한 후 정지층을 조성한 다음,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조성하였다. 유구조사는 상면까지만 진행하였다.

내부토층은 모두 8개가 확인되며 크게 내부퇴적토층·바닥퇴적토층·상면점토층·정지토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1~4)은 회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경사퇴적 되었다. 소량의 소토와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유수나 침수에 의해 형성된 괴상의 사질점토·점토가 확인되었다. 바닥퇴적토층(5층)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경도가 매우 단단하며 점토함유량이 많고 소량의 목탄편과 소토가 혼입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약 0.5cm로 점토다짐을 해서 조성하였다. 정지토층(8~9층)은 황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는데 경도가 단단하고 다량의 점토괴가 혼입되었다. 바닥퇴적토층이 점토다짐처럼 매우 단단하고 유물과 내부시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거지의 바닥으로 사용된 생활면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타원형의 피열흔이 남아있고 피열흔 중앙에 석재가 세워진 채로 확인되었다. 주혈은 7개가 확인되었다. 벽주(주혈2, 4~7)는 동장벽과 서장벽에서 확인되고 이격거리는 30~50cm이다. 평면형태는 대부분이 원형으로 길이 20~60cm, 깊이는 10~22cm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쪽에서 경질무문토기옹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44. 경질무문토기옹(도면 63-144, 도판 45-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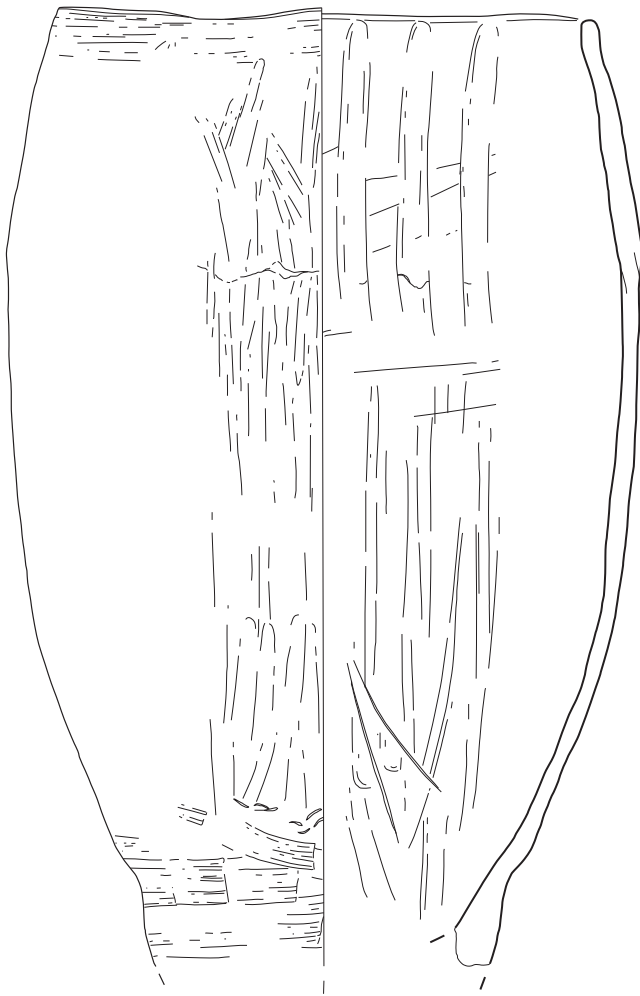
내만구연옹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저부 일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높은 굽 형태로 추정된다. 동체부는 전체적으로 세장하며 측면은 완만한 호형으로서 중위가 최대경을 이루고 구연부로 가면서 내측으로 기울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내·외면 모두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흔적이 비교적 분명하다.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그은 목판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4), 회갈색(5YR 5/2),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37.9cm, 복원구경: 21.3cm, 두께: 0.55~1.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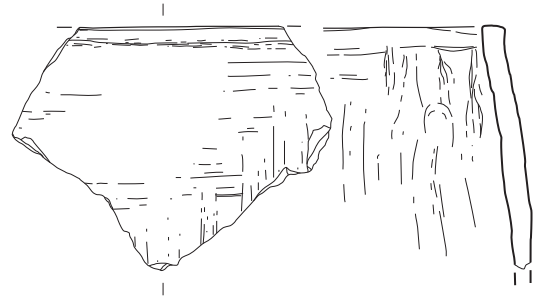
145. 경질무문토기옹(도면 63-145, 도판 45-145)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내만구연옹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경부 없이 동체부에서 구연부로 바로 이어지며 동체부에서 구연부로 가면서 내측으로 살짝 기울졌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물손질에 의한 종·횡의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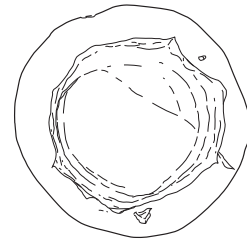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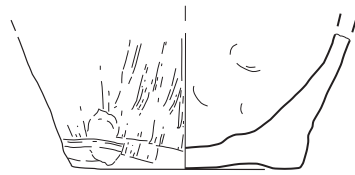
잔존높이: 9.7cm, 잔존너비: 12.7cm, 두께: 0.6~0.9cm



<144>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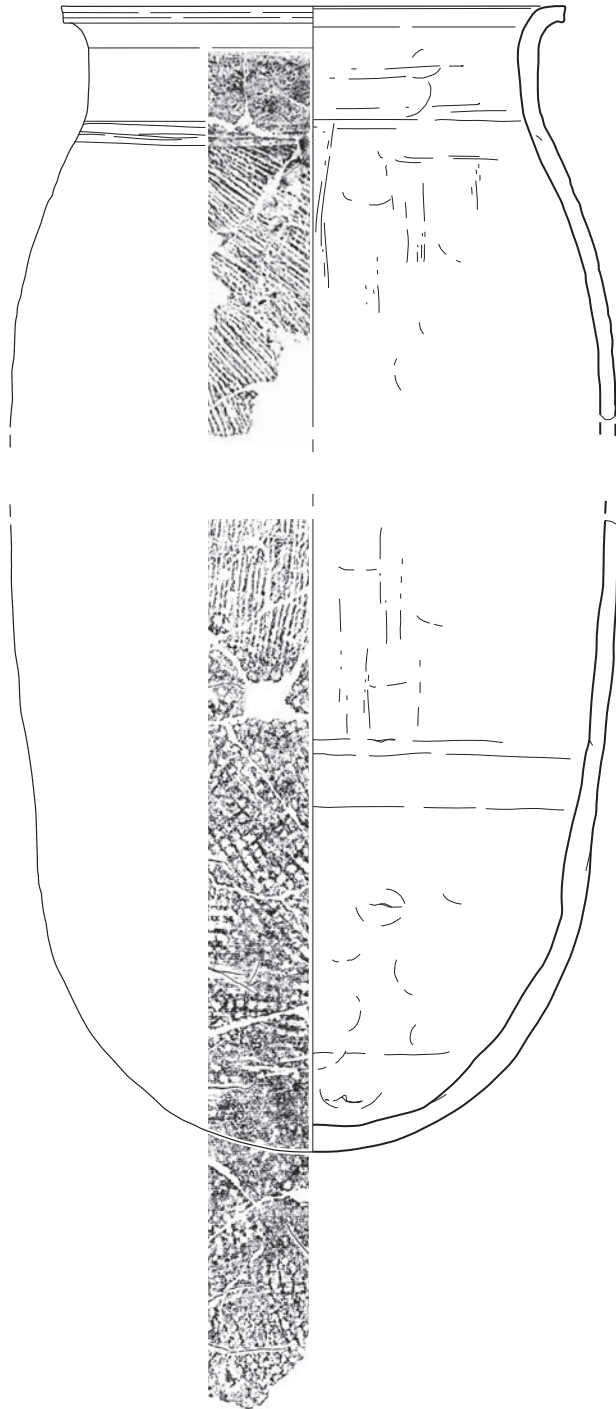
<146>



<147>



도면 63.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1



<148>



도면 64.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2

14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3-146, 도판 45-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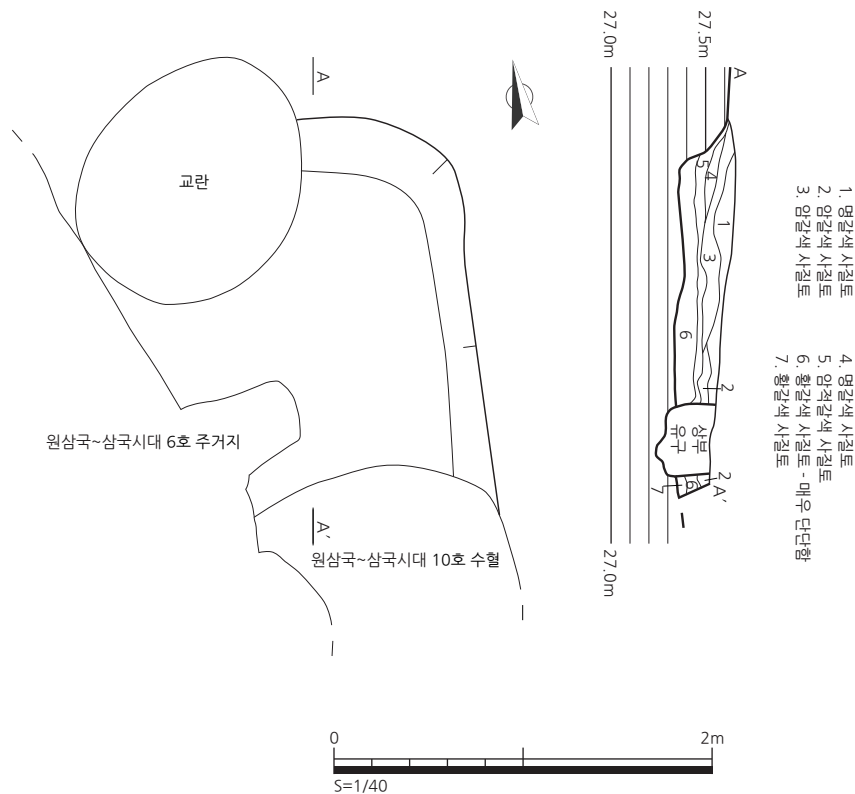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동체 일부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는데 내면은 전체적으로 기면의 박락 정도가 높고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목판 등 물손질 도구를 훑어 내린 흔적이 있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5.4cm, 저경: 9.0cm, 두께: 0.65~2.2cm

14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3-147, 도판 45-147)

동체부 중상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저부와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전체적인 측면 형태는 호형을 이룬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종·사방향으로 훑은 흔적이 있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탁한 등색(5YR 6/4), 속심 탁한 적갈색(5YR 5/3)이다.

잔존높이: 23.1cm, 저경: 11.2cm, 두께: 0.65~1.9cm



도면 65. 원삼국~삼국시대 7호 주거지

148. 장란형토기(도면 64-148, 도판 45-148)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접합되지 않는 구연에서 동체 상부까지의 편 1점과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의 편 1점이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원저이고 동체부는 긴 난형이며 경부는 비교적 곧게 직립하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경부와와의 경계에서 외반하고 구순에는 요철면이 형성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 저부 외면에는 굵은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동체에서부터 저부까지의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원형의 박자 압흔과 점토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적회색(10R 5/1), 내면 갈회색(7.5YR 5/1),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16.5cm/25.2cm, 복원구경: 20.0cm, 두께: 0.55~1.1cm

(7) 7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65, 도판 46-①,②)

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동쪽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7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었다.

북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고 남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한 남동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내부조사 과정에서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N-7°-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206cm, 잔존폭 74cm, 깊이 20cm이다. 벽은 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는데 요철이 매우 심하다.

내부토층은 모두 7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되적 되었다. 상면점토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6층이 매우 단단하고 수평에 가깝게 퇴적되었기 때문에 생활면으로 추정된다. 토층 남쪽 부분에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상부유구의 내부시설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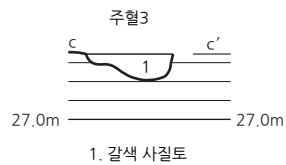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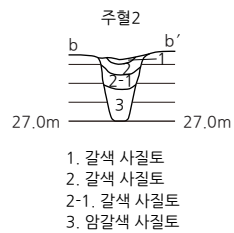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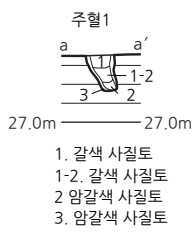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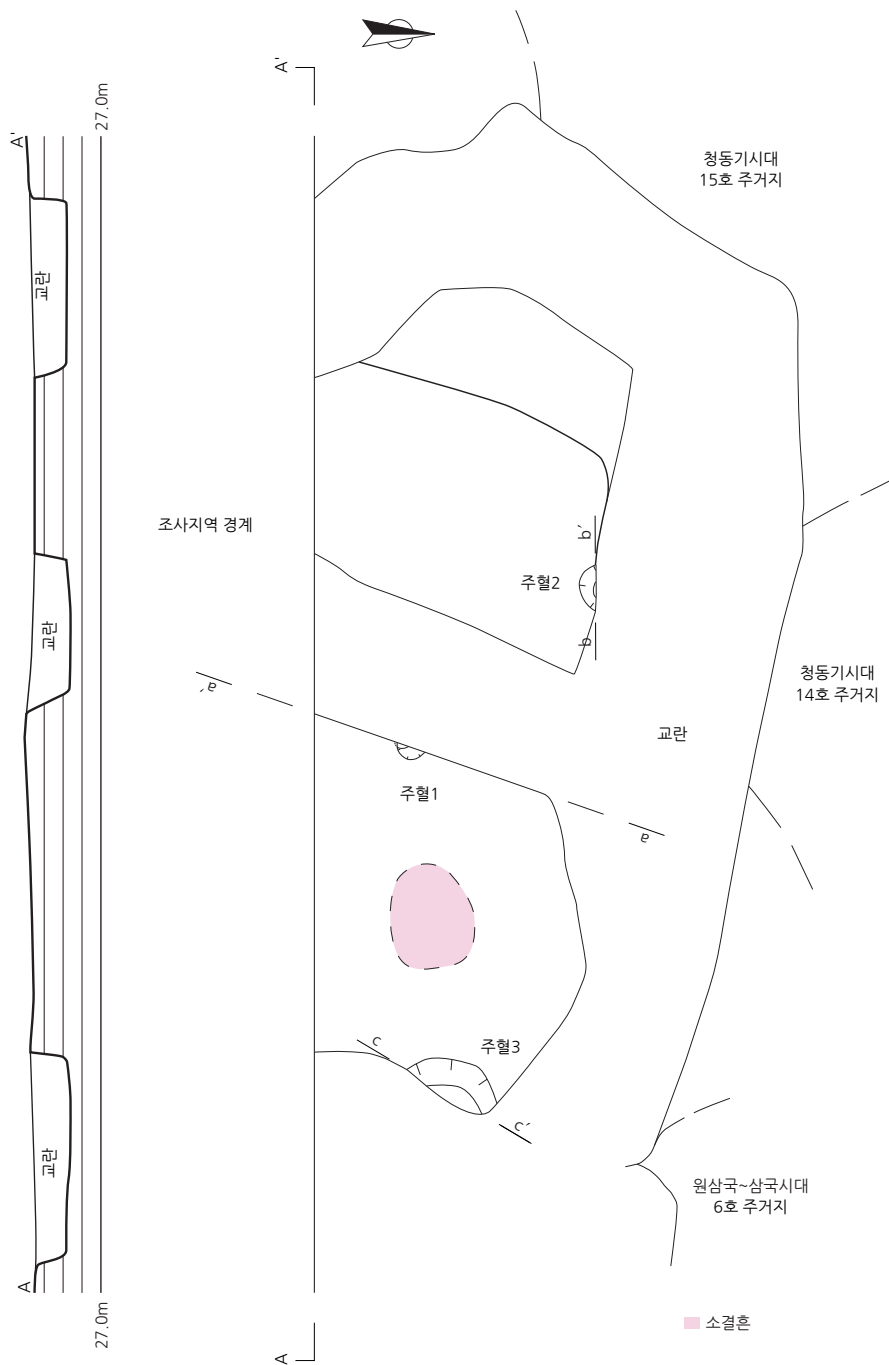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8) 8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66, 도판 46-③~⑤)

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남쪽 경계에 걸쳐 있고 해발은 27.4~27.5m이다. 교란으로 사방이 파괴되고 상부도 모두 파괴되어 바닥면 일부만 남아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368cm, 잔존폭 144cm이다.

황갈색 사질토를 굴착한 후 굴착면을 평평하게 조성해서 상면으로 사용했다. 상면에는 0.2cm이하의



도면 66. 원삼국~삼국시대시대 8호 주거지

점토다짐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지면식으로 타원형의 피열흔만 남아있다. 주혈은 내부주혈 3개가 확인되었는데 깊이는 15~36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 9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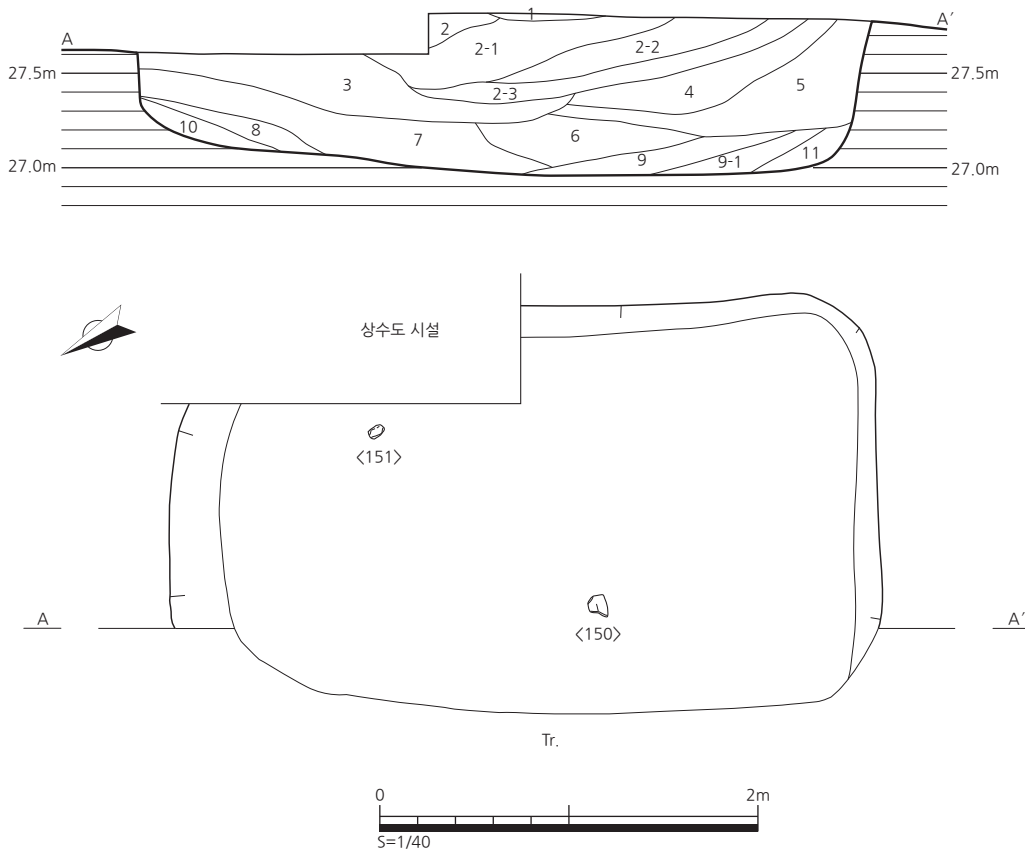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67, 도판 47-①,②)

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쪽으로 2.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6호 수혈이 위치하고 서쪽으로 5.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한다.

서쪽 부분이 1호 주거지의 내부조사를 위한 Tr.에 의해 파괴되고 남서쪽 상부가 조선시대 적심에

- | | |
|-------------------------------|---------------------------------|
| 1.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6. 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2.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7. 암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2-1.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8. 암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2-2.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9. 암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2-3.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9-1. 암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3. 암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10. 암갈색 사질점토 |
| 4.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11. 암갈색 사질점토 |
| 5. 명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2차 퇴적토층 : 1~5
1차 퇴적토층 : 6~9-1
함몰토층 : 10~11



도면 67.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

의해 파괴되어 잔존 상태가 좋지 않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N-28°-E이다. 규모는 길이 376cm, 잔존폭 216cm, 깊이 86cm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져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15개가 확인되며 크게 2차 퇴적토층·1차 퇴적토층·함몰토층으로 구분된다. 2차 퇴적토층(1~5층)은 암갈색·회갈색 계열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소토와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유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형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1차 퇴적토층(6~9-1층)은 회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어둡고 소량의 목탄편과 소토가 혼입되었다. 함몰토층(10~11층)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는데 입자가 부드럽고 경도가 무른 편이다.

유물은 2차 퇴적토층에서 합(유물번호149)이 출토되었고 1차 퇴적토층에서 미완성 석부(유물번호151)와 호(유물번호150)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149. 합(도면 68-149, 도판 47-149)

합의 신부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저부 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소량 혼입(下)되었다. 기고에 비해서 구경이 넓으며 구경부는 짧게 직립하고 동체부 상위에는 둥근 형태의 견부가 발달했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저부 형태는 평저로서 내·외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는 저판 위로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였다. 외면은 마연되었으며 동체부 중위 이하를 중심으로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동체부 중위의 결실면에는 점토띠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되었다. 저부는 사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접지면에는 초본류, 목판 등으로 추정되는 압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황회색(2.5Y 6/1), 갈회색(7.5YR 5/1), 내면 황회색(2.5Y 6/1), 갈회색(7.5YR 5/1), 속심 황회색(2.5Y 6/1)이다.

높이: 13.0cm, 복원구경: 19.4cm, 저경: 13.2cm, 두께: 0.4~0.9cm

150. 호(도면 68-150, 도판 4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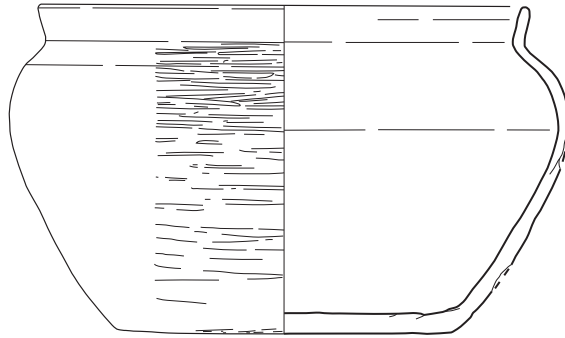
경부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중경질(中)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下)되었다. 기면의 박락 정도가 중하다. 동체부는 호형으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내측으로 기울어졌으며 경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할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 동체부 상위를 포함한 경부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갈회색(10YR 5/1),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10.9cm, 잔존너비: 16.3cm, 두께: 0.7~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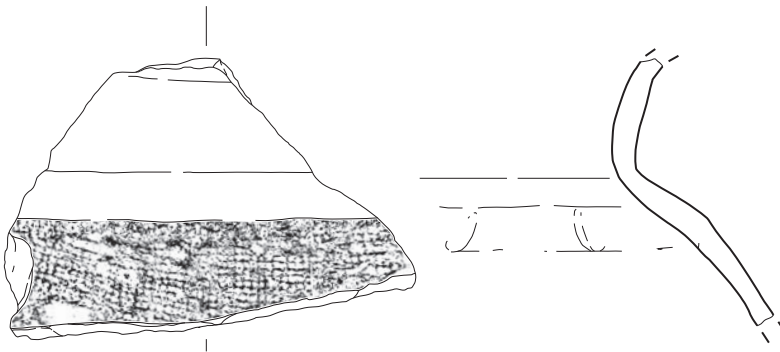
151. 미완성 석부(도면 68-151, 도판 47-151)

암질은 화강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얇은 판석의 측면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박리를 시도하였다. 전체적인 기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이며, 2/3이상 자연면이 남아있다. 인부는 고타하여 양인의 합인을 형성하였으나,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측면 가장자리와 인부 일부에는 고타흔이 관찰된다. 신부 측면부에는 일부 고타흔이 확인된다. 종단면과 횡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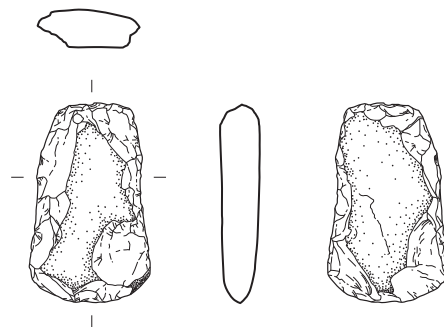
길이: 7.9cm, 너비: 4.8cm, 두께: 10.1cm, 무게: 94g.



<149>



<150>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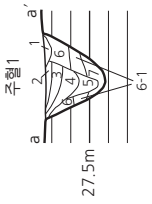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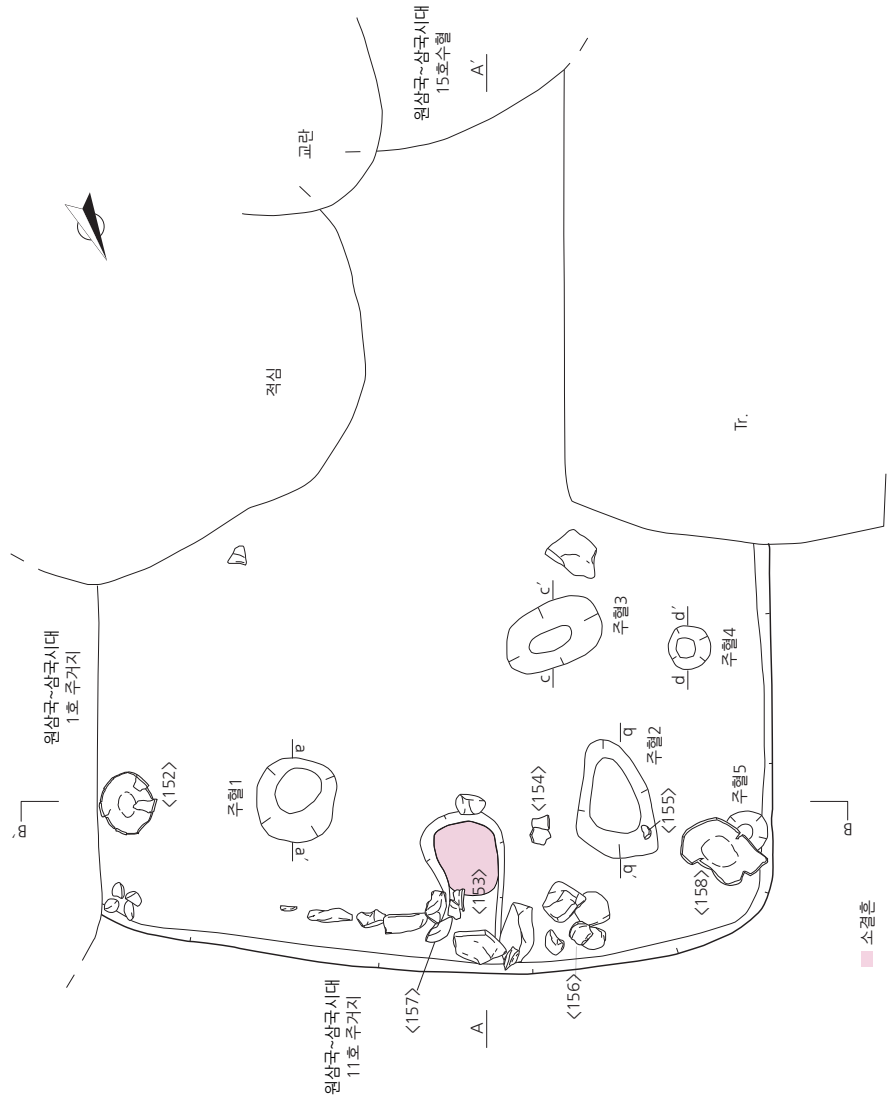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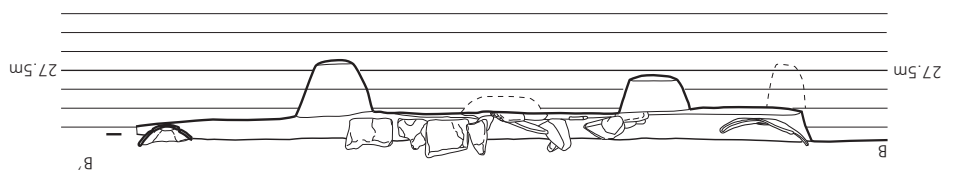


도면 68.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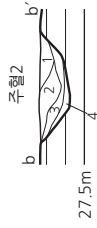
1. 명회갈색 사질토 - 입자 고움, 목탄편 소량 혼입.
2.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3.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4.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5.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6.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7.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8. 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9. 암갈색 사질토 - 황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10.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다량 혼입.
11. 황색 사질점토
12. 암갈색 사질토
13.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다량 혼입.
14.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15.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16.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혼입.
17.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다량 혼입.
18. 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혼입.
- 18-1.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혼입.
19.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량 혼입.
20. 적갈색 사질토 - 소토 다량 혼입.
21. 피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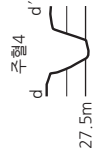
1. 명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2. 명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3. 암갈색 사질토 - 소토, 목탄편 소량 혼입.
4. 암갈색 사질토 - 소토, 목탄편 소량 혼입.
5. 암갈색 사질토
- 6-1. 황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7. 암갈색 사질토 - 입자 고움.



1. 명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2.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3. 회갈색 사질토 - 피델홀, 목탄편 소량 혼입.
4.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량 혼입.



1. 암갈색 사질점토 - 소토, 목탄편 소량 혼입.
2.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2-1. 회갈색 사질토 - 소토, 목탄편 소량 혼입.
- 2-2.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2-3. 회갈색 사질토 - 소토, 목탄편 소량 혼입.



도면 69. 원삼곡~삼곡시대 10호 주거지

(10) 10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69·73, 도판 48-①~③)

1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8~27.9m이다. 남쪽에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북쪽에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와 수혈이 밀집해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11호 주거지 및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수혈과 중복되었는데 11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1호 주거지 및 15호 수혈보다 선축되었다.

동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와 조선시대 1호 건물지에 의해 파괴되고 남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한 서쪽 부분은 표본Tr.에 의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N-26°-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480cm, 잔존폭 356cm, 깊이 20cm이다.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를 굴착한 후 11호 주거지의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조성하였다. 벽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남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남쪽에 출입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주거지로 상면에 목탄흔이 남아있지만 구조를 알 수 있는 목탄덩어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토층은 모두 22개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명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소량의 목탄편과 소토가 혼입되었다.

내부시설은 ‘ㄱ’자형의 외출구들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외출구들은 후벽 중앙에 위치하고 아궁이부와 연도부만 확인되었다. 아궁이부는 상면을 약 10cm 굴착해서 조성하였다. 아궁이부 중앙에 피열흔이 남아있지만 붓돌이나 지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부는 후벽에 인접해서 동쪽으로 이어진다. 상면을 얇게 굴착한 후 판석을 세로로 세워 조성했는데 중복유구로 심하게 파괴되어 벽석 일부만 남아있다.

주혈은 5개가 확인되었다. 벽주(주혈5)는 북서쪽 모서리에서 1개가 확인되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20cm, 깊이 23cm이다. 내부주혈(주혈1~4)은 북쪽에서 4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타원형·부정형이고 직경 44~60cm, 깊이 12~32cm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쪽에서 경질무문토기옹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52. 경질무문토기옹(도면 70-152, 도판 48-152)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하위까지의 약 1/2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해당부위는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낮은 굽 형태 혹은 평저에 가까우며 동체부는 측면이 긴 호형으로서 중상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동체부와 의 경계에서 비교적 곧게 직립하며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에는 횡방향 물손질 흔이 형성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있는 가운데 그 위로 부분적인 거친 찰흔이 겹친 양상도 관찰된다. 동체부 내면은 비교적 다양한 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외저면의 가운데에는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회갈색(7.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높이: 31.4cm, 복원구경: 19.0cm, 저경: 10.75cm, 두께: 0.3~1.1cm

153.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70-153, 도판 48-153)

외반구연용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상위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아래에서부터 내측으로 기울어져 올라가며 경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경계 내면의 넓은 범위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갈회색(10YR 5/1), 속심 탁한 등색(5YR 6/3)이다.

잔존높이: 5.0cm, 복원구경: 16.2cm, 두께: 0.55~0.9cm

154.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70-154, 도판 48-154)

경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동체 상부에서부터 중위 이하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다소 둥근 형태에 가까우며 중위가 최대경을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부 내·외면은 모두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등색(5YR 6/4), 속심 탁한 등색(5YR 6/3)이다.

잔존높이: 8.3cm, 두께: 0.55~0.9cm

155.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70-155, 도판 48-155)

동체 극히 일부를 포함한 저부 약 1/2 이상이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 외면에는 점토 접합 흔적이 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저부 외면에는 초본류 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색(N 4/0),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2.25cm, 복원저경: 7.3cm, 두께: 0.4~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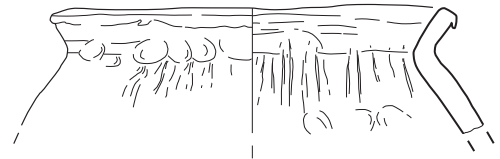
15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70-156, 도판 48-156)

동체 하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저부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c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완만한 양상의 요면이 형성되었으며 해당 부위는 물손질 후 초본류 압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외저면 외연의 넓은 범위에는 부분적으로 모래가 부착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적회색(10R 5/1),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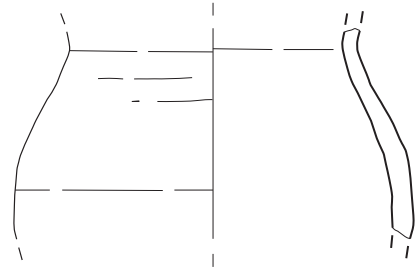
잔존높이: 5.0cm, 복원저경: 12.8cm, 두께: 1.3~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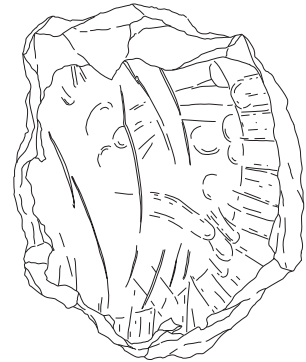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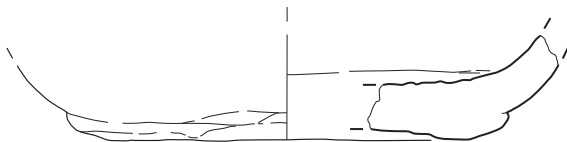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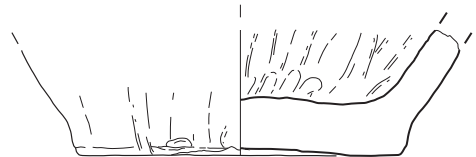
<153>



<154>



<155>



<157>



<156>



도면 70.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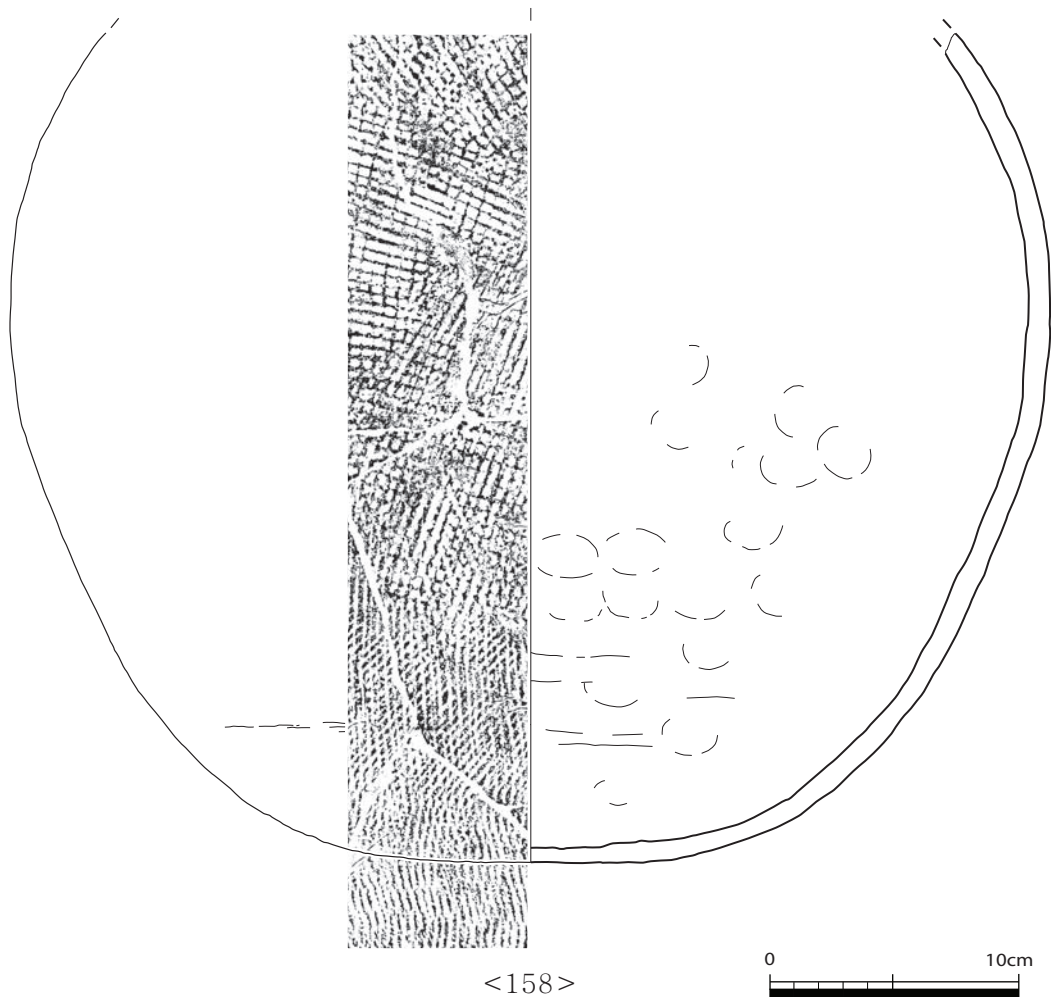
15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70-157, 도판 48-157)

대형의 용기로서 동체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저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0.8c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기면이 전체적으로 두텁고 기면 일부가 변형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며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저면의 안쪽으로 압에 의한 원형의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갈색(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4.2cm, 복원저경: 17.5cm, 두께: 1.3~2.3cm

158. 호(도면 71-158, 도판 48-158)

동체부 중상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원저이고 동체부는 구형(球形)으로서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외면에는 잔존부 전면에 걸쳐 박자 타날 압흔이 분포하며 동체부에는 승문, 저부에는 격자문이 확인되며 동체부 하위에서 박자모양이 겹치는데 타날 순서는 격자문이 승문 보다 선행한다. 동체부와 저부의 경계 외면에는 횡방향의 초본류로 추정되는 흔적이



도면 71.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2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원형의 박자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황회색(2.5Y 6/1), 회황갈색(10YR 6/2),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회황갈색(10YR 6/2)이다.

잔존높이: 32.8cm, 복원동최대경: 41.8cm, 두께: 0.55~1.0cm

(11) 1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72~73, 도판 49-①~④)

1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한다.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 걸쳐 있고 경계 토층에서 확인되는 해발은 28.1~28.2m이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10호·12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11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었다.

북서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고 남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N-28°-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774cm, 잔존폭 465cm, 깊이 56cm이다.

암갈색 사질점토를 경사지게 굴착하고 정지층을 조성한 다음,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내부토층은 모두 33개가 확인되며 크게 내부퇴적토층·상면점토층·정지토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39~63층)은 주로 회갈색·황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었고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정지층 위에 1~2cm로 점토다짐을 해서 조성하였다. 정지토층(64~71)은 주로 황갈색·회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가 굵고 거칠며 무른 편이고 두께는 최대 24cm이다.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중도식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북쪽에 위치하는데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어서 절반 정도만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직경 100cm이다. 상면을 6~8cm 굴착한 후 황색 점토로 둥글게 점토독을 쌓아서 조성하였다. 주혈은 내부주혈만 7개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이 주거지 북쪽에 밀집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16~40cm, 깊이 6~25cm이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호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159.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74-159, 도판 49-159)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곧게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회전물손질 되었다. 기면의 박락 정도가 중하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9.5cm, 잔존너비: 7.8cm, 두께: 0.6~1.1cm

160.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74-160, 도판 49-160)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으로 중상위가 최대경을 이룰 것으로 추정되며 내측으로 기울어져 경부로 이어진다.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짧게 외반한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외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적색(2.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2.5YR 5/3) 및 갈회색(5YR 5/1),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10.8cm, 잔존너비: 8.1cm, 두께: 0.5~0.8cm

16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74-161, 도판 49-161)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에 가깝다.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진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 도구(목판)로 긁어내린 흔적이 있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원형의 완만한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6/2),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3.2cm, 복원저경: 8.4cm, 두께: 0.85~1.6cm

162. 호(도면 74-162, 도판 49-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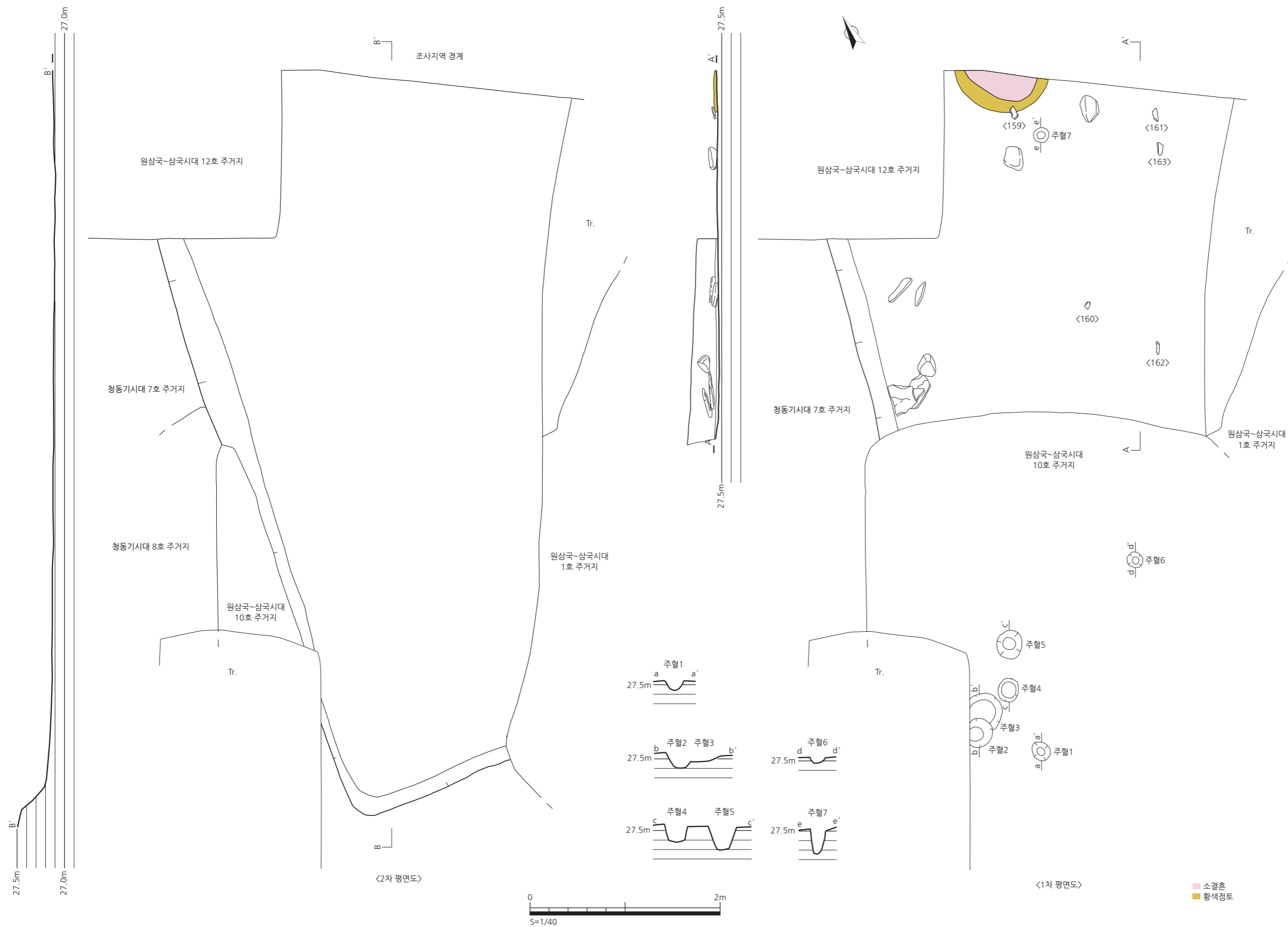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경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으로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에 가깝다. 기면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색(N 5/0), 내면 회백색(10YR 7/1),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잔존높이: 4.7cm, 잔존너비: 11.7cm, 두께: 0.6~0.8cm

163. 호(도면 74-163, 도판 49-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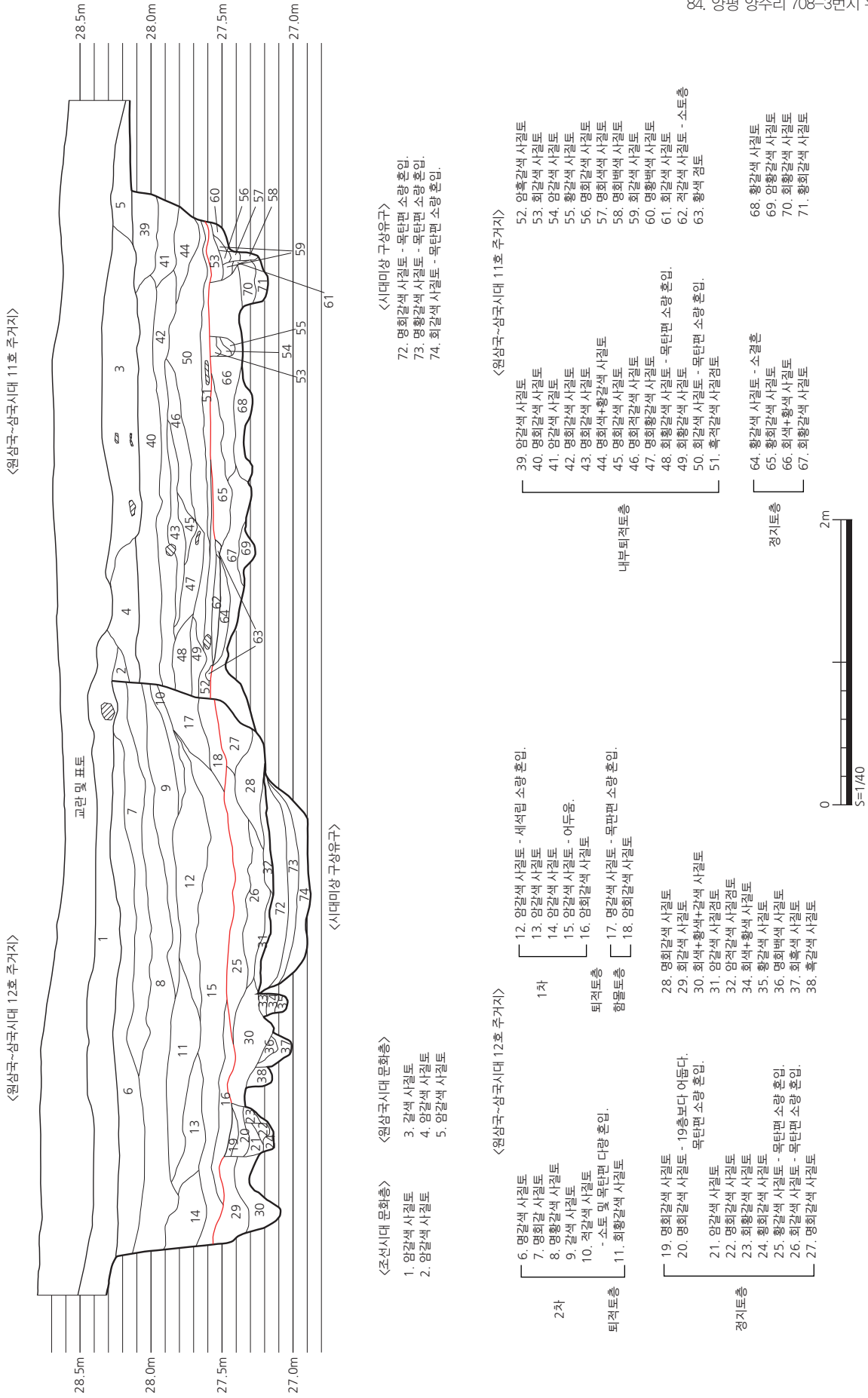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동체부는 둥근 형태이고 경부는 호형으로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에는 완만한 요철면이 형성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동체부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면에는 횡방향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잔존높이: 11.2cm, 복원구경: 24.1cm, 두께: 0.55~0.9cm



도면 72.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도면 73. 원삼국~삼국시대 11호·12호 주거지 북쪽 경계면도층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조선시대 문화층>

- 1. 암갈색 사질토
- 2. 암갈색 사질토
- 3. 갈색 사질토
- 4. 암갈색 사질토
- 5. 암갈색 사질토

<시대미상 구상유구>

- 72. 명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73. 명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74.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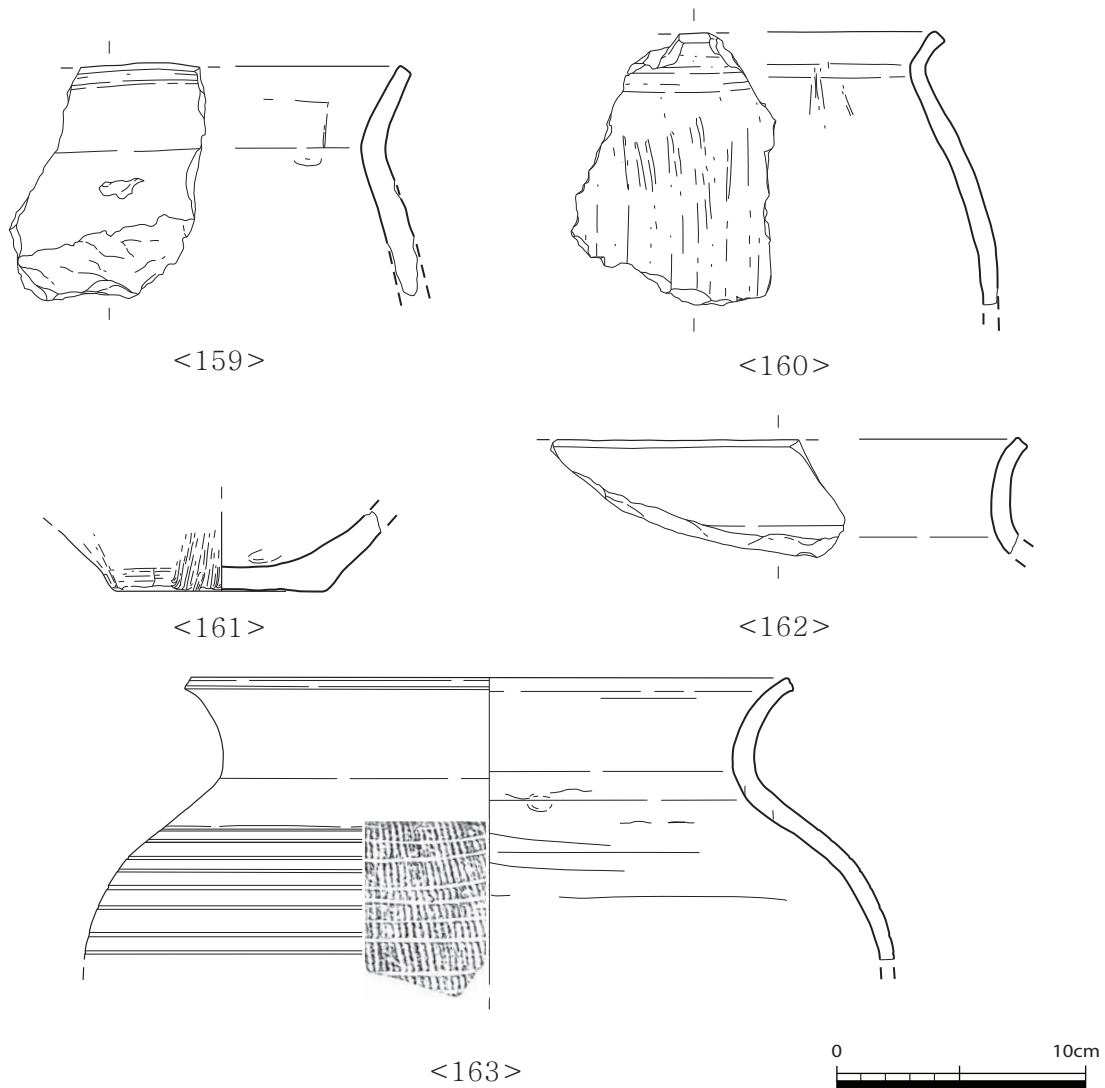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 6. 명갈색 사질토
- 7. 명회갈색 사질토
- 8. 명회갈색 사질토
- 9. 갈색 사질토
- 10. 적갈색 사질토 - 소토 및 목탄편 다량 혼입.
- 11. 회갈색 사질토
- 12. 암갈색 사질토 - 세석립 소량 혼입.
- 13. 암갈색 사질토
- 14. 암갈색 사질토
- 15. 암갈색 사질토 - 어두움.
- 16. 암회갈색 사질토
- 17. 명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18. 암회갈색 사질토
- 19. 명회갈색 사질토
- 20. 명회갈색 사질토 - 19층보다 어둡다. 목탄편 소량 혼입.
- 21. 암갈색 사질토
- 22. 명회갈색 사질토
- 23. 회갈색 사질토
- 24. 회갈색 사질토
- 25.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26.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27. 명회갈색 사질토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 39. 암갈색 사질토
- 40. 명회갈색 사질토
- 41. 암갈색 사질토
- 42. 명회갈색 사질토
- 43. 명회갈색 사질토
- 44. 명회색+회갈색 사질토
- 45. 명회갈색 사질토
- 46. 명회갈색 사질토
- 47. 명회갈색 사질토
- 48.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49. 회갈색 사질토
- 50.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51. 흑갈색 사질점토
- 52. 암회갈색 사질토
- 53. 회갈색 사질토
- 54. 암갈색 사질토
- 55. 회갈색 사질토
- 56. 명회갈색 사질토
- 57. 명회갈색 사질토
- 58. 명회갈색 사질토
- 59. 회갈색 사질토
- 60. 명회갈색 사질토
- 61. 회갈색 사질토
- 62. 적갈색 사질토 - 소토층
- 63. 황색 점토
- 64. 회갈색 사질토 - 소결층
- 65. 회갈색 사질토
- 66. 회색+황색 사질토
- 67. 회갈색 사질토
- 68. 회갈색 사질토
- 69. 암회갈색 사질토
- 70. 회갈색 사질토
- 71. 회갈색 사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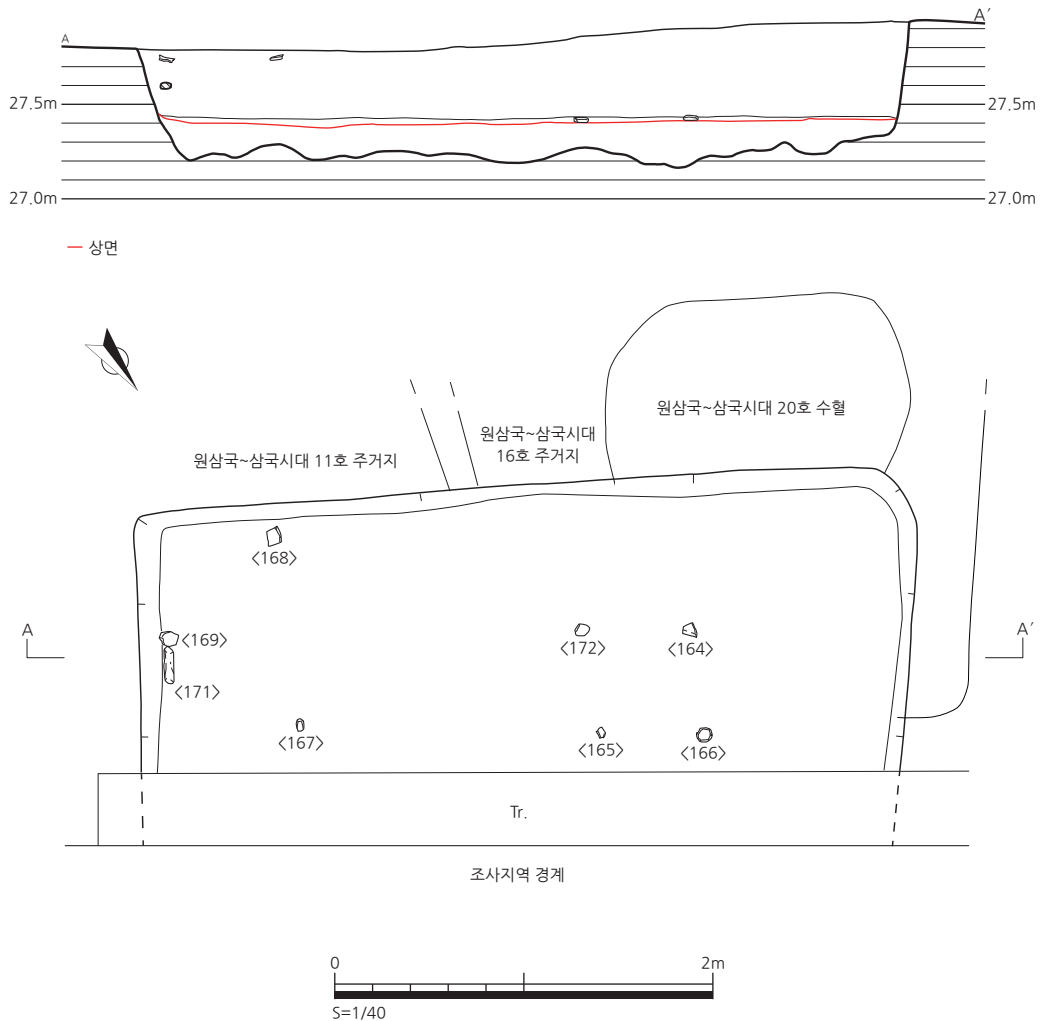
도면 74.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12) 12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75, 도판 50-①,②)

1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 걸쳐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와 16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조사지역 경계토층에서 확인되는 해발은 28.2~28.3m이다. 서쪽으로 1.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3.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1호·16호 주거지 및 20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12호 주거지가 가장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확인되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N-42°-W이다. 규모는 길이 410cm, 잔존폭 200cm이며 조사지역 경계토층에서 확인되는 깊이는 103cm이다.



도면 75.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12호 주거지는 선축된 유구를 급경사로 굴착하고 정지층을 조성 후, 정지층 위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부토층은 크게 내부퇴적토층(6~16층)·상면점토층·정지토층(19~38)층으로 구분되고 내부퇴적토층은 2차 퇴적토층(6~11층)·1차 퇴적토층(12~16층)·함몰토층(17·18층)으로 세분된다. 2차 퇴적토층은 황갈색·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입자가 거칠고 단단하며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1차 퇴적토는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중앙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퇴적 되었다. 입자가 거칠고 단단하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괴상의 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정지층 위에 약 1cm의 두께로 점토다짐을 해서 조성했는데 다른 주거지에 비해 무른 편으로 상면의 굴곡이 심한 편이다. 정지토층은 회갈색·황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입자가 거칠고 매우 무르며 두께는 최대 40cm이다.

조사지역 경계토층에서 상면주혈(19~24층)과 정지층 주혈(33~37층)이 확인되지만 주거지

내부에서는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지석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64. 경질무문토기 구연부(도면 76-164, 도판 50-164)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경부는 거의 직립하며 경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이 물손질되었으며 기면에는 정면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5.5cm, 잔존너비: 8.5cm, 두께: 0.55~0.9cm

165. 경질무문토기 토기편(도면 76-165, 도판 50-165)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연마 흔적이 있으며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색(N 4/0),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5.8cm, 잔존너비: 9.3cm, 두께: 0.6~0.8cm

16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76-166, 도판 50-166)

동체 극히 일부를 포함한 저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는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기면이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와 경계 외면에는 다수의 지두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2.4cm, 저경: 7.1cm, 두께: 0.9~2.2cm

16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76-167, 도판 50-167)

저부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의 저면 모두 편평하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원형의 요면이 형성되었으며 해당부위에는 부분적으로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있다. 내면에는 지두로 훑은 물손질 흔적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2.3cm, 잔존너비: 5.9cm, 두께: 1.1~2.0cm

168. 호(도면 76-168, 도판 50-168)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경부는 약간 사방향으로 길고 곧게 이어지며 구연부는 극히 짧게 외반한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나 가운데의 넓은 범위가 눌러 약한 요면을 이룬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7.5YR 5/1),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8.6cm, 잔존너비: 9.6cm, 두께: 0.85~0.95cm

169.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도면 76-169, 도판 50-169)

호로 추정되며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下)되었다. 외면에는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고 내면은 물손질된 가운데 원형의 박자 압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7.5YR 5/1), 내면 황회색(2.5Y 6/1),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잔존높이: 8.6cm, 잔존너비: 8.9cm, 두께: 0.75~0.95cm

170. 토기 파수부편(도면 76-170, 도판 50-170)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호 혹은 동이로 추정되며 파수 일부가 부착된 상태의 동체부 편이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파수는 기 성형 후 동체부의 외면에 대고 접합하였다. 기 내·외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황회색(2.5Y 6/1),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8.6cm, 잔존너비: 10.6cm, 두께: 0.75~1.8cm

171. 지석(도면 76-171, 도판 5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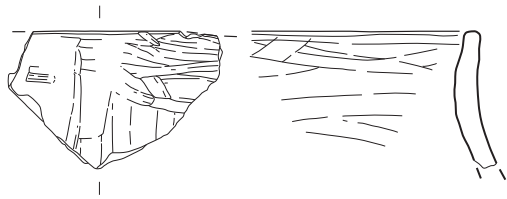
암질은 섬록반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다. 편평한 한쪽 면에 사용흔이 확인되며, 지석의 종방향으로 다소 거칠게 마연된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19.0cm, 너비: 4.1cm, 두께: 5.3cm, 무게: 78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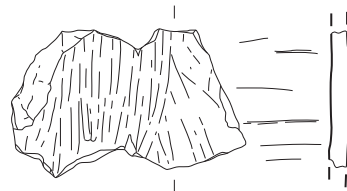
172. 석재(도면 76-172, 도판 50-172)

암질은 혼펠스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측면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박리하여 두께 조절을 시도하였다. 한쪽 측면에는 얇은 잔손질을 베풀어 인부를 조성하였다. 석기를 제작하는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횡단면은 편육각형, 종단면은 썸기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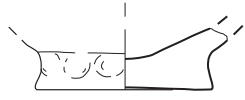
길이: 8.6cm, 너비: 5.3cm, 두께: 3cm, 무게: 121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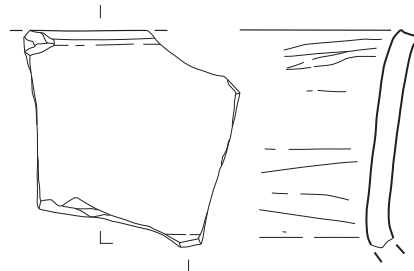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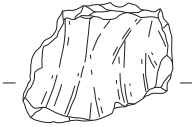
<165>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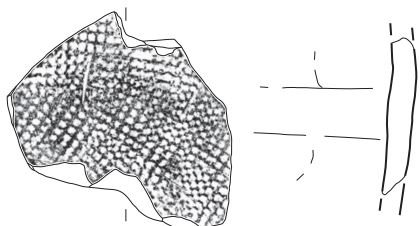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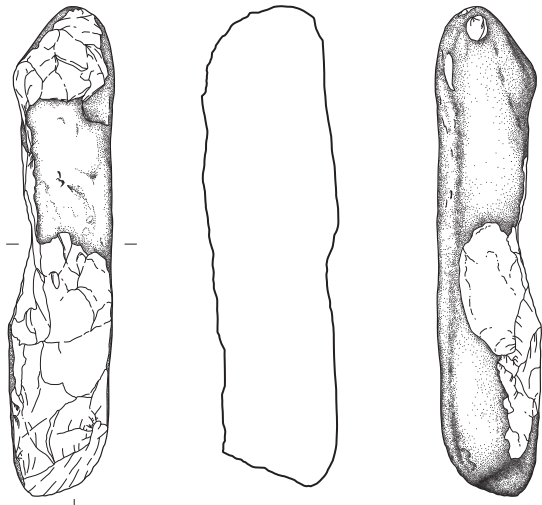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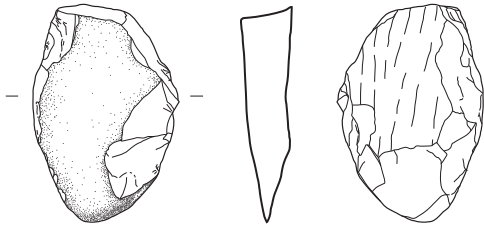
<170>



<169>



<171>



<172>



도면 76.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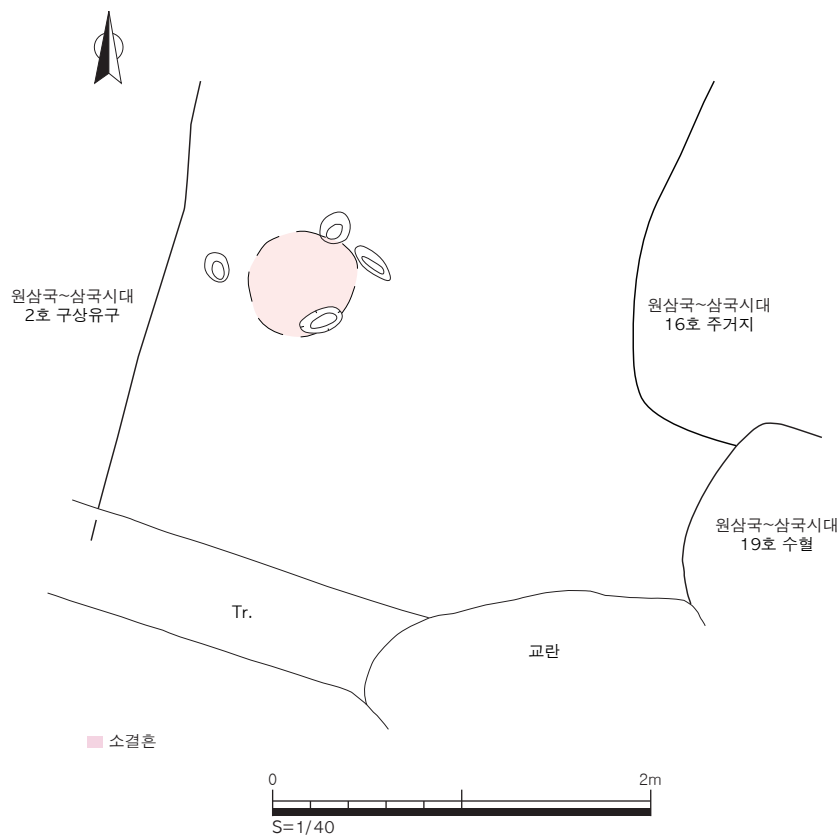
(13) 13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77, 도판 51-①,②)

1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서쪽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8m이다. 선축된 유구를 굴착하였으며, 정지층을 조성하지 않고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상부가 모두 파괴되어 노지만 남아있다.

노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은 53cm이다. 노지 주변으로 3개의 주혈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장한 돌을 세워 만든 지각식 노지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77.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주거지

(14) 14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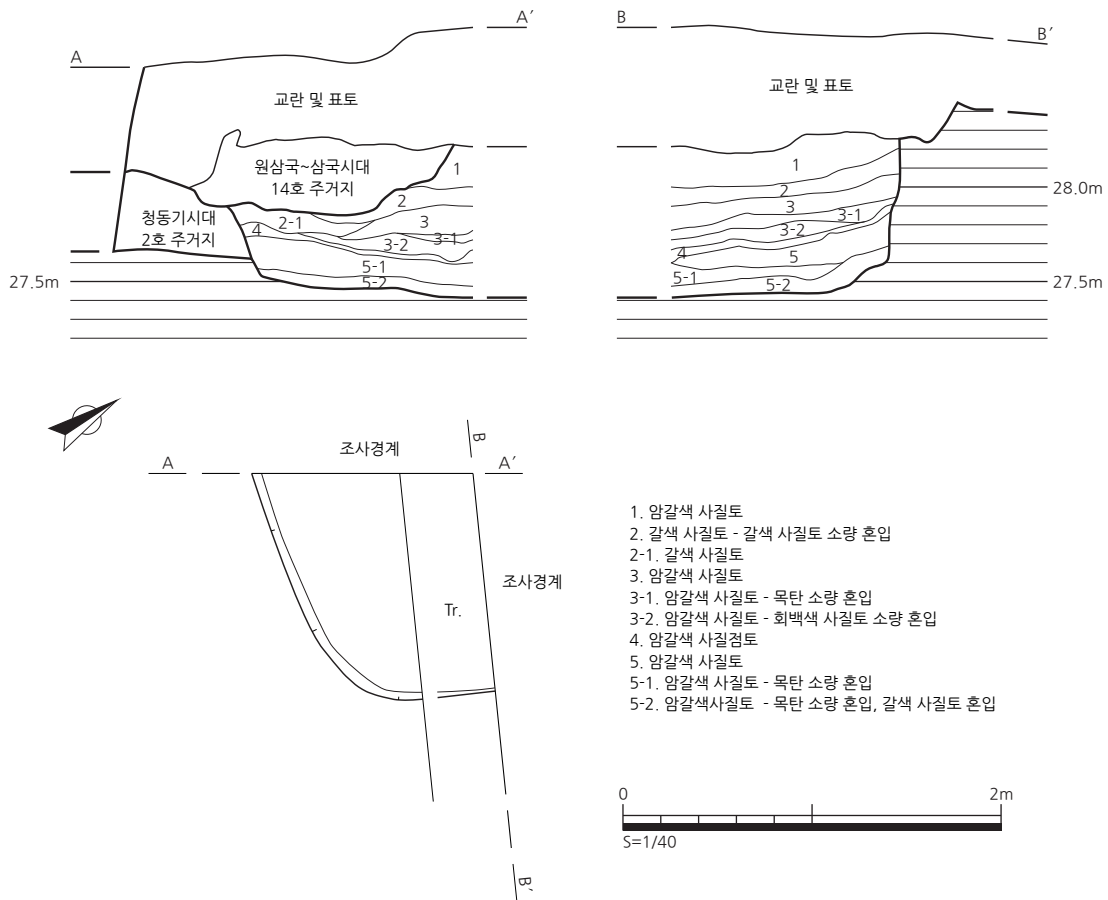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78, 도판 51-③,④)

1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 걸쳐 있다.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조사지역 경계토층에서 확인되는 해발은 28.2~28.3m이다. 동쪽으로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와 16호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14호 주거지는 청동기 2호 주거지를 굴착해서 조성하였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고르지 않지만 대체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120cm, 잔존폭 116cm이고 조사지역 경계면에서 확인되는 깊이 85cm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10개가 확인되었다. 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완만하게 경사되적 되었다. 입자는 거칠고 무른 편이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78.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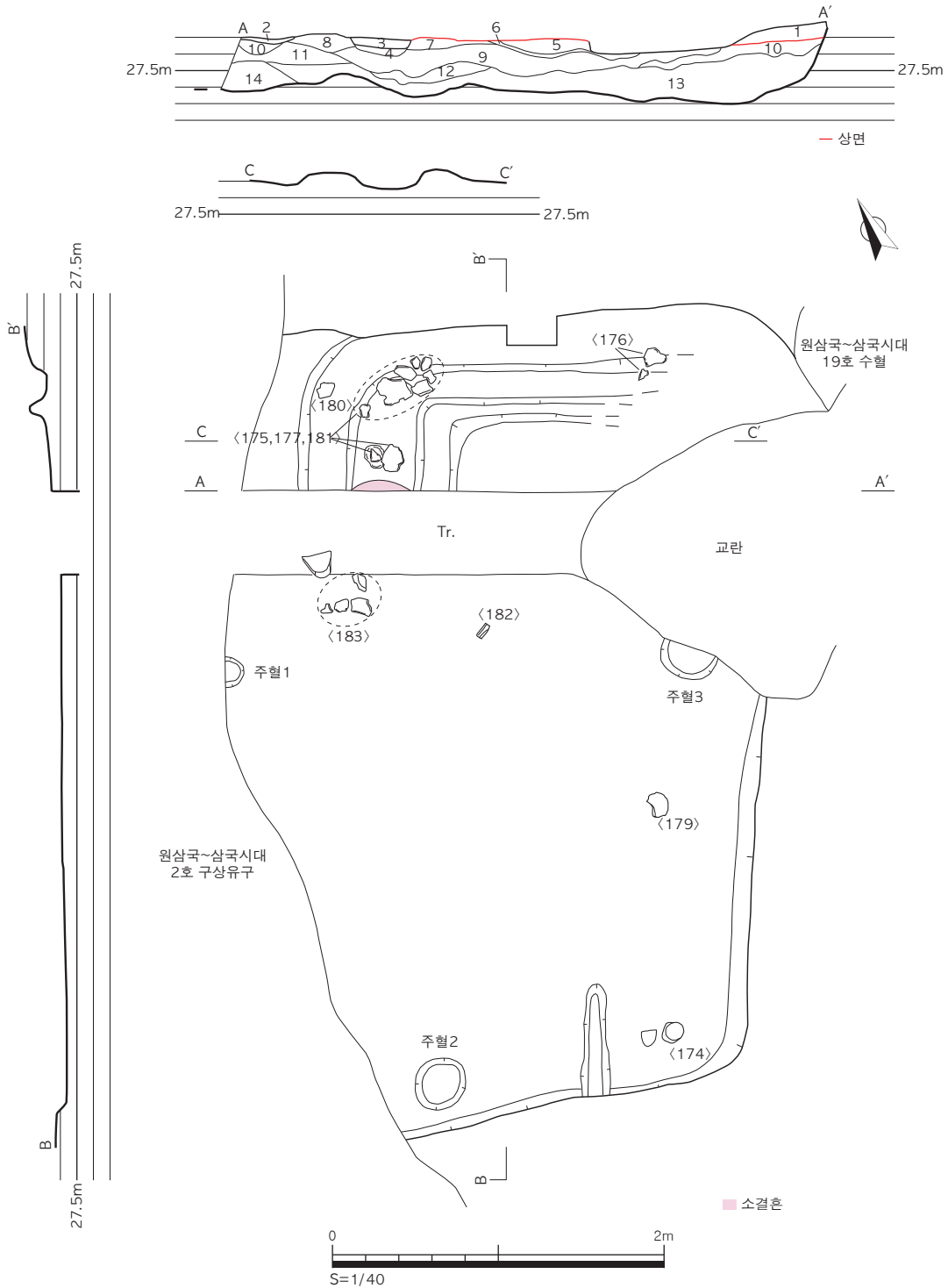
(15) 15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79, 도판 51-⑤)

1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7~27.8m이다. 북동쪽에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와 18호·19호 수혈이 인접하고 동쪽으로 5.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주거지 및 2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는데 13호 주거지보다

1. 암황갈색 사질토
2. 흑갈색 사질토 - 소토 소량 혼입.
3. 황적색 사질점토 - 소토 다량 혼입, 황갈색 점토 다량 혼입.
4. 명적색 사질점토
5. 황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6. 암갈색 사질점토
7. 암갈색 사질점토
8. 암황갈색 사질토
9. 암갈색 사질토 - 소토 소량 혼입.
10. 진갈색 사질토
11. 암갈색 사질토
12. 연황갈색 사질토
13. 암갈색 사질토
14. 갈색 사질토

내부퇴적토층 : 1~3
정지토층 : 4~14



도면 79.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후측되고 2호 구상유구보다 선측되었다.

15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굴착해서 정지층을 조성한 다음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주거지 상부가 심하게 파괴되어 상면과 정지층만 남아있다. 또한 주거지 서쪽 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동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중앙 부분은 중복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Tr.로 인해 파괴되어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28°-E이고 규모는 길이 486cm, 잔존폭 326cm이다.

내부토층은 14개가 확인되는데 크게 내부퇴적토층(1~3층)과 정지토층(4~14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은 황적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정지토층은 주로 암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최대깊이는 46cm이다.

내부시설은 ‘ㄱ’자형의 외줄구들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외줄구들은 후벽의 중앙에 위치한다. 대부분이 파괴되어 아궁이부 일부분과 연도부만 남아있는데, 잔존형태로 보아 점토만 사용해서 구들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궁이부는 정남쪽을 향하고 있다. 이맛돌과 붓돌은 남아있지 않고 피열흔 일부분만 남아있다. 연도부는 후벽을 따라서 동쪽으로 꺾어진다.

주혈은 3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20~36cm, 깊이 20~28cm이다.

유물은 구들에서 경질무문토기옹이 출토되었고 상면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73. 경질무문토기옹(도면 80-173, 도판 52-173)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소형의 외반구연옹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까지가 약 2/5 정도 결실되었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호형(弧形)이고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짧게 사방향으로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경부 외면에는 지두 압흔이 형성되었다. 저부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굽어내린 도구(목판)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갈회색(5YR 5/1),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높이: 10.7cm, 구경: 9.0cm, 저경: 6.6cm, 두께: 0.4~1.9cm

174. 경질무문토기옹(도면 80-174, 도판 52-174)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하부까지의 약 1/3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지이고 동체부는 둥근 형태로서 중상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은 부분적으로 물손질된 가운데 목판 혹은 포로 추정되는 횡방향의 찰흔 형성되었다. 저부 외면의 전면과 저부에서 이어지는 동체부 외면 일부에는 초본류 압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내면은 거의 전면에 걸쳐 물손질된 가운데 내저와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부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는 횡방향으로 연속되는 짧은 선상의 압흔이 분포하는데 초본류를 횡으로 엮은 틀을 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높이: 21.3cm, 구경: 14.7cm, 저경: 9.2cm, 두께: 0.6~1.8cm

175.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0-175, 도판 52-175)

외반구연용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측면이 둥근 편이며 경부는 동체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벌어지는 형태로서 구연부로는 큰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탁한 등색(5YR 6/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11.5cm, 복원구경: 18.1cm, 두께: 0.4~0.85cm

176.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0-176, 도판 52-176)

외반구연용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경부는 중위가 꺾여 구연부로 이어지며 구연에서 경부까지의 측면 형태는 호형에 가깝다. 구순은 등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이 모두 물손질되었으며 경부 내면에는 사방향의 목판 선단부 압흔과 함께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9.2cm, 잔존너비: 10.2cm, 두께: 0.5~0.9cm

17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0-177, 도판 52-177)

외반구연용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동체부와 경부의 경계는 단이 지고 경부는 살짝 내만하는 형태로 길게 뻗는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은 뾰족한 형태에 가깝다. 기면은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갈회색(5YR 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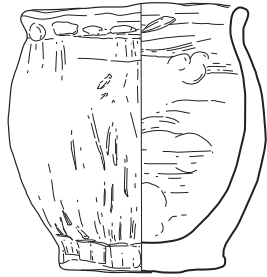
잔존높이: 7.1cm, 잔존너비: 8.3cm, 두께: 0.3~1.3cm

178.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0-178, 도판 52-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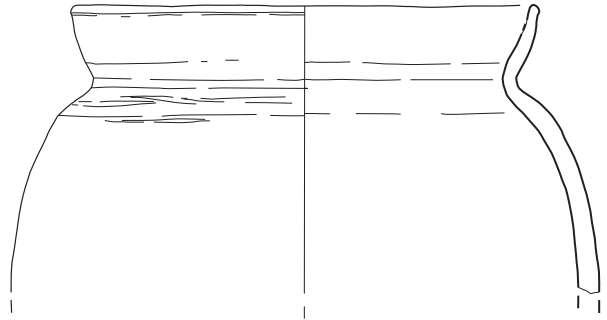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대형의 외반구연용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내측으로 약간 기울어졌으며 경부에서 구연부까지는 완만한 호형으로 경부에서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등글납작한 형태이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횡방향의 긴 압흔 다수가 형성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고 동체부에서 이어지는 경부 외면에는 지두 압흔이 있으며 경부에서 이어지는 동체부 내면에도 종방향으로 비교적 짧게 훑어 내린 지두압흔이 다수 분포한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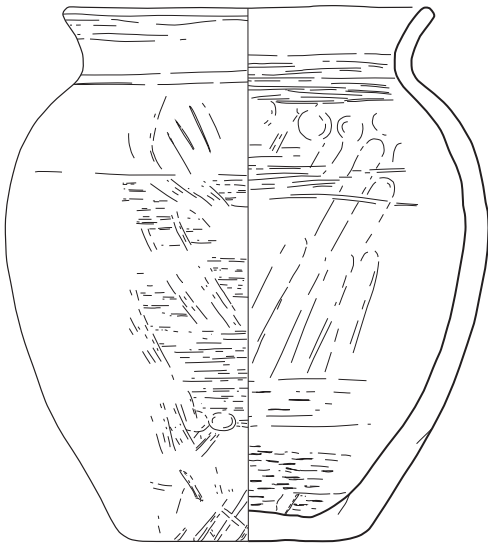
잔존높이: 10.7cm, 잔존너비: 17.2cm, 두께: 0.8~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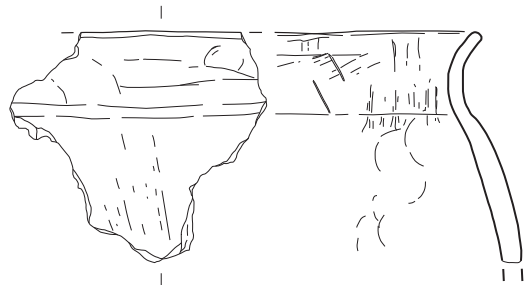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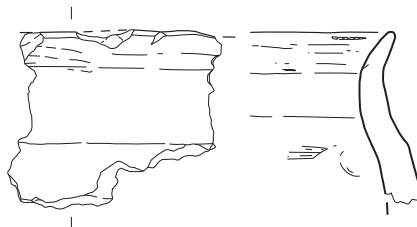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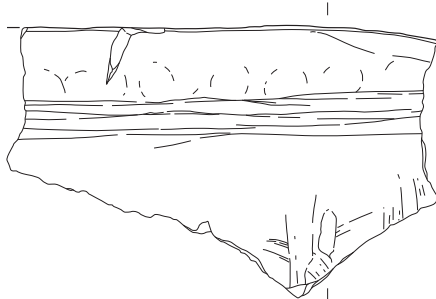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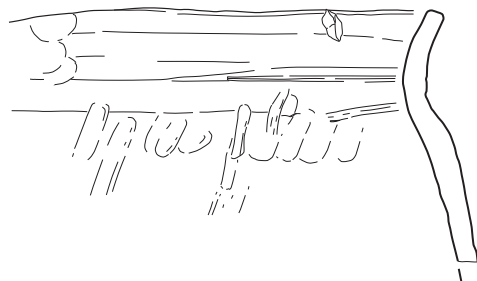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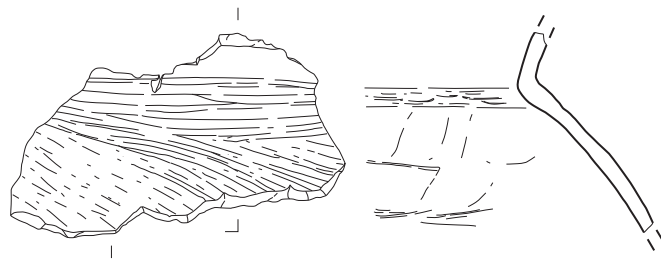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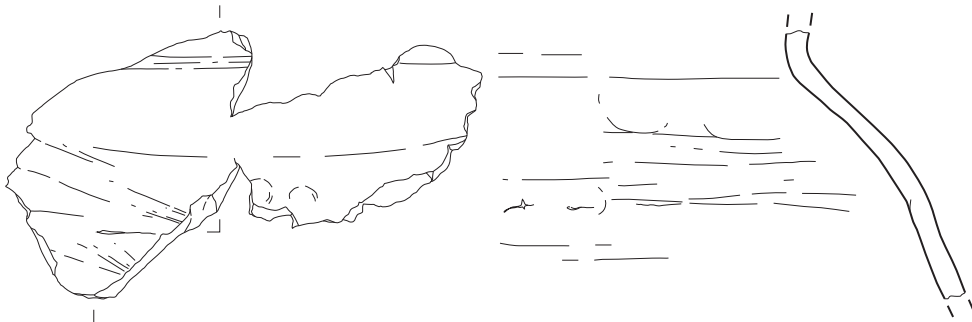
<178>



도면 80.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1



<179>



<180>



<181>



도면 81.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2

179.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1-179, 도판 55-179)

경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동체 상부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내측으로 기울어졌고 경부는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경부 내·외면은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내려 그은 물손질 흔적이 뚜렷하다. 동체부 내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직상의 목판 선단부 압흔이 약하게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8.2cm, 잔존너비: 13.2cm, 두께: 0.5~0.8cm

180.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1-180, 도판 52-180)

경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동체 상부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완만한 곡면을 그리며 내측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물손질 도구에 의한 찰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2.5YR 6/4), 회갈색(7.5YR 6/2), 내면 탁한 등색(2.5YR 6/4), 외면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10.5cm, 잔존너비: 18.9cm, 두께: 0.6~0.9cm

181.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1-181, 도판 52-181)

대형의 용기로서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호형이고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잔존부 상위의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그 아래로는 사방향의 찰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원형의 박자 압흔이 다수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7.5YR 7/4), 내면 탁한 등색(2.5YR 6/4), 속심 탁한 적갈색(5YR 5/3)이다.

잔존높이: 27.0cm, 잔존너비: 26.7cm, 두께: 0.7~1.4cm

18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82-182, 도판 52-182)

동체 일부를 포함한 저부 일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저면에는 초본류와 함께 소형 동물의 발 혹은 도토리 등의 열매나 곡물류로 추정되는 압흔 다수가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되었으며 지두로 훑은 흔적이 뚜렷하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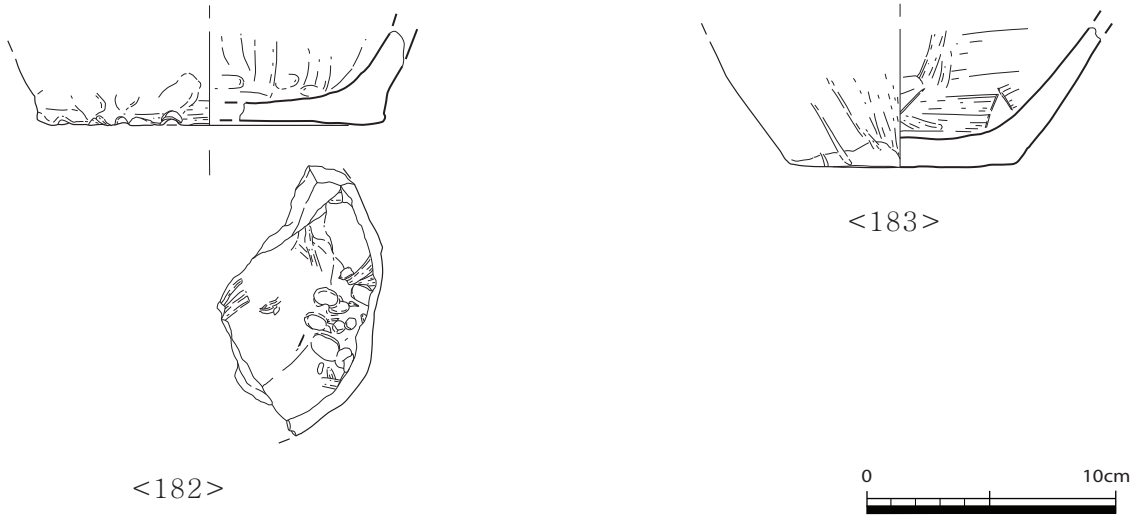
잔존높이: 3.75cm, 복원저경: 13.8cm, 두께: 0.6~2.1cm

183.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82-183, 도판 82-183)

동체부 중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9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평저에 가까울 만큼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아주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저부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저부에서 밀린 점토 흔적이 확인된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내저에는 직상의 목판 선단부 압흔이 형성되었다. 저부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초본류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회갈색(5YR 5/2), 속심 적회색(2.5YR 4/1)이다.

잔존높이: 6.5cm, 저경: 9.0cm, 두께: 0.65~1.6cm



도면 82.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3

(16) 16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3, 도판 53-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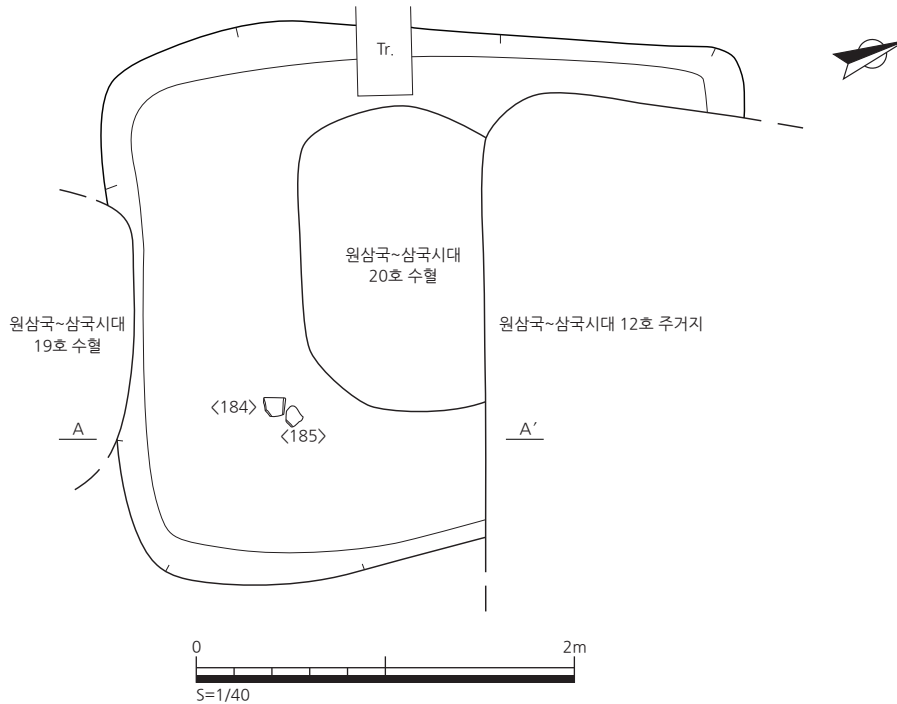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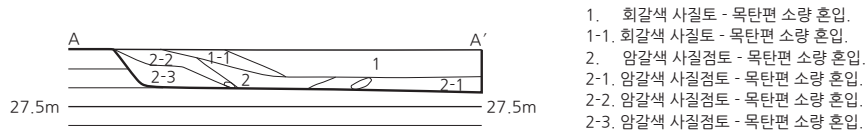
1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8~28.9m이다. 이곳은 유구의 중복이 심한 곳으로 주변에 원삼국~삼국시대 10호·11호·14호·15호 주거지가 인접해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와 19호·20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16호 주거지가 가장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북동쪽 부분과 중앙 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와 20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장축방향은 N-17°-E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341cm, 잔존폭 296cm, 깊이 22cm이다. 벽면은 경사를 이루고 바닥은 대체로 평평하며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6개가 확인된다. 회갈색 사질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주거지 중앙에 소결흔이 남아있고 북쪽 경계면에 벽석이 확인되기 때문에 구들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83.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

나. 유물

184.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84-184, 도판 53-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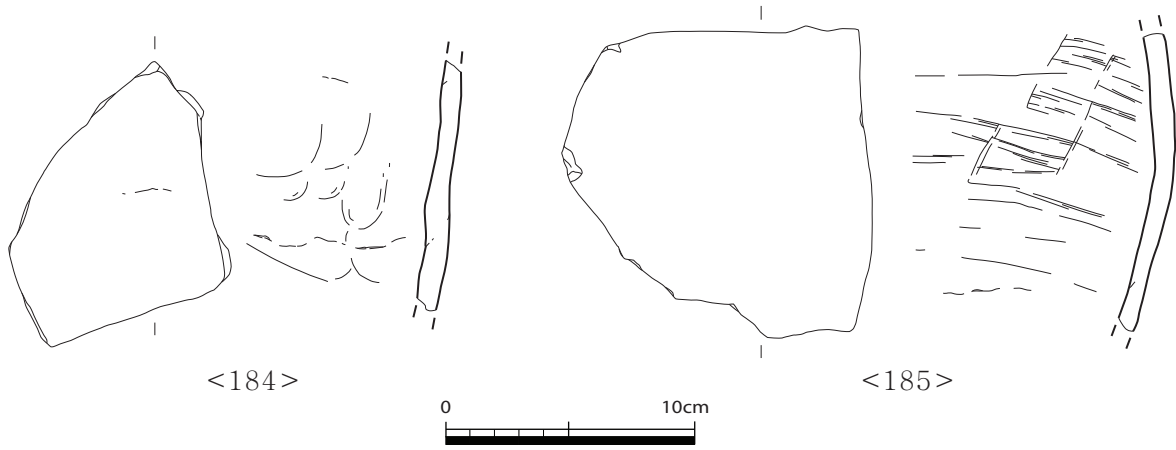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며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외면의 박락정도는 중하며 내면은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원형의 박자와 지두 압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탁한 등색(5YR 6/4),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황갈색(10YR 6/2)이다.

잔존높이: 11.3cm, 잔존너비: 8.8cm, 두께: 0.7~1.0cm

185.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도면 84-185, 도판 53-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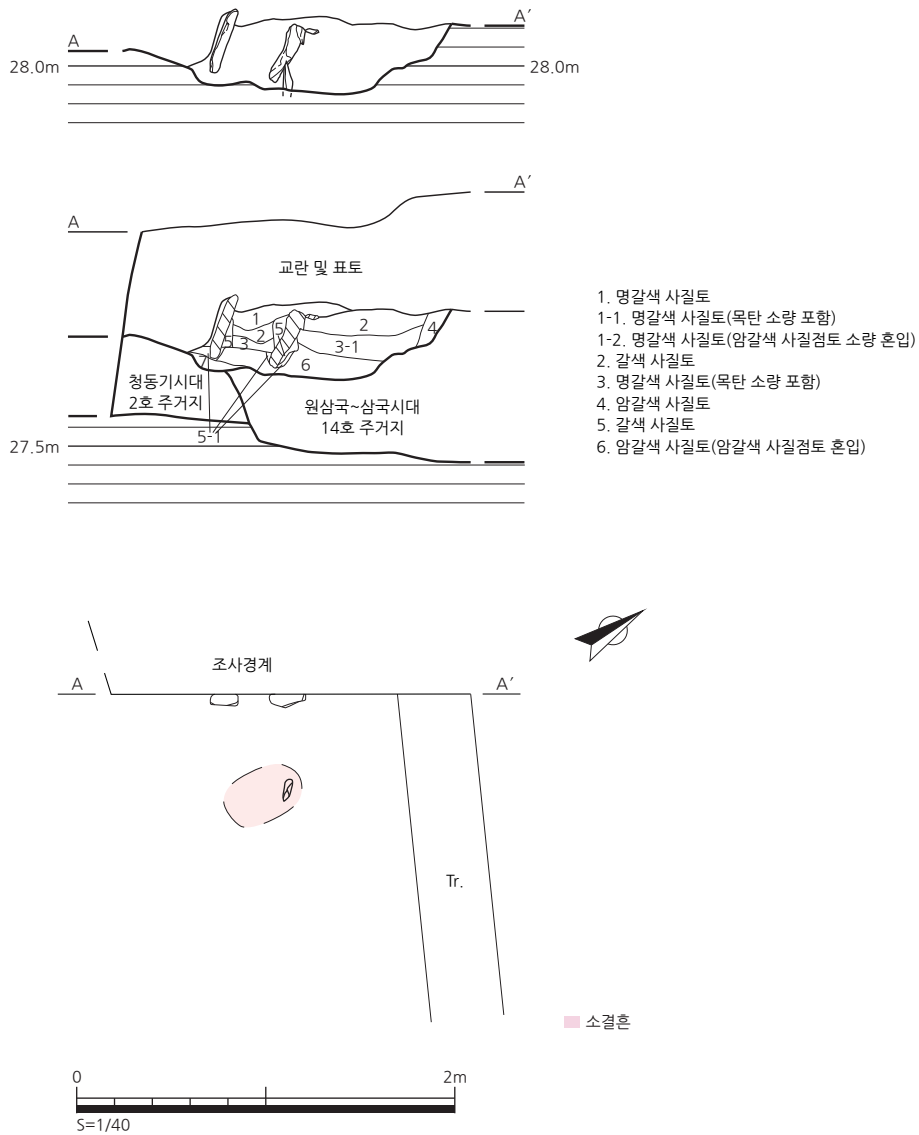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완만한 호형을 이룬다. 외면의 박락정도는 중하며 내면은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내면 탁한 등색(5YR 6/4), 속심 탁한 등색(5YR 6/4)이다.

잔존높이: 11.8cm, 잔존너비: 12.3cm, 두께: 0.65~0.9cm



도면 84.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 출토유물

(17) 17호 주거지



도면 85.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5, 도판 53-③~⑤)

1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서쪽에 위치하고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다. 원삼국~삼국 14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8.2~28.3m이다. 원삼국~삼국 14호 주거지를 굴착하였으며, 정지층을 조성하지 않고 14호 주거지 내부퇴적토를 바닥으로 사용하였다. 상부가 모두 파괴되어 바닥면 일부분만 남아있다.

내부토층은 8개가 확인되는데 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내부시설은 노시설이 확인되었는데 바닥면에 타원형의 피열흔이 남아있고 북서쪽 경계면에 길이 35cm의 벽석이 확인된다. 잔존형태로 보아 일자형 부뚜막 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8) 18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86, 도판 53-⑥,⑦)

1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다. 해발은 27.2~27.4m이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가 중복되었는데 18호 주거지가 선축되었다. 북쪽 부분과 동쪽 부분이 1호 구상유구에 의해 파괴되고 서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18호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토를 굴착한 다음 굴착면에 점토다짐을 해서 상면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조성하였다. 규모는 잔존길이 720cm, 잔존폭 276cm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상면점토층은 1~2cm 두께로 점토다짐을 해서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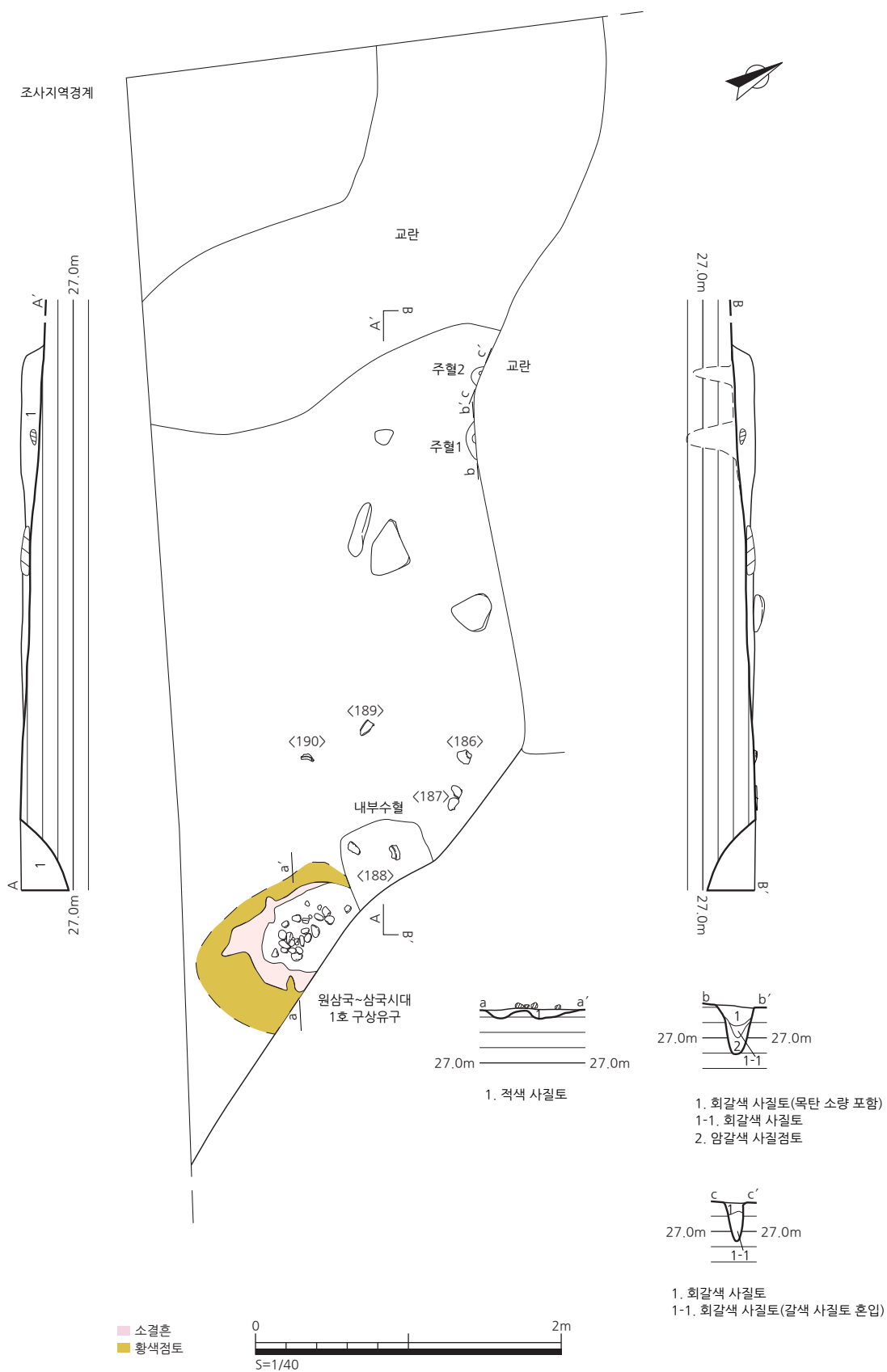
내부시설은 중도식 노지와 내부수혈,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남동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교란과 내부수혈에 의해 북동쪽 부분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길이 119cm, 잔존폭 73cm이다. 황색 점토를 등글게 쌓은 다음 내부에 10cm이하의 석재를 놓고 점토를 깔아서 조성했다. 내부수혈은 동쪽 끝부분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 북쪽에 위치하며 교란으로 동쪽이 파괴되었다. 규모는 길이 116cm, 잔존폭 68cm이다. 주혈은 내부주혈 2개가 확인되었는데 2개 모두 교란에 의해 북쪽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16~20cm, 깊이 28~32cm이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뚜껑과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86. 경질무문토기 뚜껑(도면 87-186, 도판 53-186)

꼭지에서부터 신부 일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下)되었다. 신부의 측면은 '스'자 형태로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사방향으로 길게 기울어졌다. 신부 중앙에는 낮은 굽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되었다. 꼭지 상면은 외연의 넓은 범위 안쪽으로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꼭지와 신부 경계 외면에는 지두압흔이 있다. 기 내·외면 모두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도면 86.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주거지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6.2cm, 꼭지경: 5.15cm, 두께: 0.9~2.25cm

18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7-187, 도판 53-187)

소형의 외반구연용에 해당하며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상위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호형이며 잔존부 하위에서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짧게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는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목관을 굽어내린 종방향의 흔적이 뚜렷하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황회색(2.5Y 6/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7.8cm, 잔존너비: 6.5cm, 두께: 0.4~0.85cm

188.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87-188, 도판 53-188)

동체 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며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측면이 사방향으로 완곡하게 벌어진다. 동체부와 저부 경계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연속된 지두압흔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내저에는 지두압흔이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갈회색(5YR 5/1),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5.2cm, 복원저경: 7.0cm, 두께: 0.9~1.95cm

189. 호(도면 87-189, 도판 53-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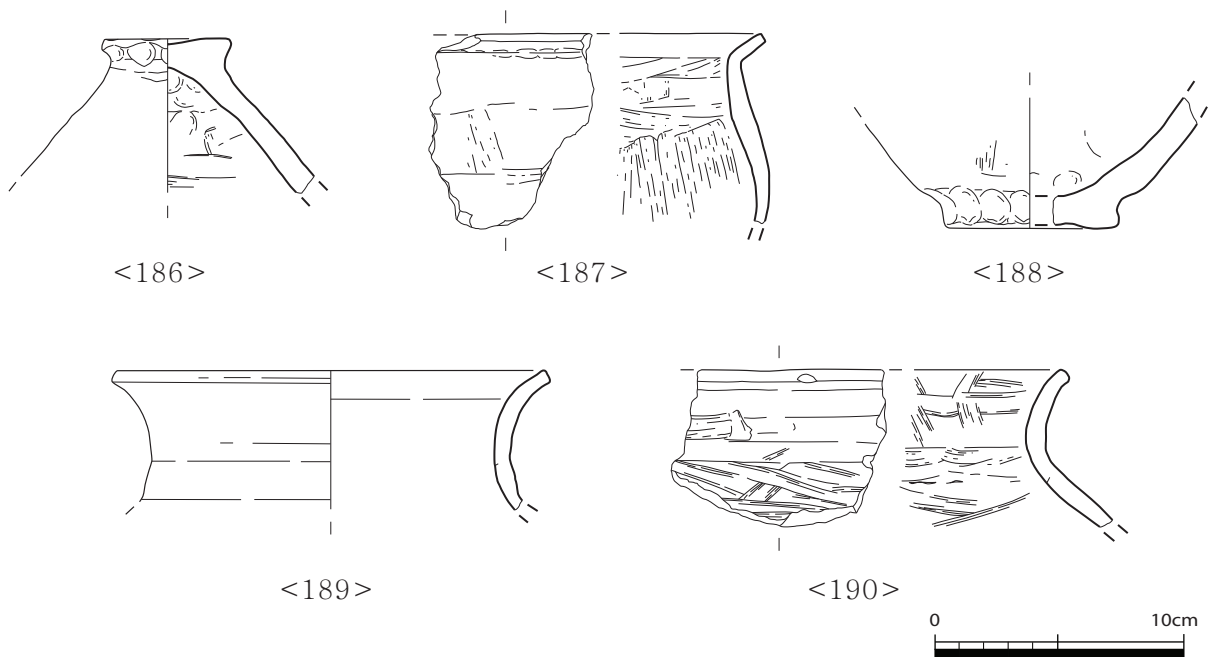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下)과 연질(下上)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경부는 측면이 호형으로 벌어지면서 구연부로는 큰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이 모두 회전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5.5cm, 복원구경: 17.4cm, 두께: 0.5~0.7cm

190. 호(도면 87-190, 도판 53-190)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일부 잔존한다. 중경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경부는 완만한 호형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 이어지고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경부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내·외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양면 모두 물손질에 의한 거친 찰흔이 형성되었다. 동체부에는 승문으로 추정되는 타날 압흔이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내면 탁한 황등색(10YR 7/2),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잔존높이: 6.2cm, 잔존너비: 8.5cm, 두께: 0.7~1.0cm



도면 87.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2)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88, 도판 54)

1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7~27.9m이다. 조사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확인되는데 양 끝단이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성과정에서 동쪽 일대는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와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를 파괴하였고 서쪽 일대는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주거지를 파괴하였다.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1,614cm, 폭 588cm, 깊이 234cm이다.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으로 벽면에 요철이 심하고 바닥에는 좁은 구가 형성되어 있다.

내부퇴적토는 모두 39개가 확인되었으며 크게 5개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1(2층)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입자가 굵은 편이고 유수와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층2(3~3-2층)는 명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U'자 형태로 완만하게 퇴적되었고 다량의 황갈색 사질토가 혼입되었다. 침수와 유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괴상의 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내부퇴적토층3(4층)은 회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U'자 형태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편으로 점토 함유량이 많고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내부퇴적토층4(5~21-1층)는 갈색·암갈색·암적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이루어졌고 'U'자 형태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입자가 굵고 거칠며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상부에서 얇은 재층이 퇴적된 것이 확인되었다. 하부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점토 함유량이 높아진다. 내부퇴적토층5(22~32층)는 암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완만하게 경사퇴적 되었다. 입자가 매우 굵고 거칠며 경도는 무르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소호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19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9-191, 도판 55-191)

외반구연용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까지가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완만한 호형이고 경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기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에는 종방향으로 굽어 내린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종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갈회색(7.5YR 5/1), 회색(N 4/0),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9.3cm, 복원구경: 12.5cm, 두께: 0.7~1.0cm

19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89-192, 도판 55-192)

구상유구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저에 가까우며 외저면 가장자리 안쪽은 압에 의해 넓은 요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도구 선단부 압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으며 지두압흔이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5/3),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회갈색(7.5YR 6/2)이다.

잔존높이: 5.0cm, 복원저경: 16.0cm, 두께: 0.7~2.3cm

193. 소호(도면 89-193, 도판 55-193)

구상유구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구연에서부터 저부까지의 3/4 정도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저 혹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동체부 측면은 둥글며 중상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동체부는 중상위에서 완만하게 꺾여 견부를 형성하고 경부를 향해 사방향으로 다소 길게 이어진다. 경부는 짧고 거의 직립하거나 살짝 내측으로 기울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근 편이다. 저부는 사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부에서부터 견부까지의 외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다소 거친 찰흔이 형성되었다. 견부를 포함한 동체부 외면은 마연되었으며 동체부 중위 이하의 박락 정도가 중한 편이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에는 외직경 0.7cm 정도의 투공 1개가 있으며 구멍은 예새와 같은 투창 도구를 외면에서 내면을 향해 찢러 넣은 후 다시 외면으로 뽑아내어 만들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와 동체부 경계에는 사방향의 점토 조임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점토 접합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도면 88. 원삼곡~삼곡시대 1세 구상유구

<조선시대 문화층>

1. 암갈색 사질토

<1호 구상유구>

내부
퇴적토층1

2. 암갈색 사질점토
- 하부로 갈수록 점토 함유량 높아짐

내부
퇴적토층2

3. 명갈색 사질토
3-1. 명갈색 사질토
3-2. 명갈색 사질토

내부
퇴적토층3

4. 회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포함,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5. 갈색 사질점토

5-1. 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혼입, 흑색점토(재층) 혼입

5-2. 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다량 혼입, 흑색점토(재층) 혼입

6. 암갈색 사질점토

6-1.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량 포함

7. 갈색 사질토

8. 황갈색 사질토

9. 갈색 사질토 - 명갈색 사질토 혼입

10. 암갈색 사질토

10-1.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포함,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11. 암갈색 사질점토

12. 갈색 사질토

13. 암갈색 사질토

14. 갈색 사질토

15. 암갈색 사질토

- 암갈색 사질점토 혼입

16.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량 포함,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17. 암갈색 사질점토

18.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량 포함

18-1. 암갈색 사질점토

-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 하부에 흑색점토(재층) 소량 혼입

19. 암갈색 사질토

20. 암갈색 사질토

21. 암갈색 사질토

21-1. 암갈색 사질토

22. 암갈색 사질점토

- 목탄편 소량 혼입

23. 암갈색 사질토

-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24. 황갈색 사질토

-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25. 갈색 사질토

26. 명갈색 사질토

27. 암갈색 사질토

- 스토 및 목탄편 소량 혼입

28. 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29. 흑갈색 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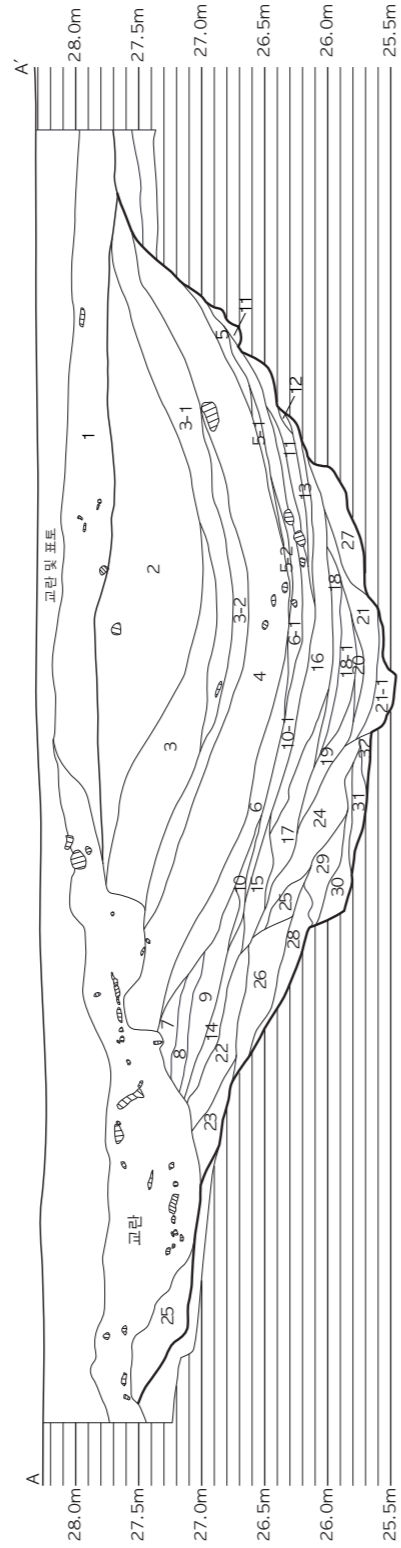
30. 갈색 사질점토

- 명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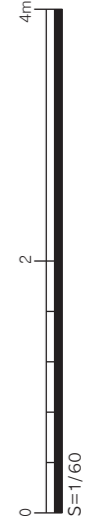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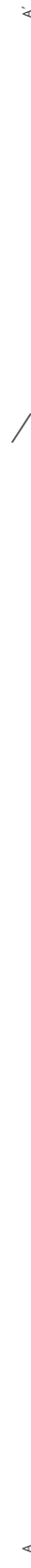
31. 흑갈색 사질토

32. 암갈색 사질토

내부
퇴적토층5



조사지역 경계



조사지역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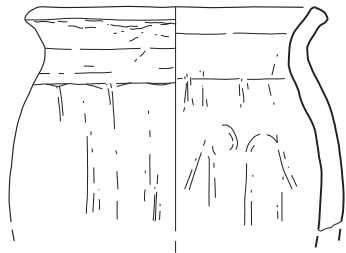
8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
교란

높이: 7.9cm, 구경: 6.5cm, 저경: 6.0cm, 두께: 0.2~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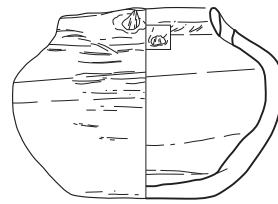
194. 호(도면 89-194, 도판 55-194)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다소 세장한 편으로 추정되며 측면 형태는 완곡선을 그리며 동체부를 향해 길게 이어진다. 경부는 측면이 호형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기면 상당부분이 결리되었다.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에는 물손질 도구로 추정되는 거친 찰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 황회색(2.5Y 5/1), 갈회색(7.5YR 5/1), 내면 회색(N 4/0),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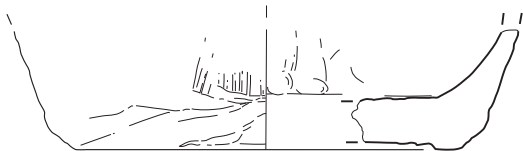
잔존높이: 14.3cm, 복원구경: 16.8~17.6cm, 두께: 0.55~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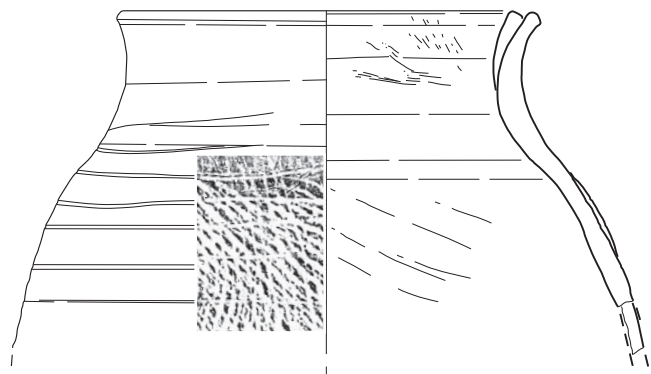
<191>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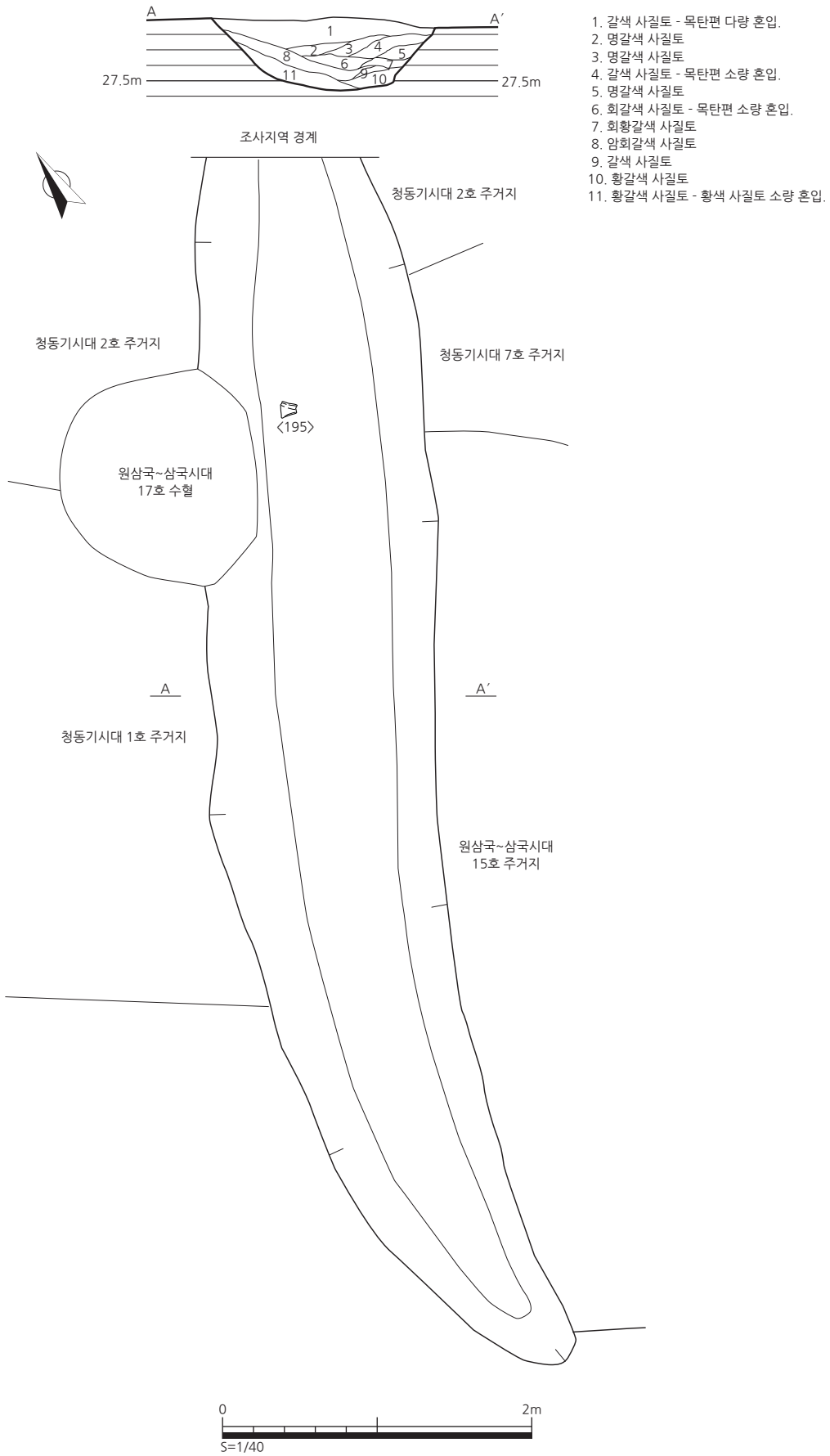
<192>



<194>



도면 89.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



도면 90.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

(2) 2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90, 도판 55-①,②)

2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6.8~26.9m이다.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북쪽 부분이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있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성과정에서 동쪽 일대의 청동기시대 2호·7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13호·15호 주거지를 파괴하였고 서쪽 일대의 청동기시대 1호·2호 주거지를 파괴하였다. 유구의 서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원삼국시대 13호·15호 주거지와 17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13호·15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17호 수혈보다 선축되었다.

규모는 잔존길이 752cm, 폭 140cm, 깊이 44cm이다. 서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고 동벽을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바닥은 완만하게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11개가 확인되었다. 갈색·명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퇴적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밝고 입자가 굵은 편이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우수와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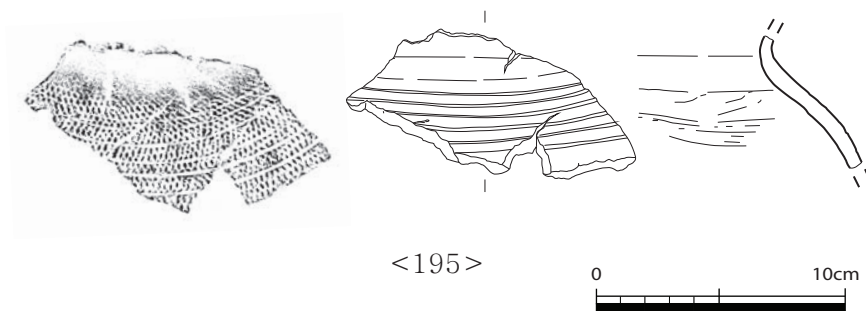
195. 호(도면 91-195, 도판 55-195)

경부 극히 일부를 포함한 동체 상부가 일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며 태토에는 석립(3mm 이하)이 혼입(中)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으로 내측을 향해 기울어졌다.

경부에서부터 동체부 경계까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고 동체부에는 횡침선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황회색(2.5Y 6/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5.9cm, 잔존너비: 11.6cm, 두께: 0.4~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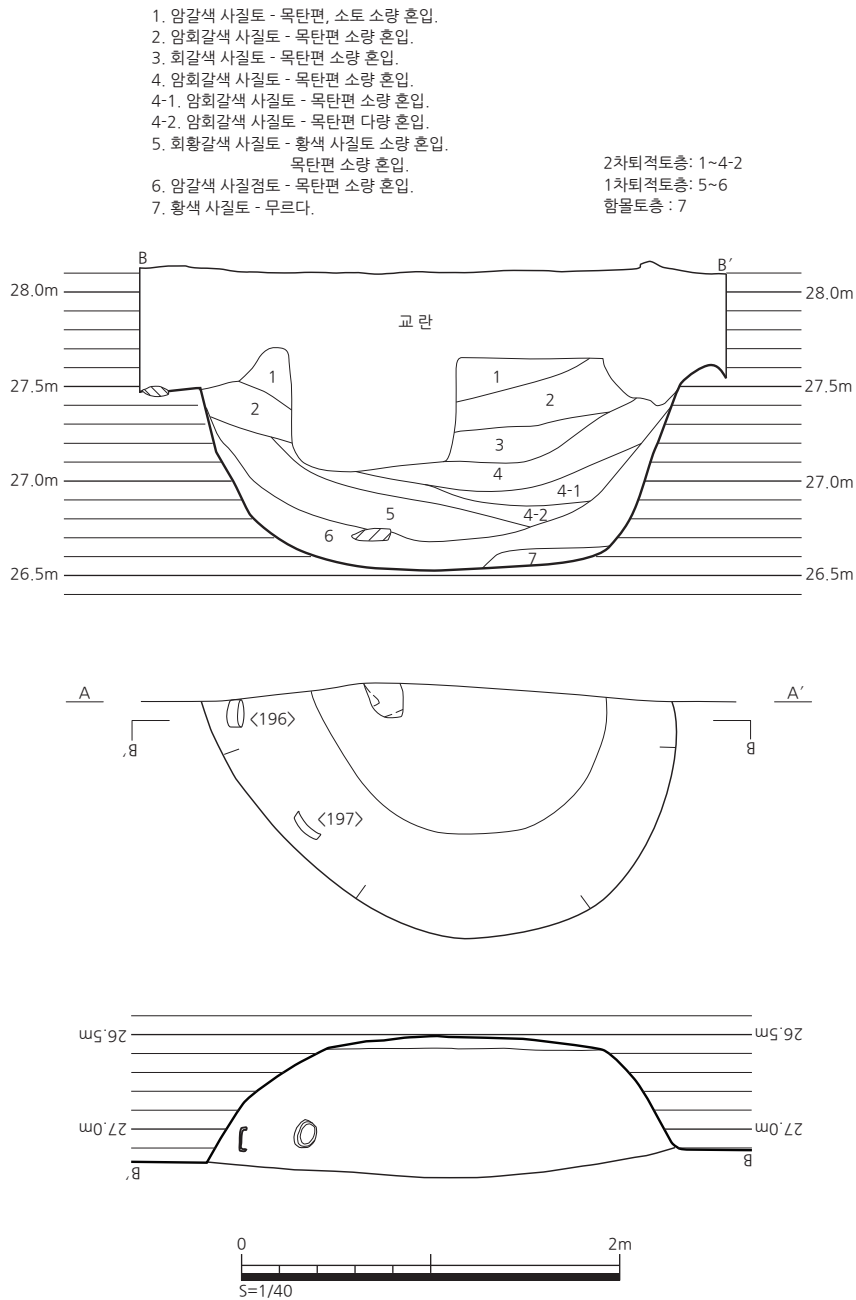
도면 91.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 출토유물

3) 수혈

(1) 1호 수혈

가. 유구(도면, 도판 55-③,④)

1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절반 정도가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 걸쳐 있고 해발은 27.1~27.3m이다. 서쪽으로 6.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와 원삼국~삼국시대 2호·3호 수혈이 위치한다.



도면 92.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240cm, 깊이 112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대체로 평평하며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9개가 확인되며 크게 2차 퇴적토층·1차 퇴적토층·함몰토층으로 구분된다. 2차 퇴적토층(1~4-2층)은 회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되었다.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었으며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괴상의 사질점토·점토 퇴적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1차 퇴적토층(5~6층)은 회황갈색 사질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으며 우수에 의해 퇴적된 괴상의 사질점토·점토 퇴적물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함몰토층(7층)은 황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유물은 2차 퇴적토층에서 뚜껑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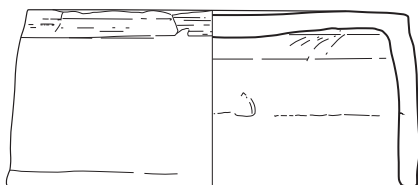
196. 뚜껑(도면 93-196, 도판 56-196)

완형이다. 중경질(中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꼭지가 없으며(無鈕式) 신부는 편평한 형태로서 신부각은 2° 이하이다. 신부에서 드림부로는 약 10°정도로 꺾인다. 성형은 도치 상태로서 신부가 하면을 이룬 가운데 동체부를 쌓아 올렸으며 신부 외면을 사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부 외면을 제외한 전면이 회전물손질되었다. 신부 외면은 부분적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목판 및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관찰된다. 신부로 이어지는 드림부 외면은 깎기 되었고 석립이 오른쪽을 밀려난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다. 드림부 내면에는 횡방향의 점토띠 접합흔이 뚜렷하다. 색조는 외면 회색(N 5/0), 내면 회색(N 4/0)이다.

높이: 7.0cm, 드림부경: 16.2cm, 두께: 0.6~0.9cm

197. 뚜껑(도면 93-197, 도판 56-197)

신부에서부터 드림부까지가 약 3/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며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소량 혼입(下)되었다. 꼭지가 없으며(無鈕式) 신부는 편평한 형태로서 기면이 약간 일그러져 신부각 8°정도로 잔존부 가운데가 약간 솟은 상태이다. 신부에서 드림부로는 약 10°정도로 꺾인다. 기면의 박락 정도가 중한 가운데 외면에는 마연의 흔적이 관찰된다. 성형은 도치 상태로서 신부가 하면을 이룬 가운데 동체부를 쌓아 올렸으며 신부 외면을 사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196>



<197>



도면 93.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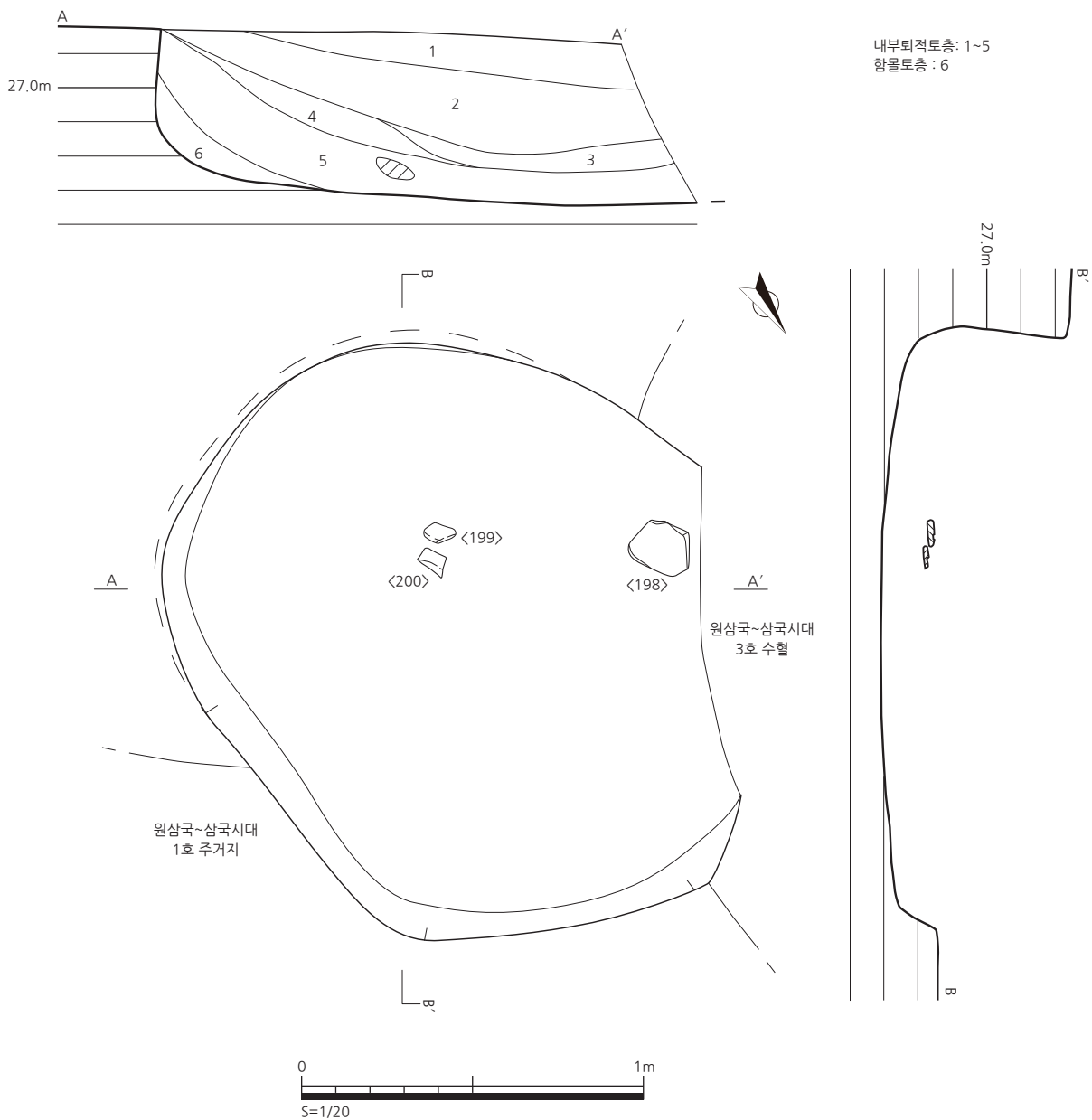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신부와 드림부 경계 내면에는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백색(2.5Y 7/1), 내면 회백색(2.5Y 7/1),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높이: 4.6cm, 복원드림부경: 17.3cm, 두께: 0.45~1.2cm

(2) 2호 수혈

가. 유구(도면 94, 도판 56-①,②)

- | | |
|---|--|
| 1. 암회갈색 사질토 - 입자 거칠. 목탄편 소량 혼입. | 4. 암갈색 사질토 - 황갈색 사질토 다량 혼입. 목탄편 소량 혼입. |
| 2. 암회갈색 사질토 - 무르고 입자 거칠.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5. 암갈색 사질토 - 황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
| 3.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6. 암갈색 사질토 - 가장 어두움. 목탄편 소량 혼입. |



도면 94. 원삼국~삼국시대 2호 수혈

2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2~27.3m이다. 동쪽으로 6.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 1호 수혈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6.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 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및 3호 수혈과 중복되었는데 1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3호 수혈보다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는데 부정형으로 북쪽과 동쪽 부분의 유구선은 거의 직선에 가깝다. 서쪽 부분은 원삼국~삼국 3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17°-W이고 규모는 길이 170cm, 잔존폭 156cm, 깊이 54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남쪽 벽은 하부로 갈수록 외곽으로 부푼 형태를 띤다. 바닥은 대체로 평평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6개가 확인되며 크게 내부퇴적토층과 함몰토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1~5층)은 암갈색·암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경사퇴적되었으며 하부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입자가 거친 편이고 다량의 황갈색 사질토와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함몰토층(6층)은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유물은 수혈 중앙과 북쪽 부분에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98.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도면 95-198, 도판 56-198)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동체부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락된 가운데 도구(목판)로 정면한 거친 흔적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점토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10.6cm, 잔존너비: 14.1cm, 두께: 0.8~1.1cm

199.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95-199, 도판 56-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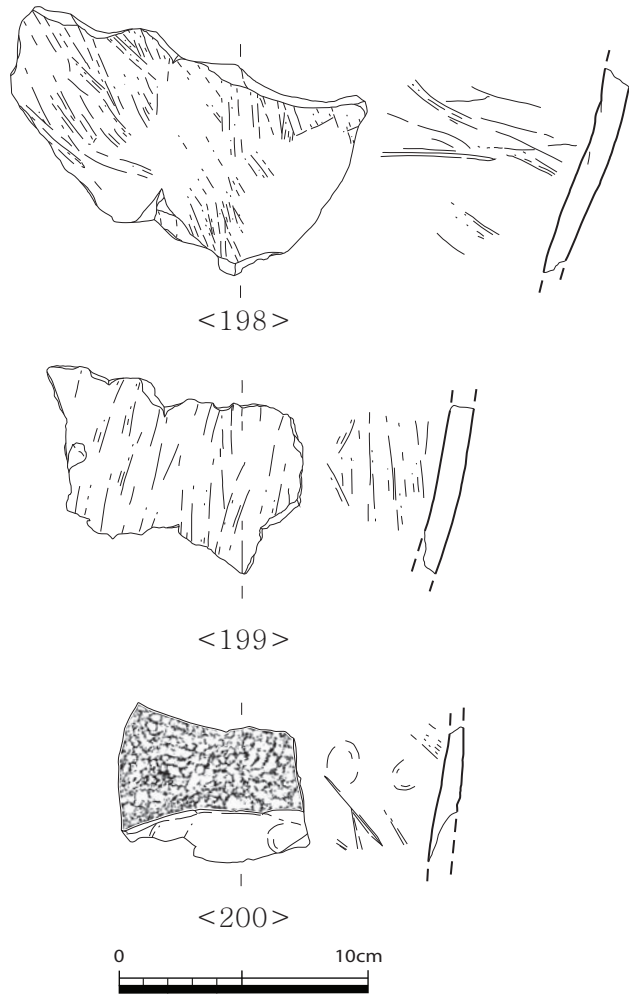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동체부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되었으며 도구(목판)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5YR 5/2), 내면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8.3cm, 잔존너비: 10.2cm, 두께: 0.95~1.0cm

200.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도면 95-200, 도판 56-200)

호로 추정되며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극소량 혼입(下)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약간 벌어지는 형태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 타날 압흔이 있으며 내면은 전면이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사방향 직상(直狀)의 도구 선단부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탁한 적갈색(2.5YR 5/4), 내면 회적색(2.5YR 5/2), 갈회색(10YR 5/1), 속심 적갈색(10R 5/3)이다.

잔존높이: 6.3cm, 잔존너비: 7.5cm, 두께: 0.55~0.8cm



도면 95. 원삼국~삼국시대 2호 수혈 출토유물

(3) 3호 수혈

가. 유구(도면 96, 도판 56-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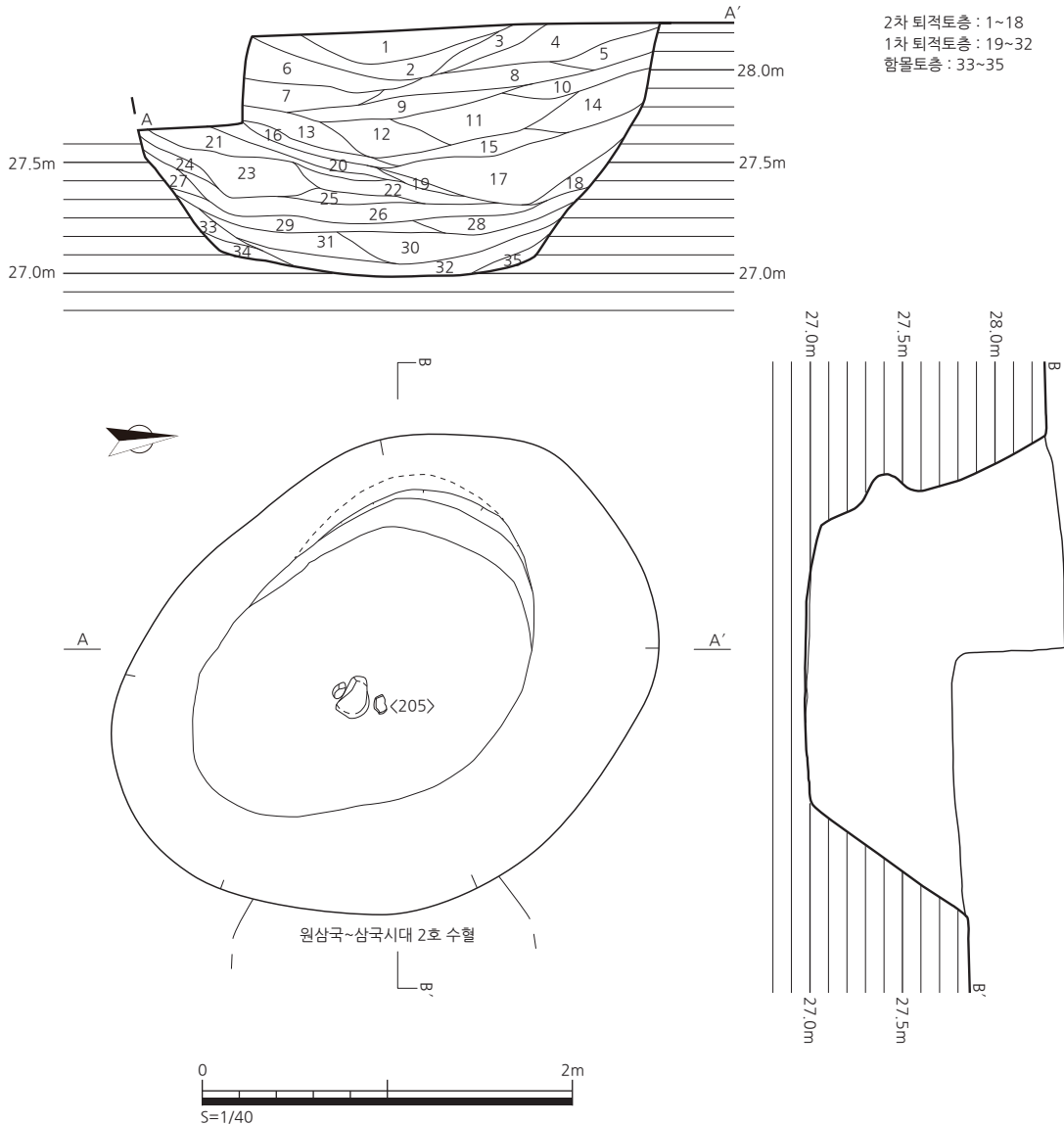
3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7m~27.9m이다. 서쪽으로 3.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동쪽으로 9.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이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및 2호 수혈과 중복되어 있는데 3호 수혈이 가장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N-29°-W이다. 규모는 길이 304cm, 폭 234cm, 깊이 132cm이다. 벽은 수직에 가깝게 내려오다가 중위부에서 완경사로 꺾이고, 서쪽 벽은 하위부 일부가 외곽으로 부푼 형태를 띤다. 바닥은 호상(弧狀)을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35개가 확인되며 크게 2차 퇴적토층·1차 퇴적토층·함몰토층으로 구분된다. 2차 퇴적토층(1~18층)은 상부토층과 하부토층으로 세분된다. 상부토층(1~2층)은 회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으며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하부토층(3~18층)은 암갈색·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퇴적 되었다.

유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괴상의 사질토·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1차 퇴적토층(19~32층)은 암갈색·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 | | |
|-------------------------------|----------------------------------|
| 1. 회갈색 사질점토-약간 무름, 목탄편 다량 혼입. | 19. 황갈색 사질토 |
| 2. 회갈색 사질점토- 목탄편 다량 혼입. | 20. 갈색 사질토 |
| 3. 회갈색 사질점토- 목탄편 소량 혼입. | 21. 황갈색 사질토 |
| 4. 회갈색 사질토- 목탄편 소량 혼입. | 22. 황갈색 사질토 |
| 5. 회갈색 사질토 | 23. 갈색 사질토 |
| 6. 회갈색 사질토 | 24. 암갈색 사질토 |
| 7. 회갈색 사질토 | 25. 황갈색 사질토 |
| 8. 회갈색 사질토 | 26. 암갈색 사질토 |
| 9. 갈색 사질토 | 27. 황갈색 사질토 |
| 10. 회갈색 사질토 | 28. 암갈색 사질토- 매우 어두움. |
| 11. 갈색 사질토 | 29. 암갈색 사질토- 매우 어두움. |
| 12. 갈색 사질토 | 30. 황갈색 사질토 |
| 13. 암회갈색 사질토 | 31. 황갈색 사질토 |
| 14. 암회갈색 사질토 | 32. 암갈색 사질토- 황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
| 15. 암갈색 사질토 | 33. 암갈색 사질토- 황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무르다. |
| 16. 암갈색 사질토 | 34. 암갈색 사질토- 황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무르다. |
| 17. 황갈색 사질토 | 35. 암갈색 사질토- 목탄편 소량 혼입. 무르다 |
| 18. 황갈색 사질토 | |



도면 96. 원삼국~삼국시대 3호 수혈

유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과 괴상의 사질토·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퇴적토층 내부에서 길이 약 70cm 범위의 재층과 피열흔이 확인되는데 수혈 폐기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성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함몰토층(33~35층)은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기반층인 황갈색 사질토가 소량 혼입되었다.

유물은 바닥에서 호 동체부편이 출토되었으며 2차 퇴적토층에서 경질무문토기와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었고 1차 퇴적토층에서 뚜껑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0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도면 97-201, 도판 56-201)

2차 퇴적토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6c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잔존 동체부는 경부를 향해 내측으로 기울어졌으며 경부에서부터 구연부까지는 약간 사방향으로 벌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잔존부 기면은 물손질되었다. 내면은 비교적 고르게 정면되었으나 외면에는 거친 물손질 흔적이 분포하고 경부에는 노끈 혹은 포로 추정되는 횡방향의 압흔이 일부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내면 갈회색(5Y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8.6cm, 잔존너비: 11.3cm, 두께: 0.7~1.0cm

202. 뚜껑(도면 97-202, 도판 56-202)

1차 퇴적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신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드림부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下)이며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극소량 혼입(下)되었다. 드림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직립하고 신부는 드림부와와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솟는 형태로서 신부각은 약 25° 정도이다. 외면은 잔존부 전면이 마연되었으며 내면은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7.5YR 6/1),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3.8cm, 복원구경: 19.8cm, 두께: 0.35~0.8cm

203. 심발형토기 구연부편(도면 97-203, 도판 56-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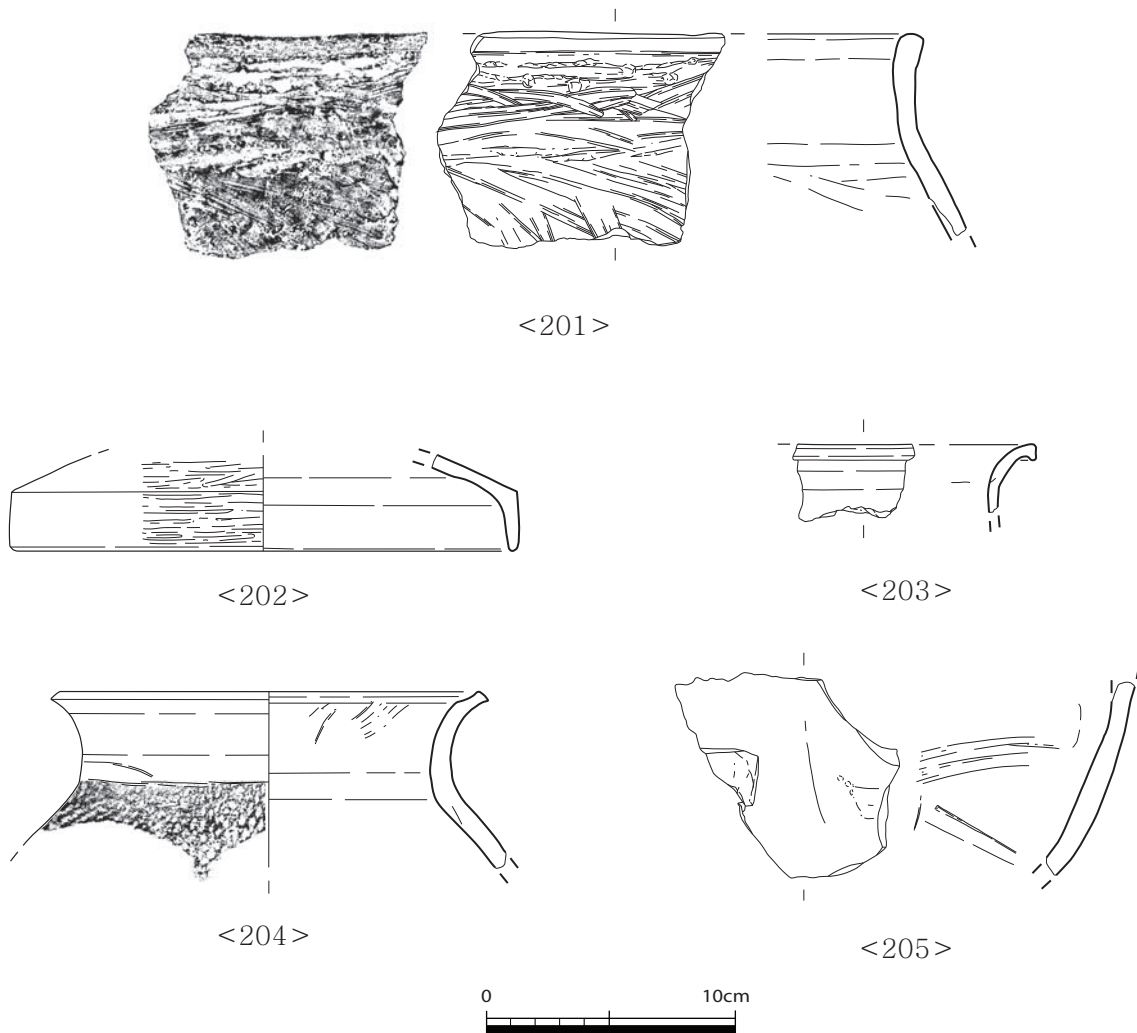
2차 퇴적토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은 편이다. 경부는 측면이 호상(弧狀)으로 크게 벌어지며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진 형태로서 가운데가 완만한 요면을 이룬다. 잔존부 전면이 회전물손질되었으며 경부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7.5YR 5/1), 내면 갈회색(7.5Y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3.1cm, 잔존너비: 4.8cm, 두께: 0.4~0.6cm

204. 호(도면 97-204, 도판 56-204)

2차 퇴적토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 극히 일부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는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내경하며 경부는 호형으로 구연부로는 길게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하고 각 진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로 이어지는 내면은 완만한 요면을 이룬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는 다소 약하게 물손질된 가운데 사격자문 혹은 굵은 승문으로 추정되는 박자 압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솔로 추정되는 사방향의 찰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4), 내면 탁한 갈색(7.5YR 6/3), 속심 탁한 갈색(7.5YR 6/3)이다.

잔존높이: 7.0cm, 복원구경: 17.3cm, 두께: 0.4~0.7cm



도면 97. 원삼국~삼국시대 3호 수혈 출토유물

205. 동체부편(도면 97-205, 도판 56-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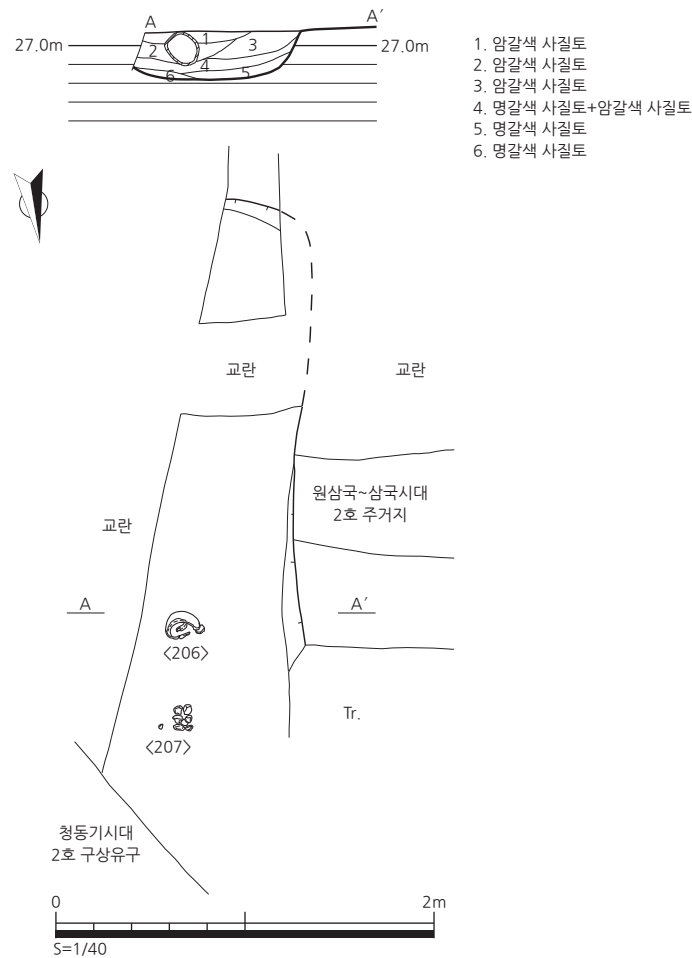
호로 추정되며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 하부 일부가 잔존한다. 중경질(中上)이며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완만한 호형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기면이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부분적인 찰흔이 형성되었으며 외면에는 생성원인을 알 수 없는 연주형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색(N 6/0), 내면 갈회색(10YR 6/1),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8.2cm, 잔존너비: 8.9cm, 두께: 0.7~0.9cm

(4) 4호 수혈

가. 유구(도면 98, 도판 57-①,②)

4호 수혈은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0~27.1m이다. 북쪽으로 3.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서쪽으로 6.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6호·7호 주거지와 11호 수혈이 위치한다.



도면 98.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는데 원삼국~삼국시대 5호 수혈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고 교란에 의해 동쪽 부분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격은 잔존길이 242cm, 잔존폭 84cm, 깊이 25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호상(弧狀)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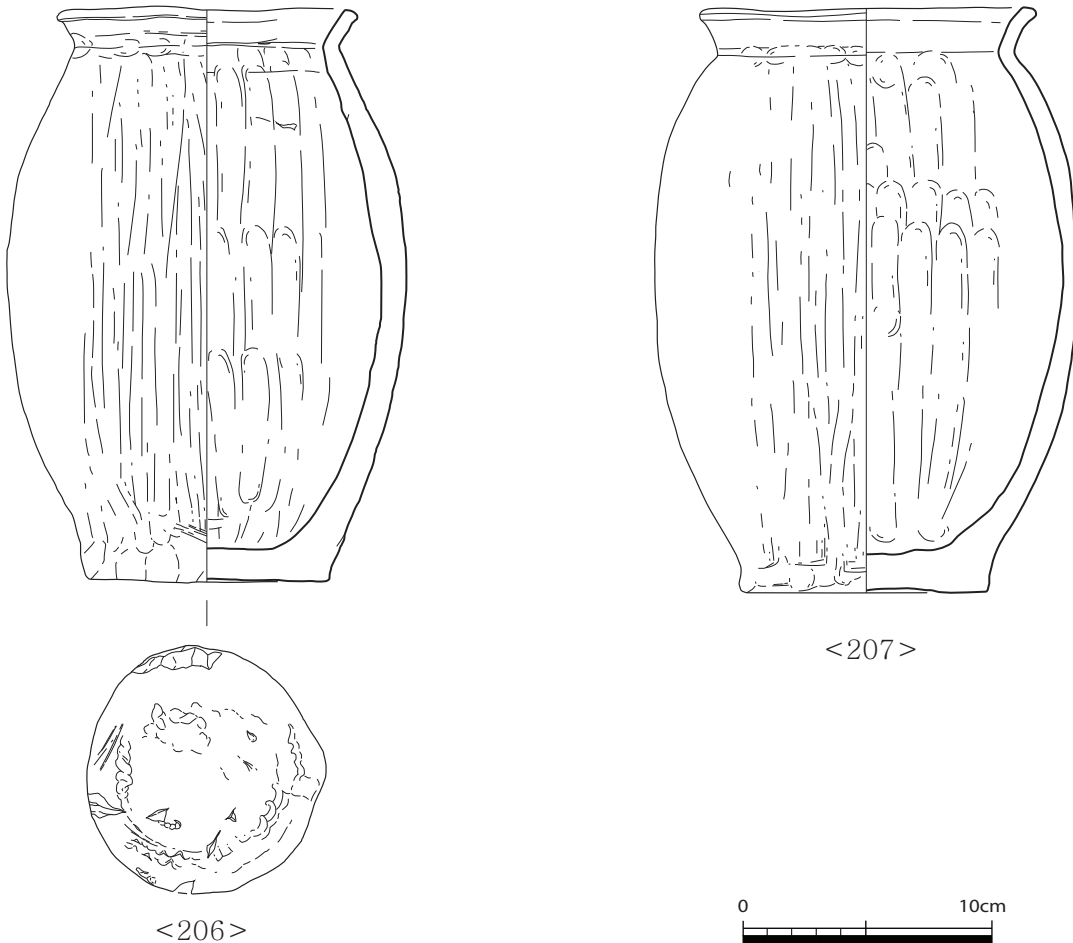
내부토층은 모두 6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명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퇴적 되었다.

유물은 수혈 북쪽에서 경질무문토기옹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06. 경질무문토기옹(도면 99-206, 도판 57-206)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1/3 정도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내·외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는 세장하며 측면이 호형이고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벌어지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사방향의 목판 선단부 압흔이 형성되었다. 동체부 내·외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긁어내린



도면 99.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

흔적이 뚜렷하다. 동체부 내면에는 지두를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흔적이 저부 경계면까지 뚜렷하게 잔존한다. 저부 외면은 외연의 내측이 완만하게 넓은 요면을 이루는데 요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끈으로 추정되는 사슬 모양의 압흔 및 초본류 추정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갈회색(7.5YR 5/1),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높이: 22.9cm, 복원구경: 11.9cm, 저경: 9.6cm, 두께: 0.55~2.2cm

207. 경질무문토기옹(도면 99-207, 도판 57-207)

외반구연옹에 해당한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 이하까지의 편 1개체와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의 편 1개체가 잔존하며, 양 개체는 접합되지 않는 대신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7mm 이하)이 혼입되었다. 동체부는 세장하며 측면이 호형이고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사방향으로 짧게 벌어지고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둥글납작한 형태이다. 저부는 낮은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극히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동체부 내·외면에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물손질 흔적이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부 경계와 저부 외면에는 직상의 목판 선단부 압흔이 있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완만하고 둥근 요면과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5/2), 탁한 적갈색(5YR 5/3), 내면 회갈색(7.5YR 5/2),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복원높이: 23.1cm, 복원구경: 13.4cm, 저경: 10.0cm, 두께: 0.5~2.3cm

(5) 5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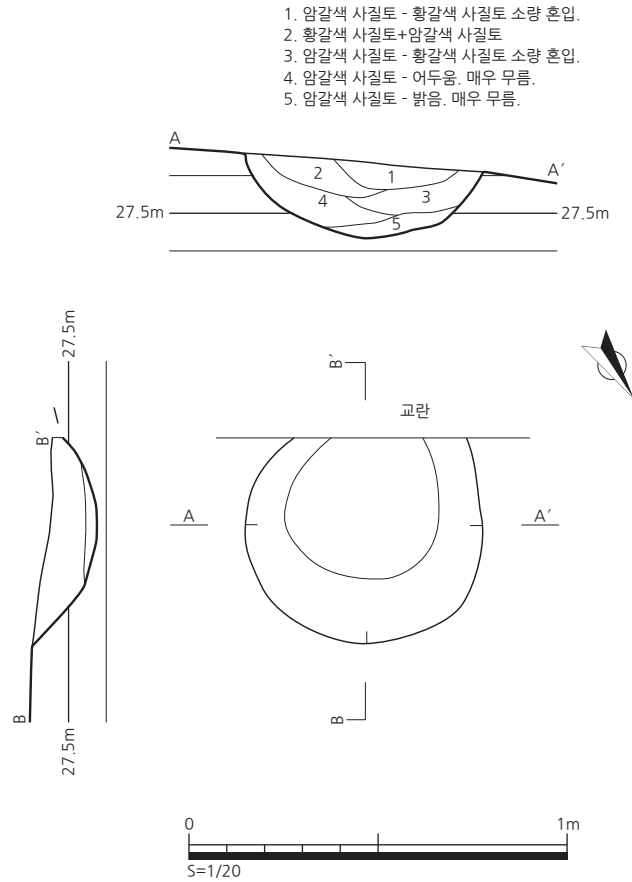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00, 도판 57-③)

5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서쪽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와 5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북동쪽으로 5.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수혈과 3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남쪽 일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규모는 직경 62cm, 깊이 19cm이고 단면은 완만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좌우에서 교대로 경사되적 되었다. 경도는 무른 편이고 소량의 황갈색 사질토가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00. 원삼국~삼국시대 5호 수혈

(6) 6호 수혈

가. 유구(도면 101, 도판 57-④,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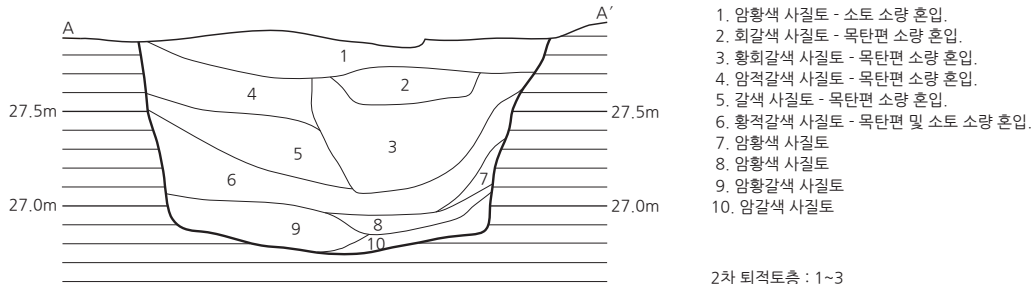
6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동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절반 정도가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의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6~27.7m이다. 남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서쪽으로 4.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서쪽 부분이 1호 주거지의 내부조사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규모는 직경 220cm, 깊이 91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V'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벽과 바닥 모두 굴곡이 심한 편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10개가 확인되며 크게 2차 퇴적토층과 1차 퇴적토층으로 구분된다. 2차 퇴적토층(1~3층)은 암황색·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3층은 'V'자형으로 퇴적되었는데 동쪽 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남쪽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도목흔(倒木痕)으로 추정된다. 1차 퇴적토층(4~10층)은 암황색·암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하부로 갈수록 어두워지며 동쪽으로 중심이 치우친 완만한 'U'자형의 퇴적양상을 보인다. 다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유수에 의해 형성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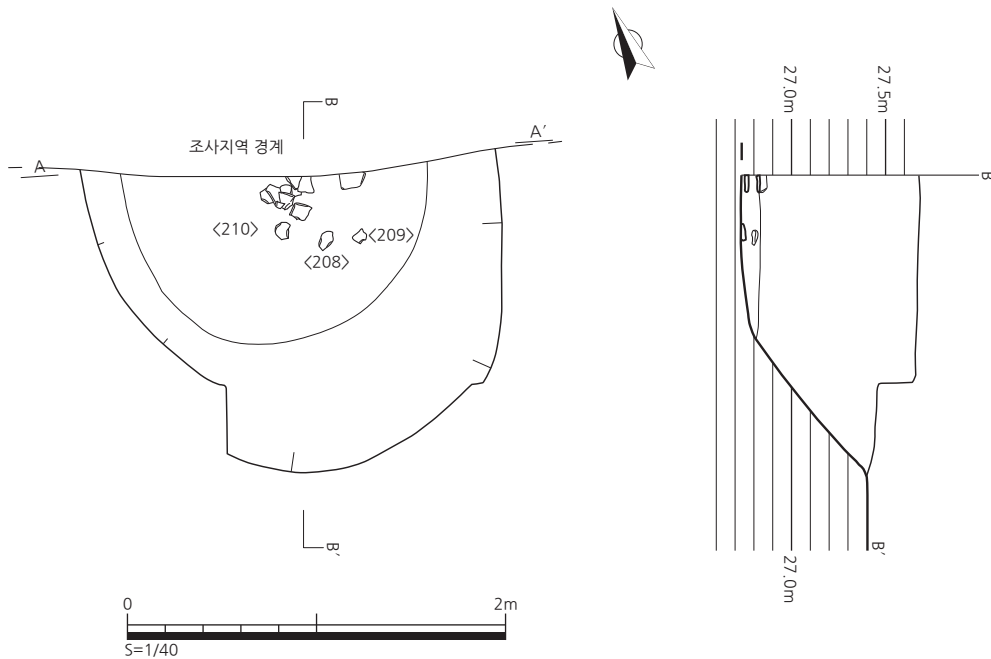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된다.

유물은 중앙에서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과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1. 암황색 사질토 - 소토 소량 혼입.
2.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3. 황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4. 암적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5. 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6. 황적갈색 사질토 - 목탄편 및 소토 소량 혼입.
7. 암황색 사질토
8. 암황색 사질토
9. 암황갈색 사질토
10. 암갈색 사질토

2차 퇴적토층 : 1~3
1차 퇴적토층 : 4~10



도면 101. 원삼국~삼국시대 6호 수혈

나. 유물

208.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02-208, 도판 57-208)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4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내·외면은 다소 거칠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적회색(2.5YR 4/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6.4cm, 잔존너비: 10.8cm, 두께: 0.75~0.9cm

209. 타날문토기 동체부편(도면 102-209, 도판 57-209)

호로 추정되며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잔존부 전면에 걸쳐 분포하는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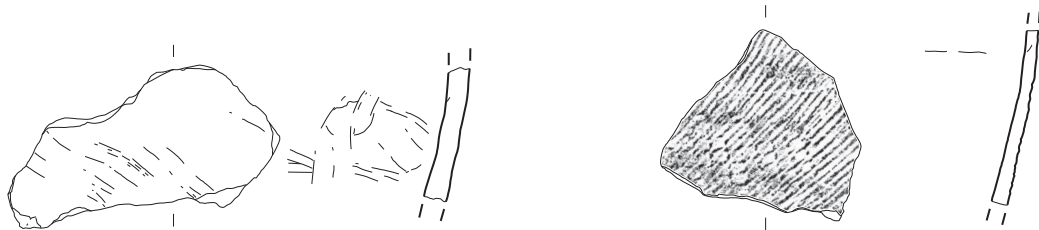
부분적으로 겹친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물손질된 가운데 점토 접합흔이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내면 회황갈색(10YR 6/2), 속심 회황갈색(10YR 5/2)이다.

잔존높이: 7.1cm, 잔존너비: 8.5cm, 두께: 0.45~0.6cm

210. 호(도면 102-210, 도판 5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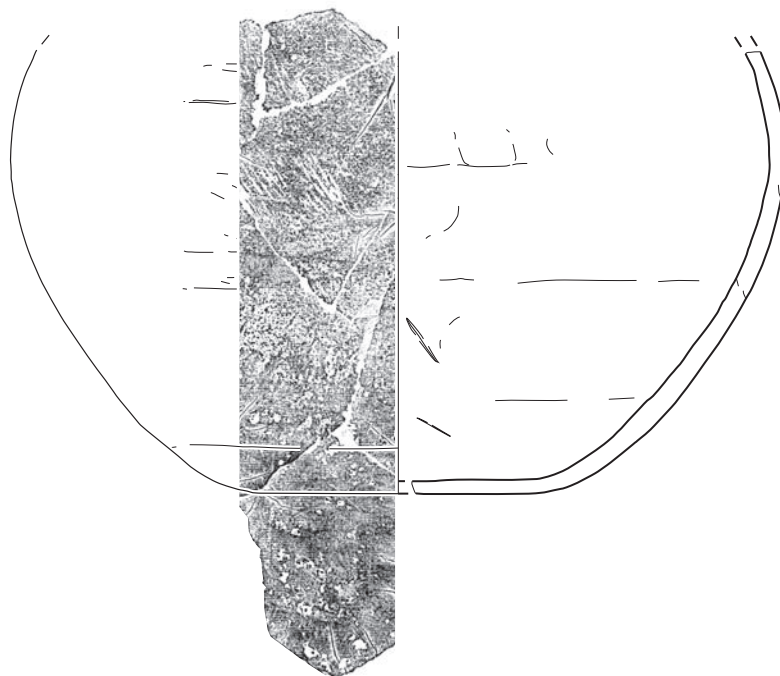
동체부 중상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약 2/5 정도 잔존하며 도상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下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원저이나 저면이 눌러 편평하다. 기면 상당 부분이 박락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은 마연된 가운데 부분적으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물손질된 가운데 부분적으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황회색(2.5Y 5/1), 회색(N 4/0), 내면 회색(N 4/0),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높이: 17.5cm, 두께: 0.55~0.9cm



<208>

<209>



<210>



도면 102. 원삼국~삼국시대 6호 수혈 출토유물

(7) 7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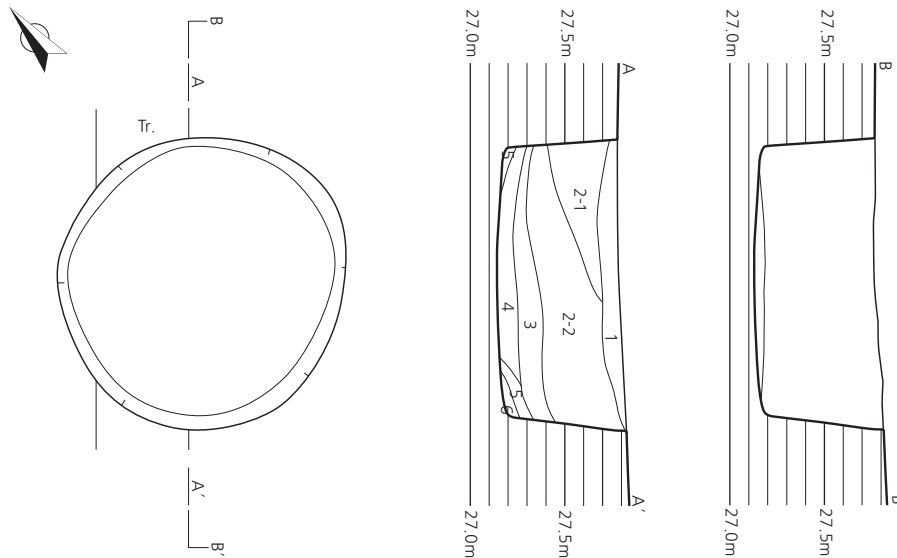
가.유구(도면 103, 도판 58-①)

7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7~27.8m이다. 남서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8호 수혈이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2.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9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154cm, 깊이 66cm이다.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면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7개가 확인되며 크게 내부퇴적토층과 함몰토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1~4층)은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퇴적되었다.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유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함몰토층(5·6층)은 암갈색·명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는데 5층은 수혈의 폐기 직후 최초로 유입된 토층으로 추정되고 6층은 벽체가 함몰된 토층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호와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었다.



1. 갈색 사질토
- 2-1.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포함.
- 2-2.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포함.
3.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포함.
4. 갈색 사질토
5. 암갈색 사질토 - 매우 어두움.
6. 명갈색 사질토

내부퇴적토층 : 1~4
함몰토층 : 5~6



도면 103.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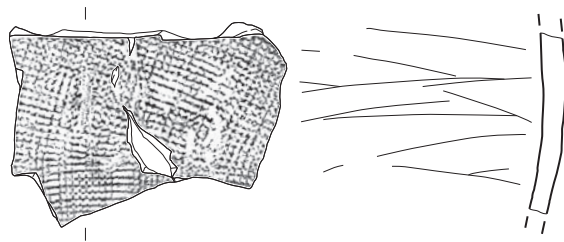
211. 호(도면 104-211, 도판 58-211)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동체 일부가 잔존한다. 중경질(中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기 외면에는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내면은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5/1), 내면 황회색(2.5Y 6/1), 속심 갈회색(10YR 6/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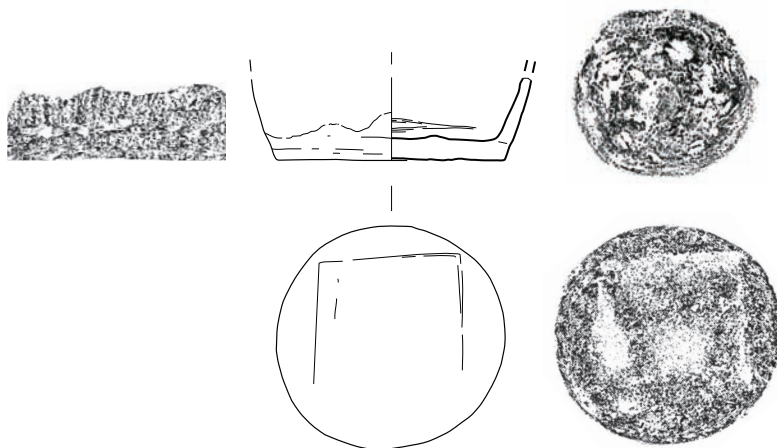
잔존높이: 8.0cm, 잔존너비: 11.0cm, 두께: 0.7~0.9cm

212. 심발형토기(도면 104-212, 도판 58-212)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과 사립이 혼입(上)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저로서 내·외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는 저판 위로 점토띠를 쌓아올려 성형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저부 외면은 회전깎기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저부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지두압흔이 남아있다. 저부에는 방형의 압흔과 초본류 흔적도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6/1), 내면 갈회색(10YR 5/1), 적회색(10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211>



<212>



도면 104.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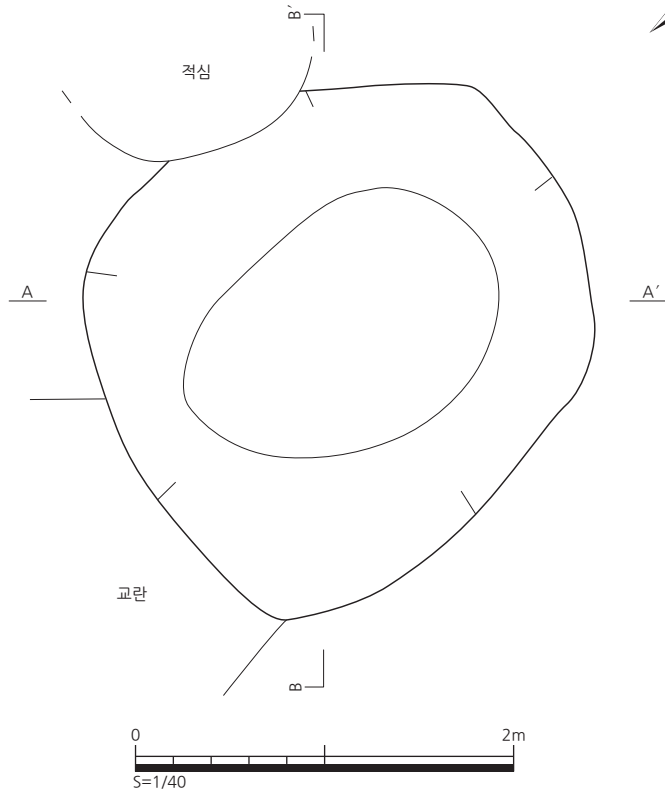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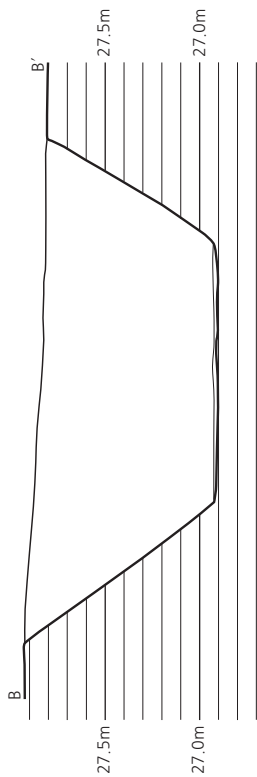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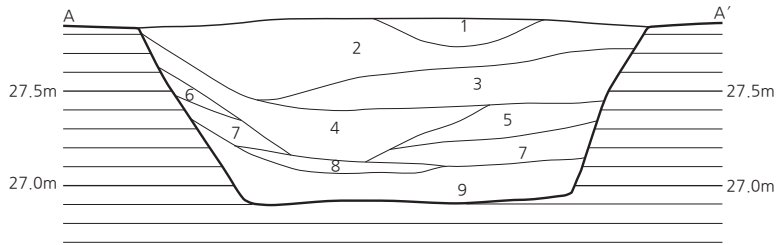
잔존높이: 3.35cm, 저경: 9.0cm, 두께: 0.4~0.95cm

(8) 8호 수혈

가. 유구(도면 105, 도판 58-②,③)

8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의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3~27.4m이다. 북동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3.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와 4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 | | |
|---------------------------------|------------------------------------|
| 1. 암갈색 사질토 | 6. 암회갈색 사질토 |
| 2. 황갈색 사질토 | 7. 암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소토 소량 혼입. |
| 3. 명갈색 사질토 - 무름. | 8. 암갈색 사질토 - 황갈색 사질토 소량 혼입. |
| 4. 암갈색 사질토 - 적황색 사질토 소량 혼입, 무름. | 9.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소토 소량 혼입. |
| 5. 명회갈색 사질토 - 무름. | |



도면 105. 원삼국~삼국시대 8호 수혈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유구선이 정연하지 않다. 북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고 동쪽 부분은 조선시대 1호 건물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규모는 길이 268cm, 폭 246cm, 깊이 98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요철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9개가 확인되었다. 암회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퇴적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하부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소량의 소토와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우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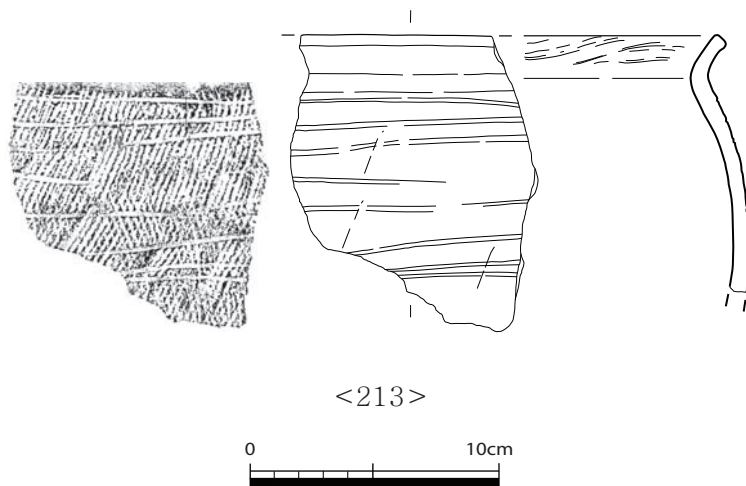
유물은 호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213. 호(도면 106-213, 도판 58-213)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구연에서부터 동체 상부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는 측면이 완만한 호형을 그리며 경부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서 사방향으로 외반하며 구연부로는 반전 없이 이어진다. 구순은 납작한 형태이다. 구연에서 경부까지의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고 동체부 외면에는 횡침선문이 추가된 승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물손질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갈색(7.5YR 6/2), 내면 회황갈색(10YR 6/2), 회갈색(7.5YR 6/2), 속심 회갈색(7.5YR 5/2)이다.

잔존높이: 11.7cm, 잔존너비: 9.8cm, 두께: 0.5~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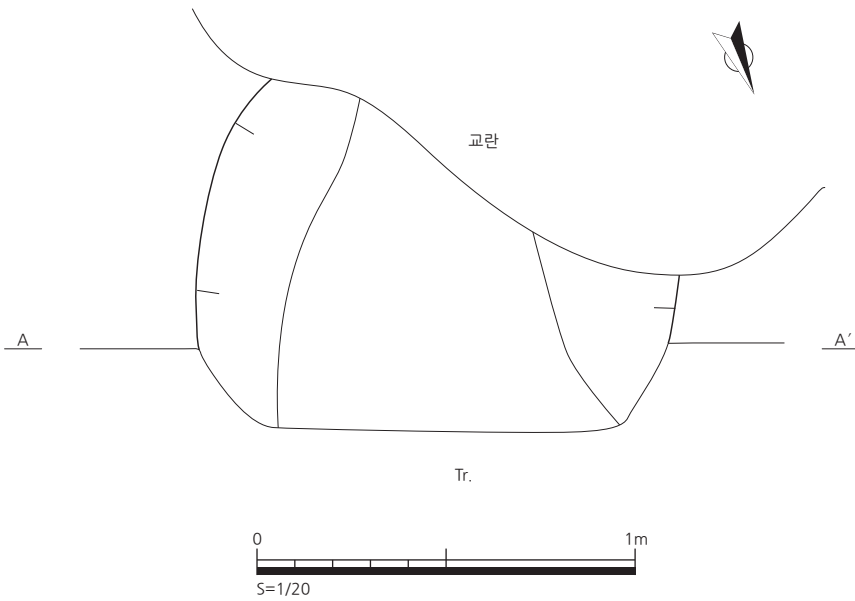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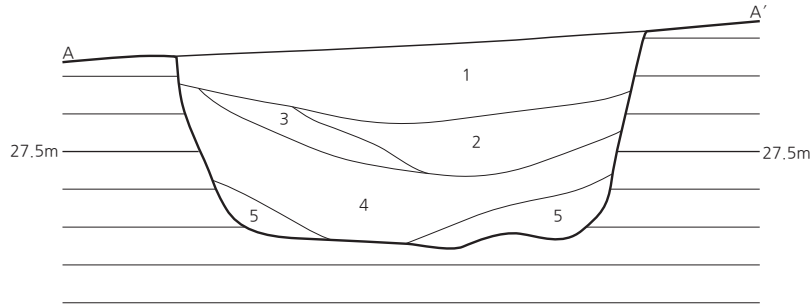


도면 106. 원삼국~삼국시대 8호 수혈 출토유물

(9) 9호 수혈

가. 유구(도면 107, 도판 58-④,⑤)

- 1. 암갈색 사질토
- 2. 암갈색 사질토 - 1층보다 밝음.
- 3. 암갈색 사질토 - 1층보다 어두움.
- 4.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5. 암갈색 사질토 - 무르다.



도면 107. 원삼국~삼국시대 9호 수혈

9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4m이다. 동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2.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와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북쪽 부분이 Tr.에 의해 파괴되었고 남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직경 124cm, 깊이 54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바닥은 요철이 매우 심하다.

내부토층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입자는 매우 거칠고 경도는 무른 편이다.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고 유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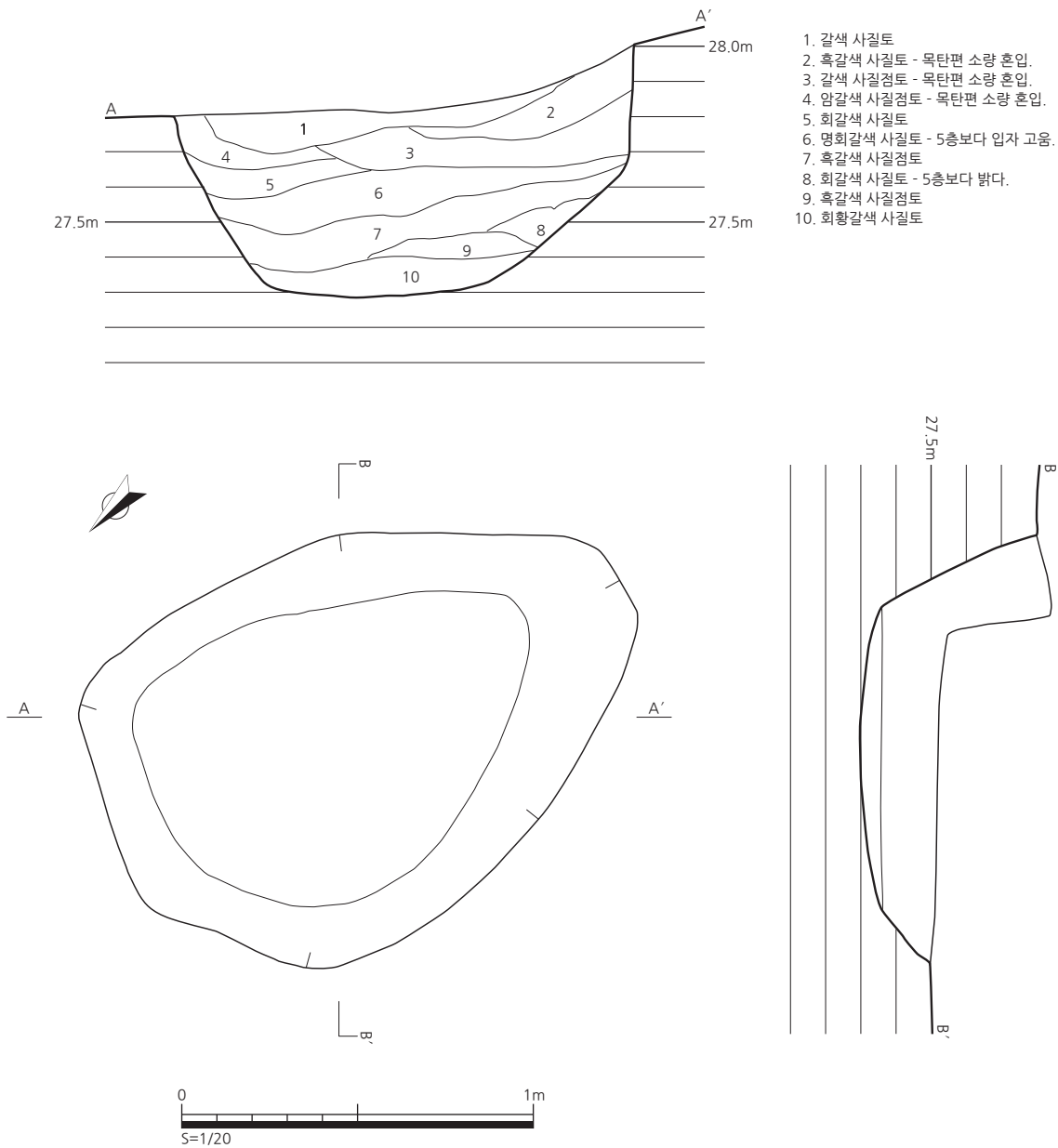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0) 10호 수혈

가. 유구(도면 108, 도판 58-⑥,⑦)

10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8~27.9m이다. 북서쪽으로 1.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1.9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상부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 9°-E이고 규모는 길이 160cm, 폭 116cm, 깊이 72cm이다. 벽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중위부에서 급경사로 꺾어지고 바닥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완만하게 경사져서 전체적으로 호상(弧狀)을 이루고 있다.



도면 108.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수혈

내부토층은 모두 10개가 확인되었다. 흑갈색·회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되적 되었으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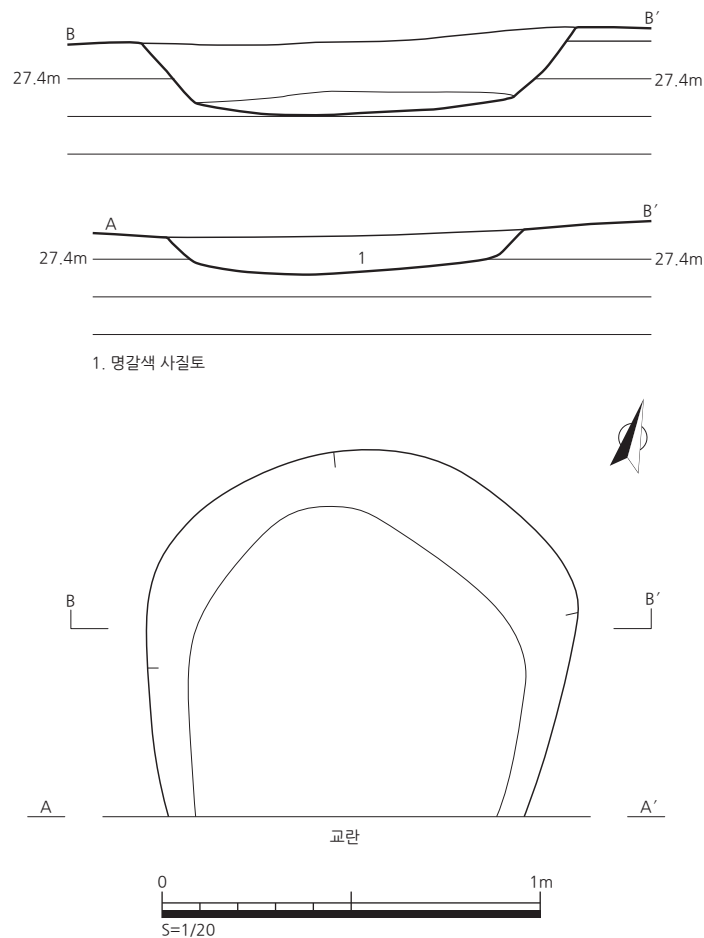
(11) 11호 수혈

가. 유구(도면 109, 도판 59-①)

11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m이다. 동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11호 수혈이 가장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남쪽 일부가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규모는 길이 114cm, 잔존폭 96cm, 깊이 20cm이다. 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호상(弧狀)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경사져 있다.

내부토층은 단일토층으로 명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09.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수혈

(12) 12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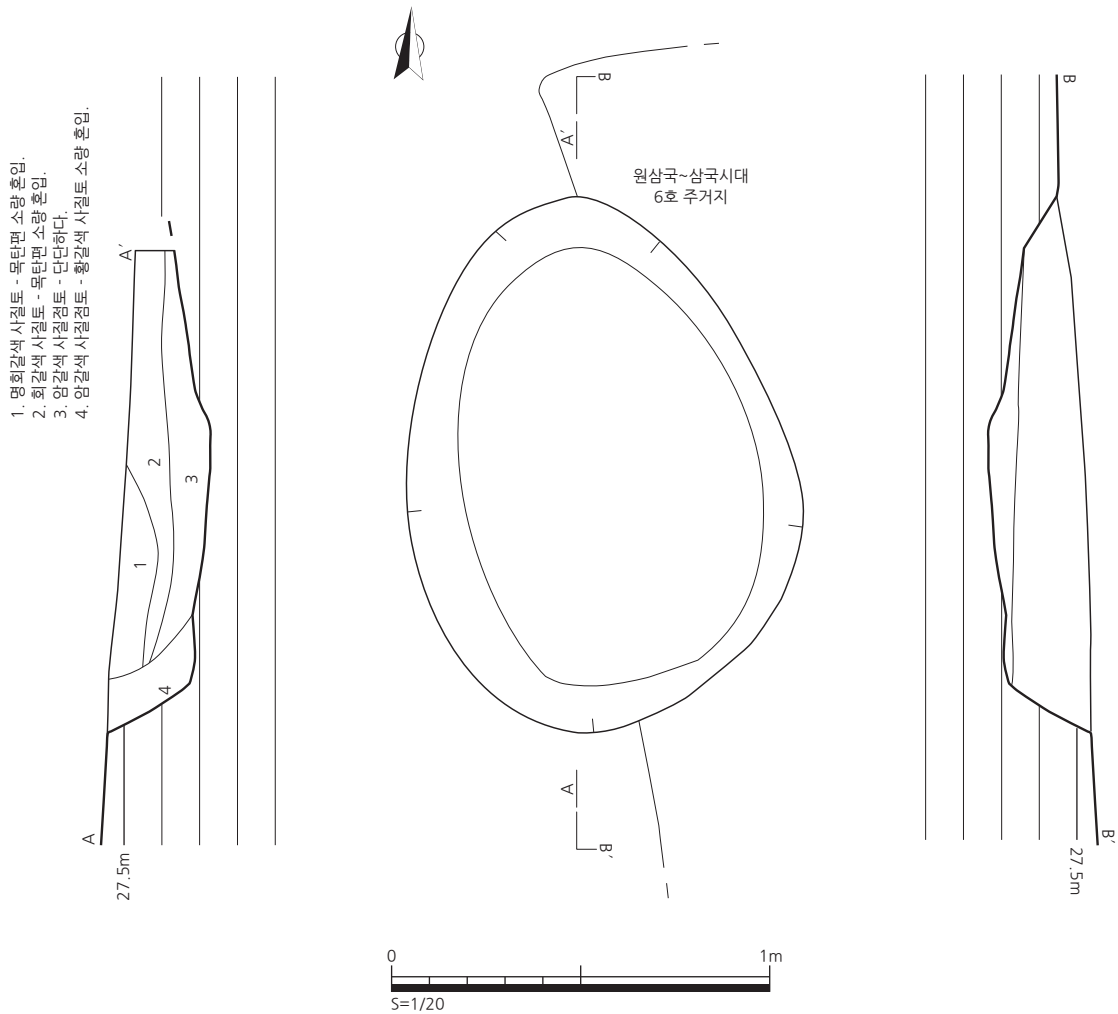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10, 도판 59-②,③)

12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5~27.6m이다. 동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7호 주거지와 11호 수혈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2.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12호 수혈이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동쪽 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의 내부조사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2°-E이고 규모는 길이 144cm, 폭 104cm, 깊이 22cm이다. 벽은 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바닥은 요철이 매우 심하다.

내부토층은 모두 4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목탄편이 소량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10.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수혈

(13) 13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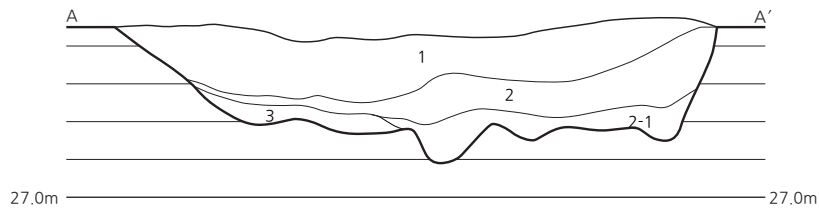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11, 도판 59-④~⑤)

13호 수혈은 조사지역 중앙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4~27.5m이다. 동쪽으로 6.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3.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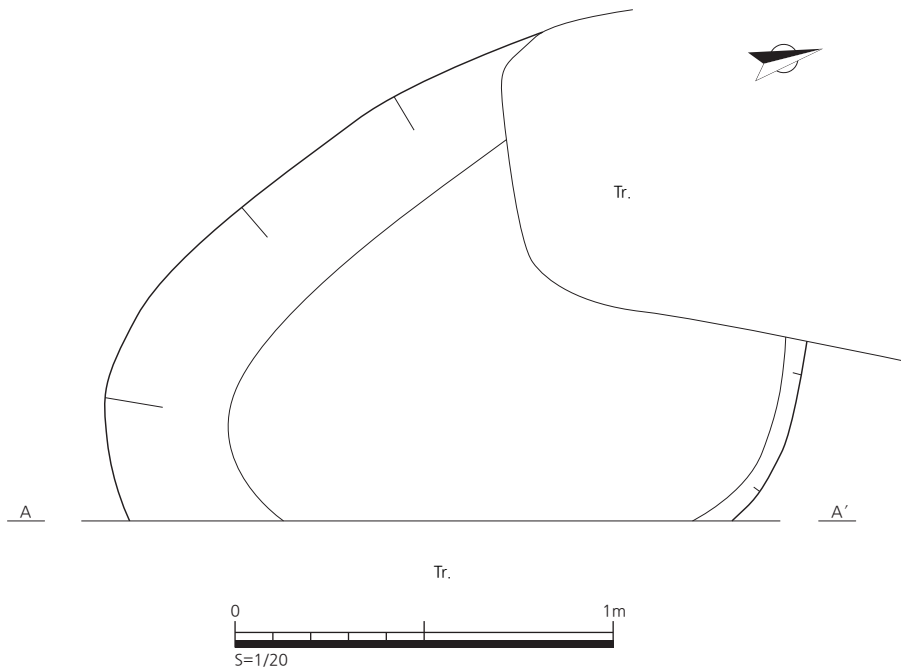
유구 중복을 조사하기 위한 Tr.에 의해 수혈의 북쪽과 동쪽 부분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고 장축방향은 N-27°-W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64cm, 잔존폭 138cm, 깊이 33cm이다. 북쪽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남쪽 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바닥은 요철이 매우 심하다.

내부토층은 모두 4개가 확인되었다. 명회색·암갈색·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퇴적 되었다. 1층과 2층에서 유수에 의해 퇴적된 괴상의 사질토·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 명회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2. 암갈색 사질토 - 괴상의 사질토, 사질점토 퇴적물 혼입
- 2-1. 암갈색 사질점토 - 괴상의 사질토, 사질점토 퇴적물 혼입
3. 황갈색 사질토 - 무르다. 입자가 굵고 거칠.



도면 111.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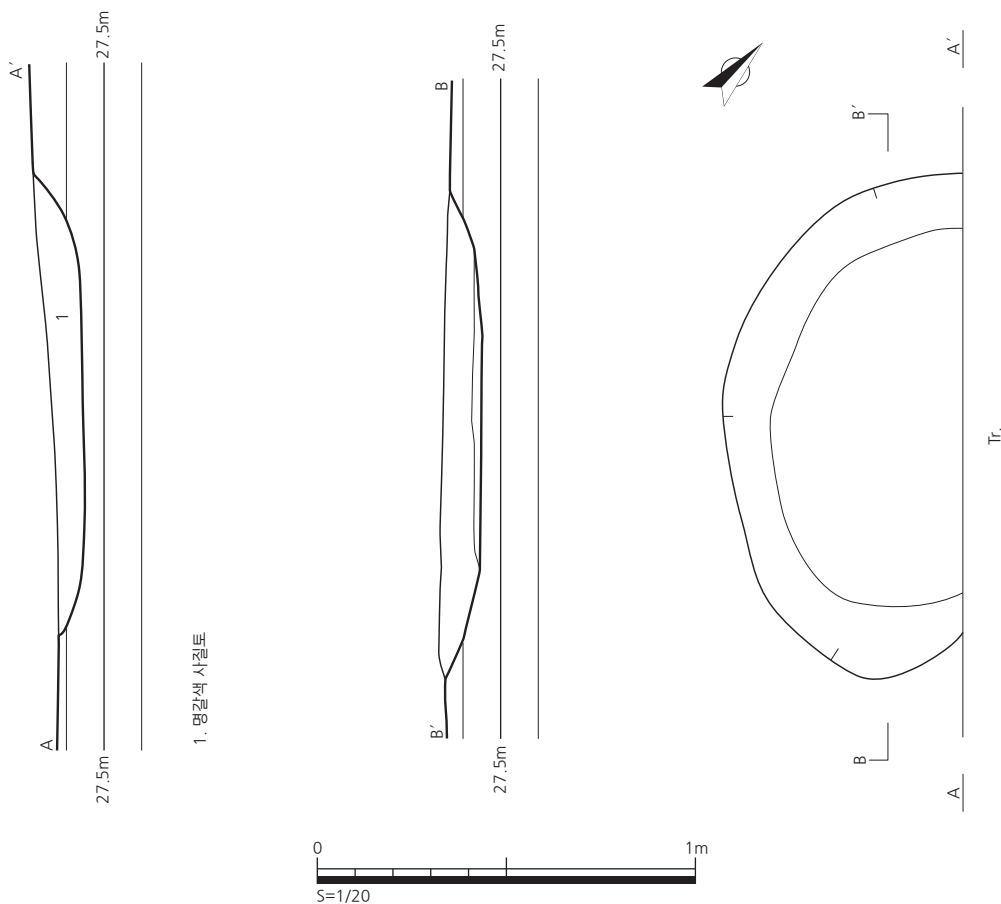
(14) 14호 수혈

가. 유구(도면 112, 도판 59-⑥)

14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6~27.7m이다. 북동쪽으로 4.8 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북쪽 부분은 유구 중복을 조사하기 위한 Tr.에 의해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42°-W이고 규모는 길이 130cm, 잔존폭 64cm, 깊이 11cm이다. 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바닥은 대체로 평평하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토층은 단일토층으로 명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12. 원삼국~삼국시대 14호 수혈

(15) 15호 수혈

가. 유구(도면 113, 도판 59-⑦,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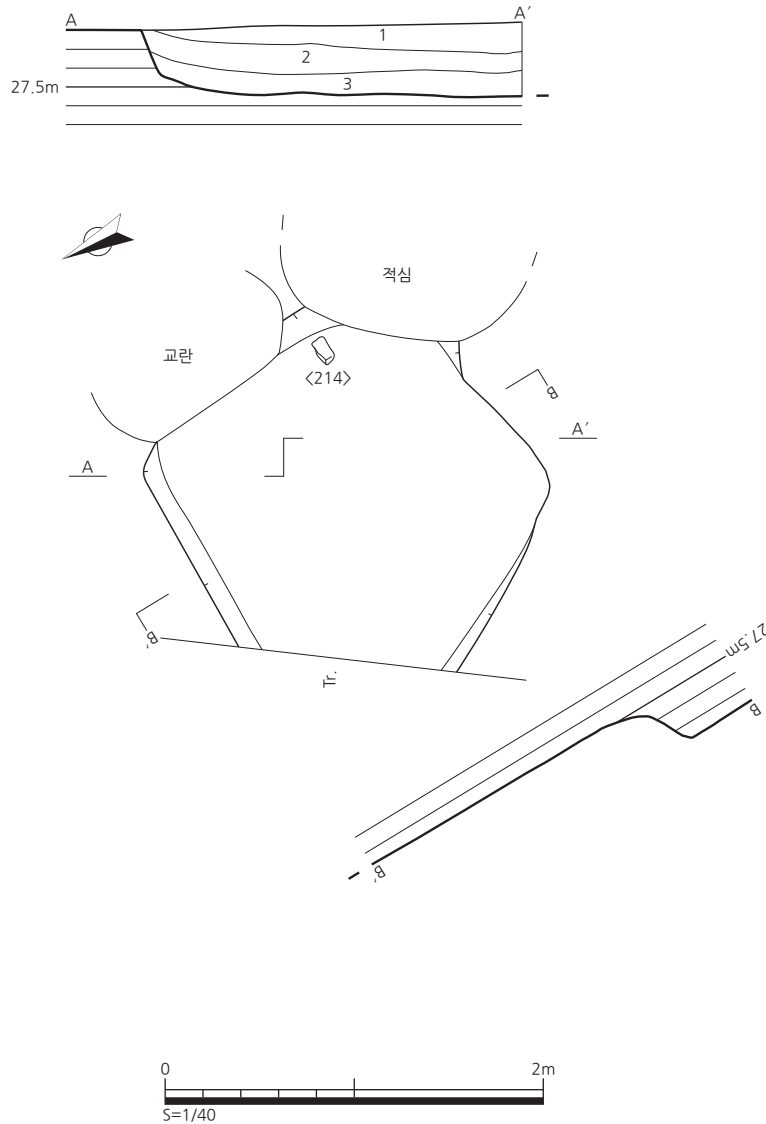
15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7~27.8m이다. 동쪽에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가 인접해 있다.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가 중복되었는데 15호 수혈이 가장 후축되었다.

서쪽 부분은 표본Tr.에 의해 파괴되었고 동쪽 부분은 조선시대 1호 건물지와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186cm, 잔존폭 184cm, 깊이 40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약간의 요철이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3개가 확인되었다. 명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경도는 단단하고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1. 명갈색 사질토 - 단단함. 입자가 굵고 거침.
2. 명갈색 사질토 - 단단함. 입자가 굵고 거침.
3. 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황색 사질토 소량 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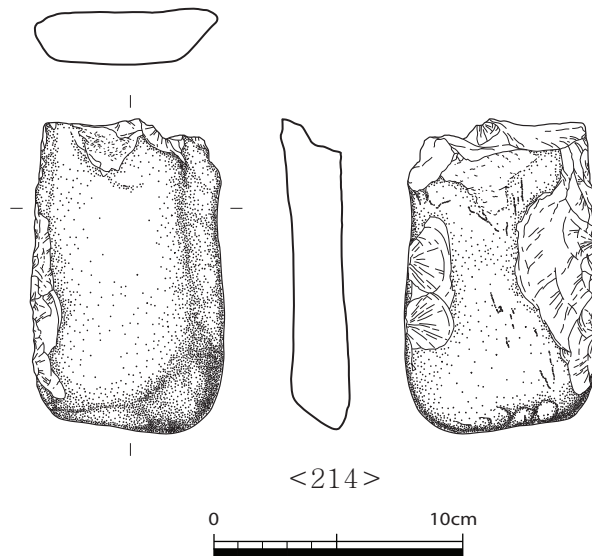
도면 113.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수혈

나. 유물

214. 석재 (도면 114-214, 도판 59-214)

암질은 편마암 계통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세면 가장자리에 박리흔이 확인되며, 한쪽 측면에 집중적인 박리흔과 고타흔이 관찰된다. 석기 제작을 시도하다 중단한 석재로 판단된다.

길이: 12.3cm, 너비: 7.6cm, 두께: 2.3cm, 무게: 450g.



도면 114.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수혈 출토유물

(16) 16호 수혈

가. 유구(도면 115, 도판 60-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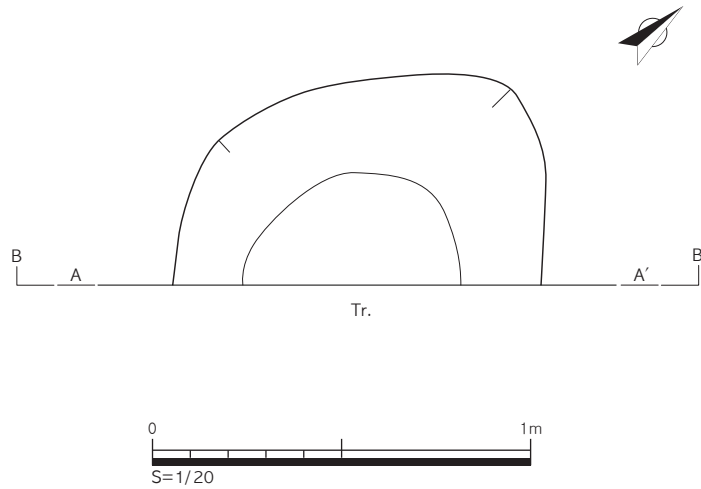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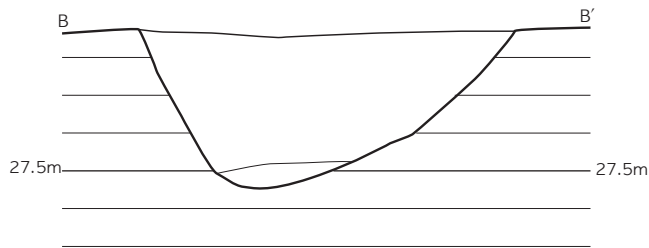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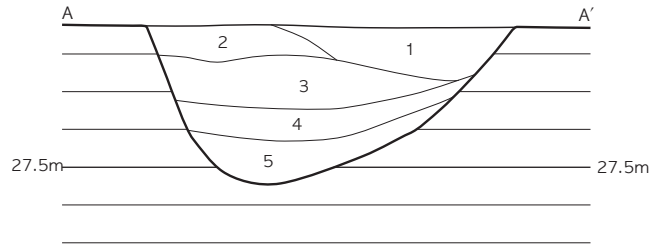
16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해발은 27.8~27.9m이다. 북쪽으로 2.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3.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남동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규모는 길이 98cm, 잔존폭 56cm, 깊이 41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바닥을 둥글게 굴착해서 단면이 'U'자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다. 회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었으며, 소량의 소토와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 회갈색 사질토 - 소토 소량 혼입.
2. 회갈색 사질토 - 소토 소량 혼입.
3. 명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4. 암갈색 사질토 - 단단하다. 목탄편, 소토 소량 혼입.
5. 명회갈색 사질토+암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도면 115.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수혈

(17) 17호 수혈

가. 유구(도면 116, 도판 60-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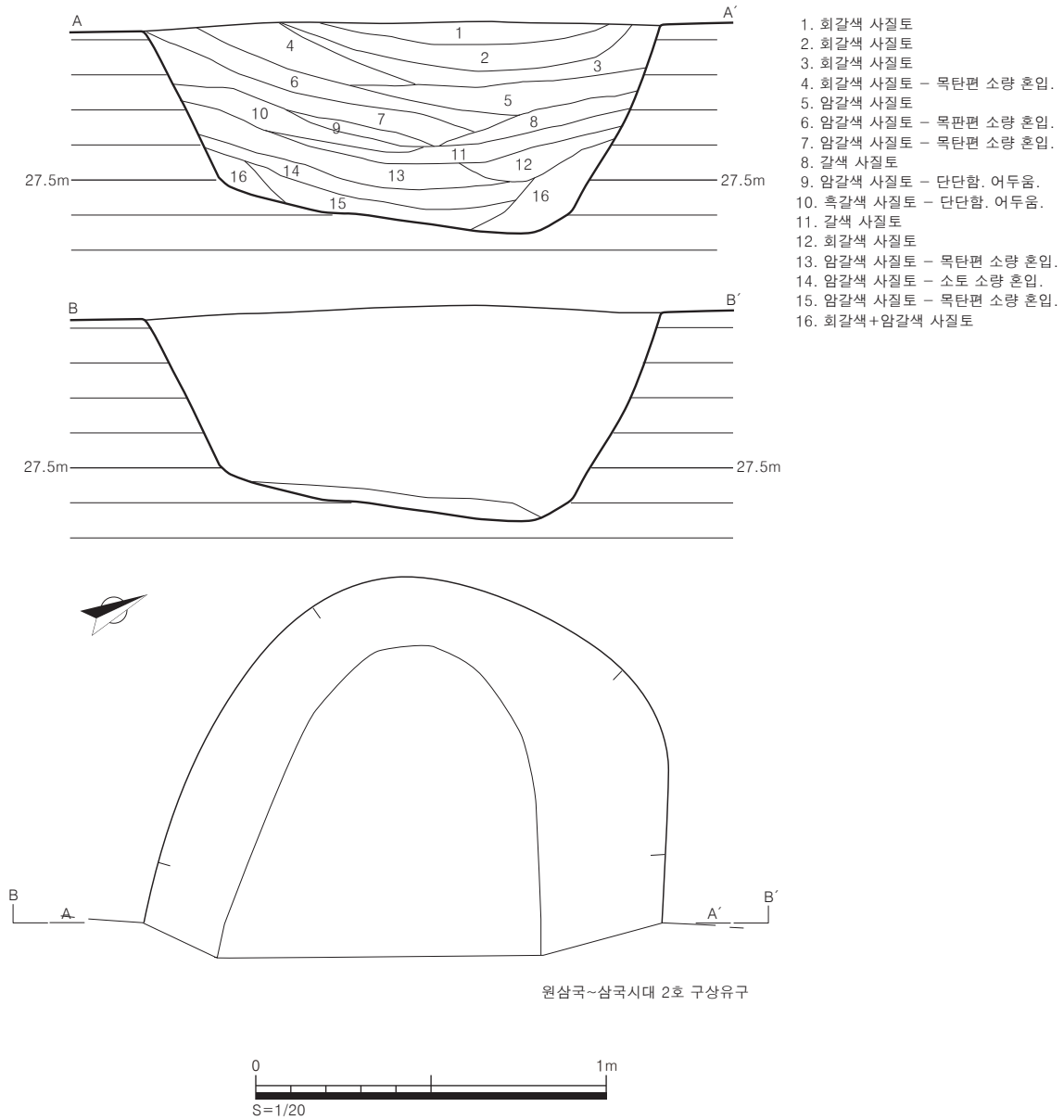
17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9~28.0m이다. 북쪽으로 1.8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21호 수혈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2.6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와 중복되었는데 17호 수혈이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동쪽 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의 내부조사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규모는 직경 141cm, 깊이 59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있다.

토층은 모두 16개가 확인되었다. 회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혈 중앙으로 완만하게 경사되적 되었다. 하부로 갈수록 어두워지며 경도는 단단하고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유수에 의해 퇴적된 괴상의 사질토 및 사질점토 퇴적물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16.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

(18) 18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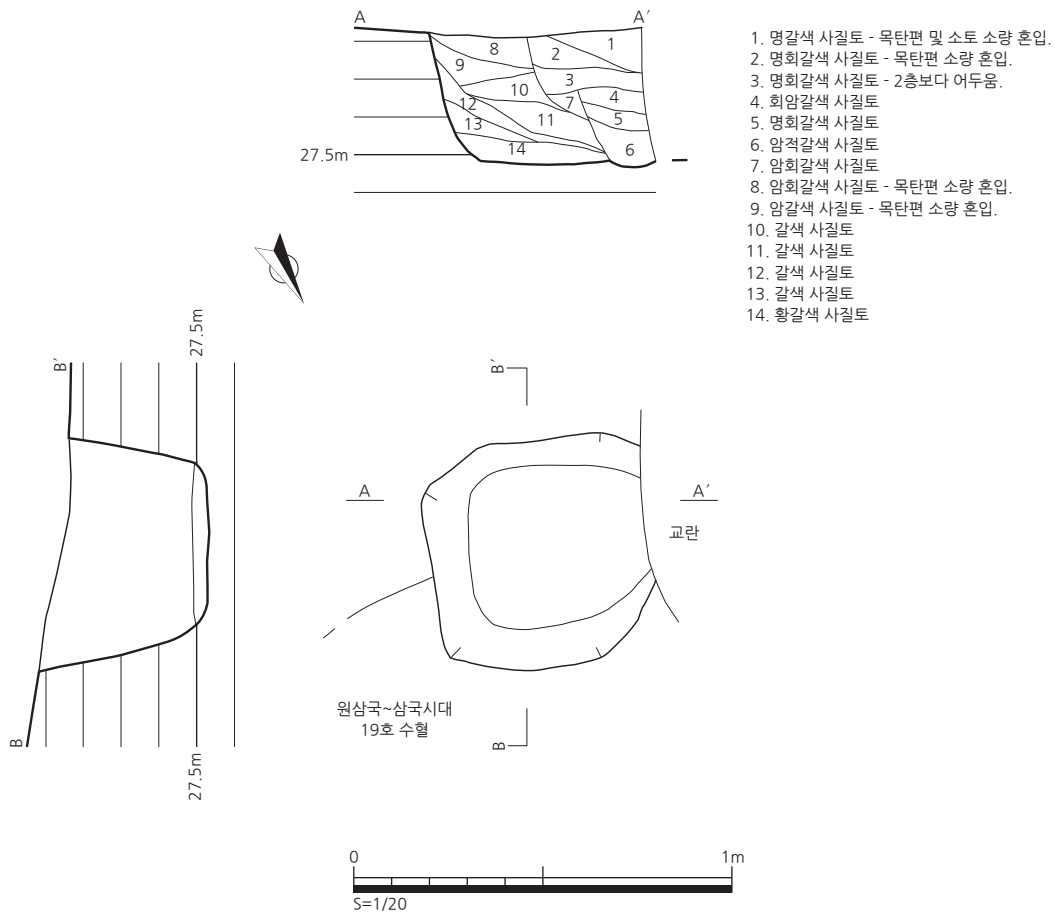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17, 도판 60-⑤,⑥)

18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8m이다. 서쪽에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북쪽으로 1.5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9호 수혈이 중복되었는데 18호 수혈이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유구선이 정연하지 않다. 서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규모는 길이 60cm, 폭 58cm, 깊이 37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14개가 확인되었는데 회갈색 계열의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17.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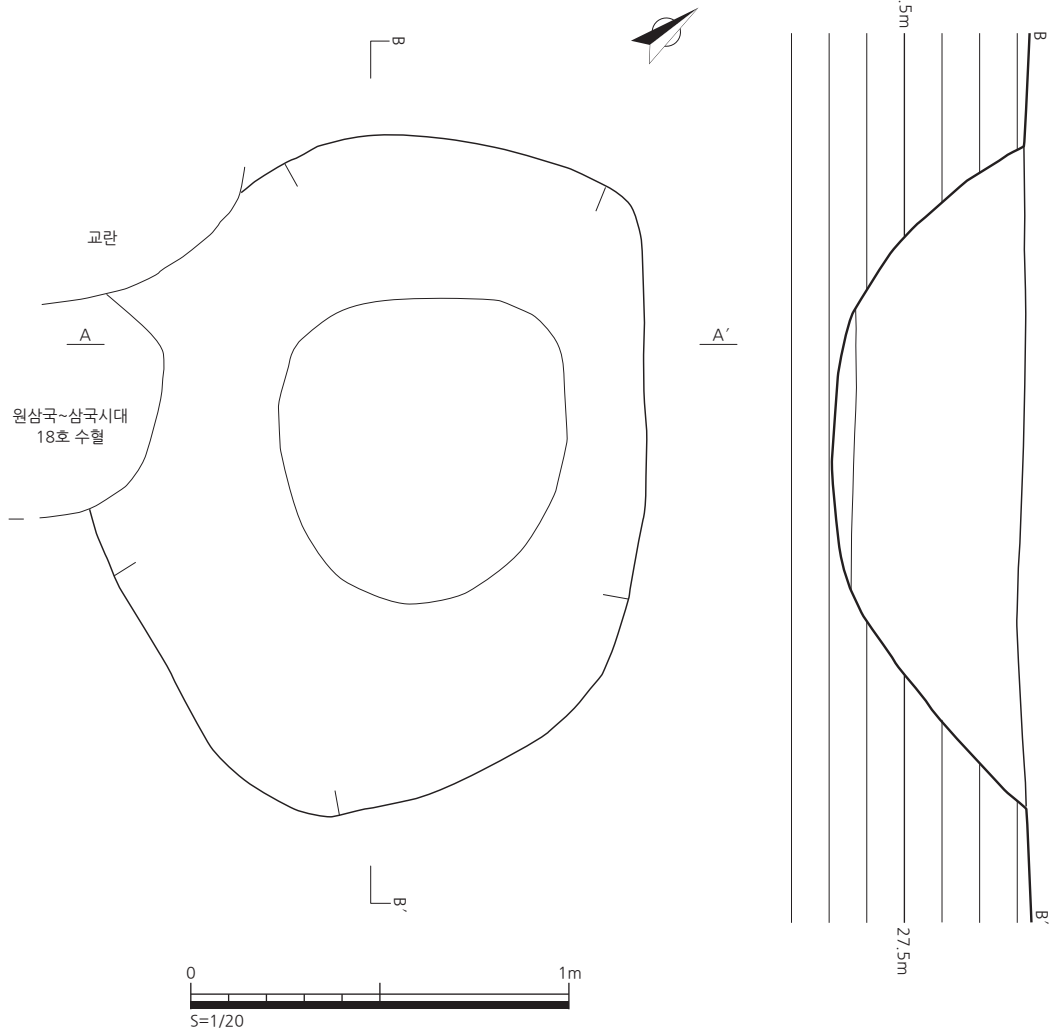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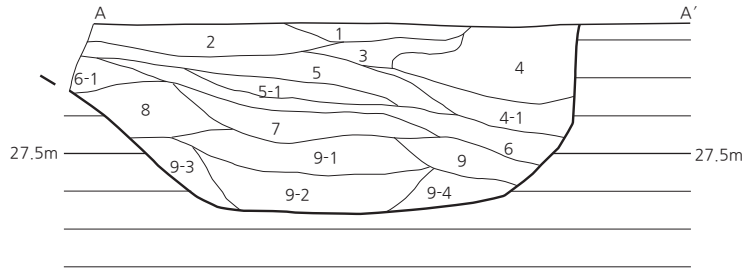
(19) 19호 수혈

가. 유구(도면 118, 도판 60-⑦,⑧)

19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8~27.9m이다. 서쪽으로 원삼국~삼국시대

- | | |
|--------------------|---------------------------|
| 1. 명회갈색 사질토 | 7. 회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 2. 명회갈색 사질토 - 단단함. | 8. 회갈색 사질토 |
| 3. 암갈색 사질토 | 9. 황갈색 사질토 |
| 4. 회갈색 사질토 | 9-1. 황갈색 사질토 - 목탄편 소량 혼입. |
| 4-1. 회갈색 사질토 | 9-2. 황갈색 사질토 |
| 5. 명회갈색 사질토 | 9-3. 황갈색 사질토 - 약간 어두움. |
| 5-1. 명회갈색 사질토 | 9-4. 황갈색 사질토 - 약간 어두움. |
| 6. 암갈색 사질토 | |
| 6-1. 암갈색 사질토 | |

2차 퇴적토층 : 1~8
1차 퇴적토층 : 9~9-4



도면 118. 원삼국~삼국시대 19호 수혈

15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동쪽으로 2.0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와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수혈 및 16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16호 주거지보다 후축되었고 18호 수혈보다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남동쪽 일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18호 수혈과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53°-W이고 규모는 길이 178cm, 폭 146cm, 깊이 50cm이다. 벽은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중위 부분에서 45도로 꺾어지고,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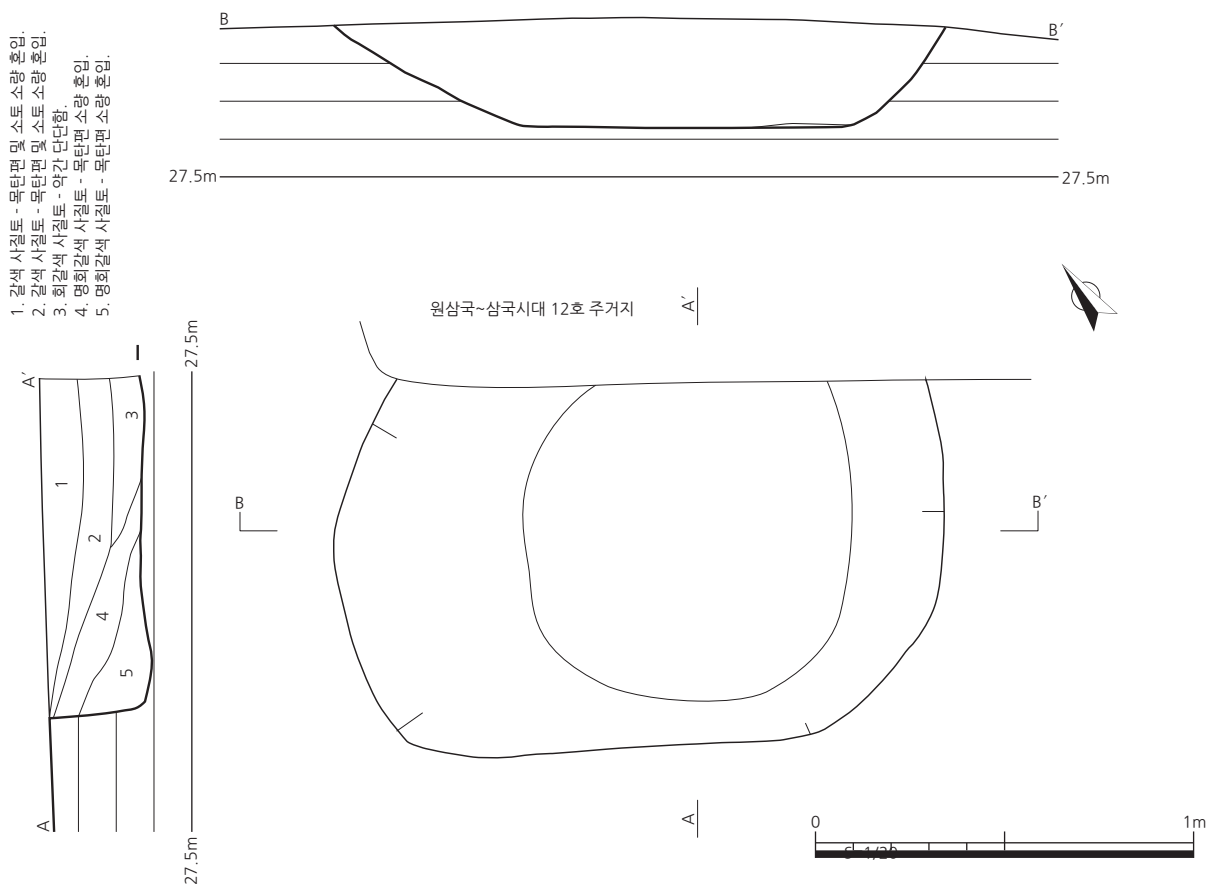
내부토층은 모두 16개가 확인되며 크게 2차 퇴적토층과 1차 퇴적토층으로 구분된다. 2차 퇴적토층(1~8층)은 암갈색·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퇴적되었다. 1차 퇴적토층(9~9-4층)은 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으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0) 20호 수혈

가. 유구(도면 119, 도판 60-㉑)

20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도면 119. 원삼국~삼국시대 20호 수혈

27.8~27.9m이다. 남동쪽으로 2.3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와 1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서쪽으로 2.4m 떨어진 곳에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12호 주거지보다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향으로 추정되며 북쪽 부분이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 내부조사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53°-W이다. 규모는 길이 160cm, 잔존폭 99cm, 깊이 48cm이다. 남서벽은 수직에 가깝고 북서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바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있는데 요철이 심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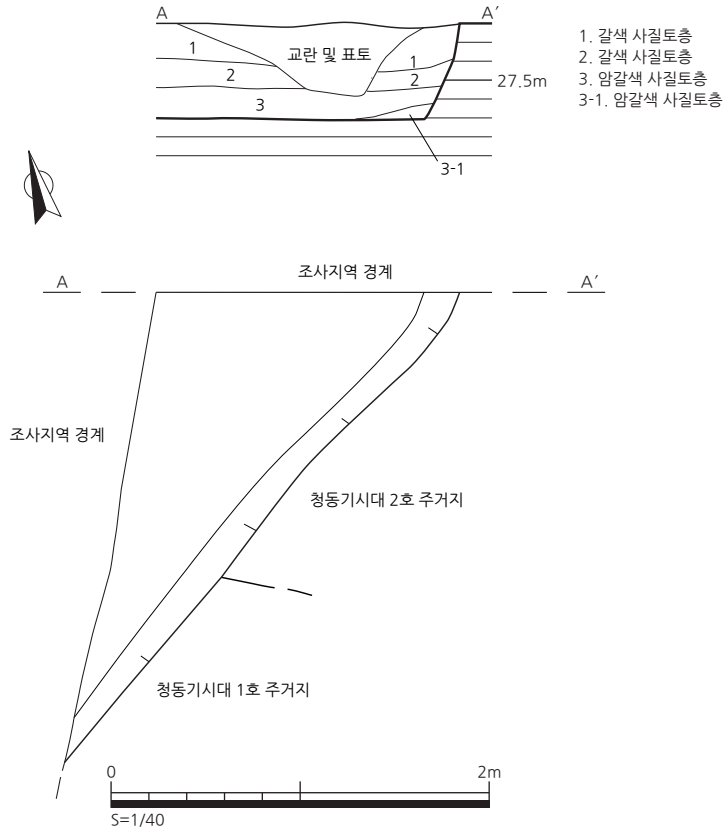
내부토층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다. 갈색·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경사퇴적 되었으며 소량의 소토와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1) 21호 수혈

가. 유구(도면 120, 도판 60-⑩)

21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어서 일부분만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1호·2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8m이다. 동쪽에 원삼국~삼국시대 17호 수혈과 원삼국~삼국시대 2호 구상유구가 인접해 있다.



도면 120. 원삼국~삼국시대 21호 수혈

장축방향은 N-56°-E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248cm, 잔존폭 144cm, 깊이 53cm이다. 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바닥은 평평하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 없이 선축된 유구의 내부퇴적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토층은 모두 4개가 확인되었다. 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는데 유기물에 의한 부식이 심해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다.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었고 입자가 굵고 거칠며 경도는 단단하다. 유수 및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1)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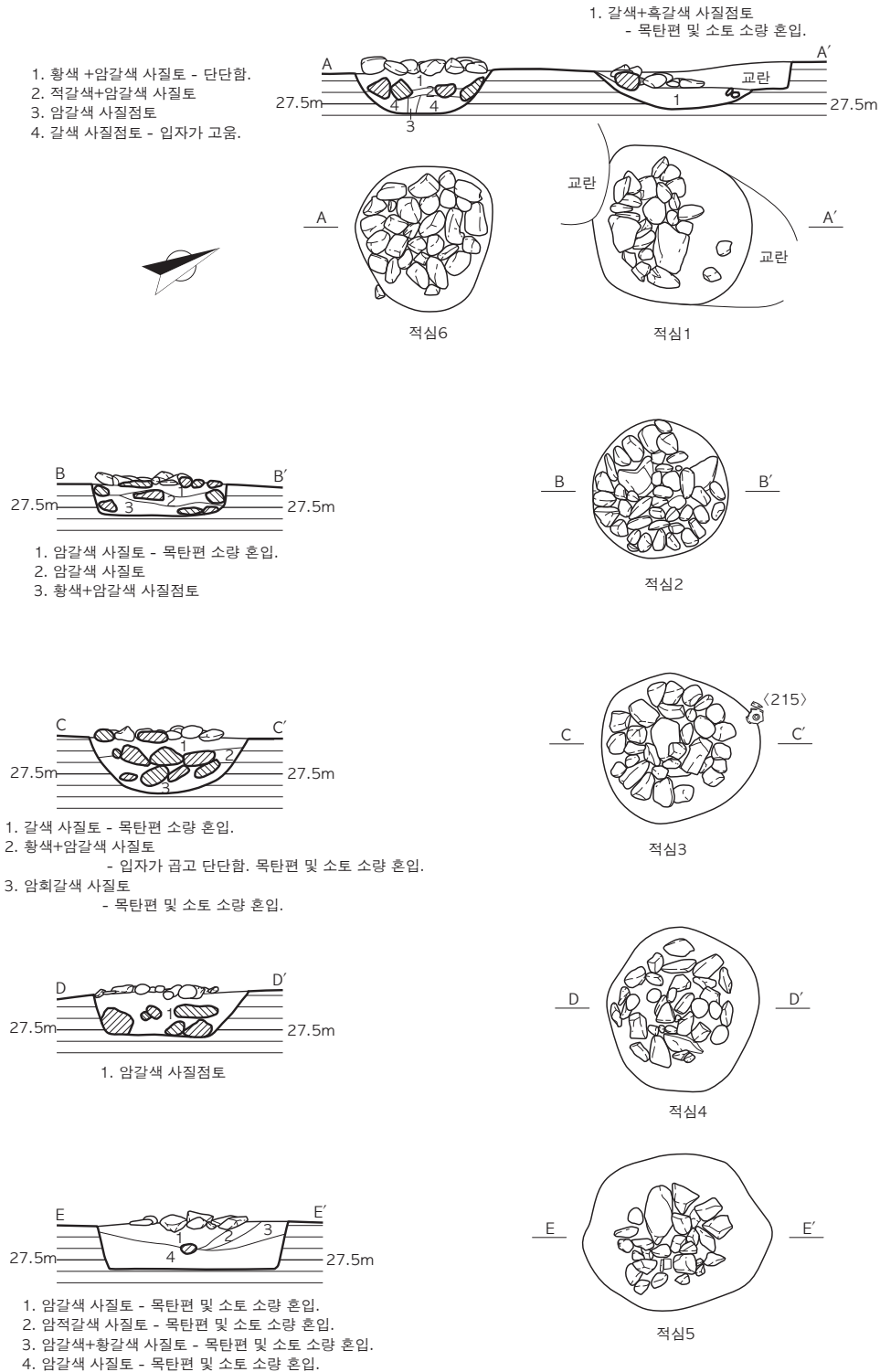
(1) 1호 건물지

가. 유구(도면 122, 도판 61)

건물지는 조사지역 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7~28.0m이다. 적심 6개가 남아있는데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건물지의 평면형태는



도면 121. 조선시대 유구배치도(1:300)



도면 122.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정면 4칸, 측면 1칸이고 주칸거리는 적심의 중심을 기준으로 정면 200~224cm, 측면 210cm이다.

적심은 모두 잡석지정으로 이루어졌다. 암갈색 사질토를 굴착한 후 석재와 사질토로 내부를 채우고 상부에는 빈틈없이 잡석을 깔아서 조성했다. 잡석은 크고 작은 할석과 강돌을 사용했고 적심 2·3·5는 중앙의 넓은 잡석을 중심으로 둥글게 잡석을 깔아서 조성했다.

적심1은 교란에 의해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128cm, 잔존폭 119cm, 깊이 38cm이다. 갈색 사질토로 내부를 채우고 상부에 길이 20cm 이상의 잡석을 불규칙적으로 깔았다. 적심2는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121cm, 깊이 28cm이다. 암갈색 사질토와 길이 15~20cm의 잡석으로 내부를 채웠으며, 길이 32cm의 넓은 할석을 상부에 놓고 주변에 길이 15~20cm의 강돌을 둥글게 깔았다. 적심3은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139cm, 폭 132cm, 깊이 48cm이다. 길이 20~30cm의 잡석으로 내부를 채웠으며, 길이 40cm의 넓은 강돌을 상부에 놓고 주변에 길이 15~30cm의 잡석을 둥글게 깔았다. 적심4는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144cm, 폭 132cm, 깊이 39cm이다. 암갈색 사질토와 길이 20~30cm의 잡석으로 내부를 채웠고, 상부에는 크고 작은 잡석을 불규칙적으로 깔았다. 적심5는 평면형태가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166cm, 폭 136cm, 깊이 42cm이다. 암갈색 사질토로 내부를 채웠으며, 길이 48cm의 넓은 할석을 상부에 놓고 주변에 길이 15~25cm의 잡석을 깔았다. 적심6은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규모는 길이 126m, 폭 118m, 깊이 36m이다. 암갈색·갈색 사질토와 길이 약 20cm의 잡석으로 내부를 채우고, 상부에는 길이 15~30cm의 강돌을 불규칙적으로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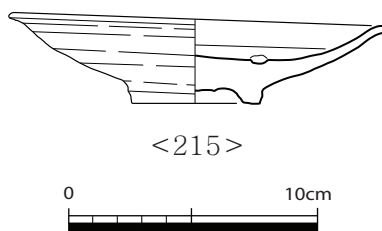
유물은 백자접시가 출토되었다.

나. 유물

215. 백자접시(도면 123-215, 도판 62-215)

구연에서 동체부 중하위까지의 약 2/5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결실부는 의도적으로 파손, 휘기의 가능성이 있다. 태토에는 소량의 석립(1mm 이하)이 혼입되었으며 자화 정도는 양호하다. 기고에 비해서 구경이 현저히 넓다. 동체부에서 구연부까지의 측면은 완만한 'S'자 형태로 벌어지며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내저에는 직경 11.0cm 정도의 원각이 약하게 돌아간다. 저부 형태는 죽절굽이며 굽의 접지면과 저부 내면에는 태토빛음이 받쳐졌다. 굽 안쪽을 제외한 부분이 시유되었으며 유착 정도는 양호하고 발색 정도는 아주 양호하지는 않다. 유색은 회백색(N 7/0)이다.

높이: 3.6cm, 구경: 15.0cm, 저경: 5.1cm, 두께: 0.3~1.7cm



도면 123.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출토유물

2) 수혈

(1) 1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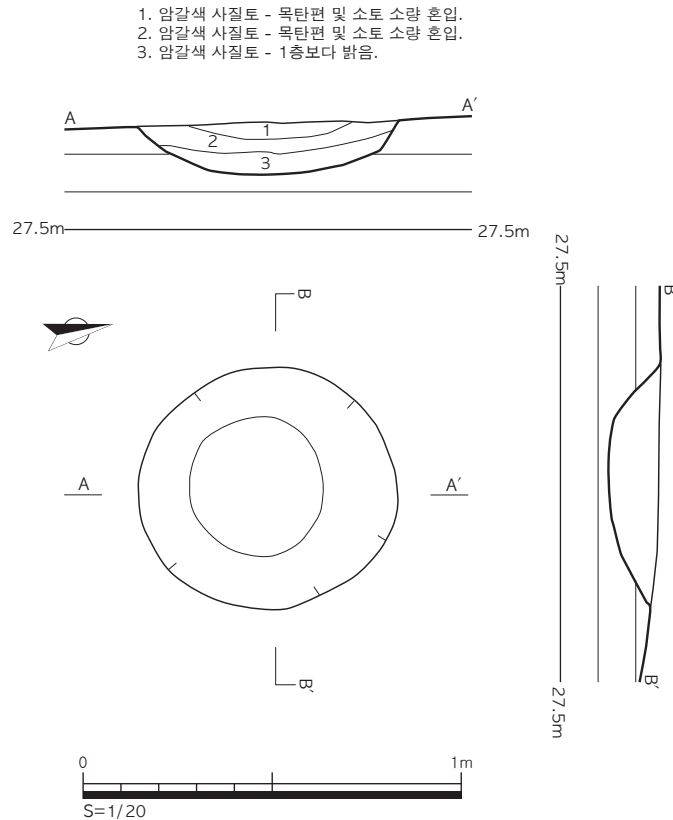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24, 도판 62-①,②)

1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7~27.8m이다. 서쪽으로 2.5m 떨어진 곳에 조선 2호·3호·4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64cm, 깊이 18cm이다. 벽은 완경사를 이루고 바닥은 완만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3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졌으며 'U'자 형태로 완만하게 퇴적되었고 소량의 목탄편과 소토가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24. 조선시대 1호 수혈

(2) 2호 수혈

가. 유구(도면 125, 도판 62-③,④)

2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7~27.8m이다. 남쪽으로 2.5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8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조선시대 3호·4호 수혈에 의해 북쪽 부분이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규모는 길이 230cm, 폭 222cm, 깊이 23cm이다. 벽면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면은 요철이 심한 편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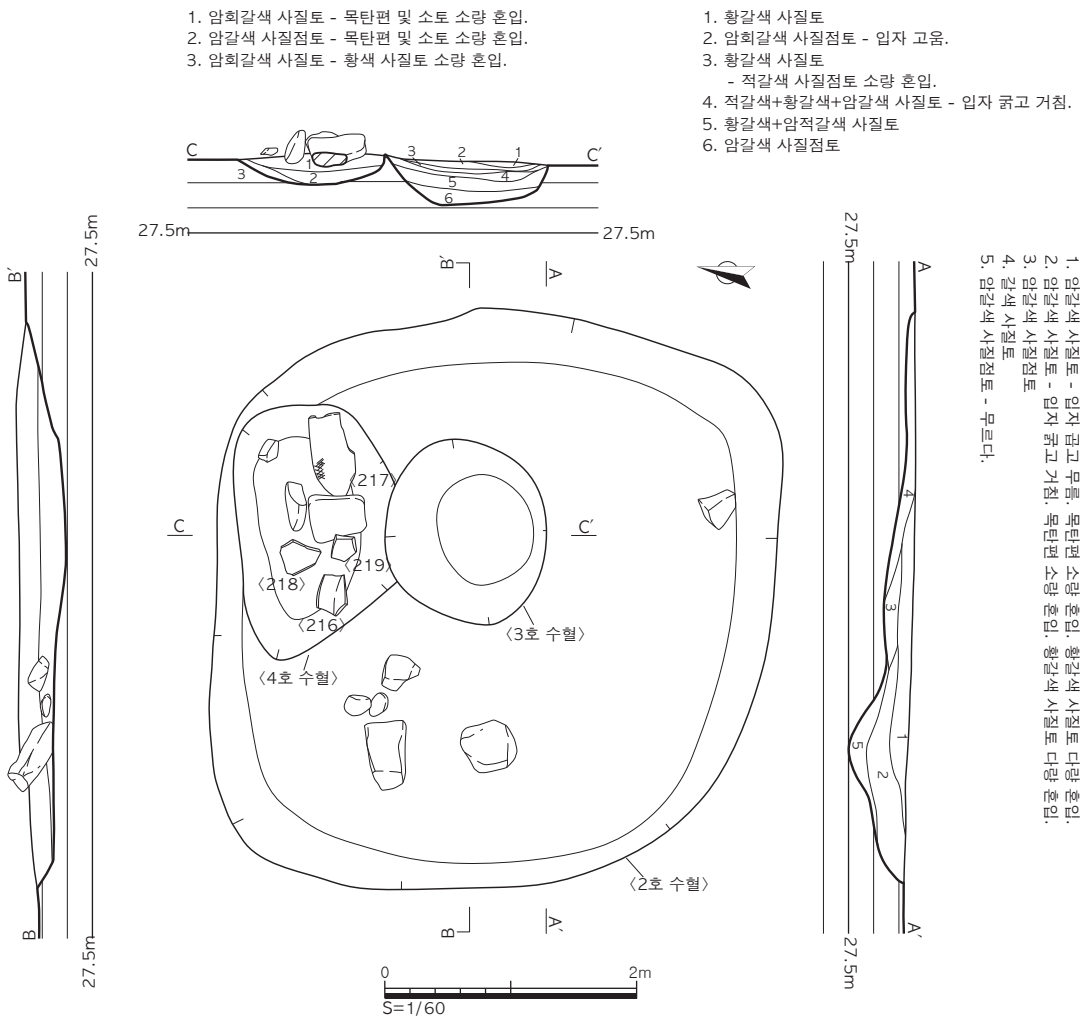
내부토층은 모두 5개가 확인되었다. 암갈색 사질토 및 사질점토로 이루어졌고 소량의 목탄편과 다량의 황갈색 사질토가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3호 수혈

가. 유구(도면 125, 도판 62-⑤,⑥)

3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2호 수혈의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7~27.8m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조선시대 4호 수혈의 남쪽 부분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규모는 길이 77cm, 폭 65cm, 깊이 20cm이다. 벽면은 완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져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6개가 확인되었다. 주로 황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4호 수혈

가. 유구(도면 125, 도판 62-⑦,⑧)

4호 수혈은 조사지역 동쪽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2호 수혈의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8~27.9m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조선시대 3호 수혈에 의해 남쪽이 파괴되었다. 규격은 길이 110cm, 잔존폭 58cm, 깊이 11cm이다. 단면은 완만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3개가 확인되었고 암회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다. 퇴적방향은 일정하지 않고 소량의 목탄편과 소토가 혼입되었다.

유물은 도기저부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16. 도기 저부편(도면 126-216, 도판 64-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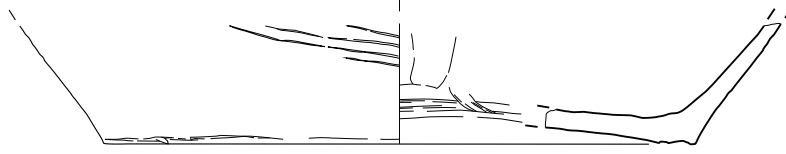
호 혹은 동이로 추정된다. 동체 하부에서부터 저부 일부까지가 약 1/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과 중경질(中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와외의 경계에서 사방향으로 비교적 곧게 벌어진다. 동체부는 물손질된 가운데 평행선문 박자 타날 압흔이 남아있고 저부로 이어지는 경계 외면의 넓은 부위는 회전물손질되었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부분적인 찰흔과 점토 접합흔이 관찰된다. 저부는 사절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지면에는 초본류로 보이는 압흔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회황갈색(10YR 6/2), 회색(N 5/0), 내면 회황갈색(10YR 6/2), 회색(N 5/0),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5.1cm, 복원저경: 25.0cm, 두께: 0.5~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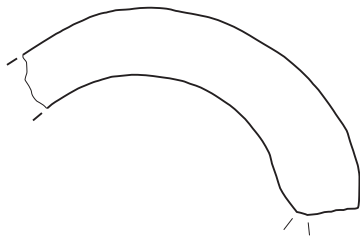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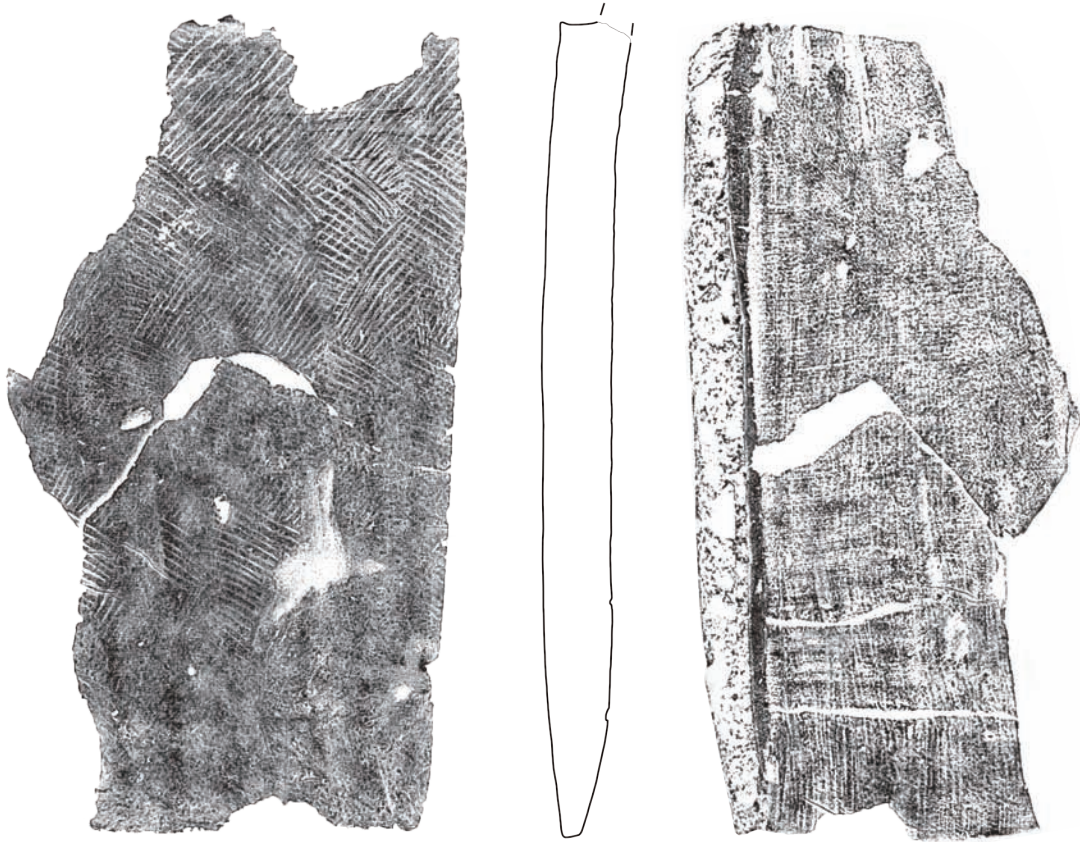
217. 수키와(도면 126-217, 도판 63-217)

측면 일면과 미구부가 결실되었다. 경질(上下)과 중경질(中上)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신부 외면에는 집선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하단부로 이어지는 넓은 면은 건장치기 후 물손질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분포하며 하단부 넓은 면은 물손질에 의한 종방향 찰흔이 형성되었다. 신부 하위에는 합철 혹은 연철로 추정되는 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측면은 내측 분할되었으며 와도 분할비는 1:4~6 정도에 해당한다. 색조는 외면 회색(N

5/0), 내면 암적회색(10R 4/1), 회황갈색(10YR 5/2),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길이: 34.3cm, 잔존너비: 15.4cm, 두께: 0.8~3.4cm



<216>



<217>



도면 126.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1

(5) 5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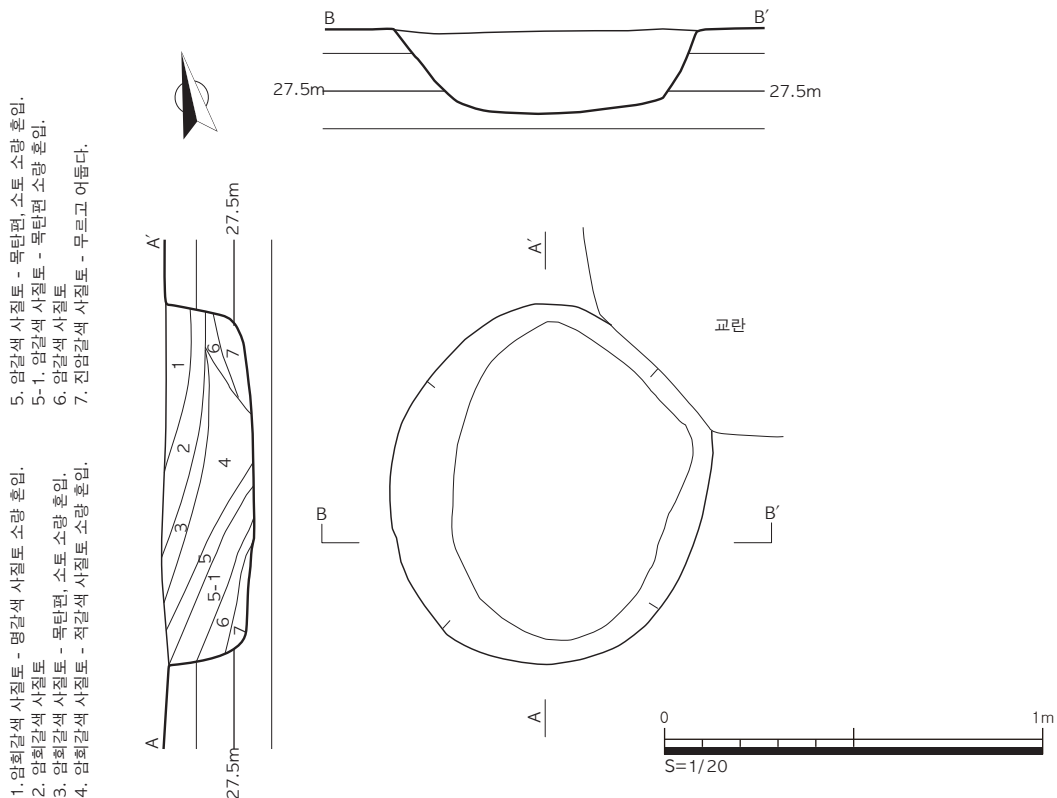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28, 도판 64-①,②)

5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6m이다. 동쪽으로 5.3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8호 수혈이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6.3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6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북동쪽 부분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규모는 길이 48cm, 폭 42cm, 깊이 11cm이다. 벽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바닥면은 평평한 편이다.

내부토층은 모두 8개가 확인되었다. 암회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완만하게 경사퇴적되었으며 소량의 목탄편이 혼입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28. 조선시대 5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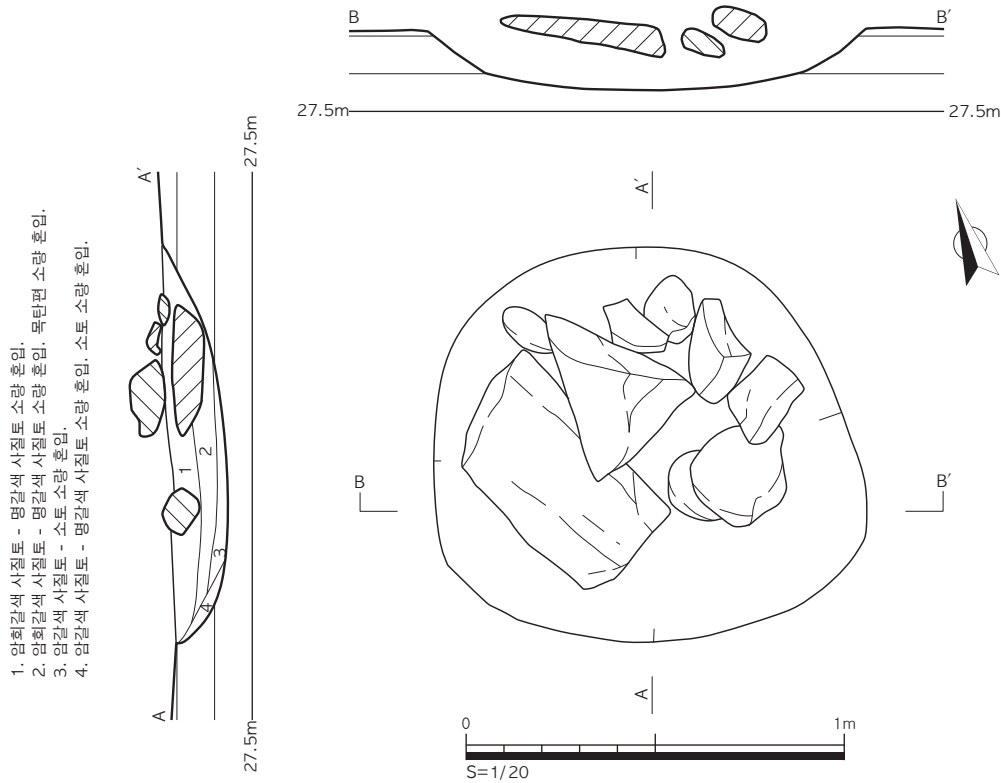
(6) 6호 수혈

가. 유구(도면 129, 도판 64-③,④)

6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7~27.8m이다. 북쪽으로 4.5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7호 수혈이 위치하고 남동쪽으로 6.5m

떨어진 곳에 조선 5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57cm, 깊이 7cm이다. 단면은 완만한 'U'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층은 모두 4개가 확인되었다. 명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고 완만하게 경사되적 되었으며 소량의 목탄편과 명갈색 사질토가 혼입되었다.

상부에서 다량의 석재가 확인되었으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29. 조선시대 6호 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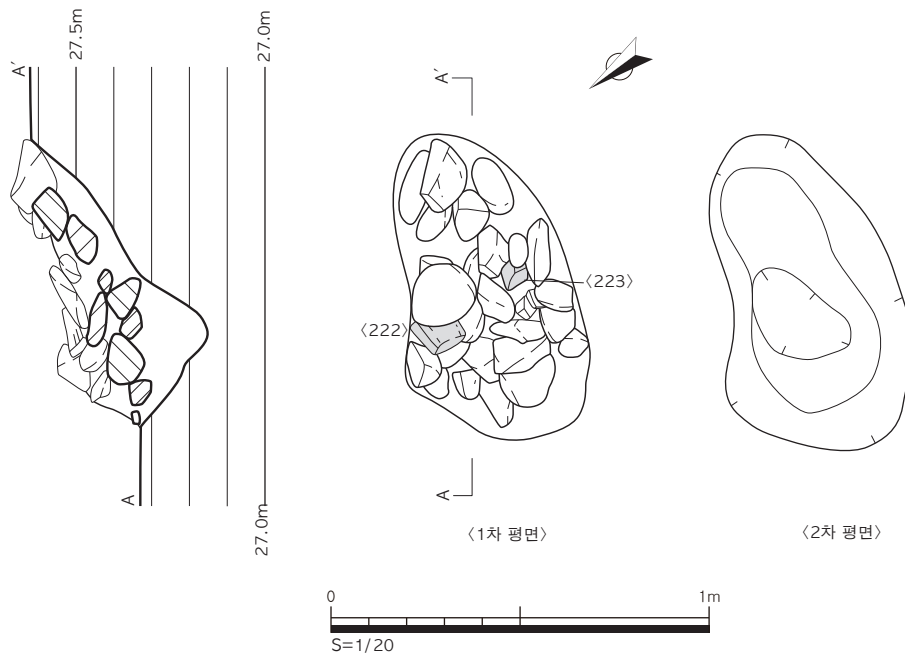
(7) 7호 수혈

가. 유구(도면 130, 도판 64-⑤~⑦)

7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한다.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 상부에 조성되었고 해발은 27.6~27.7m이다. 남쪽으로 4.5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6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서쪽 부분 상부가 표본Tr.에 의해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54°-W이고 규모는 길이 82cm, 폭 50cm, 깊이 46cm이다. 벽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바닥면이 좁기 때문에 단면이 'V'자에 가깝다.

내부에 길이 15~20cm의 활석과 강돌 등의 석재가 채워져 있었고 유물은 기와편과 도기저부편, 백자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130. 조선시대 7호 수혈

나. 유물

220. 도기동이 (도면 131-220, 도판 65-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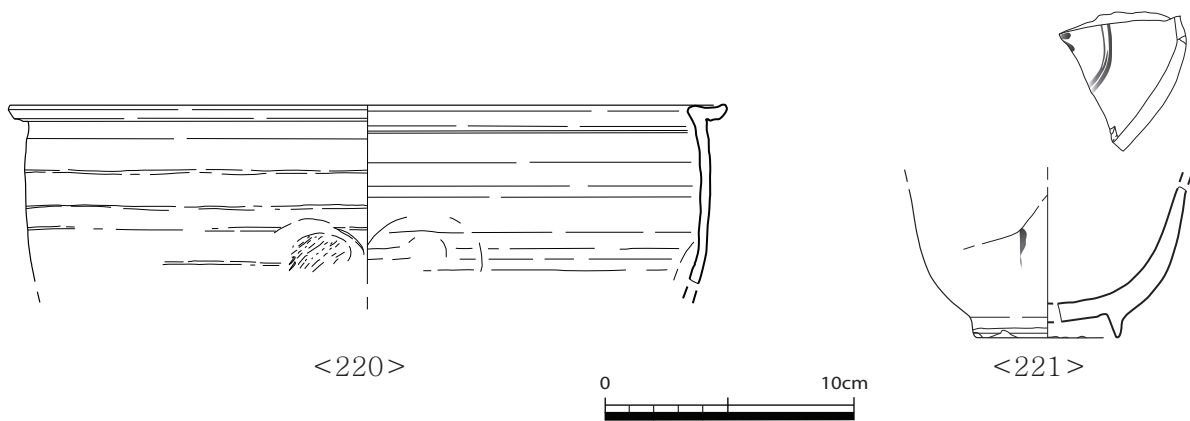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상위까지가 약 1/2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下)되었다. 기벽이 전체적으로 얇은 편이다. 구연부는 전의 형태로 돌출되었고 구연부 상면은 요면을 이룬다. 구순은 둥근 형태에 가깝다. 잔존부 전면이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회전물손질 시 기면을 연마한 횡방향 흔적이 문양처럼 형성되었다. 동체 일부에는 파수 부착흔적으로 추정되는 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5/1), 회색(N 4/0), 내면 암적회색(10R 4/1), 속심 황회색(2.5Y 5/1)이다.

잔존높이: 7.1cm, 복원구경: 28.4cm, 두께: 0.3~0.8cm

221. 청화백자발(도면 131-221, 도판 65-221)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동체부 중상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굽)까지가 약 1/4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자화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태토에는 극소량의 석립(1mm 이하)이 혼입되었다. 잔존부 전면에이 시유되었으며 유착 및 발색 정도는 아주 양호하지는 않다. 동체 하부는 둥글게 꺾여 상향하며 굽은 직립하고 단부가 침상을 이룬다. 동체부 외면과 저부 내면에는 청화로 시문되었는데 외면의 문양을 알 수 없고 내면은 이중원문 안에 화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와 흙물이 부착되었다. 유색은 회백색(N 8/0)이다.

잔존높이: 6.0cm, 저경: 5.8cm, 두께: 1~0.9cm



도면 131. 조선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1

222. 수키와(도면 132-222, 도판 65-222)

측면 일면을 포함한 미구부 일부에서부터 신부 상위까지의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미구부 외면은 신부와외의 경계에서 꺾인 다음 중위에서 다시 단이지며 강하게 회전물손질되었다. 신부 상위 외면은 회전물손질되었으나 박자 압흔이 관찰되며 신부 외면에는 파도문(청해파문, 중호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와통에서 분리될 때 기면이 부분적으로 뭉그러지기는 하였으나 내면의 포흔이 잔존부 전면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합철로 보이는 종방향의 최대폭 1.0cm 정도 압흔이 있다. 측면은 내측 분할되었으며 와도 분할비는 1:2~3 정도에 해당한다. 색조는 외면 회색(N 5/0), 내면 회색(N 5/0), 속심 회색(N 5/0)이다.

잔존길이: 12.9cm, 잔존너비: 12.8cm, 두께: 1.8~3.1cm

223. 수키와 (도면 132-223, 도판 65-223)

신부 일부가 잔존한다. 중경질(中上)이고 태토에는 석립(1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어골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으며 내면에는 포흔이 잔존하고 잔존부 하위에는 종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있다. 색조는 외면 갈회색(10YR 5/1), 내면 갈회색(10YR 5/1), 속심 갈회색(10YR 5/1)이다.

잔존길이: 11.8cm, 잔존너비: 7.4cm, 두께: 1.95~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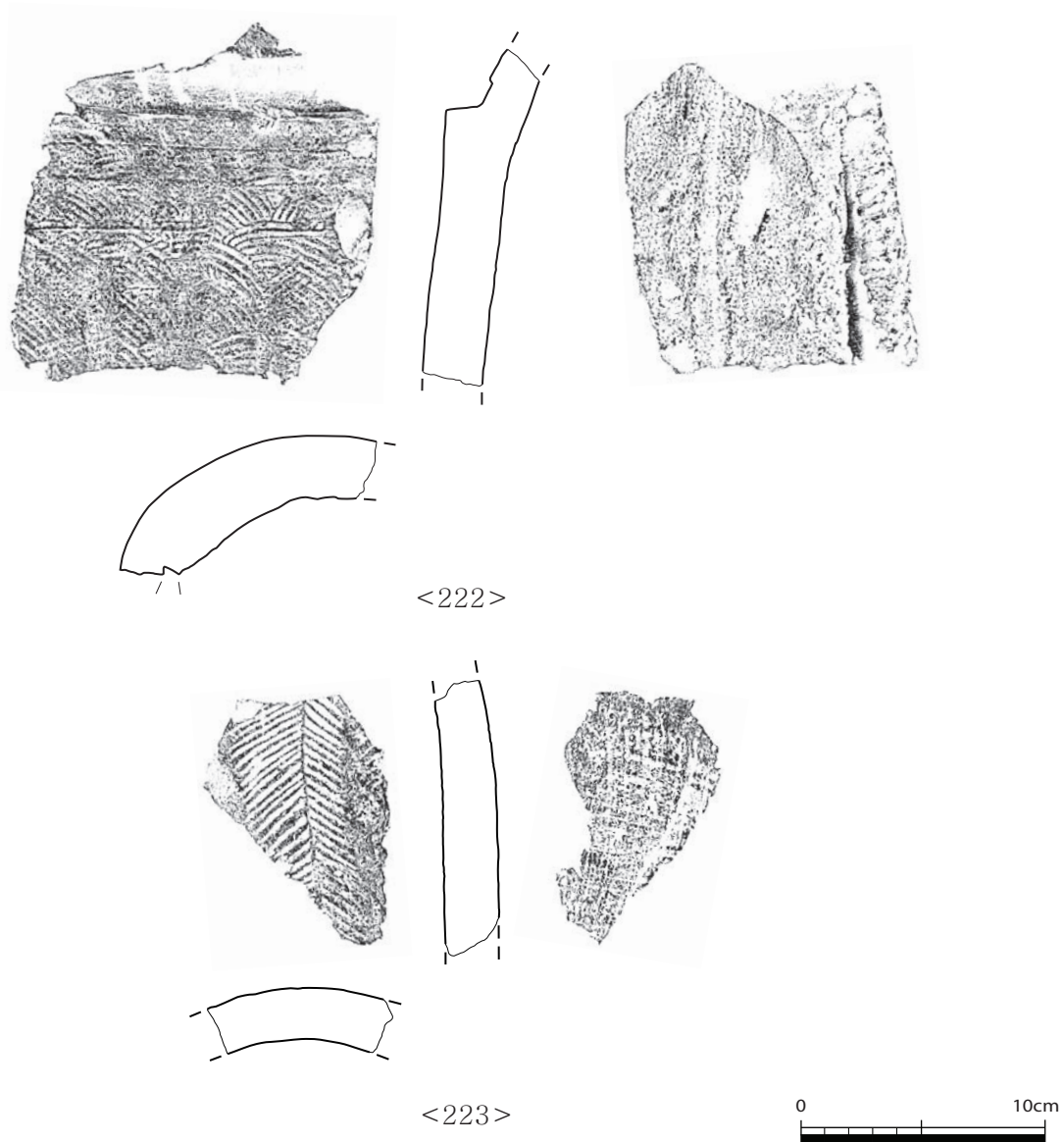
8) 8호 수혈

가. 유구(도면 133, 도판 65-①~④)

8호 수혈은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7~27.8m이다. 북쪽으로 2.5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2호·3호·4호 수혈이 위치하고 서쪽으로 5.3m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5호 수혈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130cm, 깊이 44cm이다. 벽면은 완만하고 바닥면은 평평한 편이다.

수혈 중앙에 도기대옹이 정치되어 있었고 옹 내부에는 옹 잔편과 커다란 석재들이 함께 확인되었다. 건물지와 관련된 저장시설로 내부의 석재는 후대에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32. 조선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2

나. 유물

224. 도기대옹(도면 134-224, 도판 66-224)

접합되지 않는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까지의 1점과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까지의 1개체가 잔존하며 각각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중경질(中上)과 경질(上下)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태토에는 석립(8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 동체부는 길며 측면이 거의 직선에 가까울 만큼 극히 완만한 호형을 이루고 경부 없이 구연부가 돌출되어 전을 이룬다. 전은 기벽을 가운데 두고 내·외면이 모두 돌출되었으며 구순은 둥근 형태에 가깝다. 전은 고르게 회전물손질되었다. 동체부 상위에는 4개의 횡침선문이 일정 간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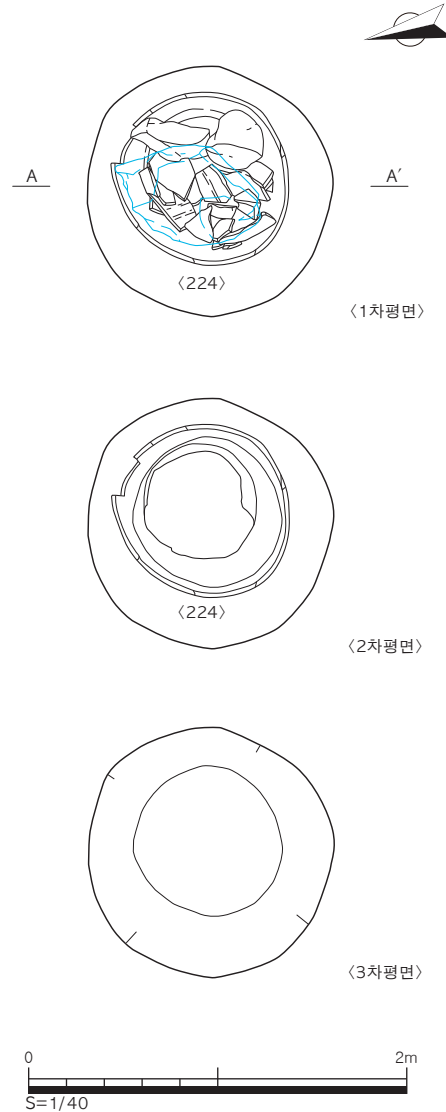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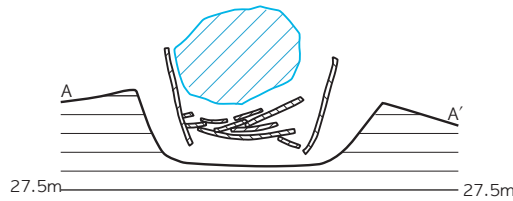
두고 배치되었으며 그 사이와 위로 지두로 눌러 만든 반관통 상태의 원문이 있다. 동체부 상위에서 중위까지의 내·외면은 모두 물손질된 가운데 외면에는 평행선문 내면에는 굵은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남아있다. 동체부 중위 이하에서부터 저부 경계까지의 외면에는 박자 압흔은 관찰되지 않는 대신 솔로 쓸어내린 거친 흔적이 거의 전면에 분포하고 내면에는 상위와 동일한 형태의 격자문 박자 타날 압흔이 있다. 저부 형태는 평저이며 외저면에는 태토빛음이 받쳐 졌다. 동체부 상위 횡침선 1과 2 사이에는 용도불명의 철판 1점이 수착된 상태이다. 색조는 외면 회색(N 5/0), 내면 회색(N 5/0),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잔존높이: 40.8cm/30.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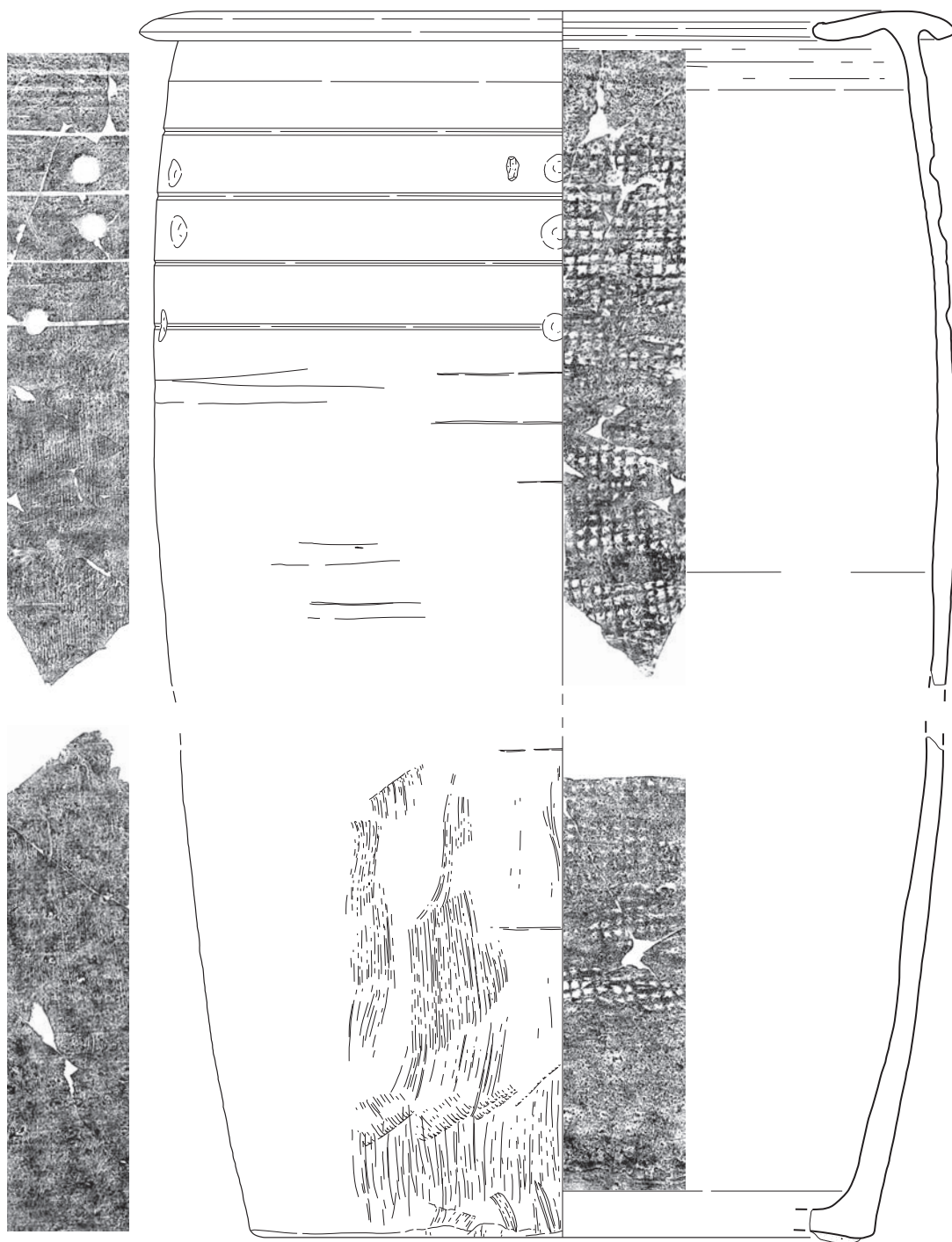
복원구경: 49.2cm,

복원저경: 37.5cm,

두께: 0.6~2.8cm



도면 133. 조선시대 8호 수혈



<224>

0 10cm
S=1/4

도면 134. 조선시대 8호 수혈 출토유물(1/4)

〈시대 미상〉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136, 도판 67-①,②)

1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해발은 27.2~27.3m이다. 조사지역을 북서-남동으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확인되는데, 중복유구와 교란에 의해 상부가 훼손되고 양 끝단이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어서 정확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북쪽 부분은 원삼국-삼국시대 10호·11호·12호 주거지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었고 남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규모는 잔존길이 2,218cm, 폭 109cm, 깊이 61cm이다.

내부토층은 5개가 확인되었다. 황갈색·갈색·암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졌으며 'U'자형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입자가 굵고 거친편이며 경도는 매우 무르다. 유수와 침수에 의해 형성된 파상의 물띠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35. 시대미상 유구배치도(1:300)

<제토 중 수습유물>

225. 경질무문토기옹 (도면 137-225, 도판 67-225)

외반구연옹과 내만구연옹의 형태적 특징이 모두 혼재하며 부분적인 소량의 결실이 있으나 거의 완형에 준한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고 태토에는 석립(6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내·외의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동체부는 세장하며 측면이 완만한 호형으로서 중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경부는 극히 짧으며 전체적인 느낌은 직립에 가까우나 부분적으로는 내만하기도 하고 외반하기도 한다.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도구(목판)로 긁어내려 정면한 흔적이 뚜렷하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내면도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훑어 내린 지두압흔이 분명하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직경 약 9.0cm 정도의 완만하고 둥근 요면이 형성되었으며 그 위로 초분류 압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회갈색(5YR 5/2),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황갈색(10YR 6/2)이다.

높이: 36.7cm, 구경: 20.3cm, 저경: 12.2cm, 두께: 0.65~3.05cm

226. 토기 구연부편(도면 137-226, 도판 67-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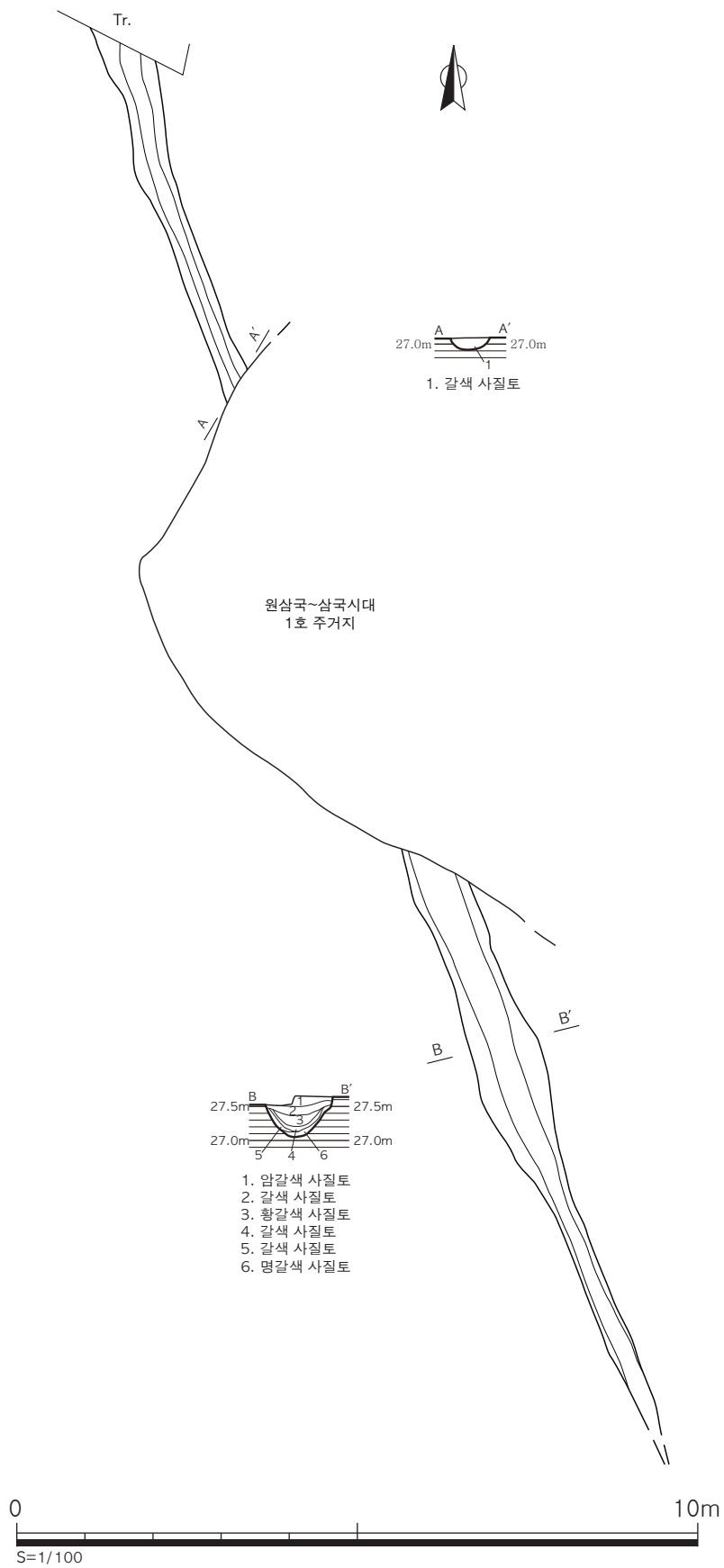
구연에서부터 동체부 중위 이하까지가 약 2/5 정도 잔존하며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上)이고 태토에는 석립(2mm 이하)이 혼입(中上)되었다. 동체부 측면은 아주 완만한 호형으로 잔존부 아래에서부터 비교적 곧게 상향하며 상위에서 완만하게 꺾여 내측으로 기울어진다. 경부는 외반하며 구순은 둥근 형태이다. 구연에서부터 경부까지의 외면은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되었고 동체부는 다소 거칠게 물손질된 가운데 평행선문 박자 타날 압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경질무문토기의 태토에 동체부 외면 타날이 특징적이다. 내면은 잔존부 전면이 비교적 고르게 물손질된 가운데 경부와 동체부 경계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분명하다. 색조는 외면 탁한 갈색(7.5YR 6/3), 내면 탁한 적갈색(5YR 5/3),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잔존높이: 8.0cm, 복원구경: 10.8cm, 두께: 0.4~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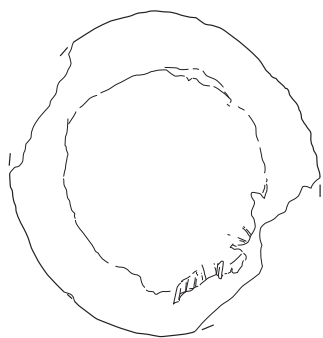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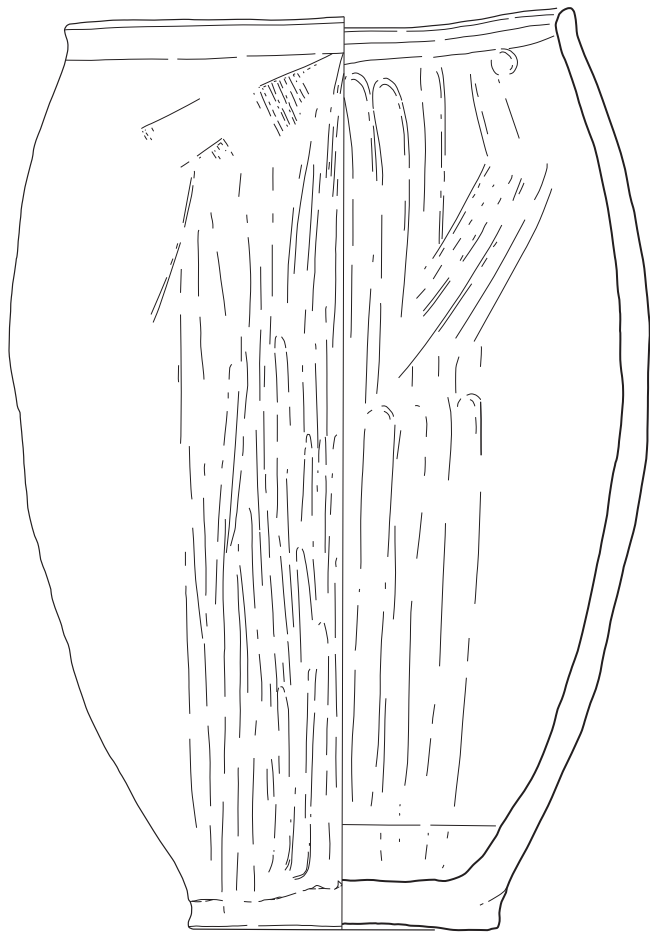
22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도면 137-227, 도판 67-227)

동체부 중하위에서부터 저부까지가 잔존하며 부분적으로 도상 복원하였다. 연질(下)이고 태토에는 석립(5mm 이하)이 혼입(中下)되었다. 저부는 굽 형태로서 외저면은 편평하고 내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부 측면은 사방향으로 곧게 벌어진다. 동체부 내·외면은 물손질되었으며 외면에는 폭이 좁은 도구로 긁어 내린 종방향의 정면흔적이 뚜렷하며 내면에는 직상의 목판 선단부 압흔이 형성되었다. 저부로 이어지는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직상의 횡방향 목판 흔적이 관찰되며 그 아래로는 다수의 지두압흔이 횡방향으로 연속된다. 외저면의 안쪽으로는 압에 의한 극히 완만하고 둥근 양상의 요면이 형성되었다. 색조는 외면 탁한 등색(5YR 6/3), 내면 탁한 등색(2.5YR 6/4), 속심 회갈색(5YR 5/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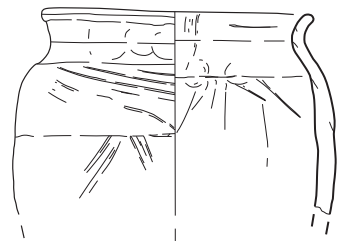
잔존높이: 10.0cm, 저경: 9.7cm, 두께: 0.5~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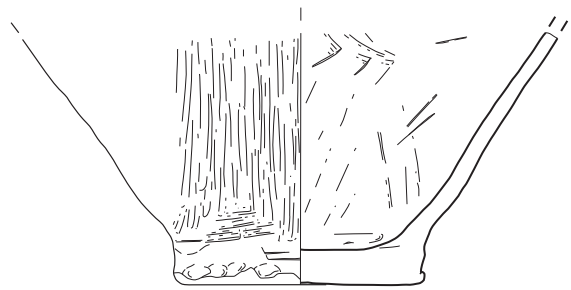
도면 136. 시대미상 1호 구상유구



<225>



<226>



<227>



도면 137. 제토 중 수습 유물

IV. 조사성과

이번 발굴조사 대상지는 안기옥님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은 743m²이다. 조사대상지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양수섬의 남쪽 부분에 해당한다. ‘양수리 유물산포지5’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 약 200m떨어진 곳에 양수리 770-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⁷⁶⁾과 양수리 784-3번지 농업용 창고부지 내 유적⁷⁷⁾이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4동·구상유구 1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18동·구상유구 2기·수혈 21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수혈 8기,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 등 총 6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 유구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14동과 구상유구 1기가 출토되었다. 조사경계에 접하거나 유구 중복 및 교란에 의한 훼손으로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잔존상태로 보아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저장혈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중복이나 교란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청동기시대 주거지 일람표

유구 번호	평면 형태	장축방향	규 모(cm)			내부시설	출토유물
			장축	단축	깊이		
1호	장방형	N-65°-W·	574	346	80	·	토기류 6, 석기류 16
2호	·	·	·	·	·	·	토기류 1
3호	장방형	·	(442)	(420)	49	주혈	토기류 3, 석기류 2
4호	·	·	(372)	(112)	38	주혈	·
5호	·	·	(424)	(285)	19	주혈	토기류 3, 석기류 2
6호	·	·	(460)	(364)	·	주혈	석기류 1,
7호	장방형	·	(646)	(532)	45	저장혈, 주혈	토기류 12, 석기류 15
8호	·	·	(419)	(213)	37	주혈	·

76) 한국문화재재단, 2016a, 앞의 책.

77) 수도문물연구원, 2020, 앞의 책.

9호	장방형	·	(398)	(292)	31	주혈	토기류 1, 석기류4
10호	·	·	(402)	(217)	·	·	석기류 2
11호	·		(322)	(321)	26	주혈	토기류 2, 석기류 3
12호	장방형	N-63°-E·	(806)	(412)	24	주혈	토기류 7, 석기류 6
13호	·	·	(384)	(360)	·	·	·
14호	·		(423)	(285)	·	주혈	석기류 2

2) 원삼국~삼국시대

원삼국~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 18동과 수혈 21기, 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중북유구와 후대에 조성된 조선시대 유구, 근현대 교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凸자형과 방형·장방형으로 구분된다.凸자형 출입시설은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출입구는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 출입구가 위치한 동쪽 단면은 일직선을 이루고 있고 주거지 서쪽 단면은 둔각을 이루고 있어서 주거주는 오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주거부 중앙에서 부석식 노지가 확인되고 교란으로 훼손된 북서쪽 부분에서는 부뚜막 혹은 구들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된다. 내부시설은 저장혈과 주혈, 출입구 문지방석이 확인된다. 방형·장방형 주거지는 3호·4호·6호·10호·11호·12호·15호·16호 주거지가 확인된다. 4호·12호 주거지를 제외한 주거지는 장축방향이 남-북에 가깝고 내부시설은 ‘ㄱ’자형의 외출구들이 확인되었다. 출입구의 유무에 따라 내부시설과 장축방향이 구분되기 때문에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일람표

유구 번호	평면 형태	장축방향	규 모(cm)					내 부 시 설					
			주거공간			출입시설		취사시설			저장 혈	주혈	점토 다짐
			장축	단축	깊이	길이	너비	구들	부뚜막	노지			
1호	凸	N-44°-W	(1,512)	(940)	120	·	136	·	·				
2호	·	·	(288)	(168)	26	·	·		·	·	·	·	
3호	방형	N-8°-E	374	298	42	·	·		·	·	·	·	
4호	장방형	N-82°-E	(752)	(442)	17	·	·	·		·	·	·	
5호	·	·	60	·	·	·	·	·	·	·	·	·	·
6호	장방형	N-7°-E	(464)	(276)	48	·	·	·	·		·		
7호	방형	N-7°-E	(206)	(74)	20	·	·	·	·	·	·	·	·
8호	·	·	(368)	(144)	·	·	·	·	·		·		
9호	방형	N-28°-E	(376)	(216)	86	·	·	·	·	·	·	·	·

10호	장방형	N-26°-E	(480)	(356)	20
11호	장방형	N-28°-E	(774)	(465)	56
12호	장방형	N-42°-W	410	(200)	103
13호	.	.	53
14호	.	.	(120)	(116)	85
15호	장방형	N-28°-E	486	(326)
16호	장방형	N-17°-E	(341)	(296)	22
17호
18호	.	.	(720)	(276)

2. 유물⁷⁸⁾

1) 청동기시대

유물은 공열문토기·적색마연토기·무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석검·석부·석창·반달돌칼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공열문토기는 1호~5호·7호·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공열문은 완전투공과 반투공이 모두 확인되는데 반투공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투공의 방법은 안→밖, 밖→안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확인되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고 구연 직하부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부분적으로 목판으로 굽은 흔적 혹은 초본이나 가죽으로 추정되는 물손질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공열문토기(유물번호74)는 저부 중앙이 결실되었는데 기면의 소성 이후 의도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색마연토기는 1호·5호·7호·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기형은 호나 완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얇은 편으로 내면은 고르게 물손질되었고 외면은 마연 후 적색의 안료가 도포되었다. 무문토기는 1호·3호·7호·9호·11호·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심발형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체부 외면에는 가죽이나 형겔 등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확인되고 도구(목판)으로 조정된 목리 흔적이 잘 남아있다. 부분적으로 점토 접합흔이 확인되며 점토띠 단위는 대략 5.0cm 정도로 넓은 편이다. 저부 외면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과 박자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고 내면에는 목판으로 도구(목판)으로 굽어내린 흔적이 확인된다.

78) 출토유물 일람표는 유물이 출토된 유구만 기재하였다.
출토유물 수량은 수습유물 모두(잔편 포함)를 포함한 수량이다.

【표 6】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람표

유구 번호	토기류				석기류									
	공열문 토기	구순각목 문토기	적색마연 토기	무문 토기	석촉	석검 병부	석부	석창	반달 돌칼	방추 차	찍개	격지	석재	대석
1호	2	·	1	3	2	·	3 5(미완성)	·	·	1	·	·	5	·
2호	1	·	·	·	·	·	·	·	·	·	·	·	·	·
3호	·	·	·	3	·	·	1 1(미완성)	·	·	·	·	·	·	·
5호	1	1	1	·	·	·	·	1(미완성)	1	·	·	·	·	·
6호	·	·	·	·	1	·	·	·	·	·	·	·	·	·
7호	3	·	3	6	·	1	4	·	1	1	1	1	4	2
9호	·	·	·	1	1	1	1(미완성)	·	·	·	·	·	1	·
10호	·	·	·	·	·	·	1	·	·	·	·	·	1	·
11호	·	·	·	2	·	·	·	·	·	·	·	·	3	·
12호	1	·	2	4	3	·	·	·	·	·	·	·	3	·
14호	·	·	·	·	1	·	1(미완성)	·	·	·	·	·	·	·

【표 7】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출토유물 일람표

유구 번호	토기류			석기류										
	공열문 토기	적색마연 토기	무문 토기	석촉	석검 병부	석부	석창	반달 돌칼	방추 차	찍개	격지	석재	대석	
1호	1	·	1	·	·	·	·	·	·	·	·	·	·	

2) 원삼국~삼국시대

원삼국~삼국시대 유구에서 유물은 모두 124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토기는 118점으로 약 9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석기 6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제작기법에 따라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연질토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출토된 유물 중 경질무문토기가 주를 이룬다.

(1) 경질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의 기종은 외반구연옹·내만구연옹·호·발·뚜껑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외반구연옹은 경질무문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원삼국~삼국시대 유구에서 출토되는 경질무문토기 중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잔편으로 출토되었다. 기형이 온전히 확인되는 토기는 1호·2호·6호·10호·15호 주거지와 4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동최대경은 대부분 중상위에 있으며 견부가 발달해서 돌출한 경우(유물번호95)도 있다. 구연부에서부터 경부까지 회전물손질되었으며 경부와 동체부 경계 외면에는 끈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댄 횡방향의 압흔이 다수 형성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목판으로 굽어내린 종방향·사방향 정면흔이 형성되었고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확인된다. 저부 외면에도 초본류로 추정되는 압흔이 확인된다.

(2) 타날문토기

타날문토기의 기종은 호와 장란형토기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잔편으로 출토되었다. 기형이 온전히 확인되는 토기는 1호 주거지에서 호가 1점(유물번호113) 출토되었고 6호 주거지에서 장란형 토기가 1점(유물번호148) 출토되었다.

호는 소형의 직구단경호와 유사한 형태로 경부 길이가 동체부에 비해서 긴 편이다. 동체부 측면은 둥근 형태로 상단부가 눌러서 약간 편형(扁形)을 이루고 저부 형태는 원저지만 접지면이 눌러서 다소 편평하다.

장란형토기는 저부 형태가 원저이고 동체부는 긴 난형이며 경부는 비교적 곧게 직립하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경부와의 경계에서 외반하고 구순에는 요철면이 형성되었다.

(3) 연질토기

연질토기는 합과 소호, 뚜껑이 출토되었다. 합은 9호 주거지에서 1점(유물번호149) 출토되었다. 기고에 비해서 구경이 넓으며 구경부는 짧게 직립하고 동체부 상위에는 둥근 형태의 견부가 발달했다. 저부 형태는 평저로서 내·외 저면이 모두 편평하다. 저부는 사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접지면에는 초본류, 목판 등으로 추정되는 압흔이 형성되었다.

소호는 1호 구상유구에서 1점(유물번호193) 출토되었다. 저부 형태는 평저 혹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동체부 측면은 둥글며 중상위가 최대경을 이룬다. 동체부는 중상위에서 완만하게 꺾여 견부를 형성하고 경부를 향해 사방향으로 다소 길게 이어진다. 경부와 동체부 경계에는 외직경 0.7cm 정도의 투공 1개가 있으며 구멍은 예새와 같은 투창 도구를 외면에서 내면을 향해 찢러 넣은 후 다시 외면으로 뽑아내어 만들었다. 저부는 사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뚜껑은 1호 수혈에서 2점(유물번호196, 197), 3호 수혈에서 1점(유물번호202)이 출토되었다. 1호 수혈에서 출토된 뚜껑은 꼭지가 없고 신부에서 드림부로는 약 10° 정도로 꺾인다. 성형은 도치 상태에서 신부가 하면을 이룬 가운데 동체부를 쌓아 올렸으며 신부 외면을 사절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출토유물 일람표

유구 번호	토기류											석기류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파수	소호	합	지석	석부	석재
	옹	발	호	뚜껑	토기편	호	장단형토기	토기편						
1호	4	1	1	·	16	8	·	4	·	·	·	·	1(미완성)	1
2호	2	·	·	·	3	1	·	·	·	·	·	·	·	·
3호	·	·	·	·	3	1	·	·	·	·	·	·	·	·
4호	·	·	·	·	5	2	·	·	·	·	·	·	·	·
6호	2	·	·	·	2	·	1	·	·	·	·	·	·	·
9호	·	·	·	·	·	1	·	·	·	·	1	·	1(미완성)	·
10호	1	·	·	·	5	1	·	·	·	·	·	·	·	·
11호	·	·	·	·	3	2	·	·	·	·	·	·	·	·
12호	·	·	·	·	4	1	·	1	1	·	·	1	·	1
15호	2	·	·	·	9	·	·	·	·	·	·	·	·	·
16호	·	·	·	·	2	·	·	·	·	·	·	·	·	·
18호	·	·	·	1	2	2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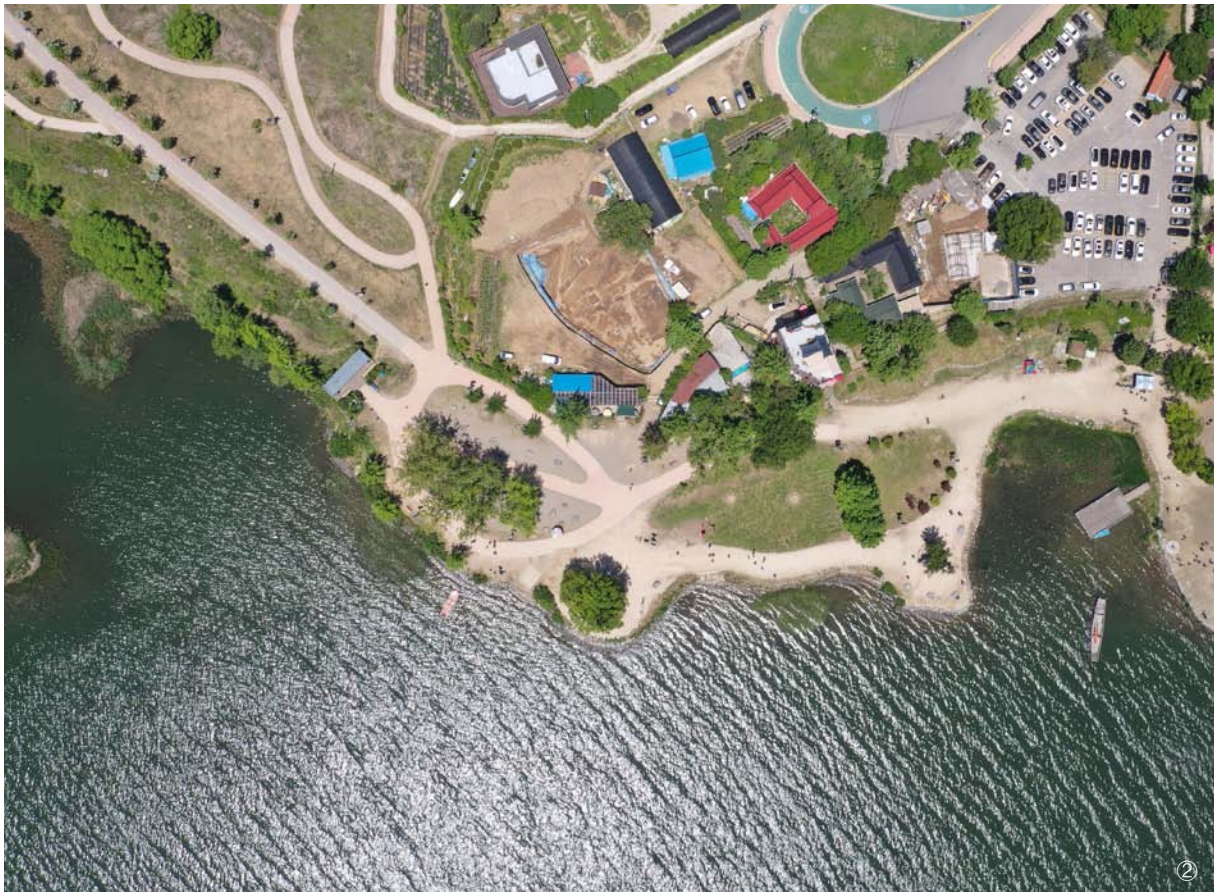
【표 9】 원삼국~삼국시대 구상유구 출토유물 일람표

유구 번호	토기류								석기류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파수	소호	합	지석	석부	석재
	옹	발	호	뚜껑	토기편	호	토기편							
1호	·	·	·	·	2	1	·	·	1	·	·	·	·	·
2호	·	·	·	·	·	1	·	·	·	·	·	·	·	·

【표 10】 원삼국~삼국시대 수혈 출토유물 일람표

유구 번호	토기류											석기류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심발형 토기	뚜껑	소호	합	지석	석부	석재
	옹	발	호	뚜껑	토기편	호	토기편							
1호	·	·	·	·	·	·	·	·	2	·	·	·	·	·
2호	·	·	·	·	2	·	1	·	·	·	·	·	·	·
3호	·	·	·	·	2	1	·	1	1	·	·	·	·	·
4호	2	·	·	·	·	·	·	·	·	·	·	·	·	·
6호	·	·	·	·	1	1	1	·	·	·	·	·	·	·
7호	·	·	·	·	·	1	·	1	·	·	·	·	·	·
8호	·	·	·	·	·	1	·	·	·	·	·	·	·	·
15호	·	·	·	·	·	·	·	·	·	·	·	·	·	1

도 판



도판 1 조사지역 원경(①,②)



도판 2 조사지역 항공사진(①표본조사, ②조사전)



도판 3 조사지역 항공사진2(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4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①조사중, ②동서토층, ③~④유물출토상태)



도판 5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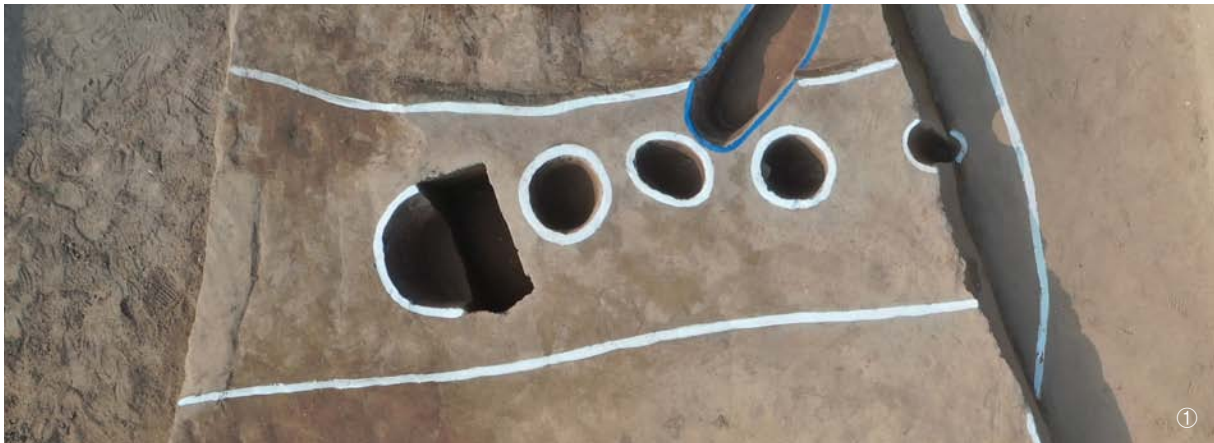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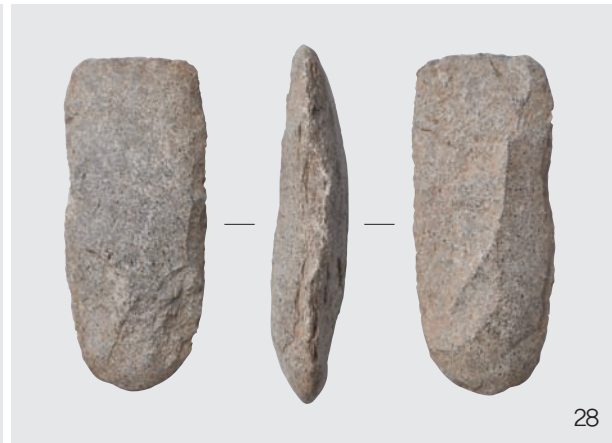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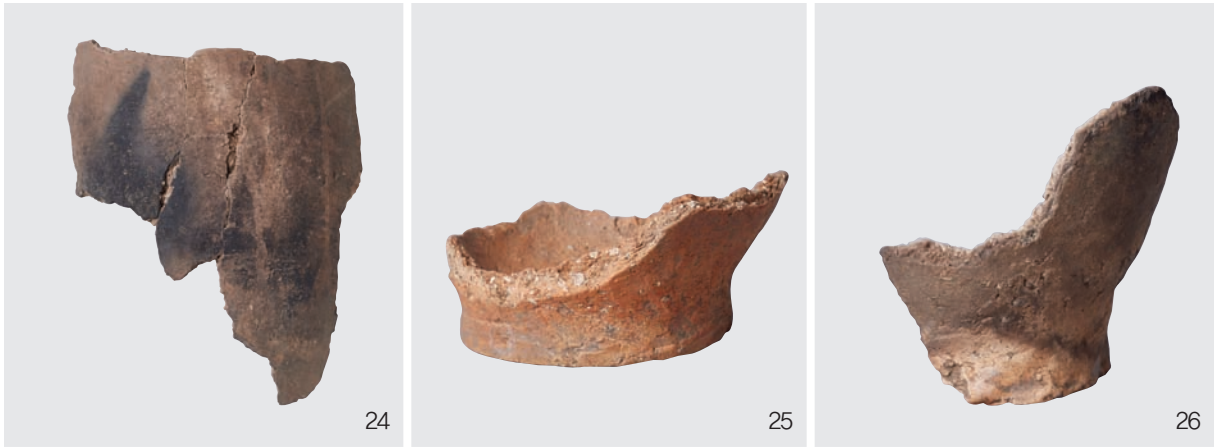
도판 6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도판 7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도판 8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①조사후, 23출토유물), 3호 주거지(②조사중, ③조사후, ④경계면토층, ⑤~⑥유물출토상태)



도판 9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24~28), 4호 주거지(①조사후, ②~③주혈)



①



②



29



31



③



30



33



32

도판 10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①조사중, ②남북토층, ③주혈, 29~33출토유물)



도판 11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①조사후, ②~⑤주혈, 34출토유물), 7호 주거지(⑥조사중, ⑦남북토층)



도판 12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①조사후, ②~③저장혈, 출토유물(35~37))



도판 13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도판 14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도판 15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4



54



55



56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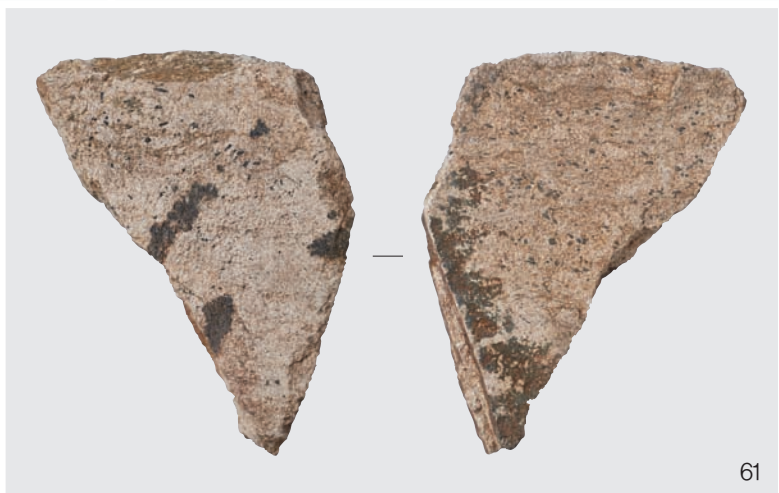
58



59



60



61

도판 16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5



도판 17 청동기시대 8호 주거지(①조사후, ②동서토층), 9호 주거지(③조사전)



62



63



64



65



66

도판 18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①조사후, 62~66출토유물)



도판 19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①조사후, 67~68출토유물), 11호 주거지(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남북토층)



①



71



69



70



72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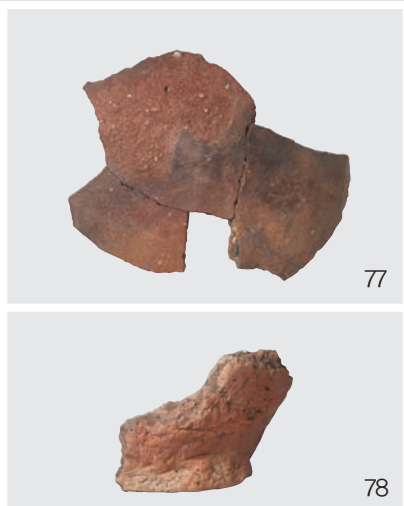
도판 20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①유물출토상태, 69~73출토유물)



도판 2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



도판 22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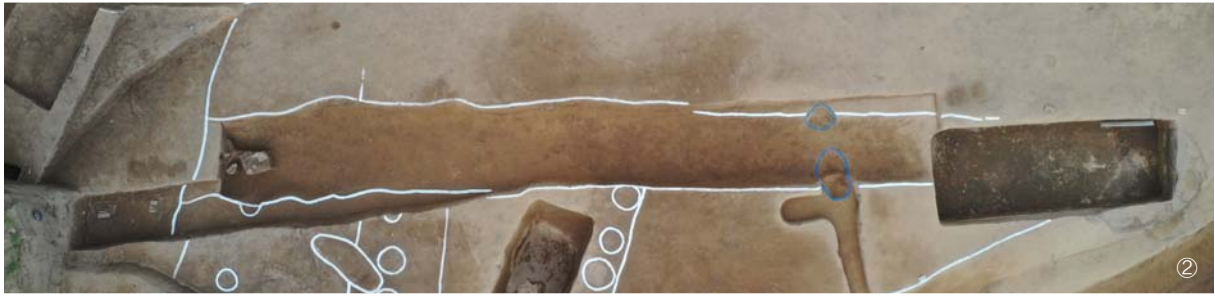
도판 23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①남북토층, ②~④주혈, ⑤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75~79)



도판 24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도판 25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85~86출토유물), 13호 주거지(①조사후), 14호 주거지(②조사전, ③조사후, 87~88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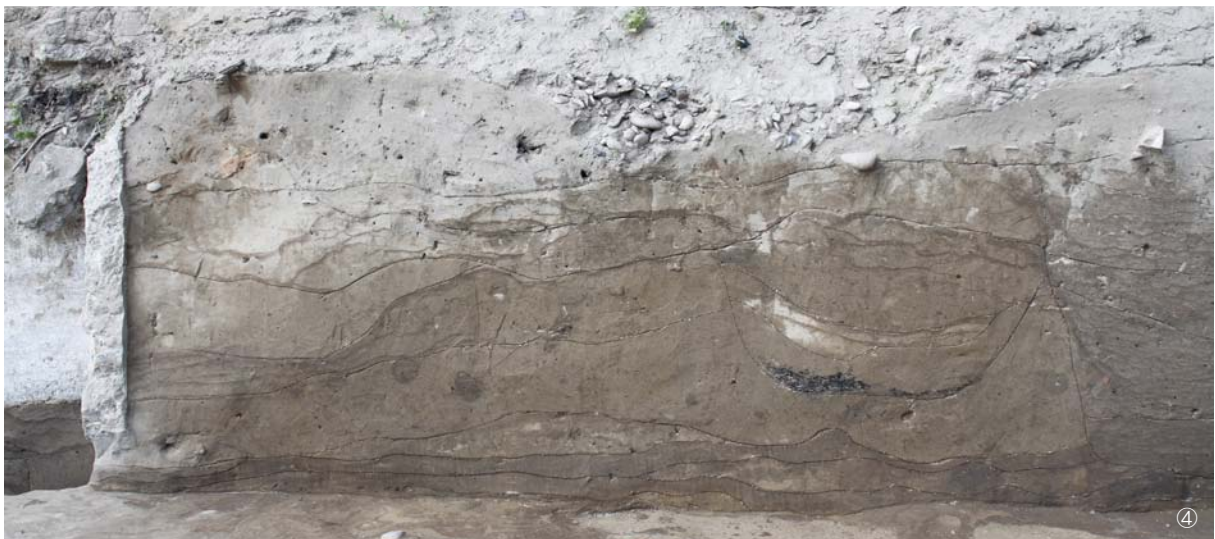
도판 26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유물출토상태, 89~90출토유물)



도판 27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1)



도판 28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도판 29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출입구토층, ②서쪽토층, ③남쪽토층, ④북쪽 경계면토층)



도판 30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북서쪽 세부, ②~③상면점토 세부, ④정지층 토층, ⑤노지, ⑥노지2)



도판 31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노지토층, ②~④저장혈1, ⑤저장혈2, ⑥~⑪주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도판 32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①출입구 문지방석, ②~⑧유물출토상태)



도판 33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도판 34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도판 35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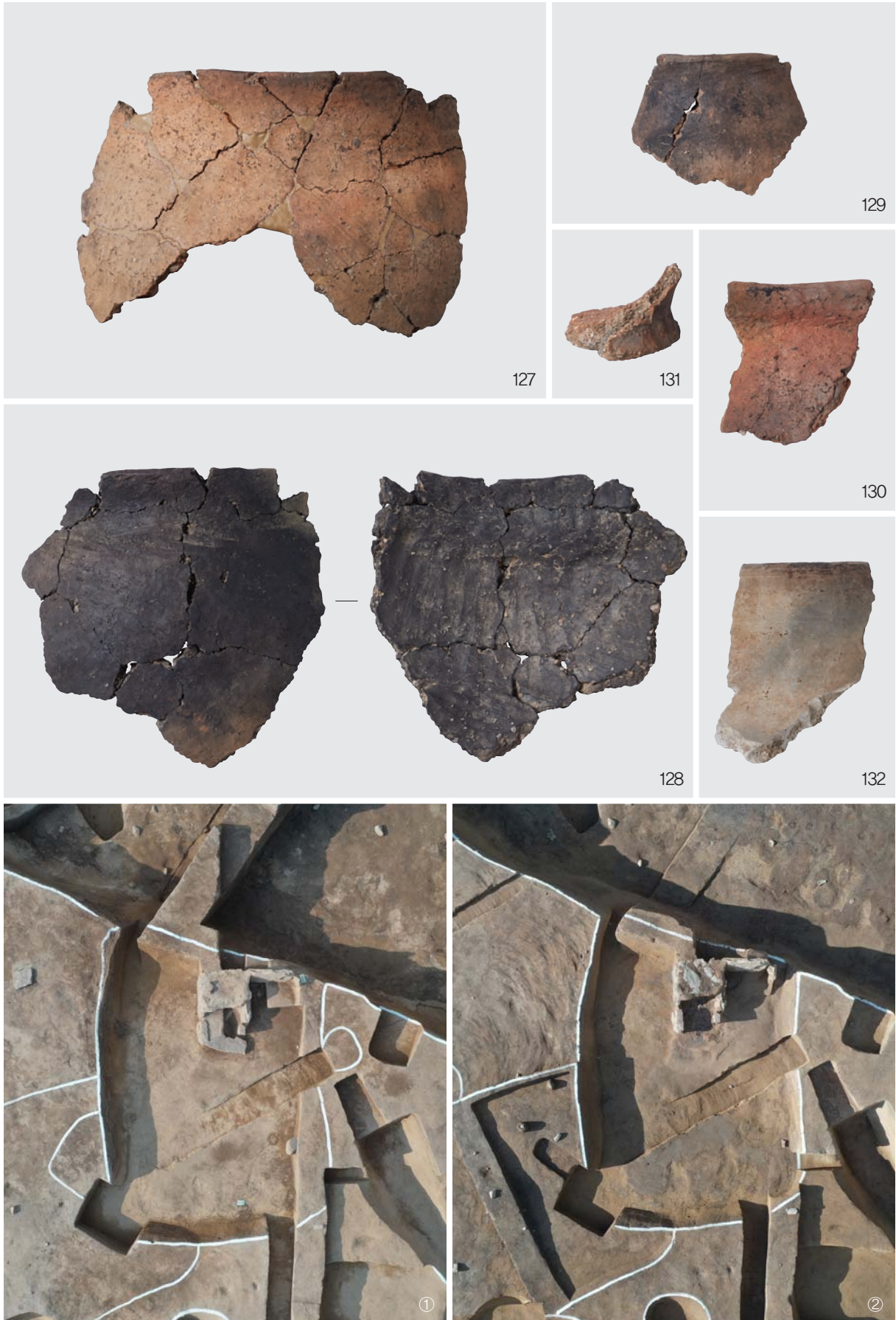
도판 36 원삼국~삼국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도판 37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①동서토층, ②~④아궁이세부, ⑤조사전, ⑥조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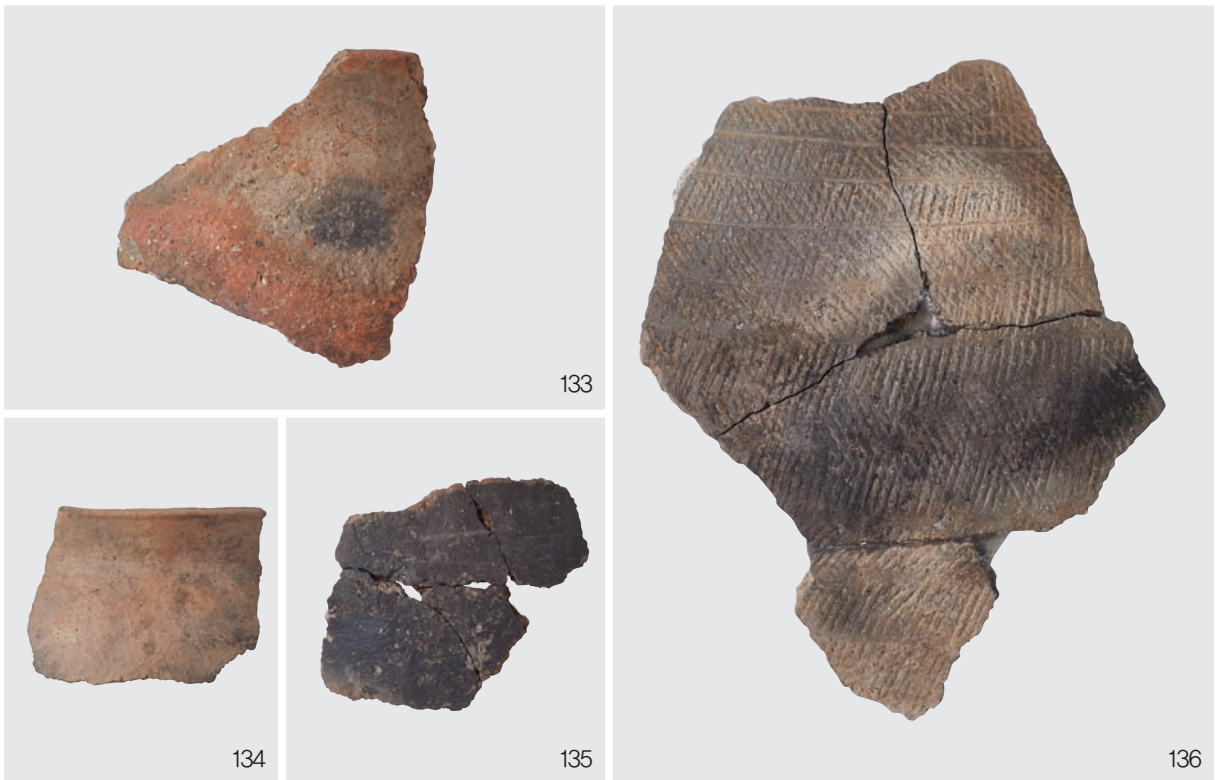
도판 38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후, ③~⑦구들세부)



도판 39 원삼국~삼국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127~132), 3호 주거지(①조사중1, ②조사중2)



도판 40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①조사중3, ②남북토층, ③토층세부, ④1호 주거지 중북토층, ⑤유물출토상태)



도판 41 원삼국~삼국시대 3호 주거지(①~②외줄구들, ③아궁이세부, ④아궁이토층, ⑤벽석세부, 133~136출토유물)



도판 42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⑤부뚜막)



도판 43 원삼국~삼국시대 4호 주거지(①동서토층, ②아궁이 소결흔, ③~⑦주혈, 출토유물 137~143)



도판 44 원삼국~삼국시대 5호 주거지(①노지), 6호 주거지(②유물출토상태, ③주혈, ④조사중, ⑤조사후)



145



144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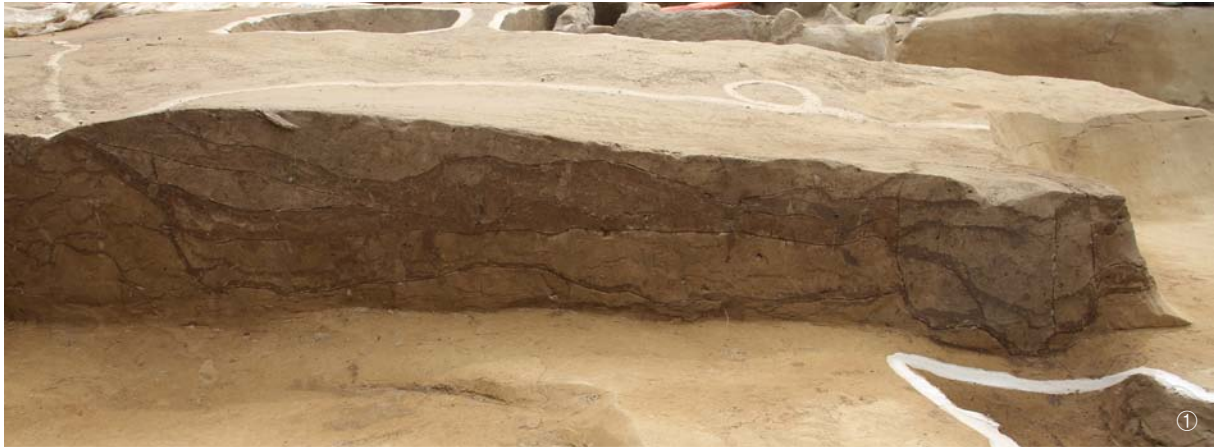


147



148

도판 45 원삼국~삼국시대 6호 주거지(①남북토층, 144~148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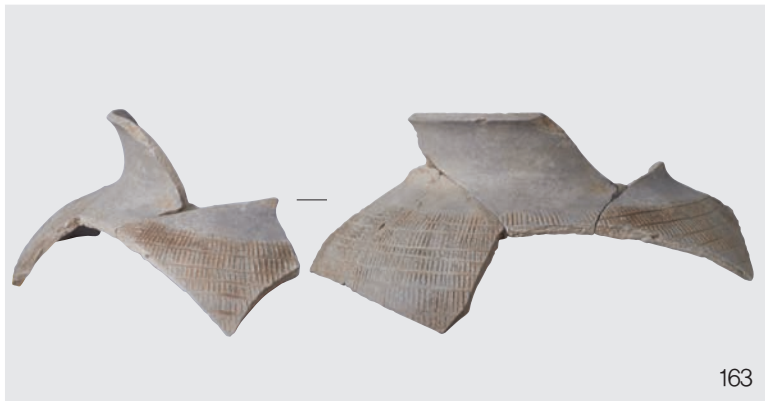
도판 46 원삼국~삼국시대 7호 주거지(①남북토층, ②조사후), 8호 주거지(③~④주혈, ⑤조사후)



도판 47 원삼국~삼국시대 9호 주거지(①조사후, ②남북토층, 149~151출토유물)



도판 48 원삼국~삼국시대 10호 주거지(①남북토층, ②조사중, ③외줄구들, 152~158출토유물)



도판 49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주거지(①동서토층, ②조사중, ③조사후, ④노지, 159~163출토유물)



도판 50 원삼국~삼국시대 12호 주거지(①조사중, ②동서토층, 164~172출토유물)



도판 51 원삼국~삼국시대 13호 주거지(①~②노지), 14호 주거지(③조사후, ④토층), 15호 주거지(⑤조사중)



도판 52 원삼국~삼국시대 15호 주거지 출토유물



도판 53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주거지(①조사후, ②동서토층, 184~185출토유물) 17호 주거지(③조사후, ④소결흔, ⑤세부), 18호주거지(⑥노지, ⑦조사중, 186~190출토유물)



도판 54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①조사후, ②동서토층, ③~④토층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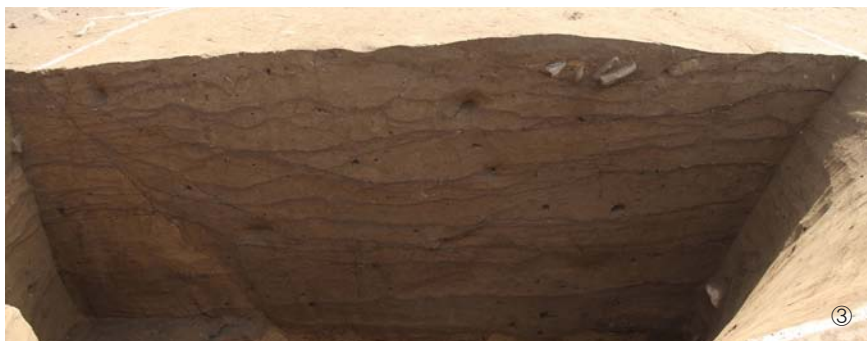
도판 55 원삼국~삼국시대 1호 구상유구(191~194출토유물), 2호 구상유구(①동서토층, ②조사중, 195출토유물),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③조사중, ④남북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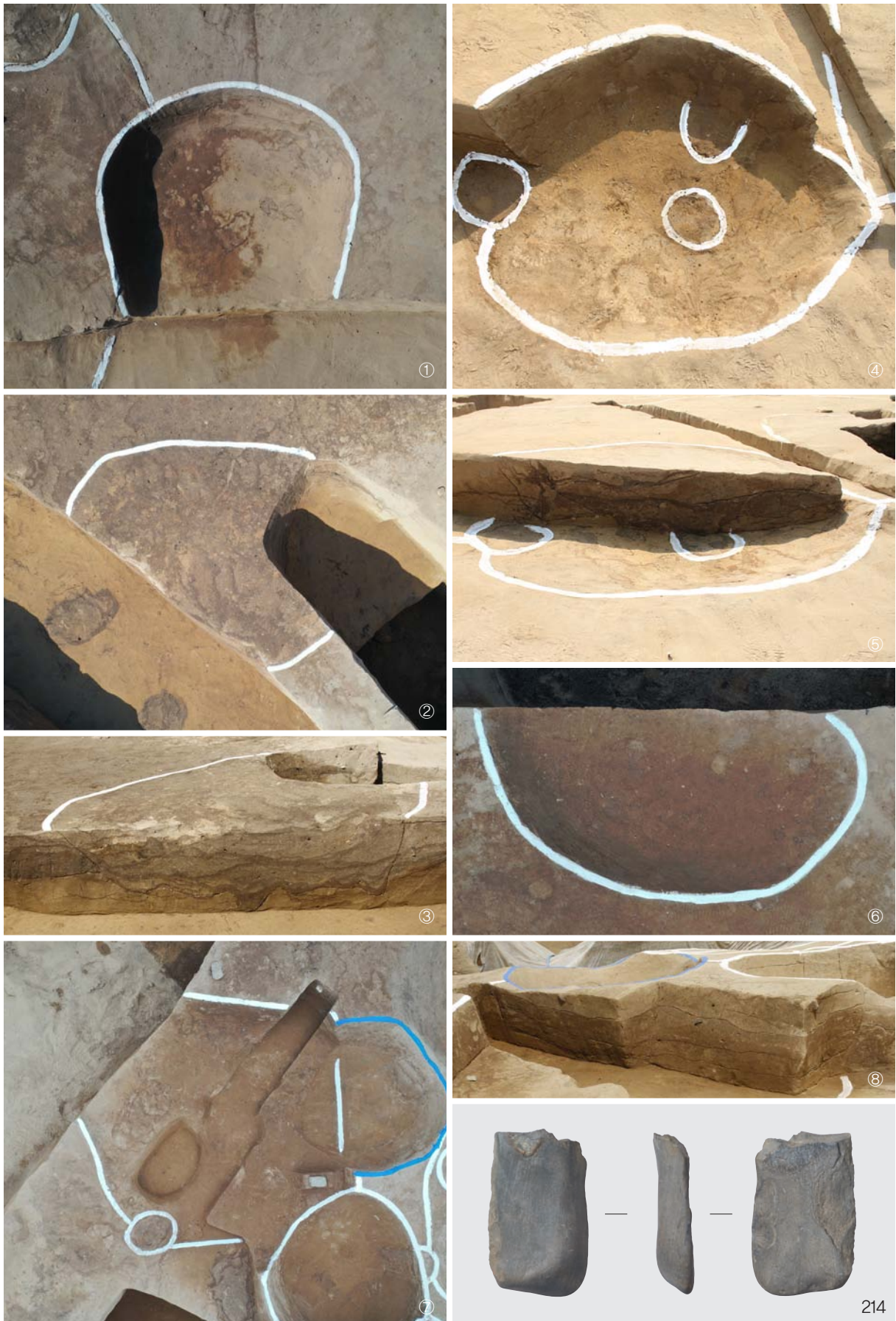
도판 56 원삼국~삼국시대 1호 수혈(196~197출토유물), 2호 수혈(①조사중, ②경계면토층, 198~200출토유물), 3호 수혈 (③조사중, ④남북토층, 201~205출토유물)



도판 57 원삼국~삼국시대 4호 수혈(①조사중, ②동서토층, 206~207출토유물), 5호 수혈(③조사후), 6호 수혈(④조사후, ⑤동서토층, 208~210출토유물)



도판 58 원삼국~삼국시대 7호 수혈(①조사후, 211~212출토유물), 8호 수혈(②조사후, ③남북토층, 213출토유물), 9호 수혈(④조사중, ⑤동서토층), 10호 수혈(⑥조사후, ⑦남북토층)



도판 59 원삼국~삼국시대 11호 수혈(①조사후), 12호 수혈(②조사전, ③남북토층), 13호 수혈(④조사후, ⑤남북토층), 14호 수혈(⑥조사후), 15호 수혈(⑦조사후, ⑧남북토층, 214출토유물)



도판 60 원삼국~삼국시대 16호 수혈(①조사후, ②남북토층), 17호 수혈(③조사후, ④동서토층), 18호 수혈(⑤조사후, ⑥동서토층), 19호 수혈(⑦조사후, ⑧남북토층), 20호 수혈(⑨조사후), 21호 수혈(⑩조사후)



도판 61 조선시대 1호 건물지(①조사전, ②~⑧적심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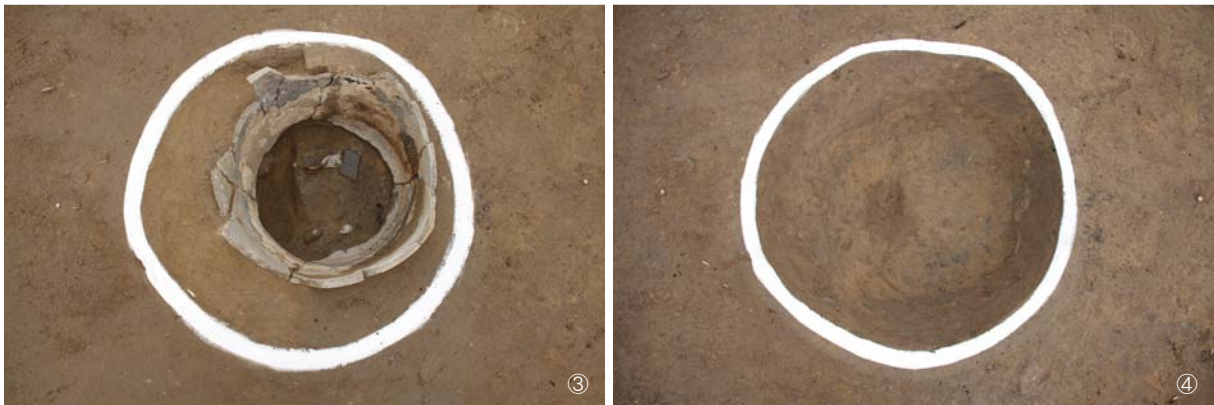
도판 62 조선시대 1호 건물지(215출토유물), 조선시대 1호 수혈(①조사후, ②남북토층), 2호 수혈(③조사전, ④조사후), 3호 수혈(⑤조사후, ⑥남북토층), 4호 수혈(⑦조사전, ⑧조사후, 216출토유물)



도판 63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1



도판 64 조선시대 4호 수혈 출토유물2(219), 5호 수혈(①조사후, ②남북토층), 6호 수혈(③조사전, ④조사후), 7호 수혈 (⑤조사전, ⑥세부, ⑦조사후)



도판 65 조선시대 7호 수혈 출토유물(220~223), 8호 수혈(①조사전, ②~③조사중, ④조사후)



도판 66 조선시대 8호 수혈 출토유물



225



226



227

도판 67 시대미상 1호 구상유구(①조사후, ②동서토층), 제토 중 수습 유물(225~227)



도판 68 학술자문회의(①~⑥), 유물선별회의(⑦), 고고지자기 시료채취(⑧)

부록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동양대학교 성형미

원리

자석이 될 수 있는 성질을 磁性이라고 하며, 자성을 가진 물질을 磁性體라고 한다. 그 물질이 결정 구조를 가진 광물인 경우에는 磁性鑛物이라고 한다. 흙에 포함된 자성광물의 대부분은 磁鐵鑛(magnetite, Fe_3O_4)이나, 赤鐵鑛(hematite, Fe_2O_3)등의 철산화물이다. 모든 자성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성체가 고온까지 가열되어 각 종류의 자성체가 가지는 고유의 온도에 도달하면, 磁性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온도를 퀴리점이라고 한다. 이 반응은 可逆的으로, 퀴리점 이상의 자성이 없는 고온의 상태에서 냉각되어 거듭 퀴리점의 온도로 된 순간, 다시 자성을 되찾는다. 자철광의 퀴리점은 578, 적철광은 675이다. 그때 외부자장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성체는 그 자장의 방향으로 磁化한다. 요지나 주거지 노지의 소토는 흙이 굽혀져 고온에서 가열되면 그 흙에 포함된 자성광물은 일단 자성을 잃어버린 후 지구자장 안에서 냉각되기 때문에, 자성을 되찾았을 때에는 그 당시의 지구자장 방향의 磁化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자화를 熱殘留磁化(thermoremanent magnetization, TRM)라고 한다. 열잔류자화는 常溫에서는 자기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시기에 구워진 소토는 그 당시 그 장소의 지자기 방향이나 강도를 열잔류자화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된다.

소토를 가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들의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에 의해 과거 지자기의 변동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구로부터 시료를 얻어 고고학이 취급하는 시대의 지자기를 밝히는 연구를 考古地磁氣學(archeomagnetism)이라고 한다.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타임 스케일로 느릿하게 변화하는 지자기의 변동을 地磁氣 永年變化(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하며,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그 변동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서남일본 각지의 유적에서 정력적으로 고고지자기학적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서력기원(彌生時代中期中頃)이후 지자기의 상세한 변동 모습이 명확하게 밝혀져 과거 2000년간에 걸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구해져 있다(Hirooka 1971; 廣岡 1977). 따라서 서력기원 이후의 시대에 대해 서남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소성연대를 알 수 없는 소토의 殘留磁化 方向을 측정하여 이 영년변화곡선과 照合하는 것에 의해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연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은 考古地磁氣 年代推定法이라 불리고 있다. 고고지자기 연대추정법은 소토를 가지는 유구에 대한 有力한 연대측정법으로 정착되었으며 수많은 유적에 대해 연대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자장의 방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고지자기변동곡선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을 어쩔 수 없이 準用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성형미 2005)에서 볼 때, 일부의 시대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적으로 서남일본의 지자기 변동과 거의 같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료의 채취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에서는 주거지 4기에 대해 고고지자기 시료를 채취하였다. 유구의 소성상태가 좋은 부분을 골라서 총 4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시료번호는 표1에 나타난 것과 같다. 고고지자기 시료는 유구의 소성상태가 좋은 부분을 골라 약18mm×18mm×25mm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 후 24mm×24mm×24mm크기의 立方形 플라스틱 케이스에 물로 갠 석고를 채워서 기둥모양 소토에 뒤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채취하였다. 이 때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토의 뿌리 부분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큐브 背面의 최대 경사선의 방위(pitch)와 그 경사각(dip)을 측정하여 시료의 방위로 한다. 큐브의 背面에는 그 면의 走向(strike)을 나타내는 선과 시료의 번호를 적은 후 유구로부터 시료를 떼내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시료의 방위측정에는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으로 개조된 특제 클리노미터(Hirooka 1971)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pitch의 방위는 클리노미터의 자침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이며, 유적에서 자북이 진북과 이루는 각도(현재의 편각)만큼 어긋난 방위가 된다. 본유적에 대해서는 편각의 보정 값(Dp)으로써 5만분의 1 지형도 「양수」에 기재되어 있는 西偏 7.26 의 값을 이용하였다. 보통 1기의 유구로부터 이와 같은 시료를 10개정도 채취하여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큐브의 開口部도 석고로 막아서 측정용 시료로 한다.

자화측정의 결과

자화측정의 순서는 우선 소토 시료가 保持하고 있는 잔류자화를 측정한다. 이 잔류자화를 自然殘留磁化(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NRM)라고 한다. NRM의 측정결과에서 시료 각각의 자화방위 및 자화강도를 통해 동일유구 내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검토한다. 다음에는 소성 이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2차자화성분을 없애기 위한 交流消磁實驗을 한다. 交流消磁는 消磁磁場을 순차적으로 높여 가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자화강도의 감소 상태와 자화방위의 분산 정도를 조사하여 자화방위가 가장 잘 집중된 단계를 선택한다.

잔류자화의 측정에는 일본 夏原技研製의 ring core type spinner magnetometer를 사용하였다. 또한 交番磁場을 걸어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제거하는 段階交流消磁實驗에는 夏原技研製의 교류소자장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각 소자 단계 중에서 자화 방향의 집중 정도가 가장 좋은 단계의 소자장치를 最適消磁磁場(optimum demagnetizing field, ODF)이라 하며, 최적소자단계의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터로서 채택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18호 주거지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를 구할 수가 없었다. 이 주거지에서 채취한 소토시료의 소성온도가 높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소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으로 안정적인 잔류자화가 남아 있지 않았거나, 최종 소성 이후 교란된 소토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유적의 주거지 3기에 대한 최적소자단계의 측정결과는 표2~4에 정리되어 있다.

고고지자기연대의 추정

평균자화방향과 그 분산정도를 구하는 통계처리에는 Fisher의 통계법(Fisher 1953)을 이용하였다. 각 유구의 최적소자단계, 평균편각(D), 평균복각(I), Fisher의 신뢰각(α_{95}), 평균자화강도는 표5에 정리되어 있다. 앞서서도 설명한 것처럼 지자기방위의 지역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변동은 일본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상세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변동곡선(Hirooka, 1971; 廣岡, 1977)을 準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표5의 최적소자단계의 데이터를 과거 2000년간의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에 plot한 것이 도1이다. 도면에서의 검은 점이 각 유구의 평균자화방향을 표시하며 그것을 둘러싼 원이 Fisher의 신뢰각(α_{95})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원내에 95%의 확률로 진실의 자화방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 주변의 고고지자기 변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도1에서 추정되는 고고지자기 연대는

1호 주거지 : A.D.340 ± 25년

2호 주거지 : A.D.345 ± 225년

3호 주거지 : A.D.395 ± 225년

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시료의 채취와 측정의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유산연구원의 원장님, 이 동훈 선생님을 비롯한 발굴조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표1】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의 고고지자기 시료번호

유구명	개수	시료번호
1호 주거지	10	YY 1~10
2호 주거지	10	YY 11~20
3호 주거지	10	YY 21~30
18호 주거지	10	YY 31~40
Dp = -7.26°(양수, 1/50000)		

【표2】 1호 주거지의 NRM의 자화측정결과

시료번호	편각(°E)	복각(°)	자화강도(×10 ⁻³ Am ²)
YY 1	12.4	55.6	3.07
* 2	27.3	53.6	3.25
3	19.6	53.3	5.55
4	14.5	51.9	9.38
5	12.5	48.2	4.38
6	18.7	54.7	11.0
7	4.4	52.4	2.70
8	12.2	53.6	4.38
9	17.8	51.8	1.45
10	10.0	52.0	2.04

* : 통계계산시 제외된 시료.

【표3】 2호 주거지의 NRM의 자화측정결과

시료번호	편각(°E)	복각(°)	자화강도(×10 ⁻³ Am ²)
*YY 11	11.1	46.5	1.52
12	17.6	51.2	0.942
13	19.1	47.2	2.44
* 14	10.0	40.8	6.24
* 15	17.6	40.2	13.2
16	20.1	46.6	14.0
*17	27.2	55.8	21.8
18	21.4	50.1	7.93
* 19	8.4	54.0	5.01
20	15.0	52.2	4.61

* : 통계계산시 제외된 시료.

【표4】 3호 주거지의 5.0mT소자후의 자화측정결과

시료번호	편각(°E)	복각(°)	자화강도($\times 10^{-3}$ Am ²)
YY 21	9.6	46.2	16.1
22	8.9	48.0	12.3
23	4.8	52.7	2.37
24	3.8	53.4	33.4
25	0.8	49.1	34.6
26	3.3	45.4	6.80
27	-1.0	49.7	3.18
28	12.6	51.5	10.7
29	11.5	46.7	1.52
30	13.2	45.2	1.40

* : 통계계산시 제외된 시료.

【표5】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 주거지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유구	소자단계	n/N	D(°E)	I(°)	α_{95} (°)	K
1호	[NRM	9/10	13.5	52.7	2.3	511.9]
	5.0mT	8/10	13.2	53.4	2.6	450.5
	10.0mT	4/10	16.5	54.1	2.8	1085.9
2호	[NRM	5/10	18.7	49.5	2.8	768.9]
	5.0mT	6/10	17.2	51.3	3.7	330.8
	10.0mT	6/10	18.4	54.3	4.8	197.3
3호	NRM	10/10	7.3	48.1	2.7	312.1
	[5.0mT	10/10	6.8	48.9	2.7	326.1]
	10.0mT	10/10	4.6	51.4	2.9	283.2
18호	NRM	4/10	-15.8	42.7	18.3	26.2
	[5.0mT	4/10	-8.3	46.2	12.0	59.8]
	10.0mT	4/10	-14.5	49.3	9.5	94.4

n/N : 採擇試料個數/採取試料個數, D : 平均偏角, I : 平均伏角, α_{95} : Fisher의 信賴角, K : Fisher의 精度係數. [] :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로 채택한 데이터(최적소자단계).

〈참고문헌〉

Fisher, R. A.(1953)Dispersion on a sphere, Proceedings of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vol.217, 295-305.

Hirooka, K.(1971)Archaeomagnetic study for the past 2,000 years in Southwest Japan, Mem. Fac. Sci., KyotoUniv.,ser.Geol.&Mineral.,38,167-207.

廣岡公夫(1977)考古地磁氣および第四紀古地磁氣研究の最近の動向,「第四紀研究」, vol.15, 200-203.

成亨美, 廣岡公夫(2000)韓國の考古地磁氣變動に關する研究とその考古學的応用,「考古學と自然科學」, 日本文化財科學會誌, 第39号, 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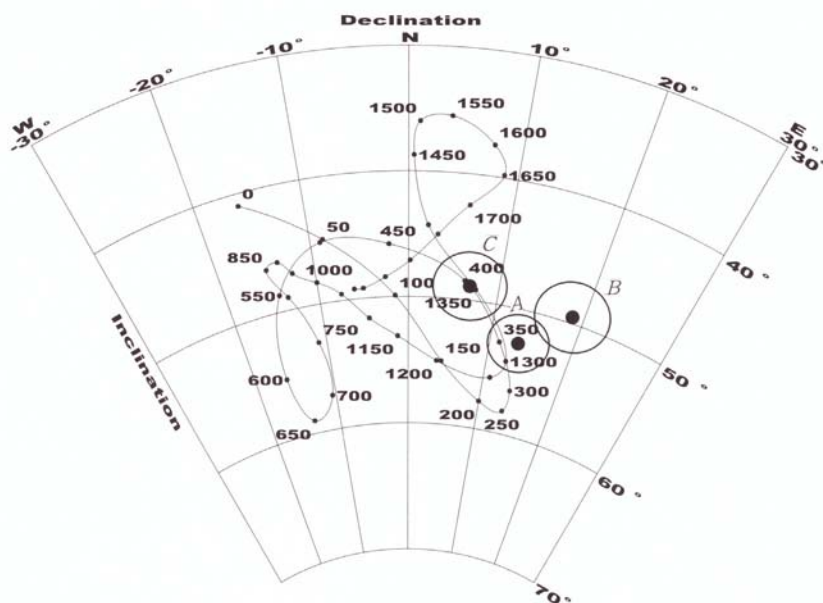
성형미(2002) 한국에 있어서 지자기 영년변화의 측정,「한국제사기학회지」, 한국제사기학회, Vol. 16, No. 2, 33-38.

성형미(2003) 고고학에서 이용 가능한 고고지자기 분석법,「畿甸考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제3호, 223-238.

성형미(2005) 韓國考古學 編年研究를 위한 考古地磁氣學의 基本原理 및 適用,「韓國考古學報」, 韓國考古學會, 55輯, 5-34.

성형미(2006) 과학적 연대측정법의 진전과 과제,「韓國先史考古學報」, 韓國先史考古學會, 12, 205-220.

성형미(2010) 고고지자기 연대측정법의 연대값과 오차범위에 대한 이해,「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1057-1068.



도1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변동곡선과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A:1호 주거지, B:2호 주거지, C:3호 주거지)―

고지형 분석 결과 보고서

-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고지형분석 -

(주)라이즈프럼 디지털고고분석실

목 차

I. 개요	0
II. 분석 방법	0
III. 주요 내용	0
IV. 분석 결과	0

그림 목 차

〈그림 1〉 분석대상 유적의 위치(현재, 다음지도 참조)	0
〈그림 2〉 분석대상지역의 위치〈일제강점기〉	0
〈그림 3〉 분석대상지역의 위치〈1969년〉	0
〈그림 4〉 항공사진의 합성 결과	0
〈그림 5〉 Anaglyph방식의 영상 배열	0
〈그림 6〉 side-by-side방식의 영상 배열	0
〈그림 7〉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내 고지형분석 결과(1969년)	0
〈그림 8〉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내 고지형분석 결과(2018년)	0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유적과 주변에서 관찰되는 고지형	0
-----------------------------------	---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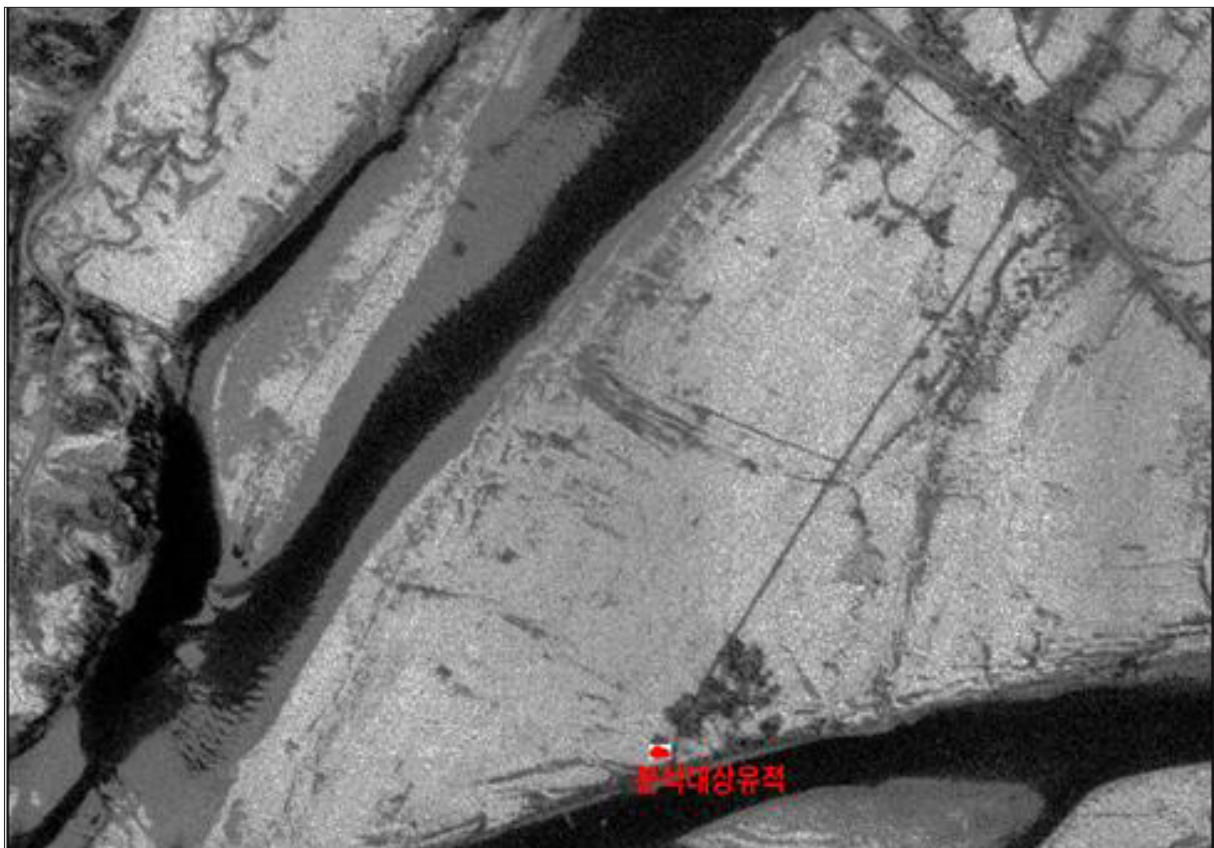
- 용역명 :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고지형분석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708-3번지 일원
- 용역기간 : 2019.06.1. - 2019.07.19.
- 분석대상 : 양평 양수리 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과 주변의 고지형 환경 분석
- 목적 : 양평 양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형과 고지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미지형을 종합하여 유적과 주변의 지형 환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유적의 입지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유적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림 1〉 분석대상 유적의 위치(현재, 다음지도 참조)



<그림 2> 분석대상 유적의 위치(일제강점기)



<그림 3> 분석대상 유적의 위치(1969년도)

II. 분석 방법

분석대상유적의 고지형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지형 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오랜 지형의 항공사진을 취득한다. 현재 취득이 가능한 항공사진은 50년대 미군에 의해 촬영된 항공사진이나, 본 분석대상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사진은 1969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이다(그림 3). 본 지역에서의 항공사진은 총 6매가 존재하나 사진의 해상도는 모두 좋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분석에 앞서 항공사진마다 특징을 파악하여 사진 보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해상도 선명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고지형분석은 거시적 지형분석과 미시적 지형분석으로 진행하였다. 거시적 지형분석은 유적지와 주변의 지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며, 미시적 지형분석은 유적지 내부에서 확인된 지형과 함께 인접한 연결 지형을 파악하는 목적을 갖는다. 분석결과 유적지와 주변은 대부분 나즈막한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모습으로 뚜렷한 큰 지형의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충적대지 내 존재하는 미세지형 일부와 인근의 지형 모습이 관찰되어 유적 입지 환경 파악의 대략을 살펴볼 수 있다.

고지형 분석은 스테레오스코프 안경을 이용한 시각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분석기기는 가상현실기기를 이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항공사진의 보정과 수정, 검증 등의 여러 기술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이를 최종 도면화하였다.

- 분석의 방법과 절차

분석은 상기 전제를 바탕으로 두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나는 항공사진 관찰을 통해 나타나는 지형의 형태에 맞추어 애너그리프의 안경식 방식을 통한 거시적 지형분석이며, 또 다른 방법은 FLAT방식을 적용한 미시적 지형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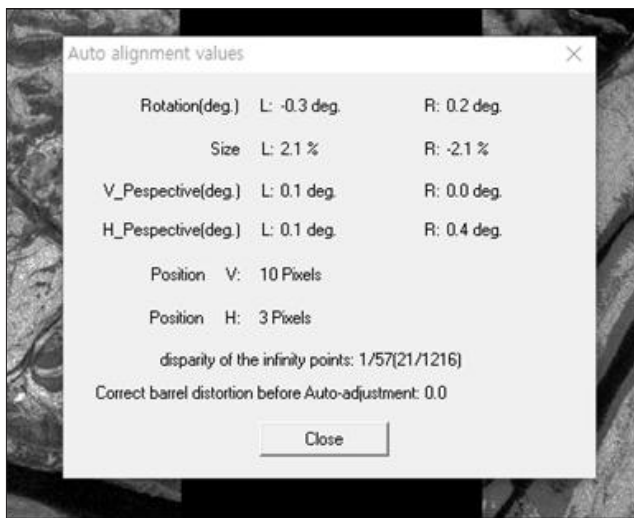
① 항공사진의 3D화를 위한 선행 작업.

- 동일한 시간대에 촬영하고 시점에 차이를 둔 1969년도 항공사진 6장 중 가장 해상도가 높은 2장의 사진을 선택하였다. 항공사진은 분석대상지역을 파악한 후, 사진 자체의 색과 음영 대비를 조정하고 적절한 크기에 맞추어 잘라내었다.
- 이렇게 보정한 항공사진은 색차와 음영, 해상도 품질이 낮아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필터의 선명화 과정 등을 거친 사전 보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 보정된 사진은 모바일 내 이미지로 삽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분석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일정범위를 추출하여 분석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TIFF파일의 용량의 한계로 인해 이를 낮추는 작업도 동시 실시하였다.
- 이렇게 사전 보정된 항공사진 이미지 자료는 3차원 입체 영상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② 분석의 과정<그림 3-5>

1) 거시 지형분석을 위한 항공사진 합성

- 저장된 항공사진을 3D포토 합성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왼쪽과 오른쪽 사진으로 구분한 후, 회전과 크기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그림 4>, 색상을 필터로 삼는 입체화면으로 합성 제작한다1).
- 합성 사진은 3D로 시각화하기 위한 안경식 디스플레이 기술인 패시브 안경식의 색 차이를 이용한 애너글리프(Anaglyph)방식을 적용하였다<그림 5>.
- 본 분석 방법은 유적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지형의 거시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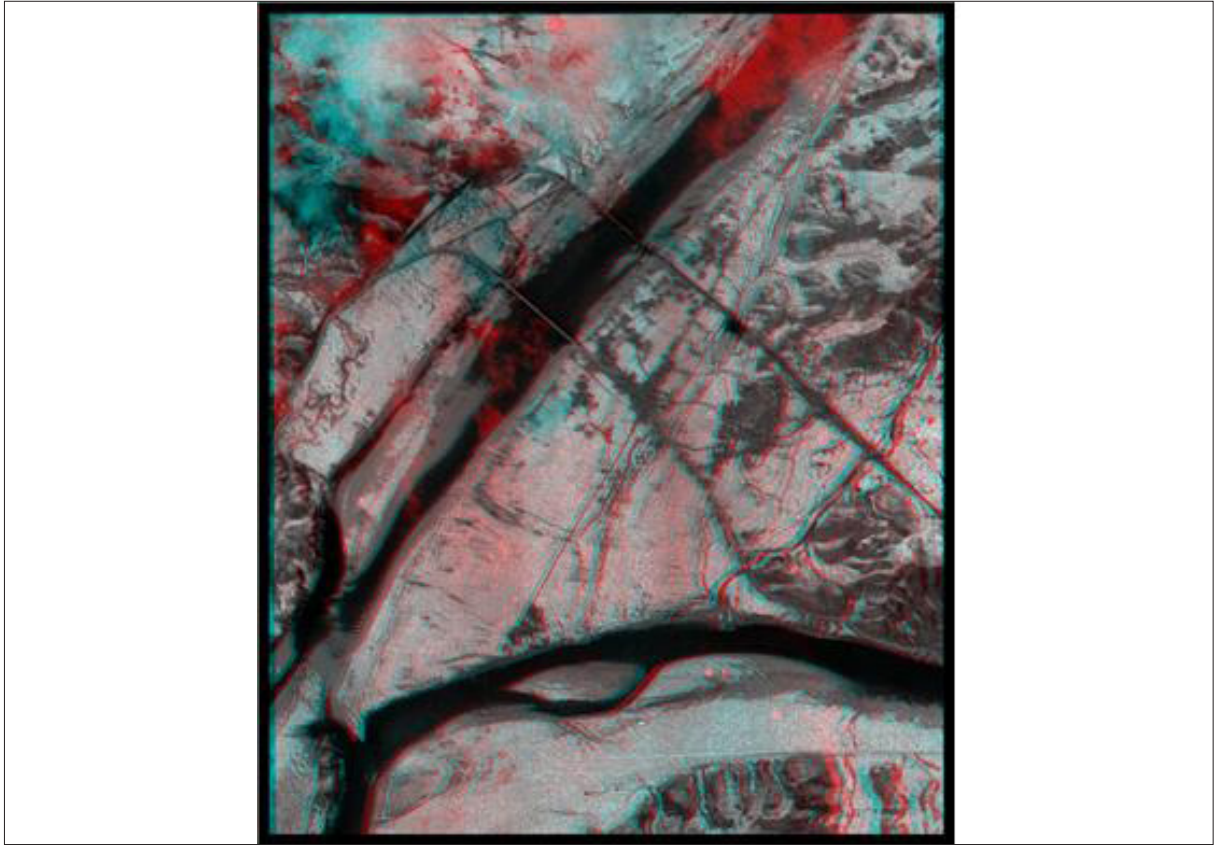
〈그림 3〉 분석대상 유적의 위치(1969년도)

2) 무안경식의 Auto Stereoscopy의 헤드 트래킹 방식의 사용<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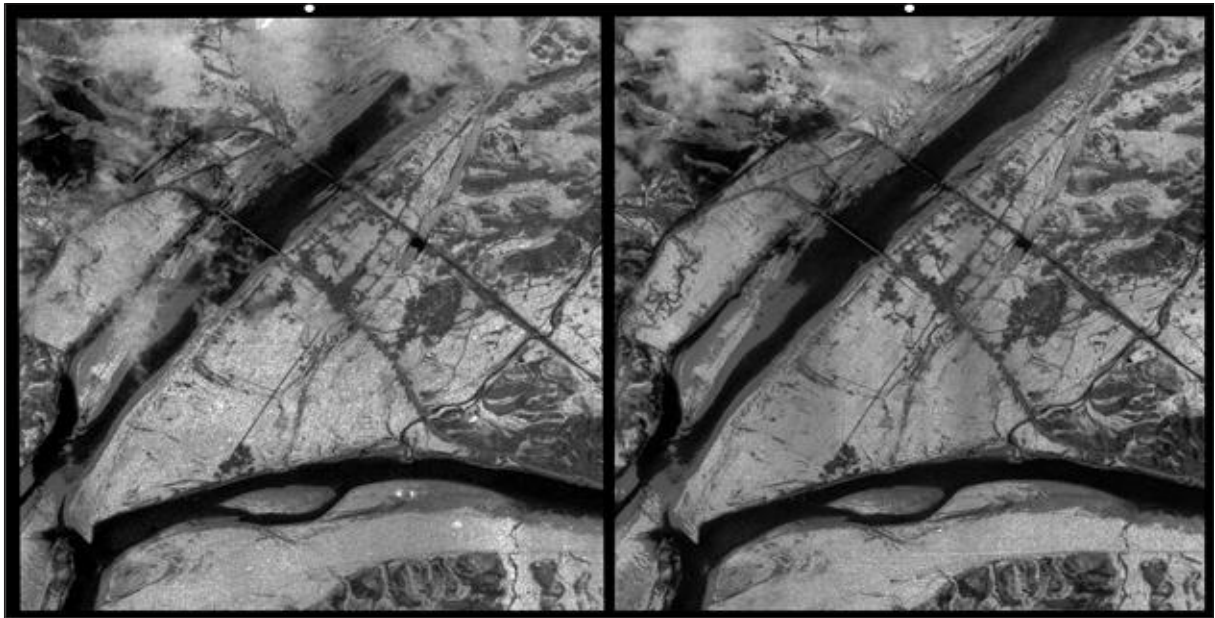
- side-by-side방식2)으로 항공사진을 합성하고 모바일로 Import한 후 3D FLAT의 시각화 방식을 적용한다.
- 3D 형태로 지형 입체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어 거시지형 분석 후 미세지형 분석에 사용하기 유리하다.
- 기기 내 하드웨어 조작(시점의 조절, 양안의 거리차 조절) 등을 통해 선명도 향상과 함께 지형의 고저 차이를 파악하는 등, 해상도의 증대를 위한 여러 다양한 시각화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1) 항공사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촬영되었다. 좌측 사진은 3도, 우측 사진은 약 2도로 회전되었으며, 각각의 항공사진 크기는 약 2%정도의 축소비로 조정되어 3D 입체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 side-by-side방식은 좌안과 우안용 사진과 영상을 나란히 붙여 하나의 프레임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5〉 Anaglyph방식의 영상 배열



〈그림 6〉 side-by-side방식의 영상 배열

Ⅲ. 주요 내용

- 상기 방식을 바탕으로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의 고지형과 주변의 지형 환경 분석을 진행하였다.
-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적과 주변의 지형에 대한 주요한 특징은 다음의 <표 1>, <그림 7-8>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지와 주변에서 관찰되는 고지형

번호	관찰된 지형	설명
1	평탄화된 충적지대 (단구?)	<p>분석대상지역과 주변에서 넓은 범위로 관찰된다. 충적지대는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이며, 평면은 세장한 삼각형의 모습을 띤다.</p> <p>충적단구의 북동쪽으로는 산지가 자리하며, 서쪽으로는 북한강과 남쪽으로는 남한강과 만나고 있다.</p> <p>충적단구는 북동쪽에 자리한 산지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과 남한강과 북한강에 의해 퇴적된 쇄설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파악된다. 단구의 정상부는 평탄하며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동서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북서와 남쪽에 위치한 강가 근처에는 단애면이 뚜렷하게 확인된다.</p> <p>현재 팔당댐의 건설로 인해 주변의 낮은 지대가 수몰된 상태여서 유적이 자리잡은 충적단구 지대는 하중도의 지형 모습으로 관찰된다. 댐 건설 이전에는 동쪽의 육지와 연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p>
2	구유로?	<p>충적단구의 동쪽에서 북동 남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모습으로 관찰된다. 북쪽의 양수3리에서 시작된 북한강이 두물머리 나루터가 자리한 지역까지 길게 이어진 모습이다. 현재는 강물에 의해 수몰된 상태이나 이전에는 건조지의 유로 형태로 남겨져 있었다. 유로 내부는 북쪽과 남쪽으로 경사지는 모습이다. 양수대교 부근의 북쪽지역 유로는 남에서 북으로 경사지는 모습이며, 양수대교의 남쪽지역 유로는 북에서 남으로 경사진 모습으로 파악된다. 충적단구에서 흐르는 우수와 동쪽에 자리한 산지 등에서 흘러 내려온 우수 등의 배수지로 볼 수 있다.</p>
3	평탄지대 내 배수로와 집수지	<p>양수대교 남쪽의 평탄지대 중앙에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수로 형태가 3개소에서 관찰된다.</p> <p>3-1호 수로는 평탄지대의 중앙에서 동쪽과 서쪽의 양옆으로 향하고 있다. 서쪽 방향의 수로는 형태가 크고 깊은 모습이며 동쪽 방향의 수로는 그보다 작은 편이다. 동쪽 수로는 유로(2번 지형)의 방향으로 향하다 경사지 근처에서 남쪽방향으로 진행한다. 수로는 구유로와의 경계면을 따라 남쪽으로 진행하며 중앙부근에서 원형의 흑색 마크가 확인된다. 원형의 흑색 모형은 정확한 성격은 불명하나 수로와의 관계로 보아 우수 등의 집수지로 추정된다. 집수지에서부터는 다시 유로의 경계면을 따라 수로가 남한강 유역까지 연결되는 모습이다.</p> <p>3-2호 수로는 평탄지의 중앙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만 관찰된다. 집수지 등의 지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서쪽 평탄지 내부의 우수 등이 배수되는 수로로 파악된다.</p> <p>3-3호 수로는 분석대상지역과 인접하여 확인된다. 평탄지대의 중앙에서 동쪽 방향으로 향하다 북한강 유역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 배수장소는 현재 두물머리 나루터가 위치한 곳과 거의 일치하는 지점이다.</p>
4	단애면 하부 평탄면	<p>충적단구의 단애면 아래에서 확인되는 지형이다. 단구 평탄지대와 연결되나 하천에 의해 침식 되어 형성된 장소로 파악된다. 이 지역은 하천에 의해 운반되어온 토사의 퇴적이 이루어진 지형으로 모래사구의 형태로도 보여진다. 현재 이 지형은 한강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매몰되어 관찰되지 않는다.</p>

IV. 분석 결과

분석대상지역은 구 양수대교에서 남쪽으로 약 1,200여m 떨어진 주택(상업)지에 해당한다. 본 지역은 상업시설 건설에 앞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함께 당시의 매몰된 지형 또한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발굴조사 결과와 금번 고지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유적과 주변지역의 고지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지역과 주변은 북쪽과 동쪽의 산지에서 흘러내려온 쇄설성 토사와 북쪽과 남쪽의 강변에 의해 퇴적된 토사, 그리고 한강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단애면을 가진 충적 단구지형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팔당댐의 건설로 인해 한강의 수위가 상승함으로 단애면 일부와 동쪽의 구하도로 추정되는 유로가 수몰되어 분석대상지역은 하중도의 형태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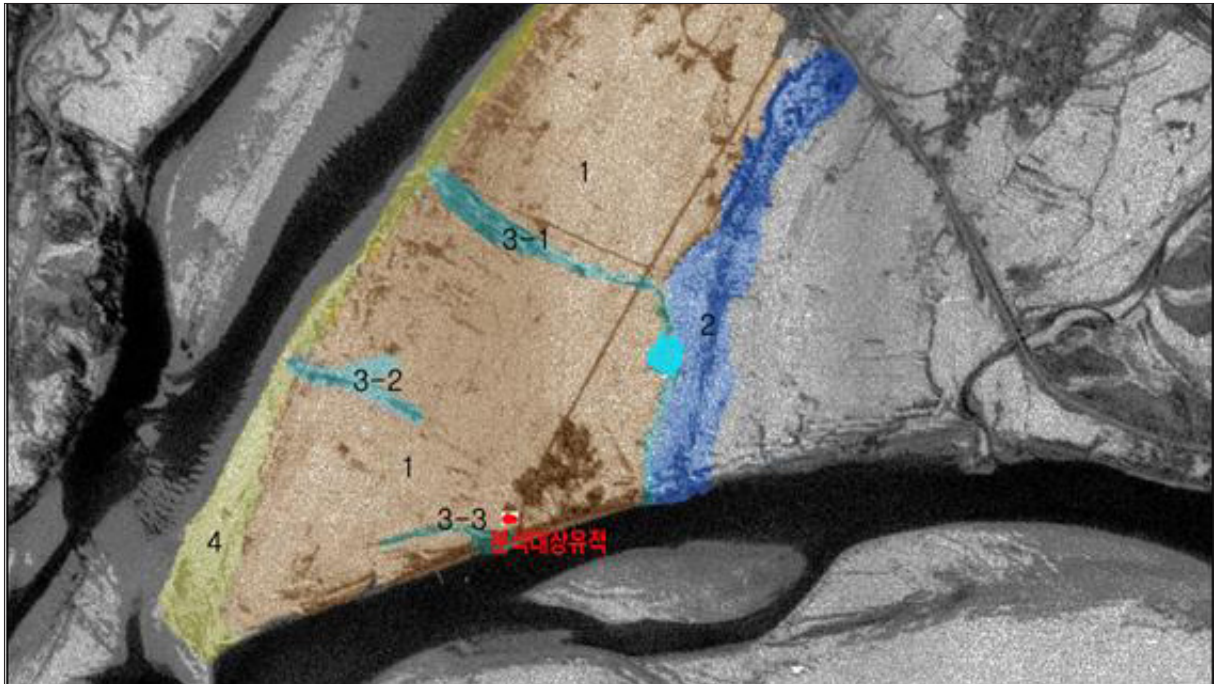
- 유로는 북쪽의 북한강에서 남쪽의 남한강까지 길게 이어지는 모습인데, 북한강의 유로가 이곳으로 흐르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로는 동쪽에 자리한 산지에서 흘러 내려온 우수가 북쪽과 남쪽의 양 방향으로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며, 60년대 이전까지는 강의 흐름이 전혀 없었던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북한강의 자연스런 유로 방향과 절토된 듯이 관찰되는 지형 모습으로 보아 오래전 유로로 이용되었으나 어느 시점에 강의 수위 하강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충적단구의 평탄지대 내부에서 관찰되는 소규모의 지천 또는 수로는 동서방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평탄지대의 몇 지점 내 위치하는 점에서 이곳에 자리한 취락의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경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불어 취락 내 우수의 배수지로서 기능적 성격도 같이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수로 등의 지형은 평탄지대에 입지한 취락유적들에서는 구상유구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사한 성격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수로들 중 특이한 점은 3-1호 수로의 동쪽에서 확인되는 원형의 표식 형태 지형이다. 지형 내 배수로의 기능 뿐 아니라 집수지로서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지형이다. 취락과 관련한 시설물의 형태일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수로의 방향이 집수지 근처에서 바로 동쪽의 유로 지형으로 향하지 않고 남쪽의 남한강으로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 관찰되는데, 이는 인위적 수로 건설의 흔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처럼 상기한 고지형 분석결과로는 분석대상지역과 주변은 대체로 좋은 입지 조건을 보이며, 취락과 관련한 지형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입지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고 평탄한 대지, 그리고 주변을 흐르는 하천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간의 거주에 매우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분석대상지역 내 유적의 존재는 그러한 사실을 높이고 있다.

- 본 분석은 과거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지형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 실제 확인된 유적 내 세밀한 지형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 확실한 유적과 주변의 고지형을 밝히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세한 지형자료들과 함께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실시되어야 한다. 추후 주변 지역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될 시 고지형분석 결과와 대비하여 유적의 전체적인 입지 환경을 같이 살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내 고지형분석 결과(1969년)



〈그림 8〉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내 고지형분석 결과(2018년)

자문위원 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양평 양수리(70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유적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		
조사 면적	376㎡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사 기간	2019. 1. 2 ~ 2019. 1. 22(실 15일)	회의 일시	2019. 1. 10(8시)
유적 현황 및 성격	<p>발굴조사 결과, 376㎡의 협소한 범위 내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3동, 수혈유구 5기 이상, 조선시대 건물지 1동 이상 등이 동일한 층위 내에서 밀집되어 확인되었다.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조사지역 경계에 대부분 맞물려 있으며, 노출되는 형태로 보아 사업 범위(743㎡) 안쪽의 발굴조사지역 외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적심 건물지로 확인된다. 유물은 주거지 내에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 적심 내부에서 백자편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p>		
조사기관 의견 검토	<p>1. 전사경과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3동)와 조선시대 적심건물지(2동)가 확인되었음 관련유물이 풍부함. 2. 현조사상태를 볼때 조사지역 외곽의 신축부지에 유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에 주거지의 지반상태가 뚜렷한. 그러나 현조사지역의 유구하층에든 유구의 지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이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하여 현재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신축지역 외곽에 걸쳐 관련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신축범위의 유구 출토 상황은 관련 참조) 4. 신축지역이든 신축지역이든 고려하여 현재 확인된 유구 지반 범위를 늘려 유구 관련 조사를 실시함.</p>		
추가 의견			
자문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세종대학교	하문식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박준범
2019년 1월 10일			

자문위원 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양평 양수리(70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유적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		
조사 면적	743㎡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사 기간	2019. 1. 2 ~ 2019. 3.21(실 35일)	회의 일시	2019. 3. 21(9시)
유적 현황 및 성격	<p>발굴조사 결과, 743㎡의 협소한 범위 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조선시대 적심 건물지 등 모두 70기 이상의 생활유적이 층위를 달리하여 중첩 및 중복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조사지역 서쪽을 중심으로 동-서 축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남-북을 장축으로 조사되고 있다. 노출되는 형태로 보아 사업범위(743㎡) 밖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적심 건물지로 확인된다. 유물은 주거지 내에서 석부, 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 직구소호 등의 백제토기, 백자편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p>		
조사기관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지역의 북쪽으로 청동기시대 ~ 원삼국시대 대규모 취락이 인접해 있음. 하나의 대규모 단위취락 유적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 조선시대 문화층, 원삼국시대 ~ 한성백제병행기 문화층 3개 이상, 청동기시대 문화층 1개 등 5개층 이상의 문화층이 확인됨. ◦ 유적의 중복양상이 복잡하여 원삼국~삼국시대 문화층에 대하여 중복관계를 파악한 후, 순차적으로 기층구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 ◦ 이후 청동기시대 문화층 양상을 파악한 후 조사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후, 조사를 단계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 		
추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이 문화관광지인만큼 관광객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내용 및 유물관라게 판정을 가할 것. 		
자문위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연세대학교	하문식	승실대학교	박경신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영		
2019년 3월 21일			

자문위원 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양평 양수리(708-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유적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		
조사 면적	743㎡	조사기관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사 기간	2019. 1. 2 ~ 2019. 5.22(실 70일)	회의 일시	2019. 5. 22(11시)
유적 현황 및 성격	<p>발굴조사 결과, 743㎡의 협소한 범위 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조선시대 적심 건물지 등 모두 80기 내외의 생활유적이 층위를 달리하여 중첩 및 중복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조사지역 서쪽을 중심으로 동-서 축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남-북, 동-서 등 다양하다. 현재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呂자형,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적심 건물지로 확인된다. 유물은 주거지 내에서 석부, 무문토기, 경질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 직구소호 등의 백제토기, 백자편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p>		
조사기관 의견 검토	<p>○ 총 6개의 문화층이 확인됨. - 청동기시대 문화층. - 원삼국시대 II-1기 ~ 한성백제병합기 해당 문화층 (3개층) - 조선시대 건물지. ○ 조사결과 8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조사가 완료된 후 그 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주변 조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에서 철저히 기록보존을 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함. ○ 기록 보존시 1호 주거지는 주축방향을 중심으로 사설계를 구축하여 성곽한 구조와 구조 관련 자료를 사진으로 남길 것. ○ 향후 양수리지역의 학술자료 확보를 위하여 고지형분수를 실시하기 바람. ○ 조사 완료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토를 즉시 실시할 것.</p>		
추가 의견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 현 병	서울시립대학교	신 희 권 (인)
숭실대학교	박 경 신		
2019년 5월 22일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공열문토기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33.1	32.2	(0.7~0.9)	11-1 5-1	
2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1.8	(9.3)	(0.6~1.1)	11-2 5-2	
3	적색마연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8.1	-	8.3	11-3 5-3	
4	무문토기 동체부편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26.1)	(33.7)	(0.8~1.1)	11-4 5-4	
5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7.75	-	8.7	12-5 5-5	
6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5.2	-	8.0	12-6 5-6	
7	주상편인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3.3)	(3)	(2.1)	12-7 6-7	
8	무경식 석촉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3.2)	(1.2)	(0.3)	12-8 5-8	
9	유경식 석촉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7.0)	(1.7)	(0.4)	12-9 5-9	
10	석재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9.7)	(2.2)	(0.6)	12-10 6-10	
11	방추차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7.0)	-	(0.9)	12-11 6-11	
12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1.8)	(7.7)	(3.7)	12-12 6-12	
13	합인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6.5)	(7.7)	(2.7)	12-13 6-13	
14	석재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7.4)	(4.8)	(1.2)	12-14 6-14	
15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2.7)	(4.7)	(1.6)	13-15 7-15	
16	합인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8.5)	(4.0)	(1.0)	12-16 7-16	
17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9.1)	(3.5)	(1.7)	13-17 7-17	
18	석재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0.7)	(6.4)	(2.1)	13-18 7-18	
19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9.2)	(3.5)	(1.9)	13-19 7-19	
20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1.5)	(4.8)	(1.8)	13-20 7-2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1	석재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8.2)	(4.6)	(1.9)	13-21 7-21	
22	석재	1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6.8)	(6.9)	(4.6)	13-22 7-22	
23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4.2	(17.5)	(0.8~1.1)	15-23 8-23	
24	무문토기 토기편	1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8.2	17.5	(0.5~0.9)	17-24 9-24	
25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5.5	-	9.4	17-25 9-25	
26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0.2	-	9.5	17-26 9-26	
27	합인석부	1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3.9)	(6.1)	(2.4)	17-27 9-27	
28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3.0)	(5.4)	(2.7)	17-28 9-28	
29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0.4	(9.7)	(0.3~0.9)	19-29 10-29	
30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6.5	(5.7)	(0.8~1.3)	19-30 10-30	
31	적색마연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4.2	(5.5)	(0.3~0.6)	19-31 10-31	
32	반달돌칼	1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4.2)	(8.5)	(0.7)	19-32 10-32	
33	미완성석창	1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4.9)	(4.6)	(1.2)	19-33 10-33	
34	석촉	1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2.6)	(1.0)	(0.2)	21-34 11-34	
35	적색마연토기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9.3	8.5	(0.3~0.6)	23-35 12-35	
36	적색마연토기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9.3	9.1	(0.3~0.5)	23-36 12-36	
37	적색마연토기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8.3	9.1	(0.3~0.5)	23-37 12-37	
38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9.3	(11.1)	(0.5~0.8)	23-38 14-38	
39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8.1	(10.5)	(0.9~1.0)	23-39 14-39	
40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5.0	(11.6)	(0.6~0.8)	23-40 14-4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41	무문토기발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13.5	17.5	8.3	23-41 14-41	
42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5.1	-	10.1	23-42 14-42	
43	무문토기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39.9	27.0	(0.5~0.9)	24-43 13-43	
44	무문토기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40.1	19.0	(0.6~1.1)	25-44 13-44	
45	대형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23.8	-	7.6	24-45 14-45	
46	대형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26.8	-	9.8	25-46 14-46	
47	반달돌칼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4.3)	(12.2)	(0.9)	26-47 14-47	
48	석검 병부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3.5)	(4.0)	(0.8)	26-48 15-48	
49	방추차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6.4)	(6.3)	(1.0)	26-49 15-49	
50	성형석부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5.3)	(9.4)	(1.8)	26-50 15-50	
51	편인석부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0.9)	(4.3)	(2.8)	26-51 15-51	
52	합인석부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20.0)	(8.2)	(3.2)	27-52 15-52	
53	합인석부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1.0)	(6.7)	(3.6)	26-53 15-53	
54	외면찍개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5.3)	(13.8)	(4.9)	27-54 16-54	
55	격지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9.2)	(11.3)	(3.8)	27-55 16-55	
56	석재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0.1)	(4.8)	(2.3)	26-56 16-56	
57	석재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6.5)	(5.1)	(1.5)	26-57 16-57	
58	석재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9.7)	(10.7)	(5.3)	28-58 16-58	
59	석재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6.6)	(11.2)	(7.6)	28-59 16-59	
60	대석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2.5)	(6.7)	(3.5)	29-60 16-6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61	대석	1	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9.3)	(13.9)	(3.9)	29-61 16-61	
62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4.5	-	9.4	32-62 18-62	
63	석촉	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5.0)	(1.85)	(0.65)	32-63 18-63	
64	석검 병부	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6.15)	(5.3)	(0.75)	32-64 18-64	
65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7.6)	(3.7)	(1.5)	32-65 18-65	
66	석재	1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6.1)	(3.5)	(0.8)	32-66 18-66	
67	합인석부	1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2.5)	(4.4)	(2.4)	34-67 19-67	
68	석재	1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2.5)	(6.2)	(2.7)	34-68 19-68	
69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3.3	-	8.3	35-69 20-69	
70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4.8	6.6	0.45~1.6	35-70 20-70	
71	석재	1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7.2)	(3.3)	(2.1)	35-71 20-71	
72	석재	1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4.0)	(7.8)	(1.4)	35-72 20-72	
73	석재	1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4.9)	(9.2)	(5.6)	35-73 20-73	
74	공열문토기	2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35.8 4.6	29.2	9.7	37-74 24-74	
75	적색마연토기완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8.6	15.8	(0.4~0.9)	38-75 23-75	
76	적색마연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4.0	-	6.8	38-76 23-76	
77	무문토기 동체부편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9.0	(13.3)	(0.6~0.9)	38-77 23-77	
78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5.8	-	7.6	38-78 23-78	
79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4.0	-	9.8	38-79 23-79	
80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토도	청동기	3.9	-	8.8	38-80 24-8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81	유경식석촉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5.3)	(1.1)	(0.4)	39-81 24-81	
82	유경식석촉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5.2)	(1.5)	(0.5)	39-82 24-82	
83	유경식석촉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8.3)	(2.5)	(1.0)	39-83 24-83	
84	석재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1.7)	(7.1)	(2.5)	39-84 24-84	
85	석재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1.9)	(4.3)	(3.1)	39-85 25-85	
86	석재	1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4)	(6.8)	(2.6)	39-86 25-86	
87	유경식석촉	1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5.0)	(1.2)	(0.5)	42-87 25-87	
88	미완성석부	1	청동기시대 14호 주거지	옥석 유리	청동기	(14.2)	(6.8)	(2.8)	42-88 25-88	
89	공열문토기	2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	토도	청동기	34.2	36.0	(0.5~0.9)	44-89 26-89	
90	무문토기 저부편	1	청동기시대 1호 구상유구	토도	청동기	3.6	-	6.7	44-90 26-90	
91	경질무문토기발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0	10.5	6.5	49-91 33-91	
92	경질무문토기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9.3	7.8	6.8	49-92 33-92	
93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3.4	16.2	10.8	49-93 33-93	
94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9.7	18.6	8.3	49-94 33-94	
95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5.0	13.3	8.6	49-95 34-95	
96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7.9	21.0	(0.45~ 1.1)	49-96 34-96	
9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9.7	16.0	(0.6~1.2)	50-97 34-97	
98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5	19.2	(0.4~ 0.85)	50-98 34-98	
99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5	11.2	(0.5~ 0.85)	50-99 34-99	
100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7.2	(10.6)	(0.6~ 0.95)	50-100 34-10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0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6	(9.6)	(0.6~0.8)	50-101 34-101	
102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2	(9.1)	(0.4~1.1)	50-102 34-102	
103	경질무문토기편	2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1 8.9	-	9.8	50-103 34-103	
104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2.0	-	(0.6~1.1)	50-104 35-104	
105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0	-	9.4	51-105 35-105	
10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1	-	11.2	51-106 35-106	
10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8	-	8.5	51-107 35-107	
108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5	-	8.5	51-108 35-108	
109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2	-	8.2	51-109 35-109	
110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4	-	8.2	51-110 35-110	
11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4	-	7.9	51-111 35-111	
11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5	-	7.2	51-112 35-112	
113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1	8.9	(0.35~ 0.8)	52-113 35-113	
114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7.0	11.6	(0.4~0.7)	52-114 36-114	
115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8	15.2	(0.5~0.7)	52-115 36-115	
116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2	18.4	(0.6~1.1)	52-116 36-116	
117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7.4	(11.5)	(0.55~ 0.85)	52-117 36-117	
118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1	-	(0.6~0.8)	52-118 36-118	
119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2	(13.5)	(0.45~ 0.75)	52-119 36-119	
120	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4	-	(1.05 ~1.5)	53-120 36-12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21	타날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5	27.7	(0.5~ 0.65)	53-121 36-121	
122	타날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3	23.1	(0.6~0.8)	53-122 36-122	
123	타날문토기 파수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7	(15.9)	(0.85)	54-123 36-123	
124	타날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1	(5.7)	(0.8~1.2)	54-124 36-124	
125	미완성석부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원삼국 ~삼국	(7.3)	(5.4)	(2.3)	54-125 36-125	
126	석재	1	원삼국~삼국 1호 주거지	옥석 유리	원삼국 ~삼국	(13.0)	(7.3)	(2.9)	54-126 36-126	
127	경질무문토기웅	1	원삼국~삼국 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9.9	35.3	(0.7~1.2)	56-127 39-127	
128	경질무문토기웅	1	원삼국~삼국 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1.6	28.3	(0.8~1.1)	56-128 39-128	
129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9.2	15.0	(0.65~ 1.15)	56-129 39-129	
130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1	(6.2)	(0.55 ~0.9)	56-130 39-130	
13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5	-	8.2	56-131 39-131	
132	호	1	원삼국~삼국 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7.5	(15.7)	(0.6~ 0.95)	56-132 39-132	
133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3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3.6	(14.5)	(0.7~0.9)	58-133 41-133	
134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3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5	(8.95)	(0.4~ 0.75)	58-134 41-134	
135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3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6	(14.7)	(0.7~1.1)	58-135 41-135	
136	호	1	원삼국~삼국 3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6.9	(13.0)	(0.6~0.9)	58-136 41-136	
13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1	(14.3)	(0.7~1.1)	60-137 43-137	
138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4.1	(21.2)	(0.9~1.1)	60-138 43-138	
139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5	-	13.3	60-139 43-139	
140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8	8.0	(0.85 ~2.0)	60-140 43-14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4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3	-	7.5	60-141 43-141	
142	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1	11.4	(0.45 ~0.7)	60-142 43-142	
143	호	1	원삼국~삼국 4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3	-	(0.35 ~0.8)	60-143 43-143	
144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7.9	21.3	(0.55 ~1.9)	63-144 45-144	
145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9.7	(12.7)	(0.6~0.9)	63-145 45-145	
14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4	-	9.0	63-146 45-146	
14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3.1	-	11.2	63-147 45-147	
148	장란형토기	2	원삼국~삼국 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6.5 25.2	20.0	(0.55 ~1.1)	64-148 45-148	
149	합	1	원삼국~삼국 9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3.0	19.4	13.2	68-149 47-149	
150	호	1	원삼국~삼국 9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9	(16.3)	(0.7~1.1)	68-150 47-150	
151	미완성석부	1	원삼국~삼국 9호 주거지	옥석 유리	원삼국 ~삼국	(7.9)	(4.8)	(10.1)	68-151 47-151	
152	경질무문토기옹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1.4	19.0	10.75	70-152 48-152	
153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0	16.2	(0.55 ~0.9)	70-153 48-153	
154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3	-	(0.55 ~0.9)	70-154 48-154	
155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25	-	7.3	70-155 48-155	
15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0	-	12.8	70-156 48-156	
15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2	-	17.5	70-157 48-157	
158	호	1	원삼국~삼국 10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2.8	-	(0.55 ~1.0)	71-158 48-158	
159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9.5	(7.8)	(0.6~1.1)	74-159 49-159	
160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8	(8.1)	(0.5~0.8)	74-160 49-16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61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2	-	8.4	74-161 49-161	
162	호	1	원삼국~삼국 1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4.7	(11.7)	(0.6~0.8)	74-162 49-162	
163	호	1	원삼국~삼국 11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2	24.1	(0.55~ 0.9)	74-163 49-163	
164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5	(8.5)	(0.55~ 0.9)	76-164 50-164	
165	경질무문토기 토기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8	(9.3)	(0.6~0.8)	76-165 50-165	
166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4	-	7.1	76-166 50-166	
16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3	(5.9)	(1.1~2.0)	76-167 50-167	
168	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6	(9.6)	(0.85~ 0.95)	76-168 50-168	
169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6	(8.9)	(0.75~ 0.95)	76-169 50-169	
170	토기 파수부편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6	(10.6)	(0.75~ 1.8)	76-170 50-170	
171	지석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원삼국 ~삼국	(19.0)	(4.1)	(5.3)	76-171 50-171	
172	석재	1	원삼국~삼국 12호 주거지	옥석 유리	원삼국 ~삼국	(8.6)	(5.3)	(3.0)	76-172 50-172	
173	경질무문토기용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7	9.0	6.6	80-173 52-173	
174	경질무문토기용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1.3	14.7	9.2	80-174 52-174	
175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5	18.1	(0.4~ 0.85)	80-175 52-175	
176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9.2	(10.2)	(0.5~ 0.9)	80-176 52-176	
17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7.1	(8.3)	(0.3~1.3)	80-177 52-177	
178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7	(17.2)	(0.8~1.1)	80-178 52-178	
179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8.2	(13.2)	(0.5~0.8)	81-179 52-179	
180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0.5	(18.9)	(0.6~0.9)	81-180 52-18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81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27.0	(26.7)	(0.7~1.4)	81-181 52-181	
18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3.75	-	13.8	82-182 52-182	
183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5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5	-	9.0	82-183 52-183	
184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3	(8.8)	(0.7~1.0)	84-184 53-184	
185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16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11.8	(12.3)	(0.65~ 0.9)	84-185 53-185	
186	경질무문토기 뚜껑	1	원삼국~삼국 18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2	-	(0.9~ 0.25)	87-186 53-186	
187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8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7.8	(6.5)	(0.4~ 0.85)	87-187 53-187	
188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8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2	-	7.0	87-188 53-188	
189	호	1	원삼국~삼국 18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5.5	17.4	(0.5~0.7)	87-189 53-189	
190	호	1	원삼국~삼국 18호 주거지	토도	원삼국 ~삼국	6.2	(8.5)	(0.7~1.0)	87-190 53-190	
19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1호구상유구	토도	원삼국 ~삼국	9.3	12.5	(0.7~1.0)	89-191 55-191	
192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원삼국~삼국 1호구상유구	토도	원삼국 ~삼국	5.0	-	16.0	89-192 55-192	
193	소호	1	원삼국~삼국 1호구상유구	토도	원삼국 ~삼국	7.9	6.5	6.0	89-193 55-193	
194	호	1	원삼국~삼국 1호구상유구	토도	원삼국 ~삼국	14.3	17.6	(0.55~ 1.2)	89-194 55-194	
195	호	1	원삼국~삼국 2호구상유구	토도	원삼국 ~삼국	5.9	(11.6)	(0.4~0.6)	91-195 55-195	
196	뚜껑	1	원삼국~삼국 1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7.0	-	(0.6~0.9)	93-196 56-196	
197	뚜껑	1	원삼국~삼국 1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4.6	-	(0.45~ 1.2)	93-197 56-197	
198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2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10.6	(14.1)	(0.8~1.1)	95-198 56-198	
199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2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8.3	(10.2)	(0.95~ 1.0)	95-199 56-199	
200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2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6.3	(7.5)	(0.55~ 0.8)	95-200 56-20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3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8.6	(11.3)	(0.7~1.0)	97-201 56-201	
202	뚜껑	1	원삼국~삼국 3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3.8	19.8	(0.35~ 0.8)	97-202 56-202	
203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1	원삼국~삼국 3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3.1	(4.8)	(0.4~ 0.6)	97-203 56-203	
204	호	1	원삼국~삼국 3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7.0	17.3	(0.4~ 0.7)	97-204 56-204	
205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3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8.2	(8.9)	(0.7~0.9)	97-205 56-205	
206	경질무문토기용	1	원삼국~삼국 4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22.9	11.9	9.6	99-206 57-206	
207	경질무문토기용	2	원삼국~삼국 4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23.1	13.4	10.0	99-207 57-207	
208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6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6.4	(10.8)	(0.75~ 0.9)	102-208 57-208	
209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	원삼국~삼국 6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7.1	(8.5)	(0.45~ 0.6)	102-209 57-209	
210	호	1	원삼국~삼국 6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17.5	-	(0.55~ 0.9)	102-210 57-210	
211	호	1	원삼국~삼국 7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8.0	(11.0)	(0.7~0.9)	104-211 58-211	
212	심발형토기	1	원삼국~삼국 7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3.35	-	9.0	104-212 58-212	
213	호	1	원삼국~삼국 8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11.7	(9.8)	(0.5~0.7)	106-213 58-213	
214	석재	1	원삼국~삼국 15호 수혈	토도	원삼국 ~삼국	(12.3)	(7.6)	(2.3)	114-214 59-214	
215	백자접시	1	조선시대 1호 건물지	토도	조선	3.6	15.0	5.1	123-215 62-215	
216	도기 저부편	1	조선시대 4호 수혈	토도	조선	5.1	-	25.0	126-216 64-216	
217	수키와	1	조선시대 4호 수혈	토도	조선	(34.3)	(15.4)	(0.8~ 3.4)	126-217 63-217	
218	암키와	1	조선시대 4호 수혈	토도	조선	(14.1)	(15.5)	(1.6~1.9)	127-218 63-218	
219	암키와	1	조선시대 4호 수혈	토도	조선	(11.5)	(11.3)	(1.8~2.2)	127-219 64-219	
220	도기동이	1	조선시대 7호 수혈	토도	조선	7.1	28.4	(0.3~0.8)	131-220 65-220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21	청화백자발	1	조선시대 7호 수혈	토도	조선	6.0	-	5.8	131-221 65-221	
222	수키와	1	조선시대 7호 수혈	토도	조선	(12.9)	(12.8)	(1.8~3.1)	132-222 65-222	
223	수키와	1	조선시대 7호 수혈	토도	조선	(11.8)	(7.4)	(1.95~ 2.2)	132-223 65-223	
224	도기대웅	2	조선시대 8호 수혈	토도	조선	40.8 30.1	49.2	37.5	134-224 66-224	
225	경질무문토기옹	1	제토 중 수습	토도	원삼국 ~삼국	36.7	20.3	12.2	137-225 67-225	
226	토기 구연부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원삼국 ~삼국	8.0	10.8	(0.4~0.8)	137-226 67-226	
227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1	제토 중 수습	토도	원삼국 ~삼국	10.0	9.7	0.5~2.3	137-227 67-227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양평 양수리 708-3번지 유적		發行日	2021년 5월 28일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住所	(1687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45(죽전동, 센터프라자빌딩 5층)		
	TEL	(031)265-9144	FAX	(031)265-9145
執筆·編輯者	현남주·이동훈·도병현·박성권·김나운			
許可名	양평 양수리(70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調査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체조사(소규모 국비지원)			
調査擔當者	박상국·현남주·이동훈·도병현·김성수·박성권·반승현·김나운·김우재			
遺蹟所在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708-3번지			
調査面積	743㎡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	14기	공열문토기·적색마연토기·구순각목문토기·무문토기·석축·석부·석창·석검·반달돌칼·방추차	·
	원삼국~삼국	18기	경질무문토기 용·뚜껍·장관형토기·호·타날문토기·파수부·지석	·
구상유구	청동기	1기	공열문토기·무문토기 저부편	·
	원삼국~삼국	2기	소호·호·경질무문토기 토기편	·
	시대미상	1기	·	·
수혈유구	원삼국~삼국	21기	경질무문토기 용·뚜껍·심발형토기·호·석재	·
	조선	8기	백자접시·도기동이·수키와·암키와	·
건물지	조선	1동	청화백자발	·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I	1	경주 황남동 80번지	VII	39	경주 인왕동 809-10번지
	2	논산 월오리 292-4번지		40	경주 황남동 221-5번지
	3	경주 친촌리 802번지	VIII	41	청주 노산리 873번지
	4	청양 온직리 218번지		42	제주 상천리 산99-25번지
	5	공주 교동 100-2번지 외 1필지		43	고령 본관리 102-1번지
	6	고령 강정리 36번지		44	경주 사라리 576-7번지
	7	논산 천호리 282-1번지		45	김해 응달동 760-1번지
	8	합천 합천리 940-4번지		46	고령 본관리 102-6번지
II	9	공주 단지리 97번지 외 2필지	IX	47	춘천 근화동 799-12번지
	10	창원 본포리 103-2번지		48	경주 동천동 373번지
	11	칠곡 달서리 106-3번지		49	영월 주천리 1160-3번지
	12	경주 황남동 229-51번지		50	제주 일도 일동 1300-26번지
	13	부여 쌍북리 419-3번지		51	서귀포 화순리 375-1번지
	14	제주시 삼양1동 1661-15번지		52	서울 인사동 154-8번지
III	15	아산 방축동 24-1번지	X	53	강릉 초당동 292-1번지
	16	서울 청암동 163번지		54	고령 지산리 3-21번지
	17	여수 선원동 450-1번지		55	경산 점촌동 79번지
	18	부여 쌍북리 419-6번지		56	김해 대성동 133-7번지
	19	강화 사기리 산51번지		57	경주 금장리 513번지 외 1필지
	20	홍천 외삼포리 1364-1번지		58	춘천 천전리 78-5번지
	21	김해 동상동 590번지		XI	59
IV	22	함안 괴산리 363-2번지	XII	60	성주 기산리 962-1번지
	23	경주 성건동 326-1번지		61	김해 서상동 232-3번지
V	24	경주 황오동 5-8번지		62	세종 월하리 682-6번지
	25	서울 통의동 7-16번지		63	서울 신당동 247-59번지
	26	부여 동남리 206-9번지		64	고성 학림리 739-19번지
	27	제주 상천리 산99-17번지		65	강릉 강문동 127-1번지
	28	남원 왕정동 산15-4번지	66	세종 월하리 682-21번지	
VI	29	가평 읍내리 601-10번지	XIII	67	경주 황오동 2-17번지
	30	제주 외도 1동 107-5번지		68	경주 황남동 467번지
	31	서울 목정동 25-12번지	XIV	69	고령 지산리 232-116번지
	32	서울 체부동 118-20번지		70	문경 갈평리 408번지
	33	창녕 효정리 825-2번지		71	경주 황남동 297-1번지
	34	김해 동상동 965-4번지		72	산청 강누리 462-2번지
	35	청주 송절동 407번지		73	오산 세교동 501-7번지
VII	36	공주 봉황동 176번지	74	청주 상평리 27-5번지	
	37	부여 쌍북리 325-6번지	75	청주 상평리 27-14번지	
	38	춘천 울문리 249-27번지	XV	76	제주 오라이동 2220번지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V	77	경주 성동동 172-2번지	XXI	118	구미 동부리 415번지	
	78	세종 월하리 682-9번지		XXII	119	춘천 근화동 797-1번지
	79	고령 고아리 5-2번지			120	상주 분황리 897번지
	80	세종 월하리 682-8번지			121	고성 성내리 283-2번지 외 2필지
	81	서울 원서동 46번지			122	경주 노서동 117-7번지
	82	경주 사정동 116-10번지			123	고령 박곡리 557-1번지 외 1필지
XVI	83	제주 화순리 522번지	XXIII		124	금산 중도리 72-6번지
	8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125	무안 양장리 1117-2번지	
XVII	85	평창 유동리 192번지	XXIV	126	평창 하리 242번지	
	86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127	부여 군수리 157-3번지 외 1필지	
	87	강릉 초당동 394-3번지		128	군산 선유도리 353번지	
	88	제주 삼양 일동 1543-13번지		129	순천 행동 121-2번지	
	89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130	강릉 초당동 271-9번지	
	90	평택 대반리 405-148번지		131	강릉 초당동 271-21번지	
XVIII	91	경주 황남동 239-9번지	XXV	132	경주 노서동 132-51번지	
	92	고창 법지리 902번지		133	경주 노서동 132-1번지	
	93	춘천 소양로1가 100-10번지		134	경주 노서동 132-52번지	
	94	춘천 산천리 433번지		135	대구 남성로 29번지	
	95	울산 은편리 586번지		136	서울 저동2가 3-1번지	
	96	김해 초정리 383-23번지		137	대구 이천동 338-5번지	
	97	공주 반죽동 342번지		138	김해 관동동 109-1번지	
XIX	98	성주 대흥리 834-7번지 외 2필지	XXVI	139	양평 운심리 86-16번지	
	99	경주 황남동 228-3번지 외 1필지		140	공주 반죽동 205-1번지	
	100	양평 송현리 284-8번지		141	경주 황남동 226-22번지	
	101	경주 서악동 895-3번지 외 2필지		142	춘천 산천리 435-1번지	
	102	대구 비산동 270-8번지		143	경주 래태리 891번지	
	103	경주 사정동 488-1번지		144	서울 누하동 107-2번지	
	104	부산 죽성리 662-1번지		145	청송 송생리 277번지	
XX	105	춘천 소양로1가 92-26번지	XXVII	146	홍천 하화계리 175-14번지	
	106	공주 봉황동 204번지		147	경주 광명동 276-1번지	
	107	충주 칠금동 400-4번지		XXVIII	148	김해 담안리 485-20번지
	108	가평 읍내리 626-6번지	149		광주 상림리 129번지	
	109	경주 냉천리 75번지	150		제주 삼양1동 1666-2번지	
	110	제주 용담 2동 2706-7번지	151		제주 광령리 1607-1번지	
	111	부산 임기리 794번지	152		부여 쌍북리 329-2번지	
	112	평창 중리 137-7번지	153		경주 성건동 178-7번지	
	113	함안 도항리 111-5번지	154	부여 쌍북리 329-6번지		
XXI	114	가평 읍내리 764-6번지 외 2필지	XXIX	155	서귀포 강정동 3162-3번지	
	115	고령 지산리 402번지		156	함안 묘사리 산134-10번지	
	116	청주 사인리 산13-1번지 외 2필지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117	공주 교동 183-3번지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학술조사보고 제433책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

| 83 ~ 84 |

2021년 6월 16일 印刷

2021년 6월 18일 發行

編輯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s://www.chf.or.kr>)

發行 : 한국문화재재단(<https://www.chf.or.kr>)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1577-5805 Fax. 054)774-8169

ISBN 978-89-6433-340-2

978-89-6433-018-0(세트)

印刷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디지털사업단

Tel. 053)965-7277 Fax. 053)965-7256
